Collections of Data on Gaya

Archaeological Research on Gaya Ⅱ

가야 자료 총서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Ⅱ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Ⅱ

Archaeological Research on Gaya II

발간사

가야는 옛 기록이 많지 않아 온전한 모습을 밝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고분을 중심으로 가야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한국 고대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문헌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가야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지속되어 왔고 그에 따른 수많은 자료가 축적되었으나 이를 한 곳에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이번에 발간하는 『가야 자료 총서 1~7권』은 지금까지 축적된 가야에 대한 자료 가운데 문헌사료, 일제강점기자료, 발굴조사자료와 국내에서 발표된 논저도 함께 집성하였습니다.

「가야 문헌 사료편」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국내 문헌 및 일본서기, 삼국지 등 국외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904개의 사료를 주요 표제로 묶고, 이 표제를 연도순으로 편집하였습니다. 가야의 주요 역사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야 일제강점기 자료편」은 1907년 김해 회현리패총을 시작으로 1939년 고령 지산동 고분군 39호분(현 5호분) 조사까지 영남지역에서 행하여졌던 가야 관련 유적을 지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총 8개 시·군의 33개 유적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유적 조사 현황과 조사내용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또 김해, 양산 등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엽서나 야장 내용을 통해 조사 당시의 구체적인 모습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은 목관묘 단계에서부터 6세기 중엽까지 경남, 경북 고령, 호남 동부지역의 38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통해 가야와 관련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 638개 유적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영·호남뿐만 아니라 서울, 충청, 강원지역에서 가야 유물이 출토된 유적 90개소도 함께 소개하여 국내 가야의 조사 정보를 총망라하였습니다. 특히 유적의 좌표를 기반으로 정확한 위치와 범위를 나타내어 학술자료뿐만 아니라 정비·보존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발간하였습니다.

「가야 논저 목록편」은 고대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가야와 관련된 문헌자료, 금석문자료, 지표·발굴조사보고서, 도록 등 기초자료와 주제별 논저자료를 모아 총 5,164건을 수록하였습니다. 또 저자별, 지역별, 각 가야별 색인을 부록으로 붙여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앞으로도 일본 내 가야 유적·유물 자료, 국외에서 발표된 논저목록 등을 정리한 총서를 추가 발간하고 자료의 최신화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가야 역사문화자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통해 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가야 관련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자료 총서가 가야사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라며, 대중적으로도 가야사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많은 회의에 참석하시어 총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자문위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원고 집필과 수차례에 걸친 교정을 흔쾌히 맡아주신 집필위원님, 그동안 가야사 규명을 위해 현장에서 모은 소중한 자료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국·공·사립·대학박물관과 조사·연구기관, 지자체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김 삼 기

일러두기

1. 이 책은 『가야 자료 총서 3~6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으로, 가야 관련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 유적을 수록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목관묘 단계에서부터 6세기 중엽까지의 유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간적인 범위는 경남, 경북 고령, 호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대상지역에는 경남 양산, 부산, 대구 달성, 경북 성주, 호남 지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지역의 가야 유적 여부는 1차적으로 발굴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판단하였다. 이밖의 지역에서 가야 유물이 출토된 유적은 '가야 유물 출토유적'으로 별도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가야 유적은 총 38개 시 · 군 · 구에 소재한 473건 638개소이며, 가야 유물 출토유적은 총 32개 시 · 군 · 구 90개소이다.

2. 이 책은 자문회의와 편집회의를 거쳐 수록 대상 유적 선정, 집필진 구성, 편집 방향 등을 설정하였다. 자문위원과 지역별 · 유형별 집필진은 다음과 같다.

   자문위원(가나다 순)
   곽장근(군산대학교), 나동욱(부산광역시립박물관), 박천수(경북대학교), 배성혁(대동문화재연구원), 이동희(인제대학교), 조근우(마한문화연구원),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하승철(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홍보식(공주대학교)

   집필자(목차 순)
   박천수(경북대학교, 개요, 강원 · 경북 가야 유물 출토유적),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 · 함안 · 창녕 무덤유적), 이해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 · 양산 · 의령 · 거제 생활유적), 심종훈(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 · 창원 · 함안 · 의령 정치 · 국방 · 교통 · 통신유적), 이성훈(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부산 무덤유적), 강석범(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부산 생활유적), 권종호(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양산 · 밀양 · 창원 · 의령 · 거제 무덤유적), 권귀향(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밀양 · 창원 · 함안 · 창녕 생활유적), 이세영(부경문물연구원, 진주 무덤유적), 김주호(부경문물연구원, 진주 생활유적), 장상갑(현대문화재연구원, 합천 · 산청 · 거창 · 함양 · 하동), 공봉석(부경문물연구원, 고성), 유은식(부경문물연구원, 통영 · 남해), 김진철(부경문물연구원, 사천), 배성혁(대동문화재연구원, 고령 · 달성 · 성주), 박성배(순천대학교박물관, 전남), 곽장근(군산대학교, 전북 · 호남 가야 유물 출토유적), 조명일(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전북), 유영춘(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전북), 강원종(전주문화유산연구원, 전북), 전상학(전주문화유산연구원, 전북), 홍보식(공주대학교, 서울 · 충북 · 충남 가야 유물 출토유적)

3. 이 책에 수록된 사진 · 도면 제공기관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가경고고학연구소, 가온문화재연구원, 강산문화연구원, 경남대학교박물관, 경남문화재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경북과학대학교박물관,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경북대학교박물관, 경상대학교박물관, 경상문화재연구원,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경성대학교박물관, 계명대학교박물관, 고령군,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고령문화원, 관동대학교박물관, 국강고고학연구소,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국보학술문화연구원,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군산대

학교박물관, 극동문화재연구원, 김해시, 나라문화연구원, 남도문화재연구원, 다온문화재연구원, 대구가톨릭대학교박물관, 대구보건대학교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 대동문화재연구원,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대한문화재연구원, 덕난문화유산연구원, 동북아지석묘연구소, 동서문물연구원, 동신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동의대학교박물관,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동양대학교박물관, 동양문물연구원, 두류문화연구원, 마한문화연구원, 목포대학교박물관, 복천박물관, 부경대학교박물관, 부경문물연구원,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부산대학교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 불교문화재연구소, 삼강문화재연구원, 삼도문화재연구원, 삼한문화재연구원, 서울대학교박물관,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성림문화재연구원, 순천대학교박물관, 신라대학교박물관, 영남대학교박물관, 영남문화재연구원, 우리문화재연구원, 울산대학교박물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전남대학교박물관, 전남문화재연구원,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문화재연구원,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조선대학교박물관, 중앙문화재연구원, 창원대학교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통도사성보박물관, 한겨레문화재연구원,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한국문물연구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재연구원, 한반도문화재연구원, 한성문화재연구원, 한신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박물관, 한화문물연구원, 해동문화재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 호암미술관

4. 유적은 지역별(Ⅰ권: 경남 동부 · 부산지역, Ⅱ권: 경남 중 · 서부지역, Ⅲ권: 경남 북부 · 경북 · 대구지역, Ⅳ권: 경남 남해안 · 전남 · 전북지역), 유형별(무덤유적, 생활유적, 산업 · 생산유적, 정치 · 국방유적, 교통 · 통신유적, 제의유적), 문화재지정별(사적, 시도유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문화재자료, 비지정), 행정구역별의 순서로 분류하였다. 단, 마산 진동유적과 같이 가야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지정문화재(가야 유물 출토유적 포함)는 비지정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한 유적에서 2개 이상의 유형이 확인된 경우, 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고, 부록에는 해당되는 유형을 함께 표기하였다.

5. 유적은 문화재청 발굴조사 허가 건을 기준으로, 해방 이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유적을 대상으로 집필하였다. 보고서가 미발간되었지만, 유적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하였다.

6.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같이, 유적이 연차적으로 발굴된 경우는 전체 유적의 조사 현황을 개요로 설명한 뒤, 각 발굴조사 건별로 세부 조사내용을 수록하였다.

7. 유적의 주요 항목은 유적명, 소재지, 조사기관, 조사기간, 주요 유적 · 유물, 조사내용, 유적 위치도, 관련 도면 · 사진, 참고문헌 순으로 구성하였다. 유적명은 발굴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되, 일부 유적의 경우는 유적명을 알기 쉽게 수정하였다. 소재지, 조사기관명도 발굴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8. 각 지역별 개별 유적의 분포는 유적번호와 함께 위성사진에 표시하였다.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1권 **가야 문헌 사료편**

개요 가야의 기록에 대한 이해

사료
사료 표제
연도별 사료

부록 사료 목록

2권 **가야 일제강점기 자료편**

개요 일제강점기의 '조선고적조사'와 가야 유적

조사 자료
Ⅰ. 김해
Ⅱ. 양산
Ⅲ. 함안
Ⅳ. 진주
Ⅴ. 창녕
Ⅵ. 고령
Ⅶ. 성주
Ⅷ. 고성

부록 조사 연표

3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Ⅰ**

개요 고고학으로 본 가야

경남동부·부산지역
Ⅰ. 김해
Ⅱ. 부산
Ⅲ. 양산
Ⅳ. 밀양
경남동부·부산지역 가야 유적 목록

4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Ⅱ**

경남중부·서부지역
Ⅰ. 창원
Ⅱ. 함안
Ⅲ. 의령
Ⅳ. 진주
경남중부·서부지역 가야 유적 목록

5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Ⅲ**

경남북부·경북·대구지역
Ⅰ. 창녕
Ⅱ. 합천
Ⅲ. 산청
Ⅳ. 거창
Ⅴ. 함양
Ⅵ. 고령
Ⅶ. 달성
Ⅷ. 성주
경남북부·경북·대구지역 가야 유적 목록

6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Ⅳ**

경남남해안·전남·전북지역
Ⅰ. 고성
Ⅱ. 통영
Ⅲ. 거제
Ⅳ. 사천
Ⅴ. 남해
Ⅵ. 하동
Ⅶ. 전남
Ⅷ. 전북
경남남해안·전남·전북지역 가야 유적 목록

가야 유물 출토 유적
Ⅰ. 영남
Ⅱ. 호남
Ⅲ. 서울·충청·강원
가야 유물 출토 유적 목록

부록 가야 유적과 유물 출토 유적 목록

7권 **가야 논저 목록편**

Ⅰ. 기초 자료편
1. 문헌 자료
2. 금석문 자료
3. 지표·발굴조사 보고서
4. 도록

Ⅱ. 논저편
1. 정치·군사
2. 사회
3. 문화
4. 경제
5. 외교
6. 지리·교통
7. 종교·사상
8. 유적
9. 유물
10. 고고이론·분석
11. 민속·신화
12. 어문
13. 기타

부록 색인

Contents

경남중부 서부지역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Ⅱ

Archaeological
Research on Gaya II

경남중부
서부지역

Ⅰ. 창원

Ⅱ. 함안

Ⅲ. 의령

Ⅳ. 진주

경남중부·서부지역 가야 유적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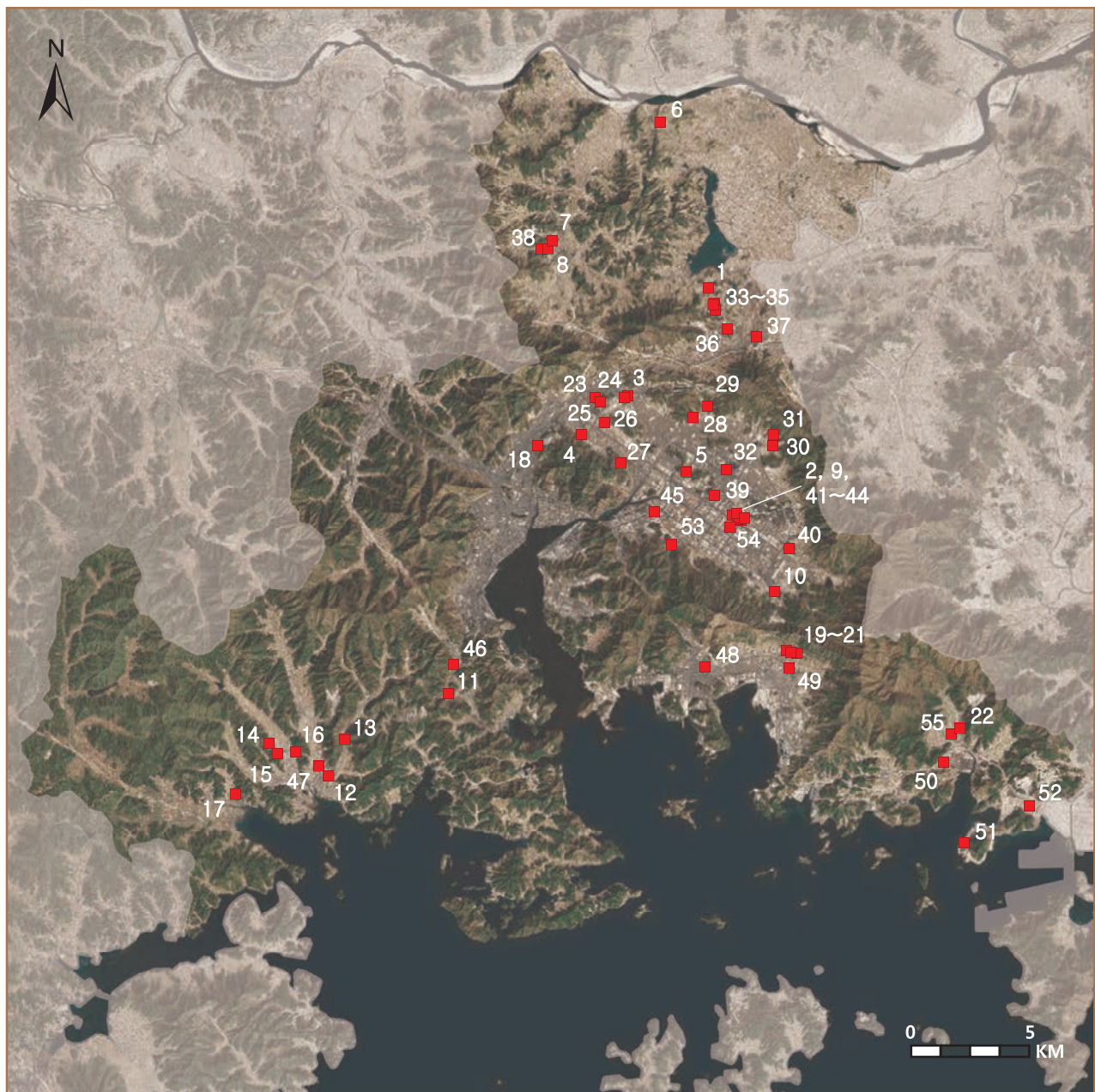
龜嶺山
南山
馬岩山
武陵山
松山峙
安谷山
城山
白月山
金洞
守山堤
靑菴山
孫哥津
三浪浦
鐵馬峯
溫井
葛峴
東
守山
三浪峯
簾山
太山
天柱山
城隍
近珠
子岩山
飛音山
雪
新豐
榜山
自如
新橋川
露峴
斗尺山
盤龍山
盤山
合浦
左漕
馬山浦
海
鳳林山
省法
進禮城
佛母山
安民
孫渡津
西
高山
舡頭山
長福山
望雲台
德山浦
九泉浦
熊山
淸凉山
赤峴

I. 창원

N
6
7
38
8
1
33~35
37
36
23
24
3
29
25
26
28
31
30
18
4
27
5
32
2, 9,
41~44
39
45
53
54
40
10
19~21
46
48
11
49
55
22
14
16
13
50
15
47
12
52
17
51
0
5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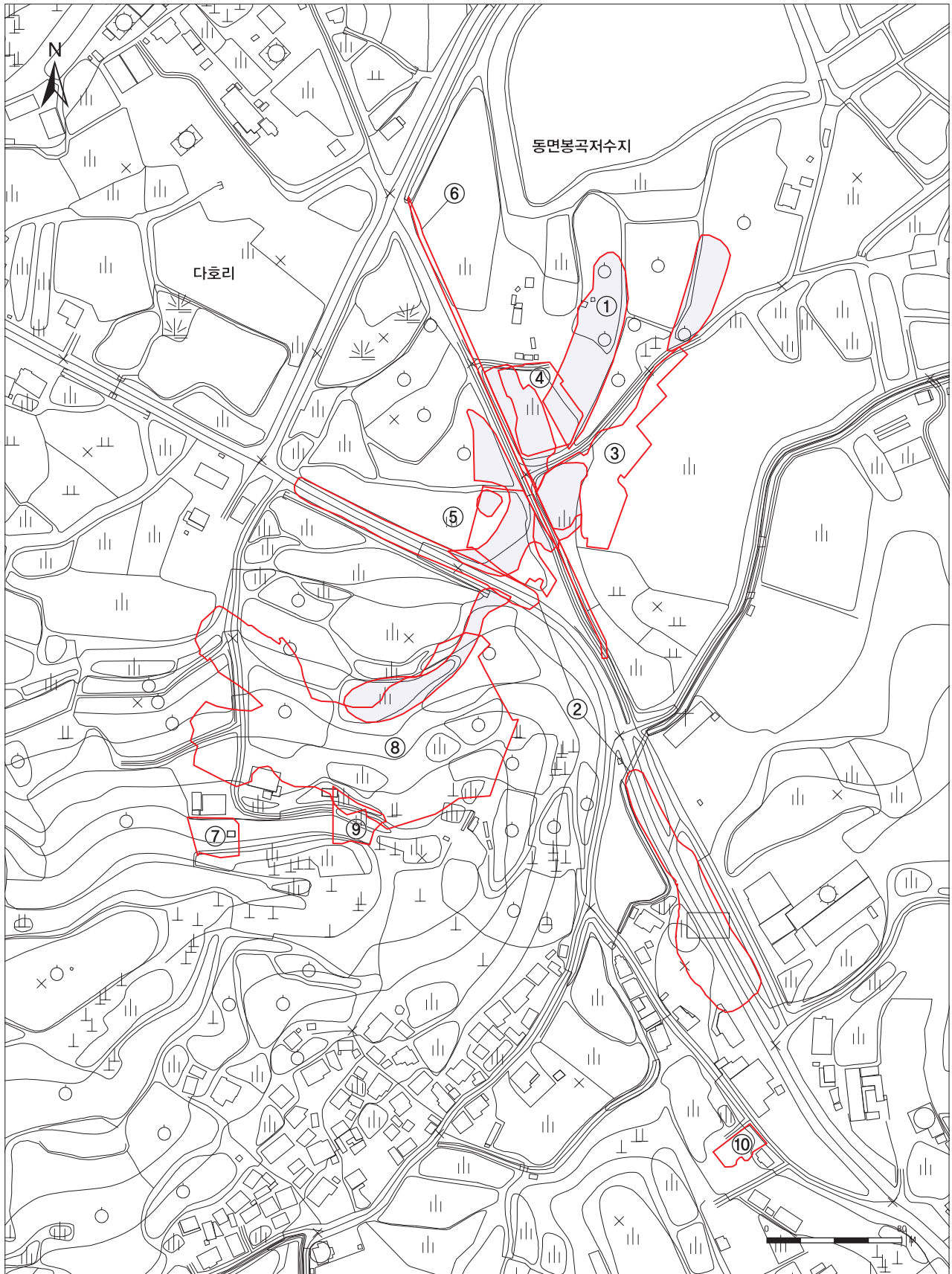
01

창원 다호리고분군

昌原 茶戸里古墳群

| 사적 제327호

유적은 구룡산(해발 433m)에서 북서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의 해발 약 50m 정도 지점에서부터 해발 약 10m인 계단식 논밭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기에 걸쳐 조영된 무덤들이 분포하고 있다. 유적의 북쪽에는 동판저수지, 주남저수지가 있으며, 낙동강을 따라 내려가면 김해, 부산까지 갈 수 있어 예로부터 강을 따라 많은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1988~1992년까지 7차례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이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원삼국시대 초기의 주묘제인 목관묘 44기와 옹관묘 등 70여 기의 분묘를 확인한 바 있으며, 1997년 동읍 덕산~본포 간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이 유적이 포함됨에 따라 긴급수습 발굴조사(8차)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실시되어 삼국시대 무덤 37기, 제사유구 10개소, 주구 2기 등 총 37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 문화재청의 사적정비계획에 따라 2010년(9차)과 2011년(10차) 국립김해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원삼국시대 목관묘, 옹관묘 등 분묘 32기와 목곽묘 14기가 각각 조사되었다. 2012년(11차)에는 국립김해박물관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공동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원삼국시대 목관묘 32기가 조사되었다. 2014년에는 다호리유적에서 조사되지 못하였던 초기 목곽묘 단계의 유구를 확인하기 위해 기 조사구간의 남쪽 구릉부지에 대해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원삼국시대 목관묘 1기, 목곽묘 12기, 석곽묘 7기 등의 유구를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학술조사 이외에도 공업용수 관로시설 개선공사, 주택 및 근린시설 신축과 같은 개발행위에 따라 구제발굴 수 건이 소규모로 이루어져 목관묘와 목곽묘 수 기가 조사되었다.

다호리유적은 우리나라 원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그동안 공백기였던 고대국가 형성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유적에서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통나무 관과 붓, 청동기, 철기, 칠기 등이 출토되어 당시의 생활상을 가늠하게 하였으며, 역사기록을 재확인시켜주었다. 특히 원삼국문화가 토기, 철기, 묘제의 형식에서 한국식동검문화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 점도 큰 의의를 갖는다. 다호리유적에서는 통나무를 파내고 만든 목관이 출토되어 장제에 대한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였다. 또한 칠이 생활의 많은 부분에 크게 사용되고 고급품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이와함께 유적을 중심으로 한 철 생산의 면모가 확인되었는데, 철광석과 단야용철망치, 그리고 철부와 함께 교역 영수증용 문방구 등은 철생산에서 교역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당시 중국 및 낙랑과 활발하게 교역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 하나 이 시기 사료의 한계성과 가치를 다호리유적의 조사를 통해 보충하고 살펴볼 수 있었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유적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창원 다호리유적 -1~7차 발굴조사 유적	국립중앙박물관	1차 1988.1.~1988.2. 2차 1988.3.~1988.4. 3차 1988.11.~1988.12 4차 1989.3.~1989.5. 5차 1990.3.~1990.5. 6차 1992.4.~1992.5. 7차 1992.10.~1992.12.	창원 다호리 1~7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2012)
2	창원 다호리유적 -8차 발굴조사 유적	국립중앙박물관	1997.7.~1998.2.	창원 다호리유적(8차)-덕산-본포간 지방도로 공사구간 내 발굴조사(2001)
3	창원 다호리유적 -9차 발굴조사 유적	국립김해박물관	2009.9.~2010.1.	창원 다호리유적-9차 발굴조사보고서(2011)
4	창원 다호리유적 -10차 발굴조사 유적	국립김해박물관	2011.3.~2011.6.	창원 다호리유적-10차 발굴조사보고서(2013)
5	창원 다호리유적 -11차 발굴조사 유적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2.1.~2013.5.	창원 다호리유적-11차 발굴조사보고서(2014)
6	창원 다호리 55-2번지 유적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4.6.~2014.7.	창원 다호리 55-2번지 유적(2015)
7	창원 다호리 179-1번지 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동서문물연구원	2014.10.	창원 다호리 179-1번지 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2016)
8	창원 다호리고분군 -시굴조사(12차 조사) 유적	국립김해박물관	2014.11.~2014.12.	창원 다호리고분군 내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보고서(2015)
9	창원 다호리 179-4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2016.3.~2016.4.	창원 다호리 179-4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2016)
10	창원 다호리 288번지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해동문화재연구원	2017.10.~2017.12.	창원 다호리 (288)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2017)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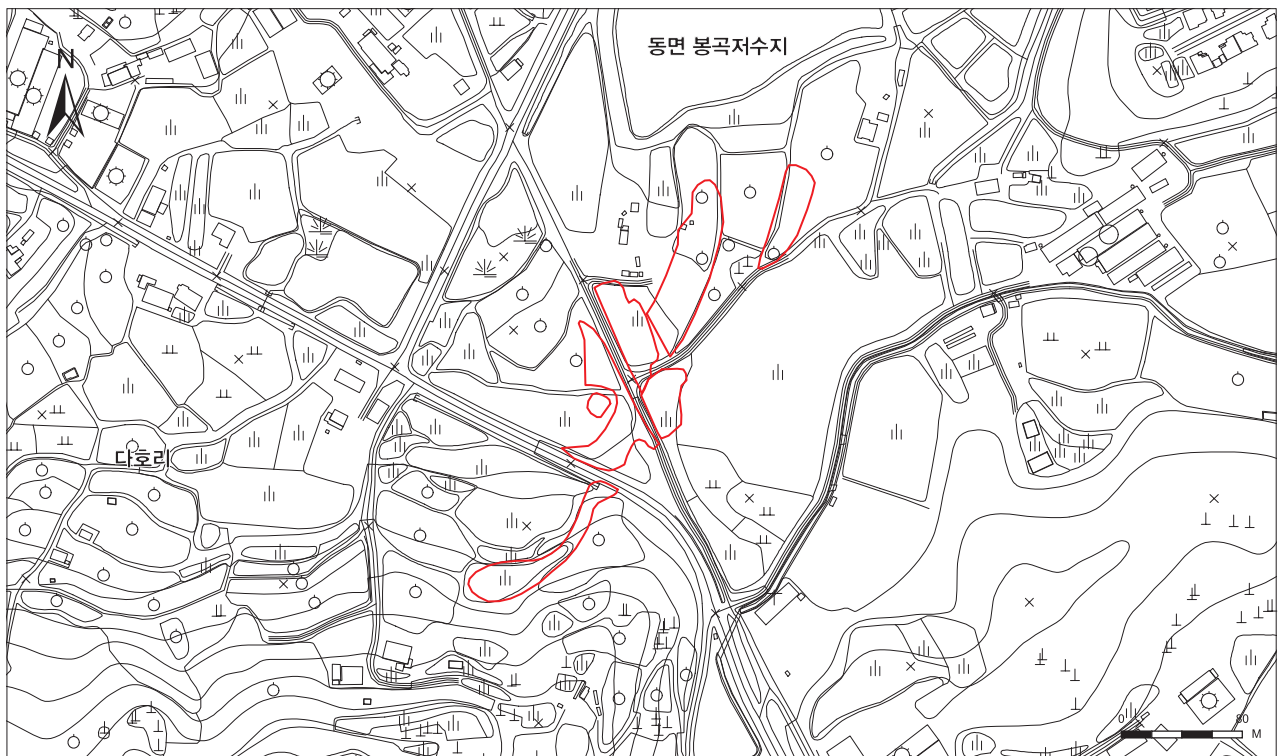
창원 다호리유적 _ 1~7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23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중앙박물관 /
1차 1988.1.~1988.2.
2차 1988.3.~1988.4.
3차 1988.11.~1988.12.
4차 1989.3.~1989.5.
5차 1990.3.~1990.5.
6차 1992.4.~1992.5.
7차 1992.10.~1992.12.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옹관묘 / 칠초
동검, 칠기, 붓, 동경,
주머니호

유적은 구룡산(해발 433m)에서 북서쪽으로 뻗어 내린 해발 약 20m 정도의 낮은 구릉 일대와 평지에 유구가 분포한다. 유적의 북쪽에는 동판저수지, 주남저수지가 있으며, 낙동강을 따라 내려가면 김해, 부산까지 갈 수 있어 예로부터 강을 따라 많은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1988~1992년(1~7차 조사)조사에서는 원삼국시대 초기의 주묘제인 목관묘 44기와 옹관묘 등 70여 기의 분묘가 조사되었다. 목관묘는 크게 3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제1유형은 묘광의 규모가 240~290㎝ 정도로 비교적 크고 100㎝ 이상으로 깊은 편으로 묘광 바닥면 중앙부에 장방형의 부장갱이 있으며, 부장품이 비교적 많다. 제2유형은 묘광의 규모가 제1유형보다 약간 작은 200~280㎝ 정도이고, 요갱이 보이지 않는다. 제3유형은 묘광의 규모가 214㎝ 이하로 제일 작고 얕은 유형으로 역시 요갱이 확인되지 않는다. 목관묘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1호묘인데, 통나무목관과 철제와 청동제의 각종 무기, 농공

유적 위치도

구와 칠기류, 붓, 중국거울, 오수전 등 많은 부장품을 바구니에 담아 관 아래에 부장하는 독특한 장법을 보여주고 있다. 여타의 분묘와 입지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부장품에서는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 분묘의 피장자는 일개인이면서 중국거울을 비롯한 당시 최고급품을 집중 소유하고 있는자로서 일정지역의 권력구조에 있어 최정점부에 있는 사람의 분묘이다. 옹관묘는 얕은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넣은 주옹과 그것을 막은 덮개옹으로 이루어진 합구식이며, 규모가 작다.

목관묘에서는 주머니호·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호·옹 등의 토기류, 따비·판상철부·철촉·낫·재갈·철부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붓, 부채, 청동거울 등 중국의 선진문물이 출토되어, 이 지역이 원삼국시대의 중요 거점지역의 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묘제와 출토유물로 보아 기원전 2세기 후엽에서 기원후 2세기 전엽까지 분묘가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호리유적은 우리나라 원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그동안 공백기였던 고대국가 형성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여기서 출토된 통나무관과 붓, 청동기, 철기, 칠기 등은 당시 생활상을 가늠하게 하였으며, 오수전, 중국 거울을 통해 중국·낙랑과 활발하게 교역하였음을 알려주는 유적으로 당시 문화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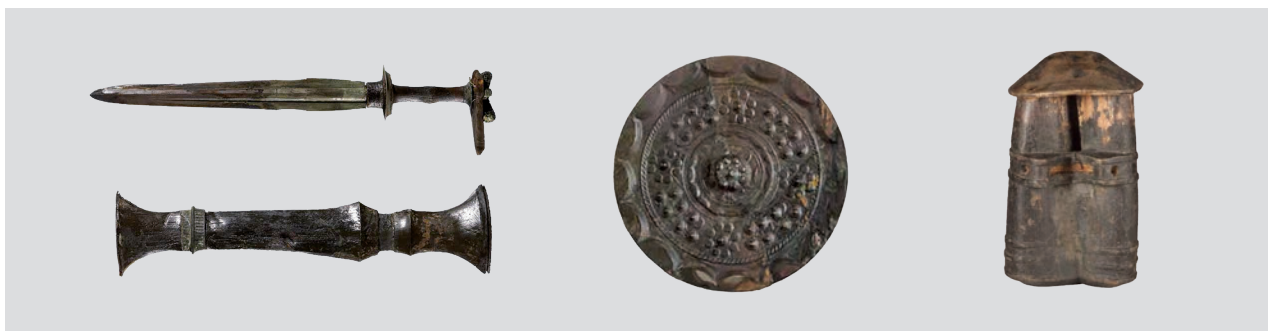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 2012, 『창원 다호리 1~7차 발굴조사 종합 보고서』.

유적 원경

1호묘

5-2호 무덤

2호 무덤

1호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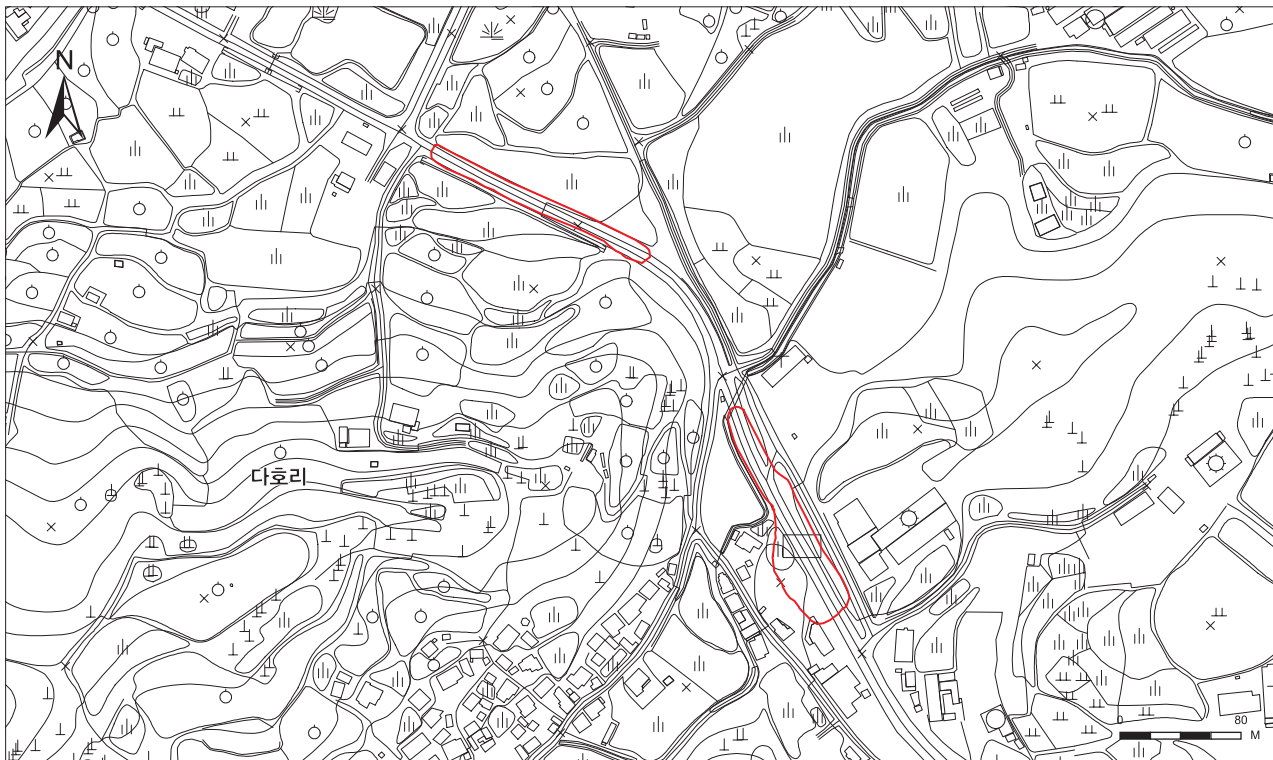
01-2 창원 다호리유적 _ 8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355-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중앙박물관 / 1997.7.~1998.2.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석곽묘, 석실묘 / 가형토기

유적은 구룡산(해발 433m)에서 북서쪽으로 뻗어 내린 해발 약 20m 정도의 낮은 구릉 일대와 평지에 유구가 분포한다. 유적의 북쪽에는 동판저수지, 주남저수지가 있으며, 낙동강을 따라 내려가면 김해, 부산까지 갈 수 있어 예로부터 강을 따라 많은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1997년 동읍 덕산~본포간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이 유적이 포함됨에 따라 이루어진 발굴조사(8차)에서는 목관묘 6기, 수혈식석곽묘 10기, 횡구식석실묘 13기, 제사유구 10개소, 주구 2기 등이 조사되었다. 수혈식석곽묘는 모두 등고선과 동일한 방향으로 축조되었으며, 바닥시설은 부석, 점토, 관대석들이 고루 나타난다. 유구의 중복관계에 의해 축조순서가 확인되었으며, 일부 유구에서는 이중곽의 흔적이 있어 부장곽의 존재가 추정된다. 횡구식석석실묘는 6세기대 이 지역의 묘제의 변천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대형의 수혈식석곽묘보다 횡구식석실묘가 먼저 축조된 예가 층위상에서 확인되

유적 위치도

고 있어 횡구식석실묘의 도입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획득되었다. 또한 제사유구 및 횡구식석실묘의 주구에서 경주, 고령, 함안 등 신라와 가야 각지의 지역 양식을 반영하는 토기류와 마구류가 집중적으로 매납되어 출토되어 당시의 제의와 각 지역 간의 교류나 세력권의 추이를 엿볼 수 있었다. 제사유구에서 출토된 가형토기는 출토유구가 분명하여 그 용도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

다호리유적은 우리나라 원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그동안 공백기였던 고대국가 형성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여기서 출토된 통나무관과 붓, 청동기, 철기, 칠기 등은 당시 생활상을 가늠하게 하였으며, 오수전, 중국 거울을 통해 중국·낙랑과 활발하게 교역하였음을 알려주는 유적으로 당시 문화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 2001, 『창원 다호리유적-덕산-본포간 지방도로 공사구간 내 발굴조사』.

B지구 유구 배치도

B지구 전경

B1호묘 전경

B43호 유구

B1호묘 제사유구 출토유물

01-3

창원 다호리유적 _ 9차 발굴조사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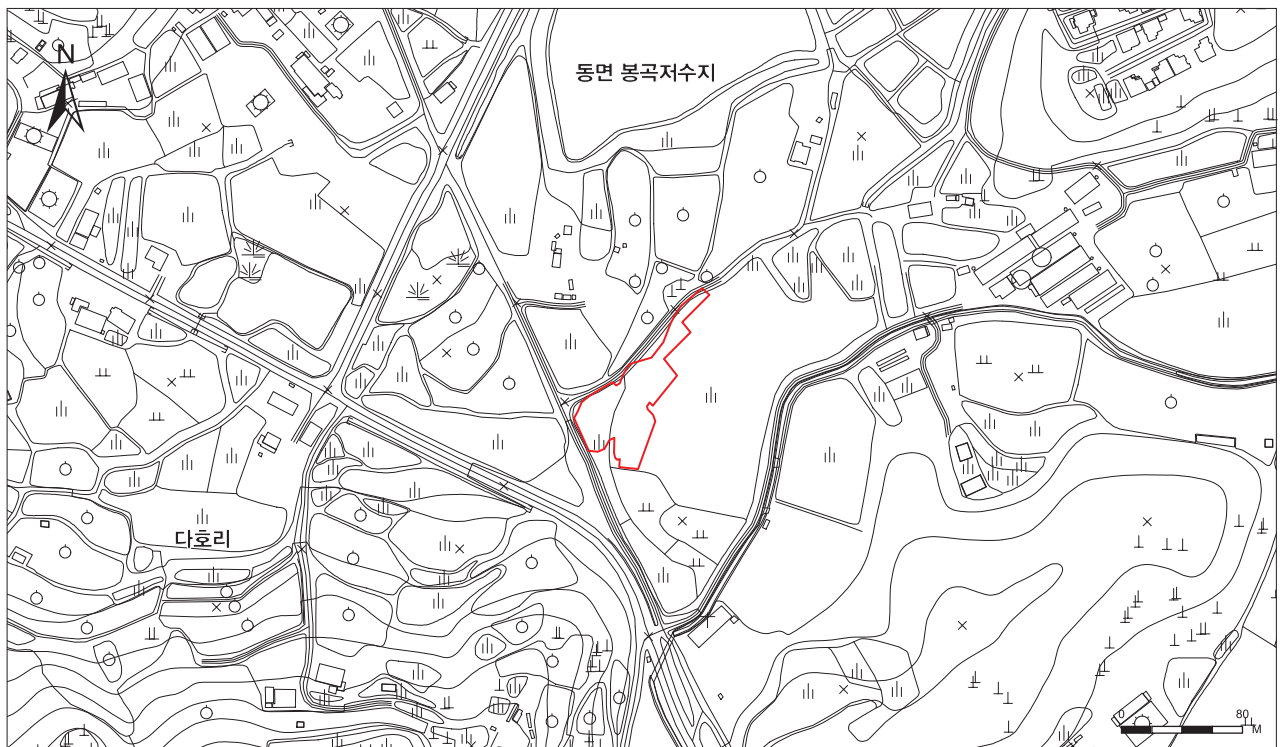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5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김해박물관 / 2009.9.~2010.1.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옹관묘 /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재갈

유적은 구룡산(해발 433m)에서 북서쪽으로 뻗어 내린 해발 약 20m 정도의 낮은 구릉 일대와 평지에 유구가 분포한다. 유적의 북쪽에는 동판저수지, 주남저수지가 있으며, 낙동강을 따라 내려가면 김해, 부산까지 갈 수 있어 예로부터 강을 따라 많은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발굴조사 결과 목관묘 25기, 옹관묘 3기, 직장묘 4기 등 모두 32기의 분묘가 조사되었다. 목관묘 중에서는 통나무관이 4기, 판재관이 21기이다. 옹관묘를 제외한 29기의 규모를 살펴보면 대형이 3기, 중형이 18기, 소형이 8기이다. 이 중 대형 무덤은 76호나 83호처럼 통나무목관을 사용한 무덤이 판재목관을 사용한 무덤보다 대체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물의 부장위치는 관 내부가 37%, 충전토 안이 20%, 충전토 위가 33%, 목관 위가 7%, 옹관으로 사용된 토기가 3%에 달한다. 충전토 내부와 위에서 유물이 출토되는 빈도가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중 토기류는 주로 충전토 위에 부

유적 위치도

장되고 철기류는 주로 목관 내부에서 출토되고 있다. 출토된 토기는 모두 92점으로 이전 1~8차 조사에서 출토되지 않아 편년상 공백이었던 토기들이 다수 확인되어 다호리 유적 전체 편년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104호에서 출토된 표비처럼 이전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유물들이 출토된 점 역시 중요한 조사 성과이다.

참고문헌

국립김해박물관, 2011, 『창원 다호리유적-9차 발굴조사보고서』.

유적 전경

104호 목곽묘 출토 마구류

104호 목곽묘 출토유물

75호 목관묘

76호 목관묘

01-4 창원 다호리유적 _ 10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51-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김해박물관 / 2011.3.~2011.6.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동경

유적은 구룡산(해발 433m)에서 북서쪽으로 뻗어 내린 해발 약 20m 정도의 낮은 구릉 일대와 평지에 유구가 분포한다. 유적의 북쪽에는 동판저수지, 주남저수지가 있으며, 낙동강을 따라 내려가면 김해, 부산까지 갈 수 있어 예로부터 강을 따라 많은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발굴조사 결과 목관묘 13기, 직장묘 1기 등 모두 14기의 분묘와 건물지 1기가 조사되었다. 목관묘 중에서는 통나무관이 1기, 판재관이 12기이다. 목관묘는 상호간 중복되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등고선과 직교한다. 유물은 모두 127점이 출토되었는데, 부장위치는 충전토 상부가 가장 많으며 관내부 및 충전토 내부와 위에 주로 유물이 부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토유물 중 '家常貴富'명 한경은 유적 전체의 절대연대를 밝힐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향후 원삼국시대 목관묘 연구의 중요한 자료를 제시해 주었다. 또한 유구의 깊이와 분포로 미루어 보아 기존에 알려졌던 10차 조사구간

유적 위치도

참고문헌

국립김해박물관, 2013, 『창원 다호리유적-10차 발굴조사보고서』.

의 남쪽과 서쪽뿐만 아니라 동쪽과 북쪽에도 유구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유적 전경

토기류

금속류

113호 목관묘

114호 목관묘

01-5 창원 다호리유적 _ 11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5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김해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2012.1.~2013.5.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동경

유적은 구룡산(해발 433m)에서 북서쪽으로 뻗어 내린 해발 약 20m 정도의 낮은 구릉 일대와 평지에 유구가 분포한다. 유적의 북쪽에는 동판저수지, 주남저수지가 있으며, 낙동강을 따라 내려가면 김해, 부산까지 갈 수 있어 예로부터 강을 따라 많은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발굴조사 결과 목관묘 25기, 직장묘 7기 등 모두 32기의 분묘와 시대미상 수혈 1기가 조사되었다. 분묘는 판재식목관, 통나무관, 직장 등 다양한 조영 방식이 확인되었으며, 장축방향은 모두 등고선과 직교하는 동-서향이다. 유물은 칠초동검, 청동반부장식철검, 반량전 등 292건 309점의 중요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의 양상은 기존의 발굴성과와 대동소이하나 132호묘와 같이 묘광바닥 양 단벽에 원형의 구덩이를 판다거나 135호, 138호, 141호, 144호묘와 같이 묘광 바닥이나 단벽 쪽에 철기를 고의적으로 박아 넣는 양상을 확인한 것은 매장시설이나 매장의례 등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이다. 또한 유적

유적 위치도

유적 원경

141호 목곽묘

141호 목곽묘 충전토 제거후

절대연대의 주요 자료인 반량전이 104호묘 추가조사에서 출토되었으며 칠초동검의 금구에 보이는 마름모꼴의 투조 장식이나 용도를 알 수 없는 원통형철기, 철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금속류가 출토되어 향후 삼한시대 문화를 검토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시해 주었다.

참고문헌

국립김해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4, 『창원 다호리 유적-11차 발굴조사보고서』.

01-6

창원 다호리 55-2번지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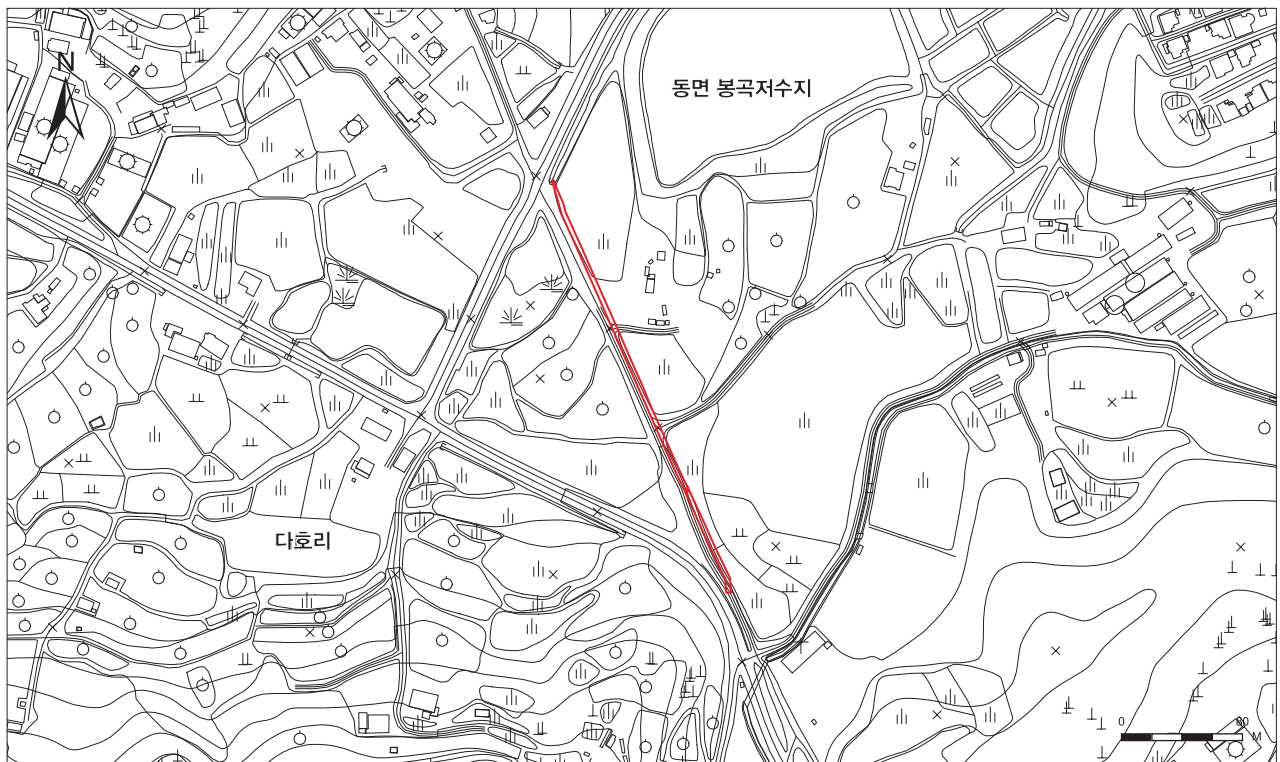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55-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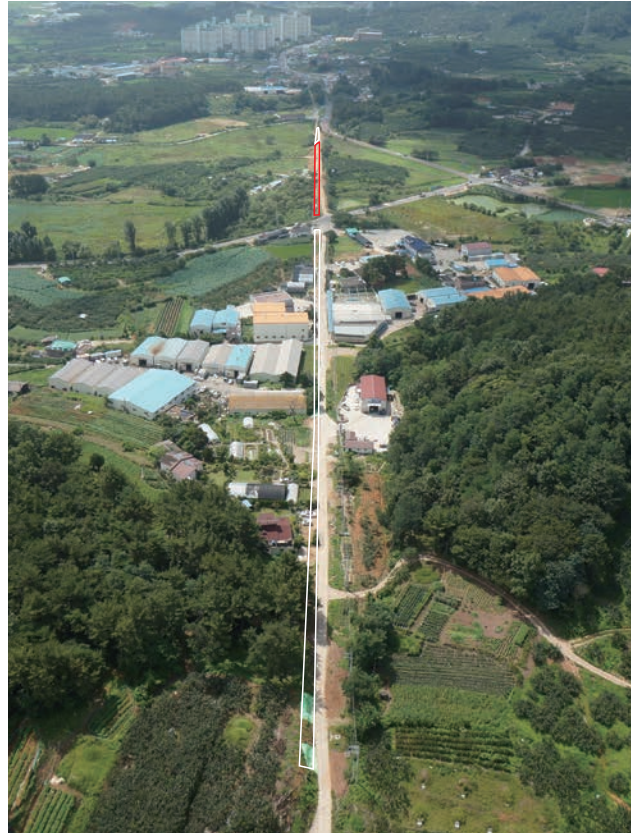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14.6.~2014.7.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 없음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5, 『창원 다호리 55-2번지 유적』.

다호리 55-2번지 유적은 1988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한 다호리유적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다호리유적을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공업용수 관로를 매설함에 따라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전 이미 기존 관로매설이나 도로조성, 경작 등으로 상당부분 교란되어 목관묘 1기만 조사되었다. 조사된 목관묘도 상부가 대부분 유실되어 분묘의 구조나 부장유물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이다. 다만, 다호리 일원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많은 고고학적 자료들이 지하에 유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다양한 조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자료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유적 전경

01-7 창원 다호리 179-1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179-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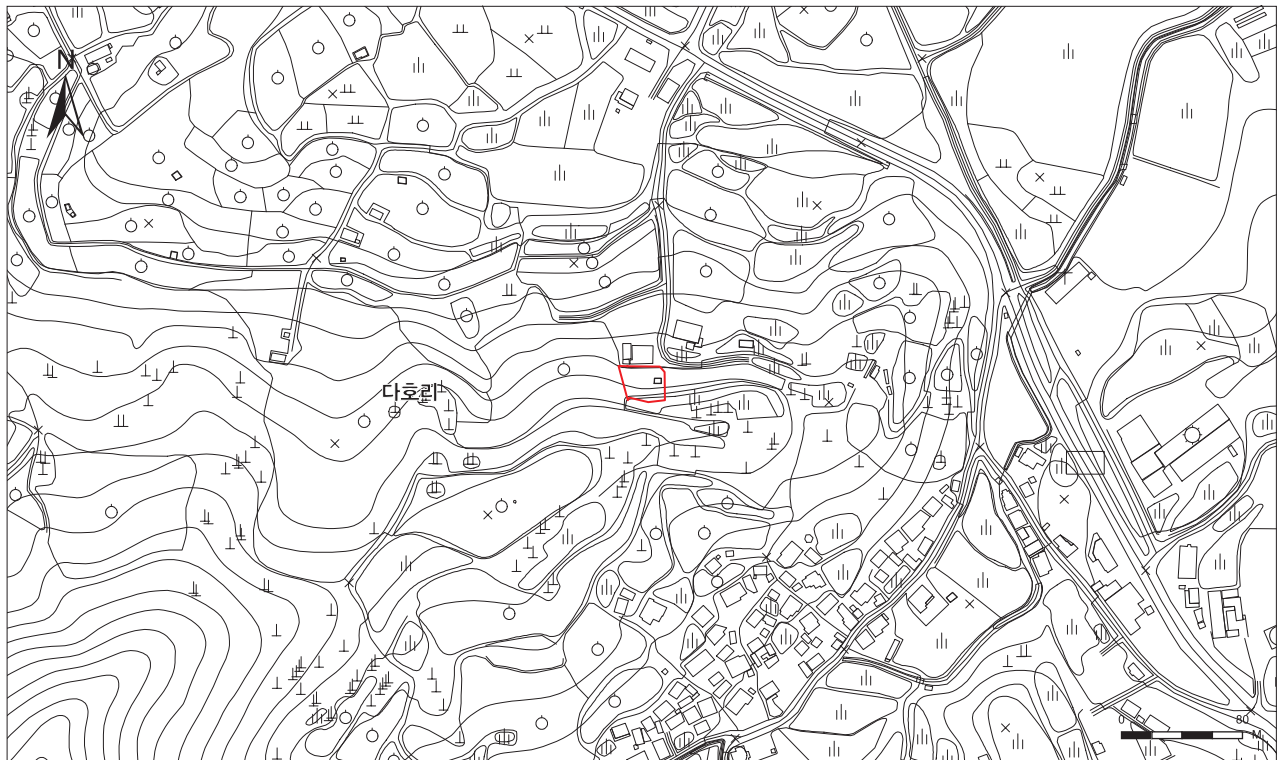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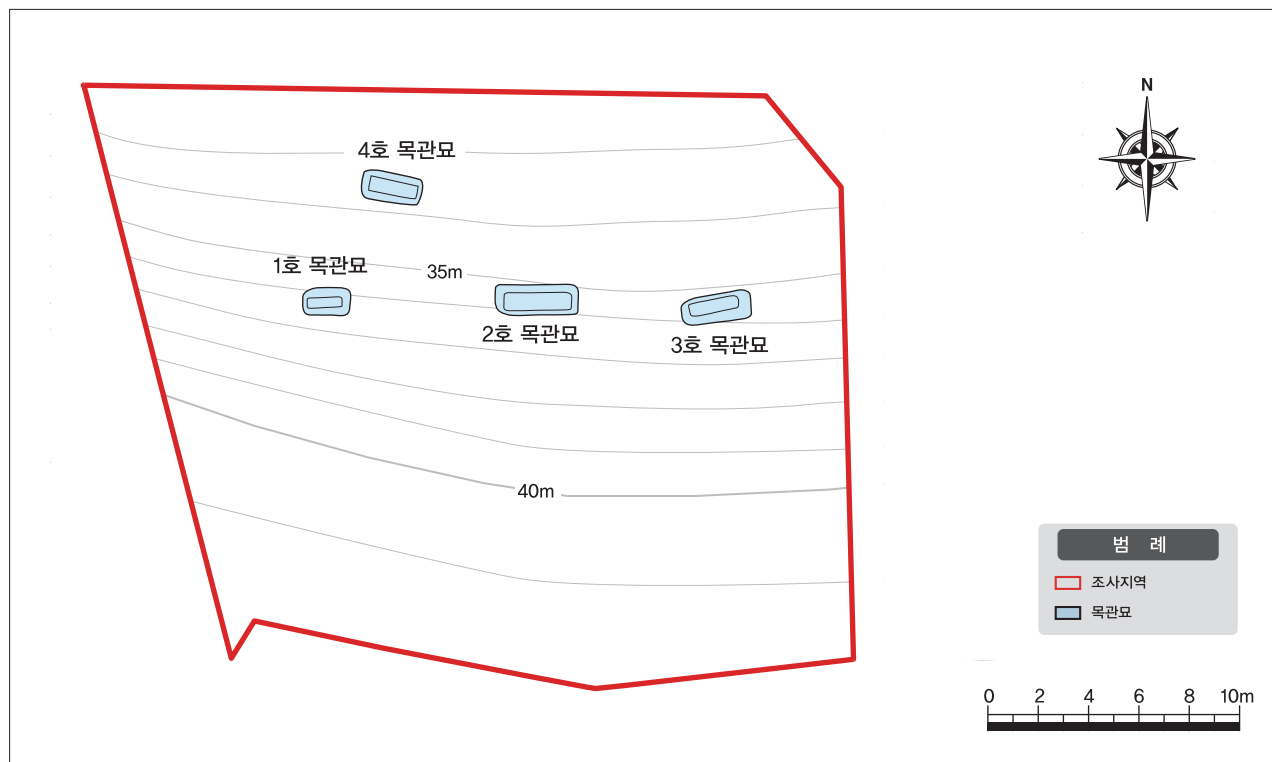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14.10.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주머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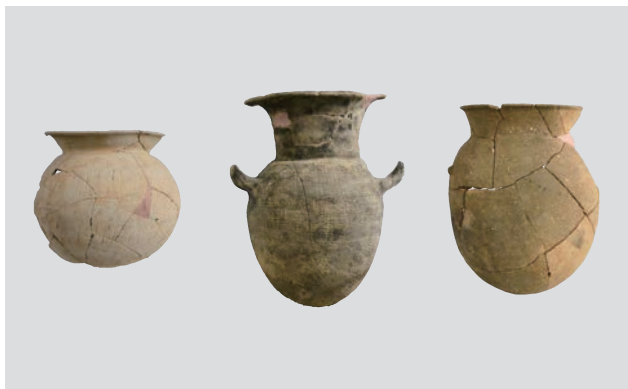
다호리 179-1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은 다호리유적과 인접하여 남서쪽 다호마을 구릉지대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주택 신축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삼국시대 목관묘 4기가 조사되었고 목관묘 내에서 주머니호와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승석문단경호와 철모, 철촉, 철겸, 옥 등이 출토되었다. 목관묘는 해발 35m 정도에서 등고선과 평행하게 5~6m 정도 간격으로 떨어져 분포하고 있다.

조사된 목관묘와 출토유물을 통해 본 축조시기는 대략 2세기 중엽으로 추정되며, 다호리유적에서 목관묘의 분포범위가 기존의 구릉 하단부의 평지에서 구릉 상단부로 확대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차후 다호리유적의 유구분포 범위 확인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6, 『창원 다호리 179번지 유적 –창원 다호리(179-1) 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2호 목관묘

2호 목관묘 유물 출토모습

토기류

철기류

01-8 창원 다호리고분군 _ 시굴조사(12차 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173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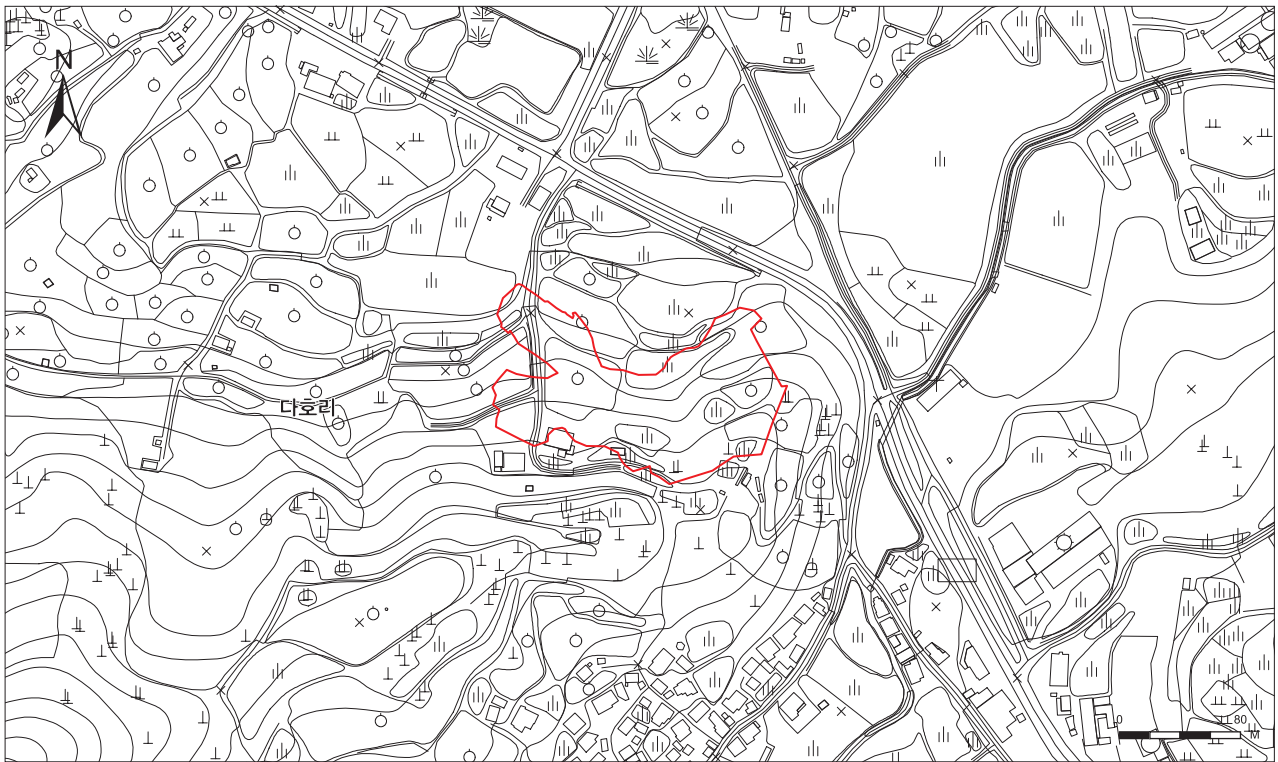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김해박물관 / 2014.11.~2014.12.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동경

다호리유적은 1988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원삼국시대 목관묘를 비롯하여 삼국시대 석곽묘, 석실묘 등이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8~11차 조사를 통해 삼각형점토대토기 등이 출토되어 기원전 1세기~기원후 6세기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유적의 상한연대가 다소 상향조정할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다호리유적에서 초기 목곽묘 단계의 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목관묘가 밀집한 부분에서 구릉 상부쪽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목곽묘 단계의 유구 확인 유무를 위해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목관묘 1기를 비롯하여 삼국시대 목곽묘 12기, 석곽묘 7기와 조선시대 수혈 25기, 시대미상 구 11기, 석렬 2기 등 다양한 유구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향후, 목곽묘가 입지할 가능성이 높은 구릉 사면 일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하여 금관가야의 주체 세력 문제와 관련된 다호리고분군 축조세력의 추이 등을 조명할 학술적 자료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립김해박물관, 2015, 「창원 다호리고분군 내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보고서」.

유적 위치도

유적 원경

4·5호 목곽묘

5호 목곽묘 유물 출토모습

9호 구

7호 목곽묘

01-9 창원 다호리 179-4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179-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국문화재재단 / 2016.3.~2016.4.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 단경호, 소옹, 철검, 철부

다호리 179-4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은 다호리유적과 인접하여 남서쪽 다호마을 구릉지대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주택 신축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발 34~36m 정도에서 원삼국시대 목관묘 3기와 목곽묘 1기, 옹관묘 1기, 수혈유구 1기 등 총 6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목관묘와 목곽묘, 옹관묘에서 단경호와 소옹, 양이부옹 등의 토기류와 철검, 철부, 철촉 등의 철기류 등 총 16점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로 볼 때, 유적의 조성시기는 2세기 중엽~3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유적과 인접한 다호리 179-1번지 유적(동서문물연구원 2014)에서도 1세기 후반~2세기대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목관묘 등이 조사되어 본 유적과 함께 다호리유적의 목관묘가 구릉 정상부(해발 35m) 부근까지 분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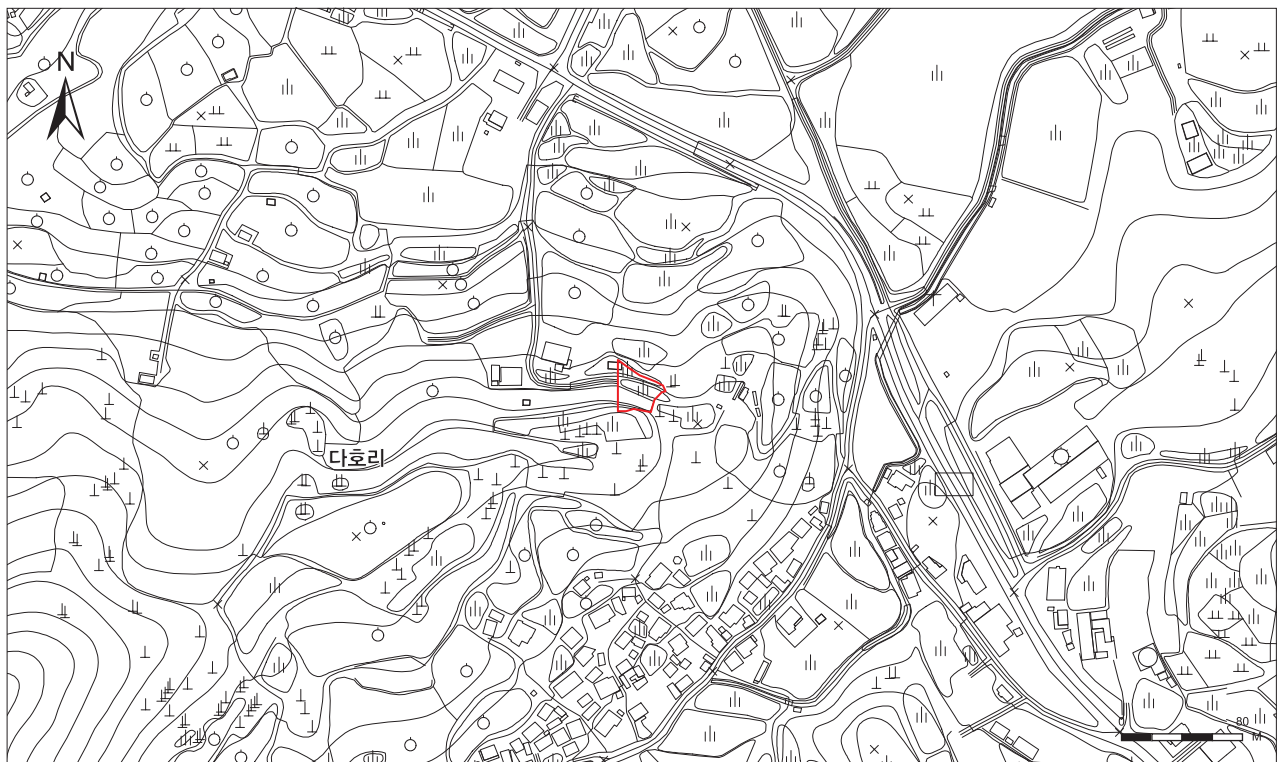
참고문헌

한국문화재재단, 2016, 「창원 다호리 179-4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유적 위치도

N
36m
35m
34m
33m
1호
2호
3호
목곽묘
오수관
옹관묘
수혈유구
범례
: 발굴조사대상지
: 사업대상지
: 목관묘
: 목곽묘
: 옹관묘
: 수혈유구
: 교란
0
5m

유구 배치도

목관묘 1호
목관묘 2호
목관묘 3호
옹관묘
목곽묘
수혈유구

유적 전경

01-10 창원 다호리 288번지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28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해동문화재연구원 / 2017.10.~201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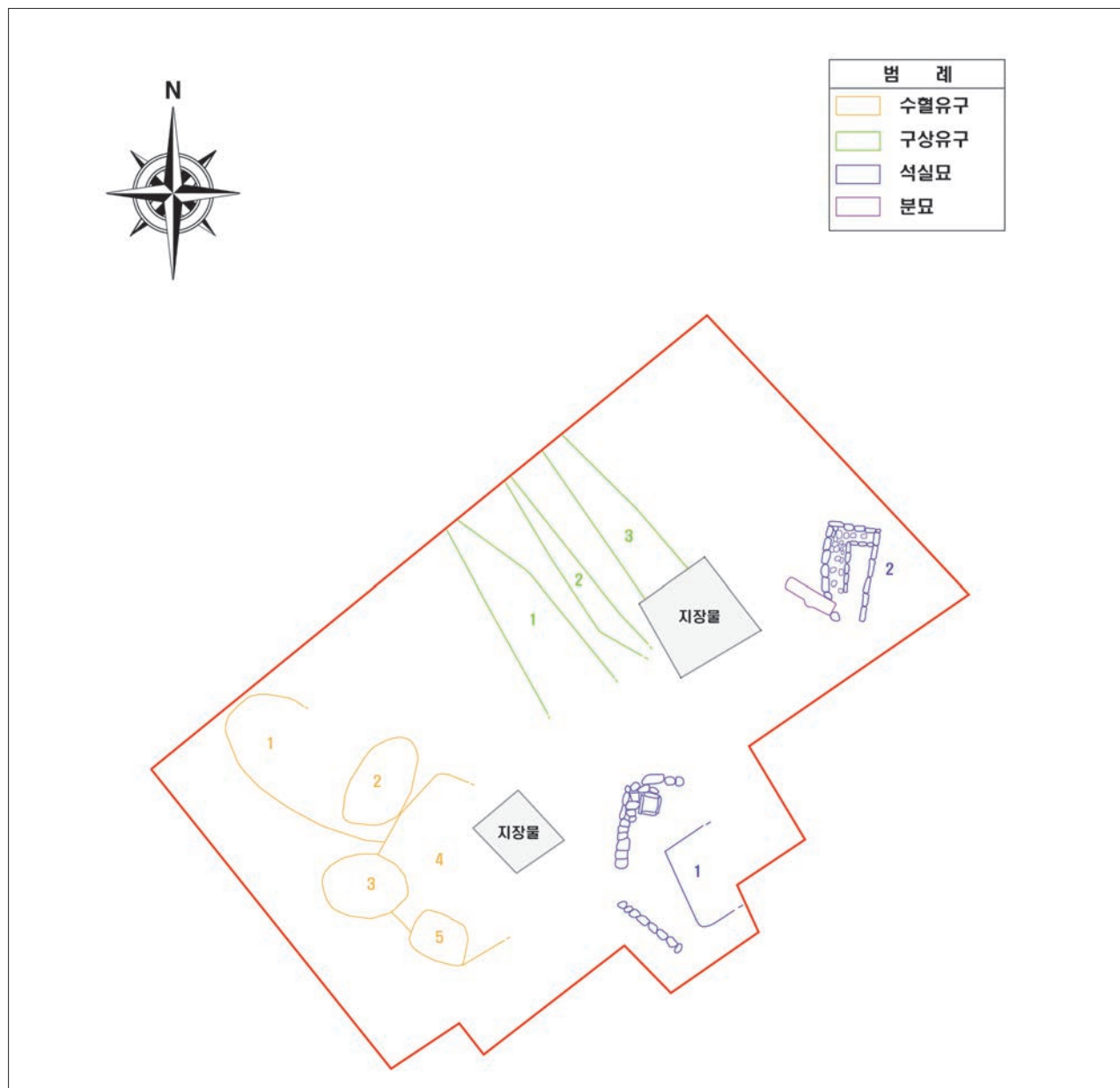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석실묘 / 대부완, 대부장경호

다호리 288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은 다호리유적의 남쪽 다호마을과 모암마을 사이에 형성된 야트막한 구릉지의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근린시설 신축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국시대 수혈유구 4기, 구상유구 3기, 석실분 2기와 시대미상 분묘 1기가 확인되었으며, 두형토기 대각 편, 개, 대부완, 대부장경호, 유개고배, 유개소호, 병, 고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수혈은 평면에서 중복된 양상이 확인되며, 평면형태는 대부분 원형이다. 후대의 삭평과 유실로 잔존상태는 양호하지 않으며, 내부에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으나 두형토기 대각 편, 파수부 편, 옹 구연부 편 등이 출토되었다. 석실묘는 평면형태가 방형인 횡구식석실묘로 서쪽으로 1.5m 떨어져 호석이 확인된다.

발굴조사 결과 다호리유적의 분포 범위는 기존에 사적으로 지정된 곳 외곽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다호리 일대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많은 고고학적 자료들이 지하에 유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다양한 조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자료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해동문화재연구원, 2017, 「창원 다호리 (288)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1호 석실분

1호 석실분 매장주체부

02

창원 가음정동고분군

| 경상남도기념물 제126호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산1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1990.11.~1991.1.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묘 / 고배, 장경호, 대부장경호

유적은 창원시 동남쪽의 저지대에 솟아 있는 해발 70m 전후의 낮은 야산이 넓게 연결된 독립구릉상의 능선사면과 저지대에 형성된 대단위 유적군으로 청동기시대 지석묘를 비롯하여 삼국시대 고분군, 취락과 패총, 수전이 확인된 복합유적이다. 고분군이 위치한 곳은 해발 59m 내외의 나지막한 야산으로 조사지역은 야산의 정상부에서 동남쪽으로 뻗어내려 남쪽으로 돌출된 능선상의 비교적 평탄한 지역으로 삼국시대 초기 야철지로 알려진 성산패총이 내려다보인다. 동-서로 길게 뻗은 당산(해발 73m)을 중심으로 능선의 서쪽사면과 정상부에 수십 기의 봉토분이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목곽묘 9기, 횡구식석실분 2기, 횡혈식석실분 1기, 옹관묘 2기, 소형석곽묘 6기 등 다양한 형태의 매장유구가 확인되었다. 목곽묘는 길이가 1.4m에 불과한 극소형에서 3.7m에 이르는 중형이 혼재되어 있는데, 대부분 동-서로 긴 장방형으로 두향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고배, 단경호, 광구소호 등의 토기류와 철촉, 도자 등의 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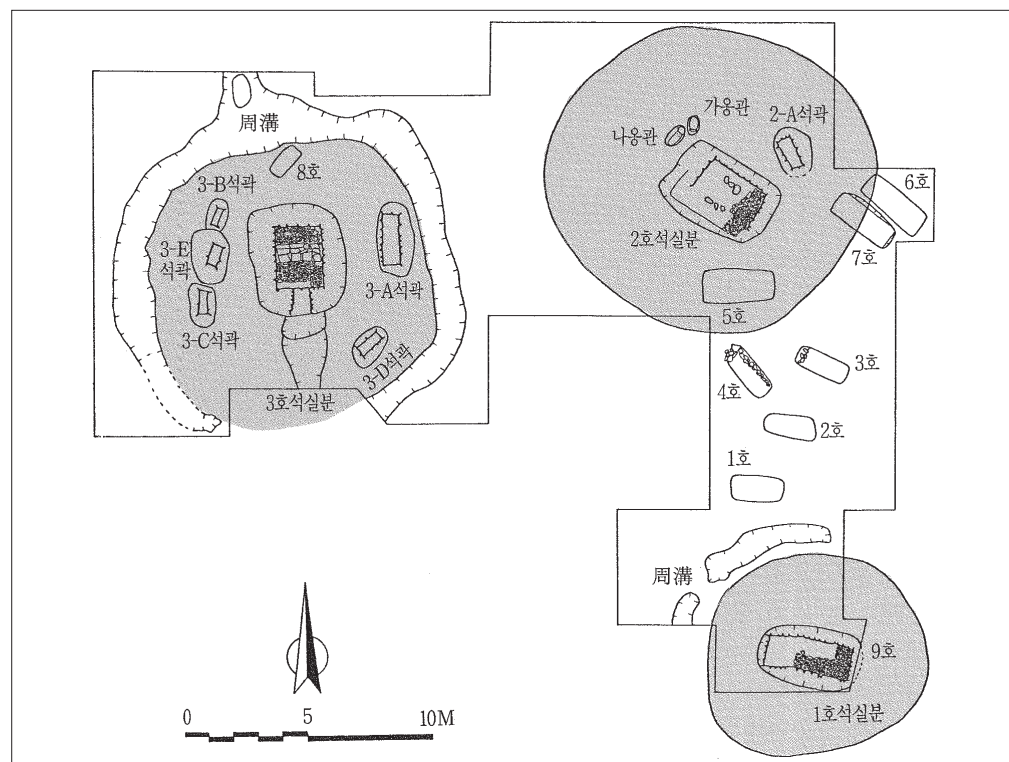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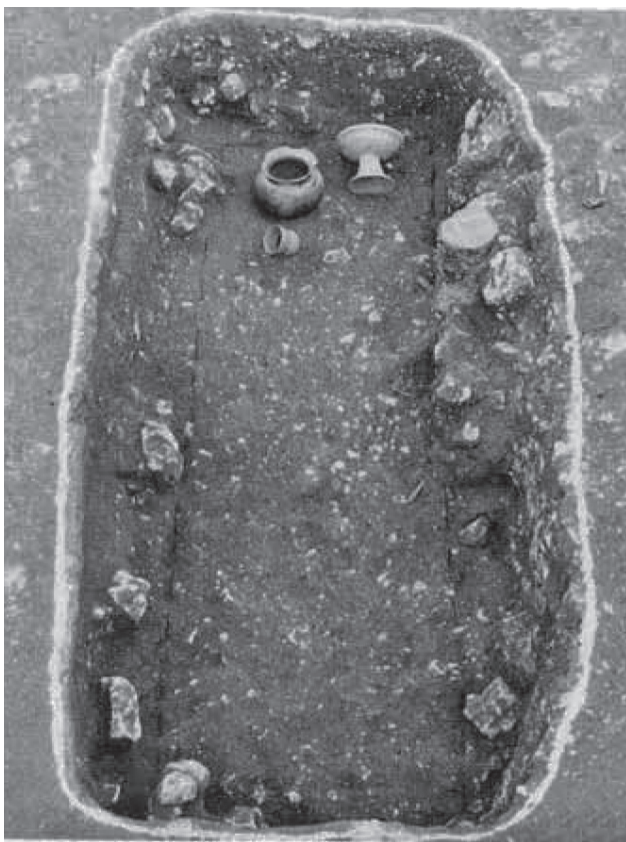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류가 출토되며, 출토유물로 보아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고 있다. 횡구식석실분은 직경 11m 정도의 봉분을 갖추고 있고 장방형의 할석을 사용하여 석실을 축조하였는데, 단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입구부로 사용하였다. 1호 석실분에는 역석을 깔아 시상면을, 2호 석실분에는 할석으로 만든 별도의 관대가 마련되어 있어 추가장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 미루어 5세기 후반경에 조성되어 6세기 전반경에 추가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횡혈식석실은 5기의 소형 석곽과 옹관묘가 추가로 배치한 다곽식고분이다. 현실은 장방형이고 천장은 활 모양으로 점차 좁혀지게 축조되었는데, 연도는 남쪽 단벽에 최초의 시상면이 마련되었고, 입구쪽으로 가면서 시상면을 확대하여 추가장 시에 시신을 안치하였다. 출토유물은 대부장경호를 비롯하여 단각고배, 개배 등의 토기류 50여 점과 철사, 철도자, 금동제이식 등 6세기 후반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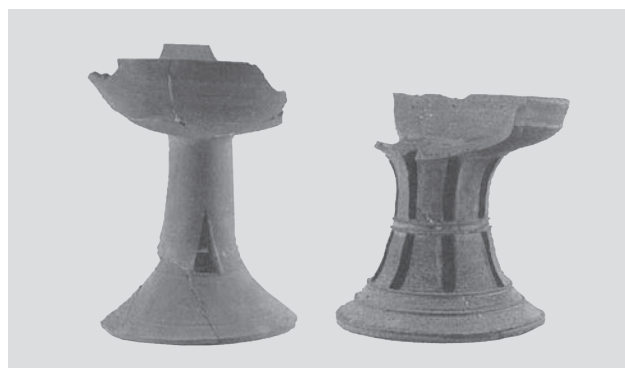
당산의 정상부와 주변에 넓게 형성된 패총은 3세기에서 4세기에 걸친 시기에 퇴적된 것으로 4개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퇴적층위는 깊은 곳은 2m가 넘는다. 출토된 유물은 노형기대와 승석문단경호, 솥모양토기, 적갈색연질옹, 호, 고배 등으로 4세기대의 함안양식 토기류와 김해식 고배 등이 혼재되어 확인되었다.

가음정동유적은 일찍이 금관가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5세기 전반 이후 아라가야의 문화적 영향력 아래로 서서히 편입되어 가다가 6세기 중반 이후 가야의 멸망과 더불어 신라의 문화권으로 급속히 흡수되어 가는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되어 진다.

참고문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4, 『창원 가음정동고분군』.

유구 배치도

1호 목곽묘

3호 목곽묘 유물 출토모습

1호 석실분

출토유물

03 창원 도계동고분군
昌原 道溪洞古墳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소재한 유적으로 서상동 구릉지대에서 동북으로 뻗어 나간 높이 30m 정도의 능선 위에 위치하고 있다. 도계동유적이 입지한 지형대는 창원의 진산인 천주산 줄기인 검산의 남서쪽 말단부에 해당되는 대자상의 저평한 설상 구릉과 그 사면의 곡부를 매적한 충적지이다. 낮은 구릉의 능선과 그 사면에 고분이 분포하고 구릉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저습한 곡저부에 수전이 조성되어 있다. 주거역은 남서쪽으로 연장되는 저평한 구릉지를 이용하였다. 이 지형대에서 이어지는 등명산의 서쪽에는 반계동유적이 분포한다.

1986년 명곡로 도로공사 중 노출되어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한시대 목곽묘 3기, 삼국시대 목곽묘 12기, 석곽묘 13기, 옹관묘 4기, 조선시대 분묘 8기 등 총 41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이후 1987년 주변 택지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명곡로 건너편 구릉을 발굴조사한 결과 삼국시대 목곽묘 31기, 조선시대 분묘 2기 등 총 33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1999년 도계택지개발 계획에 따라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릉부의 고분 밀집지역과 저지대의 수전지가 있음이 확인되어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2002년 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국시대 목곽묘 42기, 석곽묘 6기, 옹관묘 3기, 고상건물지 3동, 수전지, 수로와 구, 조선시대 분묘 23기 등이 조사되었다.

도계동고분군은 지리적으로 창원분지의 북쪽 외곽에 자리하며 김해의 금관가야권역과 함안의 아라가야권역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2세기 후반부터 5세기 후반까지 고분의 조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묘제의 변천은 방형 목곽묘→장방형 목곽묘→수혈식석곽묘로 전개되며, 옹관묘는 목곽묘와 석곽묘에 딸린 배장묘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와 함께 수전지는 수전면의 잔존상태는 양호하지 않지만 수로, 출토유물 등으로 보아 삼국시대 수전의 존재가 인정된다. 창원분지의 가음정동, 반계동, 외동지구 수전지 등과 함께 삼국시대 후기 창원 분지의 식량생산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창원 도계동고분군은 삼한시대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공동묘역으로 활용되었고 특히 삼국시대의 수전과 수리시설 및 고상건물지 등을 통해 취락생활과 관련되는 전모를 간직한 유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적의 존재는 당시 창원지역에 형성되었던 고대 가야 정치체의 한 면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되며, 문헌기록상에 보이는 골포국이나 탁순국과의 관련성도 주목된다.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창원 도계동고분군 I	창원대학교박물관	1986.1.~1986.4.	창원 도계동고분군 I (1987)
2	창원 도계동고분군	동의대학교박물관	1987.8.~1987.10.	창원 도계동고분군(1996)
3	창원 도계동유적 -창원시 도계택지개발지구 내 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2.5.~2002.12.	창원 도계동유적-창원시 도계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2004)

03-1

창원 도계동고분군 I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78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창원대학교박물관 / 1986.1.~1986.4.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 외절구연고배, 금동제성시구, 환두대도, 재갈

유적은 봉림산(해발 566m) 줄기의 서쪽 끝과 천주산(해발 640m) 줄기의 동쪽 끝 사이에 위치한 신풍고개에서 떡뫼로 연결되는 높이 30m 정도의 낮은 구릉사면 일대에 넓게 형성되어 있다. 창원의 도시개발로 인하여 훼손이 많이 이루어지고 구릉의 일부에 대해서만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삼한시대 목곽묘 3기, 삼국시대 목곽묘 12기, 석곽묘 13기, 옹관묘 4기, 조선시대 분묘 8기 등 총 40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목곽묘는 일정한 크기의 묘광을 파고 그 안에 목곽을 설치한 뒤 목곽과 묘광 사이의 공간에 충전토를 채워 보강한 형식을 하고 있는데, 상면에 점지토를 한 벌 깔아서 별도의 바닥면을 처리한 것과 자연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목곽묘는 부곽이 없는 소형으로 묘광의 머리부분과 발치부분의 바닥을 일정한 깊이로 파고 유물을 부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석곽묘는 대체로 평면 장방형으로 납작한 할석을 가로눕혀쌓기하여 축조하였으나,

유적 위치도

6호 석곽묘

3호 석곽묘

1호 옹관묘

토기류

철기류

일부는 석관형으로 납작한 판석을 이용하여 축조하기도 하였다. 3호 석곽묘와 같이 '日' 자형으로 배치된 주·부곽식도 있는데, 부곽이 주곽보다 한 단 높게 설치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토기류를 비롯한 철제의 무기류와 공구류가 대부분으로 4세기 말 경에서 5세기 전반에 걸친 좁은 시대폭을 보여준다. 토기류는 화염문투창고배를 비롯한 함안양식 토기와 외절구연고배와 같은 김해양식 토기가 일정한 비율로 섞여서 출토되고 있다. 19호 목곽묘에서는 재갈멈추개가 없는 특이한 형식의 재갈과 금동제성시구 등의 철기유물이, 1호 석곽묘에서는 소환두대도와 유자이기 등의 철기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5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환두대도는 동으로 물결무늬를 상감한 이례적인 유물이다.

도계동고분군은 지리적으로 창원분지의 북쪽 외곽에 자리하며 김해의 금관가야권역과 함안의 아라가야권역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2세기 후반부터 5세기 후반까지 고분의 조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계동고분군의 발굴성과는 가야지역 고대사 연구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창원대학교박물관, 1987, 『창원 도계동고분군 I』.

03-2 창원 도계동고분군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762-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의대학교박물관 / 1987.8.~1987.10.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 노형토기, 고배, 이단병식철모, 철검

유적은 봉림산(해발 566m) 줄기의 서쪽 끝과 천주산(해발 640m) 줄기의 동쪽 끝 사이에 위치한 신풍고개에서 떡뫼로 연결되는 높이 30m 정도의 낮은 구릉사면 일대에 넓게 형성되어 있다. 창원의 도시개발로 인하여 훼손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구릉 능선 하단부 구간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목곽묘 31기, 조선시대 분묘 2기 등 총 33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목곽묘의 규모는 대체로 길이 240~375㎝, 너비 120~170㎝ 정도이며, 규모면에서 중형과 소형급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장축방향은 등고선의 방향인 동-서향이 많으며 남-북향은 28호분, 31호분 2기 뿐이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모두 말각장방형을 띠며, 장단비가 2.0:1~2.5:1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유물의 부장양상도 철검과 이단병식철모 등 이른 시기의 철기가 주로 부장되는 유구와 와질토기가 주로 부장되는 유구로 상호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토기류의 부장도 주로 피장자의 발치로 정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유적 위치도

부장양상은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2세기 중엽경에 경남지역의 여러 곳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25호 목곽묘는 주·부곽이 일자상으로 배치된 구조로 주곽은 남동쪽에 부곽은 북서쪽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주곽이 부곽보다 한 단 높게 설치되어 있다.

출토유물 중 토기류는 소성 정도에 따라 와질토기, 경질토기, 적갈색연질토기로 나누어지며, 기종은 조합식우각형파수부장경호, 양유부호, 첨저장동호, 고배, 유개단경호, 노형토기 등이 있고, 철기류는 검, 모, 촉 등의 무기류와 부, 도자, 유자이기, 교구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23호, 26호, 27호에서 출토된 이단병식철모와 철검은 유구의 조성시기를 잘 나타내주는 유물로서 27호 출토 철검의 검신 끝부분 양쪽에 홈을 만든 것은 전김해 양동리 출토 동검의 형식을 계보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계동고분군은 묘제의 구조와 출토유물의 내용상으로 볼 때 크게 4단계로 변천과정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1기는 상면에 점질토가 깔린 중소형 목곽묘로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와 노형토기, 철검, 이단병식철모, 무경식철촉이 부장되며 2세기 후반에 해당한다. 2기는 고배, 첨저장경호, 유개대부호가 출토되며, 3세기대이며, 3기는 자연생토면을 상면으로 이용한 중소형의 목곽묘들로서 경질제의 고배, 광구호, 소형기대, 개 등이 출토되고 4세기대이다. 4기는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구릉 능선부 쪽으로 수혈식석곽묘와 목곽묘에서 화염문투창고배를 비롯한 단경호, 발형기대 등이 출토되는 5세기대인 것으로 파악된다.

도계동고분군은 지리적으로 창원분지의 북쪽 외곽에 자리하며 김해의 금관가야권역과 함안의 아라가야권역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2세기 후반부터 5세기 후반까지 고분의 조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계동고분군의 발굴성과는 가야지역 고대사 연구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동의대학교박물관, 1996,
『창원 도계동고분군』.

유적 전경

1호 목곽묘

03-3

창원 도계동유적 _ 창원시 도계택지개발지구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788-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2.5.~2002.12.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수전 / 고배, 기대, 철검, 환두대도

유적은 봉림산(해발 566m) 줄기의 서쪽 끝과 천주산(해발 640m) 줄기의 동쪽 끝 사이에 위치한 신풍고개에서 떡뫼로 연결되는 높이 30m 정도의 낮은 구릉사면 일대에 넓게 형성되어 있다. 조사구간 중 비교적 규모가 큰 고분이 분포하는 구릉 중심부는 보존지구로 조치되었고 능선 사면부 일대로 창원대학교박물관의 조사구간을 포함하여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목곽묘 42기, 석곽묘 6기, 옹관묘 3기, 고상건물지 3동, 수전지, 수로와 구, 조선시대 분묘 23기 등이 조사되었다. 목곽묘는 등고선과 평행한 동-서향으로 설치되었는데, 구릉 정선부를 따라 해발 30~31m 선상에 위계를 반영하고 있는 고분이 배치되고 정선부 아래에는 중소형분이 배치된다. 목곽묘의 구조 중 가장 큰 특징은 유물부장갱으로 목곽묘 42기 중 15기에서 확인되고 있다. 창원대학교박물관, 동의대학교박물관 조사구간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목관 내 피장자의 다리부분에 타원형 또는 장

유적 위치도

방형의 형태로 굴착하여 고배류, 호류, 기대류 등을 부장하고 있다. 부장갱의 깊이는 부장품의 내용에 따라 연동하는 것으로 보이며, 유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부장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4호·6호 목곽묘는 이례적인 이중곽을 가진 구조로 목곽 내에 유물부장갱을 설치하여 다량의 토기를 매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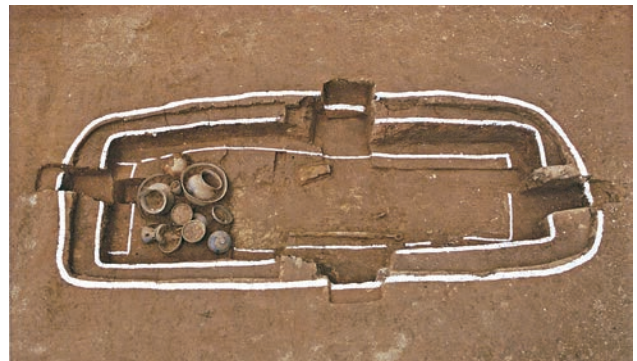
석곽묘는 병렬식 혹은 직렬식으로 2기씩 군집하여 축조되고 있으며, 19호 석곽묘와 같이 '日'자형으로 배치된 주·부곽식도 있다. 옹관묘는 목곽묘나 석곽묘에 딸린 배장묘의 성격을 가지며, 합구식이며 소형석곽과 결합된 것도 확인되었다.

수전지는 고분군이 위치한 구릉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저습한 곡저부로, 해발 17~18m 선상에 조성되어 있다. 수전지는 수전면의 잔존상태는 양호하지 않지만 수로 출토유물 등으로 보아 삼국시대 수전의 존재는 인정된다. 창원분지의 가음정동, 반계동, 외동지구 수전지 등과 함께 삼국시대 후기 창원 분지의 식량생산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창원 도계동유적은 삼한시대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공동묘역으로 활용되었고 특히 삼국시대의 수전과 수리시설 및 고상건물지 등을 통해 취락생활과 관련되는 전모를 간직한 유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적의 존재는 당시 창원지역에 형성되었던 고대 가야정치체의 한 면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되며, 가야지역 고대사 연구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4, 『창원 도계동유적–창원시 도계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고분군 전경

6호 목곽묘

86-7호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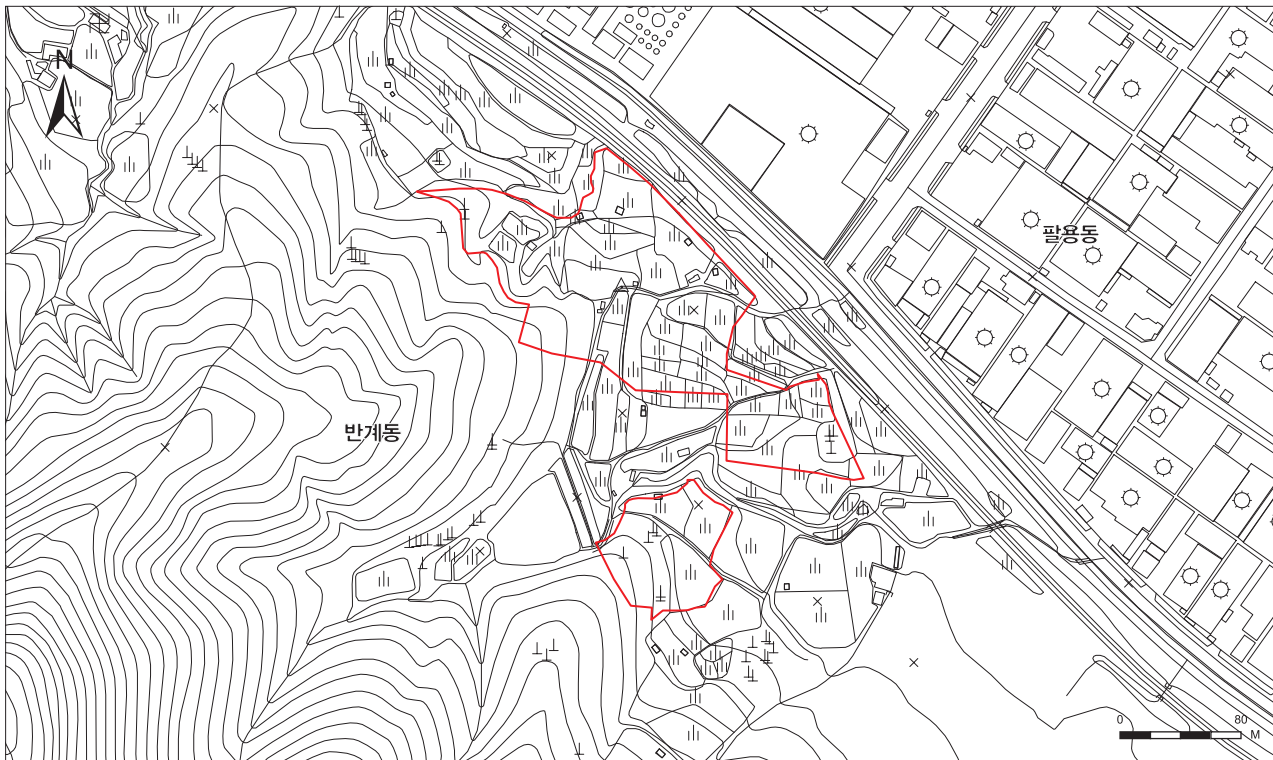
04 창원 팔용터널 연결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동 129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1차 2015.6.~2015.12.
2차 2016.6.~2016.7.
3차 2017.1.~20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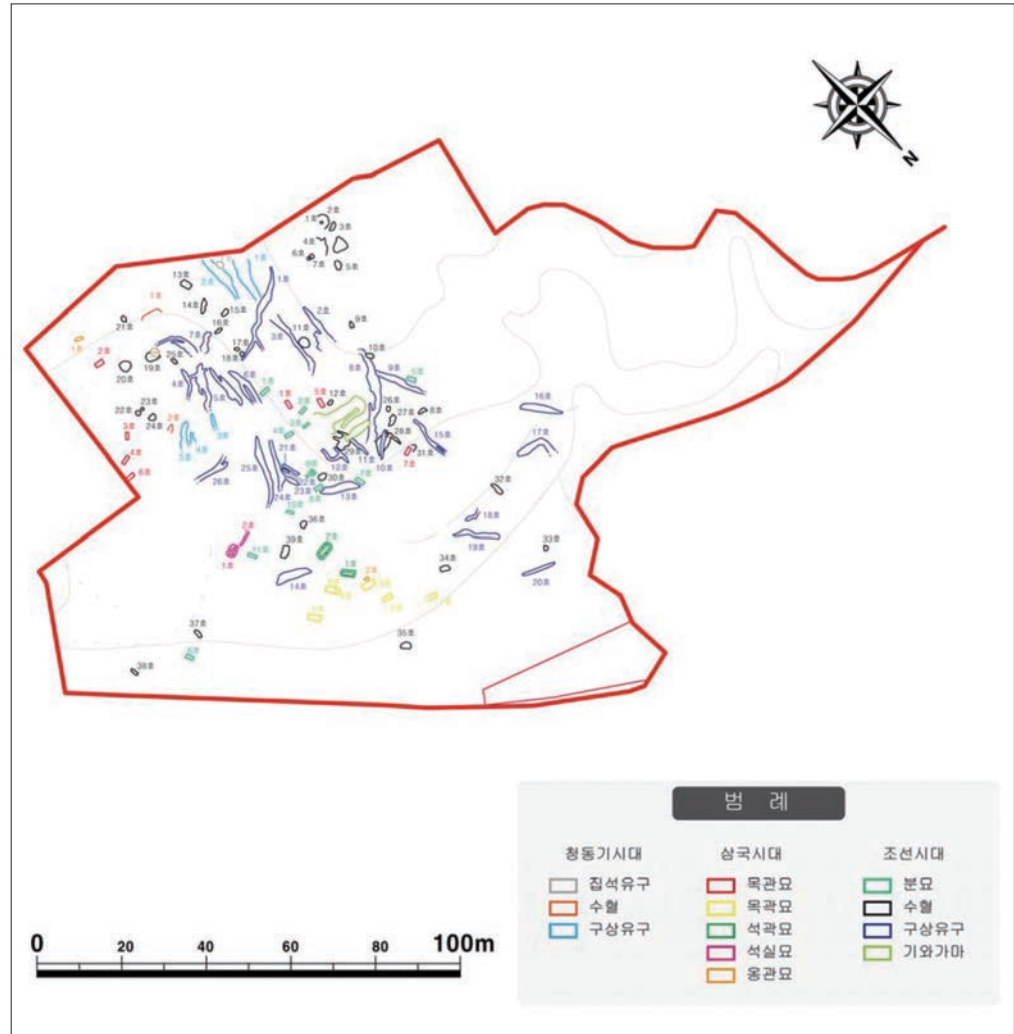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 단경호, 노형기대

유적은 팔용산(해발 327.7m)에서 북동쪽으로 뻗어내리는 구릉의 경사변환대와 구릉말단부에 해당하여 비교적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유적은 반계동 죽전고분군에 포함되며, 주변으로는 팔용산 서쪽 구릉 사면을 중심으로 대형 봉토분이 형성되어 있는 구암동고분군과 양덕동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 집석유구 1기, 구상유구 5기, 수혈 2기, 삼한·삼국시대 건물지 1동, 목관묘 7기, 목곽묘 5기, 석곽묘 3기, 석실분 2기, 옹관묘 3기, 수혈 4기, 조선시대 건물지 2동, 고상건물지 1동, 기와가마 3기, 분묘 22기, 구상유구 27기, 수혈유구 62기, 주혈군 1기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건물지 및 수혈유구에서는 대부완, 호 구연부, 동체부, 저부 편 등 생활토기가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분묘는 구릉 정상부 해발 35~37m 선상에 분포하고 있으며, 유개호, 파수부옹, 단경호, 노형기대, 광구소호, 고배, 철검, 철부, 철모, 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유적 위치도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7, 『창원 팔용터널 연결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유적의 조사를 통해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친 생활유적 및 분묘 등 다수의 유구가 확인되어 창원지역 고고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2구역 유구 배치도

3호 목곽묘

2호 석곽묘

05 창원 삼동동옹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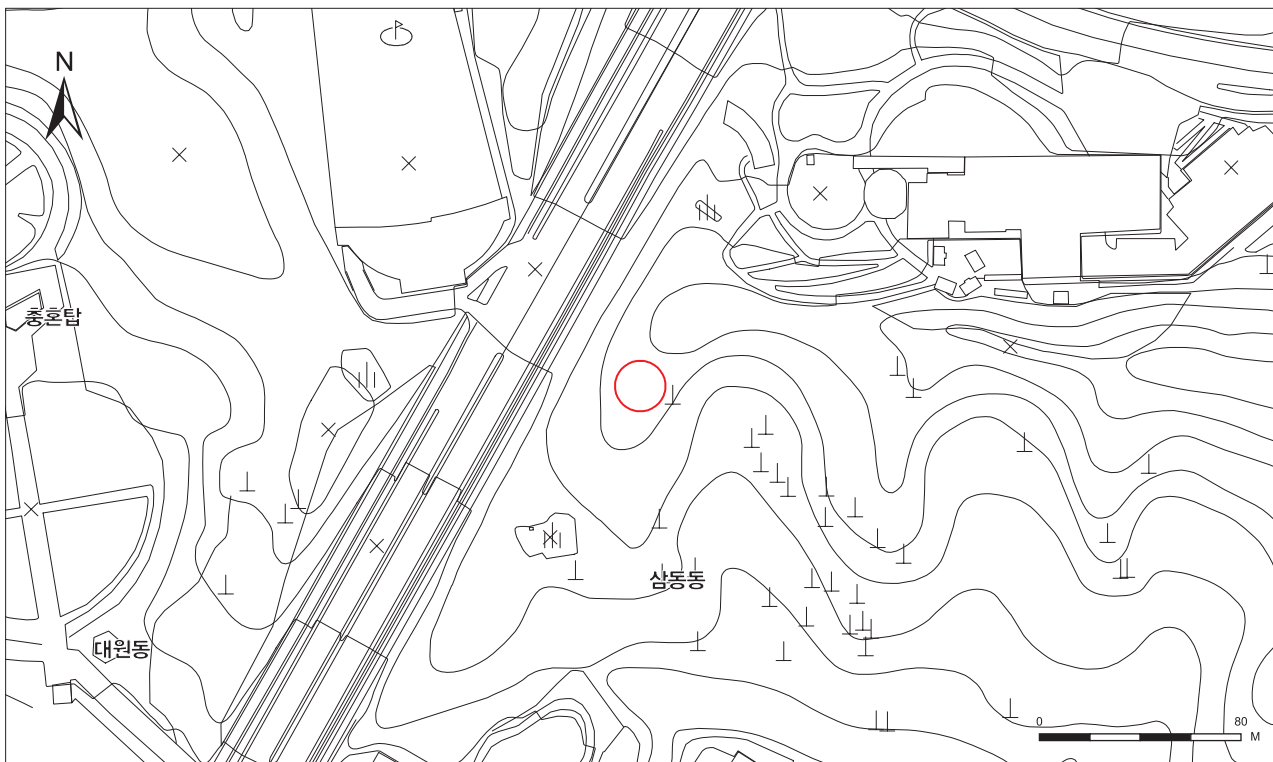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삼동동
산21-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 /
1차 1982.11.~1982.12.
2차 1983.10.~1984.2.

주요 유구 / 유물
옹관묘, 토광묘 /
단경호, 장경호,
노형토기, 철검

유적은 창원분지의 남서편에서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남천을 따라 길게 연결된 해발 30m 내외의 낮은 야산 주변에 이루어진 자연부락 두대동과 삼동동 사이의 돌출된 구릉 남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옹관묘 34기, 토광묘 11기, 석관묘 6기가 조사되었다. 조사 전 이미 유구가 분포된 구릉의 2/3 정도가 창원여자고등학교 부지 조성공사로 인하여 잘려나간 상태였으며, 남아 있는 구릉도 훼손이 심해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였다.

유적은 옹관묘가 주를 이루며 토광묘와 석관묘가 함께 혼재되어 조성된 대단위 고분군으로 파악된다. 옹관묘는 전체적으로 보아 5가지 주형식으로 분류되며, 다시 10여 가지가 넘는 소형식으로 세분된다. 옹관으로 사용된 토기는 따로 제작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실용토기이며, 길이 1m가 넘는 회청색대호와 적갈색연질장동호가 주옹으로 많이 쓰였고 막음옹으로는 노형토기와 승석문단경호, 연질파수부완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유적 위치도

특히 10호 옹관은 회청색의 경질항아리 2개를 합구하여 전체 길이가 194㎝나 되는 대형으로 성인을 신전장 할 수 있다. 옹관묘 내에는 컵형토기와 수정제다면옥, 유리소옥, 철촉, 철도자 등의 유물이 소량 부장되어 있는데, 5호 옹관에서는 철검이 출토되었고, 18호 옹관에서는 내행화문경계의 후한경을 모방한 방제경이 1점 출토되어 주목된다.

토광묘는 유구의 상부가 심하게 교란된 상태이며, 묘광도 불규칙한 편이고, 길이 3m 이내, 깊이 0.2m 정도로 매우 조잡한 상태이다. 출토유물은 승석문호 등의 단경호가 중심이고 약간의 철촉이 출토되었다. 또한 석관묘는 모두 작은 방형의 판석을 촘촘히 세워서 짠 석관묘 형태로서 개석도 작은 판석을 여러 매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유구 길이는 2.5m 내외이고 너비는 0.6m 전후로 두광족협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매납유물은 소형 단경호와 광구소호 정도로 머리맡에 부장하였다. 특히 2호 석관묘에서는 일본 고분시대 전기에 많이 확인된 유경식동촉이 출토되었고, 3호 석관묘에서는 유견철부와 판상철부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삼동동고분군은 신라, 가야지역에서 성인을 신전장으로 묻을 수 있는 옹관묘가 군집을 이루어 조성된 유일한 고분으로서 3~4세기에 걸친 시기에 창원분지 내 문화적인 양상과 정치집단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유적으로 들 수 있다.

참고문헌

부산여자대학박물관, 1984, 『창원 삼동동옹관묘』.

유구 배치도

2호 석관묘

33호 옹관묘

06

창원 본포리 유적 _ 동읍~한림간 도로확장구간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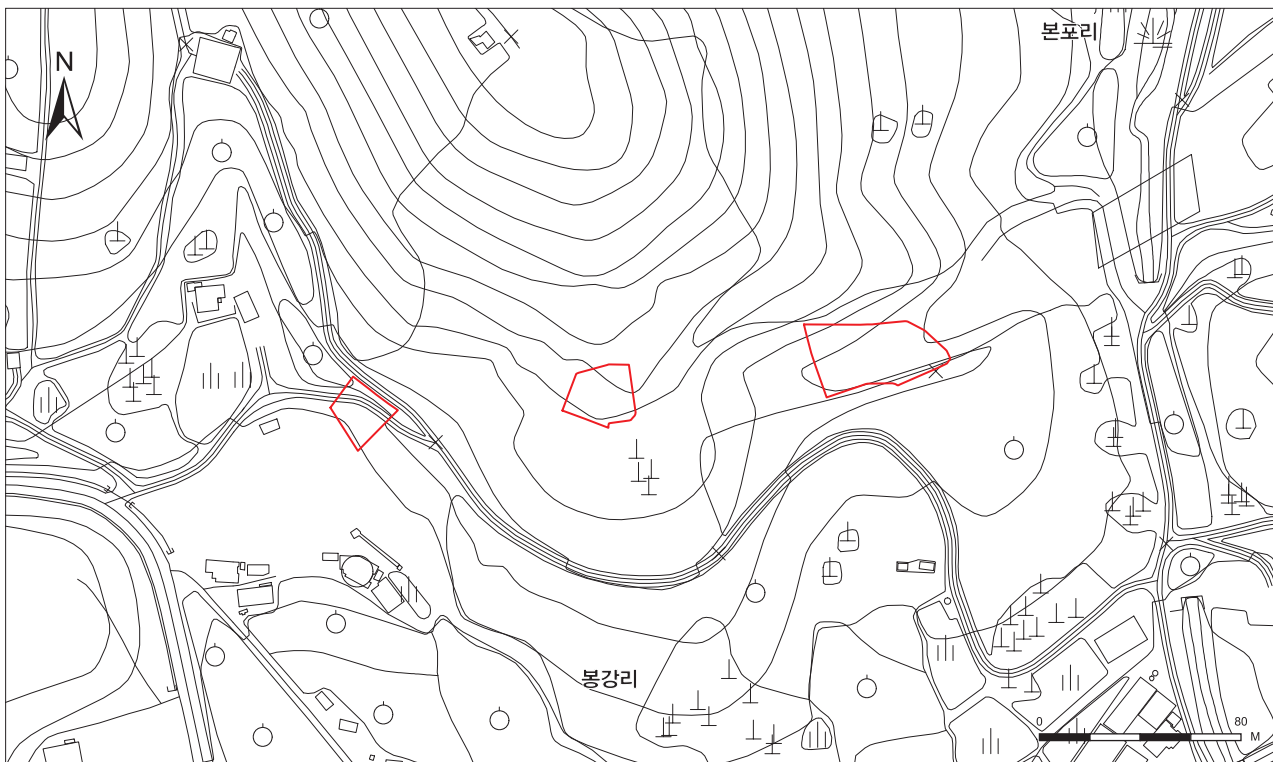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강리 산26-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08.11.~2008.12.

주요 유구 / 유물
석실묘 / 개 편, 파수부소호 편

유적은 낙동강 하류 본류의 남쪽에 위치한 독립구릉의 남동쪽 능선 사면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에 발달한 대산평야의 북서쪽에 해당한다. 시굴조사 결과 유구가 확인된 남서쪽 구릉말단부, 중앙능선부, 남동쪽 완경사지 등 총 3개 구간을 각각 A·B·C구역으로 명명하여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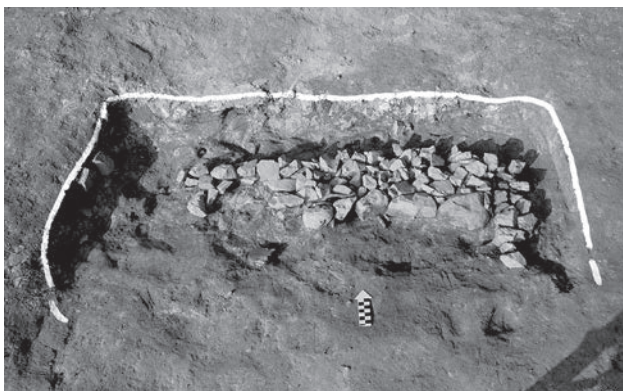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A·B구역에서 근대의 분묘가 5기, 구 1기가 조사되었고 C구역에서는 조선~근대의 분묘 21기와 함께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1동, 삼국시대 석실묘 1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석실묘는 후대의 삭평과 교란으로 인해 대부분 유실되고 벽석과 시상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석실묘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벽석은 북동쪽 모서리에 할석 1개가 가로눕혀쌓기한 상태로 1단 잔존하고 있다. 시상대는 동-서 방향으로 총 2차에 걸쳐 설치되었고 유물은 상부에서 개 편과 파수부소호 편이 확인되었다.

유적 위치도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10, 『동읍-한림간 도로확장구간 내 창원 본포리 유적』.

창원 본포리유적에서 조사된 석실묘는 고고학적 자료가 부족한 동읍지역의 삼국시대 고분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유구 배치도

C지구 석실묘

C지구 석실묘 출토유물

07

창원 동전리고분군 _ 창원 도시계획도로 3-33호선 건설구간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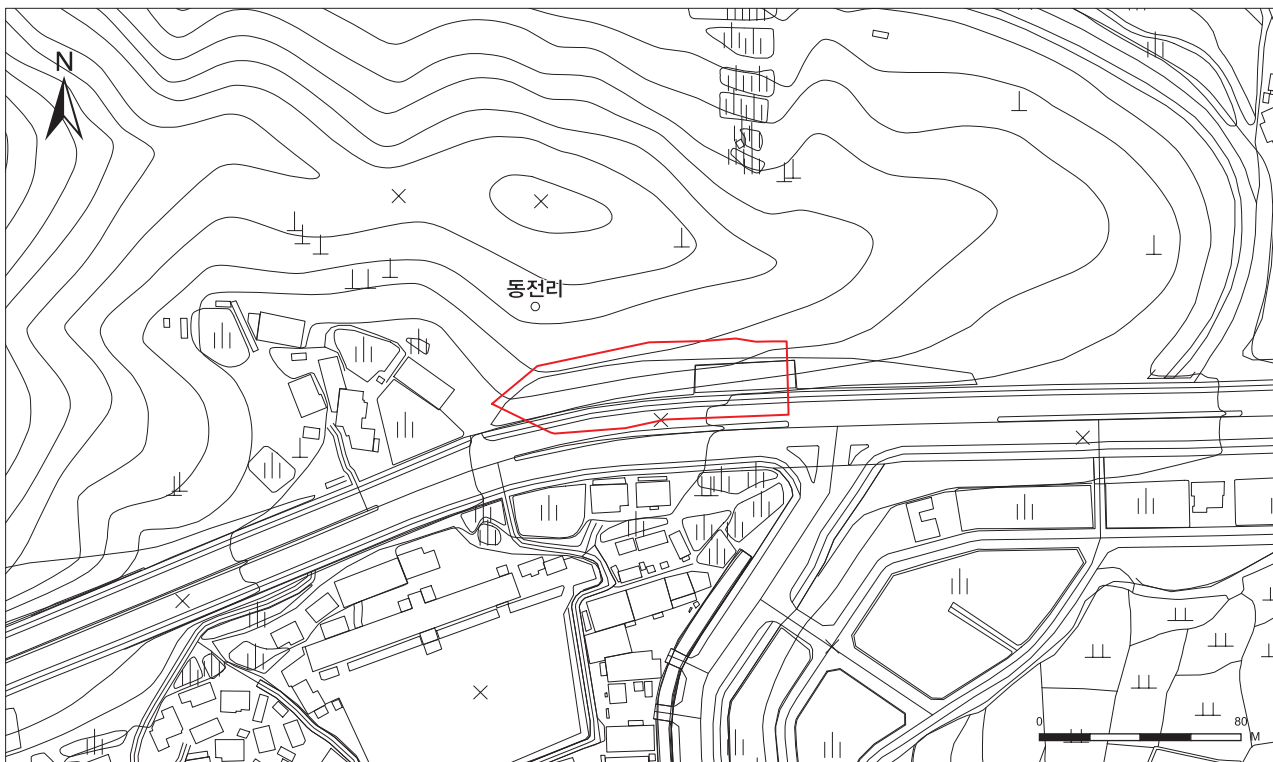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전리 3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11.3.~2011.5.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 유개고배, 장경호, 기대, 이식, 교구

유적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앞동산(해발 133m)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해발 27~40m 선상에 열상을 이루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조영되었다. 남서쪽으로 곡간부를 두고 마주보는 구릉 말단부에 창원 동전리유적이 위치하고 있어 시간적인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토광묘 2기, 목곽묘 7기, 석곽묘 6기 등 분묘 15기와 조선시대 분묘 10기, 수혈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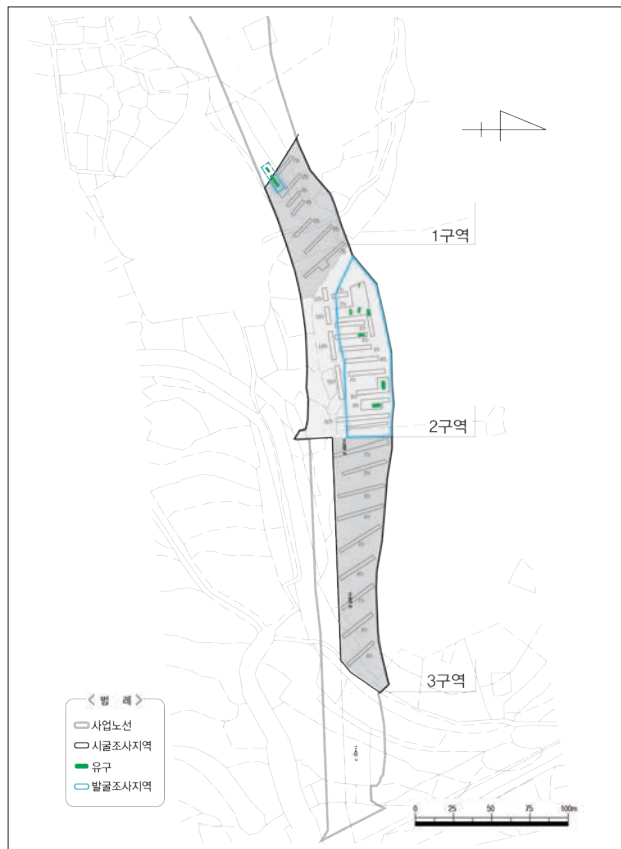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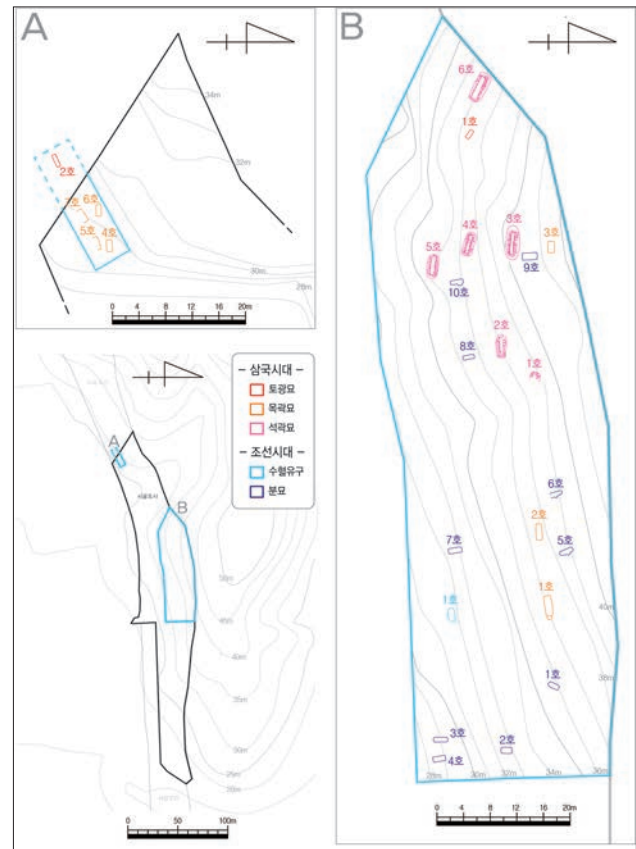
목곽묘는 사면 말단부에 해당하는 조사지역의 동서쪽에 주로 조영되었으며, 경사가 높은 면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규모와 수, 출토유물 양상을 볼 때 목곽묘는 위계화를 확인할 만한 배치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장단축의 비가 1.75~2.85:1인 중소형이 주류이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보강토는 적갈색사질점토로 충진하였다. 유물의 부장양상은 한쪽 단벽에 부장되거나 양 단벽, 한쪽 장벽에 부장되는 등

유적 위치도

다양하다. 출토유물은 토기류로는 장경호, 단경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철기류는 철겸 2점만 출토되었다.

석곽묘는 조사지역 중앙의 사면 말단부에 조영되어 있으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배치된 양상이다. 3·4호 석곽묘에는 개석이 설치되어 석곽 상부를 밀폐한 것이 확인되지만, 나머지 4기는 개석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목개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곽묘는 기반층을 굴착하여 묘광을 조성하고 길이 30㎝ 이상의 할석을 이용하여 최하단을 가로세워쌓기한 후 2단부터는 눕혀쌓기하여 벽석을 축조하였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석곽의 규모는 장벽 길이가 300㎝ 미만이 3기, 300㎝ 이상이 2기가 확인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세장한 편이다. 유물은 유개고배, 고배, 장경호, 단경호, 대부파수부완, 파배 등의 토기로 다양하게 출토되는 편이다. 철기류는 철부, 철겸 등의 농공구류와 철모, 철촉 등의 무기류 및 유자이기, 과판, 교구 등의 의례용유물과 철정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로 볼 때 석곽묘는 5세기 중후반에서 6세기 초에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분묘는 동전리유적의 횡구식석실묘 보다 앞선 시기에 조영된 것으로 양 유적의 비교검토를 통해 묘제의 변천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자료는 창원 북면 일대의 삼국시대 매장상을 복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3, 『창원 동전리고분군-창원 도시계획도로 3-33호선 건설구간 내 유적』.

시굴조사 트렌치 위치도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3호 목곽묘

6호 석곽묘

3호 목곽묘 출토유물

6호 석곽묘 출토유물

08

창원 동전리유적 _ 창원 동전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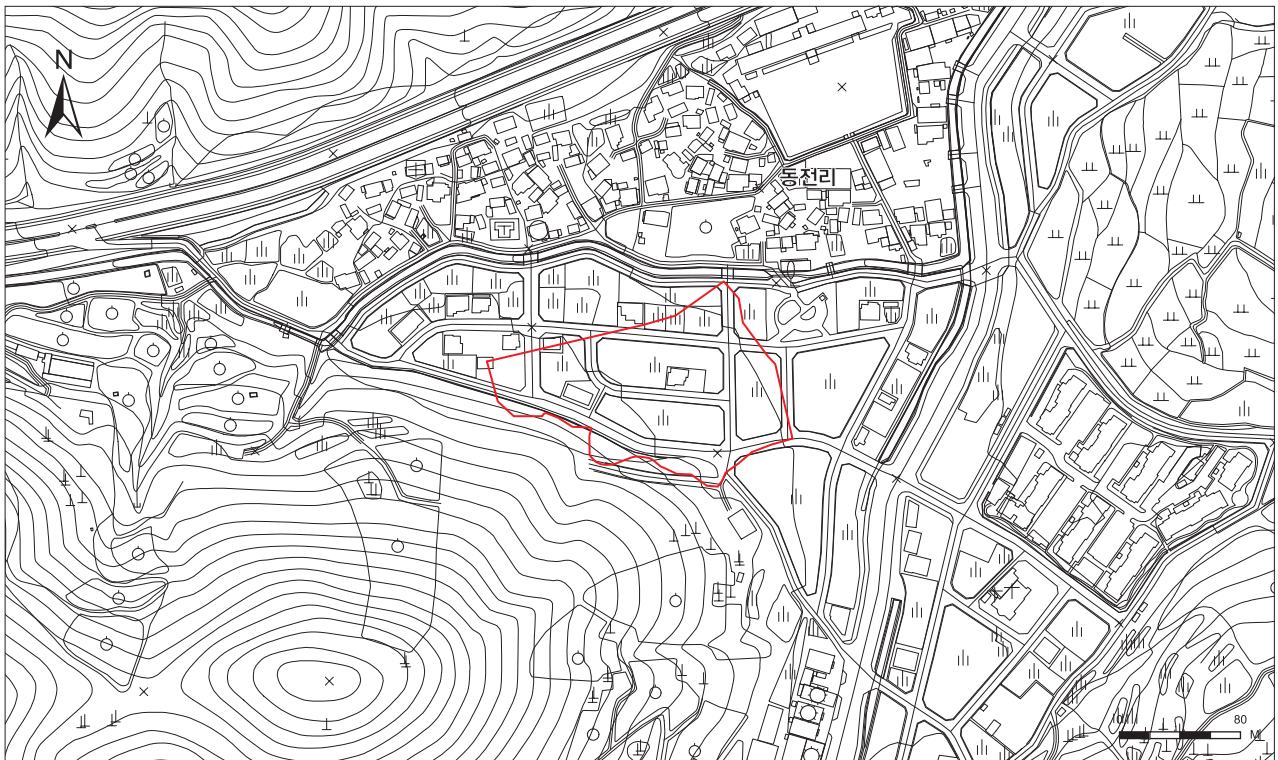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동전리 14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10.1.~2010.4.

주요 유구/유물
석곽묘, 석실묘 / 부가
구연장경호, 유개고배,
철제망치, 모루

유적은 음달산(해발 208m)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 말단부와 곡부 평탄면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과 주변의 완만한 구릉지에는 동전리고분군, 동전리유물산포지, 화천리고분군, 화천리유물산포지 등 많은 수의 삼국시대 유적과 화천리성지 등의 통일신라시대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 삼국시대 분묘 23기, 고려·조선시대 수혈유구 18기, 구상유구 2기가 조사되어 유적은 청동기시대 이후로 삼국시대 매장공간, 고려·조선시대 생활공간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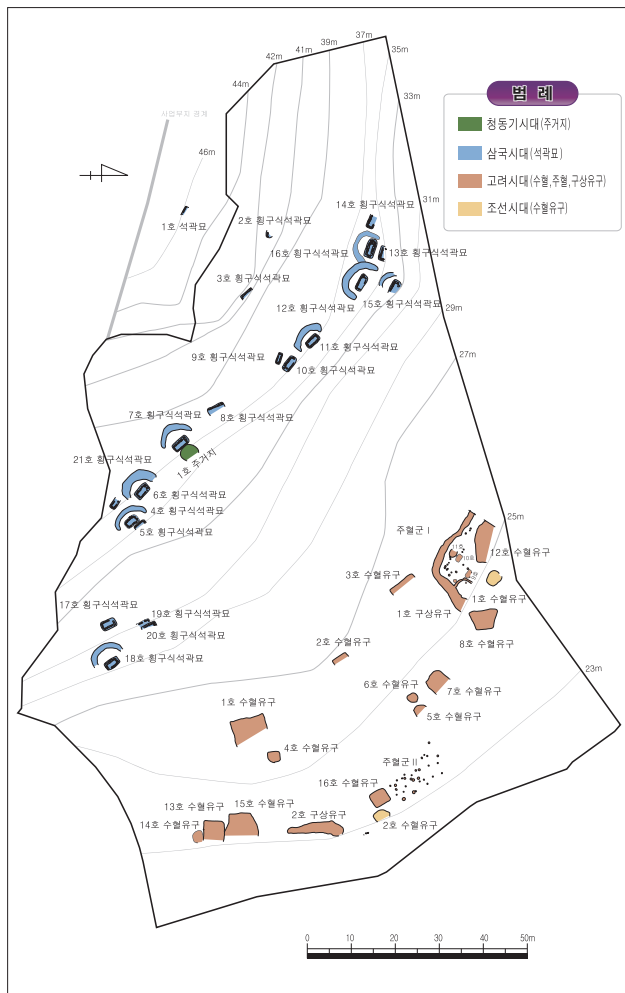
삼국시대 분묘는 해발 35~46m 선상의 사면 말단부에 입지하고 있으며, 23기 중 매장주체부 구조를 알 수 없는 23호를 제외한 22기 중 수혈식석곽묘는 2기, 나머지 20기는 횡구식석실묘로 파악된다. 횡구식석실묘는 주구가 설치되어 묘역의 범위를 알 수 있는 경우와 단독으로 조영된 경우로 구분되며, 간혹 주구가 중복되는 양상도 확인되고 있

유적 위치도

다. 평면형태는 평면비가 1.9:1 이상인 장방형이며, 벽석의 최하단석은 대부분 눕혀쌓기하여 축조하였다. 횡구부는 벽석의 한쪽 단벽을 이용하여 들여쌓거나 폐쇄석을 사용한 방법으로 축조하였는데, 대부분 지형이 낮은 서쪽과 북쪽 단벽 전면을 이용하였다. 시상은 묘광 바닥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점토로 정지한 후 할석을 이용하여 시상을 축조하였는데, 대부분의 석실묘는 묘광 바닥 전면에 설치하였다.

출토유물 중 토기류는 유개고배, 장경호, 단경호, 부가구연장경호, 완 등의 신라후기 양식의 토기류와 단야구인 철제망치와 모루를 비롯하여 철겸, 철도자, 철부 등의 철기가 출토되었다. 주변의 마산 덕곡리유적, 마산 현동유적 등과 비교한다면 유적의 조영시기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로 추정 가능하다.

발굴조사를 통해 동전리유적의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주변의 동전리 고분군의 발굴조사 성과와 함께 5세기 이후부터 7세기까지의 창원 북면 일대의 삼국시대 정치체 성격을 규명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2, 『창원 동전리유적-창원 동전 도시개발 사업지구내 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09

창원 가음정동유적 _ 창원대로 확·포장공사구간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산21-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1999.11.~20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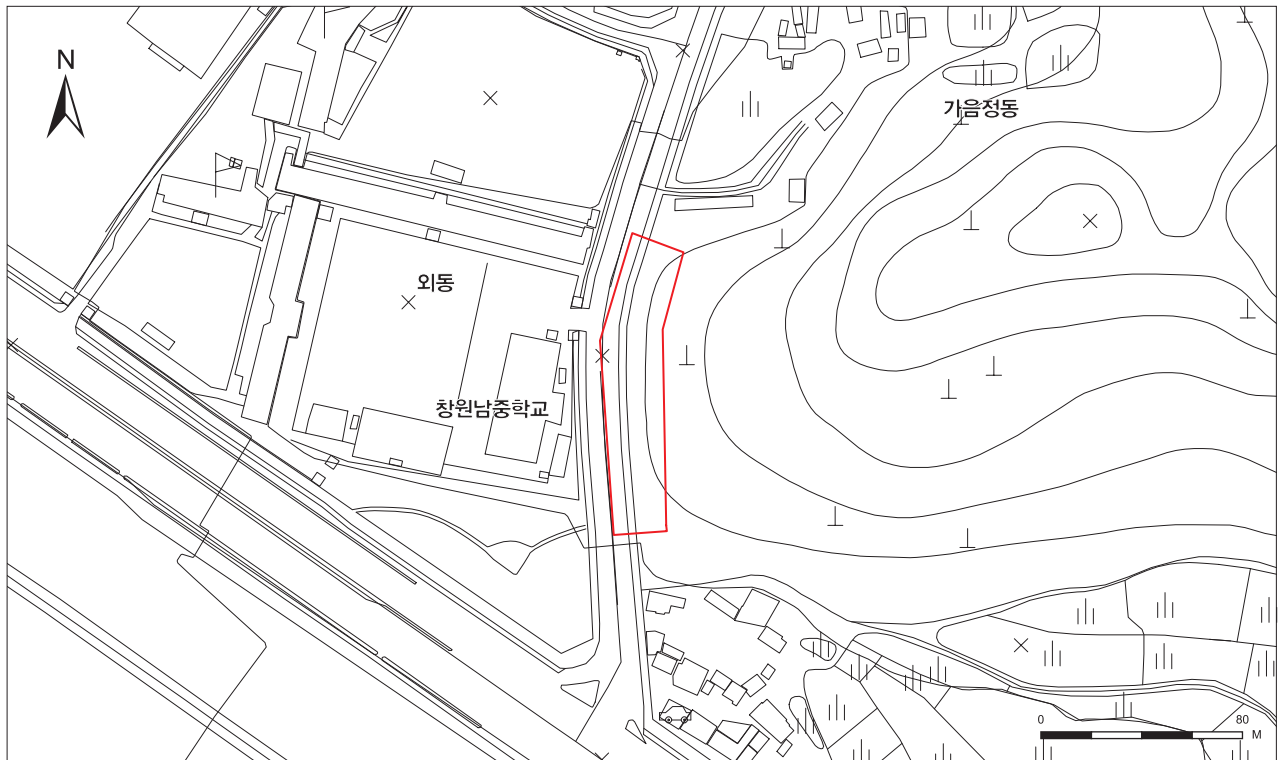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묘 / 고배, 소형 호

유적은 창원시 동남쪽의 저지대에 솟아 있는 해발 70m 전후의 낮은 야산이 넓게 연결된 독립구릉상의 능선사면과 저지대에 형성된 대단위 유적군으로 청동기시대 지석묘를 비롯하여 삼국시대 고분군, 취락과 패총, 수전이 확인된 복합유적이다. 고분군이 위치한 곳은 해발 59m 내외의 나지막한 야산으로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능선의 서남단부 일부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수혈식석곽묘 3기와 횡구식석실묘 1기가 조사되었는데, 후대의 교란으로 유구의 대부분이 유실되고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석곽묘는 세장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지며 바닥 전면에 천석으로 시상대를 마련하였다. 출토유물은 개 1점, 소형 호 1점, 방추차 1점이다. 석실묘는 평면형태 방형으로 동장벽에 인접하여 할석을 이용한 시상대가 마련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고배 2점, 완 1점이다.

출토된 유물로 볼 때 고분군의 조영시기는 6세기대로 가음정동고분의 최후 단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00, 『창원 가음정동유적-창원대로 확·포장공사구간내』.

유적 위치도

1호분 조사전 모습

1호분

2호분

2호분 유물 출토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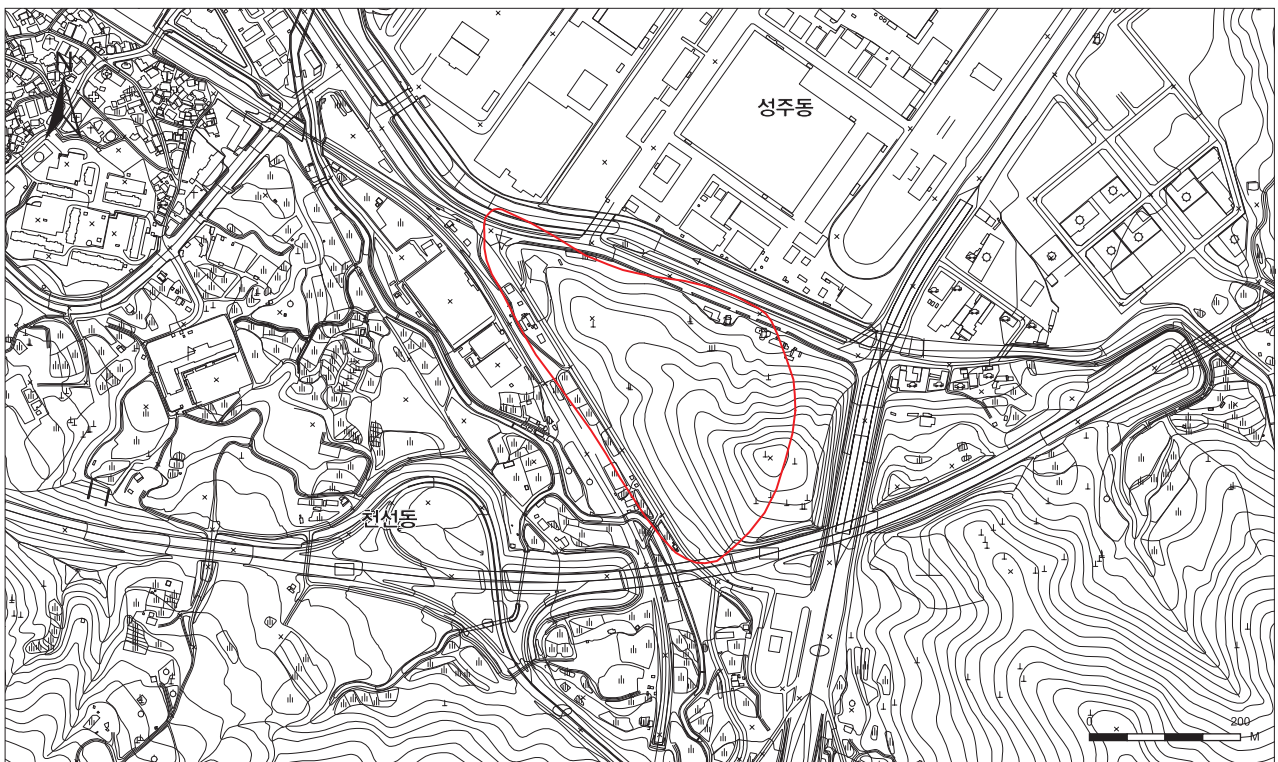
10 창원 천성동고분군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산107-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창원대학교박물관 / 1999.12.~2000.2.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단경호, 장경호, 유자이기, 철정

유적은 불모산(해발 801m)에서 북-서 방향으로 뻗어내린 능선의 사면에 넓게 고분군이 형성되어 있다. 조사구간은 고분군의 분포범위 중 가장 아래쪽에 해당하는 곳으로 해발 60m 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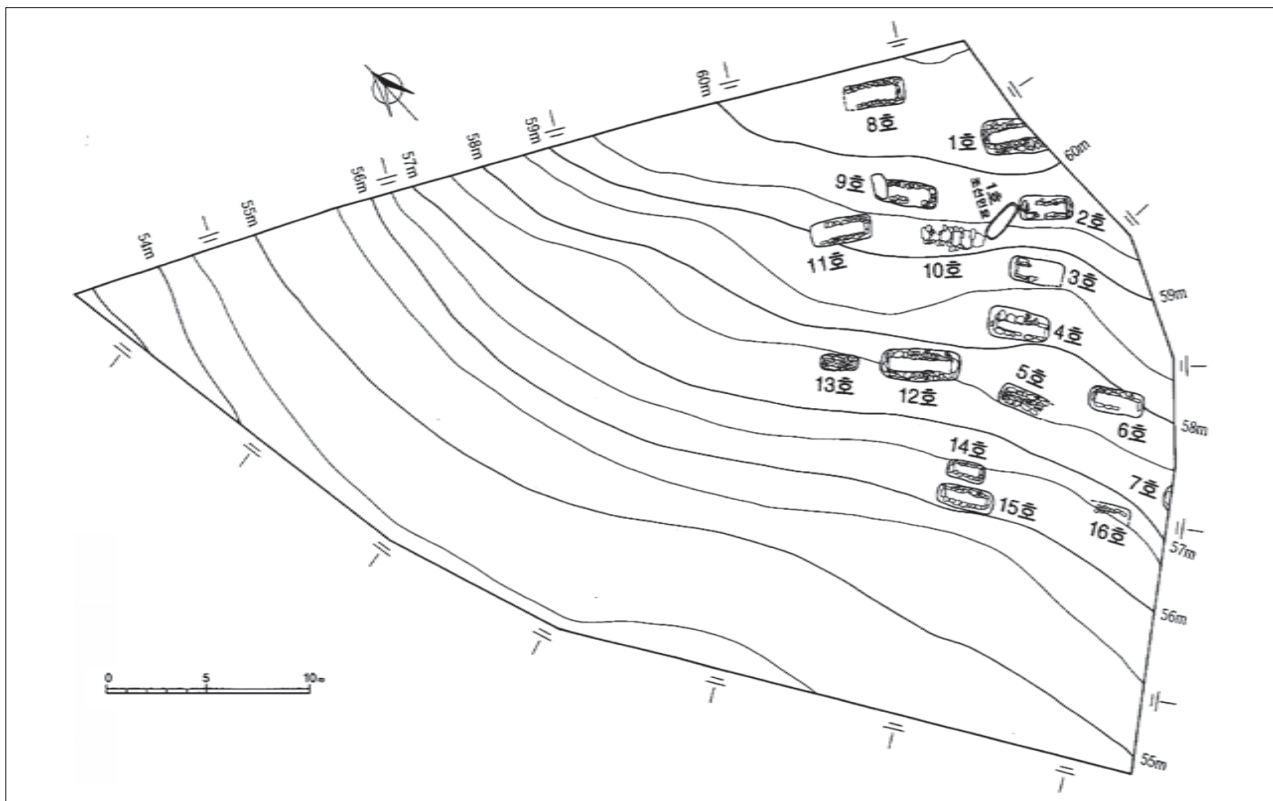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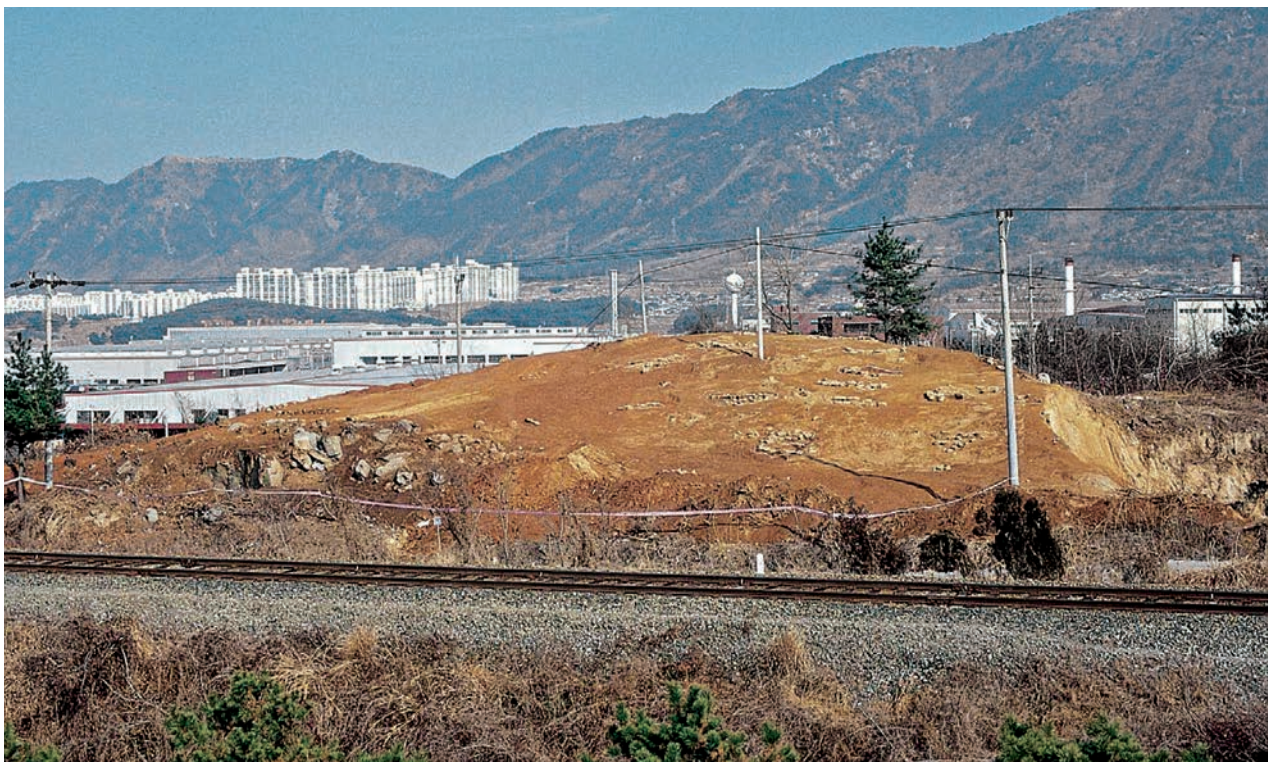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 17기와 조선시대 분묘 1기가 조사되었다. 석곽묘는 할석과 판석을 이용한 중소형의 석곽묘로 장방형의 묘광을 파내고 바닥 중앙부에 단면 'U'자상으로 얕은 단이 지도록 구덩이를 판 뒤, 편편한 상면을 만든 점이 특이하다. 최하단석은 네 벽 모두 판석을 세로세워쌓기하였고 일부 최하단석을 할석의 하단을 좁게 가공하여 5~10cm 정도로 상면을 파낸 뒤 박아서 축조하였다. 부장유물 중 토기류는 양 단벽쪽으로 부장하였으며, 개석은 편편한 할석으로 겹쳐서 덮고, 개석들 사이와 상면에는 회황색의 점질토를 발라 밀폐하였다. 시상은 소형 할석을 깔아서 마련하였는데 대체로 파괴가 심하다.

유적 위치도

유구는 묘광 규모에 따라 3그룹으로 구분되는데, 350㎝ 이상의 대형과 260~300㎝ 정도의 중형, 그리고 250㎝ 이하의 소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중형묘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대형과 소형묘는 소수이다. 유구는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 영남지역의 삼국시대 후기 석곽묘에서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창원 반계동고분군, 의령 예둔리고분군, 의령 천곡리고분군, 하동 고이리고분군 등 경남 일원의 제고분과 축조상 기법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유구의 규모와 석재, 유물면에서도 유사성이 인정된다.

출토유물은 총 173점으로 토기류는 양 단벽쪽에 부장하였고 철기류는 상면의 전면에서 확인되었다. 토기류는 고배, 개배, 완, 파배 등이며, 철기류에는 도자와 유자이기, 철모, 철부, 철겸이 있다. 토기는 신라양식과 재지적 요소가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함안양식 토기와 서부경남지역 토기가 결합하여 나타나고 있어 당시 내외적인 문화접촉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배, 장경호, 파수부호 등과 같은 토기의 일부분을 깨서 부장시킨 파쇄토기의 존재가 확인되는데, 이는 특정 유구에 한정된 것이어서 제사의례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2호분에서 출토된 조족문이 타날된 단경호는 주로 백제권역에서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 5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바다를 통해 창원지역이 백제권역과 실질적으로 활발히 교류했음을 보여준다.

천선동고분군의 발굴조사를 통해 인근의 가음정동고분군, 반계동고분군, 도계동고분군 등과 비교연구가 가능하며 바다를 통한 대외교역의 일면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참고문헌

창원대학교박물관, 2000, 『창원 천선동고분군』.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2호 석곽묘

12호 석곽묘 유물 출토모습

철기류

토기류

11

마산 현동유적
馬山 縣洞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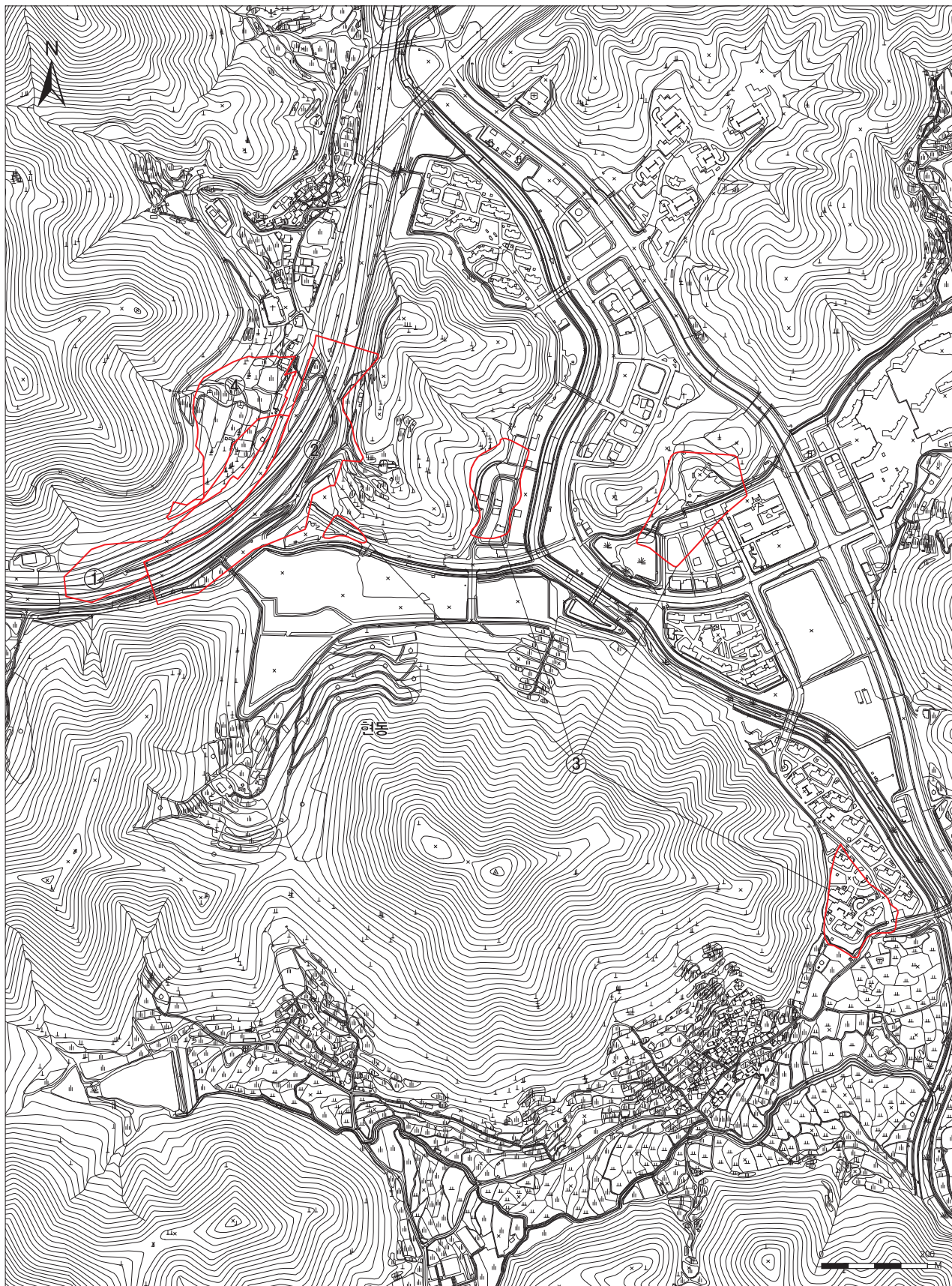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소재한 유적으로 북쪽 뒤로 솟아 있는 대산(해발 472m)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지맥이 산마루를 형성하고 이 산정에서 급경사로 내려오다가 경사도가 완만해지는 산복부에 형성되어 있다. 유적은 3세기에서 7세기대의 고분군과 3·4세기대에 형성된 취락과 패총, 청동기시대 전기의 주거지 등이 분포하는 복합유적이다. 지리적으로 이곳은 마산만에 바로 이웃한 덕동만으로 통하는 매우 협소한 곳이나 작은 곡저평야를 끼고 있으며 마산에서 고성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육상 교통로가 유적지를 관통하고 있어서 양호한 인문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오래 전부터 유적이 알려져 왔으나 학술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다가 마산-충무간 국도건설사업에 따라 1989년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긴급구제발굴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5동, 원삼국시대 폐기장(패총) 8기, 삼국시대 목곽묘 63기, 석곽묘 2기, 석실분 2기, 옹관묘 1기, 수혈주거지 2동, 수혈유구 4기, 주혈군 1기, 제사유구 1기 등 총 89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후, 마산 현동-임곡간 국도건설 공사에 따라 창원대학교박물관의 조사구간과 인접하여 2009년 동서문물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3동, 고상건물지 3동, 묘역식지석묘 4기, 석관묘 12기, 삼국시대 목곽묘 133기, 석곽묘 8기, 횡구식석실묘 12기, 수혈주거지 4동, 조선시대 건물지 1동 등 총 180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기 조사된 도로구간과 동쪽으로 인접하여 마산 현동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2009년 동서문물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9동, 고상식건물지 1동, 주혈군 1기, 수혈 11기, 환호 2기, 석렬 1기, 석관묘 9기, 석개토광묘 2기, 삼국시대 목곽묘 2기, 석곽묘 32기, 횡구식석실묘 6기, 옹관묘 2기, 수혈 352기, 구상유구 6기, 고상건물지 13동, 제철로 1기, 폐기장 1기, 주혈군 7기, 고려시대 건물지 3동, 조선시대 수혈 4기, 삼가마 2기 등 총 467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후 거제-마산3 국도건설 공사로 인해 기 조사된 도로구간의 서쪽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삼한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41동, 삼국시대 목곽묘 640기, 석곽묘 20기, 토광묘 4기, 고려·조선시대 분묘 37기, 수혈 57기, 시대미상 구 7기 등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마산 현동유적은 삼국시대 목곽묘 840여기와 석곽묘, 석실묘, 옹관묘 등 3세기에서 7세기대의 분묘유구가 약 1,000기 가량 조사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가야시기 고분 중에서는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구릉 사면의 완사면에 분묘유구가 밀집되어 열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마산 현동유적	창원대학교박물관	1985.5.~1985.9.	마산 현동유적(1990)
2	마산 현동유적 -마산 현동~임곡간 국도건설 공사구간 내 유적	동서문물연구원	2009.5.~2010.2.	마산 현동유적Ⅰ 마산 현동~임곡간 국도건설 공사구간 내 유적(2012)
3	마산 현동유적 -마산 현동 국민임대주택부지 내 유적	동서문물연구원	2009.6.~2010.12.	마산 현동유적Ⅱ -마산 현동 국민임대주택부지 내 유적(2012)
4	마산 현동유적 -거제~마산간 국도 건설공사구간 내 유적	삼한문화재연구원	2017.8.~2018.11.	거제-마산3 국도건설공사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1차)(2018)

상으로 조영되어 있고 구릉과 구릉 사이의 곡부 평탄면 일대에는 수혈유구, 구상유구, 제철로, 폐기장 고상건물지 등의 생활 및 생산유구가 분포하고 있어 성격에 따라 공간을 분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동유적의 조성집단은 고분군에서 다수의 철정과 단야구가 부장되고 다양한 수혈유구와 제철관련유구가 확인된 것을 통해 볼 때, 철기의 제작과 생산을 근간으로 마산의 덕동만을 통해 남해안 유역의 다양한 집단과의 교섭을 통해 살아가던 해상교역 집단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목곽묘와 수혈에서 출토된 배모양토기를 통해서도 증명되며, 당시 사람들의 해상교역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까지 조명해 주는 자료적 가치가 큰 유물이다.

마산 현동유적은 남해안에 형성된 협곡 안의 구릉사면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야고분의 표식적 유적으로 다양한 양식의 가야토기가 출토되어 제 가야지역의 4세기에서 5세기대에 이르는 토기편년과 지역정치체의 다양한 역할과 교섭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1 마산 현동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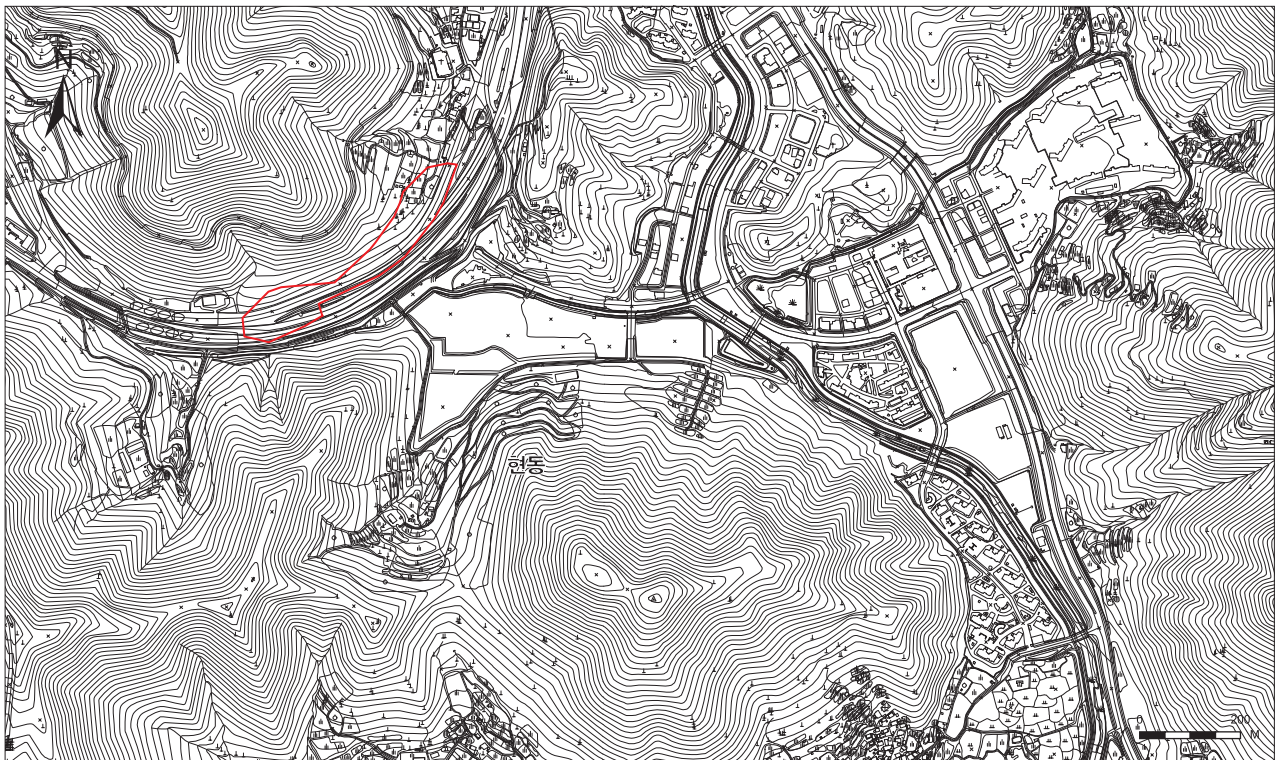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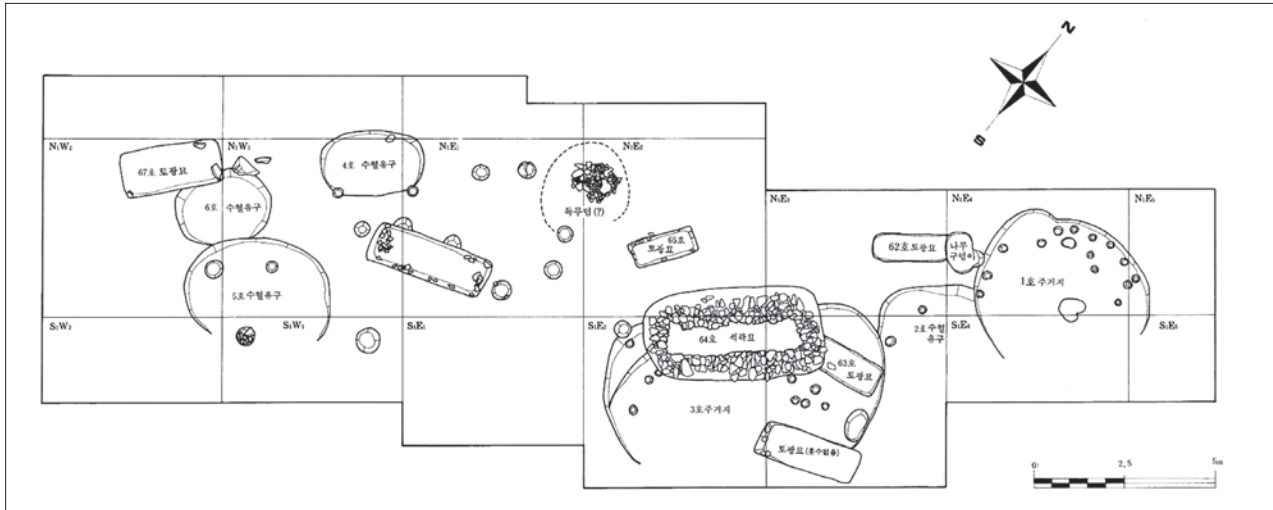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133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창원대학교박물관 / 1985.5.~1985.9.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패총 / 고배, 기대, 단경호

유적은 무학산에서 발원한 우산천의 하천 퇴적물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와 청량산·당마산에서 뻗어 내린 주변의 독립 구릉을 포함한 지역의 소구릉과 구릉말단부, 곡간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형적으로는 북쪽에 위치한 대산과 봉화산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사면 말단부에 해당한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5동, 삼한시대 폐기장(패총) 8기, 삼국시대 목곽묘 63기, 석곽묘 2기, 석실분 2기, 옹관묘 1기, 수혈주거지 2동, 수혈유구 4기, 주혈군 1기, 제사유구 1기 등 총 89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목곽묘는 상호 간 중복이 심하며 중복된 목곽묘 사이에 시간적인 폭히 극히 짧아 봉분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목곽묘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규모는 대체로 길이 400㎝ 이상의 대형과 220~400㎝의 중형, 220㎝ 이하의 소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목곽은 주로 묘광의 한쪽 장벽에 붙여서 'ㄷ'자상으로 안치했으

유적 위치도

2지구 유구 배치도

며, 목곽 내의 유물 배치상태는 주로 목곽의 양 단벽에 토기와 철기유물이 다량으로 부장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대가 내려가는 목곽묘 주위에는 비교적 큰 할석을 돌려놓은 위석시설의 흔적도 발견된다. 석곽묘는 장방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네 벽을 축조하고 바닥에는 시상석을 깔고 있다.

출토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가 주종을 이루며, 그밖에 일부에서 출토된 구슬류가 있다. 토기류는 다양한 기종으로 분화되고 매우 복잡한 기형들로 세분될 수 있다. 현동유적 출토 토기들은 함안지역의 특색을 강하게 보여주며, 부산·김해지역, 합천지역 등의 토기와 함께 일본의 스에키 토기 등과도 관련성을 보인다. 철기류는 주로 무구류와 공구류가 대부분이며, 예외적으로 어로행위와 관련된 낚시바늘, 철 생산과 관련된 철제집게와 철재가 출토되었다. 특히 43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원형경판이 부착된 재갈은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마구의 하나로 추정된다.

한편 현동유적 내 주거지와 패총은 급경사면에 형성된 것으로 출토된 유물이 적갈색연질토기와 옹, 발형토기, 노형토기 등으로 대체로 3세기대의 유물들이다. 불규칙적인 형태의 주혈 구성으로 보아 뚜렷한 형태의 주거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나중에 조성된 고분군에 의해서 파손이 심한 상태이다.

마산 현동유적은 남해안에 형성된 협곡 안의 구릉사면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야고분의 표식적 유적으로 다양한 양식의 가야 토기가 출토되어 제 가야지역의 4세기에서 5세기대에 이르는 토기편년과 지역정치체의 다양한 역할과 교섭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창원대학교박물관, 1990, 『마산 현동유적』.

유적 원경

64호 석곽묘

64호 석곽묘 유물 출토모습

64호 석곽묘 유물 출토모습

11-2

마산 현동유적 _ 마산 현동~임곡간 국도건설 공사구간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144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09.5.~2010.2.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 고배, 기대, 단경호, 철정

유적은 무학산에서 발원한 우산천의 하천 퇴적물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와 청량산·당마산에서 뻗어 내린 주변의 독립 구릉을 포함한 지역의 소구릉과 구릉말단부, 곡간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형적으로는 북쪽에 위치한 대산과 봉화산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사면 말단부에 해당한다.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현동유적과 연접하여 동쪽의 경사 하단부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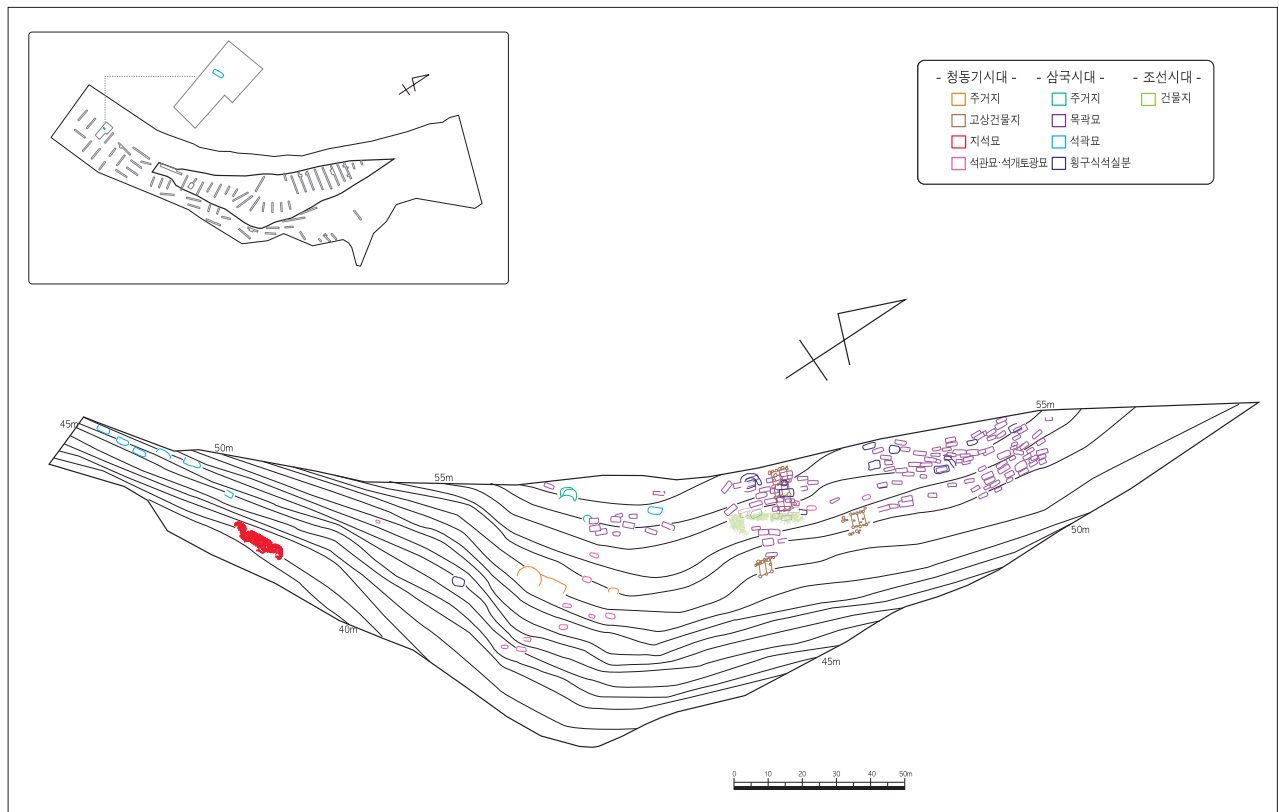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3동, 고상건물지 3동, 묘역식지석묘 4기, 석관묘 12기, 삼국시대 목곽묘 133기, 석곽묘 8기, 횡구식석실묘 12기, 수혈주거지 4동, 조선시대 건물지 1동 등 총 180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목곽묘는 구릉의 동쪽 상부에서 동쪽 구릉 말단부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기존의 현동유적의 Ⅰ-A·B구역과 같은 목곽묘 분포 양상을 보인다. 목곽묘의 주축방향은 주로 동-서향으로 등고선 유동방향과 평행하며 목곽묘끼리의 중복이 심한 편이다. 목곽묘의

유적 위치도

축조순서를 추정해 보면 동쪽 구릉 말단부의 아래에서부터 서쪽 구릉 상부로 축조되었고 주로 대형의 장방형 목곽묘가 일정간격으로 조영되었으며 그 사이에 중소형의 목곽묘가 혼재하여 중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서쪽구릉부로 갈수록 세장방형의 목곽묘는 증가하고 중복조영이 점차 사라진다. 목곽묘는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대에는 장방형의 평면형태에 함안양식의 통형고배와 김해양식의 외절구연고배가 부장되다가, 4세기 중후반에 이르면 평면형태가 세장해지면서 다양한 복합양식의 토기가 부장된다. 목곽묘가 중복 조영되고 목곽묘가 형성되는 곳에 인접한 곳으로 묘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5세기대가 되면 대형의 목곽묘가 조영되기 시작하면서 유구의 규모가 커지면서 내부 부장유물도 다량으로 부장되기 시작한다. 화염문투창과 삼각투창고배, 일렬장방형투창고배가 부장되며, 일부 목곽묘에서는 창녕계 토기가 부장된다.

석곽묘는 유적 내 서쪽 구릉 말단부에 집중분포하고 있으며 동쪽 구릉상부에서 서쪽구릉말단부로 조영되었다. 석곽의 규모와 유물의 부장양상에서 구릉상부에 있는 세장방형의 석곽묘가 석곽묘 축조 당시 유력자의 무덤으로 판단되며, 목곽묘와는 이격된 독립구릉을 중심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횡구식석실분은 유적 내 동쪽 구릉상부에 집중분포하며 목곽묘와 중복되어 조성되기도 한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에서 방형으로 변화해 가는데, 대체로 6세기 중반에서 신라시대의 단각고배가 부장되며 7세기대의 인화문토기도 출토되고 있다.

유구 배치도

현동유적을 조성한 집단은 3세기 중후반부터 성립하여 4세기대에는 아라가야의 기반을 두며 김해 금관가야와 관계교류가 중심을 이루다가 5세기 전반부터는 아라가야, 소가야, 창녕, 왜 등 다양한 정치체와 교류하며 철기유물의 부장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 시기가 현동집단이 덕동만 연근해 해안을 근거지로 하여 이들 정치체와 철소재를 유통하며 전성기를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5세기 후반에는 소가야연맹체에 편입되어 소형 고분군을 형성하며 소가야의 흥망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산 현동유적은 남해안에 형성된 협곡 안의 구릉사면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야고분의 표식적 유적으로 다양한 양식의 가야 토기가 출토되어 제 가야지역의 4세기에서 5세기대에 이르는 토기편년과 지역정치체의 다양한 역할과 교섭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2, 『마산 현동유적 I –마산 현동–임곡간 국도건설 공사구간내 유적』.

유적 전경

목곽묘 중복모습

6호 목곽묘

103호 목곽묘

4호 석곽묘

2호 횡구식석실분

2호 주거지

출토유물

11-3

마산 현동유적 _ 마산 현동 국민임대주택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합포구 현동 28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09.6.~2010.12.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수혈, 제철로, 폐기장 / 고배, 기대, 주형토기, 환두대도

유적은 무학산에서 발원한 우산천의 하천 퇴적물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와 청량산·당마산에서 뻗어 내린 주변의 독립 구릉을 포함한 지역의 소구릉과 구릉말단부, 곡간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형적으로는 북쪽에 위치한 대산과 봉화산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사면 말단부와 곡간부에 해당한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9동, 고상건물지 1동, 주혈군 1기, 수혈 11기, 환호 2기, 석렬 1기, 석관묘 9기, 석개토광묘 2기, 삼국시대 목곽묘 2기, 석곽묘 32기, 횡구식석실묘 6기, 옹관묘 2기, 수혈 352기, 구상유구 6기, 고상건물지 13동, 제철로 1기, 폐기장 1기, 주혈군 7기, 고려시대 건물지 3동, 조선시대 수혈 4기, 삼가마 2기 등 총 467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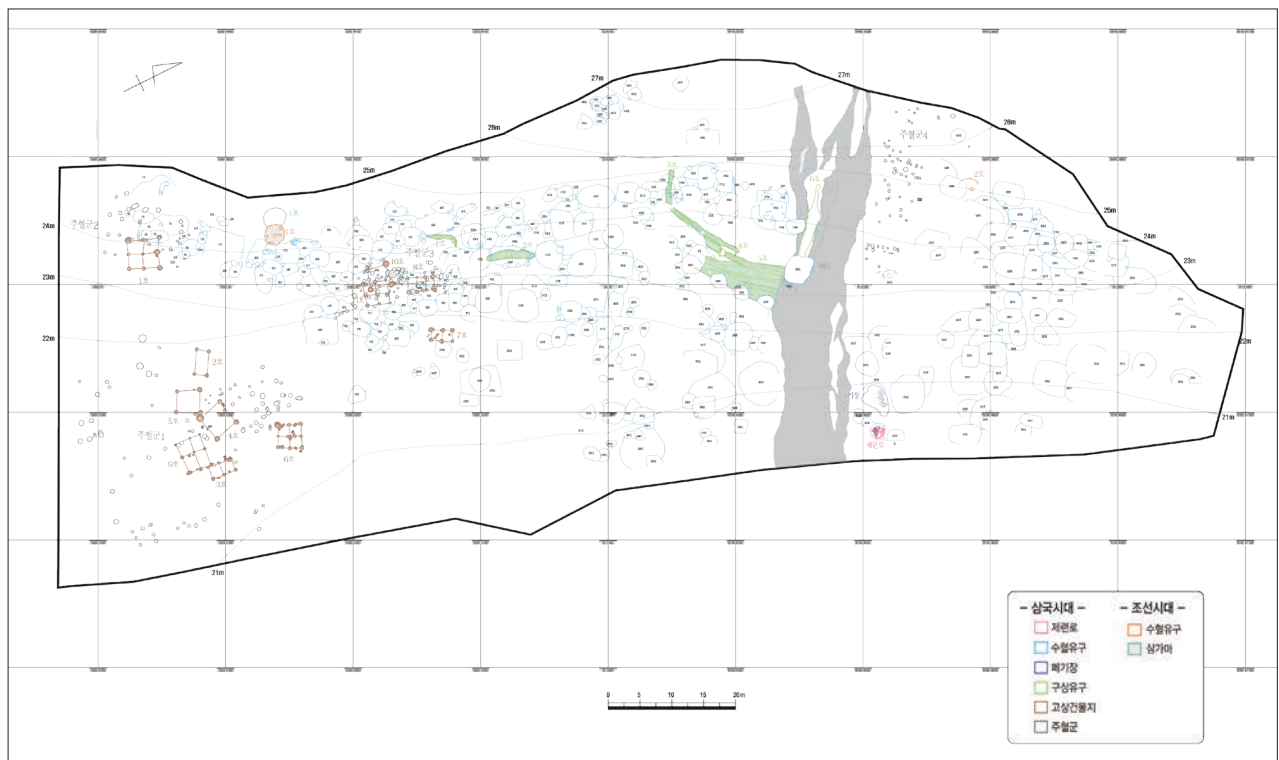
삼국시대 분묘유구는 가구역과 다구역으로 구분되는데, 가구역은 현동유적Ⅰ과 곡간부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구릉 사면 말단부에 해당하며 현동유적Ⅰ의 외곽으로 판단

유적 위치도

된다. 다구역은 해발 24~30m 사이에 군집을 이루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열상으로 분포한다. 조사지역 동쪽으로는 2~3기가 병렬적인 배치를 보이면서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고 있어 다곽식석곽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석곽묘는 평면형태가 세장하며, 벽석의 축조방식은 대부분 대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최하단석을 세워쌓기 하였다. 유물은 삼각투창고배, 일단장방형투창고배, 수평구연호 등 소가야양식 토기를 비롯하여 대가야양식, 창녕양식 토기의 외래계 토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석곽묘는 5세기 중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묘역에서 서쪽으로 이격되어 곡부 평탄면 일대의 해발 17~22m 선상에는 공간을 분할하여 생활 및 생산유구가 조영되었다. 수혈유구는 평면형태가 원형계와 방형계가 대부분이며 중복이 심한 양상으로 유구의 증·개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혈유구의 성격은 형태와 출토유물의 종류에 따라 의례용, 주거용, 작업용, 폐기장 등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이 주거와 작업관련 유구로 판단된다. 유물은 배모양토기, 컵형토기, 광구소호, 고배, 내박자, 송풍관 편 등이 출토되었다. 생활 및 생산유구의 조영시기는 분묘유적의 조영시기와 동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산천과 연접하여 평면형태가 원형인 제철로 1기와 이와 관련된 폐기장, 평면형태가 원형인 수혈유구가 밀집되어 조사되었다. 제철로는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나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과 철광석의 분석을 통해 제련로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제철관련 유구와

나구역 유구 배치도

폐기장에서 철광석, 송풍관 편, 철재, 노 벽체 편 등이 출토되었다. 제련로 주변에서 확인된 대형 수혈유구의 목탄과 피열흔적으로 볼 때 지상에서 제철과 관련된 작업공적이 지속적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삼국시대 주거역이 대형 작업공방에 해당하는 생산시설일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시대 매장유구의 배치양상이나 출토유물, 생활·생산유구인 수혈유구, 제철로, 폐기장의 출토유물 등을 통해 볼 때 현동유적Ⅱ의 삼국시대 취락은 5세기 중후반에 목곽묘와 석곽묘 단계에 거의 동시기에 축조되기 시작하여 7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통일기까지 조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산 현동유적은 남해안에 형성된 협곡 안의 구릉사면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야고분의 표지적 유적으로 다양한 양식의 가야 토기가 출토되어 제 가야지역의 4세기에서 5세기대에 이르는 토기편년과 지역정치체의 다양한 역할과 교섭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2, 『마산 현동유적Ⅱ-마산 현동국민임대주택부지내 유적』.

11호 석곽묘

26호 석곽묘

11호 석곽묘 출토유물

26호 석곽묘 출토유물

11-4

마산 현동유적 _ 거제~마산간 국도건설공사구간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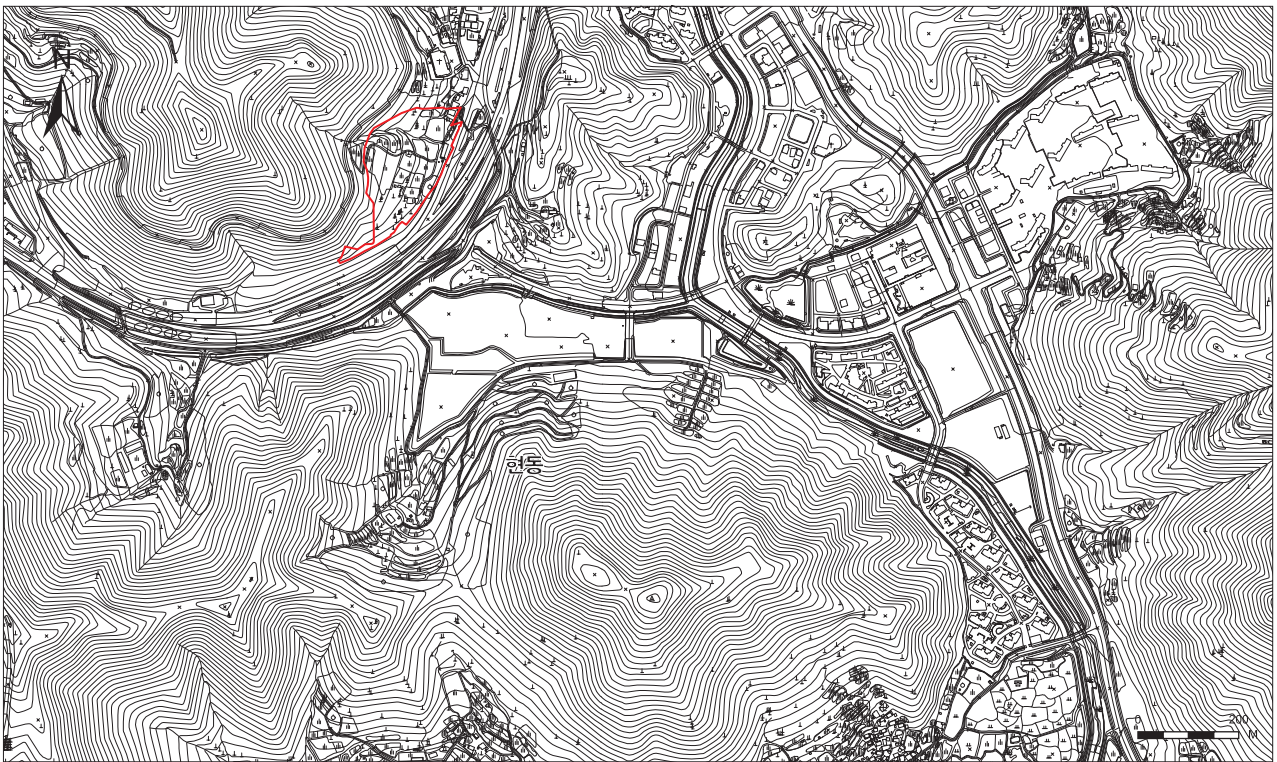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132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삼한문화재연구원 / 2017.8.~2018.11.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 고배, 기대, 단경호, 주형토기, 철정

유적은 무학산에서 발원한 우산천의 하천 퇴적물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와 청량산·당마산에서 뻗어 내린 주변의 독립 구릉을 포함한 지역의 소구릉과 구릉말단부, 곡간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형적으로는 북쪽에 위치한 대산과 봉화산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사면 말단부에 해당한다.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현동유적과 연접하여 서쪽의 경사 상단부에 위치한다.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41동, 삼국시대 목곽묘 640기, 석곽묘 20기, 토광묘 4기, 고려·조선시대 분묘 37기, 수혈 57기, 시대미상 구 7기 등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목곽묘는 조사지역 전역에 걸쳐서 분포하는데, 특히 해발 70m 선상 부근에서 유구간 중복이 심화되면서 군집을 이룬다. 석곽묘는 주로 남동쪽에 치우쳐 분포한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6m, 너비 1~3m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부장유물의 수량 외에는 구조상

유적 위치도

의 큰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목곽의 배치는 대부분 묘광의 중앙에 안치된 형태이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축조된 경우도 확인된다. 축조과정에서는 3차례에 걸친 제의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1차로 서장벽쪽을 중심으로 보강토에 목탄을 섞는 행위, 2차로 목곽 상부에 흙을 한 벌 덮고 목곽 중앙에 치우쳐 주조철부, 단야구 등을 매납하는 행위, 3차로 봉토 기저면의 상부 중앙에 수혈을 파고 대호를 매납한 행위이다.

유물은 양 단벽에 부장하며, 대체적으로 북단벽쪽에 대형의 토기를 다량으로 부장한다. 유물의 공반양상을 살펴보면, 통형고배, 단경호, 노형기대, 주조철부, 철촉 등을 공반하거나 화염문·삼각문·장방형 등의 투창이 있는 고배, 단경호, 발형기대, 철정, 단야구, 환두대도, 철검, 철모, 만곡종장판주 등 다양한 철기가 공반되는 무덤으로 크게 구분된다. 묘광의 크기나 목곽의 구조상에서는 전자와 후자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대체적으로 약 4m급 이상인 대형 목곽묘의 비율은 후자에서 많이 나타난다.

출토된 유물 중 주목되는 점은 주형토기이다. 크기는 길이 29.2㎝, 높이 18.3㎝이며, 완전한 형태로 출토되었다. 이 토기는 삼국시대 고분에서 최초로 출토된 범선으로 그 가치가 높다. 돛단배의 형태와 구조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고 배면에 톱니무늬 등의 새겨 넣는 등 장식미가 엿보인다. 이 주형토기는 당시의 선박제작기술과 더불어 철을 매개로 한 가야의 해상 교역을 유추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로서 학사적으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무덤 내에서 다량의 철정과 철착이 출토되어 이와 같은 사실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삼한문화재연구원, 2018, 「거제-마산3 국도건설공사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1차)」.

유적 원경

마산 현동유적은 남해안에 형성된 협곡 안의 구릉사면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야고분의 표지적 유적으로 다양한 양식의 가야 토기가 출토되어 제 가야지역의 4세기에서 5세기대에 이르는 토기편년과 지역정치체의 다양한 역할과 교섭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적 전경

387호 목곽묘

출토유물

12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1~300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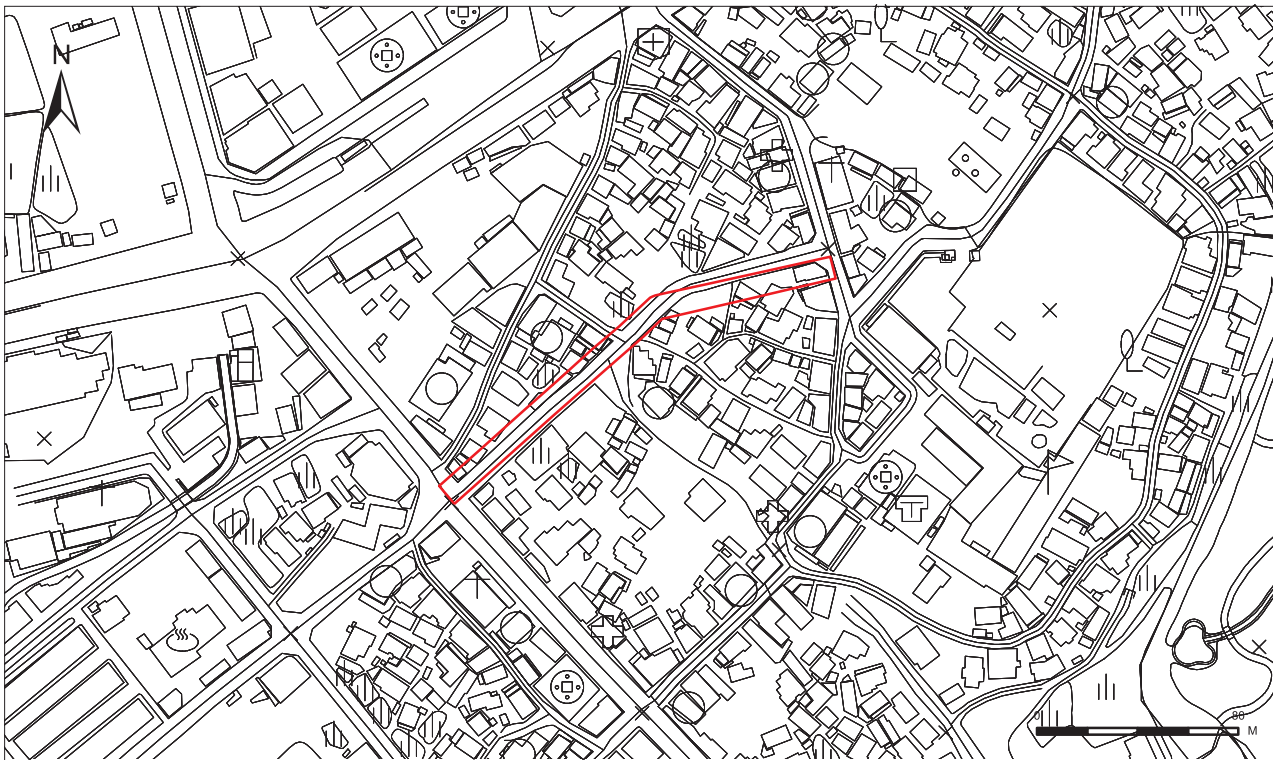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9.2.~2009.5.

주요 유구 / 유물
석관묘, 목곽묘 / 옹, 파수부배, 단경호, 구슬류

마산 진동 276번지 유적 _ 마산~진동 인수한의원~면사무소 간 도로개설구간 내 유적

유적은 진동만에 유입되는 태봉천 하구에 형성된 범람원에 해당되며, 진동천과 태봉천이 감싸고 돌아나가는 중앙부분에 유적이 위치한다. 조사지역은 골목길을 확장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으로 대부분 기존 도로와 민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부는 많이 삭평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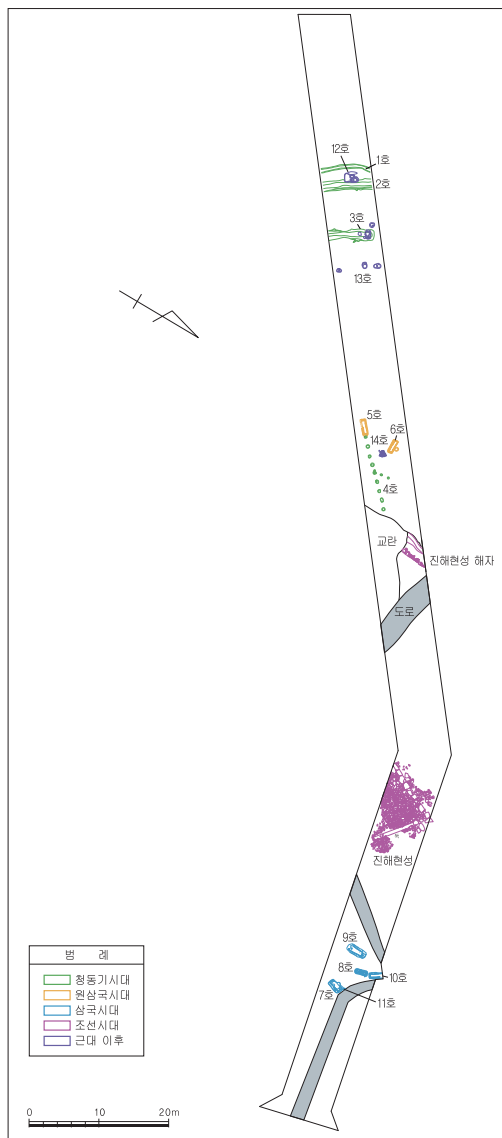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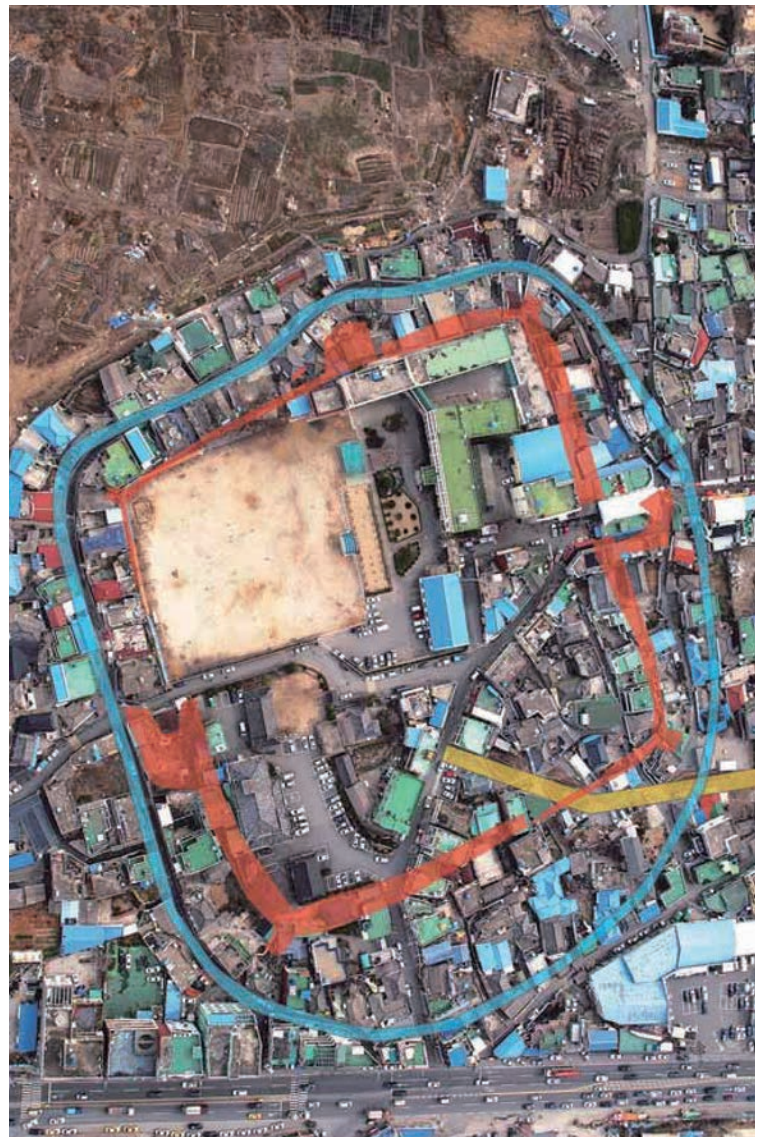
원삼국시대 유구는 석관묘 2기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5호 석관묘에서 옹 한 점이 출토되었다. 기형 및 제작방법 등에 있어서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태토 및 기형, 저부의 형태 등으로 보아 무문토기에서 연속되는 연질토기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작방법에 있어 타날하여 기형을 만들고 깎기조정과 목리조정을 병행한 점, 구연부의 형태 등에서는 야요이계 토기의 특징을 가진다. 여러 유적과의 비교를 통해 3~4세기대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시대 유구는 목곽묘 5기가 조사되었다. 대부분 상부가 삭평되고 바닥만 남아 있

유적 위치도

는 양상으로 내부에서 목곽의 흔적이 토층 및 평면상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는 목질흔으로 추정되는 유기질흔이 소량 확인되기도 한다. 목곽은 바닥에는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고 벽면만 세운 것으로 8호 목곽묘에서만 바닥에 편평한 할석을 일부 깔았다. 유물은 파수부배 편, 단경호, 기대 대각 편 등이 출토되고 경식류가 출토되었지만 철기류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목곽묘는 4세기대에 조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적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 유구는 이 지역의 문화상을 밝히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 『마산-진동 인수한 의원-면사무소 간 도로개설 구간 내 진동 276번지 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유적 전경

7호 목곽묘

단경호

13

의창 교동리분묘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리 77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성대학교박물관 / 1989.3.~19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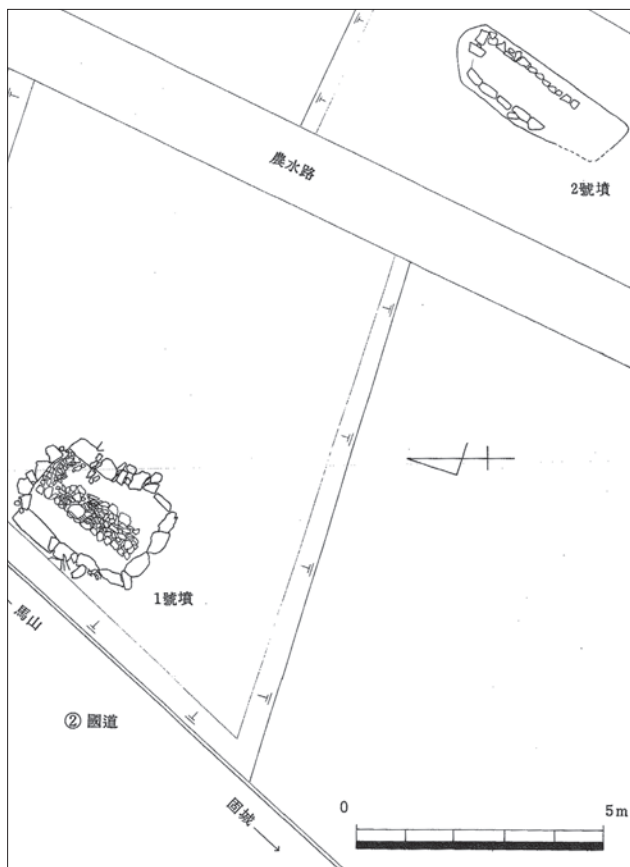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묘 / 대부장경호

유적은 진동면 야촌마을 뒤편 구릉 끝 도로변에 위치하며, 마산-통영간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이 지역은 동쪽으로는 수리봉(해발 404m), 서쪽으로는 해발 200m 정도의 산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계곡 사이를 흐르는 하천변을 따라서 청동기시대 지석묘군이 밀집분포하고 있다.

조사 결과 당초 지석묘로 알려진 유적에서 삼국시대 석실묘 1기와 석곽묘 1기가 조사되었다. 유구는 대부분 파괴가 심하여 최하단석 정도만 잔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석실묘는 평면형태 장방형으로 석실 중앙에 할석을 이용한 시상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대부장경호 2점과 도자 2점이 출토되었다. 석곽묘에서는 평저옹 1점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로 볼 때, 고분의 축조시기는 6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경성대학교박물관, 1991, 『의창교동리분묘』.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1호분

1호분 출토유물

14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평리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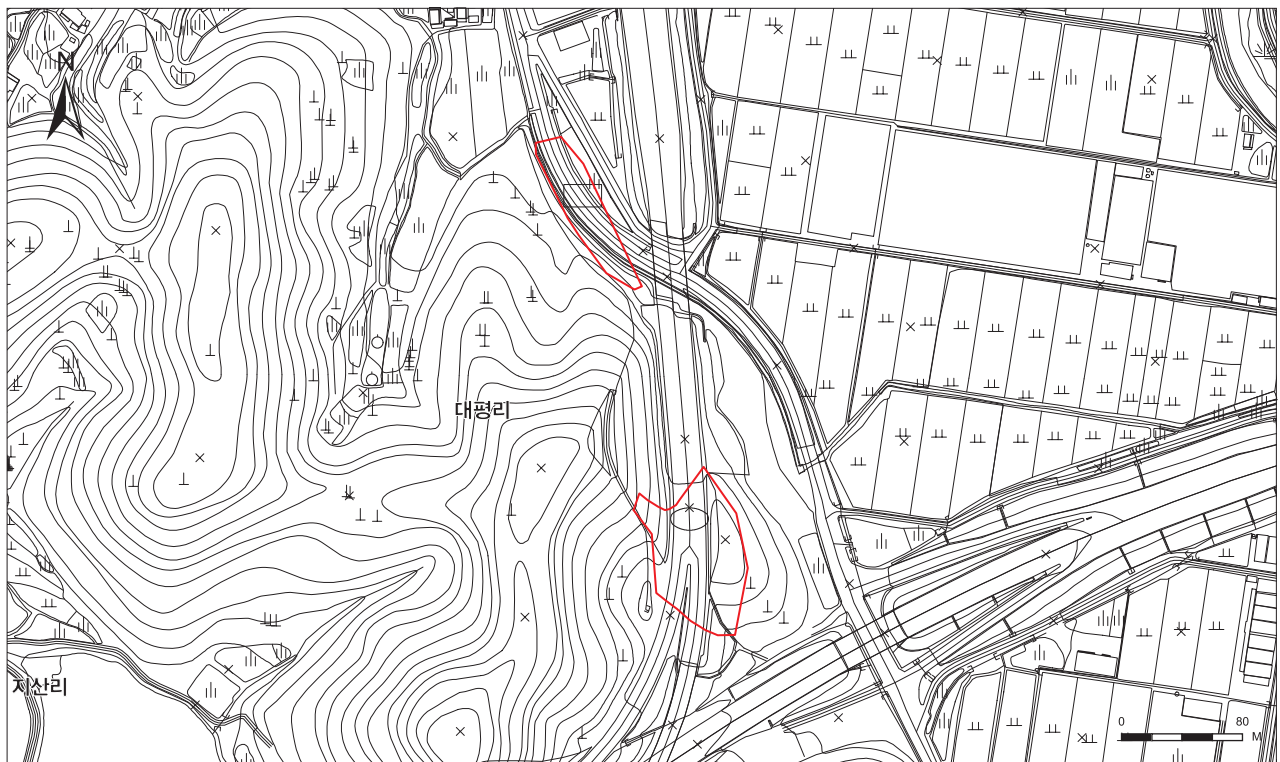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9.7.~2010.1.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 고배, 파수부배, 철정

마산 진북 대평리유적 _ 마산~진동간 국도건설공사구간 내 유적

유적은 여항산지에서 뻗어 내린 야평산(해발 432m)의 끝자락에 해당되며,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대평리고분군의 남동쪽에 위치한다. 유적이 위치하는 마산합포구 진북면은 지리적으로 함안과 고성을 연결하는 곳으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이후까지 많은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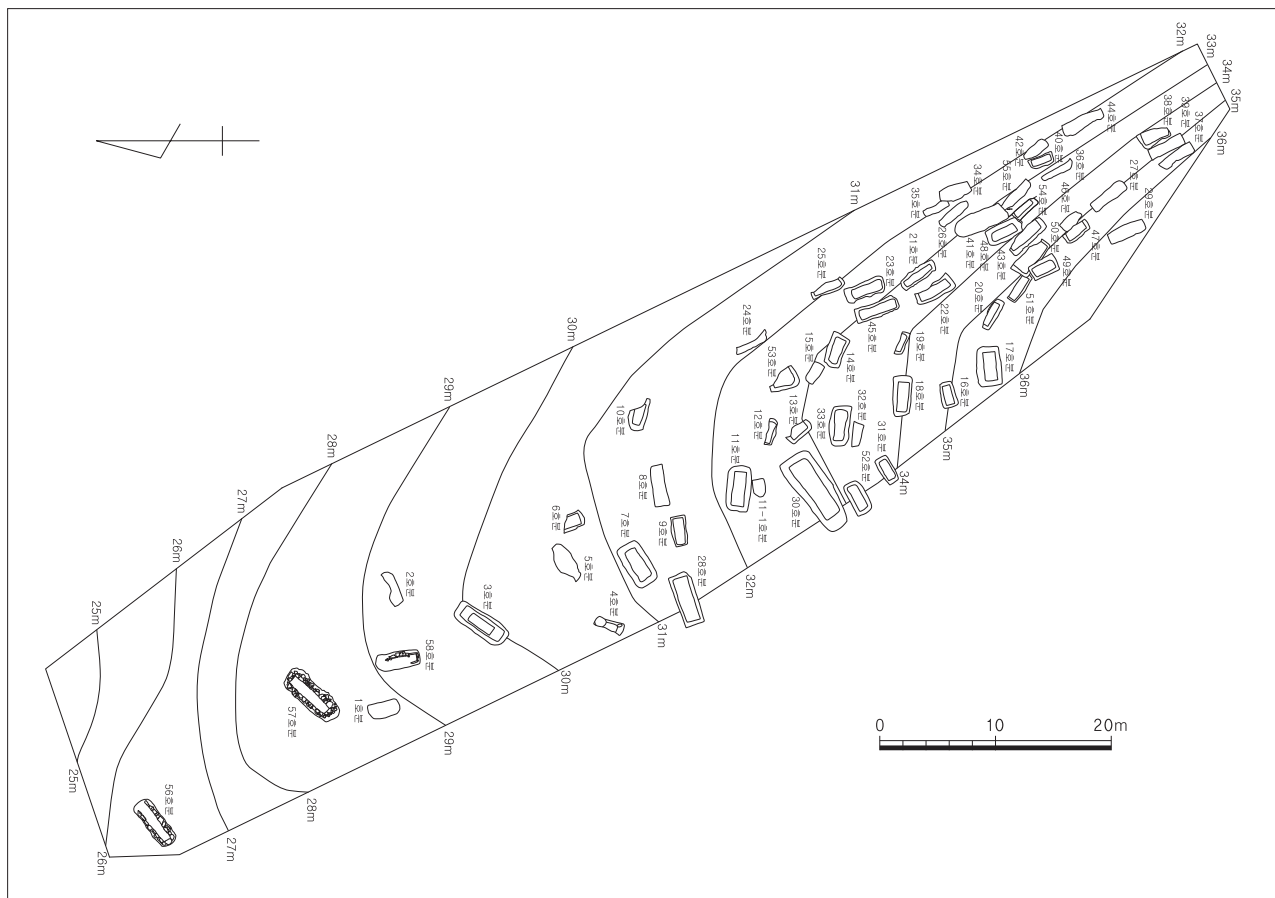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봉토분 1기, 목곽묘 55기, 석곽묘 3기,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1기, 석실분 6기, 고려시대 분묘 19기, 조선시대 분묘 30기, 시대미상의 석곽묘 3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는 목곽묘, 석곽묘, 봉토분이다. 목곽묘는 구릉의 경사면에 축조되었는데, 목곽묘의 분포는 남쪽에 다수의 중복양상과 일부 병렬관계를 보이며, 북쪽은 유구의 밀집도가 낮아진다. 목곽묘 중에서 불에 탄 목곽묘가 확인되었으며, 목관이 잔존하는 목곽묘도 확인되었다. 유물은 4세기 2/4분기~5세기대에 이르는 고식도질토기가 주류를 이

유적 위치도

루며 고배, 파수부배, 단경호, 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석곽묘는 3기가 확인되었으며, 축조방식에 따라 최하단석을 수적한 후 횡평적한 형태와 최하단석부터 횡평적한 형태로 구분된다. 유물은 소가야양식 토기와 아리가야양식 토기, 철촉, 철정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소가야양식 토기가 주류를 이루며, 5세기 중엽대에 해당된다. 봉토분은 구릉 정선부에 단독으로 입지하며, 진동만을 조망하고 있다. 매장주체부는 석곽이며, 석곽은 벽석과 함께 부석이 축조되었는데, 벽석 뒤에 부석이 확인되는 구조는 일본의 고분시대 전기에서 중기에 걸쳐 확인되는 요소이다. 구릉에 단독 입지, 즙석 등 왜계 요소가 일부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극세장한 평면형태와 부석이 확인되는 점에서 왜계 고분과의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로는 소가야양식 토기와 스에키, 철촉 등이 출토되었고 5세기 후엽대에 해당된다.

대평리유적에서는 다양한 규모와 내부시설을 갖추고 있는 목곽묘와 불태운 목곽묘 등이 확인되어 영남지역의 삼국시대 목곽묘 연구에 크게 기여할 유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봉토분은 왜계 고분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주변 가야지역 왜계 고분과의 비교 검토에 유효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 『마산-진동간 국도 건설공사구간 내 마산 진북 대평리유적』.

II 지구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I–M1호분

II–3호분

출토유물

15

마산 대평리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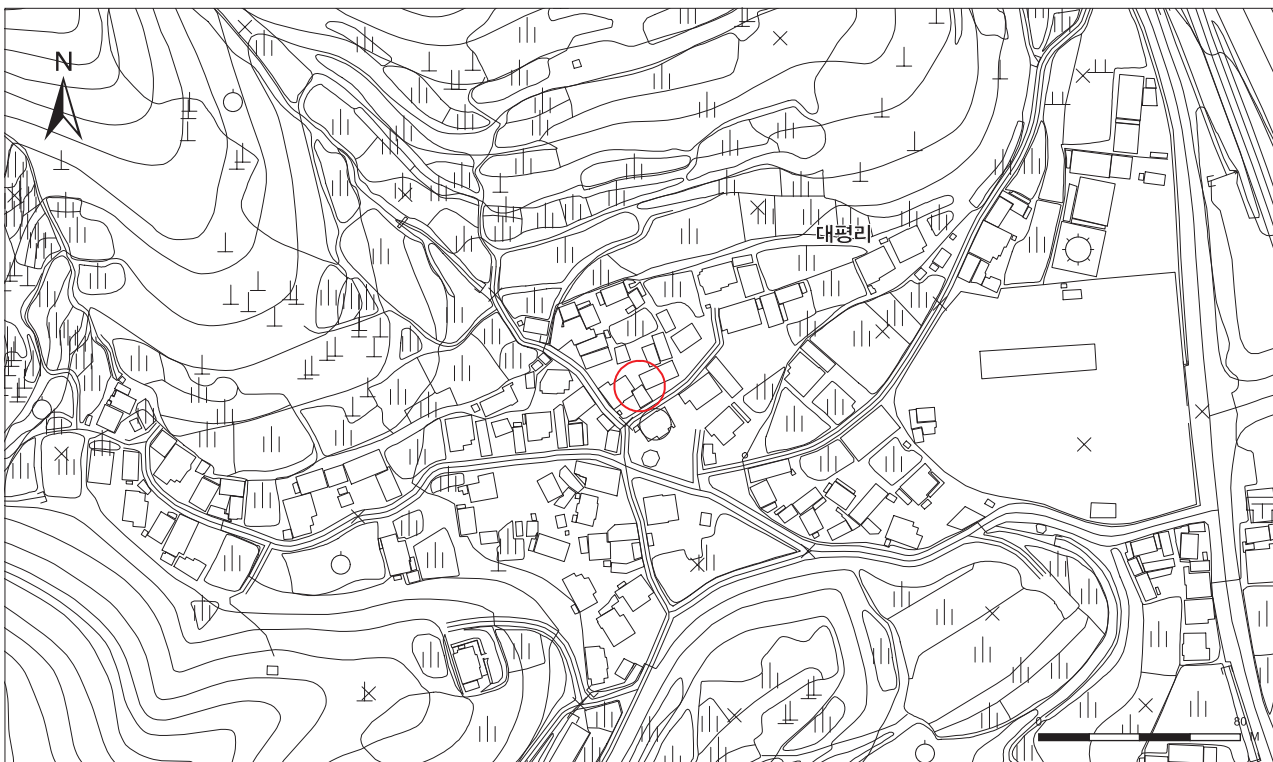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북면 대평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창원대학교박물관 /
1차 1991.11.~1991.12.
2차 1992.11.~1992.12.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 고배, 단경호, 철촉

유적은 인왕산(해발 450m)에서 진동만을 향하여 길게 뻗어 내린 여러 개의 소구릉들 중 야반산(해발 343m)의 구릉 일대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삼한시대에서 삼국시대에 걸치는 주거지, 패총 등의 생활유적과 고분으로 형성된 복합유적이다. 고분은 주로 남서쪽 구릉에 입지하며, 생활유적은 북쪽 구릉상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1991년과 1992년 고분 분포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고분군은 3개구역으로 나뉘어서 분포하는데, 1구역은 목곽묘와 소형 석곽들이 분포하며 대체로 4세기에서 5세기 전반대에 속하는 짧은 기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구역은 와질토기와, 판상철부, 관옥 등이 지표조사 결과 수습되었고 묘광이 깊은 것으로 보아 대체로 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목곽묘가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3구역은 4세기대 목곽묘가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주능선에 중심고분군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차 조사는 3구역에서 이루어졌는데, 목곽묘 12기, 옹관묘 2기, 조선시대 분묘 2기

유적 위치도

등 모두 16기의 유구가 확인되고 유물 50점이 출토되었다. 2차 조사는 2구역과 3구역에서 각각 진행되었는데, 2구역에서는 목곽묘 6기, 고려시대 소형 석곽묘 2기가 3구역에서는 목곽묘 15기, 석곽묘 2기, 석실묘 2기, 조선시대 분묘 2기 등이 조사되었고 유물은 2개구간에서 총 88점이 출토되었다.

목곽묘는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2구역에서 조사된 것은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인 것에 비해 4세기대 이후에 해당하는 3구역의 목곽묘들은 훨씬 세장해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비교적 규모가 큰 2차 조사 7호분, 9호분 등은 묘광 바닥에 천석을 한 벌 깔아놓았는데, 이러한 부석시석을 가진 목곽묘는 함안의 도항리고분군 등 4세기 후반대부터 가야묘제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차 조사 22호~25호는 경사면을 따라 나란하게 조성되었는데, 묘광벽에서 약 10~20㎝ 정도 보강토를 채운 공간을 남기고 묘광 바닥에 홈을 돌려놓았다. 이 내구는 목판이나 판석을 세워 돌리기 위한 시설로 목곽묘에서 석곽묘 사이의 과도기에 나타난 대평리고분군의 지역적 특색으로 판단된다. 석곽묘는 할석을 가로눕혀쌓기하여 축조하였는데, 출토된 토기로 보아 5세기 중후엽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석실묘는 횡혈식의 구조로 6세기대 이후로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은 고배, 단경호, 파배, 대부호 등의 토기류와 철촉, 철모 등의 철기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무기류나 장신구류는 거의 부장되어 있지 않았다. 4세기~5세기 전반에는 함안양식의 고배가 주를 이루다 5세기 중후엽에는 함안양식 고배와 창녕양식 고배가

유적 원경

7호분

25호분

출토유물

함께 출토되고, 5세기 후엽 이후에는 고성양식 토기도 출토되고 있다. 이는 대평리고분군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적 특징 때문으로 대평리고분군 축조집단이 해양을 통한 교역의 주체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대평리고분군은 삼한시대에서부터 통일신라시대에 걸치는 시기의 해안가에 거주한 집단의 매장유구로 파악되며, 인근의 신촌리유적, 현동유적의 고분과 비교, 연구를 통한 원삼국·삼국시대의 남서부 해안지역의 문화양상을 밝히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창원대학교박물관, 1995, 『마산 대평리고분군』.

16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덕곡리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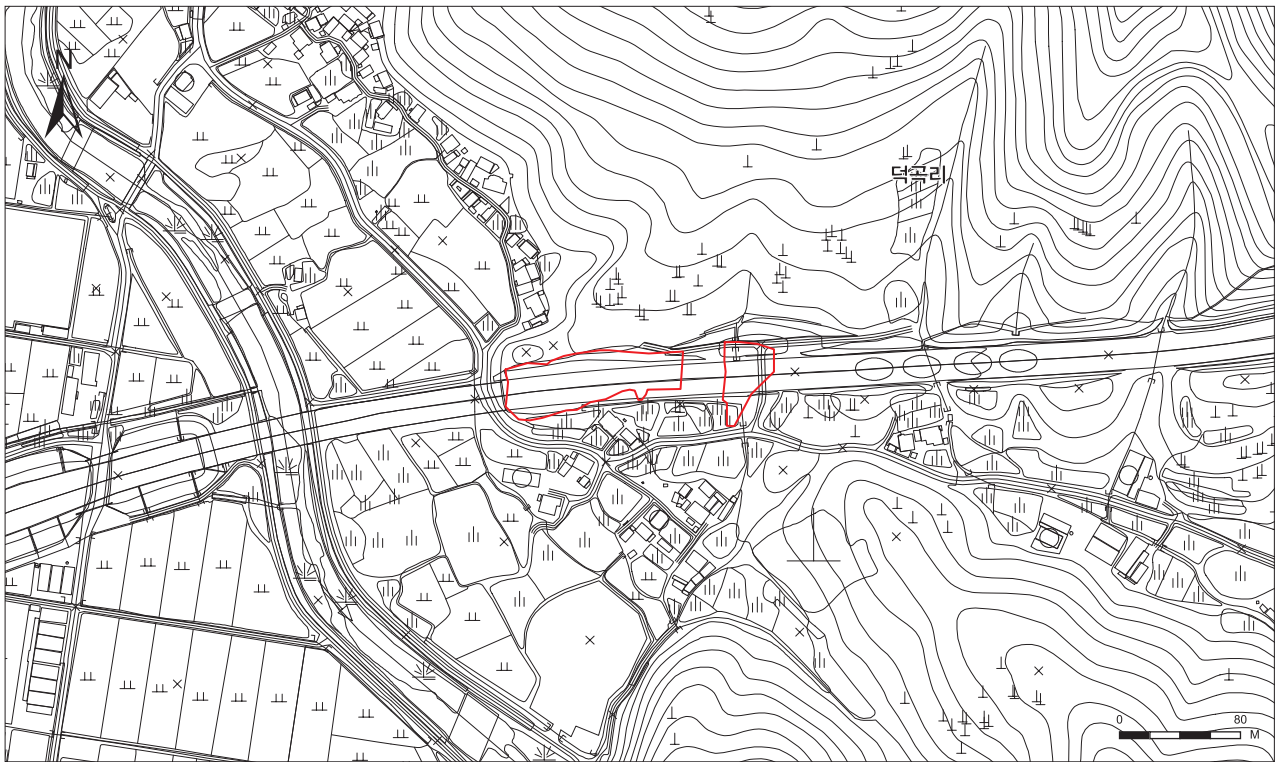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8.8.~2009.1.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묘 / 유개고배, 부가구연장경호

마산 진북 덕곡리유적 _ 마산~진동 우회도로 건설구간 내 유적

유적은 봉화산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베틀산(해발 436.5m) 남쪽 해발 18~26m 내외의 완만한 구릉 말단부에 위치한다. 북쪽의 지세는 비교적 험준하지만 남쪽으로 뻗어내린 산지의 말단부는 해발 100m 내외의 낮은 구릉지이며, 그 주변은 진동만으로 유입되는 태봉천, 금동천, 덕곡천, 정곡천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4동, 석관묘 2기, 집석유구 2기, 삼국시대 분묘 36기, 조선시대 주거지 3동, 건물지 1동, 분묘 165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는 석곽묘 5기, 석실묘 31기이다. 석곽묘는 해발 21m 정도에 산발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평면형태는 평면비 3.06:1~6.63:1로 (세)장방형에 가깝다. 주축방향은 대부분 동-서향으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배치되었으며 벽석의 축조방법은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구체적인 축조수법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잔존하는 벽석으로 판단할 때 할석을 이용하여 최하단석은 바닥을 일부 굴착하여 세워쌓기하고 2단부터는 눕혀쌓기하여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축조하였다. 바닥시설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일부 관 보강석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아라가야양식 토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시기는 6세기 전엽에 해당한다.

석실묘는 방형 석실의 경우 횡구부가 현실 바닥에서 3~4단 정도 높이에 창구조 형태로 전벽 중앙에 만들어지고 짧은 묘도 벽석을 가졌으며, 장방형 석실의 경우 단벽 전체 또는 1~2단 정도 높이에 만들어지고 묘도 벽석이 만들어지지 않는 형태를 횡구식으로 구분하였다. 소구릉을 중심으로 한 각 지구의 서쪽을 중심으로 비교적 대형에 속하는 방형 석실들이 축조되고 그 나머지 공간을 이용하여 장방형 석실들이 축조되는 양상이다. 대부분 최하단석은 묘광 바닥을 다시 굴착하여 세운 형태이며 반지하식으로 묘광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벽석을 내경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에서 확인되는 시상과 묘도의 폐쇄석 및 토층, 유물의 배치상태로 보아 1~4차례의 매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대부분 신라후기양식 토기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조영되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적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 유구는 이 지역의 문화상을 밝히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 『마산-진동 우회도로 건설구간 내 마산 진북 덕곡리유적』.

유적 전경

A-1호 석실묘

A-3호 석실묘

A-8호 석실묘

B-1호 석실묘

17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근곡리 56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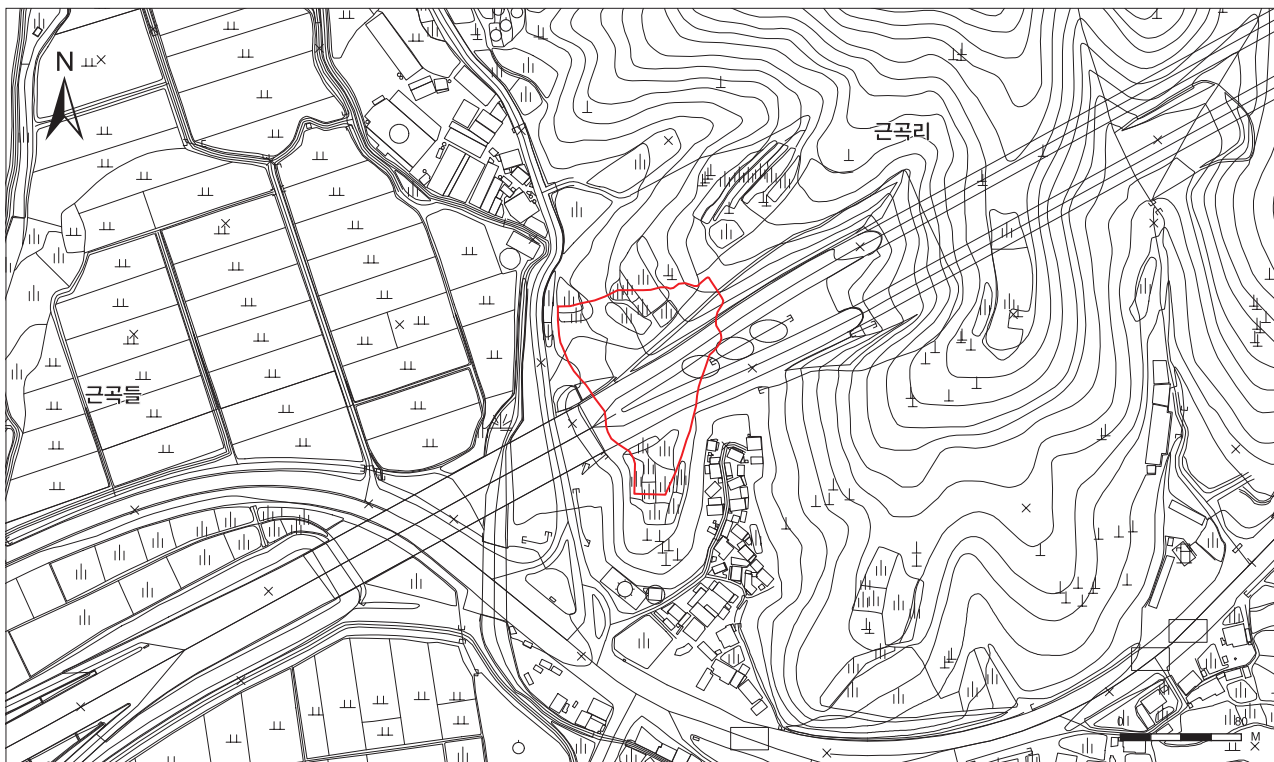
조사 기관 / 조사 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04.3.~2004.9.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 통형고배, 파배, 노형토기, 양이부단경호

마산 근곡리유적 _ 마산~진동 우회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근곡리 56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생활유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2번 국도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지역에 해당된다.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지표·시굴·발굴조사를 전담하였으며, 발굴조사 결과, 수혈주거지 21동, 추정 고상건물지 6동, 석실묘 1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마산합포구에서 2번 국도를 따라 진동면 소재지를 지나 고성 방면으로 가다보면 북쪽에 조성된 신기마을 뒤편 낮은 구릉에 위치한다. 유적은 북동쪽 옥녀봉(해발 181m)에서 뻗어 내린 구릉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남서쪽은 구릉과 구릉 사이의 작은 분지로 당시 논으로 경작되고 있었으며, 남쪽은 진전천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 진동만으로 이어진다.

수혈주거지는 구릉 정상부의 북동쪽과 남쪽의 완만한 경사면 상단에 분포하는데 정상부의 공지를 감싸듯이 환상으로 배치되었다. 대부분 경사면 아래가 삭평되었으나 평면

유적 위치도

형태는 타원형, 장타원형, 장방형으로 구분되며 원형계가 다수를 차지한다. 규모는 장축 길이 4~12.2m로 다양하며 평균치는 길이 7m, 너비 3m, 장폭비 1:0.4로 추정된다. 내부 시설은 벽구, 벽주 등이 조사되었으며 2동 이상 중복된 것을 통해 증·개축을 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주혈은 수혈주거지와 달리 경사가 심한 서쪽 사면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 일자형, 방형 등 고상건물지로 추정되는 주혈의 용도는 창고시설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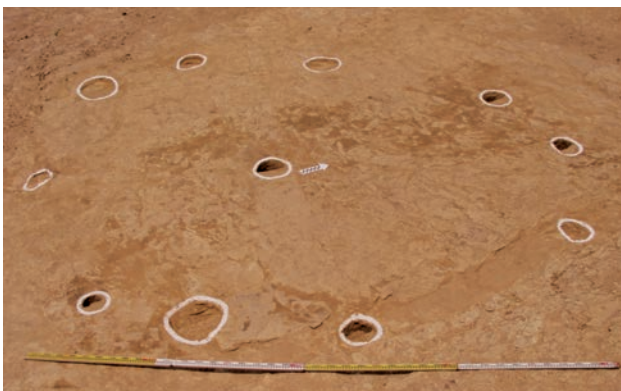
유물은 토기류가 전체를 차지하며 기형은 개, 통형고배, 파배, 노형토기, 양이부단경호, 직구호, 단경호, 대호, 발형토기 등으로 유물의 편년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조성시기는 3세기 후반~4세기 전반대로 판단된다.

본 유적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마산 현동유적, 임곡리·대평리고분군 등과 비슷한 시기의 생활유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역사적인 기록과 관련하여 유적이 위치한 삼진(진동·진북·진전)지역을 포상팔국 중 하나인 칠포로 비정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06, 『마산 진동 우회도로 개설구간내 마산 근곡리 유적』.

6호 수혈주거지

14·14-1호 수혈주거지

2호 주혈군

6호 주혈군

18

마산 합성동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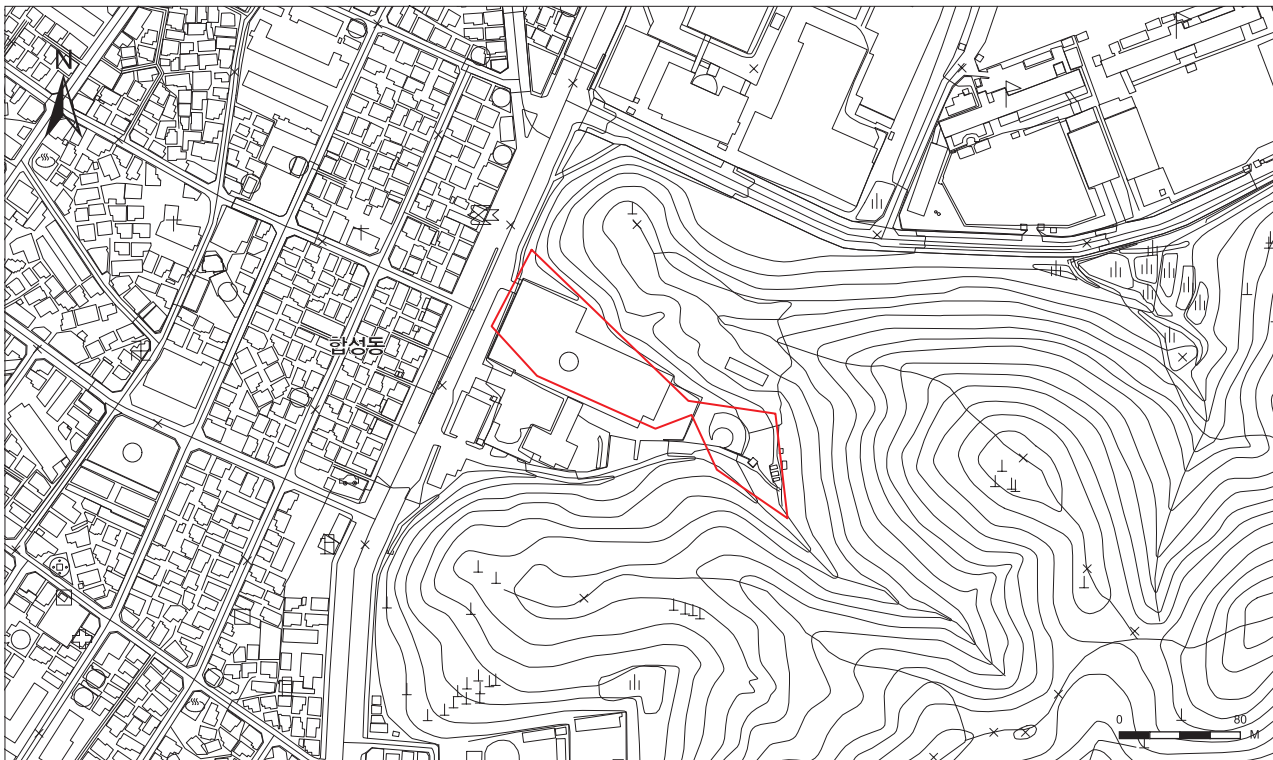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91-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고고학연구소 / 2005.1.~2005.6.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가축매납수혈 / 유개고배, 장경호, 단경호, 망치, 집게

유적은 팔용산(해발 328m)에서 서북쪽으로 돌출된 구릉의 남쪽과 서쪽사면 중하위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 구릉의 정상 부분에는 연접된 2~3기의 봉토분이 고총 형태를 띠며 위치하고 있다. 구릉의 좌우측으로는 곡간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어 봉토분과 관련된 취락이나 분묘들이 입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2동, 삼한시대 목곽묘 5기, 옹관묘 4기, 삼국시대 석곽묘 72기, 목곽묘 17기, 가축매납수혈 4기, 고려·조선시대 와요 5기 등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친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삼한시대 및 삼국시대 유구들은 구릉의 경사면에 밀집되게 조성되어 있으며 와요들은 구릉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삼국시대 분묘들은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영되었으며, 유구 간의 중복은 거의 없다. 1호 목곽분은 구릉 경사면의 상부에서 확인되었는데, 호석의 직경이 12.5m 가량의 대형 무덤으로 조성된 위치나 형태로 볼 때, 구릉의 정상부에서 확인된 봉토분과 동일한 성격

유적 위치도

의 것으로 판단된다.

목곽묘는 구릉 경사의 서측 부분에 주로 조성되어 있으며 상위에는 규모가 큰 무덤이, 하위에는 이보다 소형의 무덤들이 위치해 있다. 목곽을 마련한 후 보강토를 채우거나 보강석과 보강토를 혼용하여 놓기도 하였다. 유물은 양 단벽 부근에 토기류, 중앙부에 철기류를 부장하였는데, 45호 목곽묘의 경우 상면 중앙부에 방형의 요갱이 굴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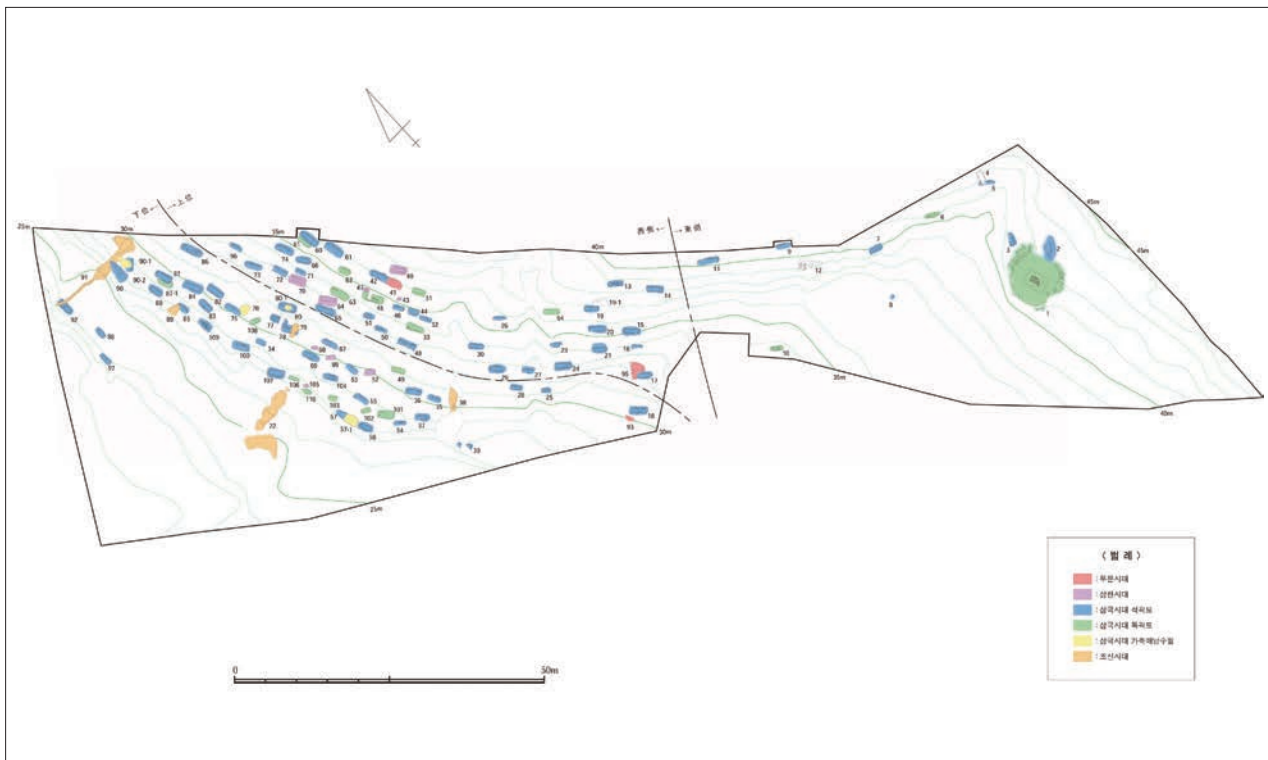
석곽묘 또한 봉토분 주변의 것들이 비교적 규모가 크고 밀집되게 조성되어 있다. 벽석은 가로눕혀쌓기한 것이 많으며 바닥면에는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거나 관대석과 시상석을 깔아 놓았다. 유물은 목곽묘와 마찬가지로 양 단벽 부근에 토기류, 중앙부에 철기류를 부장하였는데, 관의 한쪽 모서리나 측면부에 놓은 것으로 짐작되는 것들도 소수 있다.

출토된 유물의 가장 큰 특징은 제 가야지역양식 토기들의 출토량이 많은 것이다. 시기에 따라 주류가 달라지는데, 5세기초 금관가야의 몰락 이후부터 신라에 완전 복속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신라 토기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 외 5세기 2/4분기에서 3/4분기에 걸쳐 대가야 토기와 소가야 토기가 유입된다. 5세기 4/4분기에서 6세기 1/4분기에 걸쳐서는 상대적으로 소가야 토기의 출토비율이 매우 높아지며, 아라가야 토기도 소량 출토된다. 6세기 2/4분기부터는 대가야 토기의 출토비율이 높아진다. 그 외 왜계 유물이나 백제계 유물도 출토되나 그 양은 극히 적다.

그 외 합성동유적에서는 4기의 가축매납수혈이 조사되었는데, 경사면 서측 하위부분에서 산발적으로 위치하며 모두 석곽묘를 파괴하고 조영되었다. 매납된 가축으로는 소와 말, 멧돼지가 확인되는데, 모두 상하악골을 포함한 두개골만이 출토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57-1호와 76호에서는 소와 말이 각각 10개체, 7개체분, 89-1호에서는 말과 소가 각각 13개체, 7개체분, 90-1호에서는 말 30개체, 소 21개체, 멧돼지 4개체분이 확인되었으며, 연령도 유령에서 노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수혈 안에서 다양하면서 많은 양의 가축이 확인된 사례는 극히 드문 사실로서 수혈의 성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산 합성동 유적은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유적이 조영되었던 유적으로서 고고학적 자료가 부족한 삼국시대 마산지역의 고분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경남고고학연구소, 2007, 『마산 합성동 유적』.

유구 배치도

1호 목곽분

76호 가축매납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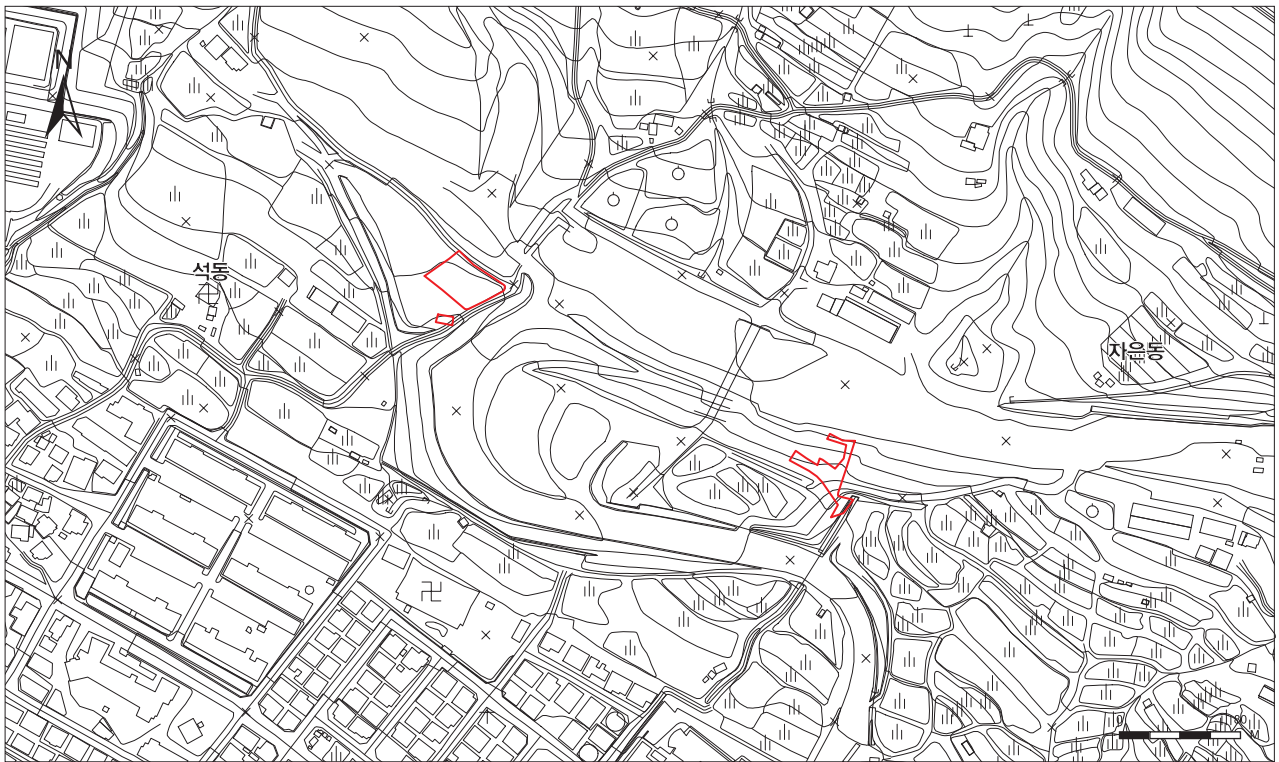
토기류

19 창원 석동 1-40·9-18번지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산9-1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문화재연구원 / 2015.1.~2015.3.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 고배, 장경호, 철정

유적은 장백산 남쪽 구릉 사면부 일대에 위치하는데, 북쪽으로 불모산과 장백산 등 비교적 높은 산지로 인해 내륙에 해당하는 김해, 창원 등지와는 교통이 용이하지 않은데 반해, 남쪽으로는 깊은 내만으로 파고의 영향을 적게 받아 선박의 입·출항이 용이한 진해만과 연접한 지점에 입지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목곽묘 11기, 석곽묘 1기, 석실묘 5기, 조선시대 분묘 4기, 시대 미상 수혈 5기, 적석유구 1기 등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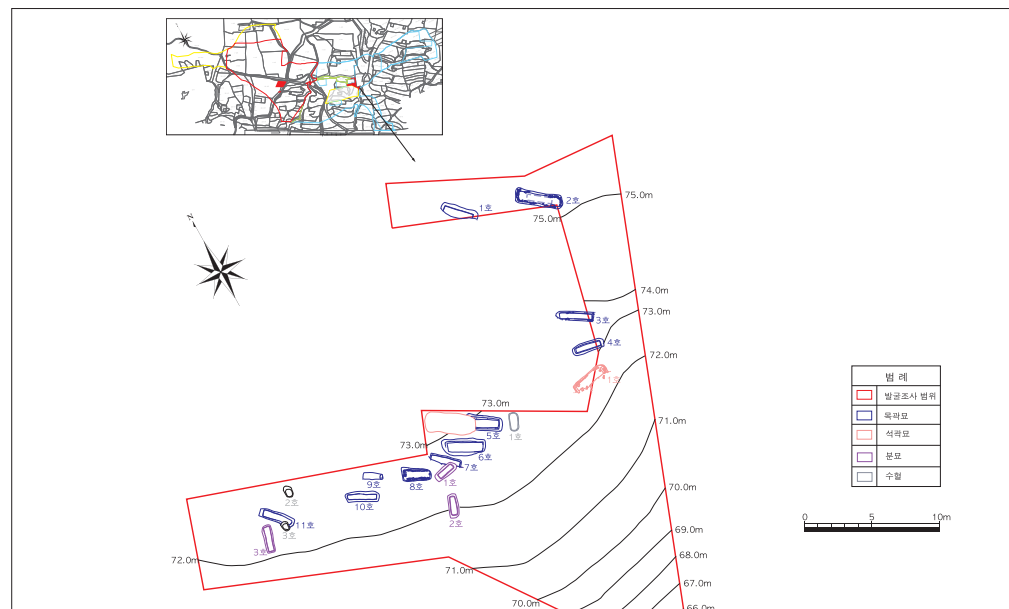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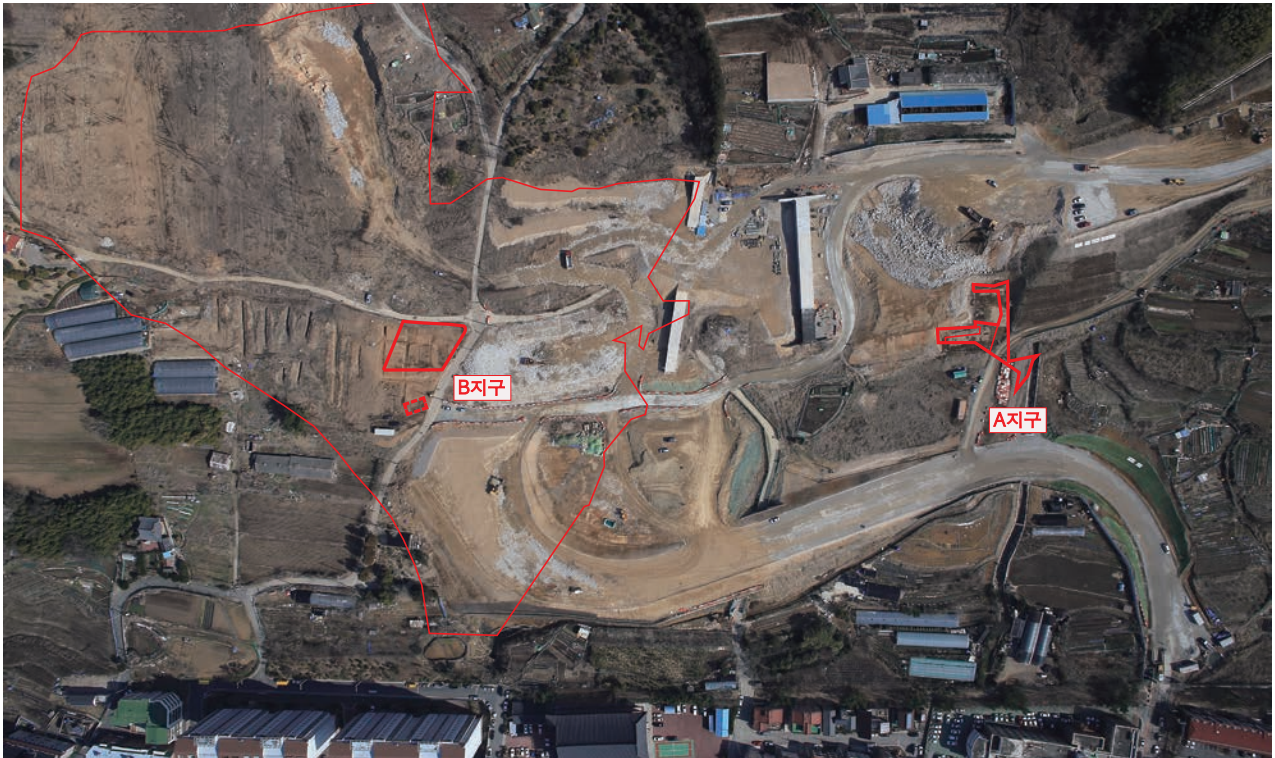
삼국시대 묘역은 완만한 구릉사면에 입지하였고 앞서 조사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과 삼강문화재연구원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목곽묘가 밀집분포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석곽묘는 목곽묘를 파괴하면서 조성하여 시기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목곽묘의 조성방법은 지표면을 굴착하고 일정 높이로 정지한 후, 목곽을 안치하였다. 목곽 내부에는 대부분 관을 안치하지 않은 무관유곽의 형태이나 5호 목곽묘의 경우 묘광 정지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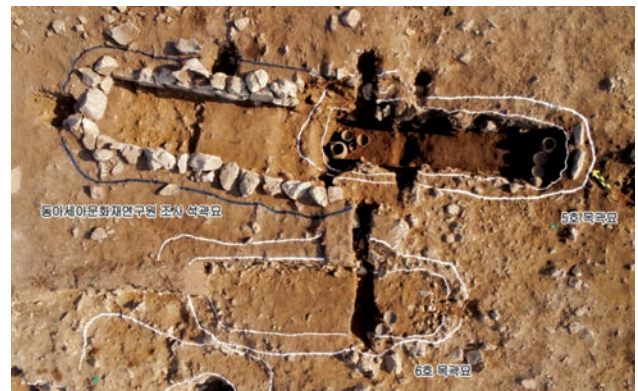
면에 철기를 훼기하여 횡방향으로 일정하게 놓아 관대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때, 유관유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유물 부장양상은 양 단벽 또는 한쪽 단벽에서 확인되고, 단벽에는 대부분 토기류, 묘광 중앙에는 철정, 철겸 등의 금속류를 부장하였다. 토기류는 외절구연고배, 삼각투창고배, 일렬투창고배, 교호투창고배 등 다양한 형식의 고배와 장경호, 대부단경호, 단경호, 파수부호 등이 출토되며, 동일 무덤에 두 가지 이상의 지역양식 토기가 공반한다. 또한 토기 중 대부장경호, 대부파수부호, 고배의 대각과 금속류 중 철정, 철겸 등을 의도적으로 깨뜨리거나 구부려 부장한 훼기습속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석곽묘는 대부분 훼손되어 정확한 구조를 알 수 없었고 유물은 장경호, 개, 배, 철겸 등이 출토되었다.

석실묘는 등고선과 나란하게 열상배를 이루며, 석실간 간격은 5m 내외이다. 석실묘의 조성방법은 지표면을 굴착하여 벽석을 설치한 후, 석실 내부를 일정 높이로 정지하였다. 이후, 북장벽에 인접하여 '—', 'ㄱ'자형 시상을 설치하고 시상 외곽에 점질토로 마감한 경우도 확인되며, 시상상면에는 경계석을 설치하여 피장자를 안치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유물 부장양상은 시상과 인접하여 양 단벽 또는 한쪽 단벽에서 확인되고 대부분 토기류를 비롯한 토도류가 부장되며, 시상 최하단석 아래에서 방추차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토기류는 신라양식의 유개단각고배, 개배, 대부완, 부가구연대부장경호, 단경호 등이 출토되어 석실묘 조성시기에 조사지역은 신라 영향권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부장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조성시기는 4세기 중엽~7세기 중엽으로 편년되고, 단계에 따라 묘제와 출토유물이 변화한다. 특히 토기는 여러 가야지역양식 토기와 김해·창원지역에서 확인되는 토기가 혼재돼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고분군의 조영집단은 주변 지역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묘제 변화와 유물의 출토양상은 고대 진해지역의 사회상을 복원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경상문화재연구원, 2017, 『창원 석동 1-40·9-18번지 유적 -창원 석동-소사 도로개설 구간 내 유적』.

A지구 유구배치도

유적 원경

A지구 2호 목곽묘

A지구 5·6호 목곽묘

A지구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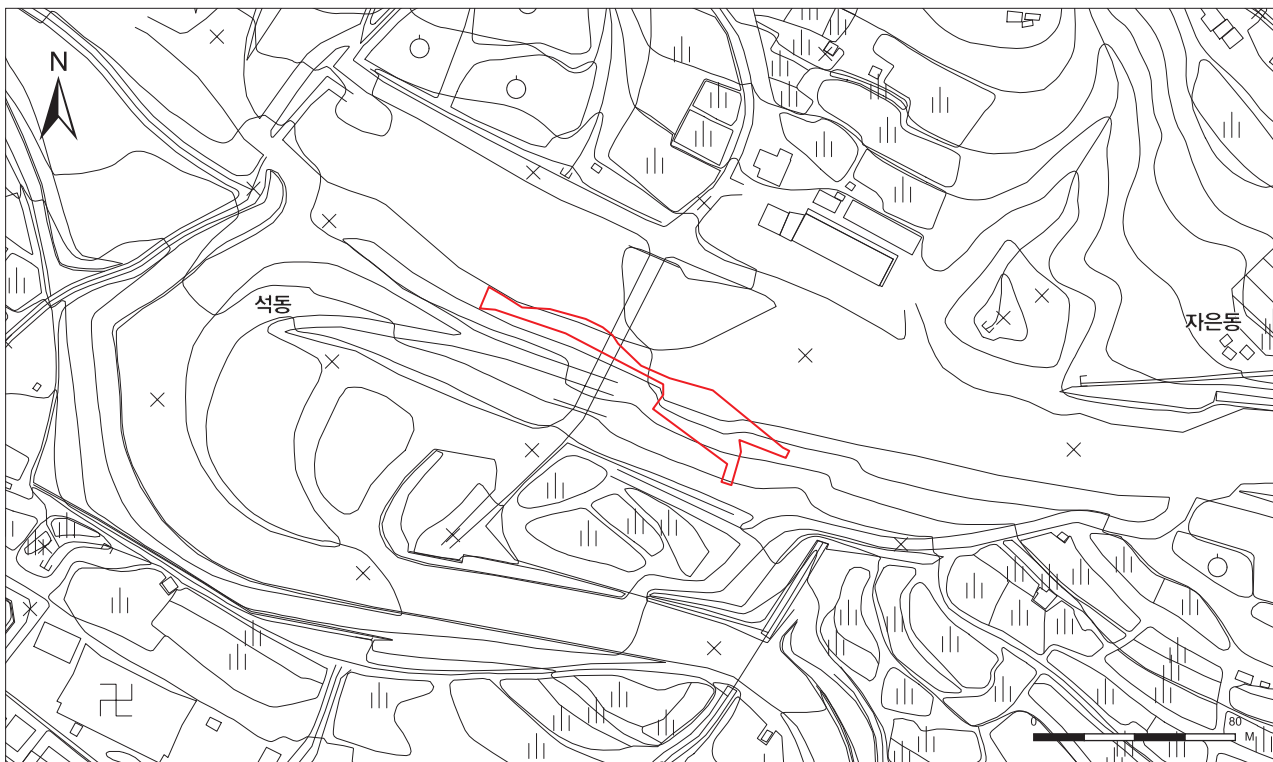
20

창원 석동유적 _ 진해 석동~소사간 도로개설구간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2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삼강문화재연구원 /
2014.3.~2014.5.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 외절구연고배, 가형
토기, 판갑, 통형동기

유적은 장백산 남쪽 구릉 사면부 일대에 위치하는데, 북쪽으로 불모산과 장백산 등 비교적 높은 산지로 인해 내륙에 해당하는 김해, 창원 등지와는 교통이 용이하지 않은데 반해, 남쪽으로는 깊은 내만으로 파고의 영향을 적게 받아 선박의 입·출항이 용이한 진해만과 연접한 지점에 입지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목곽묘 44기, 석곽묘 3기, 옹관묘 3기, 석실묘 5기, 구 1기, 조선시대 분묘 11기 등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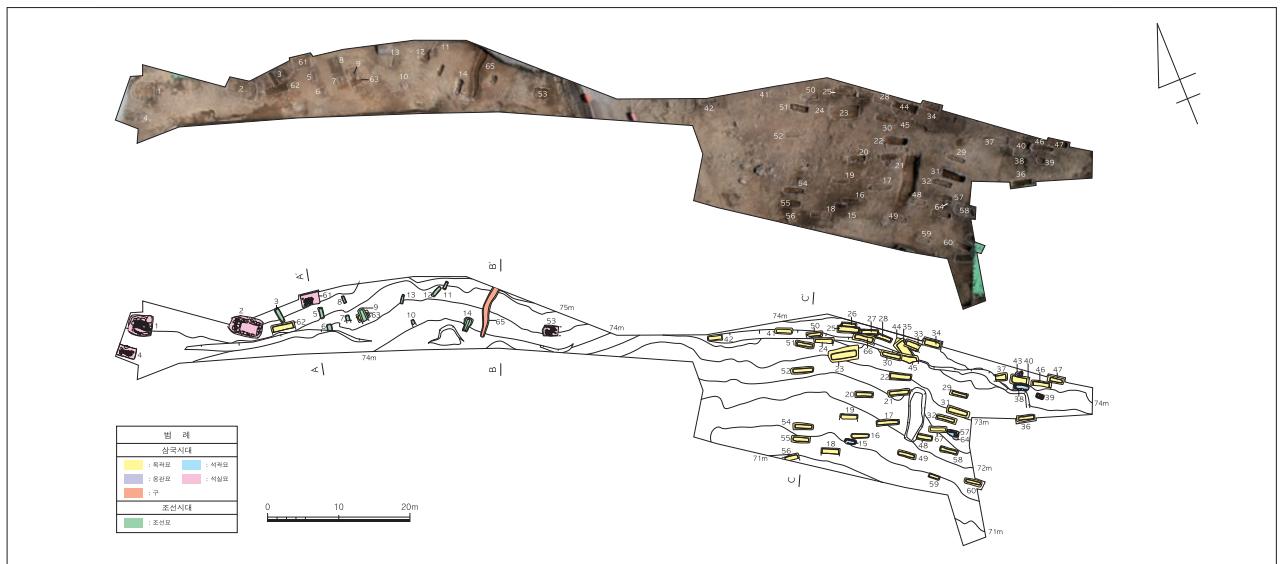
목곽묘는 보강토를 제외하면 묘광의 폭이 아주 좁아 곽을 조립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묘광의 깊이가 얕아 목관묘일 가능성도 있다. 목곽묘는 평면 장방형과 세장방형으로 구분되는데, 중복관계는 장방형 목곽묘가 세장방형 목곽묘보다 선행한다. 장방형 목곽묘는 중소형급으로 보강토에 할석을 채운 경우가 확인된다. 장방형 목곽묘와 세장방형 목곽묘가 동시기에 공존하나 대부분 세장방형 목곽묘이다. 유물은 주로 양 단벽에 부장하

유적 위치도

였는데, 부장된 토기 주변으로 공지가 관찰되어 이 공간에 유기물을 부장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옹관묘는 장방형의 묘광을 파고, 연질옹 2점 또는 연질옹과 단경호를 연결해 만든 합구식이다. 묘광의 가장자리를 따라 벽석을 축조한 다음 옹관을 안치하였다. 옹관 내에 광구소호를 부장하기도 하였다. 석곽묘는 소형급이며, 평면 장방형이다. 벽석은 눕혀쌓기하였는데 최하단 1~2단 정도만 잔존하고 있다. 석실묘는 장방형이며, 서쪽에 입구부를 갖춘 횡구식이다. 벽석은 할석과 자연암괴를 이용하였으며, 눕혀쌓기하여 축조하였다. 시상석은 판석과 할석을 사용하였으며, 추가장이 확인되었다.

석동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4세기에서 7세기 중엽까지의 유물로 확인된다. 이른 시기인 4~5세기 대에는 금관가야 토기가 주로 출토되다 6세기 대에는 주변지역인 소가야와 대가야양식 토기와 신라 토기가 혼재한 이후, 7세기 대에는 신라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석동유적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연구가 부족했던 진해지역의 삼국시대 사회·정치·문화적 양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참고문헌

삼강문화재연구원, 2016, 『창원 석동 유적 –진해 석동~소사간 도로개설구간 내 유적 시·발굴보고서』.

유구 배치도

1호 석곽묘

39호 옹관묘

21 창원 석동 복합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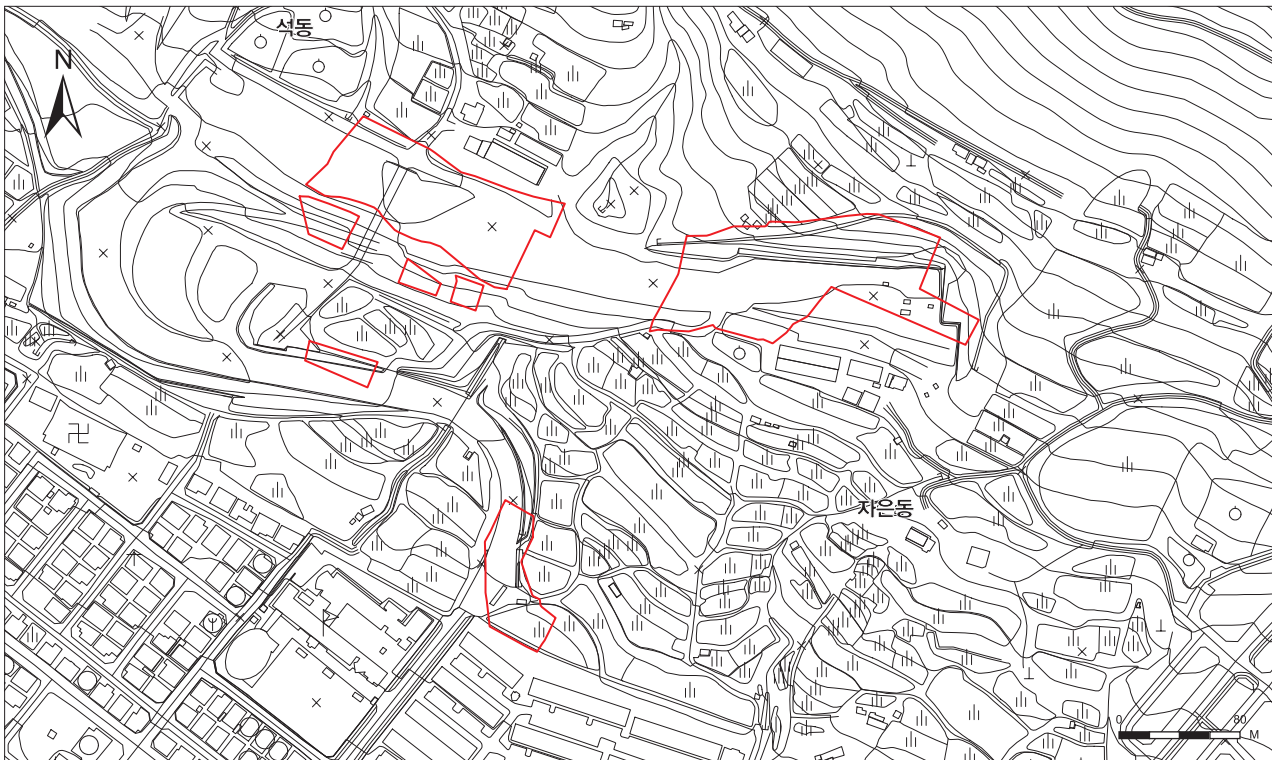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자은동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12.9.~2014.6.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주거지 / 고배, 가형토기, 판갑, 통형동기

유적은 장백산 남쪽 구릉 사면부 일대에 위치하는데, 북쪽으로 불모산과 장백산 등 비교적 높은 산지로 인해 내륙에 해당하는 김해, 창원 등지와는 교통이 용이하지 않은데 반해, 남쪽으로는 깊은 내만으로 파고의 영향을 적게 받아 선박의 입·출항이 용이한 진해만과 연접한 지점에 입지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33동, 지상건물지 3동, 수혈 44기, 혼토패각 2개소, 고상건물지 20동, 구 3기, 통일신라시대 기단 1기 등 삼국~통일신라시대의 생활유구와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옹관묘 등의 삼국시대 분묘 503기, 수혈 39기, 조선시대 분묘 48기, 수혈 1기 등의 삼국~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분묘유구가 조사되었다.

생활유구 중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계·방형계이며 내부시설로는 부뚜막, 벽구, 수혈, 단, 주혈 등이 조성되었다. 부뚜막은 일부 주거지에서만 조사되었는데, 수혈식으로 굴착한 후 점토를 사용하여 천정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바닥은 대부분 굴착면을 그

유적 위치도

대로 사용하였으나 일부는 불다짐, 점토다짐하기도 하였다. 유물은 주로 고배, 시루, 옹, 장동옹 등의 생활토기가 출토되었다. 수혈은 평면형태 원형·타원형·방형·장방형·부정형 등 다양하며 규모도 편차가 있다. 일부 구간에 밀집 분포하는 양상을 보여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군집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수혈에서 출입이 용이한 계단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저장시설일 가능성이 높으며 유물은 장동옹 등의 생활토기가 소량 출토되었다. 혼토패각은 주거지보다 후축되었는데 내부에서 자연유물과 인공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 자연유물은 수골과 어패류로 세분되는데, 수골은 출토빈도가 극히 드물며 대부분 잔편에 불과하여 녹각을 제외하고는 종을 분류할 수 없다. 패류는 논우렁이와 주름다슬기 등의 담수패와 굴, 새꼬막, 가리비, 반지락 등의 해수패로 구분된다. 모두 조간대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쉽게 채집이 가능하여 지속적으로 습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공유물인 토기류는 4~5세기대로 편년되는 것으로 유물의 시기폭이 넓다. 고상건물지는 주거지 등이 입지하는 곳에서 약 150m 정도 이격된 구릉 말단부에 입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역 안에서 주거군과 창고군으로 입지를 달리하며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당시 취락의 구조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삼국시대 분묘유구는 생활역과 구분되어 조성되었는데, 목곽묘 429기, 석곽묘 30기, 석실묘 33기, 옹관묘 11기 등 503기가 조사되었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목곽묘는 대체로 평면형태가 장방형, 세장방형의 일자형 목곽묘이며, 부곽은 확인되지 않았다. 분묘의 구조적 특징은 주변지역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분묘들과 대동소이 하지만, 동일 주

다지구 전경

190호묘

457호묘

157호묘 출토유물

338호묘 출토유물

415호묘 가형토기 출토모습

가형토기

토기류

녹유완

축선상에서 최대 10~20여 기가 중복축조되어 있는 양상이 확인되고, 동일 입지에 상하로 중복 축조된 형태도 다수 조사되었다. 유물은 외절구연고배를 비롯해 통형고배, 일단투창고배, 이단투창고배, 단경호, 장경호, 대부장경호, 대부직구호 등 다양한 기종이 출토되었으며, 통형동기와 종장판갑·판주, 가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석곽묘는 후대 삭평으로 상부는 대부분 유실되어 최하단 일부만 잔존한다. 유구 간 중복관계를 통해 볼 때, 석곽묘는 목곽묘보다 후축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유물은 개, 고배, 연질개배, 유개고배, 대부호, 파배, 단경호, 대부장경호, 철겸, 철부, 금동이식 등이 출토되었다. 석실묘는 평면형태 방형, 장방형으로 잔존양상을 감안하면 최소 1회 이상 추가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유개합, 대부완, 대부장경호, 청동제금구 등이 소량 출토되었다. 옹관묘는 대체로 목곽묘 및 석곽묘 주변에 위치하며, 중복관계상 목곽묘와 큰 시기차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창원 석동복합유적은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4세기 중엽부터 7세기 중엽까지 약 300년 간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다양한 지역양식 토기가 출현하고 사라지는 것인데, 이러한 양상은 이 유적을 영위한 집단이 주변과의 다양한 교류 또는 교역의 네크워크에 속하여 하나의 독립된 지역집단으로서 존재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근거이다. 이는 유적이 진해만이라는 해안에 접한 취락으로 해양 교통로상의 거점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석동복합유적의 또 다른 특징은 삶과 죽음의 공간이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취락의 공간구성에서 계획적 분할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분묘의 공간구성에서는 한정된 묘역 내에 상당히 조밀하게 분묘가 조영되는데 그 중 목곽묘가 오랜 기간 동안 주묘제로 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창원 석동 복합유적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연구가 부족했던 진해지역의 삼국시대 사회·정치·문화적 양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7, 『창원 석동 복합유적』.

22 진해 마천동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산3-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08.12.~2009.10.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옹관묘 / 고배, 장경호, 대도

유적은 마봉산(해발 401m)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해발 37~46m의 사면에 입지하고 있으며, 구릉 경사면 상부로 고분군의 중심이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목관묘 1기, 주거지 1동, 삼국시대 석곽묘 49기, 석관묘 1기, 위석식 목곽묘 1기, 옹관묘 5기 등 총 58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석곽묘는 밀집하여 등고선을 따라 열상배치되어 있으며 배치양상에 따라 북동쪽군집, 중앙군집, 서쪽군집의 3개 정도의 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38·39·43·44호 석곽묘와 같이 중앙에 일정한 빈 공간을 두고 원형의 둘레를 이루면서 소단위 묘역을 이루는 듯한 무덤배치도 특징적이다. 각 군집간 시간적인 선후관계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분군 내에서 소집단 혹은 일가의 묘역이 일정한 계획 아래에서 고분군이 조영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석곽묘의 규모는 장벽 길이 100~311㎝ 정도로 251~331㎝ 정도의 중대형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평면형태는 장폭비 3:1 이상의 세장방

유적 위치도

형이 주를 이룬다. 벽석에 사용된 석재는 대부분 할석으로 구릉 하부에 조성된 일부 석곽묘에서는 천석과 할석을 혼용하여 축조하였다. 벽석의 축조수법은 최하단 벽석은 가로 또는 세로세워쌓기하고 2단 이상은 눕혀쌓기, 세워쌓기 등을 혼용하였으며 벽석간 빈 공간은 소형의 할석으로 보강하였다. 시상은 할석을 깔아 시상면을 마련한 유형, 점성이 강한 사질점토로 정지면을 마련한 유형, 정지하지 않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석곽묘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토기, 철기, 장신구류 등인데 그 중 토기류의 출토량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신라, 대가야, 소가야, 비화가야, 왜계 등 다양한 지역양식의 토기가 재지계 토기와 함께 출토되고 있어 고분군 조영 집단의 성격 파악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중 타지역 양식을 모방하여 재지에서 제작한 토기도 보여 당시 토기제작기법을 통한 5세기대 진해지역의 정체성 파악에도 유효한 자료로 파악된다. 토기에 비해 철기는 철촉과 농공구류인 철겸, 철부 등을 제외하면 신분을 상징하는 대도는 3점만 출토되었다. 장신구류 또한 금동제이식과 경식 정도만 출토된 것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던 집단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1, 『진해 마천동 유적』.

유적 전경

16호 석곽묘

5호 석곽묘 출토유물

23 창원 남산유적

| 경상남도기념물 제2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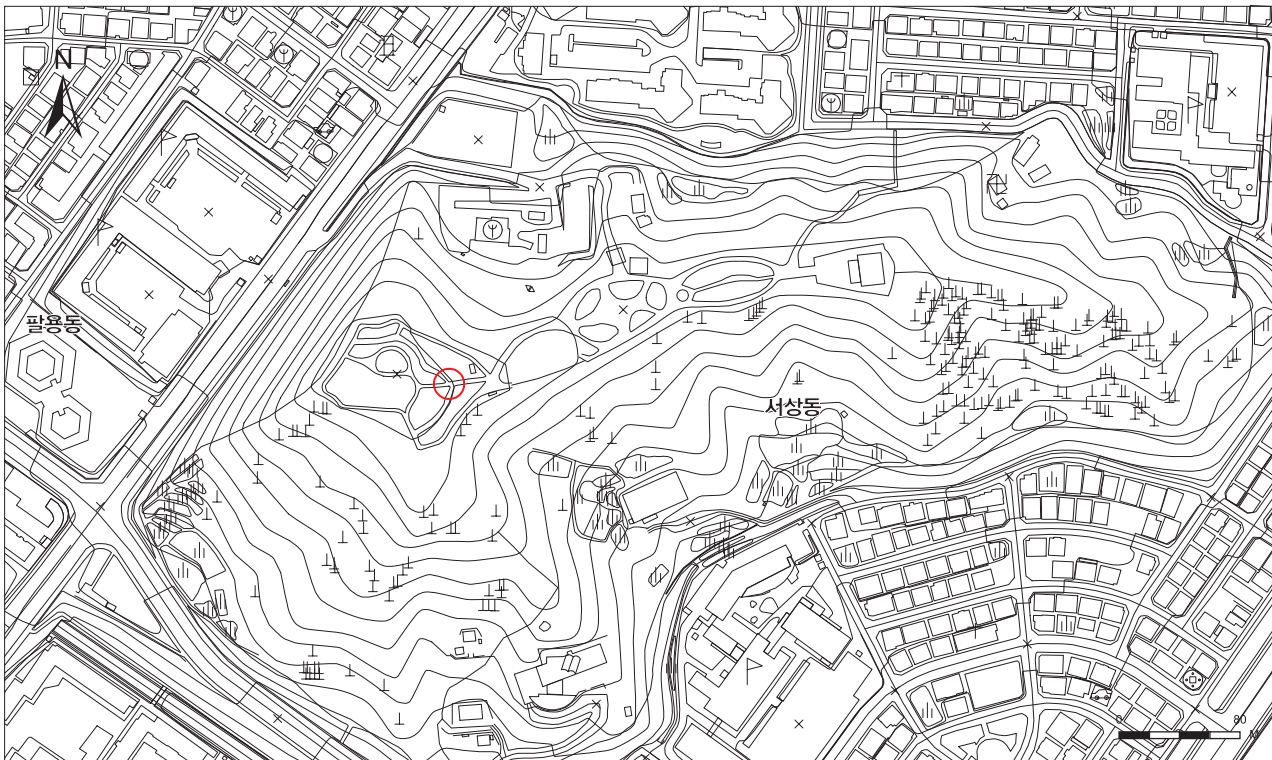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산8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창원대학교박물관 / 1996.12.~1997.8.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환호, 패총 / 연질옹, 연질발, 노형토기, 단경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산83번지 일대에 소재한 청동기~삼한시대 생활유적이다. 당초 창원시에서 남산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서상동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 하에 문화재 조사가 실시되었다.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1995년 지표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1996년 6~7월에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동기~삼한시대의 해당하는 여러 성격의 유구가 중첩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어진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11동, 수혈 7기, 환호, 삼한시대 수혈주거지 24동, 수혈 13기, 환호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남산유적의 청동기시대 환호는 당시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였고 유적의 입지와 양상이 청동기시대 유적으로서는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문화재로 지정, 원상보존하자는 제안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의에서 경상남도기념물 제201호로 지정하여 원상보존하기로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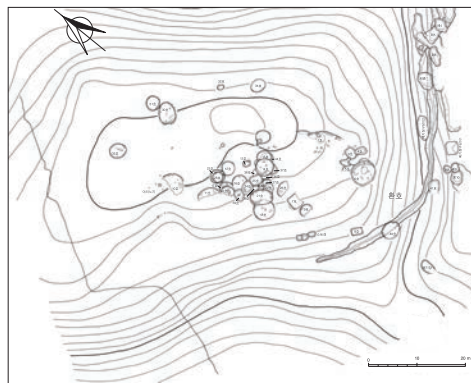
창원 분지 안에서 보면 정병산-비음산-대암산-불모산-장복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유적 위치도

의 가운데로 작은 구릉이 연결되어 뻗어 나간 능선이 자리 잡고 있는데 남산유적은 그 서북쪽 끝 부분에 솟은 해발 100m 남짓의 독립구릉에 자리 잡고 있다.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남산은 해발 100m(주변 평지로부터 표고 80m) 되는 주봉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짧은 지맥이 뻗어 나간 형상을 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환호와 동시기 수혈주거지 및 삼한시대 수혈주거지와 폐기장 등으로 구성된 유적의 중심은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동쪽의 소지맥에도 청동기시대 패총이 잔존한다. 환호 서쪽부에 해당하는 구릉의 정상부 일부와 서북쪽 사면은 서상동과 팔용동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시 절개되면서 훼손되었다.

삼한시대 수혈주거지와 수혈은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5~6동 이상이 중첩되어 집중되어 있고 폐기장구덩이, 패총, 유물포함층 등은 구릉 정상부와 접한 사면부에 분포하며 환호는 주거지군을 둘러 돌아가는 양상으로 조성되었다. 패총은 구릉의 서쪽 사면에 형성되어 있는데 구릉 정상부의 주거영역에서 사면쪽으로 폐기 행위가 이루어져 차례로 패총이 형성되어 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으로 내부시설은 저장시설로 추정되는 내부수혈과 고래, 부뚜막, 정형성이 없는 주혈 등이 조사되었다. 규모는 길이(직경) 280~470㎝, 깊이 5~40㎝ 정도로 타원형의 규모가 큰 편이다.

환호는 중복관계에서 수혈주거지나 수혈보다 선축된 양상이 확인된다. 평면형태는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동쪽과 남쪽 사면부에 'ㄴ'자형으로 등고선과 나란하게 진행한다. 단면형태는 반원형에 가깝고 바닥은 포물선을 이룬다. 환호의 규모는 잔존길이 62m, 너비 1.3~1.8m, 깊이 0.9~1.5m 정도이다. 환호의 바닥에는 사질과 실트 성분이 많고 내부토는 유기물, 토기 편, 목탄, 점토 등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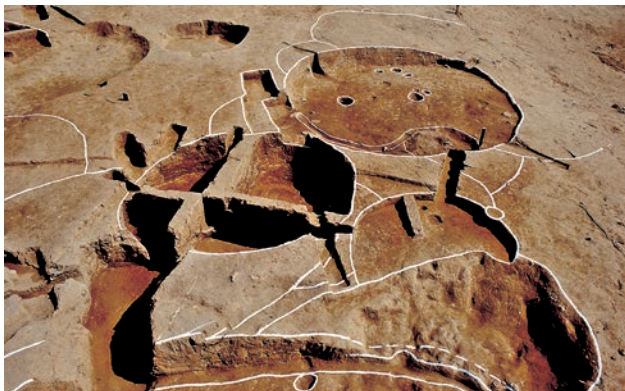
패총은 환호 상부에 형성되어 있다. 여러 개의 폐기장 구덩이가 인위적으로 굴착되고 폐기물이 채워지면 다시 재굴착하는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됨으로써 구덩이간에 상호중복이 심한 형태로 패총이 형성되었다. 패총의 면적은 18×12m이고 두께는 최대 1.5m에 달한지만, 구덩이 외부의 실제 폐기장으로 사용된 면적은 훨씬 넓다. 내부토는 패각과 유물이 포함된 것, 단순 유기물이 퇴적된 것 등 다양하며 폐기장을 소각하고 삭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평하는 행위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적갈색연질토기, 골촉, 녹각병, 복골 등이 다수를 이룬다. 그 외 출토된 어패류의 종류와 비율은 참굴〉피뿔고동〉가무락조개와 바지락 순으로 나타나며, 사슴, 닭, 참돔, 흑돔 등 동물유체가 확인된다.

출토유물은 전체적으로 적갈색연질토기가 90% 이상을 점하며 기종은 옹, 발, 미니어처 등이 확인된다. 그리고 와질의 노형토기, 단경호, 도질의 소형원저단경호, 직구호 등이 소량 출토되어 고분 출토 토기와 비교 가능하다. 유적의 조성시기는 유물의 편년을 통해 볼 때 3~4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유적의 조사를 통해, 3~4세기 또는 그 이전시기에 형성된 고지성취락의 자료가 누적되었으며, 5~6세기 대에 확인되는 저지성취락과의 비교검토가 용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입지와 분포의 변화는 인구증가, 가까운 농지의 개척과 활용의 필요성, 그리고 산성과 같은 전문적 방어시설의 축조 등과 같은 전반적인 삼국시대 사회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참고문헌

창원대학교박물관, 2003, 『창원 남산유적』.

수혈주거지 중복모습

환구

21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

24 창원 ○○부대 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조사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 일원에 소재한 삼국시대 생활·산업생산·무덤 유적으로 (주)유니시티에서 시행하는 창원 OO부대 개발사업부지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의 지표조사는 2014년 6~7월에 동서문물연구원에서 실시한 결과, 시굴조사 및 표본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사업대상지 내에서 확인된 유적과 기존 지표조사 대상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진입로 개설과 관련된 부지는 도계동고분군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의 보존 대책 통보내용에 따라 시굴조사 대상범위에 포함하여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표본 및 시굴조사는 동서문물연구원과 두류문화연구원에서 담당하였으며, 발굴조사는 조사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1구역은 동서문물연구원, 2구역은 해동문화재연구원, 3구역은 두류문화연구원에서 분담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발굴조사과정에서 추가발굴조사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우선, 1구역 조사과정에서 패총1의 동쪽에 연접한 도로구간과 패총2~3 및 구습지 경계면에 해당하는 부분에 수변유구(말목, 저장공, 나루시설)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추가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3구역 조사과정에서 Ⅰ·Ⅱ지구와 사이의 원지형이 살아 있는 구간에서 삼국시대 석곽묘 등 분묘가 연속적으로 노출되어 추가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구역이 위치하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은 창원분지 북쪽 중앙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곳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북동과 의안동, 동쪽으로는 도계동, 남쪽으로는 명곡동, 사화동, 서쪽으로는 반계동과 팔용동이 연접하고 있다. 조사구역은 남동쪽에 위치하는 등명산(해발 182.4m)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구릉 말단부, 북서쪽에 있는 남산(해발 108m)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구릉 말단부, 소답동의 동쪽에 있는 망호등(해발 182.7m)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구릉 말단부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 구릉 사이에는 현재는 복개되었지만 1950년대 전반까지는 창원천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곡류하고 있었고, 이 창원천 주변에 형성된 충적지에 해발 20m 내외의 곡간평야가 펼쳐져 있다. 이 곡간평야는 근래까지 ○○부대가 부대부지로 이용하고 있다가 이전계획이 수립되면서 상가와 공동주택 등이 조성되는 도심지로 건설될 예정이다.

1구역은 삼국시대 생활유적으로서 패총, 토취장, 수혈주거지, 수혈, 구, 주혈군 등이 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 통일신라시대 수혈주거지 및 우물, 조선시대 배수로, 석렬유구, 수혈, 분묘 등이 조사되었다.

2구역은 1구역과 같이 삼국시대 생활유적으로 삼국시대 다수의 고상건물지와, 수혈, 구, 주혈이 조사되었다. 그 외 조선시대 수혈, 구, 시대미상의 구, 주혈 등이 조사되었다.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창원 OO부대 개발사업부지(3구역) 내 유적	두류문화연구원	2016.2.~2016.10.	창원 OO부대 개발사업부지(3구역) 내 유적 결과약보고서(2016)
2	창원 OO부대 개발사업부지(1구역) 내 유적	동서문물연구원	2016.3.~2017.1.	창원 OO부대 개발사업부지 내(1구역)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2017)
3	창원 OO부대 개발사업부지(2구역) 내 유적	해동문화재연구원	2016.3.~2016.7.	창원 00부대 개발사업부지 내(2구역) 유적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2016)

3구역은 삼국시대 생활·산업생산·무덤유적 등 복합유적의 성격이 확인된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패총, 수혈, 고상건물지, 주혈, 소성유구, 추정 제철유구, 수전, 석곽묘, 목곽묘, 토광묘, 옹관묘 등 다양한 유구가 조사되었으나 삼국시대 석곽묘가 주를 이룬다. 그 외 삼국~통일신라시대 우물, 고상건물지, 수혈, 주혈군, 고려시대 석곽묘, 조선시대 분묘 등이 조사되었다.

유적의 조성시기는 출토유물의 편년을 통해 볼 때, 1구역이 2~5세기, 2구역이 4~5세기, 3구역이 5세기로 판단되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시기 사람들이 이루었던 취락으로 추정 가능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창원 ○○부대 개발사업부지 내 유적은 생활·산업생산·무덤유적 등 다양한 성격으로 이루어진 복합유적으로서 발굴조사된 유구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면 기존에 발굴 조사된 도계동유적과 인근 패총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삼국시대 창원지역 사회집단의 지배구조, 경제활동, 매장관념 등 창원지역 생활상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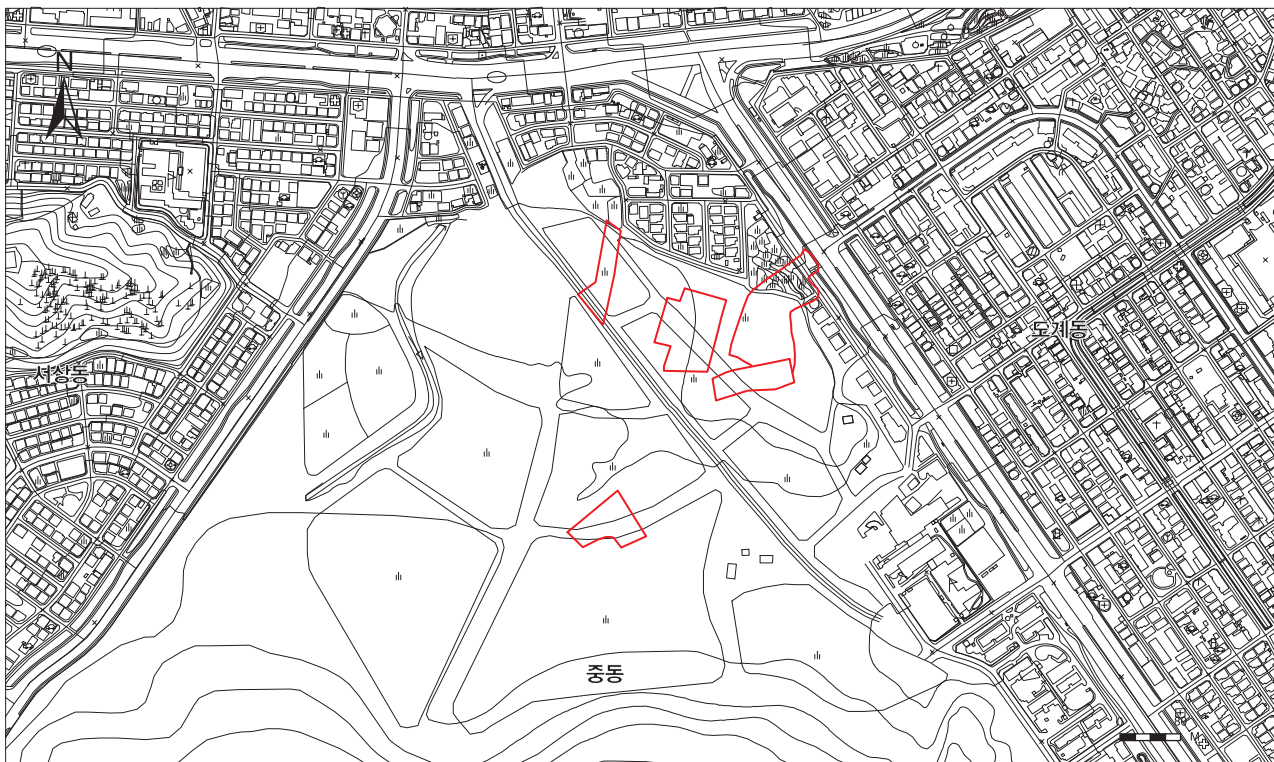
창원 ○○부대 개발사업부지(3구역)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두류문화연구원 / 2016.2.~2016.10.

주요 유구 / 유물
패총, 수혈, 수전, 석곽묘, 목곽묘 / 유개고배, 연질발, 호, 금동제 이식, 환두대도, 철부, 철촉, 송풍관 편, 슬래그, 패각류

창원 OO부대 개발사업부지(3구역) 내 유적은 삼국시대 생활·산업생산·무덤유적으로서 발굴조사는 6개 지구(Ⅰ~Ⅴ지구, 추가부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Ⅰ·Ⅱ지구 및 추가부지는 도계동고분의 분포범위에 속해 있으며, 구릉 정상부를 포함한 구릉의 사면에 해당한다. Ⅲ지구는 구릉의 말단부와 맞닿은 선상지에 해당하며, Ⅳ지구는 망호등(해발 182.4m) 남서쪽 사면의 얕은 구릉 말단부와 평지가 접하는 지점이다. Ⅴ지구는 동-서로 뻗은 등명산(해발 182.7m) 구릉의 정상부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 사면의 말단부와 맞닿은 선상지에 해당하는데 기존 군부대 시설이 위치하던 곳으로 기반토의 굴착행위 및 교란이 부분적으로 심한 상태였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패총, 수혈 27기, 고상건물지 2동, 주혈 125기, 소성유구 3기, 추정 제철유구 1기, 수전, 석곽묘 54기, 목곽묘 5기, 토광묘 2기, 옹관묘 1기, 삼국~통일신라시대 우물 1기, 고상건물지 2동, 수혈 5기, 주혈군, 고려시대 석곽묘 1기, 조선

유적 위치도

시대 분묘 97기 등이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패총은 Ⅵ지구의 남쪽으로 편향된 중심부에 유존한다. 군부대 시설의 구조물 등으로 파괴되어 온전히 남아 있지는 않지만 잔존 범위로 보아 추정 길이 25~29m, 잔존 최대 너비 10~11m, 두께 0.5~2m 내외로 평면형태는 북서-남동 방향의 장타원형이다. 패총의 층위는 총 7~19개 층으로 세분되며 구지표-삼국시대 재퇴적 패분층(제1패각층)-간층(패각 및 유물없음)-삼국시대 패각층(제2패각층)-삼국시대 자연구층-삼국시대 유물포함층과 생토층(유구 굴착)의 6개 층으로 대별된다. 내부에서 수습된 삼국시대의 토기 편으로 미루어 패총은 5세기경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된 패류는 담수산도 있지만 굴, 백합, 고동 등의 해수산이 대부분이다. 패총 하부에서는 선축된 수혈, 주혈, 구 등이 조사되었다.

수혈은 Ⅳ·Ⅴ지구에 분포하고 있으며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 방형, 장방형으로 구분된다. 규모는 길이 136~354㎝, 너비 126~358㎝, 깊이 10~53㎝ 정도이다. 내부시설은 저장공으로 추정되는 수혈과 주혈 등이 조사되었으며 바닥에서 일부 목탄흔이 관찰된다.

수전은 Ⅴ지구 서쪽 하단의 해발 21m 인근 구릉 끝자락 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 토층조사 결과, 수전은 배후습지를 가공하여 조성한 양상이 확인되었으며, 잔존하는 수전층의 두께는 대략 20㎝ 전후로 확인되었다. 평면에서의 조사가 어려운 관계로 규모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토층조사에서 2~3단으로 단이 형성된 것으로 미루어 계단식으로 구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에서는 층의 하부에서 쟁기흔이 확인되었다.

2패각층 전경

수전층 아래에서는 퇴적층(유물포함층)과 유구가 확인되는 1개 층이 추가로 존재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는데 유물의 양상으로 미루어 보아, 수전층과 큰 시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시대 석곽묘는 도계동고분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구역의 구릉 정상부를 따라 밀집하고 있었으며, Ⅰ·Ⅱ지구와 추가부지에 분포한다. 석곽묘의 잔존상태는 군부대 시설물로 인한 교란과 도굴의 흔적으로 인해 불량한 상태였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세장방형으로 묘광의 규모는 길이 205~680㎝, 너비 100~360㎝, 깊이 7~86㎝ 정도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190~470㎝, 너비 44~140㎝, 높이 7~86㎝이다. 벽석은 화강암재의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대부분 관대를 설치하였으며, 일부는 소형 할석으로 시상을 마련하거나 바닥시설이 없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유물을 부장하기 위해 내부에 구덩이를 판 양상도 일부 확인되었다.

석곽묘 이외에도 목곽묘, 옹관묘, 토광묘 등 다양한 묘제가 확인되었다. 목곽묘의 장축방향은 석곽묘와 동일한 양상으로 파악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방형으로 묘광의 규모는 길이 166~367㎝, 너비 57~180㎝, 깊이 27~88㎝이고, 목곽의 규모는 길이 156~280㎝, 너비 43~114㎝, 높이 15~45㎝이다. 이들 분묘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가야 각 지역별 형식을 지닌 것들이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어 과거 창원지역은 각 가야 집단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출토되는 고배와 개의 경우 기존의 연구성과와 비교 검토해 보면 5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석곽묘에서 유개고배, 연질발, 호, 금동제이식, 환두대도, 철부, 철촉 등, 목곽묘에서 연질발, 호 등이 출토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유적에서는 생활유적, 산업생산유적, 무덤유적 등 다양한 종류의 유구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금번 발굴조사된 유구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면 기존에 발굴 조사된 도계동유적과 인근 패총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가야시대 창원지역 사회집단의 지배구조, 경제활동, 매장관념 등 창원지역 생활상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두류문화재연구원, 2016,「창원 OO부대 개발사업부지(3구역) 내 유적 결과약보고서」.

Ⅰ지구 2호 석곽묘

Ⅰ지구 5호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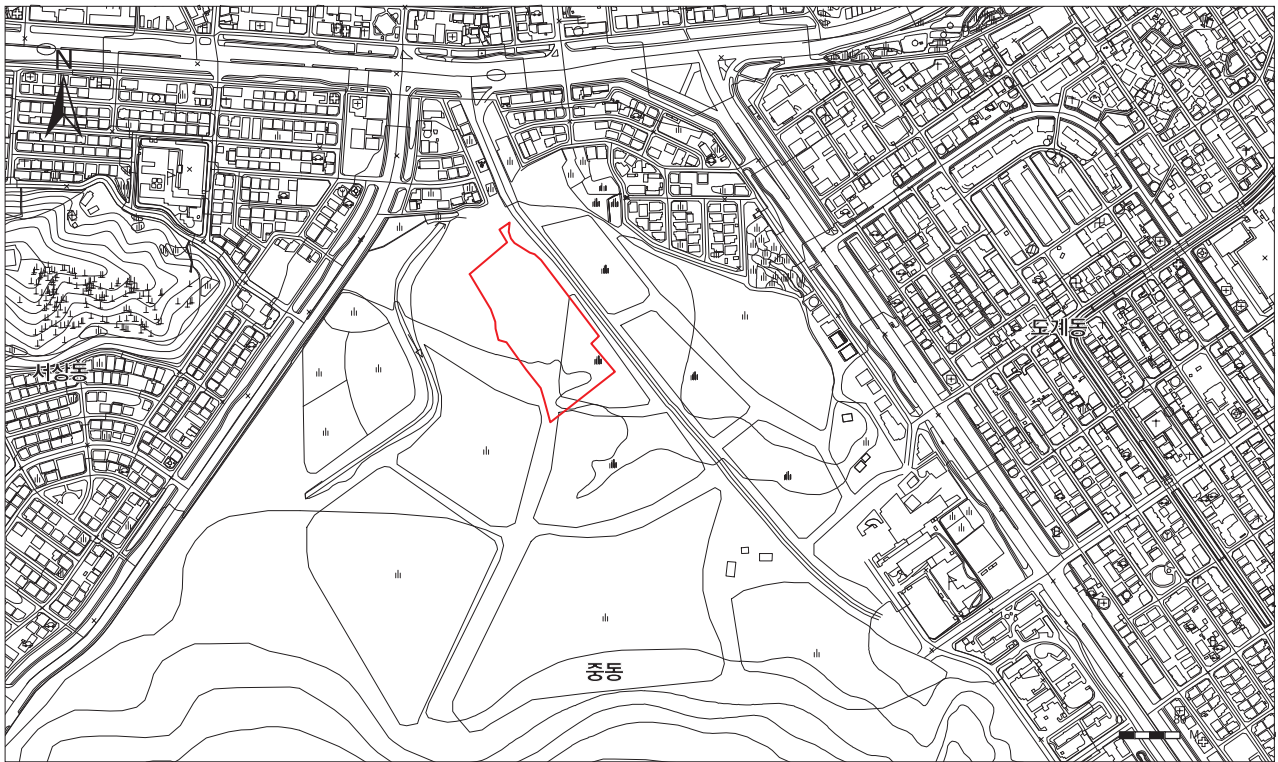
24-2 창원 ○○부대 개발사업부지(1구역)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 48-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16.3.~2017.1.

주요 유구 / 유물
패총, 토취장, 수혈주거지, 고상건물지, 수혈, 대형 구 / 조형토기, 호, 옹, 발, 시루, 기대, 고배, 파배, 방추차, 어망추, 지석, 석착, 석부, 철부, 철착, 도자, 철촉, 골각기, 동물뼈, 패각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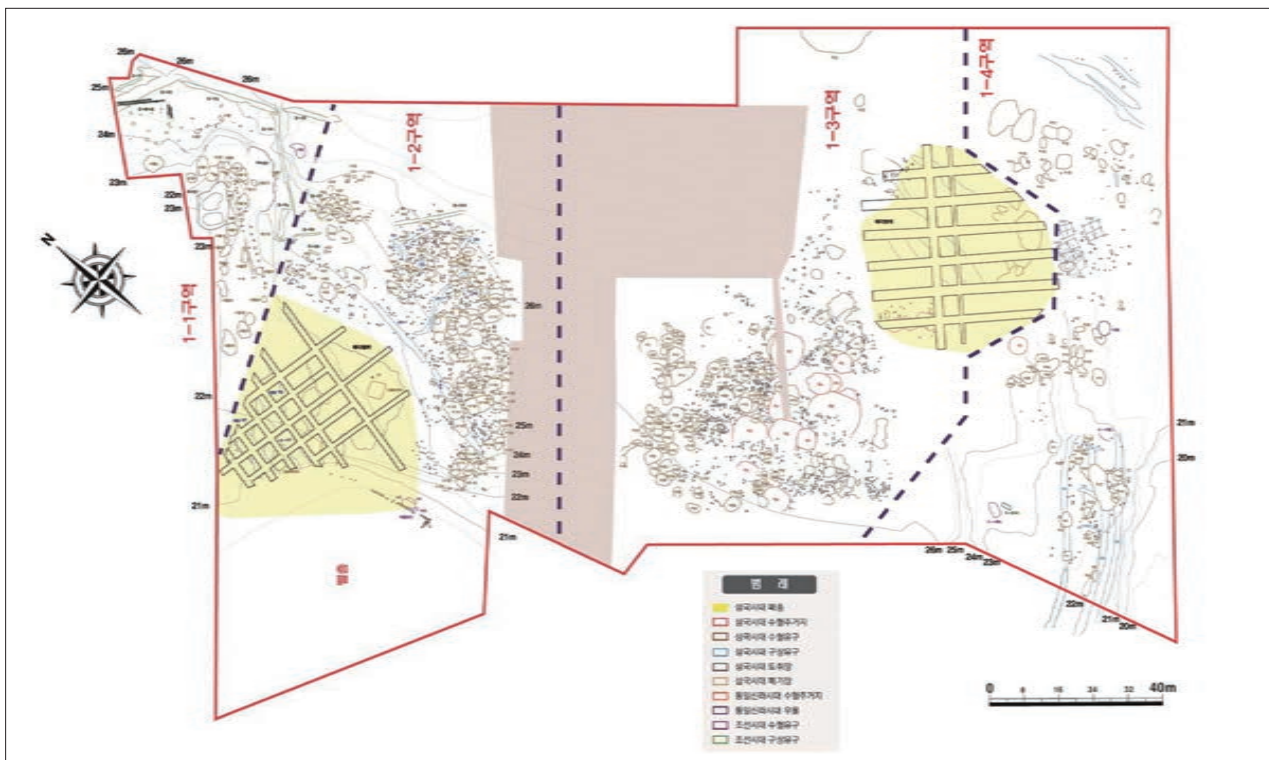
창원 OO부대 개발사업부지 내(1구역) 유적의 발굴조사는 조사의 편의와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4개 구역(1-1구역, 1-2구역, 1-3구역, 1-4구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패총, 토취장 3기, 추정폐기장 1기, 수혈주거지 15동, 고상건물지 4동, 수혈 423기, 구 25기, 대형 구 2기, 주혈군,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1동, 우물 1기, 조선시대 석렬유구 1기, 수혈 5기, 구 4기, 분묘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패총은 1-2구역(패총2·3)과 1-3구역(패총1)에 분포한다. 패총2·3은 조사지역의 서쪽 구릉 자락에 위치하며, 해발 21.5~24m 위치에 분포하고 있다. 면적은 대략 1,958㎡(패총2 : 924㎡, 패총3 : 1,034㎡)이며, 북쪽의 조사지역 외부에 남아 있는 면적까지 합치면 꽤 넓은 패총으로 추정된다. 패총2·3의 토층양상은 8개 층으로 지표층(Ⅰ층)-흑갈색혼패층(Ⅱ층:패총2)-적갈색혼패층(Ⅲ층:패총2)-적갈색소토(재)층(Ⅳ층:패총2)-회갈색실트층(Ⅴ층)-혼패층(Ⅵ층:패총3)-황갈색토층(Ⅶ)-기반토층(Ⅷ)으로 구분된다. Ⅱ층에

유적 위치도

서는 길이 92㎝, 너비 48㎝, 깊이 25㎝ 규모의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내부에는 시선을 북쪽에 두고 누워 있는 인골 1구가 매장되어 있으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패총 1은 조사구역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해발 21~26.5m 위치에 분포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넓은 방형을 띠고 있으며, 면적은 대략1,400㎡(423.5평)이다. 패총 1의 토층양상은 8개 층으로 교란층-패분층-흑갈색혼패층-재층(간층)-적갈색혼패층1-회갈색혼패층(간층)-적갈색혼패층2-암갈색풍화토로 구분되며, 갈색혼패층에서 토기폐기장이 확인되었다. 패총 1의 남쪽에는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낮은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건너편에는 패총을 형성한 사람들이 죽어서 묻히는 무덤이 있는 구릉지가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패총의 북쪽 구릉지에는 패총과 연관이 있는 취락유구가 위치하고 있다.

한편, 패총의 하부에서는 선축된 수혈주거지, 구, 수혈 등이 조사되었다. 패총의 하부에서 조사된 구의 경우, 등고선 흐름과 동일한 남-북 방향으로 진행하며, 규모가 대형이고, 단면이 넓은 'U'자형인 점, 구릉을 감싸는 듯한 점을 고려하면 취락의 외곽을 감싸는 방어적인 시설 혹은 취락의 범위를 알 수 있는 시설로 추정된다.

토취장은 1-1구역에서 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규모는 길이 9.58~16m, 너비 5.8~7.3m, 깊이 0.62~1.4m이다. 유구 내부에는 타원형태의 수혈구덩이가 여러 개 확인되며, 용도폐기 이후에는 저습유구 및 폐기장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혈주거지는 대부분 1-3구역에서 조사되었는데 평면형태는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패총2 하부에서 노출된 주거지의 경우는 평면형태가 방형으로 차

유구 배치도

이가 있다. 수혈주거지의 규모는 원형계의 길이(직경)가 6.6~10.94m, 방형계의 길이 3.5~4.3m 정도로 원형계의 규모가 큰 편이다. 내부시설은 원형계의 경우, 내부에 1~3열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된 벽주혈, 벽구, 노지수혈 등이 조사되었으며 방형계에서는 탄화목재와 노지가 확인되었다. 바닥은 대부분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2~5㎝내외로 정지한 것도 있다.

고상건물지는 비교적 해발이 낮은 곳에 밀집하여 위치한다. 구조는 3×2칸 1동을 제외하고 모두 2×2칸 방형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수혈은 조사지역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중복양상이 확인된다.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 방형, 장방형, 부정형 등이며 규모는 길이 1.24~11.4m, 너비 0.66~4.32m, 깊이 0.08~0.9m로 다양하다. 바닥은 대체로 편평하나 여러 번의 계단시설이 확인되며 요철이 심한 것도 조사되었다. 내부시설은 보고되지 않았다. 한편, 수혈에서는 폐기양상이 확인되는데 1-3구역 14호 수혈의 경우 하층에 패각층이 두껍게 확인되며, 다양한 토기와 동물뼈가 함께 출토되었다. 수혈 중 평면형태가 원형에 가까우며 바닥이 편평한 것은 주거용도로 판단된다.

유물은 패총에서 조형토기, 호, 옹, 발, 기대, 고배 등의 토기, 지석, 석착, 석부 등의 석기, 철부, 철착, 도자, 철촉 등의 철기, 도자병, 찌르개, 송곳, 뒤꽂이, 첨두기, 골촉, 바늘 등의 골각기, 내박자, 방추차, 어망추 등의 토제품 등이 출토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슴, 멧돼지, 족제비, 너구리 등의 동물뼈와 꿩, 농어, 참돔, 광어 등의 조류와 어류의

Ⅰ-1구역 전경

Ⅰ-4구역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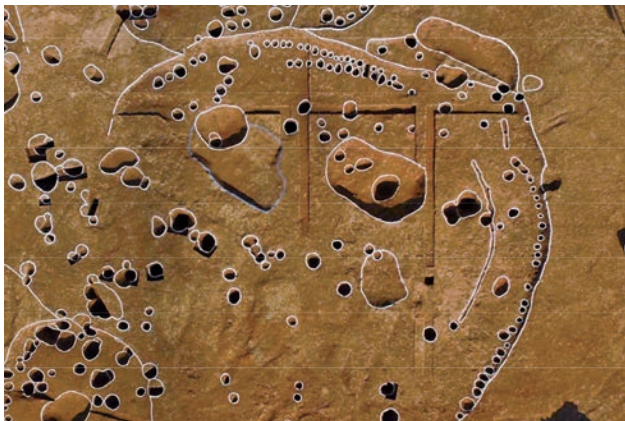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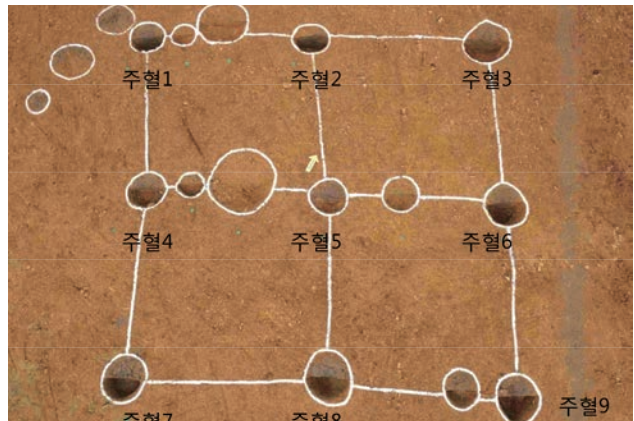
뼈, 참굴, 백합, 동죽, 고둥, 다슬기, 재첩, 소라, 피뿔고둥 등의 패각류도 패총 내에서 확인되고 있다. 생활거점인 수혈주거지 및 수혈, 구 내에서는 단경호, 연질옹, 연질발, 시루, 방추차, 어망추, 컵형토기, 파수 편 등 다양한 종류가 출토되었다.

이상 내용을 종합해 보면, 창원 00부대 개발사업부지 내(1구역) 유적은 원삼국시대~삼국시대(2~5세기)에 형성된 수혈주거지, 수혈, 구 등의 각종 생활유구와 어패류·동물유체 등이 포함된 패총유적이 확인되고, 통일신라시대의 주거지와 우물, 조선시대 분묘 및 수혈, 구, 배수로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는 복합유적으로 판단된다. 조사지역은 대지상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지 정상부에는 주거지와 생활유구, 구릉 북서사면과 남사면에는 각각 패총 2·3과 패총1이 형성되어 있는데 패총과 연관이 있는 취락구조로 파악되었다. 특히 패총 2·3은 하층에 패각층이 중층으로 형성되어 삼한시대부터 형성된 유적으로 패총에서 출토되는 각종 골각기를 비롯한 다양한 토기 등은 원삼국시대 생활문화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7, 「창원 OO부대 개발사업부지 내(1구역)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Ⅰ-1구역 1호 토취장

Ⅰ-2구역 1호 주거지

Ⅰ-3구역 6호 주거지

Ⅰ-4구역 2호 고상건물지

24-3

창원 ○○부대 개발사업부지(2구역)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 73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해동문화재연구원 / 2016.3.~2016.7.

주요 유구 / 유물
고상건물지, 수혈, 구, 주혈 / 연질발, 고배, 소형기대, 광구소호, 동물유체

조사지역은 등명산 자락의 낮은 구릉지대 및 곡간 일대에 해당된다. 지형상 곡간부라고는 하지만 단구면의 특성상 평탄하며, 그 중앙을 2개의 하천이 관통하고 있다. 조사지역 중앙에서 남쪽으로 치우친 하천은 삼국시대 유구조성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던 하천으로 추정된다. 크게 4회 정도 유로를 바꿔가며 서쪽의 내동천으로 합류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북쪽에 치우친 하천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천이 유로를 넓히는 조사지역 서쪽지역은 과거 내동천의 유로와 구릉에서 흘러드는 망상하천들의 합수부 인근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과거 항공사진을 통해 본 조사지역 일대 토지이용은 대부분 지역이 논이나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묘역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고상건물지 23동, 수혈 83기, 구 8기, 주혈 371기, 조선시대 수혈 14기, 구 2기, 시대미상의 구 2기, 주혈 17기 등이 확인되었다.

유적 위치도

고상건물지는 조사지역 중앙의 삼국시대 하천 주변에서 확인되었다. 고상건물지의 구조는 12·16·17·21·22호를 제외하고 9주식의 2×2칸 구조가 기본을 이룬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면적은 7~28㎡이다. 본 유적에서 확인된 고상건물지는 수혈이나 수혈주거지 밀집지역과는 확연히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하천이 흐르는 저지대에 위치한다는 입지상의 특징이 있다.

수혈은 대부분 조사지역 경계 인근이나 고상건물지 주변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부정형이며 내부시설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다. 수혈의 규모는 2m 내외이며 내부에서 삼국시대 토기 편이 소량 확인된다. 시기적으로는 10호 고상건물지에 의해 파괴된 수혈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유구들과 시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구의 중심연대는 4~5세기대로 추정된다.

구는 1구역과 연접해서 주로 확인된다. 규모는 5~36m, 깊이는 0.1~0.46m 정도이며 내부에서는 삼국시대 토기 편이 소량 확인된다.

주혈은 삼국시대 하천 주변의 고상건물지와 수혈 주변으로 371기가 확인되었다. 주혈의 배치상태는 뚜렷하지는 않지만, 고상건물지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주혈들은 고상건물지와 연관된 주혈로 판단된다. 토층조사 시 목주가 확인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주혈은 목주 주변을 어떤 재료로 보강하였는가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대부분의 주혈이 흙을 이용하여 보강한 것에 반해 목주 주변을 돌을 채워 보강한 것도 있다. 후자는 37호 수혈 주변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주혈들은 인접한 수혈들을 파괴하고 조성되었기 때문에 중심연대가 되는 4~5세기대보다 다소 늦은 시기의 주혈로 판단된다.

삼국시대 수혈 및 구에서 연질토기 발, 연질토기 구연부 편, 고배대각 편, 소형기대, 광구소호 등의 유물과 함께 돼지 상악골 및 경추 등도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해동문화재연구원, 2016, 「창원 00부대 개발사업부지 내(2구역) 유적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유적 전경

구상유구

2·3·5호 고상건물지

8·9·11호 고상건물지

2호 수혈

2호 수혈 동물유체(추정 돼지이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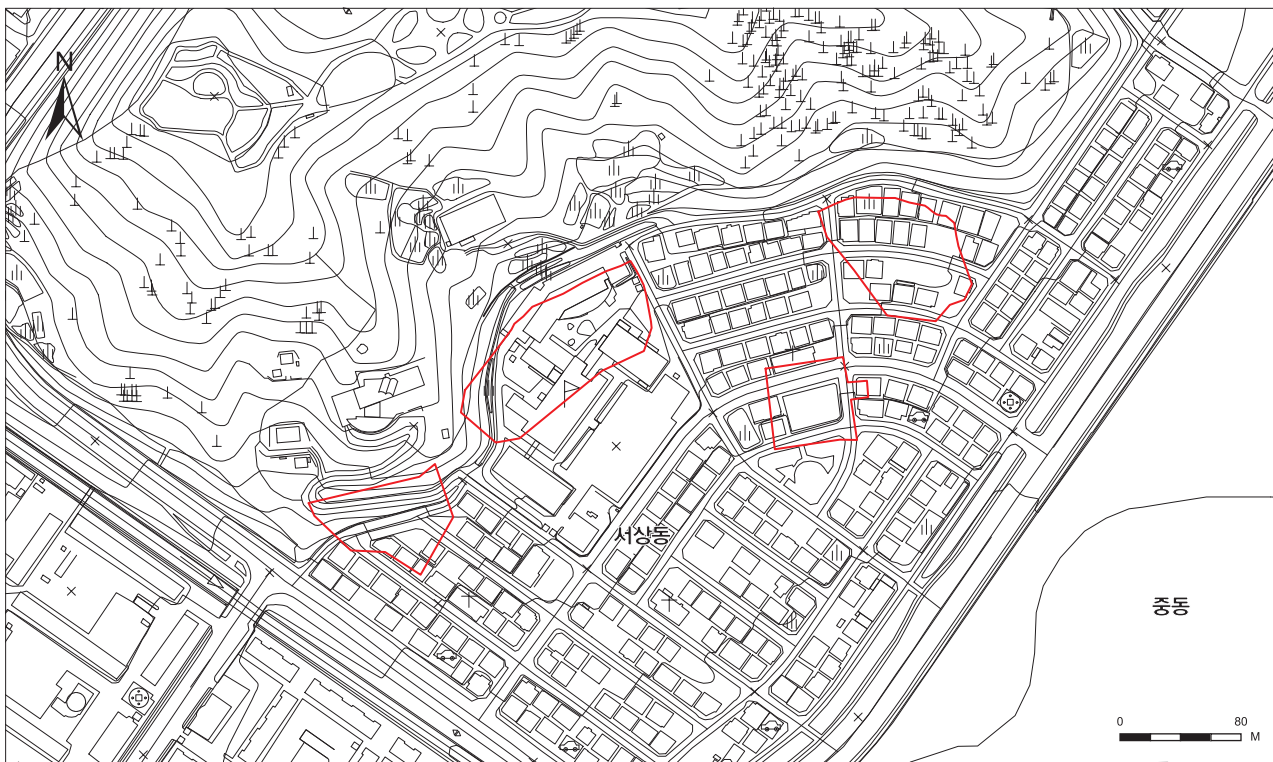
25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 117-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09.10.~2010.10.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토기가마, 폐기장, 도로유구 / 유개고배, 장경호, 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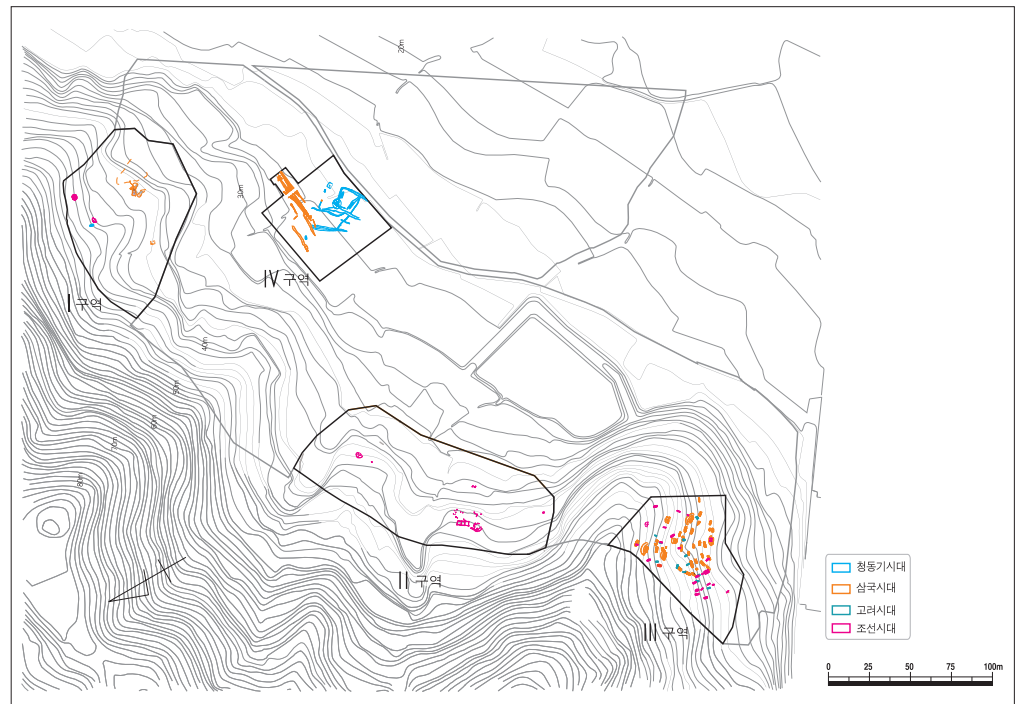
창원 중동유적 _ 창원 중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내 유적

유적은 창원 분지의 북서쪽에 위치한 독립 구릉인 남산(해발 108m)의 남쪽 사면부와 말단부를 포함한 지역에 위치한다. 유적 주변으로는 남산의 정상부에 위치하는 청동기시대의 환호 취락인 남산유적, 남산의 남쪽 맞은편 등명산(해발 183m) 북쪽 사면에 위치하는 삼국시대 도계동고분군, 등명산 남쪽의 사면에 위치하는 반계동유적 등 청동기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다수의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2동, 석관묘 1기, 석개토광묘 2기, 구상 11기,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 36기, 토기가마 2기, 폐기장 1기, 도로 2기, 야외노지 1기, 수혈 6기, 구 4기, 고려·조선시대 분묘 36기, 수혈주거지 2동, 삼가마 1기, 고상건물지 1동, 수혈 2기, 소성유구 2기, 구 1기, 주혈군 4개소 등이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는 남산의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능선의 사면부에 해당하는 Ⅲ구역에 분포하고 있다. 수혈식석곽묘는 대부분 가야후기 석곽묘의

유적 위치도

특징인 최하단석을 세워쌓기하고 그 상단을 눕혀쌓기한 축조방법을 보이고 있다. 바닥은 대부분 정지된 바닥면에 사질점토를 한 번 깔아 재정리하여 사용하였다. 일부 중동 고분군에서 규모가 대형에 속하는 유구에서 지형상 상단에 눈썹형주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주구 내부에서 의례행위의 산물인 파쇄된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유물은 수혈식석곽묘에서 모두 163점이 출토되었는데, 토기류는 128점, 금속류는 28점, 장신구류는 7점이다. 유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토기류는 전형적인 대가야양식 고배, 개배, 장경호, 기대 등으로 대도와 이식 등의 위세품들은 비교적 적은 양이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토기가마 및 관련 유구는 Ⅰ구역에서 토기가마 2기, 폐기장 1기, 수혈 1기가 확인되었다. 토기가마는 2기가 2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조성되었으며, 해발 36.4~37.2m 사이에 위치한다. 가마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속하며, 1호 토기가마가 전체길이 6.5m, 최대너비 2.2m이고 2호 토기가마가 전체길이 7.7m, 최대너비 2.2m 정도이다. 반지하식의 수혈을 굴착하여 만들었는데, 연소부는 평탄하게 굴착하였고, 소성부는 5~25°정도의 경사를 주었다. 내부구조는 아궁이는 무시설식이고, 연소실은 편평한 수평연소실, 소성부는 무계단식이다. 폐기장은 가마와 인접한 동쪽의 자연곡부를 활용하여 조성하였는데, 잔존규모는 길이 20m, 너비 15m 정도이다. 내부에서는 토기가마의 폐기물인 토기 편, 벽체 편, 목탄 등이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대가야양식 토기이며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의 기형과 대동소이하다. 일부 시루, 연질옹 등의 토기들이 출토되어 가마는 고분 부장품뿐만 아니라 생활용 토기도 생산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 배치도

삼국시대 도로는 Ⅳ구역에서 2기가 확인되었다. 지형상 높은 북쪽을 'ㄴ'자상으로 굴착하여 노면을 평탄하게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이후 차륜흔으로 손상된 부분을 편평한 할석과 잔자갈을 깔아 노면을 재구축하여 사용하였다. 도로에서는 대가야양식으로 추정되는 고배 배신부와, 대부완, 대호 등이 내부퇴적토 내에서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로 볼 때, 고분군과 동일한 시기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도로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의 조성위치가 토기가마가 축조된 능선부의 산기슭에 위치하고 주축방향이 고분군과 토기가마 사이로 진행하는 점으로 볼 때, 도로는 삼국시대 토기 생산·소비체제에서 유통의 기능을 담당한 도로로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중동유적의 조영시기는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중엽으로 편년할 수 있으며, 토기가마는 토기의 생산 기능, 도로는 유통의 기능, 고분군은 토기 소비지로서 기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변 유적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이 지역의 삼국시대 사회상 및 토기 생산과 유통, 소비체제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확보되었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2, 『창원 중동유적-창원 중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유적』.

유적 전경

2호 석곽묘

2호 수혈

26

창원 반계동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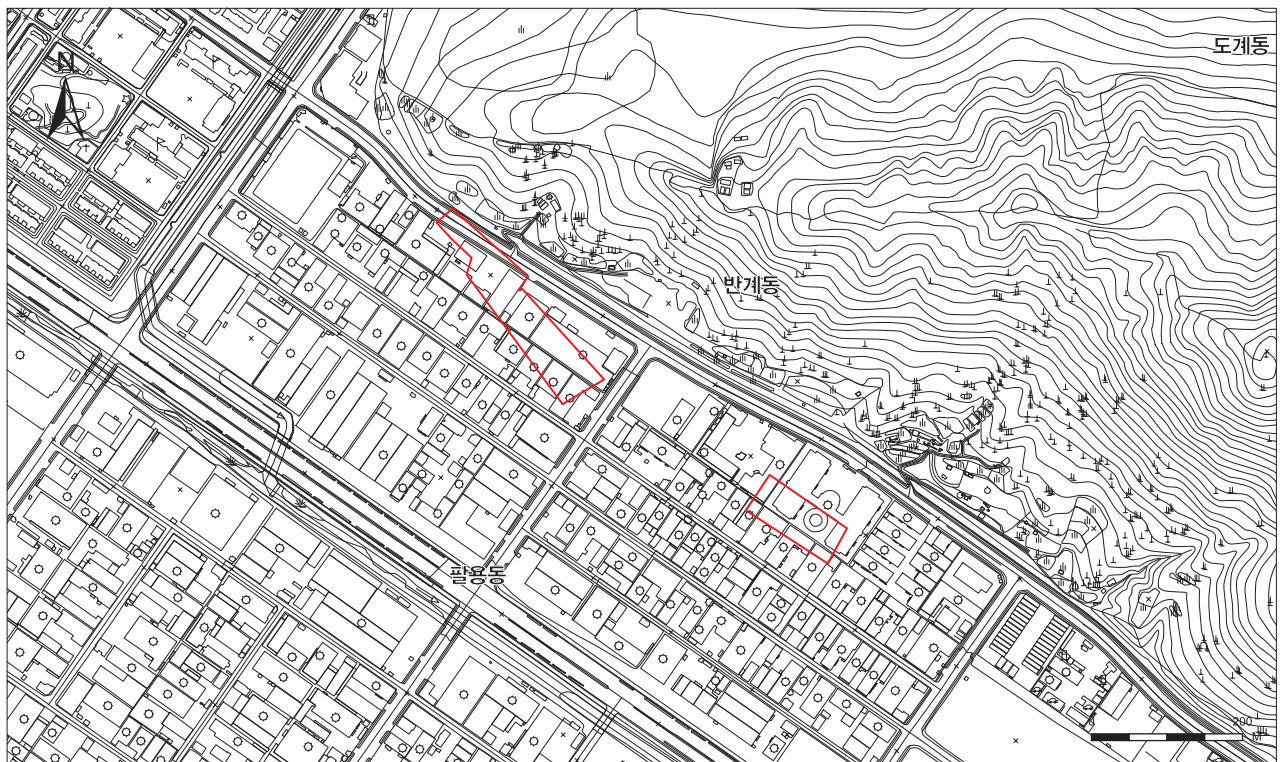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동 산55-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창원대학교박물관 / 1996.9.~19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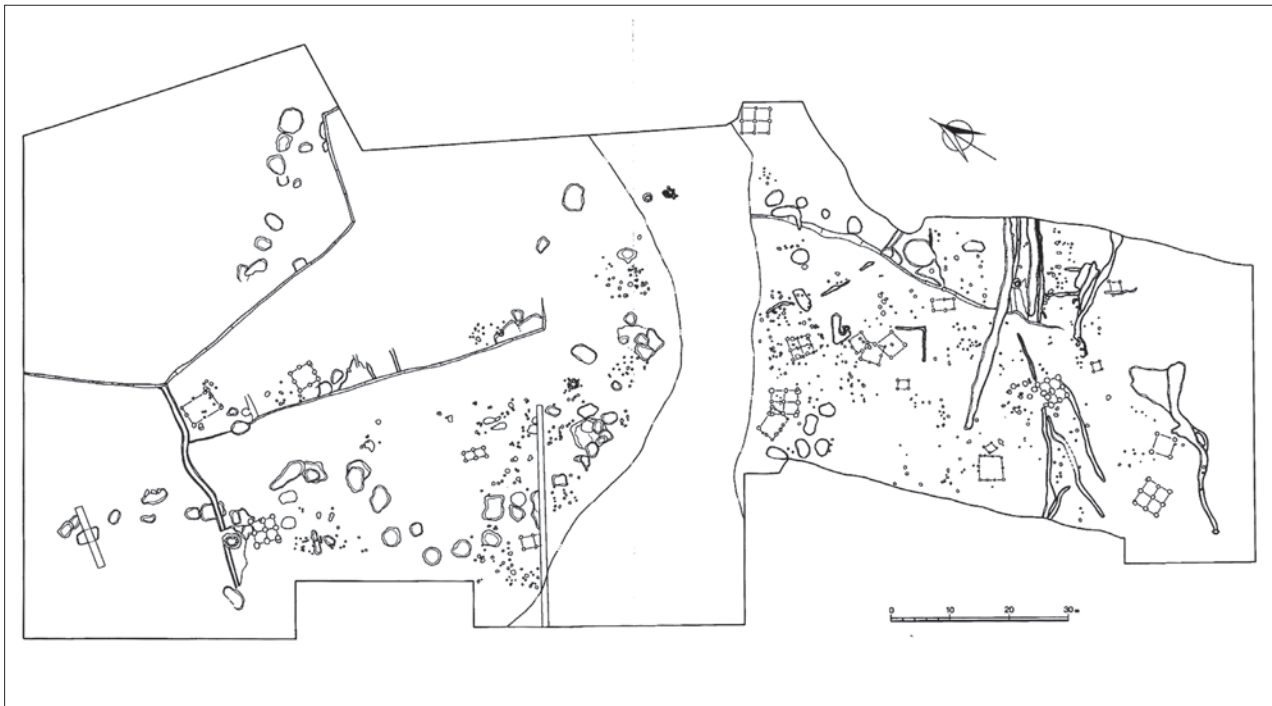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묘 / 고배, 장경호, 연질옹

유적은 창원분지 북서 외곽부에 독립적으로 형성된 떡뫼(해발 186m)의 남서향 구릉사면 일대에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높은 곳에 고분군이 있고 그 아래편으로는 취락지와 패총, 수전유적이 분포되어 있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지석묘 1기와 초기철기시대의 주거지 1동을 비롯하여 6세기 이래 삼국시대 후기 취락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삼국시대 후기 취락을 구성하는 유구는 수혈 86기, 고상건물지 21기, 우물 7기, 배수로 10기, 폐기장 1개소, 수전과 이에 따르는 농로와 둑 및 수로, 석곽묘 28기, 석실묘 2기, 옹관묘 5기 등이다. 이 밖에 조선시대 와요지 1기가 조사되었다.

I 지구에서는 반계동유적 취락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주거공간과 폐기장, 매납지, 생산공간 등의 제시설물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공간적 배치상을 보여준다. 반계동유적 취락의 주 유구는 수혈이다. 수혈은 구릉의 비탈을 의지하여 설치

유적 위치도

된 것으로 대체로 형태는 타원형이며 말각방형계와 부정형, 구상의 것이 있는데, 수혈의 깊이와 면적은 반비례하는 경향이어서 소형 수혈의 경우 깊이가 깊어 저장시설과 관련된 기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수혈은 정형성 있는 일반 주거지와는 형태, 구조상의 차이를 보이지만 주거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상건물지는 대체로 2×2칸 규모와 2×1칸 규모의 구조로서 주혈 간의 거리는 1.7m~1.8m이다. 타원형 모양의 주혈 내부에는 부분적으로 목주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목주의 최하단부는 톱 등으로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우물은 고상건물지와 수혈 주위에 인접하여 축조되었는데, 평면이 원형을 이루며 깊이는 1.5m 내외로서 비교적 얕은 편이다. 우물은 원형의 수혈을 파내고 바닥은 자연면을 그대로 이용했으며, 할석의 넓은 면을 이용하여 벽면을 만들고 최하단석을 돌렸다.

Ⅱ지구에서 확인된 고분군은 넓게 이어진 능선상 저위의 평탄한 대지면에 위치해 있는데, 선행한 수혈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된 묘역으로 그 중심지는 북동쪽으로 약 100m 이상 정도 떨어진 구릉상의 중위에 위치한다. 대부분의 석곽묘는 파괴가 심하여 최하단석과 시상석 정도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묘광은 장방형을 이루며 주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나란한 것이 많다. 상면은 자연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과 잔자갈을 고르게 깔아 마련한 형태가 모두 확인되는데, 상면을 자갈로 처리한 2호분과 7호분, 17호분에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가 다른 분묘에 비하여 다소 상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석곽묘에서는 다량의 고령양식 유개고배와 장경호, 유개완 등의 토기가 출토되는데, 이는 6세기 후반대에 이르러서야 이 지역까지

Ⅰ지구 유구 배치도

대가야 세력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4호분에서는 망치, 모루, 집게의 단야구가 공반되어서 24호분의 피장자가 철생산과 관련이 깊은 집단 출신임을 추측할 수 있다.

수전은 조사 결과 6세기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반계동유적을 포함한 창원분지의 지형발달, 화분분석 등 제자연과학적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보여주게 되었다. 반계동고분군은 창원분지의 선사·고대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창원지역 삼국시대 문화상 연구의 기초자료로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창원대학교박물관, 2000, 『창원 반계동유적Ⅰ·Ⅱ』.

11층 면의 각종 유구

석곽묘 전경

수전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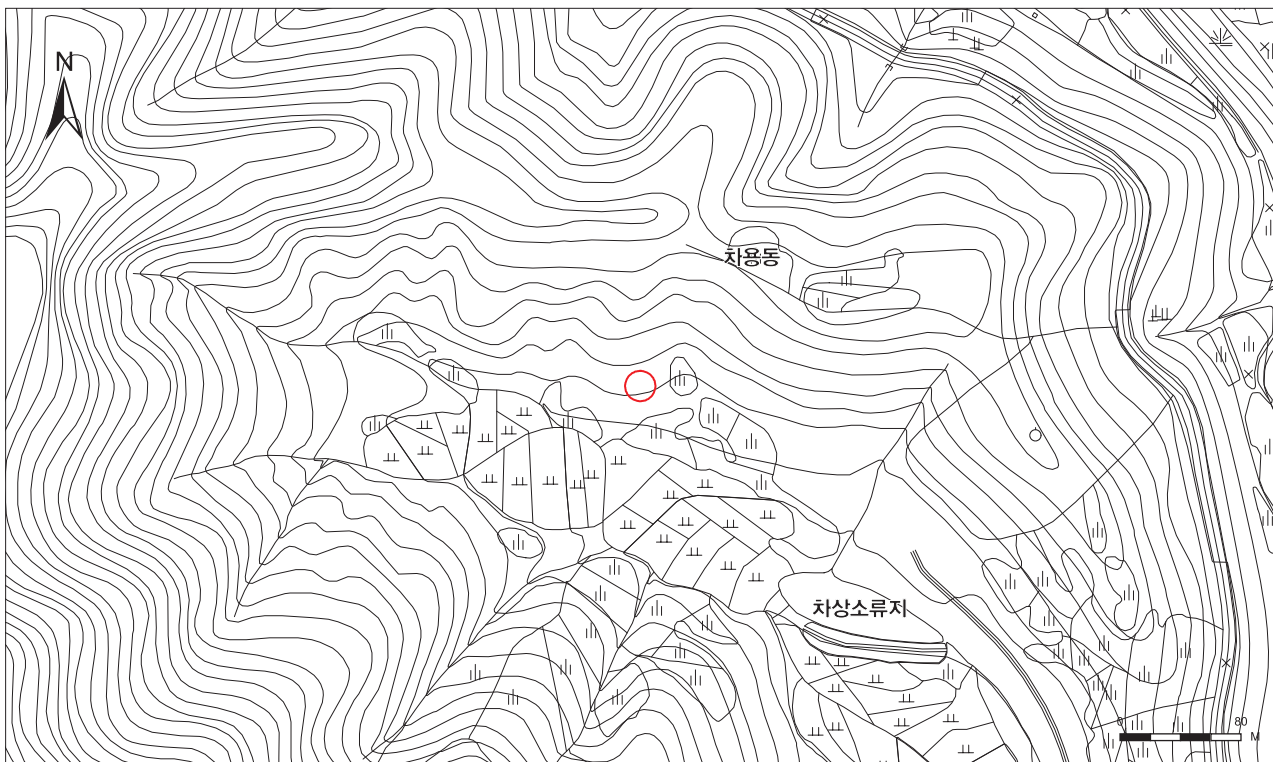
창원 차용동 산11-2번지 유적 _ 주한미군기지 마산AD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용동 산11-2

조사기관 / 조사기간
영남문화재연구원 / 2013.11.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 연질호, 완, 단경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용동 산11-2번지에 소재한 삼국시대 생활유적이다. 문화재청의 주도로 2010년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주한미군기지 마산AD 일대에 대하여 1차 모니터링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용동 무문토기산포지(현 차용동 삼국시대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으며 2012년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2차 모니터링조사에서 해당 유적의 일부가 자연유실되어 유구 및 유물이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2013년 창원시의 조사의뢰에 따라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유구 및 유물이 노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수습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1동, 수혈 2기, 구 2기, 시대미상의 분묘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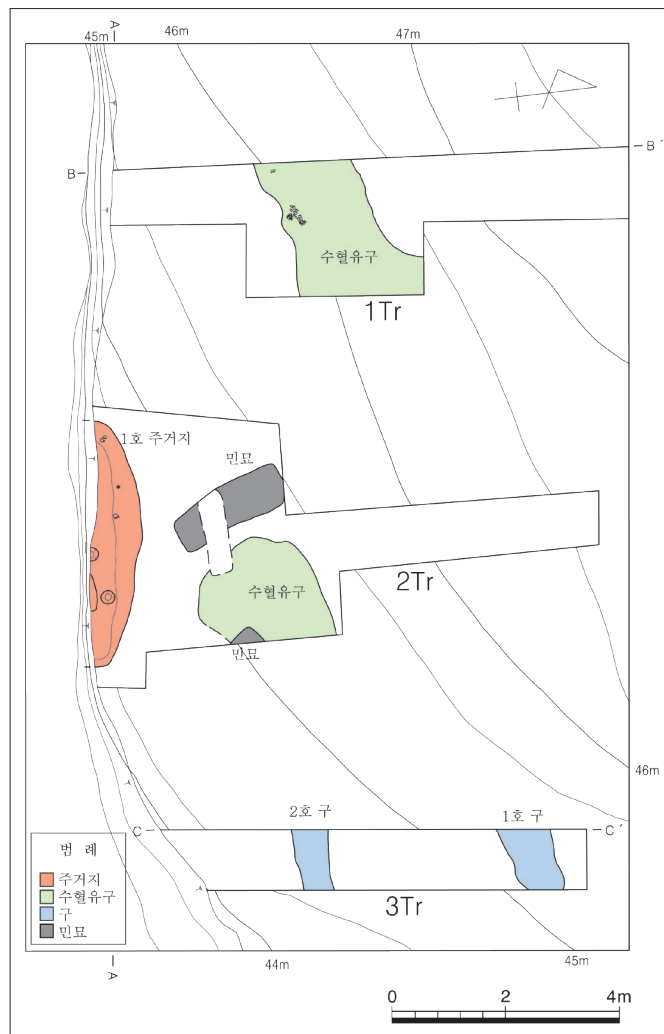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내동천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팔용산(해발 328m)의 동쪽 구릉에 해당한다. 팔용산은 창원분지의 서쪽 산지를 형성하는 산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와 의창구의 경계에 있다. 서남쪽으로 마산수출자유지역과 서북쪽으로 남해고속도로와 인접하

유적 위치도

고 있다. 조사 당시 유적은 미군 사격장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지대로 소나무를 비롯한 다수의 수록이 산재하고 유적의 남쪽은 임로에 의해 절취되었다.

수혈주거지는 대부분 유실되어 북장벽 일부만 잔존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잔존 규모는 길이 400㎝, 너비 80㎝, 깊이 40㎝이다. 내부시설은 주혈이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연질옹, 연질호, 기대, 불명철기 등이 출토되었다. 유물을 통해 볼 때, 수혈주거지는 4세기 말~5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며 Tr. 상에서 확인된 수혈 또한 출토된 토기를 보아 삼국시대의 것으로 판단된다.

긴습 수습발굴조사를 통해 이 일대에 삼국시대 생활유구가 유존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사격장 부지조성으로 인해 수혈주거지의 대부분이 유실되어 구조적 특징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인근의 창원 외동·가음정·반계동유적, 창원 반계동죽전고분군과 함께 창원지역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기초자료가 확보되었으며, 추가적인 유적의 훼손을 막은 점에서 조사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영남문화재연구원, 2015, 『주한미군기지 마산AD 내 昌原 車龍洞 山11-2遺蹟』.

유구 배치도

유적 근경

1호 수혈주거지

28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720-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해동문화재연구원 / 2010.8.~20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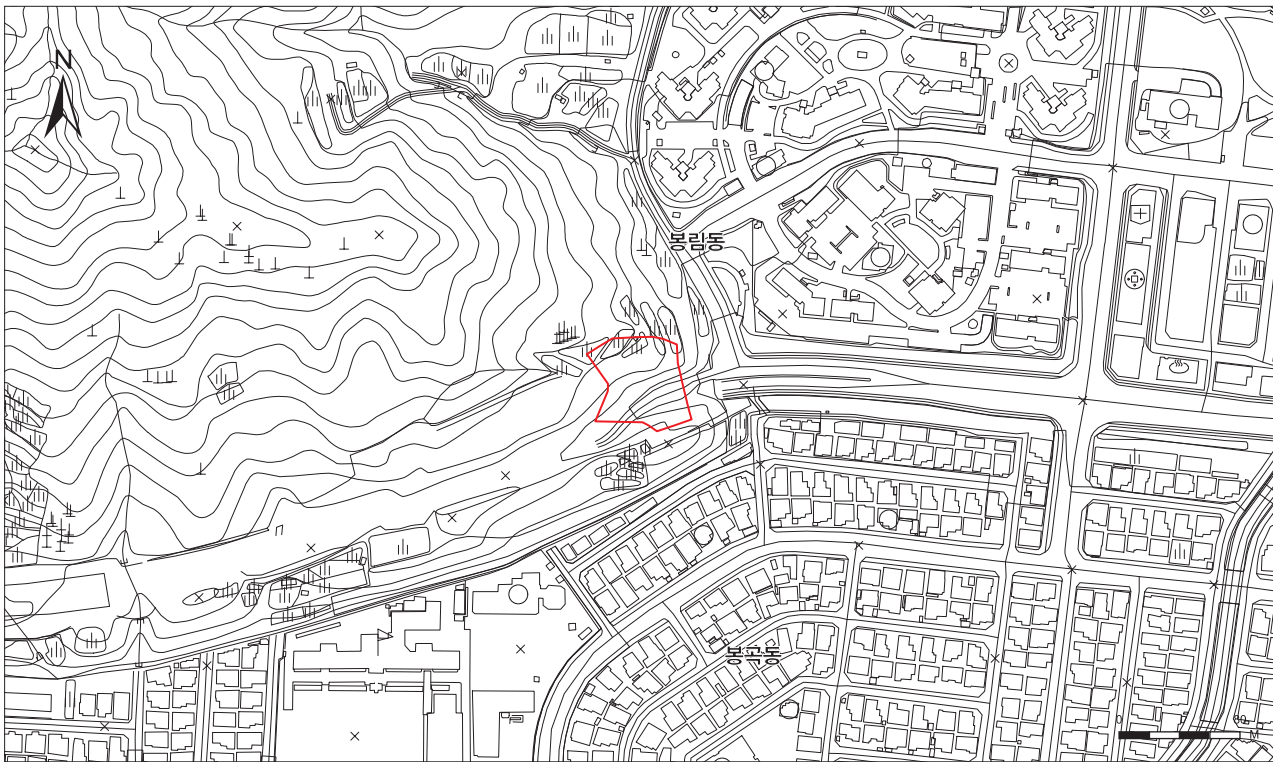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 외절구연 고배

창원 봉림동 생활유적 _ 창원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구간 내 유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720-2번지 일대에 소재한 청동기·삼국시대 생활유적으로 창원시에서 시행한 창원 북부순환도로(도계~봉림)개설공사구간에 해당된다. 동서문물연구원에서 2006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동문화재연구원에서 2010년 6~7월에 시굴조사 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5동, 수혈 3기, 구 5기,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3동, 시대미상 수혈 2기, 주혈 24기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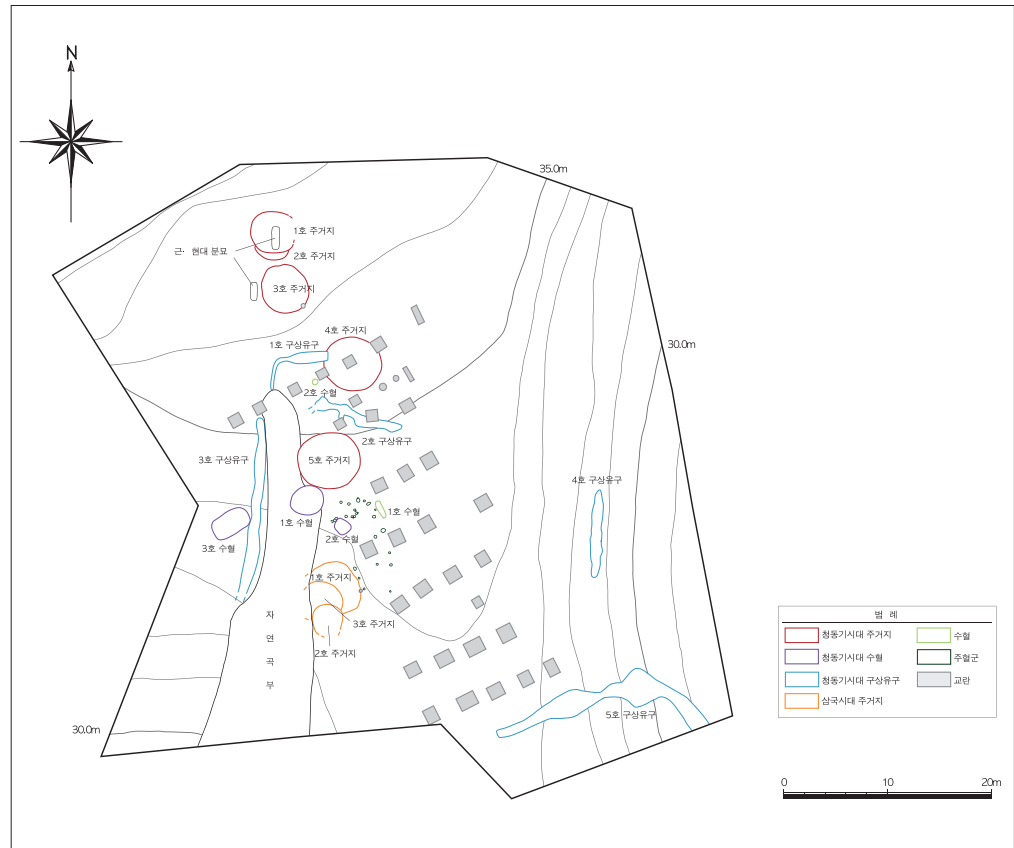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북쪽에 위치한 해발 127.3m의 구릉성 산지에서 뻗어 내린 구릉의 가지상 능선과 그 사면부에 위치하고 있다.

수혈주거지는 3기가 중복 설치되었다. 잔존하는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장축길이 314~550㎝ 정도이다. 내부시설은 1호 주거지에서 주혈, 3호 주거지에서 노지가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의 통해 볼 때 수혈주거지의 조성시기는 4세기대로 추정된다.

본 유적에서는 삼국시대 수혈주거지가 소수만 조사되었지만, 인접한 창원 봉림동유

유적 위치도

참고문헌

해동문화재연구원, 2012, 『창원 북부순환도로(도계~봉림) 개설공사구간 내 창원 봉림동 생활유적』.

적에서 4~6세기대의 생활·산업생산유적이 조사되어 봉림동 일대의 당시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다.

유구 배치도

1·2·3호 수혈주거지 조사 중 모습

1·2·3호 수혈주거지 조사 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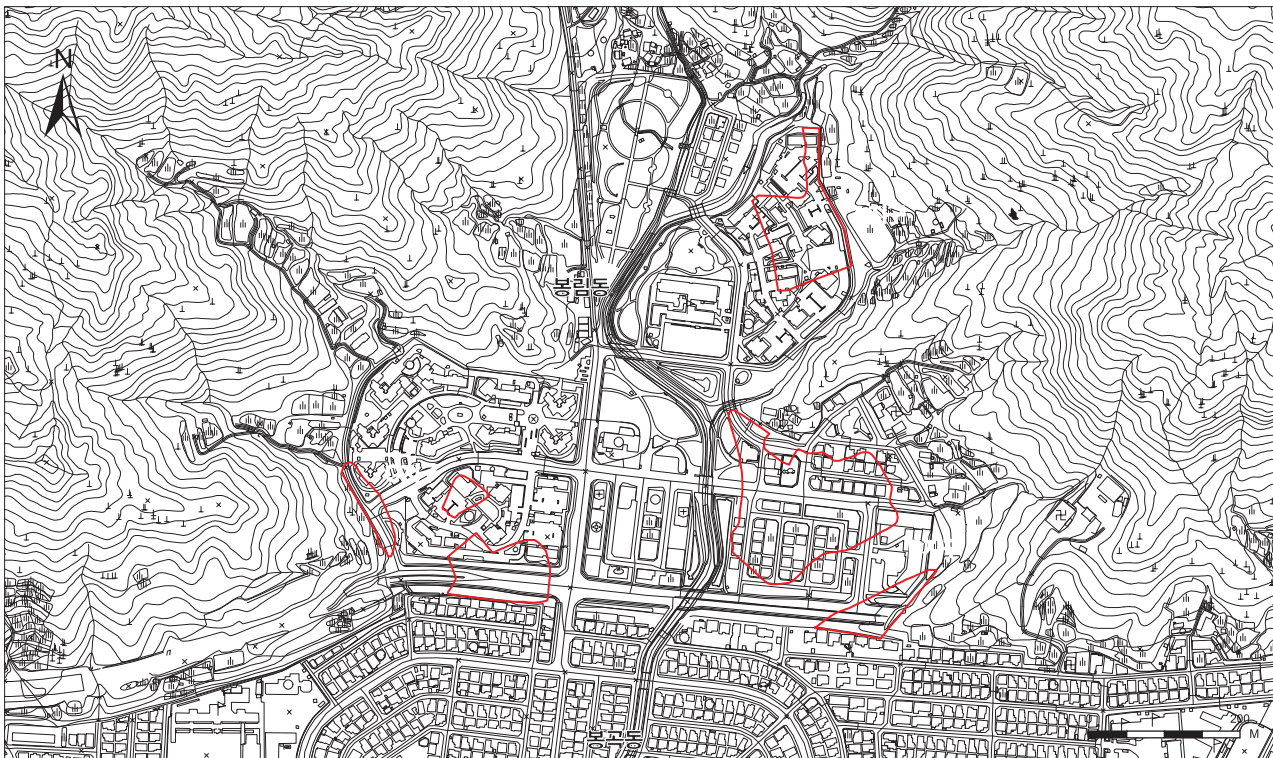
29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211-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국문물연구원 /
시굴 2008.1.~2008.5.
발굴 2008.8.~2010.6.

주요 유구 / 유물
제련로, 고상건물지, 수혈주거지, 수혈 / 개, 고배, 완, 파배, 광구소호, 단경호, 옹, 파수부옹, 통형기대, 기마형토우

창원 봉림동유적 _ 창원 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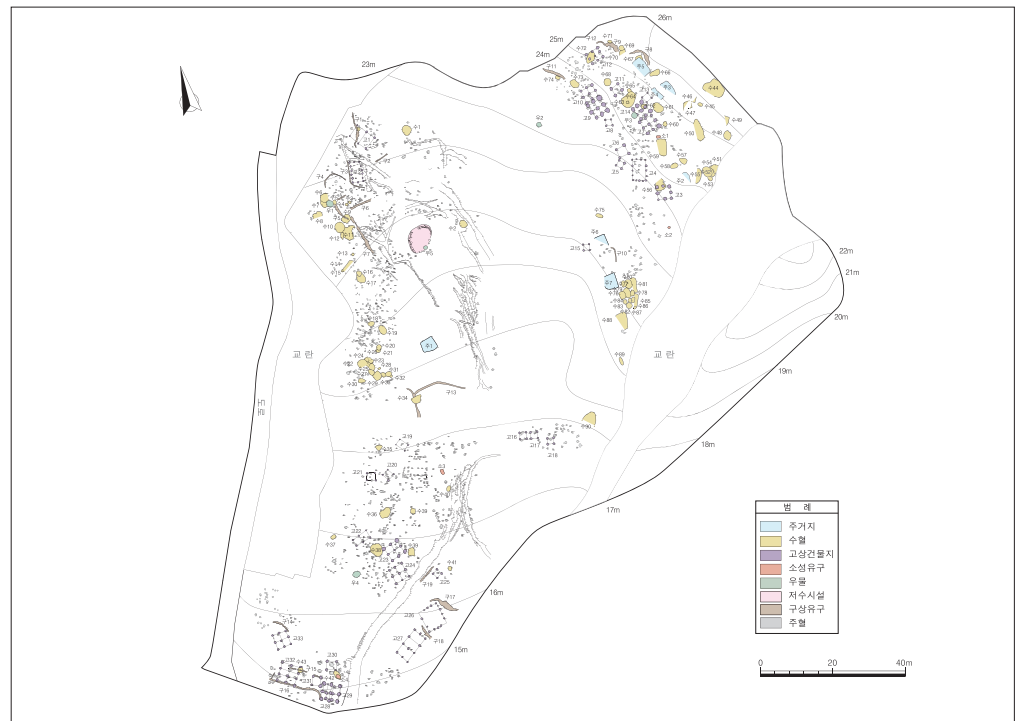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에 소재한 청동기·삼국·고려·조선시대 생활·산업생산·무덤유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부지에 해당된다. 지표조사는 2005년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였으며 한국문물연구원에서 2008년 1~5월까지 시굴조사, 2008년 8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이 광범위하고 곳에 따라 지형 차이가 있어 구릉 사면부 및 이와 접하는 평탄면을 3개 지구(A~C지구)로, 충적지를 1개 지구(D지구) 구분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전자를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A지구에는 전시기의 유구가 다양하게 조성된 것에 비해 B·C지구에는 삼국시대 유구가 집중분포하는 양상이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묘역식지석묘 3기, 석곽묘 1기, 수혈주거지 2동, 수혈 5기, 삼국시대 제련로 1기, 수혈주거지 9동, 고상건물지 40동, 수혈 215기, 소성유구 10기, 구 28기, 저수시설 1기, 우물 5기, 석곽묘 1기, 주혈군 3개소, 고려시대 수혈 14기,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유적 위치도

7동, 수혈 1기, 구 1기, 시대미상 소성유구 4기, 구 3기, 주혈군 2개소 등 다종다양한 유구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지형상 서·북·동 3면이 산지로 둘러싸이고 남쪽은 하천이 흐르는 소분지의 완만한 구릉 사면과 평탄면에 입지한다. 창원분지 내에서는 중앙에서 북쪽으로 치우친 부분이며 주변지역과의 이동성을 살펴보면, 남쪽으로 남해안과 연하고 서쪽으로 함안, 동쪽으로 김해지역과 접한 경계지점에 해당된다.

제련로는 원형의 노에 타원형의 배재부가 딸린 형태로서 김해 하계리유적의 제련로와 함께 4세기 중후반에 조성된 제련로의 형태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자료이며 작업장으로서 수혈을 공반하고 있다. 내부에서 소량의 단조박편이 수습된 소성유구가 조사되어 단야로로 추정되며 단조작업까지 진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집단이 봉림동 일대에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상건물지는 수혈과 인접하게 축조되어 있으며 중앙에 공지를 두고 환상배치된 것과 열상배치된 것이 별도의 군집을 이루고 있다. 평면형태는 1×1칸, 2×1칸, 2×2칸, 3×2칸, 5×2칸 구조의 방형, 장방형으로 축조되었다. 규모는 1×1칸과 2×1칸은 장축 길이 300㎝ 이하에 집중되고, 2×2칸은 장축 길이 300~450㎝ 이하, 3×2칸과 5×2칸이 장축 길이 450~800㎝에 분포하여 구조와 규모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수혈주거지는 등고선과 평행하게 설치되었고 대체로 남서쪽을 향한다.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이며 규모는 장축 길이 378~637㎝정도이다. 내부시설은 주혈, 벽구, 부뚜

B2지구 유구 배치도

막, 고래 등이 조사되었다. 주혈은 정형성이 없어 상부구조를 추정하기 어려우며 벽구는 'ㄱ'자형, 'ㅡ'자형으로 설치되었다. 고래는 석재로 축조하였으며 바닥은 편평하게 굴착하여 사용하였으나 별도의 정지층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혈은 2~4차 중복이 확인되며 평면형태와 축조빈도는 부정형>타원형>방형이다. 규모는 장축 길이가 50~650㎝ 정도로 다양하나 200㎝ 전후에 집중된다. 내부시설은 수혈, 주혈, 노지 등이며 바닥은 편평하게 처리한 것이 다수이지만 요철면으로 형성된 것도 확인된다. 수혈의 성격은 공방지, 제의시설, 토취장, 폐기장, 저수시설, 제철공정과 관련된 수혈, 소성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추정된다.

봉림동유적에서는 개, 고배, 완, 파배, 광구소호, 단경호, 옹, 파수부옹, 통형기대, 기마형 토우, 통형기대 등이 출토되었으며 유물의 편년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조성시기는 4세기 후반~6세기대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의 편년과 유구의 중복관계 및 배치를 통해 볼 때, 유적의 변화상은 3단계로 구분되는데 Ⅰ기는 제련로와 수혈 및 규모가 작은 고상건물이 소수 조성되어 제철작업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Ⅱ기에는 제철작업과 관련된 수혈 및 고상건물이 군집을 이루어 조성되는 등 확산되었다. Ⅲ기에는 유적의 동쪽 B2지구에 주로 분포하며 주거의 기능이 강해지는 완전한 주거지역으로 변모하게 된다.

봉림동유적의 발굴조사 결과, 조사지역 일대는 약간의 간기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인간 생활이 영위되어 온 지역임이 밝혀졌다. 특히 주변 구릉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봉림천~마산만으로 이어지는 수상교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삼국시대에는 100년 이상 철생산의 요지로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창원지역에서 조사된 대단위 유적과 더불어 이 일대의 생활상이 보고되어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한국문물연구원, 2011, 『창원 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부지내 창원 봉림동유적(Ⅰ)』.

한국문물연구원, 2012, 『창원 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부지내 창원 봉림동유적(Ⅱ)』.

B2지구 저수시설

C1지구 제철유구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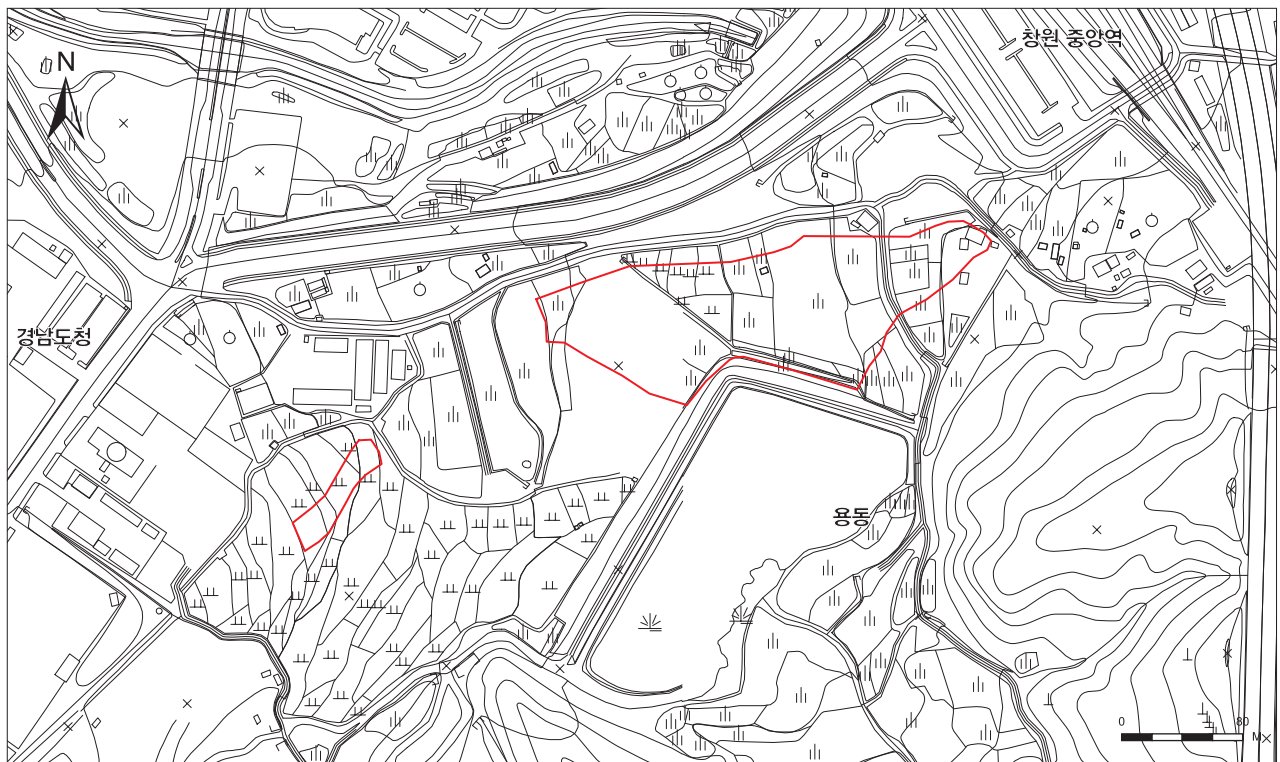
창원 용동 46번지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 4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문화재연구원 / 2015.4.~2016.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고상건물지, 수혈 / 장동옹, 자비기, 시루, 개, 고배, 배, 발형기대, 통형기대, 이형토제품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 46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생활유적 및 조선시대 무덤유적이다.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창원 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부지에 해당된다. 경남대학교박물관에서 2008년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문화재연구원에서 표본·시굴조사(2015년)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13동, 고상건물지 22동, 수혈 95기, 주혈 327개, 옹관묘 1기, 호안석축 1기, 조선시대 분묘 3기, 수혈 1기, 시대미상 수혈 2기, 주혈 8개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의창구 용동은 창원시의 북쪽에 위치한다. 북쪽의 구룡산과 동쪽의 정병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산을 경계로 창원시 동읍과 김해시 진영읍이 인접해 있으며, 남쪽으로 진해만이 위치한다. 조사지역은 정병산의 지맥인 비음산(해발 548.8m)에서 남쪽의 경남도청·창원대학교 방향으로 뻗어 내린 산록완사면과 배후산지에서 흘러 내린 퇴적물에 의해 남-서 방향으로 선상지가 형성된 곳이다. 지형은 전체적으로 남서

유적 위치도

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조사전 계단식 경작지와 용동저수지 등을 조성하면서 원지형이 훼손된 상태였다. 조사구역은 A~C지구의 3개로 구분되는데, 삼국시대 유구는 A·B지구에 분포하고 있다.

삼국시대 수혈주거지는 A지구에서만 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방형·장방형으로 변화하며 면적은 대형에서 소형으로 변화양상이 확인된다. 규모는 길이 352~723㎝, 너비 190~489㎝ 정도로서 내부시설은 부뚜막, 벽체, 수혈, 벽구, 주혈 등이 조사되었다. 고상건물지는 A·B지구에 모두 분포한다. 구조는 다양하나 2×2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구조상 1×1칸, 2×2칸은 고상건물지로, 1×1칸, 2×1칸, 2×2칸, 3×2칸, 4×2칸은 고상·지상건물지로 분류된다. 유구 간 중복관계를 볼 때 고상건물지가 지상건물지 및 수혈주거지보다 선행됨을 알 수 있다. 수혈주거지와 고상건물지에서는 화재에 의한 폐기양상이 조사되었다.

수혈은 대부분 A지구에 분포하는데 평면형태는 원형계, 방형계, 부정형 등이며 2~4기가 중복 조성된 것도 다수 확인된다. 규모는 길이 92~590㎝, 너비 45~340㎝ 정도로 다양하다. 내부에는 내부수혈, 주혈, 점토시설, 외부구 등을 설치하였다. 수혈은 수혈주거지와 고상건물지 주변에 다수 조성되어 이들과 관련된 생산시설, 소성시설, 폐기장, 제사시설, 토취장 등의 성격을 띤다.

조사 결과, 유적은 Ⅰ~Ⅲ단계로 변화양상이 확인된다. Ⅰ단계에는 마을의 남서쪽에 창고와 생산시설이 조성되는 시기이다. 열상배치된 고상건물지와 수혈이 함께 조성되었

유적 전경

는데 목주의 AMS 측정결과를 참고할 때, 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Ⅱ단계는 마을이 확장되는 시기로 기능에 따른 공간분할이 이루어졌다. 수혈주거지 및 지상건물지가 조성되며 유구는 환상배치를 이룬다. Ⅰ단계에 비해 유구의 밀집도가 조밀하고 넓은 면적에 분포하며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조성되었다. 출토유물은 대가야계가 주류를 이루고 금관가야계와 혼합양식 토기가 공반되는데 5세기 중반~6세기 전반에 해당된다. Ⅲ단계는 전단계의 마을과 연속선 상에서 초소형 수혈주거지가 조성된다. 출토유물은 대가야계 유물이 다수를 차지하며 6세기 중엽이후로 편년된다. Ⅱ·Ⅲ단계는 인접한 사림동 유적Ⅰ에서 조사된 진례산성 방향으로 향하는 삼국시대 도로와 관련된 마을로 추정된다.

본 유적의 조사를 통해, 조사지역의 삼국시대 마을은 5세기 전반~6세기 중반 이후까지 지속되었고, 단계에 따라 마을의 규모와 구조가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병산과 불모산 주변의 김해 서부와 창원 동부에 제철·토기제작 등의 생산 및 교역과 관련된 마을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은 주변지역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고대 창원의 마을구조와 교역·생산 등의 사회상을 복원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경상문화재연구원, 2018, 『창원 용동 46번지 유적-창원 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B지구 4호 고상건물지

A지구 28호 수혈

토기류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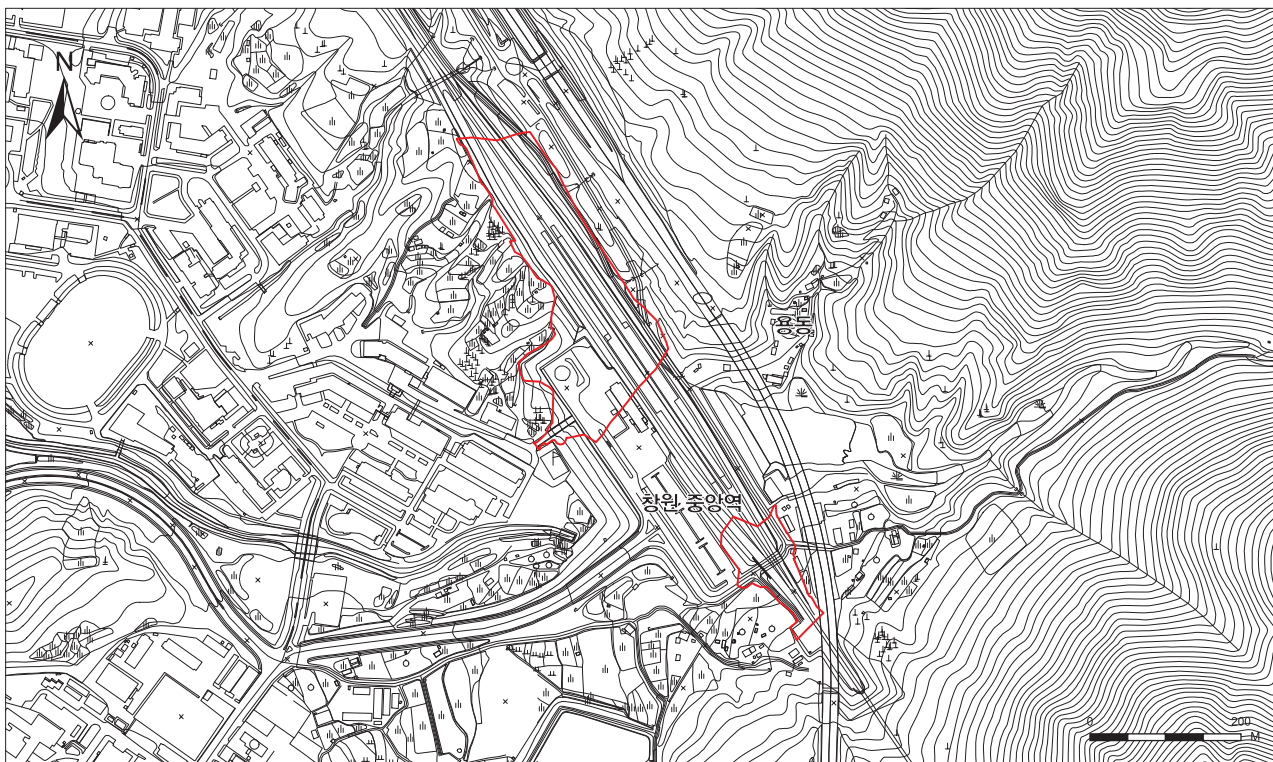
창원 사림동유적 _ 경전선 제3공구 구간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4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6.3.~2007.8.

주요 유구 / 유물
도로, 구, 수혈주거지 / 경질토기 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48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생활·교통통신유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경전선 삼랑진~진주 제3공구(진영~창원간)에 해당된다. 2003년과 2005년에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와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각각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발굴조사 모두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집석유구 3기, 삼국시대 도로 1기, 구 13기, 수혈 10기, 수혈주거지 1동, 고려시대 목탄요 2기, 조선시대 민묘 2기, 수로 1기, 수혈주거지 1동이 조사되었다. 발굴조사는 지형상 Ⅰ·Ⅱ지구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는데 삼국시대 유구는 Ⅱ지구에 분포한다.

조사지역은 창원대학교 배후 정병산(해발 566.7m)의 산록경사면에 입지한다. 조사지역은 정병산의 경사도가 크게 꺾어 완사면을 이룬 경사변환대의 아래쪽으로서 완만한 경사도를 가지며, 그 방향은 남서향을 향해 있어 동절기의 혹한을 이기고, 혹서기의 해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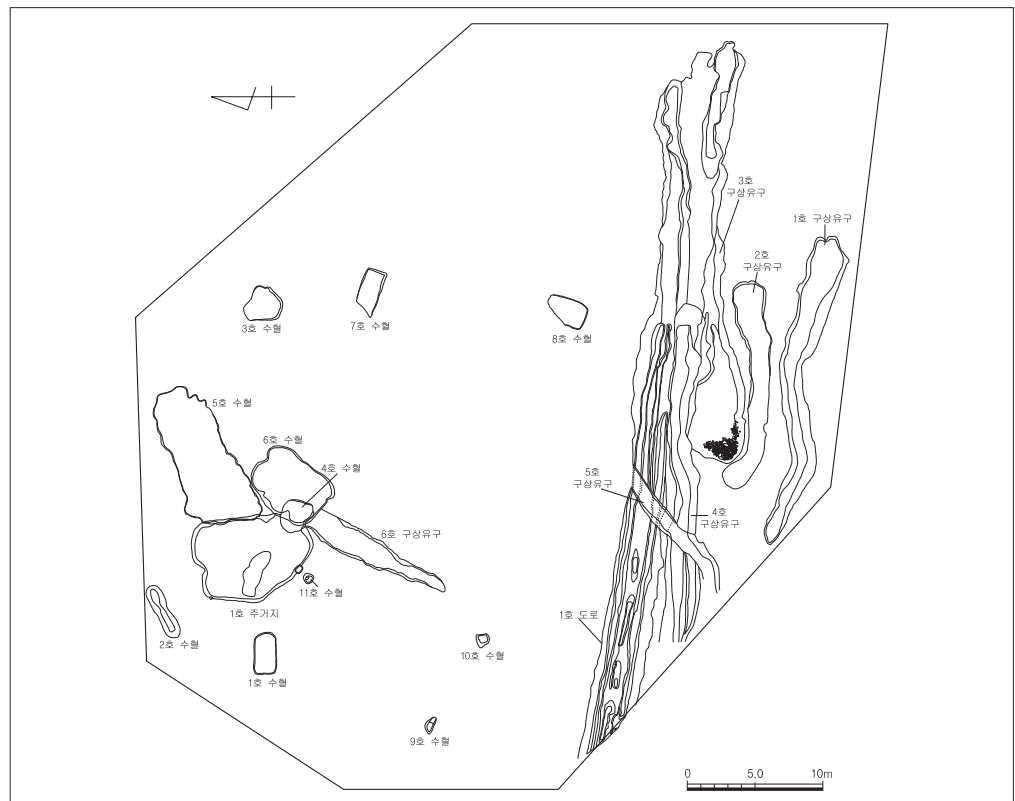
양풍을 맞기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조사당시 유적은 과수원과 밭으로 개간되어 있고 그 배후는 임야로 남아 있었다.

도로는 정병산과 비음산이 만나는 계곡부에 위치하며 비음산의 북사면에 조성되어 있다. 도로는 급경사에서 완경사로 펼쳐지는 경사변환대의 아래부분, 완경사에 축조되었다. 도로의 구조는 구지표면을 굴착 후, 굴착면의 양 끝에 구를 조성한 지하식이며, 이러한 구조는 배수의 기능도 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 내부에서 삼국~통일신라시대에 이르는 토기 편이 군데군데 출토되었다. 도로의 진행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진례산성이 위치한 비음산의 정상부로 향하고 있어 김해 여래리유적에서 조사된 도로와 함께 진례산성으로 가는 도로로 추정된다.

구는 대부분 도로의 진행방향과 같은 동-서향으로 축조되었다. 구의 용도는 내부토와 진행방향을 고려할 때 수로 또는 물을 가두어 놓은 시설로 추정되며 내부에는 집석을 시설한 것도 확인된다. 유물은 고배 배신부 편, 대각 편, 도질의 호 편 등이 소량 출토되었다.

수혈주거지는 도로의 북쪽에서 1동만 조사되었는데 구·수혈과 중복양상이 확인된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 규모는 길이 300㎝, 너비 45㎝이고 내부시설은 부뚜막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부뚜막 내 지각 상부에서 와질소성의 평저호와 내부 매몰토에서 도질토기 편이 출토되어 삼국시대 수혈주거지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경전선 제3공구(진영~창원간) 내 유적 발굴조사 창원 사림동 유적』.

II지구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Ⅱ-1호 도로

Ⅱ-1호 수혈주거지

32 창원 용호동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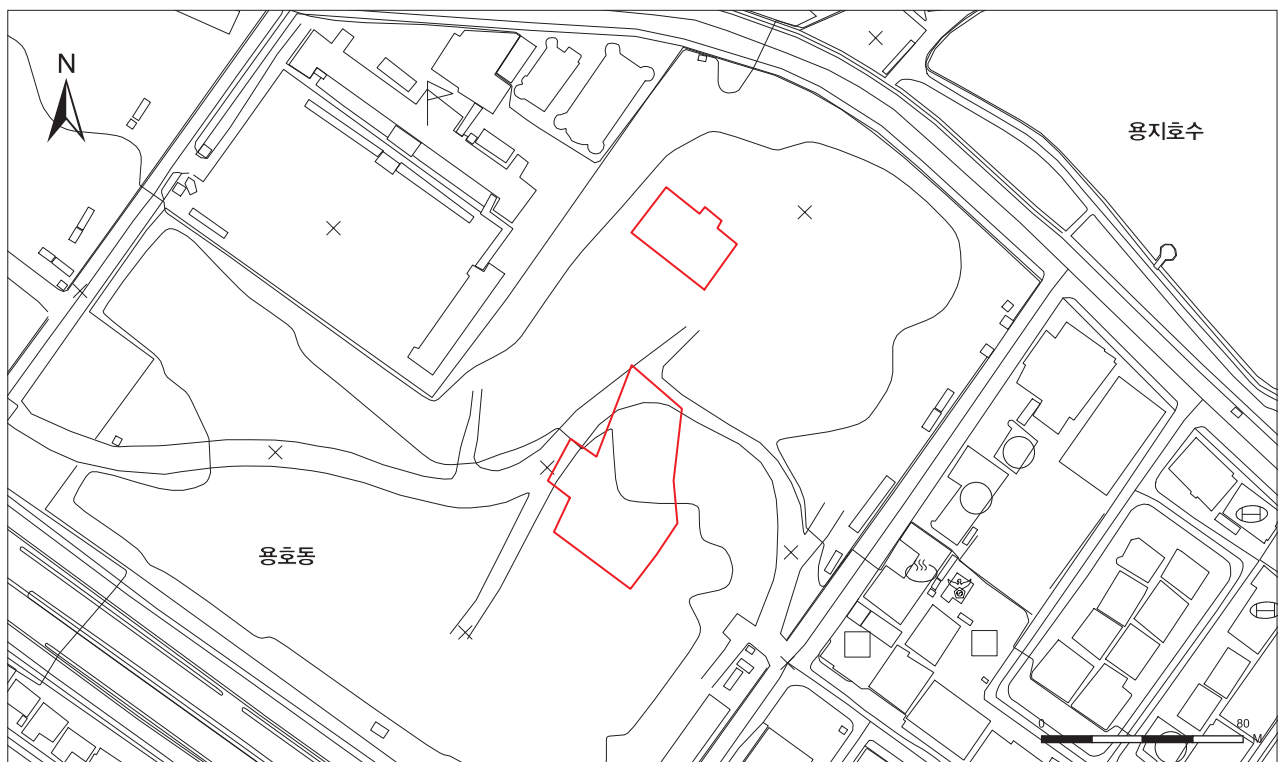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두류문화재연구원 / 2015.1.~20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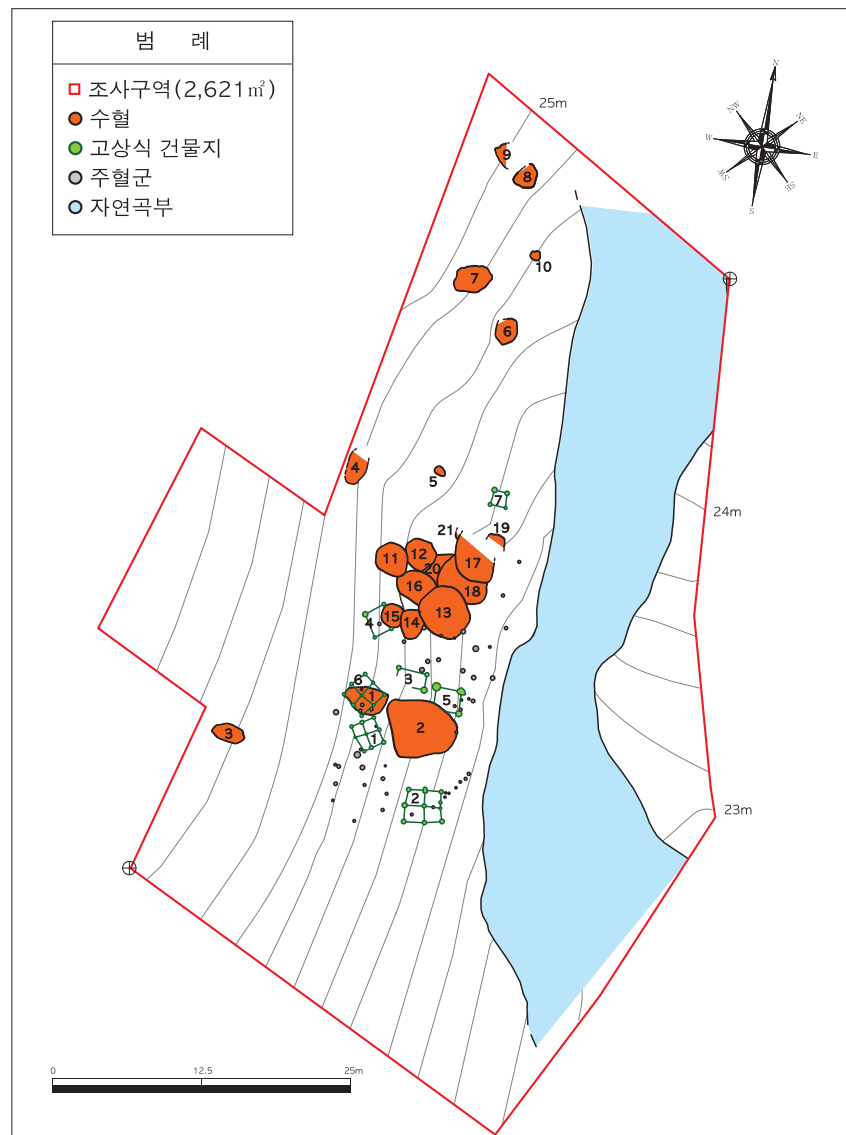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고상건물지, 수혈 / 개, 고배, 단경호, 통형기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2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국·조선시대 생활유적으로 용호 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 조성부지에 해당된다. 두류문화재연구원에서 2013년 4월 지표조사, 2014년 11월에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를 실시 후 발굴조사까지 전담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고상건물지 7동, 삼국 및 조선시대 수혈 25기, 주혈 125기, 조선시대 노지 3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용호동은 지형적으로 천주산-정병산-장복산으로 둘러싸인 창원분지의 중앙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곳이다. 조사지역은 용지호수 서쪽에 자리하는 해발 56.6m의 구릉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리는 야트막한 구릉 남쪽 사면말단부에 해당한다. 조사 당시 과거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원지형이 훼손된 상태였으나 일부 녹지공간 및 아파트 진입로,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곳에서는 유구가 확인되었다.

고상건물지는 대부분 자연곡부와 인접하게 조성되었다. 구조는 1×1칸, 2×2칸으로

유적 위치도

구분되며, 구조별 면적은 1×1칸은 1.7~4㎡ 이내, 2×2칸은 4.4~8.1㎡로 한정된다. 1~3·5·6호 고상건물지는 2호 수혈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원형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 양자 간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고상건물지는 입지상 망루나 신전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주거용으로는 규모가 작아 다른 쓰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혈은 자연곡부 서쪽에서만 확인되며 대부분 고상건물지와 인접하게 배치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 방형, 부정형 등 다양하나 타원형이 약간 우세하며 규모는 1~5m 내외, 깊이는 0.1~0.7m 정도이다. 수혈은 여러 차례에 걸쳐 중복 조성된 양상이 확인되는데 이는 자연곡부로부터 식·용수 등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한정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Ⅰ구역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고상건물지와 수혈은 상호 중복조성되지 않았으며 내부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큰 시기차이 없이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규모와 구조 등을 볼 때, 일반적인 주거공간 및 생활용도의 구조물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기 주변유적의 입지를 참고하며 조사지역과 인접한 자연곡부를 중심으로 한 저지대에 수전 등의 생산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생산유적를 고려할 때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고상건물지와 수혈은 생산물에 대한 저장 및 재가공을 목적으로 설치하였던 곳으로 추정되며 실제 주거 공간은 조사지역의 북서쪽 상단인 저산성 구릉의 정상이나 사면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사지역 동쪽의 자연곡부 내부에서 200점 이상의 다양한 토기 편이 출토되었다. 확인된 토기는 대부분 파손품이며, 기종은 개, 고배, 단경호, 시루, 발 등의 부장용 토기와 생활용 토기가 주를 이룬다. 본 유적과 같이 수변에 입지하는 김해 봉황동, 창원 토월동, 부산 고촌유적의 경우 수변에서의 제의가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유적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용호동유적에서도 소량이지만 제의와 관련된 위세품인 통형기대 한 개체와 고배 수십 점이 파손된 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자연곡부 주변에서 제의행위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용호동유적의 중심 시기는 5세기 초반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용호동유적은 기존 문화유적지분포 지도상에 알려지지 않은 유적으로 1980년대 초반 창원 도시계획으로 대부분 구지표면 및 원지형이 훼손되어 유적이 잔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곳에 해당한다. 본 발굴조사를 통해 창원분지 내 현재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아래에서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문화유적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조사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두류문화재연구원, 2017, 『창원 용호동 유적-창원 용호 5구역 재건축 사업부지 내 유적-』.

33 창원 신방리 405-1·421번지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 405-1·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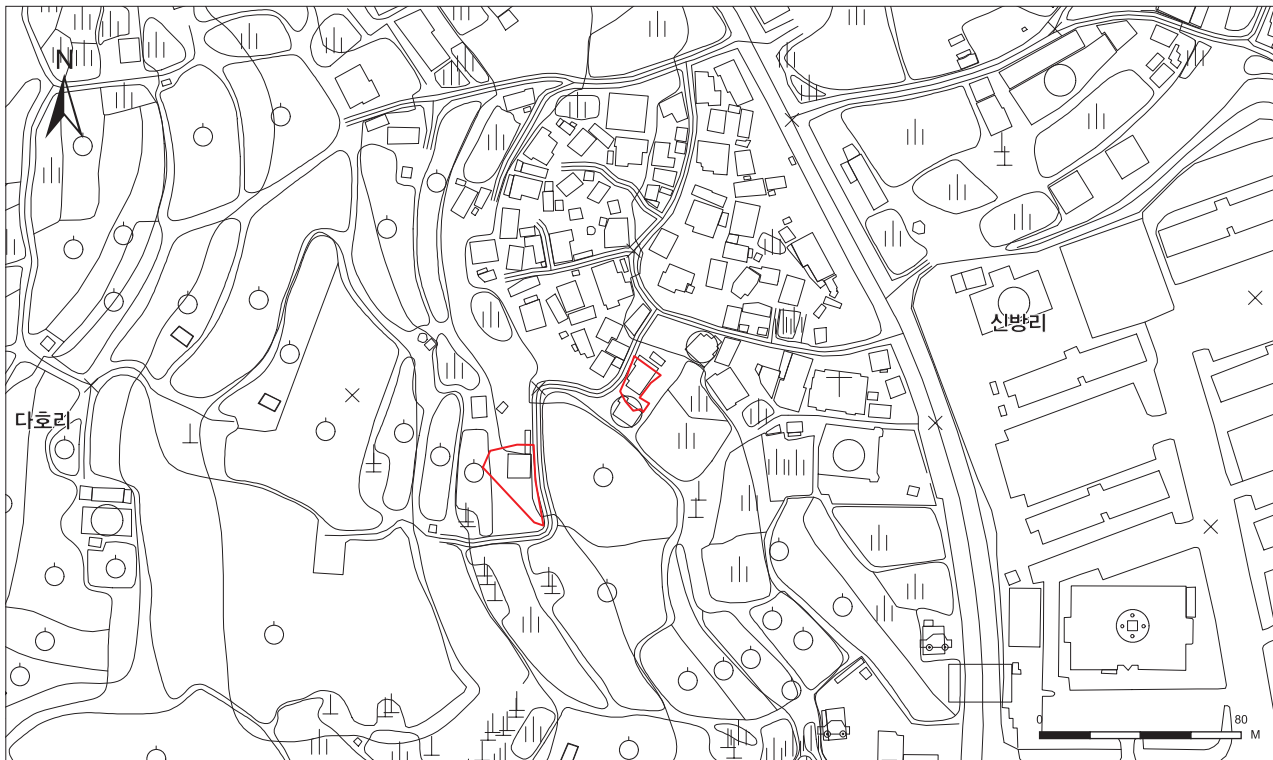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국문화재재단 /
1차 2010.9.
2차 2012.11.~2013.10.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수혈, 구, 주혈, 혼토패각층, 소토층 / 고배, 통형기대, 소형기대, 광구소호, 단경호, 시루, 주조철부

창원 동읍 신방리 405-1·421번지의 삼국시대 생활유적은 단독주택 신축부지로 국비지원 대상으로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혼토패각층, 소토층 및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6동, 수혈 6기, 소성유구 1기, 구 1기, 주혈군이 각각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동읍은 창원시 북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김해시 진영읍, 북쪽으로는 낙동강을 경계로 창녕군, 남쪽으로는 명곡·의창동, 서쪽으로는 북면과 접하고 있으며, 주남·동판저수지 등 자연습지가 발달해 있다.

405-1번지 유적은 구룡산(해발 432.1m)과 정병산(해발 566.5m) 사이로 중앙천 하류역의 남쪽에 해당된다. 구릉 사면부에 위치하고 있어 남쪽에서 북쪽으로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층위는 4개 층으로 대별되는데 표토층-혼토패각층-소토층-저습지층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퇴적양상은 구릉 사면부의 남쪽에서 북쪽 저지대로 이동하는 양상을

유적 위치도

보인다. 혼토패각층의 잔존범위는 남-북 10.8m, 동-서 5.2m, 최대 두께 1m로 7개 층으로 세분된다. 소토층의 잔존범위는 남-북 10m, 동-서 4.5m, 최대 두께 0.65m 정도이다. 저습지층은 최대 두께 0.7m 정도로 잦은 범람으로 인해 일정 기간 침수된 상태에서 습지화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혼토패각층과 소토층의 형성은 구릉 정상부에서 거주했던 당시 생활인들의 생활용품이나 쓰레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경사면을 따라 구릉 아래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옹, 발, 시루, 개, 고배, 파배, 광구소호, 통형기대, 일본의 하지키계 토기 등 토기류가 대부분이며 녹각병, 소, 돼지, 강치, 사슴, 꿩 등의 수골도 출토되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 복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유적의 편년은 층위별로 큰 시기차를 보이지 않으며 인접한 신방리 저습유적의 삼국시대Ⅱ기와 병행하는 4세기 2/4분기~5세기 2/4분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421번지 유적은 구룡산의 북동쪽 사면에 해당하는데 칠성그린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주택, 서쪽으로는 과수원, 동쪽으로는 소로가 접하고 있다. 특히 사면 말단부는 소로 조성 시 삭토되어 단애면을 이룬다.

수혈주거지는 3·4층에서만 조사되었는데 등고선과 나란하게 배치되었으며 유구 간 중복양상은 없다.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길이 450~680㎝, 잔존너비 315~428㎝이다. 내부시설은 노지, 수혈, 주혈 등이며 일부 주거지에서 벽체 함몰토가 확인된다. 노지는 중앙부 가까이에 설치되었으며 수혈과 주혈은 정형성 없이 설치되었다.

421번지 유적 1차조사 유구 배치도

수혈은 3~5층에서 조사되었는데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 부정형이며 규모는 길이 99~126㎝, 너비 44~96㎝ 정도이다. 내부에 단경호가 정치된 것으로 보아 용도는 저장시설 등으로 추정된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조성시기는 4세기 2/4분기~5세기 2/4분기에 해당되어 창원 동중학교부지(창원 신방리저습유적)의 삼국시대 Ⅱ단계와 병행하며 각 문화층간의 시기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방리 421번지 유적은 신방리 일대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생활유적과 동일한 취락범위에 형성된 유적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한국문화재재단, 2015, 「창원 신방리 405-1번지 유적」,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Ⅱ-경남-』.

한국문화재재단, 2015, 「창원 신방리421번지 유적」,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Ⅱ-경남-』.

421번지 유적 원경

421번지 유적 근경

421번지 2호 수혈주거지

34

창원 신방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 627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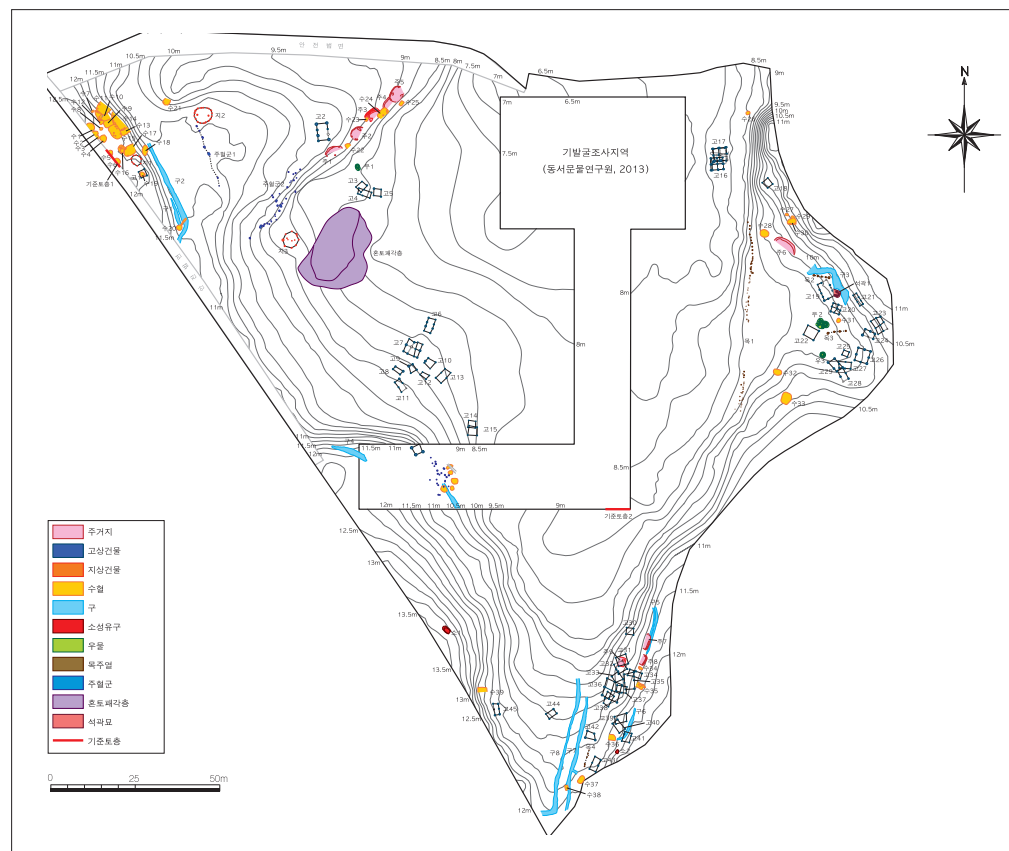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12.11.~2013.10.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14.5.~2015.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고상건물지, 지상건물지, 수혈, 우물, 목주열 / 두형토기, 고배, 개, 발형기대, 통형기대, 소옹, 부뚜막형토기, 광구소호, 양이부단경호, 수골, 패각류 등 자연유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 627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국~통일신라시대 생활유적으로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창원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에 해당된다. 2004년 창원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10~12월까지 동서문물연구원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국~통일신라시대에 해당하는 수혈주거지, 수혈, 목주열, 우물 등의 유구와 고배, 기대, 인면토우, 목제활 등의 유물이 조사되었다. 그런데, 본 유적은 인접한 창원 동중학교부지(창원 신방리 저습유적)와 인접한 곳으로 중요성이 있고 사적 제327호로 지정된 다호리유적과 주남 철새도래지와 인접한 곳으로 보호를 위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제시되어 시굴조사 이후에는 유적을 복토 후 현상 그대로 보존하였다. 이후 재심의를 거쳐 중요부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문화재 지정 및 보존유적 해제여부를 결정토록 함에 따라 동서문물연구원에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부분적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조사는 3개 구

유적 위치도

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Ⅰ구역에서는 유구가 조사되지 않았으나 삼국시대 경질토기 편와 목기류 등이 수습되었고, Ⅲ구역에서는 고상건물지 1동, 수혈 5기, 구 1기, 주혈군 등이 조사되었다. Ⅱ구역에서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보존유적 존치여부 파악을 위해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2014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잔여 사업구간에 대한 발굴조사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발굴조사 중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분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동쪽 구릉 말단부 일부 구간에 유구가 유존하는 것이 확인되어 추가 발굴조사가 병행되었다. 조사종료 후에는 보존조치 해제 및 유구의 원형이 잘 남아있는 하층부에 대한 유적 보존방법 강구 후 사업이 진행되었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 결과에서는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9동, 고상건물지 45동, 지상건물지 3동, 수혈 39기, 구 8기, 소성유구 2기, 우물 3기, 목주열 4기, 주혈군 2개소, 혼토패각 1개소, 석곽묘 1기,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 2동, 유물 2기, 배수로 2기, 수혈 2기, 구 1기, 석군 1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창원시 북쪽에 위치한 구룡산에서 북동쪽 동판저수지로 뻗어 내린 구릉의 말단부에 해당하며 현 지형에서 보면 낙동강 하류의 남족 구릉에 연한 곡저평야에 위치한다. 조사 당시 조사지역 대부분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북서쪽 일부 구간은 현지표에서 3~4m 복토하여 조성수를 심어 놓은 상태였다. 선행된 동서문물연구원의 발

유구 배치도

굴조사구간이 사업대상지역의 중앙부인 저습지 구간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는 기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동서편의 양쪽 구릉 사면부와 남쪽의 저습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는 조사대상지 전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었으나 통일신라시대 유구는 남서쪽 일부에서만 확인되어 시대별 공간활용에 차이를 보인다.

유적의 토층양상은 구릉부의 경우 기반층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고 유구가 설치되었으나 저습지인 곡부에는 대략적으로 저습지층-삼국시대 문화층-저습지층-통일신라시대 문화층-자연퇴적층-현대 경작층의 토층양상이 확인된다.

수혈주거지는 구릉 말단부에 등고선과 나란하게 설치되었으며 열상배치가 확인된다. 대부분 경사면 하단이 유실된 상태이지만 평면형태는 원형계와 방형계로 구분되는데 방형계의 축조빈도가 높다. 규모는 길이 304~700㎝, 잔존너비 100~554㎝이며 내부시설은 부뚜막, 고래, 벽구, 수혈, 주혈 등이 조사되었다.

고상건물지는 5개 군이 저습지를 둘러싸듯이 분산 배치되었다. 평면형태와 구조는 1×1칸, 1×2칸, 1×3칸, 1×4칸, 2×2칸, 2×3칸, 2×4칸의 방형 및 장방형으로 다양하다. 구조는 1×1칸, 1×2칸, 면적은 20㎡이하의 소형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대형건물지는 조사되지 않았다. 지상건물지는 주거역과 인접한 구릉 말단부에 입지하는데 평면형태는 원형과 다각형으로 구분된다. 그 중 타원형으로 조성된 2호는 수혈군과 수혈주거지 사이의 공지에 단독으로 위치하고 있어 특수한 목적의 건물로 추정된다.

수혈은 조사지역 전역에 분포하지만 북서쪽 경계 부분에서는 군집양상이 확인된다.

유적 전경

1호 구상유구

1호 고상건물지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 장타원형, 방형, 장방형, 말각방형, 부정형 등 다양하다. 용도는 초본류가 설치된 바닥에서 복숭아 씨앗이 출토되어 저장시설로 추정되거나 돌출구가 설치되어 집수시설로 추정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혼토패각층은 조사지역의 북서쪽 구릉 말단부와 저습지의 경계지점에 길이 25.7m, 너비 17.6m, 두께 0.38m 규모의 부정형으로 형성되었다. 비교적 고지대인 북서쪽에서 남동쪽 저지대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며 넓어지는 양상인데 인접한 주거역에서 습식한 후 폐기물들을 자연스럽게 경사 하부의 저습지쪽으로 폐기한 결과물로 생각된다. 토층은 10개 층으로 세분되나 상하층의 2개 층으로 대별된다. 내부에서는 고배와 부뚜막형토기 등 다양한 토기류와 골각기, 수골, 패각류가 수습되었는데 이는 기 조사된 창원 동중학교부지(창원 신방리저습유적)와 동일한 양상이다.

목주열은 총 5기가 조사되었는데 특히 동쪽 구릉 말단부와 저습지 경계에 등고선과 나란하게 설치된 2호의 경우 범람을 제어하기 위한 호안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조성시기는 4세기 2/4분기~5세기 2/4분기로 판단되어 창원 동중학교부지(창원 신방리 저습유적)의 삼국시대 Ⅱ단계와 병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방리 저습유적Ⅱ의 조사를 통해 인접한 다호리고분군과 관련된 다호리·신방리 일대의 삼국~통일신라시대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되었다는 점에서 조사의 의가 크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08, 『창원 신방 도시개발 사업지구내 유적』.

동서문물연구원, 2015, 『창원 신방리유적–창원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유적–』.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7,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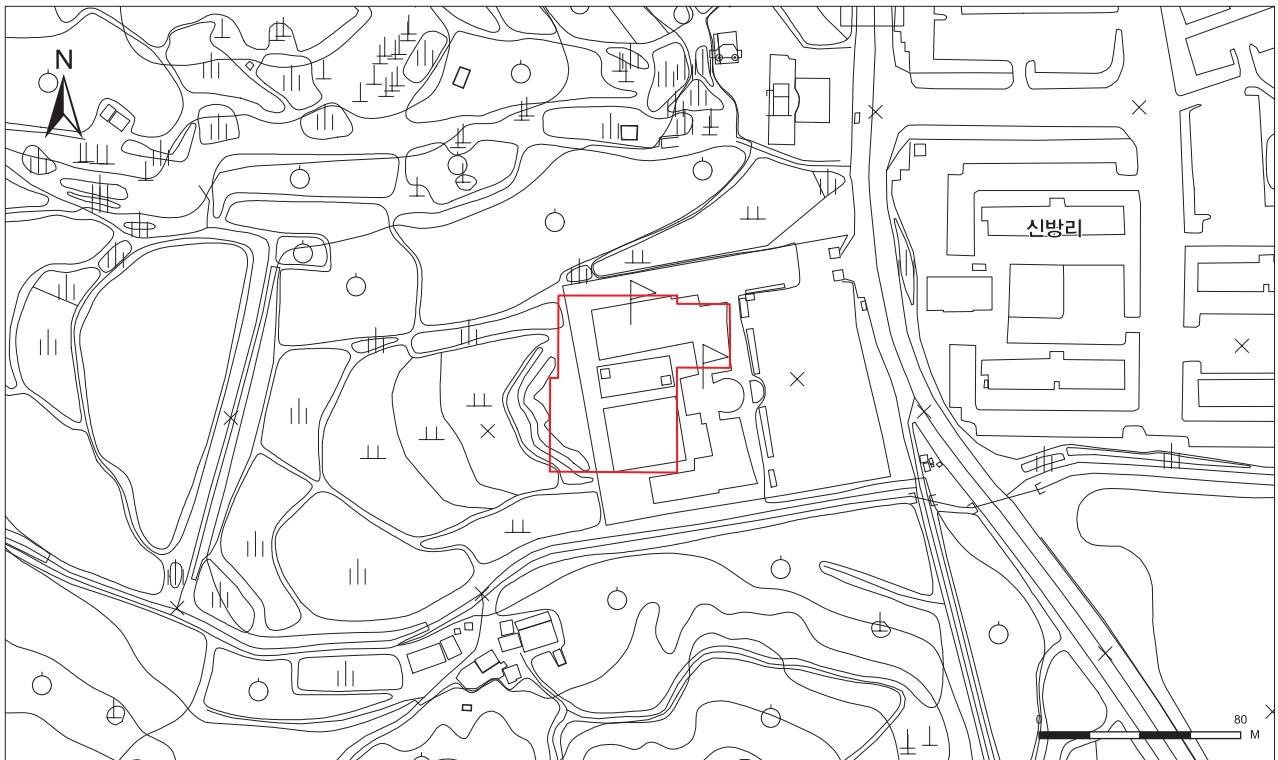
35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 86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1차 2005.8.~2006.6. 2차 2007.2.~2007.7.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공방지, 고상건물지, 지상건물지, 혼토패각층, 대형목주열, 소형목주열 / 고배, 광구소호, 소형기대, 노형토기, 양이부단경호, 옹형토기, 시루, 녹각병도자, 복골, 자귀병, 문, 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 868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생활유적이다. 창원시 교육청에서 창원 동중학교 신축을 위한 공사 시행 중 삼국시대 토기 편이 수습되어 2004년 3월에 동중학교 신축 공사의 일시중단이 결정되었다. 이후 창원시 교육청의 의뢰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2004년 5~6월과 2004년 10~12월에 2차례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차례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통일신라시대 수혈주거지 12동, 공방지 2기, 저장공 1기, 수혈 19기, 구 5기, 고상건물지 5동, 지상건물지 2동, 주혈군, 혼토패각 1개소, 대형목주열 1기, 소형목주열 1기, 자연유로 1기, 우물 1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창원시 북쪽에 위치한 구룡산의 북동쪽 사면에 입지하고 있으며 조사 당시, 감나무 과수원으로 이용되었던 산록 완사면에서 곡부 저지대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조사지역의 북동쪽에는 동판·주남저수지와 북서-남동향으로 흐르는 낙동강 본류 사

유적 위치도

이에 형성된 대산평야가 자리 잡고 있다. 조사지역의 지형과 유구의 분포양상은 대지상의 구릉 정상부에서 이어지는 구릉 완사면에는 주거역, 주거역에서 이어지는 구릉 말단부에는 혼토패각층, 곡부의 충적 저지대에는 자연유로 주변으로 저습지가 형성되고 그 상부에 건물지, 소형 목주열이 넓게 분포하며 구릉과 저습지 경계에는 대형 목주열이 설치되는 등 공간 구성에 다양성을 보인다.

유적의 토층양상은 통일신라시대 문화층 1개, 삼국시대 문화층 13개 등 15개 층으로 대별된다. 이 중 삼국시대 문화층은 Ⅰ·Ⅱ기로 구분되는데, Ⅰ문화층은 4개의 유구 설치층과 3개의 범람층, Ⅱ기 문화층은 4개의 유구 설치층과 2개의 범람층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적인 범람에 따른 저지대의 침수양상과 자연퇴적 및 인위적인 매립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생활공간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혈주거지는 구릉 말단부에 등고선과 나란한 남서-북동향으로 설치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등 방형계로 규모는 길이 370~492㎝, 너비 322~574㎝이다. 주거지의 잔존깊이와 벽체구조를 볼 때 지상식과 수혈식이 공존하는 등 다양성이 확인된다. 내부시설은 부뚜막, 고래, 벽구, 주혈, 점토 및 초본류 바닥시설, 출입구 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시설은 주제흔이 확인되었다.

고상건물지는 대부분 수혈주거지보다 낮은 저지대에 조성되었으며 평면형태는 1×1칸, 2×2칸, 3×1칸 구조의 방형계이다. 지상건물지는 주거역과 분리되어 저습지의 소형 목주열 내부에 설치되었는데 평면형태는 육각형과 부정형으로 용도는 가축의 사육시설

유적 전경

등으로 추정된다.

수혈은 원형, 타원형, 말각방형, 부정형 등 다양한 형태로 조사되었다. 이 중 용도가 명확하게 부여된 것은 공방지와 저장공이다. 공방지는 말각방형의 수혈식과 지면에 소형의 나무가지+다량의 수피+동물유체 등이 퇴적된 부정형의 평면범위 형태로 조사되었다. 전자는 내부에서 반가공 목기와 수피 등이 노출되어 목기제작을 위한 용도로 추정되며, 후자는 목재를 1차 가공하기 위해 임시로 사용한 작업장으로 추정된다. 저장공은 타원형의 수혈 내부에서 대호와 절구, 떡메 등이 출토되었는데, 대호 내부에서 복숭아씨, 볍씨 등 다종의 씨앗류가 노출되어 잉여 곡물의 저장시설 또는 씨앗 발아를 위한 숙성 저장용의 용도로 추정된다.

혼토패각층은 조사지역의 북동쪽 구릉 말단부 전역에 걸쳐 넓게 형성되었다. 규모는 동-서 16m, 남-북 20m, 두께 약 1.5m이고 토층은 9개 층으로 구분된다. 혼토패각층의 범위는 고지대인 구릉 사면부에서 남동쪽 저지대로 확장·이동되어 재퇴적되는 후퇴적 양상을 보인다. 혼토패각층 상부에는 마사토가 약 30㎝ 두께로 깔려 있어 혼토패각층의 기능이 소멸된 이후에는 평탄화된 지면을 개량하여 생활면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에서는 개, 고배, 완, 노형토기, 옹, 광구소호, 양이부단경호, 시루, 방추차, 뒤지개, 녹각병도자, 골침, 복골, 각골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동물유체(사슴·멧돼지

3호 수혈주거지

4호 고상건물지

대형 목주열

목기 출토모습

·말·개·소·조류·강치 등), 어패류(주름다슬기·논우렁이·참굴·백합·새꼬막·피뿔고둥·도미·농어·복어 등)가 확인되어 육상동물 뿐만 아니라 기수역의 어패류도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원근해 어종인 강치와 하지키가 소량 출토되어 신방리 집단과 인근의 해양활동을 하는 집단의 교류도 추정 가능하다.

대형 목주열은 구릉 말단부와 곡부 저지대의 변환지점에 위치하며 조사지역 내에 약 37m 잔존하는데 외부로 연결될 것으로 추정된다. 총 44개의 주혈이 노출되었으며 주주혈 29개와 보조주혈 15개로 구분된다. 목주는 설치면 아래로 50㎝ 가량 묻혀 있어 최초 설치시 높이는 2~2.5m로 추정된다. 목재는 나이테가 68~153개 정도로 수령이 긴 목재를 이용하였으며 하단부에 홈을 파서 지지력을 보강하였다.

소형 목주열은 저지대에 위치하며 잔존하는 평면형태는 반원형을 띤다. 유구의 잔존직경은 약 40m이며 추정 면적은 1,250㎡에 이른다. 총 246개의 목주가 조사되었으며 대형 목주열과는 달리 수혈을 파지 않고 말단부를 가공한 직경 10㎝ 이내의 목주를 지면에 직접 박아 넣었다. 소형 목주열은 내부에 설치된 고상·지상건물지, 저장공 등을 둘러싸는 형태로 시설물을 경계 짓기 위한 울타리 시설로 판단된다.

수혈주거지와 혼토패각층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조성시기는 3세기 3/4분기~5세기 2/4분기가 중심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화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양식의 토기 및 하지키 등 다양한 외래계 토기가 출토되어 주변 지역과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저습지의 특성상 무기, 농구, 공구, 용기류, 생활용구, 운반구, 악기, 건축부재, 놀이용구 등 다양한 목기가 양호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특히 고상건물의 부재인 문, 빗장둔테, 기둥, 보 등이 출토되어 구조복원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었다.

신방리저습유적은 3~5세기대 금관가야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인접한 다호리고분군과 관련된 생활유적으로서 서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다호리고분군의 목관묘단계 이후의 사회상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9,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출토유물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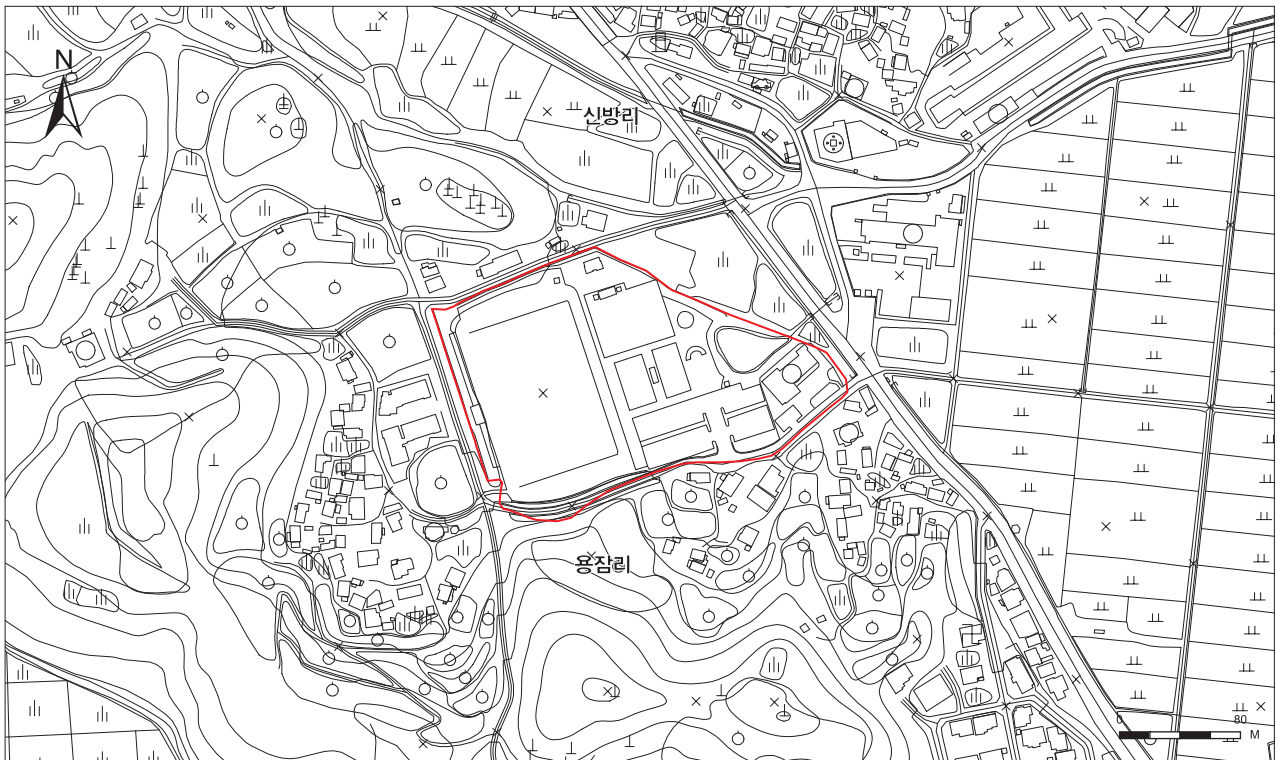
창원 용잠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잠리 66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시굴 2009.11.~2009.12.
발굴 2010.6.~2010.10.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고상건물지, 수혈 / 두형토기, 개, 파수부옹, 파수부완, 기대 편, 방추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잠리 662번지 일대에 소재한 청동기~삼국시대 생활유적으로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동읍주민운동장 조성사업 부지에 해당된다. 동서문물연구원에서 2007년 4월 지표조사, 2009년 11~12월에 시굴조사를 거쳐 발굴조사까지 전담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시기대 수혈주거지 1동, 수혈 6기, 삼한·삼국시대 수혈주거지 4동, 고상건물지 7동, 수혈 10기, 소성유구 4기, 구상유구 2기, 주혈군 6개소, 시기미상의 채토장이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동읍은 낙동강의 하류역에 위치하며 동남쪽으로 김해시 진영읍과 접해 있다. 유적은 낙동강 하류의 남서쪽에 위치한 해발 8m 내외의 낮은 구릉지로 구룡산(해발 432m)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사면의 말단부에 해당한다. 주변의 소구릉들은 마을 및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릉 평탄면이나 저지대에 해당하는 지역은 논과 밭으로 개간되어 활용되고 있다. 조사지역은 중앙천의 하천 퇴적물과 주변 능선에

유적 위치도

의해 형성된 계곡에서 유입된 퇴적물이 퇴적된 지역으로 습지가 형성된 지역은 미나리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복토하여 과수원과,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다.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과 원형으로 구분되며 중복관계에서 방형→원형으로의 변화상이 확인된다. 내부시설은 방형주거지에서는 벽구, 주혈, 노지, 원형주거지에서는 부뚜막과 주혈이 확인되었다. 선축된 방형주거지에서 삼한시대의 두형토기가 후축된 원형주거지에서는 삼국시대 옹형토기가 출토되어 평면형태에 따른 주거지의 조성시기가 밝혀졌다.

고상건물지의 구조는 1×1칸, 2×1칸, 2×2칸 등이며 2×2칸이 다수를 차지한다. 2×2칸은 주거용, 그 외 구조는 창고 내지 이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방형, 말각방형, 원형, 타원형, 부정형 등으로 다양하며 내부시설은 주혈 이외에 별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혈의 용도는 고상건물지에 부속된 작업 공간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로 판단되며, 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된 수혈은 폐기장으로 추정된다. 수혈에서는 다양한 생활토기들이 출토되었는데 유물의 편년을 통해 볼 때 수혈의 조성시기는 6세기대로 추정된다.

유적 원경

소성유구의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단시간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 1호 소성유구는 내부에서 강한 피열흔이 확인되고 내박자와 토기 편이 출토되어 토기소성과 관련된 유구로 판단된다.

본 유적의 조사 결과는 인접한 신방리저습유적의 자료와 함께 창원 동읍지역의 고대 생활문화를 복원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2, 『창원 용잠리 유적-창원 동읍운동장 조성부지내 유적-』.

유적 전경

1호 수혈주거지

4호 수혈주거지

1호 고상건물지

2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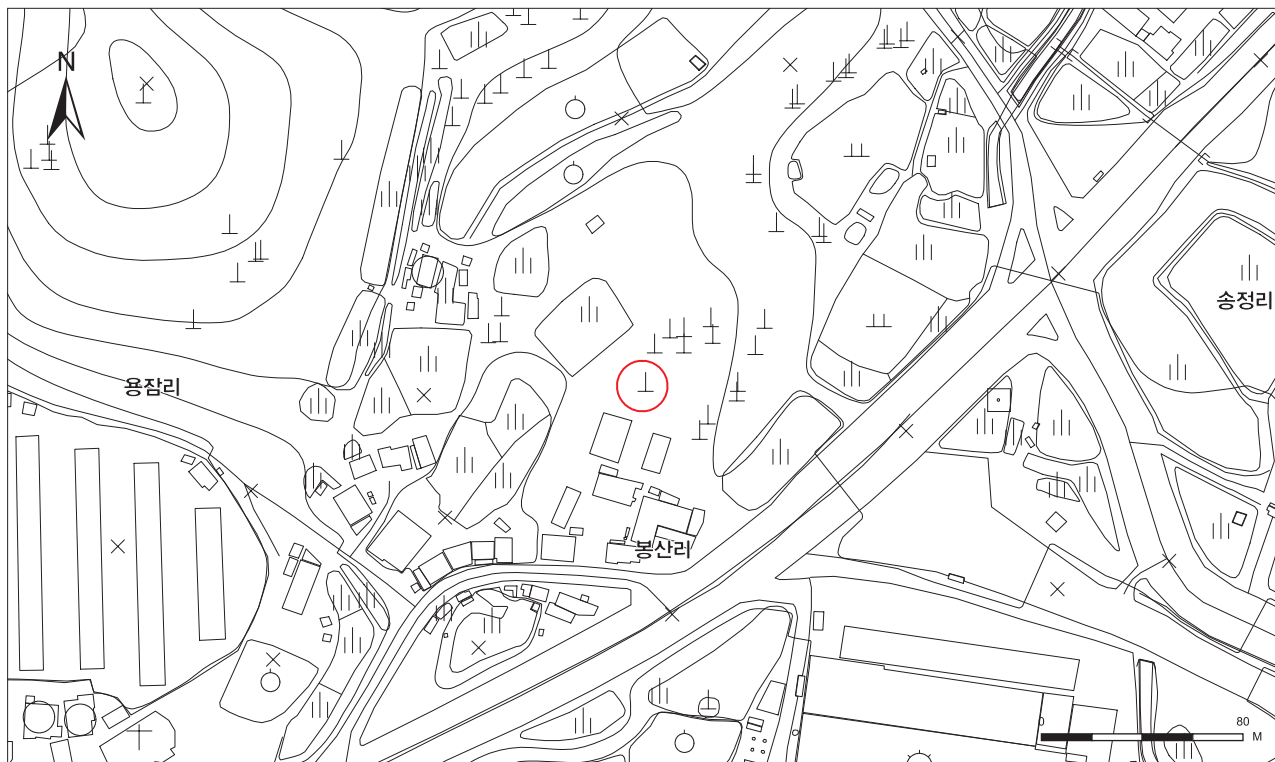
37 창원 봉산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산리 34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김해박물관 /
1차 2007.7.~2007.9.
2차 2008.11.~2008.12.
3차 2009.3.~2009.4.

주요 유구 / 유물
석렬, 수혈, 주혈 / 개, 고배, 완, 연질옹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산리 342번지 일대에 소재한 청동기시대 무덤유적 및 삼국시대 생활유적이다. 국립김해박물관은 2006년 중장기 학술조사 계획의 주제로 선정된 "습지, 그리고 다호리 문화"를 바탕으로 봉산리 지석묘군을 주목하여 2006년 12월에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지석묘 1기, 석관(곽)묘 1기, 삼국시대 석렬 2기, 수혈 1기, 주혈 67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정병산(해발 566m)에서 북동으로 뻗어 내린 구릉의 말단부 해발 약 35m 지점에 입지하고 있다. 1988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사한 다호리유적은 북서쪽으로 약 2.7㎞, 덕천리 지석묘는 서쪽으로 약 1.8㎞ 떨어져 있다. 그리고 북쪽 200m 지점에는 가야 초기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봉산리고분군이 존재하고 있다. 이 밖에 동판저수지와 낙동강이 북쪽으로 각각 2㎞와 10.5㎞ 거리에 있다.

석렬은 조사구역 남쪽과 북쪽 경계에 인접하여 각각 노출되었다. 석렬은 능선방향으

유적 위치도

로 거의 나란하게 축조되었는데, 석렬간 거리는 약 33m이며, 규모는 너비 130~380㎝, 깊이 20~40㎝ 정도이다. 석렬은 경사 위쪽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너비가 점차 넓어지는 형태로 'U'자형 도랑 내에 크고 작은 할석을 정연하지 않게 채워 넣었다. 경사면 위쪽은 천석을 일부 포함한 20㎝ 크기의 잔돌, 아래쪽은 70㎝ 크기의 굵은 돌을 위주로 사용하였다. 두 석렬은 서로 연관되는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수혈은 제3그리드 내 북쪽에 위치한다. 수혈의 장축방향은 북서-남동향, 규모는 길이 14m, 너비 6.4m, 깊이 0.1~0.2m 가량이다. 동서 방향으로 축조된 북쪽 석렬과 연결되나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주혈은 조사지역 남쪽에 해당하는 제2·3그리드에만 분포하며 평면형태상 규칙성은 확인하기 어렵다. 주혈의 규모는 직경 9~60㎝, 깊이 4~54㎝ 가량이며 내부에서 목주의 흔적인 확인된다.

유물은 3번 주혈 내부에서 출토된 완과 연질옹과 제외하고는 수혈 내부에서 산발적으로 개, 고배, 호 구연부 편, 파수 편, 시루 편 등이 출토되었다.

참고문헌

국립김해박물관, 2010, 『창원 봉산리유적』.

유적 전경

1·2그리드 전경

3그리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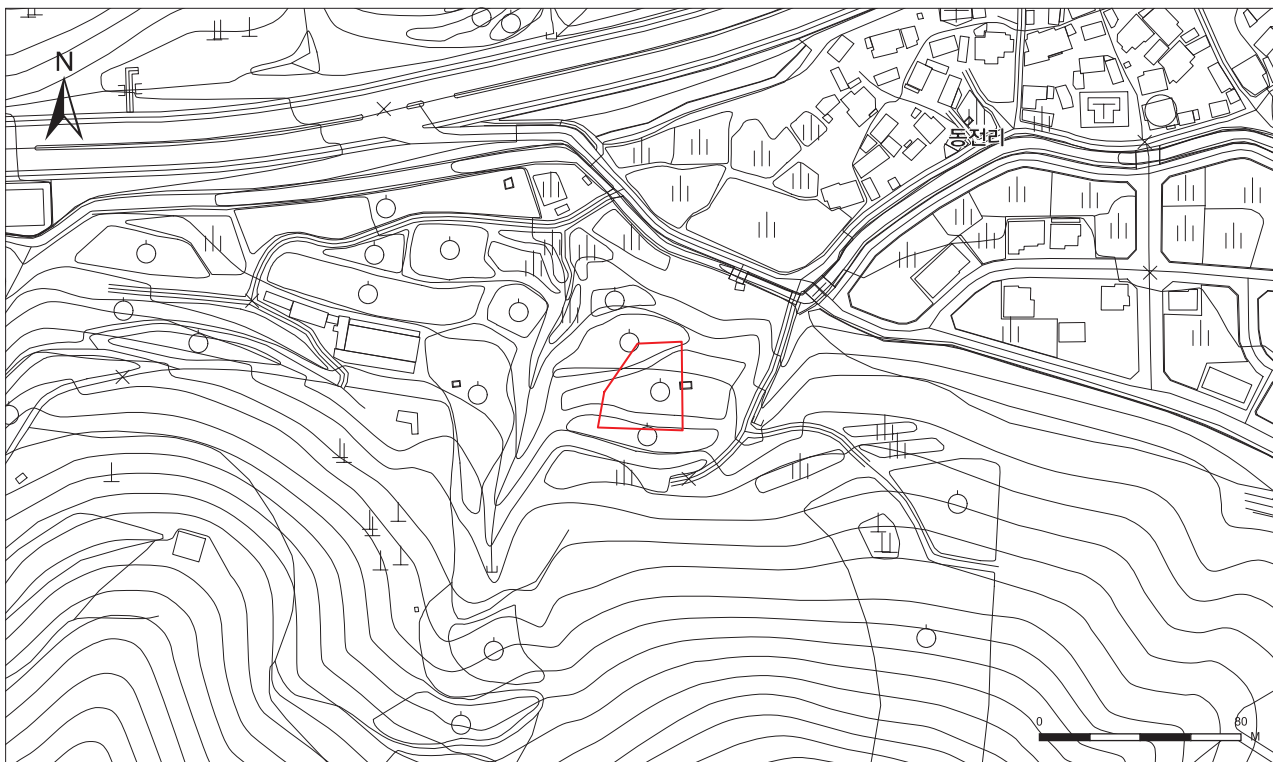
38 창원 동전리 452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45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삼도문화재연구원 / 2017.8.

주요 유구 / 유물
구 / 도질토기, 동체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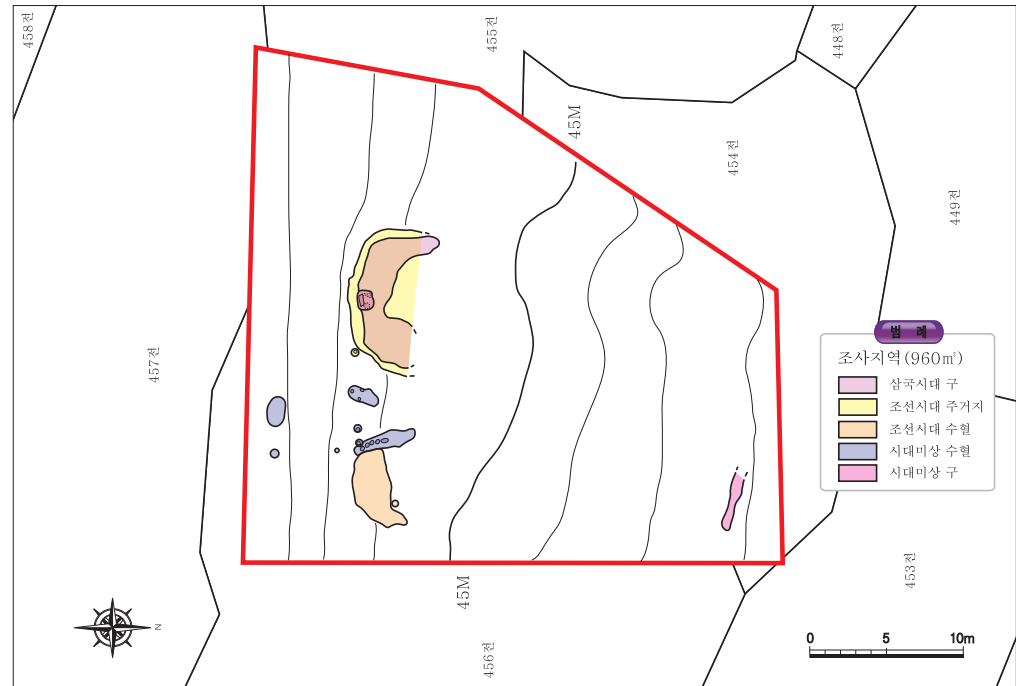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452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국·조선시대 생활유적으로 다가구주택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해당된다. 유적은 '창원 동전리 유물산포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하여 2008년 동서문화재연구원에서 '창원 동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삼국시대 분묘유적과 생활유적이 확인된 바 있다. 사업 시행전 삼도문화재연구원에서 시·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국시대 구 1기, 조선시대 주거지 1기, 수혈 1기, 시대미상 수혈 3기, 구 1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이 속한 북면은 서쪽으로 무릉산(해발 568m), 남서쪽에는 천주산(해발 638.8m), 남동쪽에는 구룡산이 높이 솟아 있다. 동쪽으로는 백월산(해발 428m) 자락이 남-북 방향으로 발달해 있고, 동-서 산지 사이로 신천천이 북면의 북부 지역을 지나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이 신천천은 낙동강 강변 농업 지역의 주요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개천·무곡천·북천천·월촌천 등이 있다. 조

유적 위치도

사지역은 해발 43~48m 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동전마을에서 무동마을로 넘어가는 도로 좌측에 위치하며, 북면초교에서 보면 남서쪽 야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삼국시대 구는 조선시대 주거지의 후축으로 상부가 유실된 상태이다. 구의 평면형태는 부정형, 단면형태는 넓은 'U'자형으로 내부에서는 정확한 기형을 알 수 없는 도질토기 동체부 편이 확인되었다. 토층상에서 암흑색점토층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물을 저장하는 소형의 집수시설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삼도문화재연구원, 2017, 「창원 동전리(452) 다가구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유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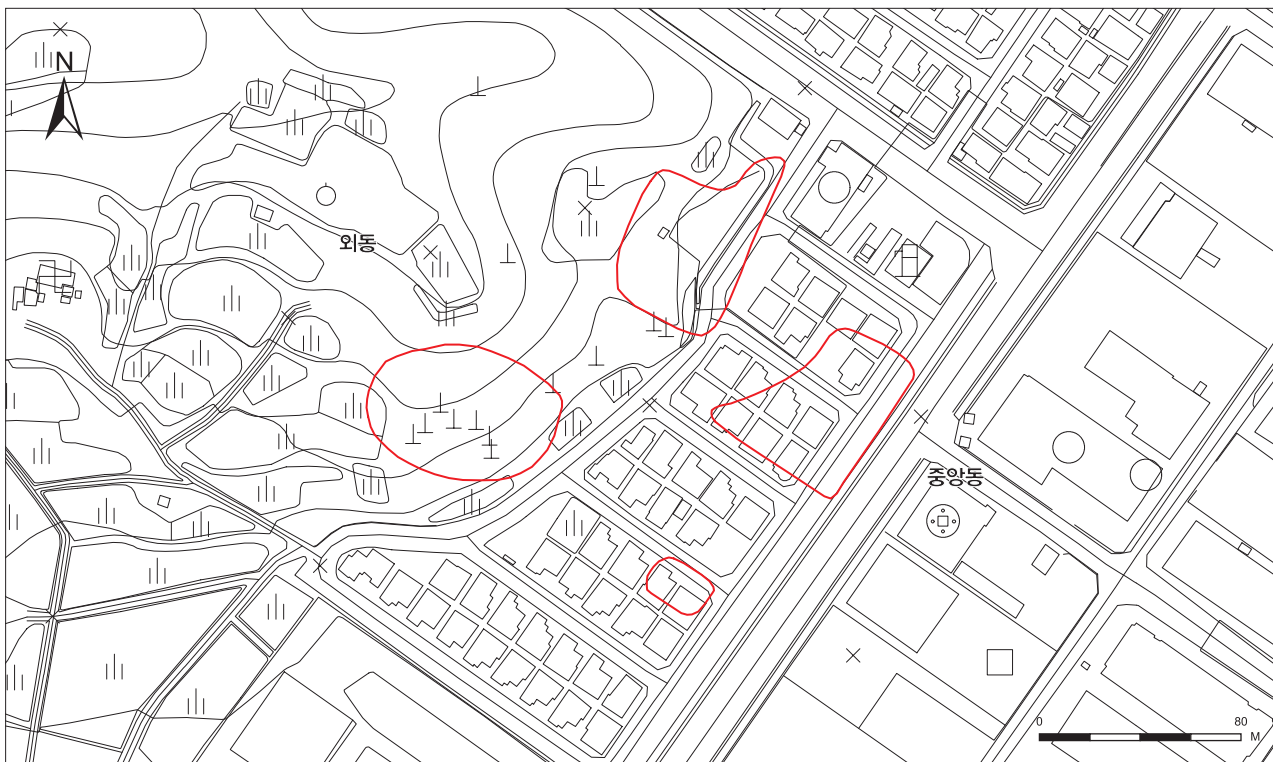
유적 전경

39

창원 외동유적 _ 창원 외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 52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03.4.~2003.1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수혈 / 발, 주구형토기, 단경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 523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한시대 생활유적으로 창원시에서 시행한 외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 해당된다.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2002년 2월에 시굴조사, 2003년 4~12월에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혈주거지 3동, 수혈 13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창원병원 북쪽 뒤편과 창원호텔의 서쪽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창원시 중심지역이다. 유적의 동쪽 구릉 아래에는 북쪽인 창원시청에서 창원대로 방향으로 4차선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유적은 외동과 중앙동 사이에 형성된 단위구릉의 정상부에서 동쪽으로 뻗은 두 개의 낮은 능선 동남쪽 사면과 그 앞의 평편한 침식대지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사는 지형적 조건을 감안하여 3개 지구(A~C)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개별유구는 모두 완만한 사면을 이루는 구릉지역인 A지구에서 확인되었으며 B·C지구에서는 시굴조사 시 수전층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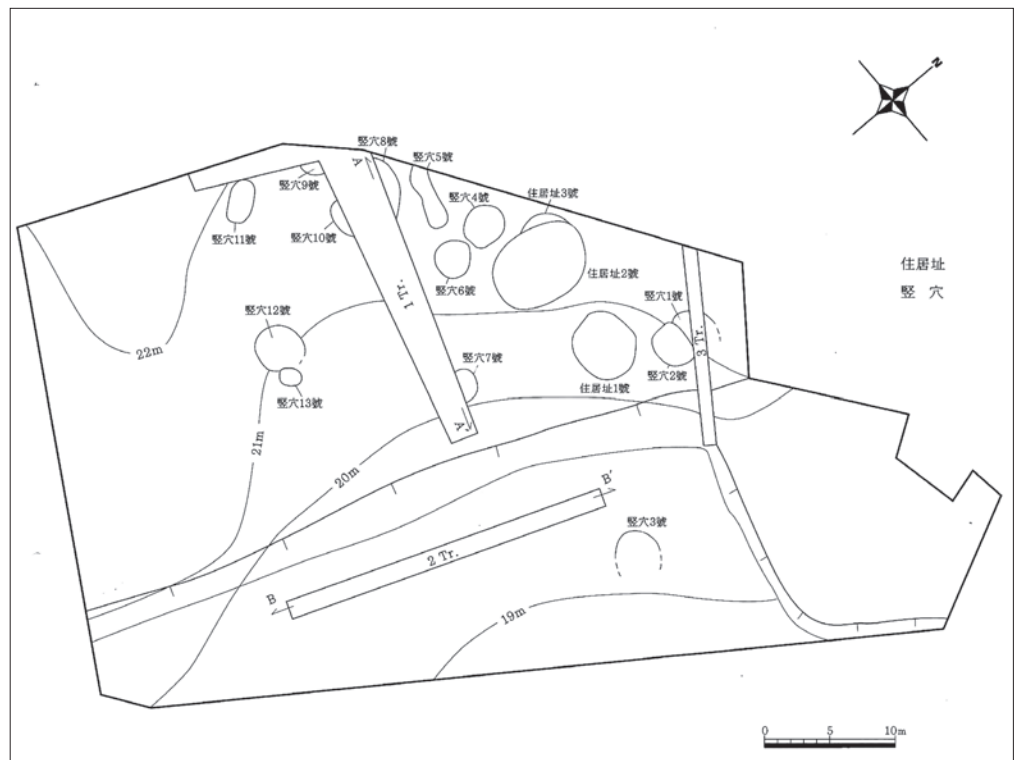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510~720㎝, 너비 400~568㎝ 정도이다. 내부시설은 출입구와 노지가 조사되었고 화재주거지에서 함몰된 목주와 벽체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바닥은 상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과 점토다짐 한 것이 조사되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과 말각방형이며, 규모는 원형의 경우 직경 250~300㎝ 내외, 말각방형의 경우 400~500㎝ 사이이다. 내부시설은 노지, 벽구, 수혈 등이 있으며 바닥은 상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수혈의 용도는 공방으로 추정되는 것(2호)과 노지가 시설되지 않은 2호 수혈주거지의 부속시설로 추정되는 것(4·6호)이 있으나 대부분은 용도를 추정하기 어렵다.

유물은 대부분 연질토기이며 소량의 토제품과 석겸, 철겸이 출토되었다. 토기의 기종은 발, 시루, 컵형토기, 표자형토기, 주구형토기, 단경호 등이며 토제품은 생업과 관련된 어망추, 방추차 외 토우와 내박자가 출토되었다. 유물의 편년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조성시기는 3세기 중반 이후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유적의 조사를 통해, 창원지역의 삼한시대 생활유적이 조사되어 문헌상에 기록된 골포국의 생활 문화상 일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05,『창원 외동택지개발사업지구내 창원 외동유적』.

A지구 유구 배치도

A지구 전경

A지구 2호 수혈주거지

A지구 2호 수혈주거지

토우

주구형토기

40 창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204-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1차 2011.10.
2차 2011.11.
3차 2012.1.
4차 2012.5.
5차 2012.7.

주요 유구 / 유물
야외노지, 구 /
연질토기 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204-1 일대에 소재한 청동기~삼국·조선시대의 생활유적으로 국립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부지에 해당된다. 2009년 10월 지표조사,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청동기~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야외노지 3기, 구 1기, 조선시대 목책열, 호안시설, 건물지 암거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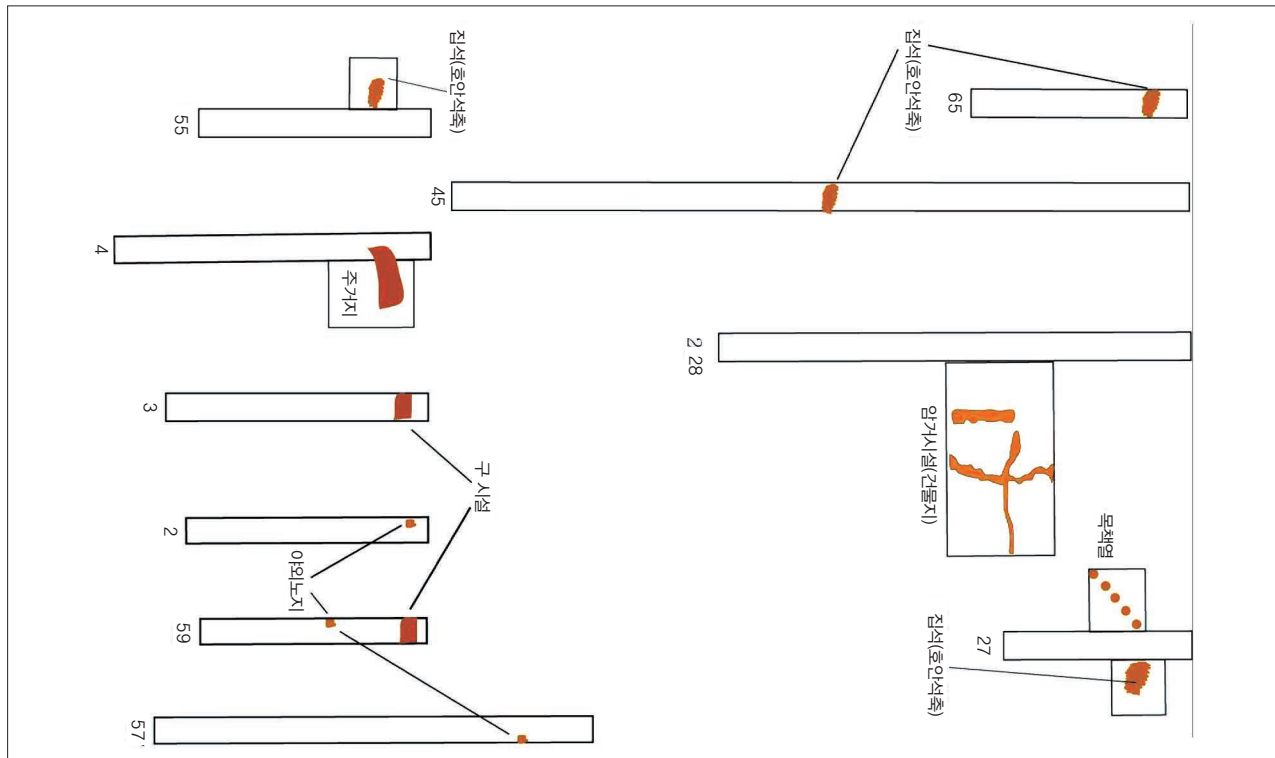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창원 분지의 동쪽 외곽에 해당하는 구릉과 곡간평야지대로써 성주한림푸르지오아파트와 삼정자초등학교 앞쪽에 위치한 2개의 구릉과 구릉 사이 곡간 충적지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의 서쪽 구릉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삼정자공원에 해당하며 동북쪽의 성주동유적과 같은 구릉으로 연결되나 현재는 도로 개설로 인해 동서로 이분되어 있다. 삼정자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서쪽 구릉은 고려~조선시대 유적인 성주동 유물산포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며 이 유적의 구릉 말단부 일부가 본 조사지역에 포함된다.

유적 위치도

조사지역의 층위는 구릉지역과 곡간평야지역으로 구분되는데 구릉지역은 표토 아래 바로 풍화암반 편이 다량으로 포함된 생토층이 확인된다. 곡간평야지역은 현대 경작층 및 복토층 아래에 뻘층-모래·자갈층의 반복적인 퇴적양상이 확인되어 상당기간동안 물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도처에 규모가 다른 소류지가 분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야외노지는 조사지역 남쪽 구릉지역에 설치한 2·57·59트렌치에서 노출되었는데 유구 주변에서 표면 박리가 심한 연질토기 편 수점이 출토되었다. 구는 야외노지와 인접한 3·59트렌치에서 확인되며 규모는 너비 2m 내외, 깊이 1.5m 내외이다. 구의 단면은 완만한 'U'자형이고 내부에는 자갈과 모래가 퇴적되어 있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2, 「창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지 문화유적 발(시)굴조사 약보고서」.

유구 배치도

2호 트렌치 야외노지

57호 트렌치 야외노지

41

창원 가음정동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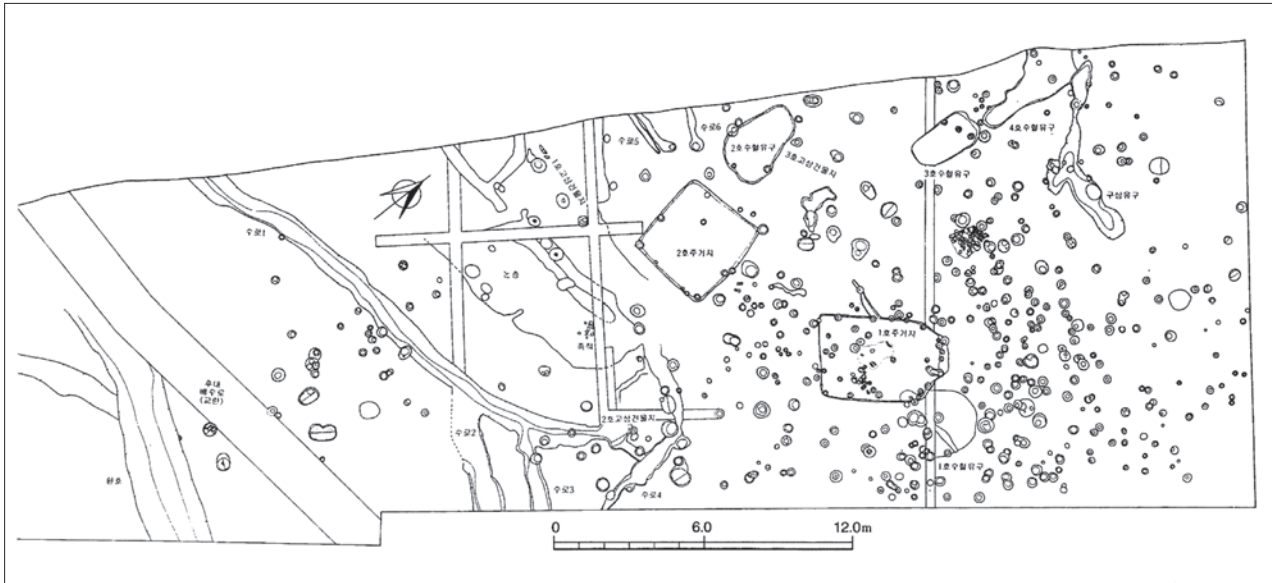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산3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창원대학교박물관 /
1차 1994.2.~1994.3.
2차 1994.5.~1994.6.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고상건물지, 수전 / 고배, 완, 호, 장동옹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산31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생활유적으로 가음정동과 외동을 잇는 신설도로가 가음정동유적을 관통하며 개설된 도로구간에 해당된다. 1993년 12월 17일 당산 일대에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을 지나던 창원대학교박물관 연구원이 현장에서 파괴된 석곽묘와 다수의 토기 편을 확인하고 이 내용을 창원시와 경상남도에 통보하였다. 이에 공사 중지 후 유적에 대한 긴급 발굴 및 시굴조사가 창원대학교박물관과 창원문화재연구소의 공동조사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가음정동유적에 대한 상세한 현황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창원대학교박물관이 단독으로 조사한 다구역에서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3동, 고상건물지 10동 이상, 수전, 수로, 환호가 확인되었다.

다구역은 가음정동 주능선과 지맥, 그리고 성산의 지맥 사이에 위치한 곡저지대로 구릉의 경사가 갑자기 둔화되는 미고지에 해당하며 남중학교와 창원대로 사이의 서쪽 저습지 보다는 약간 높은 곳으로 해발 21m에 위치한다. 조사 당시 구릉 아래의 저지대

유적 위치도

다구역 유구 배치도

는 계단식 경작지로 개간되어 있었다.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 방형, 장방형이 각 1동씩 조사되었는데 원형에서는 구들, 장방형에서는 출입구가 조사되었다. 원형이 약간 이른 시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지만 평면형태에 따른 시기 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상건물지는 주혈이 다수 밀집되어 정형성을 찾기 어려운 상태로 10여 동 정도만 파악되었다. 구조는 2×1칸, 2×2칸의 방형, 장방형 건물지로 추정된다. 주혈의 크기는 다양하며 깊이는 60㎝ 이상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수전의 잔존범위는 12.7×8.3m 정도로 논면과 논둑, 사람과 소의 족적이 조사되었다. 논둑의 규모는 길이 4.1~6.56m, 너비 0.6m 정도이며 진행방향은 외곽부의 수로와 평행하다.

출토유물로 보아 수혈주거지는 6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로, 고상건물지는 7세기 이후까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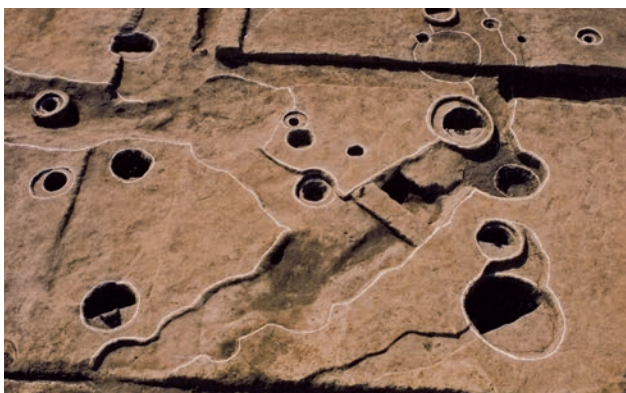
창원 가음정동유적의 조사를 통해, 기존에 보고된 가음정동유적의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에 다양한 유구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특히 구릉 아래쪽 저지대까지 수전, 수혈주거지가 확인됨으로써 취락 입지의 변화 양상 및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고대 수전지의 존재와 농업생산방식에 대한 기초자료가 확보되는 등 창원지역사에 새로운 지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창원대학교박물관, 2001, 『94 창원 가음정동유적』.

유적 전경

다구역 전경

1호 수혈주거지 전경

2호 고상건물지

3호 수혈주거지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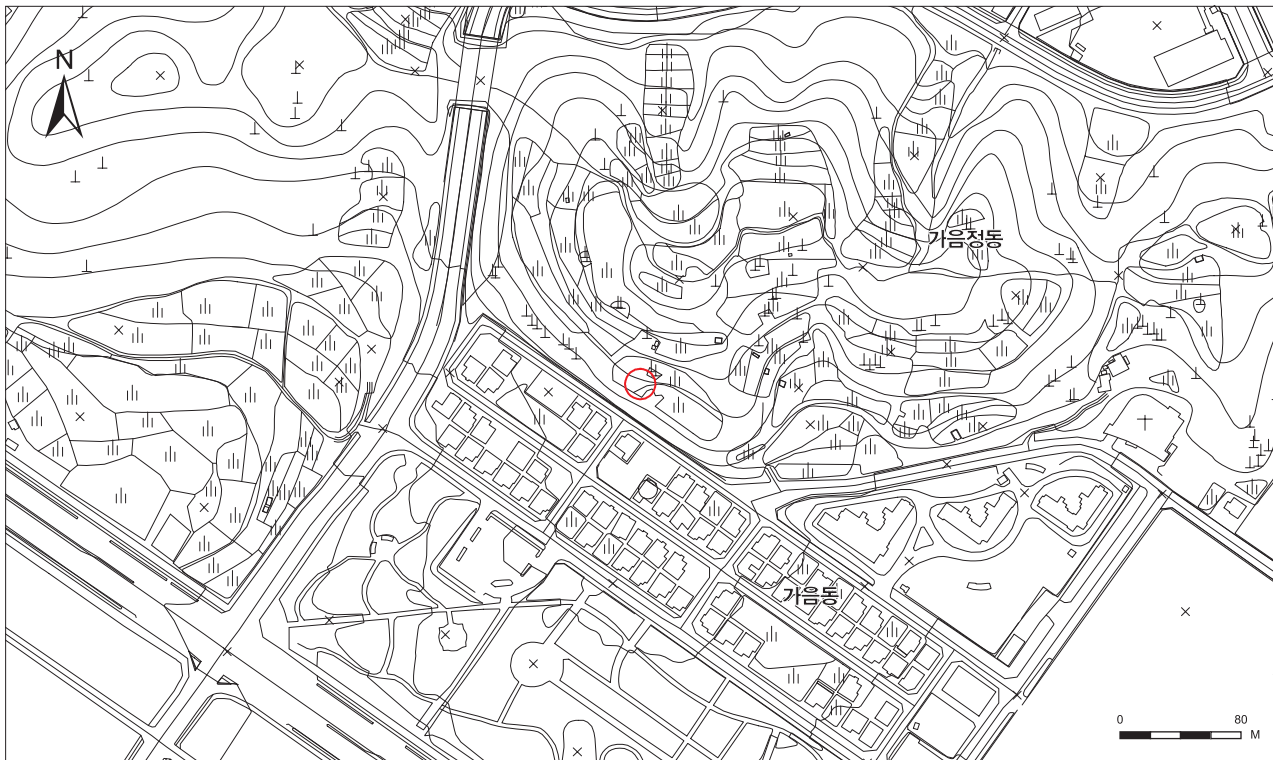
창원 가음정동패총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67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창원문화재연구소 /
1차 1990.11.~1991.1.
2차 1991.11.~1991.12.

주요 유구 / 유물
패총 / 호, 옹, 시루, 노형토기, 고배, 골촉, 드리개, 뒤꽂이, 동물유체, 어패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677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생활유적이다. 1990년 9월에 창원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경남지방 중요 유적 선정회의 결과에 따라, 창원 가음정동패총에 대한 연차 학술발굴조사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1·2차년도 학술발굴조사로서 본 유적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지역에 해당하는 당산은 창원시의 중앙부 동남쪽에 위치하는 소구릉지로서 사방이 넓게 트이고, 구릉지 아래로 넓은 들판과 남천이 어우러져 있어서 선사시대 이래로 사람들의 생활에 적절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당산의 해발 50m 지점에는 4군데의 패총이 분포하고 있고, 남쪽으로 길게 뻗어 내려 성산패총과 연결되어지는 400m지점(해발 25~30m)에 또 하나의 패총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후자는 2005~2007년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시·발굴조사 구간에 포함되었으나, 조사 당시에는 유존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된다.

유적 위치도

당산에 분포하는 4군데의 패총은 남서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각각 Ⅰ~Ⅳ지구로 명명되었으며 본 유적은 Ⅰ지구로서 해발 48~50m선상에 위치한다. 조사 이전부터 이 일대가 계단식 경작지로 이용되었으며 주변의 양계장에서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상당량의 패각을 채굴한 것으로 알려져 원지형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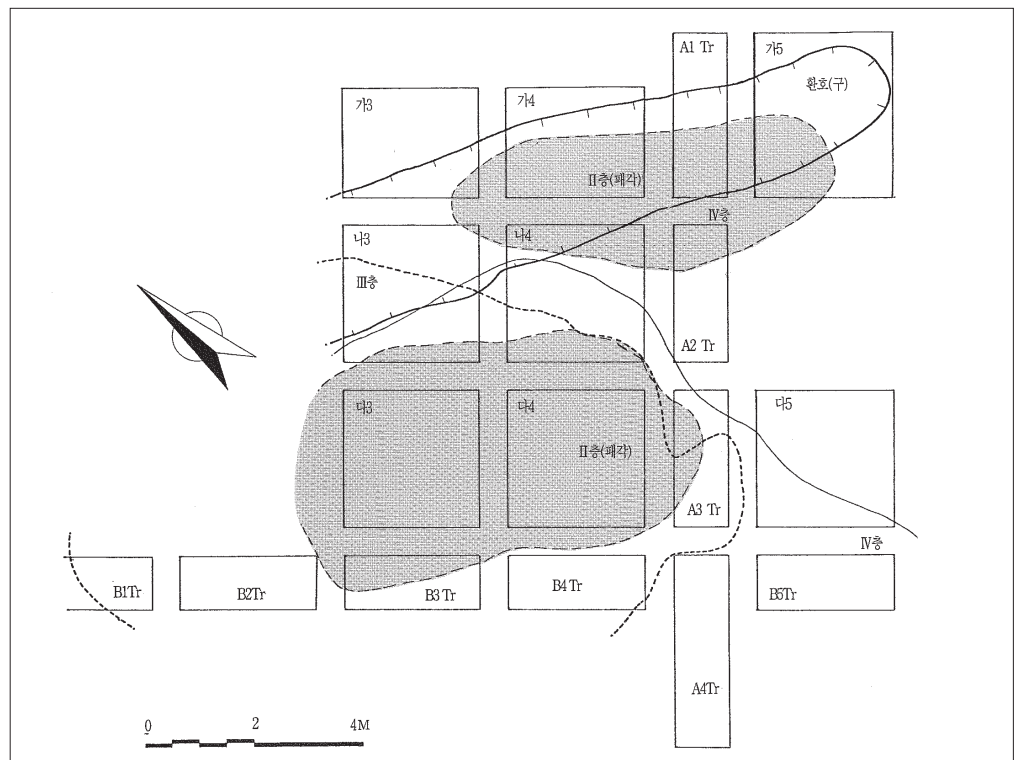
Ⅰ지구 내에서 확인된 층위는 4개 층이다. 토층은 Ⅰ층 표토층-Ⅱ층 패각층-Ⅲ층 암적색점토층-Ⅳ층 흑갈색점토층으로 구분되며 지형의 경사방향인 북동-남서방향으로 20°~25° 기울기로 비스듬히 퇴적되었다. 패총의 분포범위는 중앙부(나3Pit와 나4Pit)가 동-서 방향으로 단절되어 조사지역 남서쪽과 북동쪽에 두 곳으로 나누어져 확인된다. 이는 나Pit 열을 따라 조성된 계단식 경작지 설치에 의해 전면이 넓게 분포하고 있던 패각층이 인위적으로 파괴, 훼손되어 두 곳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패총 아래에서 환호가 노출되었다. 환호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점차 폭이 좁아지는 형태로 단면형태는 'U'자상이다. 조사범위에서 확인된 잔존 길이는 10m 정도이지만 서쪽 아래로 경사져서 계속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환호의 너비는 150~200㎝, 깊이는 20~70㎝이다. 환호 내부에서는 연질토기 구연부 편, 도질토기 경부 편, 파수 편이 출토되었으며 3~4세기경 사이의 어느 시점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패총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토기 편으로서 적갈색연질토기, 회(흑)백색와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등으로 분류되는데 기종은 호, 옹, 시루, 발, 노형토기, 고배 등이다. 그리고 방추차, 어망추, 도자, 주조철부 외, 녹각병, 찌르개, 바늘, 화살촉, 뒤꽂이, 드리

유구 배치도

개 등의 골각기류, 다양한 동물유체 및 어패류가 출토되었다. 유물의 편년을 참고할 때, 패총의 상한연대는 3세기경이며 하한연대는 5세기 전반으로 판단된다.

본 유적의 조사를 통해, 전체 유적의 일부이긴 하지만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남아 있는 패총의 성격 및 형성시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데 조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창원문화재연구소, 1994, 『창원가음정동유적』.

패각층 퇴적모습

출토유물

43

창원 가음정공원 다목적구장 조성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595-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해동문화재연구원 /
2016.9.~ 2017.2.
경남문화재연구원 /
2017.10.~201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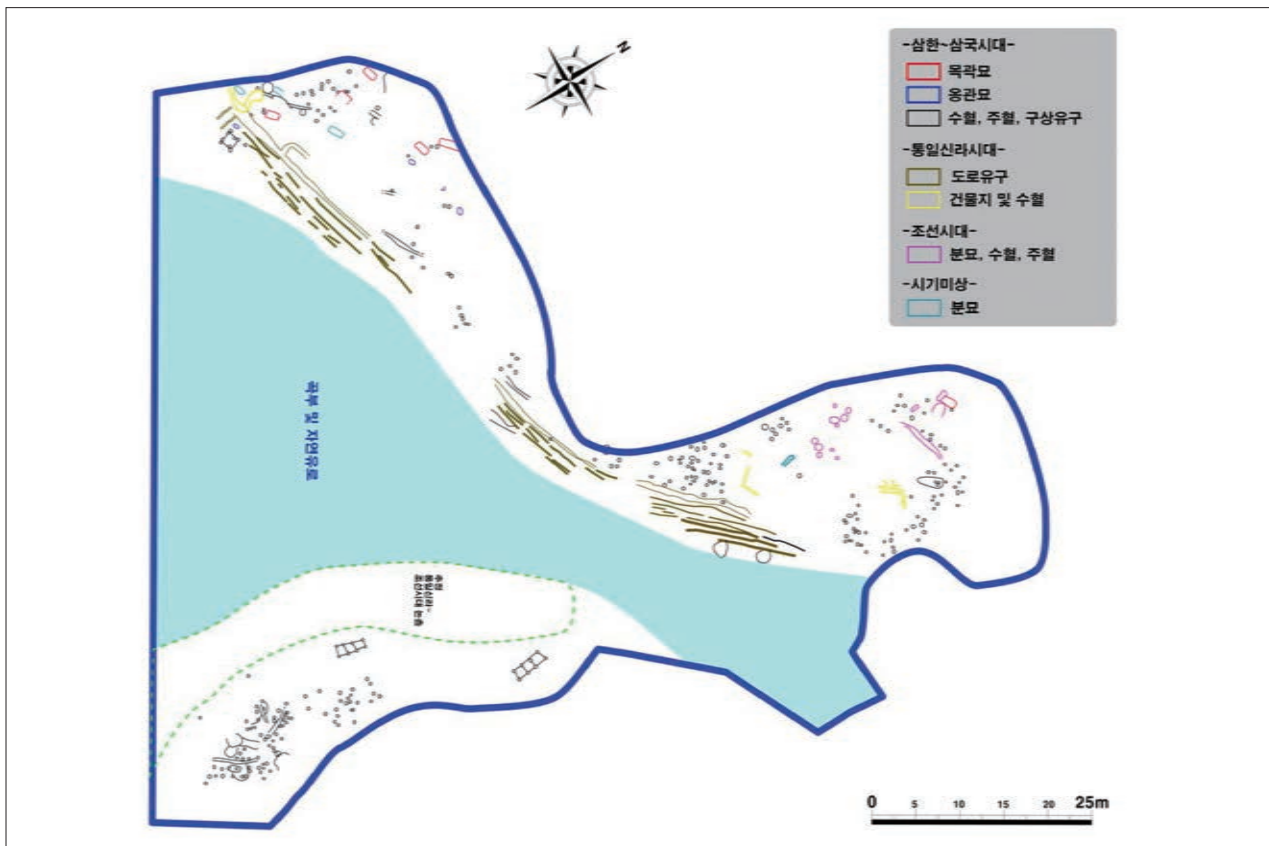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옹관묘, 고상
건물지 / 노형기대,
단경호, 양이부호,
대호, 옹형토기, 파수
부옹, 철부, 철촉, 철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595-1번지에 소재한 삼한~조선시대 무덤·생활·교통통신·산업생산유적으로 창원시 공원개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음정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예정 부지에 해당한다. 창원시에서는 2008년 사업시행에 앞서 동서문물연구원에 지표조사를 의뢰하여 조사지역 주변으로 다수의 선사~역사시대 유적이 확인되었다.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 해동문화재연구원에서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삼한~삼국시대 목곽묘 5기, 옹관묘 4기, 고상건물지 3동, 구 6기, 수혈 15기, 주혈 300여 개, 통일신라시대 도로 100m, 건물지 2동, 조선시대 분묘 2기, 구 1기, 수혈 및 주혈 10기, 추정 통일신라~조선시대 논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발굴조사 결과 조사지역 외곽으로 서쪽은 삼한~삼국시대 고분, 동쪽은 삼국시대 수혈 및 주혈 등의 유구가 확장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에 2017년 7~8월에 해

유적 위치도

동문화재연구원에서 추가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구가 연장분포하는 것이 확인되어 동년 10~12월에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추가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추가 발굴조사는 조사구간이 이격되어 1~3구역으로 구분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조사 결과 삼한시대 옹관묘 2기, 삼국시대 목곽묘 3기, 삼국~통일신라시대 도로 1기, 우물 2기, 주혈군 10개소 및 주혈 9기, 수혈 8기, 시대미상 배수로 1기, 적심 1기 등 다양한 유구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가음정동 일대는 창원분지의 동쪽에 해당하며, 지형적으로 북동쪽에 위치한 비음산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구릉 말단부에 입지한다. 비음산 줄기는 창원대로에 의해 절단되었지만, 과거 지형도를 보면 성산패총까지 길게 연결된 지형임을 알 수 있다. 가음정동 일대의 구릉은 당산, 성산패총이 있는 구릉은 성산이라고 하는데, 조사지역은 당산의 남동쪽 말단부에 입지한다. 조사지역 남쪽으로 불모산에서 발원하는 남천이 서류하며, 동쪽에는 대암산에서 발원하는 가음정천, 서쪽에는 비음산에서 발원하는 토월천이 각각 남서류하여 남천에 합류된다. 조사지역 남쪽으로 패총이 위치하고, 창원을 남-북으로 가르는 창원천의 경우 현재의 지귀동 일때까지 해수의 영향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음정동 일대도 바닷물의 영향권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지역은 최근까지 농경지로 이용되었으며, 못안마을이 자리 잡았던 지역이었다.

1차 발굴조사 유구 배치도

삼한시대 목곽묘는 주로 조사지역 서쪽의 구릉 말단부에 분포한다. 1차 발굴조사에서 5기, 추가 발굴조사에서 3기가 조사되었는데 후자는 상부 유실이 심한 상태이다. 목곽묘의 주축방향은 등고선의 나란한 동-서향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으로 규모는 길이 3m 이내의 소형이다. 두향은 인골이나 목걸이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토기를 피장자의 발치 쪽에 매납하였다고 가정할 때 동향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목개 상부 또는 목곽 내에서 노형기대, 단경호, 양이부호, 대호, 철모, 철부, 철촉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목곽묘의 조성시기는 2~3세기대로 추정되며 조사지역 동쪽의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삼한시대 주거지와 그 시기를 같이 할 것으로 추정된다.

옹관묘는 1차 발굴조사에서 4기, 추가 발굴조사에서 2기가 조사되었다. 옹관묘는 조사지역 서쪽의 목곽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한 동-서향이다. 옹관의 평면형태는 타원형, 묘광의 규모는 길이 100㎝ 내외, 너비 60㎝ 내외, 옹관의 규모는 길이 63~103㎝, 너비 40~44㎝이다. 옹관묘는 주옹과 막음옹을 덧댄 합구식옹관이다. 주옹은 주로 40㎝ 이상의 옹형토기를 사용하였으며, 막음옹은 옹형토기 또는 기고가 낮은 파수부옹, 대각을 탈락시킨 노형기대 등을 사용하였다. 옹관의 결합방식은 막음옹의 구연에 주옹의 구연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옹관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고상건물지는 1차 발굴조사지역의 곡부 및 자연유로와 접한 서쪽 구릉 말단부에서 1기, 동쪽 구릉 말단부에서 2기가 확인되었다. 서쪽의 것은 1×1칸 구조, 동쪽에서 확인된 2기는 3×1칸의 구조로 차이가 있다. 주혈 내부에서 목주흔이 일부 관찰된다.

수혈 및 주혈은 조사지역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부정형 또는 원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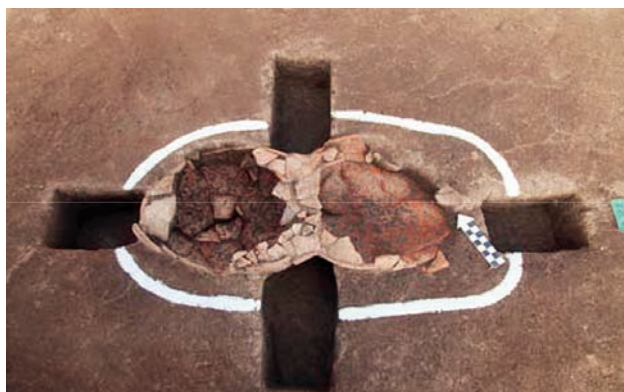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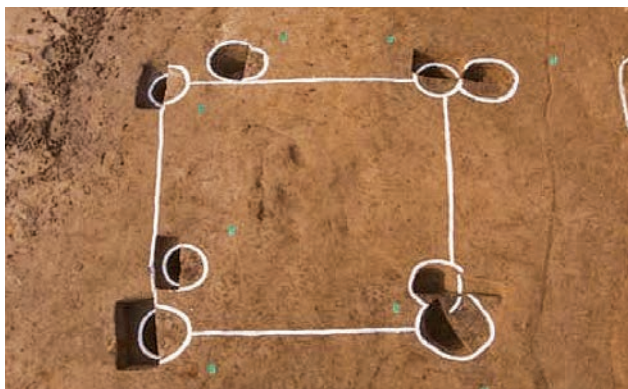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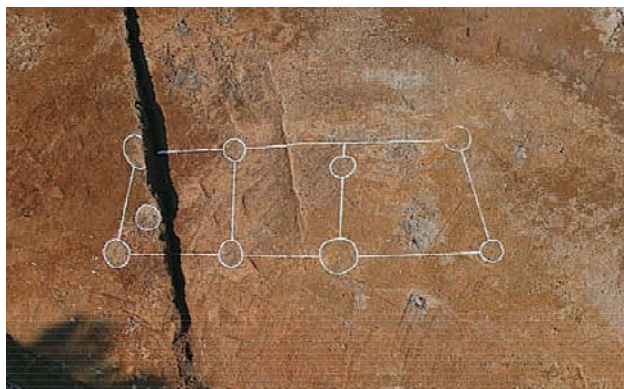
형에 가까운 형태이나 그 용도 및 기능은 추정하기 어렵다. 주혈 내부에서는 목주흔과 목재가 일부 조사되어 고상건물지일 가능성도 있으나 정확한 형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창원 가음정공원 다목적구장 조성부지 내 유적은 가음정동고분군 및 생활유적의 일부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해동문화재연구원, 2017, 「창원 가음정공원 다목적구장 조성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경남문화재연구원, 2017, 「창원 가음정공원 다목적구장 추가부지 내 정밀발굴조사결과 약보고」.

5호 목곽묘

1호 옹관묘

1호 고상건물지

2호 고상건물지

추가부지 1구역 2호 목곽묘

추가부지 1구역 2호 옹관묘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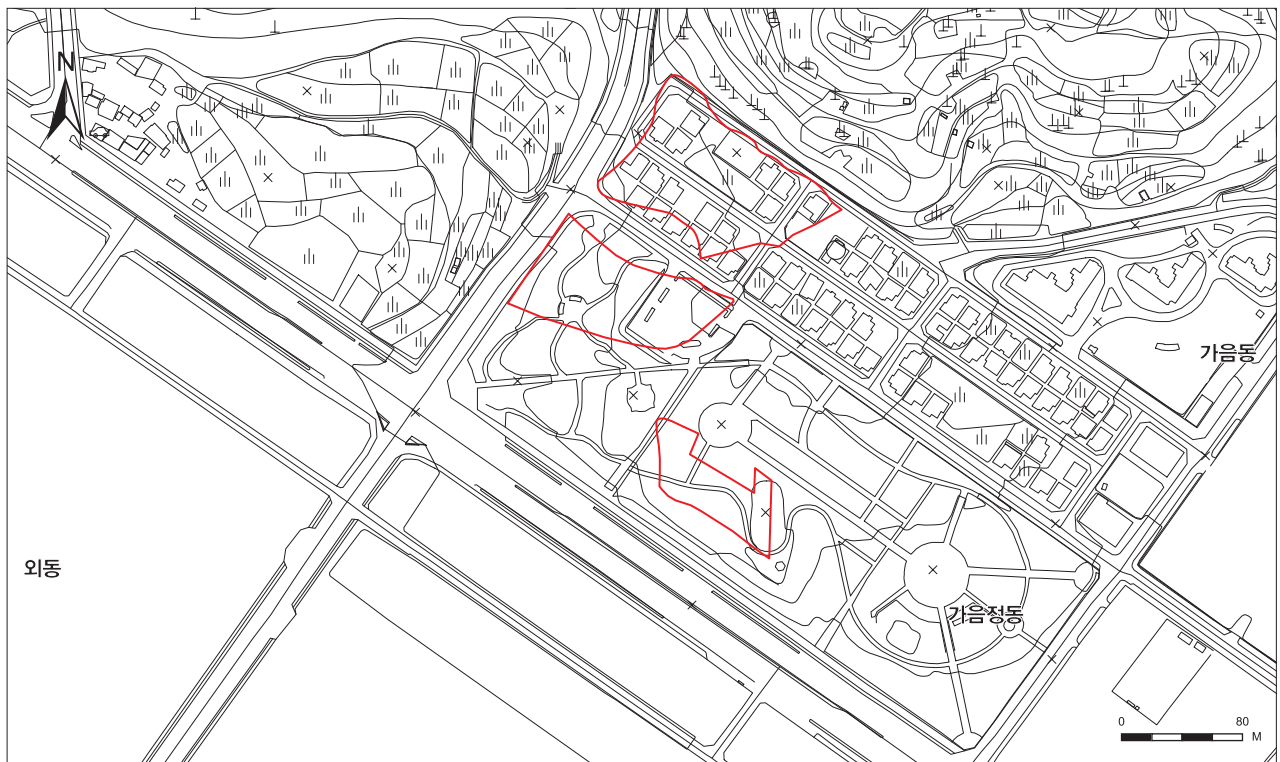
창원 가음정 복합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60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1차 2005.8.~2006.6.
2차 2006.6.~2007.1.
3차 2008.11.~2009.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수전, 혼
토패각층 / 고배, 완,
노형토기, 부형토기,
시루, 장동옹, 양이부
단경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607번지 일대에 소재한 청동기~조선시대 생활·산업생산·무덤유적으로 창원시에서 시행한 택지개발 부지에 해당된다. 1999년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삼국시대 취락과 관련된 유구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2005년 1~5월에 걸쳐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순차적으로 3차 발굴조사까지 완료하였다. 발굴조사지역은 지형조건에 따라 가~다 3개 지구로 이격되어 있는데, 삼한시대 유구는 다지구, 삼국~통신라시대 유구는 가·나구역에 분포한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석관묘 1기, 석곽묘 1기, 수혈 1기, 구 1기, 삼한시대 수혈주거지 57동, 고상건물지 1동, 수혈 7기, 구 1기, 주혈군 2개소, 삼국~통일신라시대 수혈주거지 4동, 구 2기, 우물 1기, 토기가마 1기, 혼토패각 2기, 수전 22면, 수로 2기, 토광묘 1기, 옹관묘 1기, 고려~조선시대 분묘 83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낮은 구릉성 산지가 연이어 발달되어 있는 창원분지의 남동쪽에 위치하

유적 위치도

며 가음정동 당산의 남서쪽 사면일부 및 아래쪽의 곡부와 창원대로 개설로 인해 구릉의 일부가 잘려나간 남쪽의 저지성 독립 소구릉을 포함하는 지형이다. 조사지역 남쪽은 창원 외동 성산패총(사적 제 240호)과 인접하며, 혼토패각 등이 조사된 가지구 북쪽은 가음정패총Ⅲ·Ⅳ가 형성되어 있는 구릉 정상부와 중첩범위를 이루고 있고, 수전이 조사된 나지구 서쪽은 가음정동 삼국시대 주거지의 범위와 맞물려 있다. 유적은 조사전 계단식 밭 등이 조성되어 상당부분 삭평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삼한시대 수혈주거지는 구릉 정상부에 직경 30m 가량의 공지를 중심으로 동군 38동, 서군 19동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유구간 복잡한 중복양상을 나타낸다. 평면형태는 원형계로서 타원형 주거지가 다수를 차지하고 규모는 장축길이 222~685㎝로 편차가 크다. 내부시설은 부뚜막, 노지, 벽구, 주혈, 출입구, 수혈 등이다. 부뚜막과 노지는 서쪽과 북쪽 벽면에 설치되었으며 벽구는 대부분 주거지의 경사면 높은 쪽 벽면을 따라 1~3면에 걸쳐 설치되었다. 주혈은 벽체조성시의 기초홈으로 파악되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과 점토다짐한 것이 확인된다. 유물은 연질의 옹, 호, 시루, 노형토기, 파수부발, 부형토기, 고배, 파배, 양이부단경호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으며 편년 설정이 가능한 노형토기와 양이부단경호를 통해 볼 때 상한은 3세기 중기, 하한은 4세기 전기로 추정된다. 즉, 수혈주거지는 삼한시대 말에서 삼국시대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존속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중심연대는 3세기 후기로 유구간 중복이 심한데 비해 시기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지구 동군 수혈주거지 전경

삼국시대 수혈주거지는 삼한시대와는 달리 구릉 사면부에 군집을 이루지 않고 입지하며 평면형태도 방형계로 변화하였다. 내부시설은 부뚜막, 고래, 주혈 등이며 출토된 고배를 통해 볼 때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전의 조성시기가 7세기대인 것을 고려하면 수혈주거지는 수전과 동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전은 해발 22~24m 선상에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구릉 경사면을 따라 22면의 계단식 수전이 조사되었다. 북동쪽에 형성된 3면은 남동쪽의 수전보다 먼저 조성되었으나 출토유물의 편년을 통해 볼 때 거의 동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전간 폭은 대체로 120㎝, 수전간 단차는 2~12㎝정도이다. 논둑은 조사되지 않았으나 수로, 주혈군 등이 조사되었으며 기경흔도 일부 확인되었다. 가음정복합유적의 삼국시대 수전은 1994년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기 조사된 삼국시대 수전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가음정동 일대의 수전은 지형조건에 맞게 단구획과 둑 구획시설을 모두 활용하여 조성한 것을 알 수 있다.

혼토패각층은 해발 25~45m 선상에 2개소가 이격되어 분포하는데, 등고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경사면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펴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잔존최대규모는 길이 12.68~16.55m, 너비 4.08~28m, 깊이 0.08~0.52m이다. 하부에서 인위적인 굴착면이나 정지면 등은 조사되지 않았고 내부토에 포함된 패각의 마모도가 크며 함유량이 불규칙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조사구역 외곽의 가음정동 패총에서 자연 경사면을 따라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9, 『창원 가음정 복합유적』.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0, 『창원 가음정 복합유적II』.

나지구 수전 전경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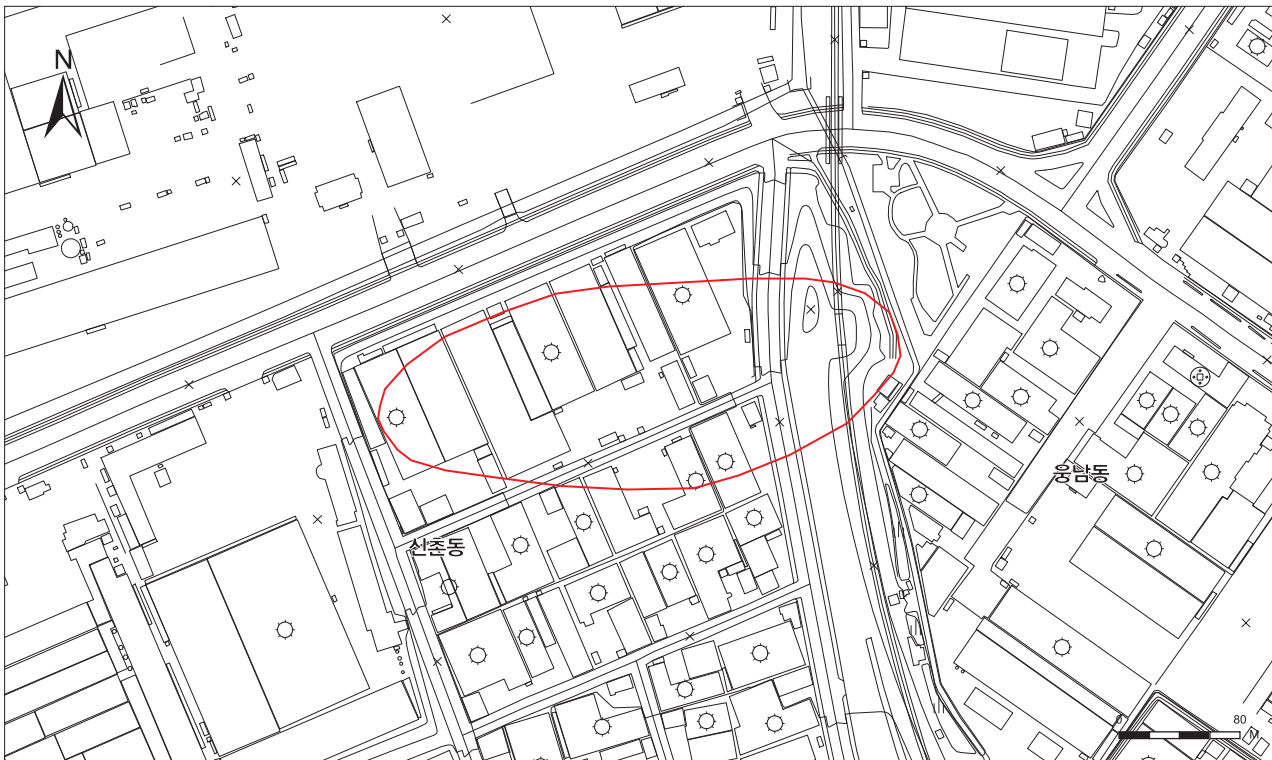
창원 창곡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곡동 385-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1999.8.~1999.1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수혈, 토기가마, 폐기장 / 연질발, 연질단경호, 연질고배, 시루, 타날문토기, 단조철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곡동 385-1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한시대 생활·산업생산유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국가산업단지 조성부지에 해당된다.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1999년에 지표·시굴·발굴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삼한시대 수혈주거지 11동, 수혈 20기, 토기가마 2기, 폐기장 1기, 조선시대 가마 1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마산만에서 창원분지를 향하여 거슬러 올라갈 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두각지상의 구릉지에 위치하고 북쪽에는 합포만과 남천의 하구가 접하는 기수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유적은 해발 약 36m 독립상의 침식구릉지로서 배후의 산지와 이어져 구릉의 정상부는 장기간의 침식으로 평탄화되었지만 남동쪽 사면은 비교적 평탄한 지세를 이루고 있다. 구릉의 사면은 조사 당시 경작으로 인하여 지형이 파괴된 부분이 많았으며 경사가 급한 북쪽 사면은 도로개설로 파괴되어 원래의 지형을 알 수 없었다. 조사지역 내 폐기장이 형성된 곡부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수혈주거지와 수혈, 동쪽으로는 가

유적 위치도

마가 배치되어 생활공간과 산업생산공간이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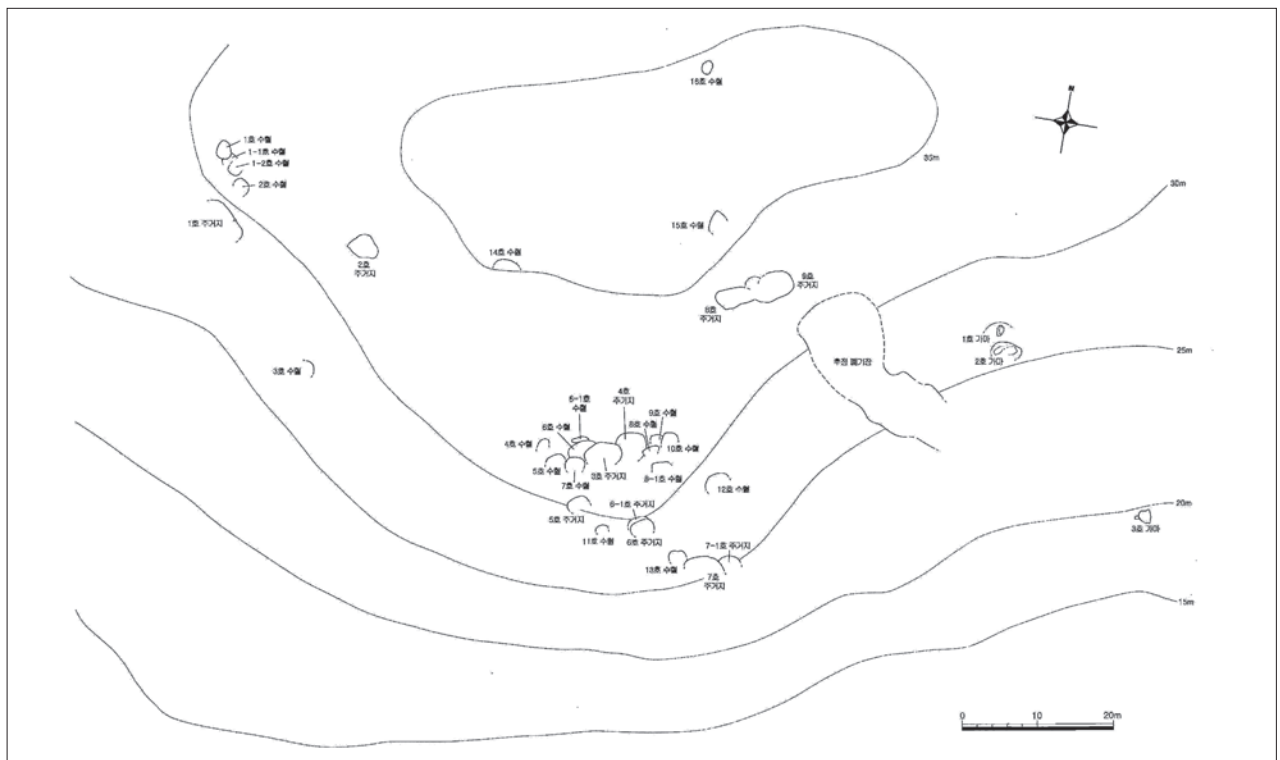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 말각장방형 등이며 규모는 길이 300㎝ 내외, 깊이 70㎝ 정도로 바닥을 평탄하게 처리하였다. 내부에서는 노지, 목탄, 소토가 확인된다. 화재주거지에서 벽체로 추정되는 소토와 목탄이 바닥 전면에서 노출되어 지붕이나 벽이 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과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170~680㎝, 너비 60~250㎝, 깊이 10~65㎝ 정도이다. 유물은 출토되었으나 내부시설은 전혀 조사되지 않아 주거지와는 다른 용도로 추정된다.

토기가마는 조사지역 남동쪽 끝자락에서 노출되었다. 가마는 가파른 경사면에 조성되어 벽체 일부와 바닥만이 잔존한다. 정확한 구조는 파악할 수 없으나 내부에서 삼한시대 토기편이 출토되어 조성연대는 삼한시대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장은 남동쪽 곡부에 위치한다. 인위적인 굴착흔이나 중복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평적 층위를 보이고 있다. 원지형을 따라 형성된 낮은 계곡부에 수혈주거지나 수혈에서 생성된 폐기물을 내다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연질발, 연질단경호, 연질고배, 연질의 타날문토기와 회청색경질토기, 시루, 단조철부 등이 출토되었다. 유물의 편년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조성시기는 2세기 전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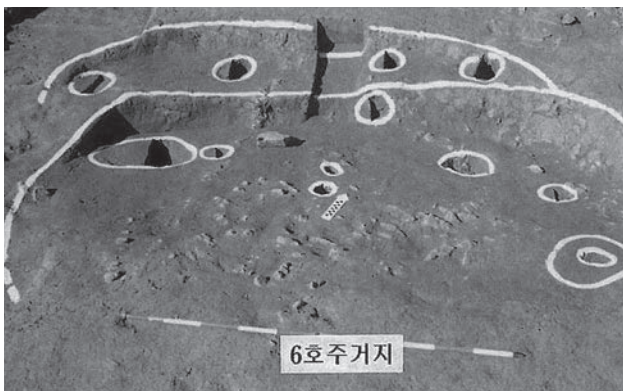
본 유적의 조사를 통해, 창원지역의 삼한시대 생활·산업생산유적이 조사되어 창원지

유구 배치도

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비정되는 골포국의 일부를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조사 예가 드문 삼한시대 토기가마가 조사된 것은 그 의의가 크다.

창곡유적은 바닷가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패총이 형성되지 않은 것은 이곳 주민들이 토기제작으로 기본생활을 영위하였으며 이곳은 토기생산 장소로만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차후 창곡동유적에서 생산된 토기가 어느 지역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연구한다면 골포국의 범위나 생산유통 경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01, 『창원 창곡유적』.

유적 전경

6호 수혈주거지

3호 토기가마

46

마산 우산동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 213-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시굴 2007.8.~2007.12
발굴 2008.4.~2008.6.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야외노지, 지상건물지 / 고배, 완, 철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 213-2번지 일대에 소재한 청동기·삼국~통일신라시대 생활유적으로 마산 첨단산업단지 조성부지에 해당된다. 경남대학교박물관에서 2004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서문물연구원에서 2007년 8~12월에 시굴조사 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매장유구 1기, 구 1기, 석렬유구 2기, 삼국~통일신라시대 수혈주거지 6동, 수혈 5기, 야외노지 3기, 지상건물지 1동이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대산에서 봉화산(해발 389m)으로 이어지는 구릉과 무학산에서 이어진 대곡산에서 동서쪽의 해안으로 뻗어 내린 청량산(해발 320m) 구릉 사이의 곡간부에 위치하며 조사지역의 동편에는 우산천이 곡부를 관류하여 남해의 덕동만으로 유입되고 있다.

수혈주거지는 6기가 중복 없이 배치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과 말각장방형으로 구분되며 규모는 길이 382~460㎝, 너비 400~450㎝ 정도이다. 내부시설은 노지, 구들, 주혈, 주혈 등이 조사되었다. 구들은 주거지 가장자리의 서편에 설치되어 있고, 아궁이와 고래가 확인되었다.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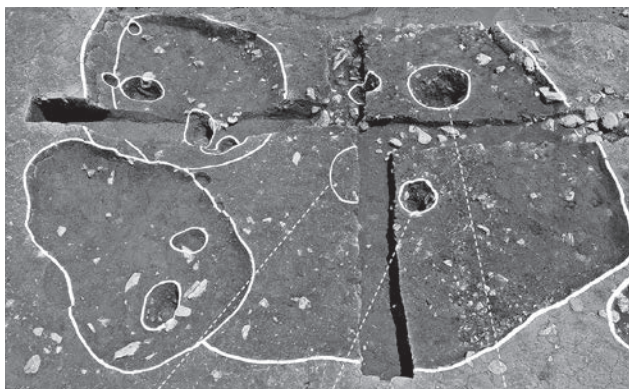
야외노지의 평면형태는 타원형과 장방형으로 구분되며 규모는 길이 46~120㎝, 너비 34~90㎝ 정도이다. 바닥에서 다량의 목탄과 소결면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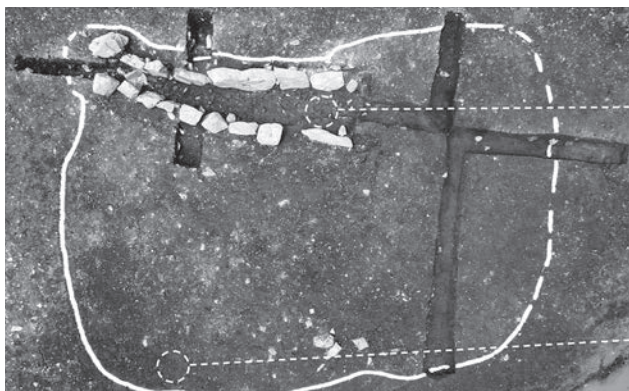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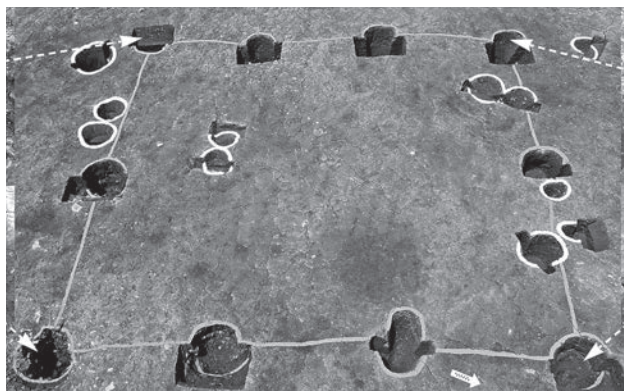
지상건물지는 2×3칸 구조의 장방형 건물지로서 수혈주거지 북쪽에 이격되어 조성되었다. 규모는 길이 390㎝, 너비 356㎝, 면적 13.9㎡로 주혈간 간격이 일정하고 목주흔이 일부 확인된다.

수혈주거지 주변에 위치한 야외노지와 지상건물지는 내부에서 수혈주거지 출토유물과 동시기의 유물이 출토되어 수혈주거지와 관련된 부속시설로 파악된다.

본 유적 뿐만 아니라 삼국~통일신라시대의 구들이 설치된 다수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어 향후 구들이 설치된 수혈주거지의 지역성과 구들의 구조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당시의 문화상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0, 『마산 우산동 유적–마산 첨단산업단지 조성지내 유적–』.

1호 수혈주거지

2호 수혈주거지

3호 수혈주거지

1호 지상건물지

47

마산 진동유적

| 사적 제472호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116-3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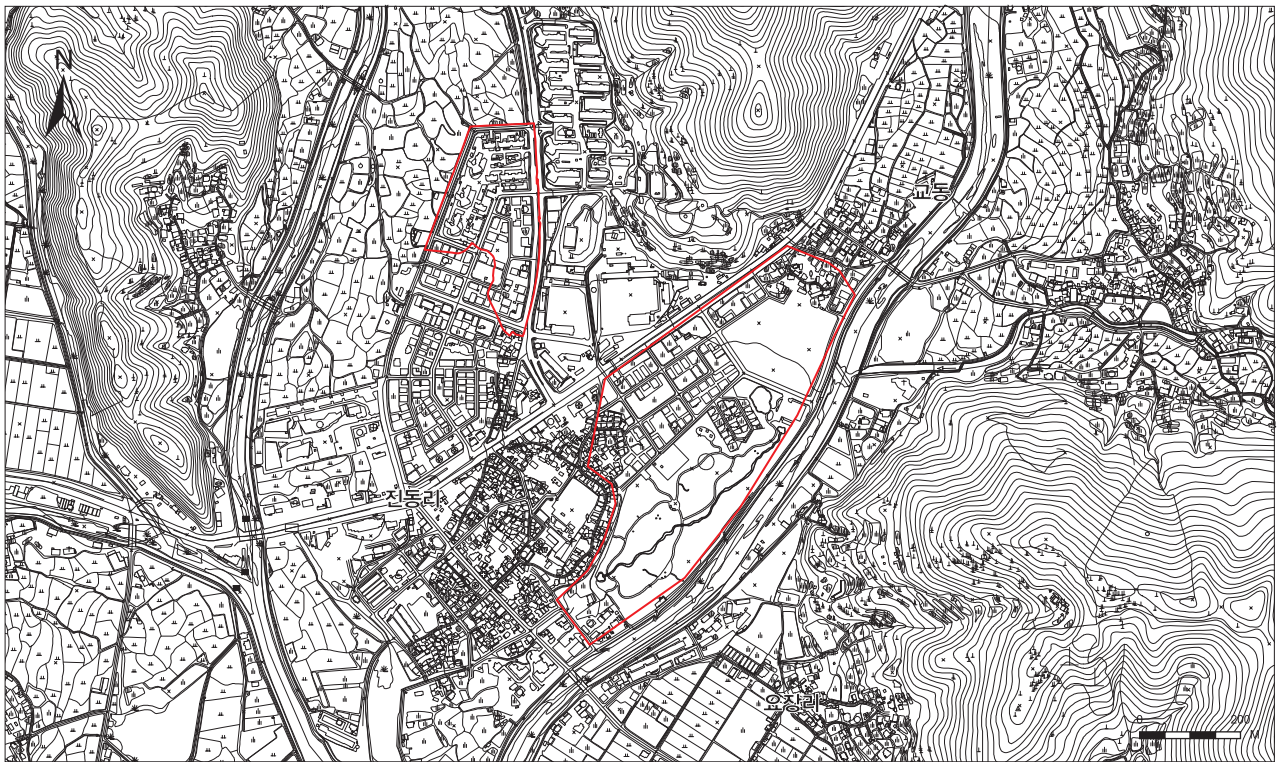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4.9.~2006.11.

주요 유구 / 유물
구상유구 / 대각 편, 발형기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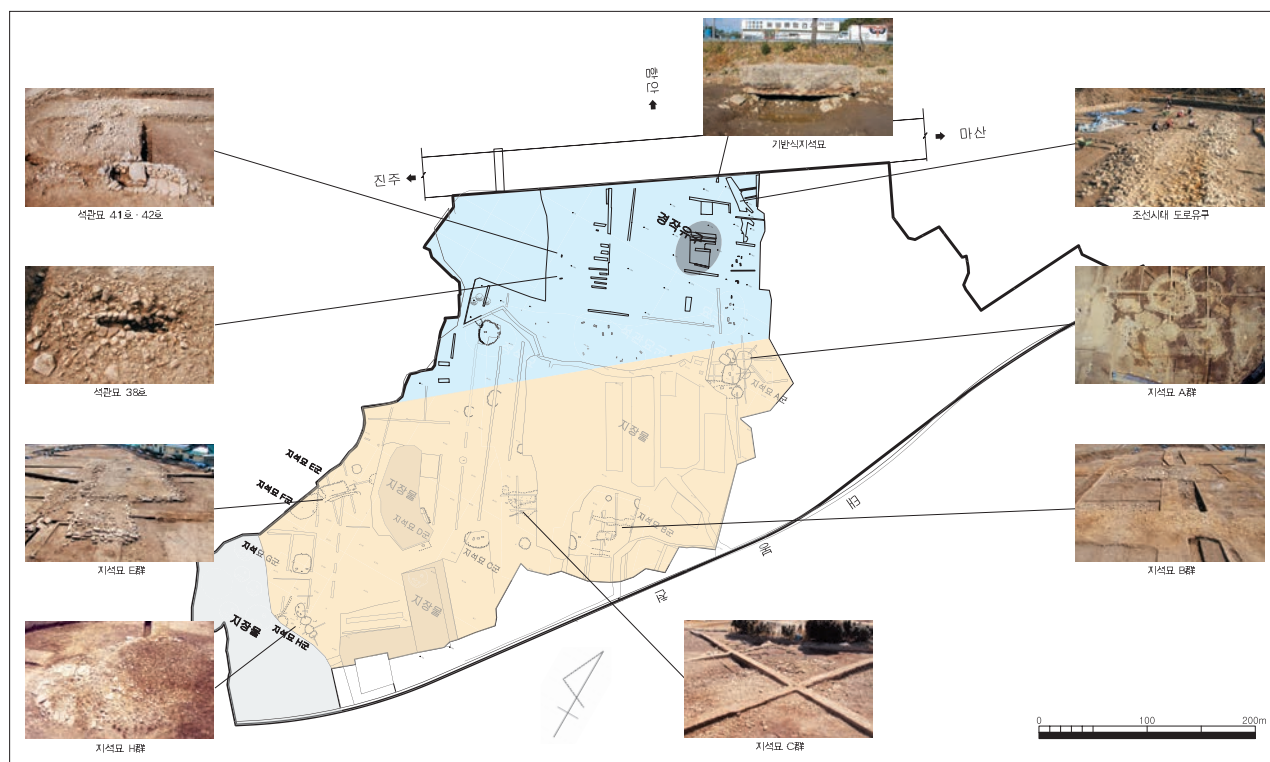
유적 소재지인 경상남도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는 동-서 방향으로 긴 대상의 능선이 국도 14호선까지 이어져 있고 그 사이에 경작지 및 농수로가 형성되어 있다. 조사지역 동쪽에는 태봉천, 서쪽에는 진동천이 위치하며 이들 하천이 조사지역을 감싸고 돌며 남해안으로 유입되는데, 이와 같이 하천과 바다가 접하는 지역으로서 범람원(Ⅰ지구)과 선상지(Ⅱ지구)로서의 입지적 특징을 보인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는 2002년 지표조사, 2003년 시굴조사를 거쳐 2004년 9월~2005년 5월까지 1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동기시대 묘역지석묘가 집중 분포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보존조치가 이루어지고 이후 2006년 10월~2006년 11월에 추가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의 지석묘 4기, 석관묘 45기, 밭 2기, 용수로 2기, 구 5기, 노지 3기, 삼국시대의 구 3기, 조선시대의 도로 1기가 보고되었다.

유적 위치도

본 유적은 청동기시대 지석묘, 석관묘, 밭 등이 중심이 되는 유적으로서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유구는 구 3기에 한정된다. 구는 선상지에 해당하는 Ⅱ지구에 입지하며 청동기시대 구와 중복조성되었다. 내부토층은 회청색점질토가 퇴적된 상태로 경작에 필요한 용수를 보관하거나 그와 관련된 시설물로 추정된다. 유물은 대각 편, 발형기대 편 등이 출토되었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8, 『마산 진동 유적Ⅰ』.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 『마산 진동 유적Ⅱ』.

유구 배치도

1호 구상유구

2호 구상유구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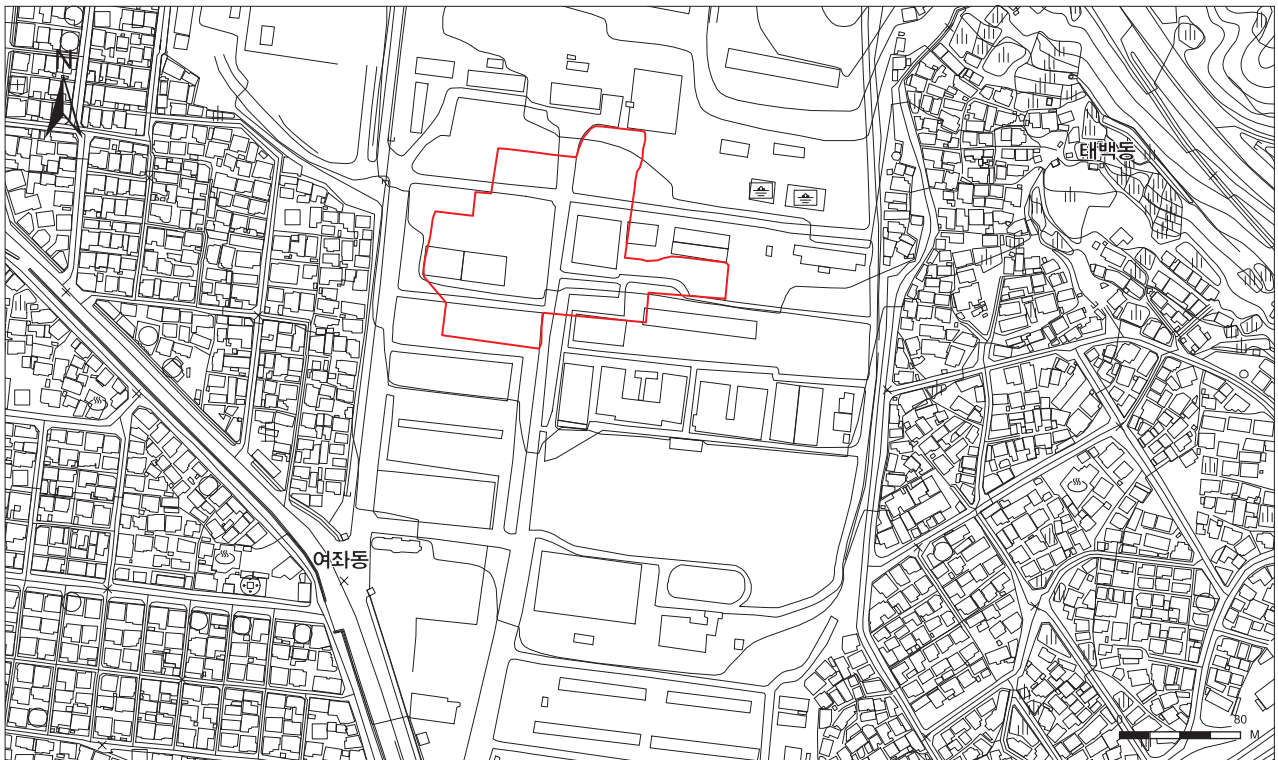
진해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1차 2014.4.~ 2015.4.
2차 2016.10.~ 2017.1.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수혈 / 외절구연고배, 통형고배, 노형기대, 발형기대, 승석문타날단경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생활유적으로 창원시가 추진하는 진해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해당된다. 2013년 해동문화재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년 10~12월까지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표본·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는 지장물의 미철거 등을 이유로 2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도로와 소나무 가로수가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부분완료된 상태이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61동, 수혈 77기, 구 5기, 주혈 등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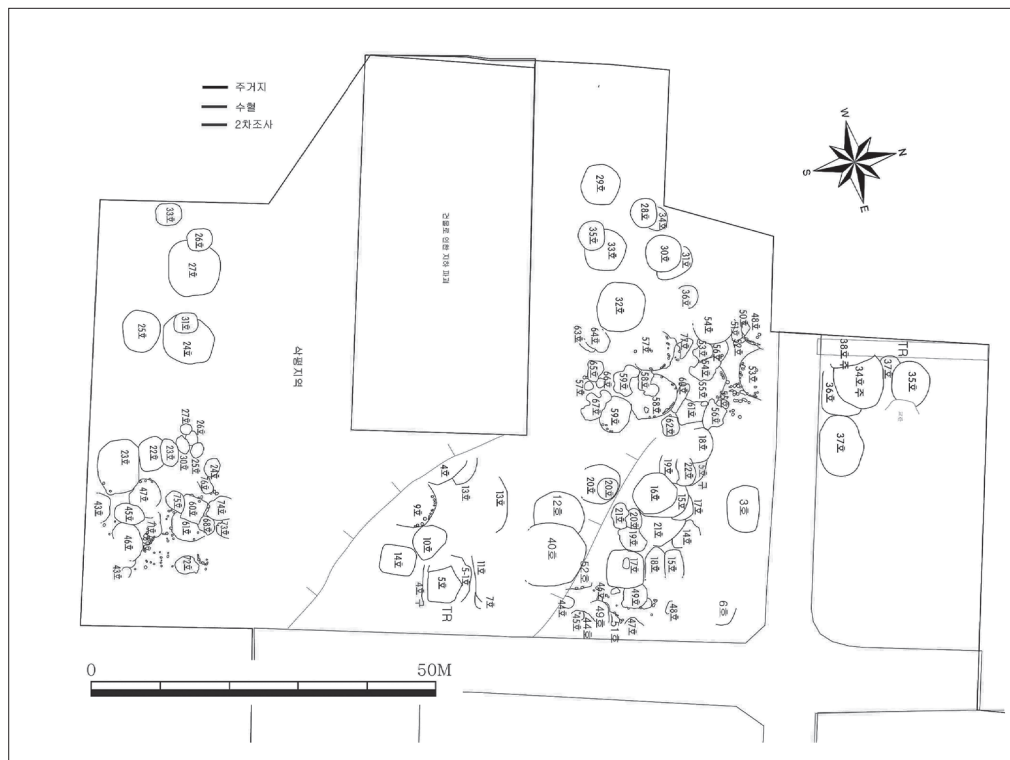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도불산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는 (구)해군교육사령부 부지에 해당하며, 발굴조사 당시, 도로시설과 사용되지 않는 군 시설물 등이 위치하였다. (구)해군교육사령부 부지 일대는 육군대학부지로 사용되던 때부터 군 시설물 조성,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대규모 현상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시설물 조성을 위한 대지의 평탄화작업이 다수 진

유적 위치도

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잔존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서쪽 구간은 수혈주거지가 집중 조성되었으며 동쪽은 취락 주변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유구의 밀집도가 낮은 구간이다. 수혈주거지가 밀집된 서쪽 상부의 일부구간은 유구 조성면이 2층 이상으로 중복되었으나 구릉 아래로 갈수록 삭토가 심해서 최하층의 유구만 잔존한다. 동쪽 구간은 구릉 상부 일부에만 수혈과 주혈이 유존하고 구릉의 아래쪽은 삭토되어 문화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계 59동, 방형계 2동으로 구분된다. 면적은 원형계>방형계로 나타나며 중복관계를 볼 때 방형계가 선축되었다. 다수를 차지하는 원형계의 구조적 특징은 벽주식과 무주식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무주식의 경우, 서까래가 어깨선 바깥 지면이나 주제대(토담)에 바로 걸쳐지거나 어깨선 바깥에 높지 않은 기둥을 세운 후 서까래를 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거지의 깊이는 온전한 경우 50cm 이상 잔존한다. 일부 주거지의 벽과 바닥은 점토를 발라서 불다짐하였으며, 내부에서는 부뚜막으로 추정되는 소결된 점토 덩어리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외절구연고배, 통형고배, 무개식팔자형고배, 파배, 발형기대, 노형기대, 승석문타날단경호, 연질옹, 연질호, 광구소호, 시루 등 다종다양한 토기가 출토되었다. 이중 고배는 부산·김해·함안·창원지역의 지역색이 모두 드러나며 노형기대는 김해지역보다 함안지역 양식의 출토량이 많다.

여좌동취락은 동쪽의 김해·부산지역과 서쪽의 함안·창원지역을 연결하는 점이지대

유구 배치도

조사지역 남쪽 전경

10호 수혈주거지

29호 수혈주거지

59호 수혈 유물 출토모습

로서 교두보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근의 진해 석동, 창원 적현동, 마산 현동유적 등 해안에 접한 유적들과 공통적 입지와 유물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해양교류를 직접 담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본 발굴조사를 통해 4~5세기대 진해지역의 삼국시대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 양상과 지역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7, 「진해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문화재 발굴조사 부분완료(2차) 약보고서」.

49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자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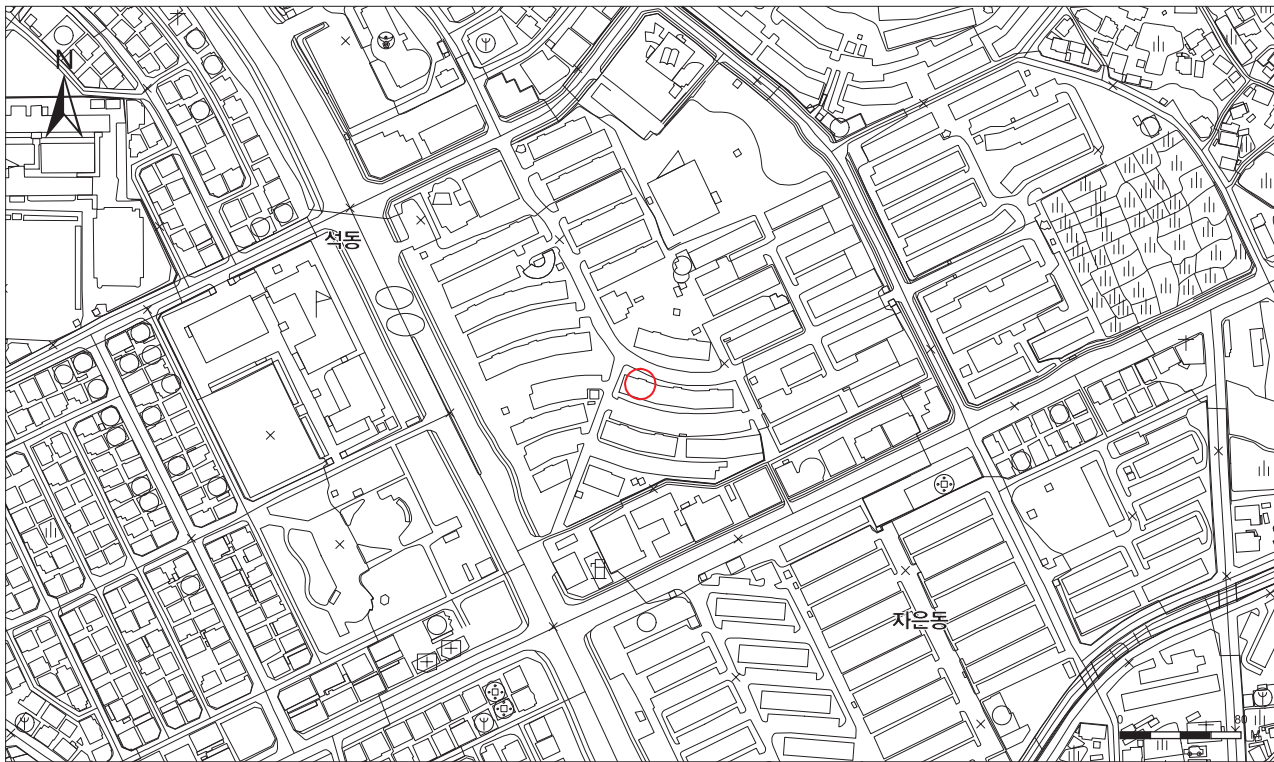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00.7.~2000.1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 단경호,
노형토기, 장동옹,
시루, 유대발

진해 석동유적 _ 진해 석동 주택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자은동 일대에 소재한 삼한시대 생활유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해당된다. 1999년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 삼강문화재연구원 시굴조사 후, 2001년 7월부터 약 120일간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수혈주거지 9동, 수혈 12기, 추정 고상건물 1동이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석동은 창원시 성산구와 진해구를 분리하는 불모산(해발 802m)의 남쪽에 위치한다. 지형상 이곳은 불모산과 장복산으로 연결되는 산지를 배후에 두고 오랜 시간 자연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이루어진 침식대지에 해당된다. 유구는 구릉 사면의 중간부에 집중 분포한다.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과 타원형으로 구분되며, 규모는 길이 441~820㎝, 너비 320~630㎝이고 잔존깊이는 최대 99㎝로 깊은 편이다. 내부시설은 화재주거지(1호)

유적 위치도

에서 바닥에 불탄 흔적과 난방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벽체가 경사면 윗부분 벽면을 따라 조사되었으며 벽구와 저장공으로 추정되는 수혈이 확인되었다. 바닥은 대부분 점토다짐 하였으며 불다짐한 것도 1동 확인된다. 증·개축 흔적은 조사되지 않았다.

수혈은 조사지역 북서쪽에 일정한 범위로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부정형>원형 순으로 나타나며, 규모는 길이 72~464㎝, 너비 71~352㎝ 정도로 다양하다. 규모가 2m 이상인 수혈은 공방으로, 2m 이하인 수혈은 저장공 내지 규모가 큰 유구의 보조시설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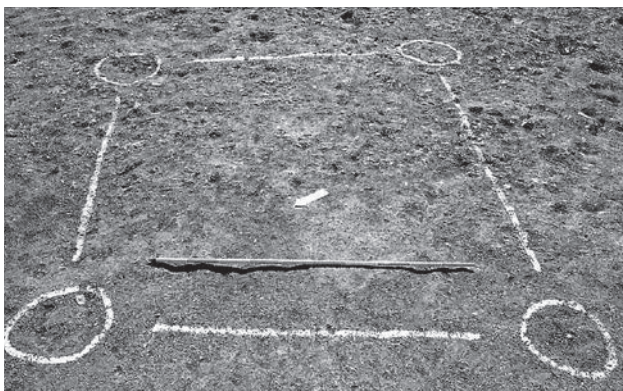
고상건물은 주거지와 이격된 조사지역 남서쪽에서 1×1칸 구조의 방형 건물이 1동만 조사되었다. 용도는 주거용과 창고 등 다양하게 추정된다.

유물은 대부분 토기류이며 소량의 철기류와 수정이 출토되었다. 토기 저부의 형태는 원저이며 경질의 타날문단경호, 와질의 노형토기, 연질의 옹, 장동옹, 시루, 유대발 등이 출토되었다. 유물의 편년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조성시기는 2세기 중반 이후에서 3세기를 넘지 않는 짧은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03, 『진해석동(2)주택개발사업지구 내 진해 석동 유적』.

1호 주거지

4호 주거지

고상건물지

4호 주거지 유물 출토모습

50 진해 남양동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08.6.~2008.10.

주요 유구 / 유물
구, 수혈 / 고배, 관, 부가구연장경호, 대호, 파수부옹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7번지 일대에 소재한 신석기·청동기·삼국·조선시대 생활유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남양지구 개발사업부지에 해당된다.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2005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서문물연구원에서 2008년 1~4월에 시굴조사 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신석기시대 수혈 8기,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2동, 삼국시대 구 6기, 수혈 및 주혈군 16기, 조선시대 구 2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인 남양동은 전체적으로 평발, 월남, 영길 등 3개 마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해구 중앙에 위치하는 구 웅천현의 끝자락과 웅동권의 경계부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은 자마산과 남동쪽 구릉 사이의 곡부에 해당하며 곡부에서 기원하는 소하천인 월남천은 대장천과 만나 바다로 유입된다. 전체지역은 남쪽의 밤갓산의 구릉 말단부가 비교적 완만하게 북쪽으로 떨어지고 북쪽의 구릉부는 경사면을 보이며 그 가까이에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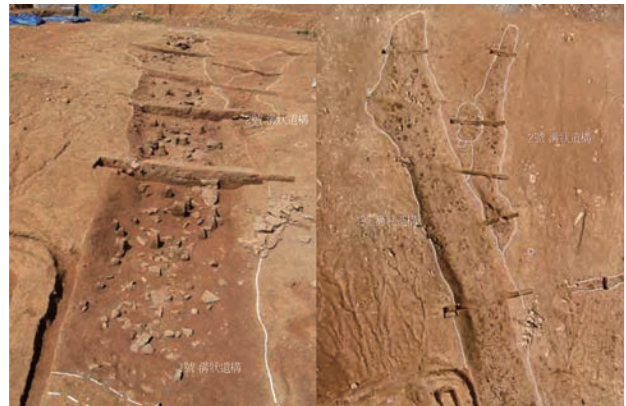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하천이 형성되어 있다. 북쪽 구릉 말단부에는 구릉성퇴적물이 쌓여 있다.

삼국시대 구와 수혈은 Ⅳ구역에 분포한다. 구는 등고선과 직교되게 설치된 것과 나란하게 설치된 것이 혼축되었다. 수혈이 구의 안쪽인 북쪽에 밀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북쪽의 월남마을이 위치하는 곳이 당시의 중심 생활공간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등고선과 직교하는 구는 이러한 생활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판단된다. 구의 규모는 최대길이 19.94m, 최대너비 4.4m, 최대깊이 0.52m이다. 수혈은 평면형태가 원형, 타원형, 세장방형, 구상, 부정형 등으로 다양하게 축조되었으며 주혈군과 함께 노출된 것도 있어 상부가 대부분 삭평되고 바닥만 잔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규모는 길이 150~954㎝, 너비 84~680㎝ 정도이다. 11호 수혈의 경우, 등간격으로 설치된 4주식 기둥 배치와 노지가 확인되어 기타 수혈과는 형태상 차이가 있다. 유구 내부에서는 고배, 완, 대호, 호 저부편, 부가구연장경호, 파수부옹, 방추차 등 6세기 후반의 신라양식 토기가 주로 출토된다. 이는 원삼국시대 수혈주거지가 조사된 진해 석동·용원 유적 인근 자마산의 웅천패총군에 이어 확인된 삼국시대 생활유적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삼국시대 고분 이외의 생활유적을 통해 삼국시대 생활상을 복원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1, 『진해 남양동 유적–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남양지구 개발사업 부지내 유적–』.

Ⅳ구역 유구 배치도

1·2호 구상유구

11호 수혈

51

신항만부지 안골 일대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창원대학교박물관 /
1999.3.

주요 유구 / 유물
패총 / 동물유체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대에 소재한 신석기·삼국시대 생활유적이다. 1998년 실시된 창원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 결과 부산 신항만 건설부지 일부가 진해구 안골동 일대의 문화유적분포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부산 신항만 건설사무소에서 창원대학교박물관에 시굴조사를 의뢰하여 4개소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안골동 신석기시대 패총유적(제Ⅰ지구)에는 신석기·삼국시대의 패총이 유존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조선시대 토기분포지와 추정 고분군(제Ⅱ~Ⅳ지구)은 유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안골동은 진해구의 동쪽에 위치하며 부산광역시와 인접한다. 이 일대의 지형은 불모산(해발 802m)이 동쪽의 화산(해발 798.4m)-굴암산(해발 662m)으로 이어지다, 다시 남향으로 보배산(해발 478.9m)-부인당산(해발 286.3m)-욕망산(배발 186.3m)으로의 지맥을 이룬다. 남해안과 인접한 욕망산 일대는 동·서·남쪽의 3면이 바

유적 위치도

유적 전경

다와 접하는 소 반도적 형태를 갖고 있으며,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가덕도, 연도, 제덕동남산이 욕망산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욕망산 일대는 해로를 따라서 진해만의 와성·웅동만으로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하는 지형적 중요성이 있는 곳이다. 특히 안골포는 포구가 좁고 만이 넓게 형성된 소위 항아리 모양으로 전술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조선시대에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였고 주변의 관방유적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시굴조사에서 보고된 내용은 대부분 유적의 분포 여부 및 신석기시대 후기로 편년되는 토기자료가 중심이 되어 삼국시대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는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동물유체가 출토되어 고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확보되었다.

참고문헌

창원대학교박물관, 1999, 『신항만부지 안골일대 유적 시굴조사 보고』.

52

진해 용원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산17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대학교박물관 /
1차 1994.3.~ 1994.4.
2차 1994.7.~ 1994.1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고상건물지, 패총 / 고배, 광구소호, 소형기대, 광구호, 발형기대, 소옹, 시루, 어망추, 철정, 지석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소재한 삼국시대 생활유적이다. 지표조사는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1982·1984·1988·1992년에 실시하였는데, 1994년 (구)한국토지공사에서 시공 중인 녹산공업단지 조성구역내에서 삼한시대의 것으로 알려진 용원패총 발견되어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긴급구제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1994년 3~4월에 진행된 1차 발굴조사 결과 패총의 두께가 예상보다 깊고 패총 주변에 수혈주거지 등의 유구가 집중된 것이 확인되어 동년 7~12월에 걸쳐 2차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수혈주거지 21동, 고상건물지 4동, 수혈 28기, 패총이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북동쪽의 보배산에서 해안으로 뻗어 내린 구릉 말단부와 이와 연결되는 돌출된 해발 26m의 독립 구릉의 정상부 및 남사면에 위치한다. 유적의 동쪽과 남쪽은 남해안과 면하고 서쪽은 안골포와 연접하지만 유적이 형성될 당시에는 바다와 맞닿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쪽은 불모산의 남쪽 사면부와 연결되며 국도 2호선이 지나간다.

유적 위치도

수혈주거지는 구릉의 정상부에 입지하며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 방형, 장방형으로 구분되는데 원형계→방형계의 중복관계가 확인된다. 공간 배치는 원형계가 중심부, 방형계가 구릉 서쪽에 분포하여 차이가 있다. 내부시설은 노지, 부뚜막, 고래, 주혈, 출입구 등이 조사되었으며 주혈의 경우 중앙에서 벽면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수혈주거지의 면적은 10㎡ 이하가 5동, 20㎡ 이하가 2동, 30㎡ 이하가 9동, 40㎡ 이하가 3동, 그 이상이 2동으로 구분된다. 수혈주거지 내부에는 당시 거주민이 직접 사용한 도구가 잔존하지 않아 인위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상건물지는 단 4동이 조사되었지만 평면형태는 1×1칸 구조의 방형 1동, 육각형 2동, 팔각형 1동으로 다양하다. 대부분 원형주거지와 중복되었는데 선후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 부정형 등이며 저장혈의 용도로 추정된다. 배치양상을 볼 때 대부분 수혈주거지와 인접한 구릉 사면부에 수혈주거지와 중복 없이 조성되어 수혈주거지의 부속시설로 추정된다.

패총은 수혈주거지의 남쪽 사면부에 위치하며 규모는 길이 30m, 너비 15m, 최대깊이 1.7m 정도이다. 토층은 15개의 층위로 세분되나 상·중·하층의 3개 층으로 대별된다. 패총은 정상부에서 아래쪽으로 퇴적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시기적으로 정상부에 가까운 것들이 먼저 퇴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에서는 고배, 파배, 노형토기, 유대파수부호, 단경호 등의 토기류 이외에도 다양한 식물유체(조·보리 등), 동물유체(소·개·사슴·멧

유구 배치도

돼지·노루·수달·너구리·강치·돌고래·참돔·꿩·청둥오리·가마우지 등), 어패류(소라·전복·백합·꼬막·굴·바지락 등)가 출토되어 당시 생업이 농업보다는 어로 중심인 것을 알 수 있다.

수혈주거지와 패총에서 출토된 다수의 유물을 통해 볼 때, 본 유적의 조성시기는 3~4세기대로 추정되며 인접한 낙동강 하류 지역의 동시기 유물과 큰 차이가 없어 주변 지역과 교류가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패총에서 출토된 하지키나 유대파수부소호 등을 통해 일본 지역과 교류한 흔적이 확인된다.

진해 용원유적은 3~4세기대 창원지역 취락의 생업 및 교류에 관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 의미 있는 유적이다.

참고문헌

동아대학교박물관, 1996, 『진해 용원유적(제1·2차 합집)』.

유적 전경

4호 수혈주거지

15호 수혈주거지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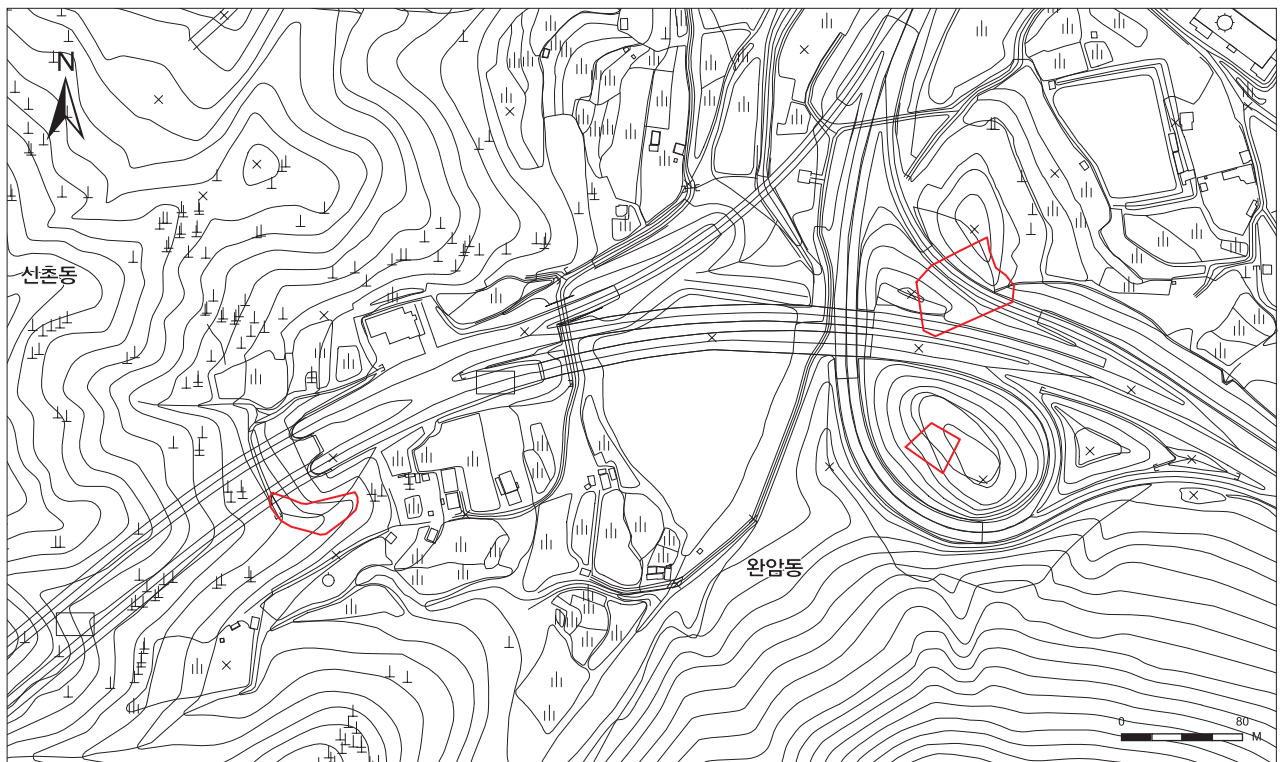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동 산9-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해동문화재연구원 /
1차 2010.3.~ 2010.4.
2차 2012.5.~ 2012.9.

주요 유구 / 유물
토기가마, 석실묘 /
개, 대부완, 병, 토기 구연부

창원 창곡·완암동 유적 _ 창원 국도 2-25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구간 내 유적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동 산9-2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산업생산·무덤유적 및 청동기·고려~조선시대 무덤유적으로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국도 2-25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구간에 해당된다. 지표조사는 2006~2007년에 걸쳐 동서문물연구원에서 실시하였으며, 해동문화재연구원에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3차에 걸친 시굴조사 후 순차적으로 2차 발굴조사까지 완료하였다. 조사지역은 3개 구역(A~C)으로 이격되어 있으며 삼국시대 유구는 A·B구역에 분포한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석관묘 1기, 삼국시대 토기가마 3기, 삼국~통일신라시대 석실묘 1기, 고려~조선시대 분묘 75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인 창곡·완암동 일대는 창원시의 남쪽 외곽에 위치하며, 장복산(해발 582m)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능선의 사면부에 해당한다. 북쪽으로는 완암천이 흘러 남천으로 유입되며, 구릉 말단부에는 완만한 선상지가 발달되어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적당한 곳이나, 현재는 농경지 및 공장지대로 이용되고 있다. 이 지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공단

유적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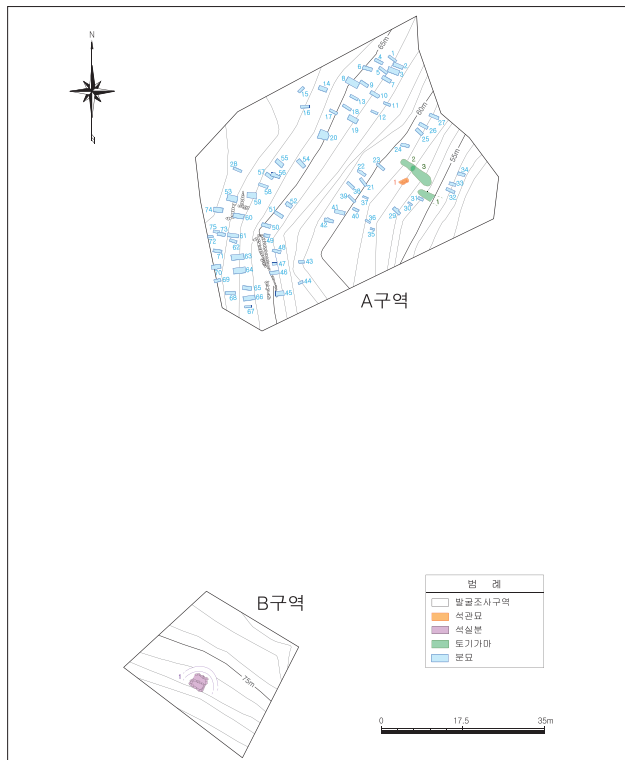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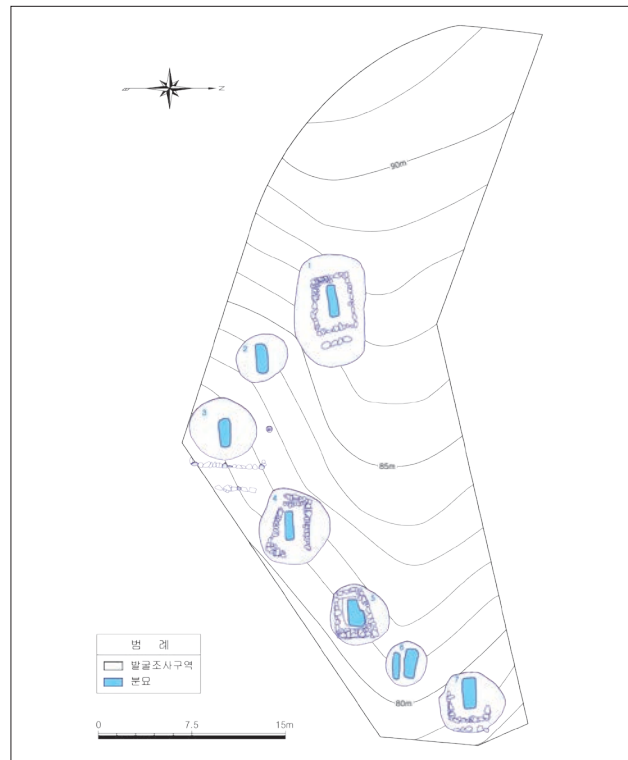
화로 인하여 민간마을이 거의 소멸되었으며, 현재는 중공업 공단이 조성되거 있거나 산지에 대한 계단식 경작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현상변경 행위가 다수 실시되었다.

토기가마는 잔존상태가 양호한 3호의 경우 연소실, 소성실, 천정부가 잔존하나 1호는 소성실, 2호는 소성실, 화구부, 불턱 등 일부만 잔존한다. 등고선과 직교하는 평면형태 장주형의 반지하식등요로 판단되며 잔존 최대규모는 길이 550㎝, 너비 129㎝, 높이 60㎝ 정도이다. 파악가능한 가마의 경사각도는 30°로 급한 편이며 보수의 흔적은 조사되지 않았다. 유물은 횡침선문·승문·사격자문 등이 시문된 토기 구연부 편, 저부 편, 파수부 편과 고배 배신부 편 등이 출토되었다. 유물의 편년을 통해 볼 때 가마의 조업시기는 6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석실묘는 비교적 경사가 급하고 높은 산지에 1기만 조영되었는데 반지상식의 횡구식석실묘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 묘광의 규모는 길이 333㎝, 너비 230㎝, 깊이 90㎝, 석실의 규모는 길이 235㎝, 너비 105㎝이다. 호석과 주구 등 부속시설물이 잔존한다. 벽석은 최대 4단까지 잔존하며 시상이 설치되었다. 입구부는 폐쇄석이 설치된 동단벽으로 추정되나 묘도부나 추가장의 여부는 삭평이 심하여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서단벽 쪽에서 병, 개, 대부완 등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창곡·완암동유적의 조사를 통해 경남지역에서 6세기 후반경의 토기가마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조사의의가 있다. 다만, 석실묘의 경우 주변지역에 대규모 현상변경이 진행되어 명확한 유적의 분포양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해동문화재연구원, 2014, 『창원 국도 2-25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구간내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창원 창곡·완암동 유적』.

A·B구역 유구 배치도

C구역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B구역 1호 석실묘

A구역 1·2·3호 토기가마 밀집양상

A구역 1호 토기가마

A구역 2호 토기가마

54 창원 성산패총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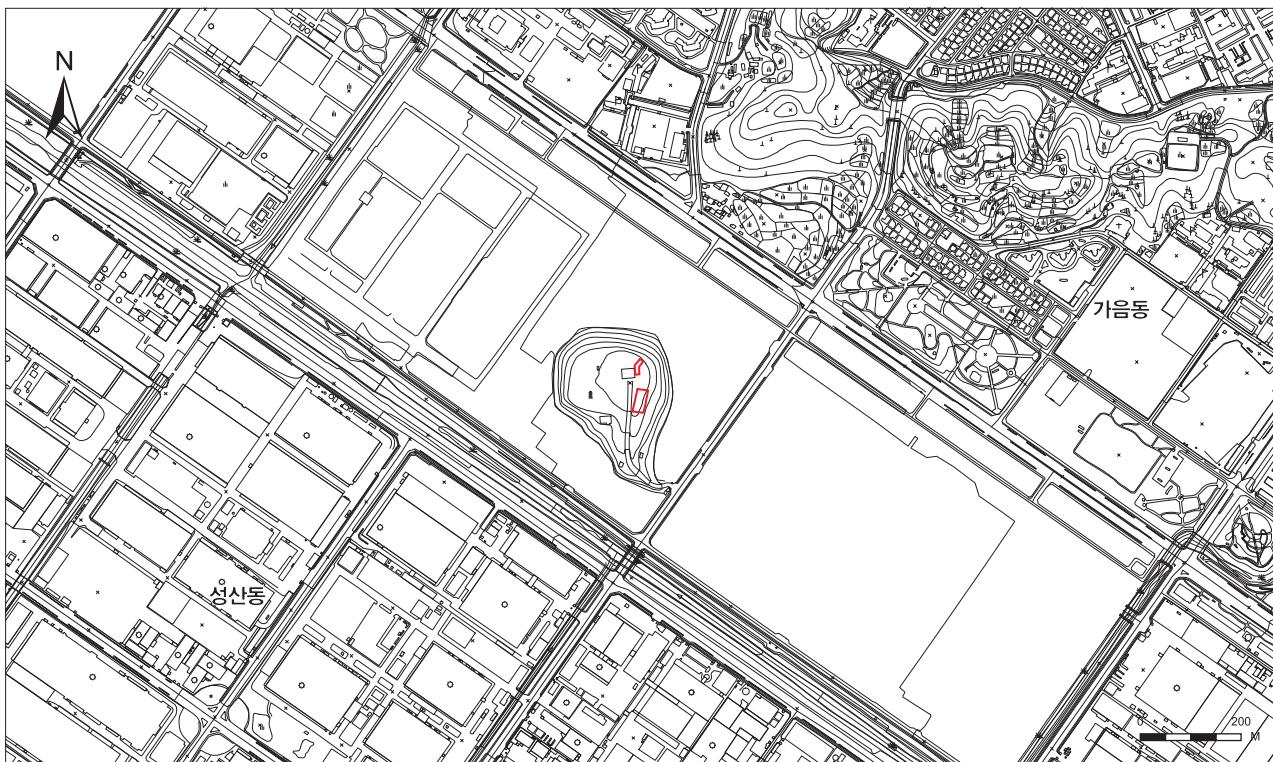
| 사적 제240호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
853-7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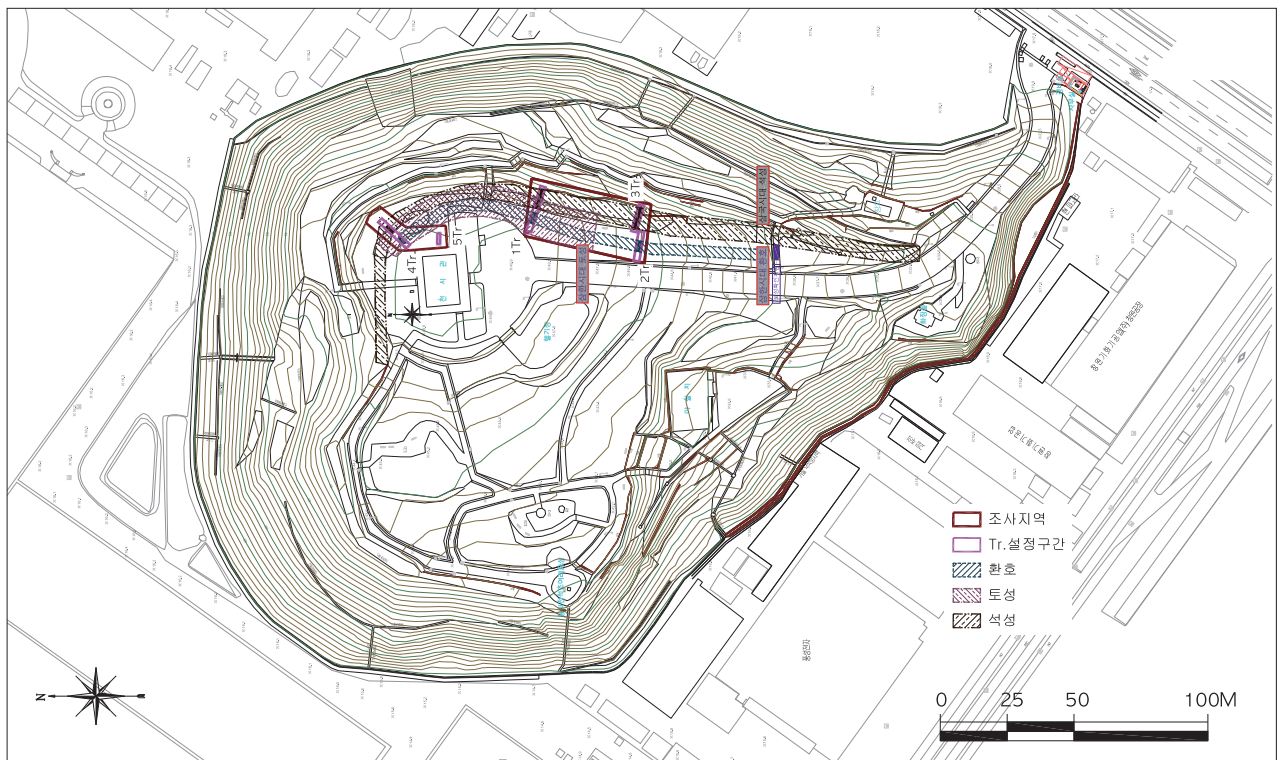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시굴 2016.12.

주요 유구 / 유물
환호, 토성벽, 석성벽 /
토기

성산토성은 성산패총 내에 위치하고 있다. 성산패총은 삼한시대가 중심이 되는 패총으로 상한시기는 청동기시대 전기까지 소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는 삼한시대 야철유구를 비롯한 환호 등이 조사되었다.

본 유적에 대한 조사 결과 삼한시대 후기에 조성된 환호가 1·2·4트렌치에서 확인되었는데, 환호는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2트렌치의 경우, 좌안의 암맥을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잔존상황이 좋은 1트렌치를 기준으로 하면 단면은 상부의 폭이 넓고 하부의 폭이 좁은 'U'자형이다. 잔존한 상부 폭은 4m, 하부 폭은 0.45m로 하부가 좁다. 잔존 깊이는 2.75m이다. 그러나 환호 좌안의 둑을 기준으로 하면 깊이와 폭이 더 깊고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4트렌치에서는 환호의 굴착 시작점이 확인되어 이 근처에 출입시설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호 내부에서는 삼한시대 무문토기 1점과 와질토기가 확인되어 삼한시대 후기에 환호를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 위치도

삼국시대 토성은 1·4트렌치에서 확인되었지만, 이후 석성을 조성하면서 절토하거나 토성 상부가 현대교란으로 훼손되면서 원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트렌치 환호 내부의 성토층은 1,·4트렌치에서 확인된 성토 물질이 달라 토성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확실한 토성은 구릉정상부 평탄지에서만 확인된다. 토성의 축조방법은 1트렌치의 경우 환호 좌안 둑(주로 풍화암반층이며 일부 성토층)과 환호 우안의 풍화암반층을 완만한 'L'자형으로 굴착하거나 4트렌치의 경우처럼 풍화암반층을 'U'자상으로 굴착하여 유기물, 목탄, 유물이 많이 포함된 흑회색 역혼입 사질실트로 성토하였다. 일부구간에는 휴지기에 생긴 유수퇴적층이 확인되었고 모래와 실트를 반복 성토한 유사판축형식의 축조법도 확인되었다. 주로 수평으로 성토하였지만 일정한 성토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일부 성토층 사이의 풍화암반층에서는 목주흔이 확인되기도 하였지만 영정주와 횡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잔존 토성의 폭은 1트렌치에서 최소 15m가 확인되었고, 4트렌치에서는 최소 6.5m인데 'U'자형 굴착면을 토성의 굴착면으로 간주하면 최소 12m에 이른다. 잔존 높이는 1~2.6m로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석축 성벽은 구릉정상부의 평탄부에 설정한 1, 4트렌치에서는 토성의 외부인 동쪽, 3트렌치에서는 풍화암반층을 완만한 'L'자형으로 2단 굴착하여 석성의 성벽을 축조하였다. 면석하부는 거력급의 석재로 정연하게 축조하였고 면석뒤채움은 거력급의 석재로 다수 무질서하게 뒤채움 한 것을 알 수 있다. 내벽은 허튼층쌓기로 마무리 한 것이 확인되었다. 석축 성벽이 비교적 양호하게 잔존하는 1, 3트렌치에서 확인된 성벽의

유구 배치도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17, 「창원 성산패총(사적 제240호)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폭은 8.2m이며, 현재 내벽은 약 1.7~2.37m가량 잔존한다.

이외에도 조선시대 후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축성이 조사되었다.

1트렌치

석성 면석하부

석성 면석하부

55

창원 마천유적 _ 웅동~장유 국도 건설공사구간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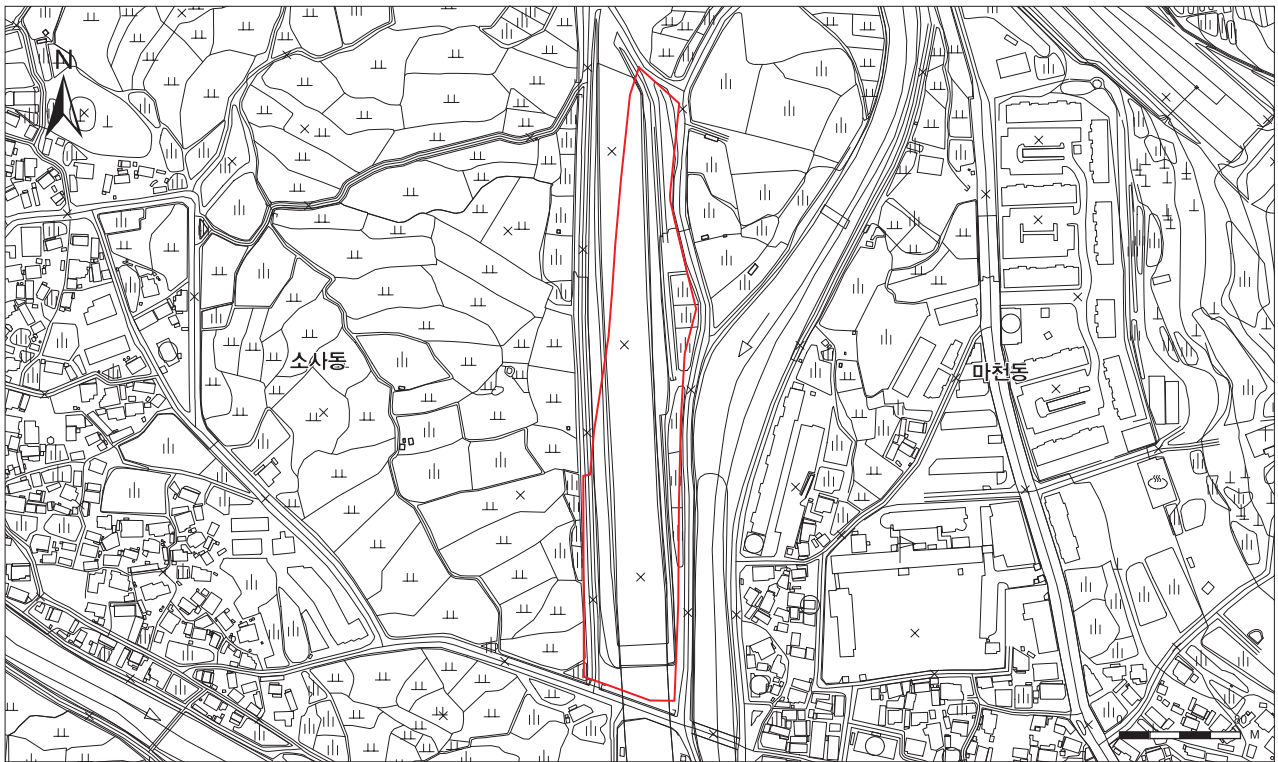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7-9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10.11.~2011.7.

주요 유구 / 유물
도로 / 개, 철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시 소사동 7-90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교통통신유적 및 청동기·조선시대 생활·무덤유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한 웅동-장유간 국도건설국간에 해당된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2004년 2월에 지표조사, 2010년 4~6월에 시굴조사 실시 후 발굴조사까지 전담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석관묘 2기, 집석유구 9기, 삼국시대 도로 3기, 구 1기, 조선시대 석축유구 1기, 소성유구 4기, 시대미상의 수혈 1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화산과 굴암산 사이에서 발원하는 대장천과 용추폭포에서 발원하는 부암천의 합류부에 해당되며, 대장천의 우안에 위치한다. 조사지역은 좁고 긴 형태로 A~D 구간으로 설정하여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삼국시대 유구는 조사지역 남쪽에 치우쳐 위치한다.

도로와 구의 진행방향은 모두 동-서방향으로 1호 도로의 상부에 2호 도로가 조성되

유적 위치도

었으며 3호 도로는 1호 도로와 약간 이격된 지점에 2호 도로와 나란하게 위치한다. 도로는 축조방법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1호 도로는 구지표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수레바퀴만 지나갔으며, 2호 도로는 구지표면을 정지한 후 5~20㎝ 크기의 천석을 이용하여 노면을 구축하였고, 일부는 구지표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3호 도로는 수혈을 굴착한 후 내부에 다시 천석을 메워서 이용한 도로이다. 조사된 수레바퀴의 폭은 6~30㎝로 다양하며 윤거 폭은 130~180㎝ 정도로 추정된다. 도로의 상한연대는 출토유물로 보아 6세기 전반으로 판단된다.

도로는 일부만 조사되었지만 진행방향은 소사동에서 부암천으로 향하고 있다. 조사지역 일대의 지형은 조사 당시 매립되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도로가 사용되던 당시의 해안은 대장천과 부암천이 합류하는 지점까지 올라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들 도로의 동쪽 끝 지점은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이어지며, 이는 도로의 기능이 바다에서 육지, 육지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통행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유적에서 조사된 도로는 진해지역에서 처음 조사된 도로로서 남해안 지역에서 조사된 다른 도로들과 함께 삼국시대 도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유구이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3, 『웅동-장유간 국도 건설 공사구간 내 창원 마천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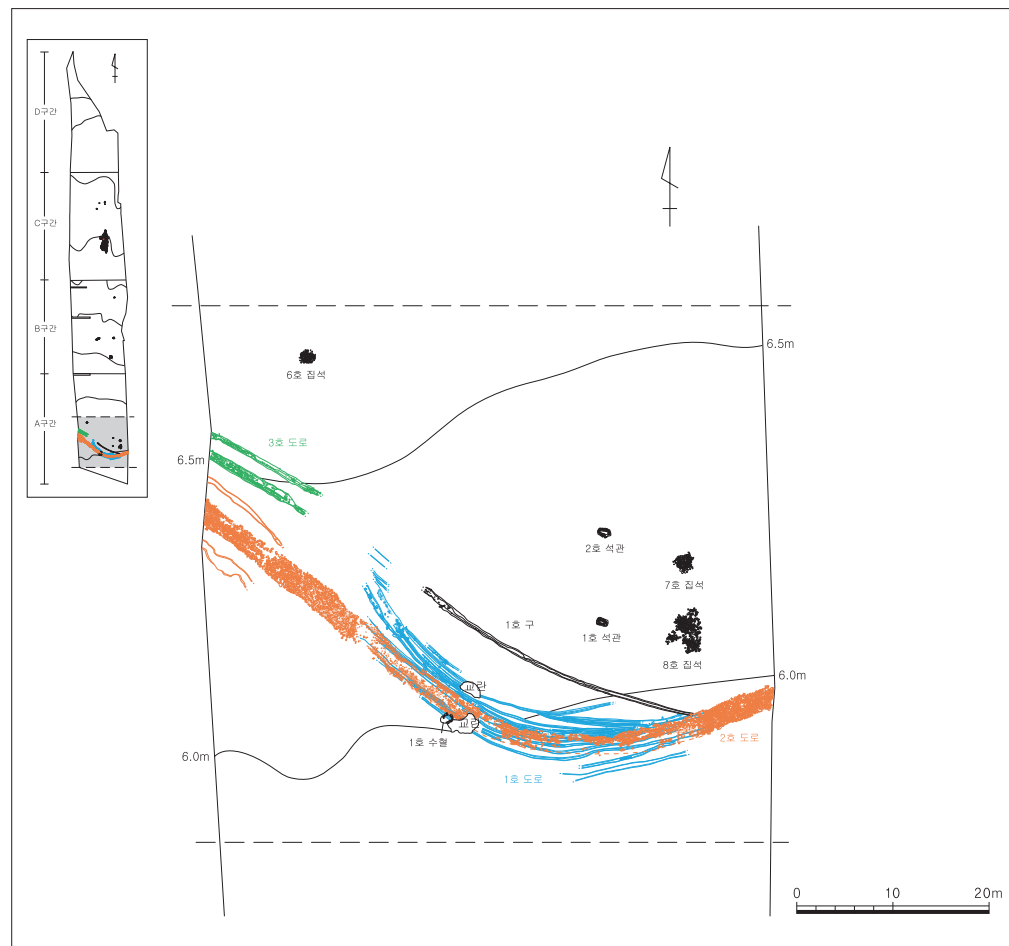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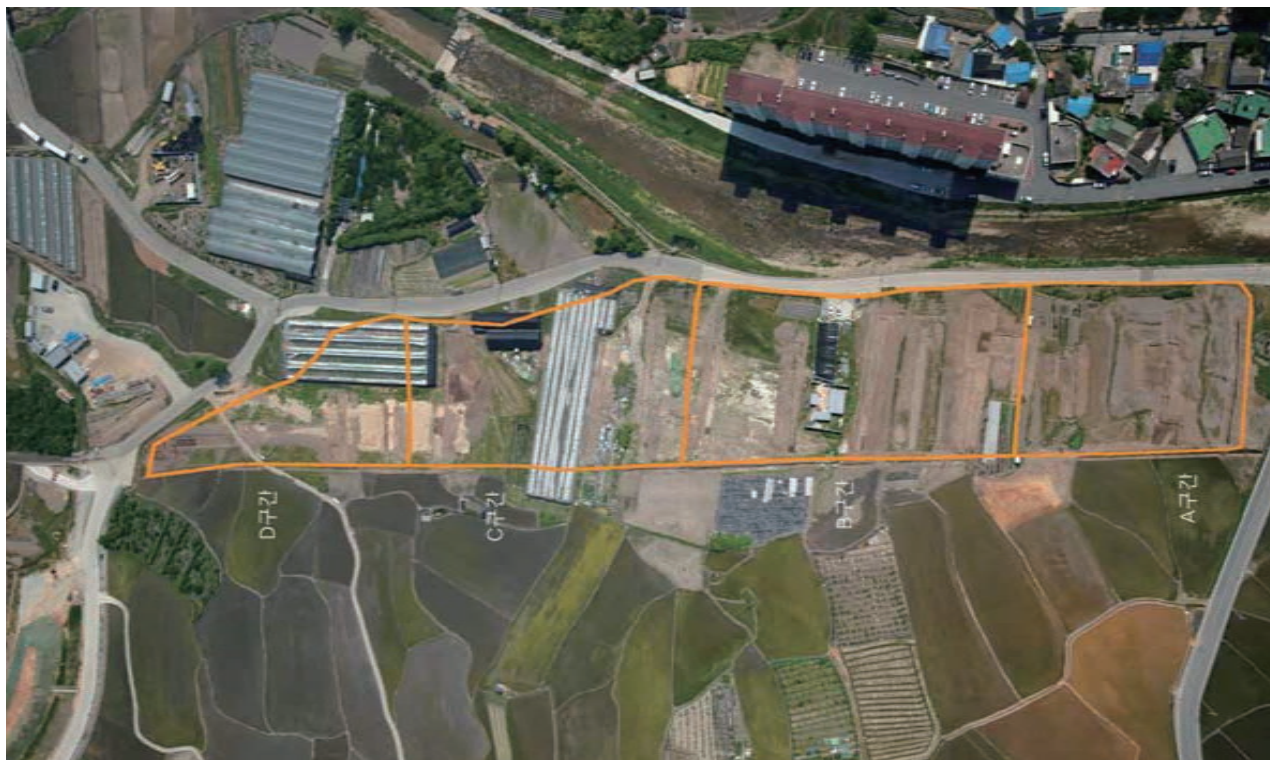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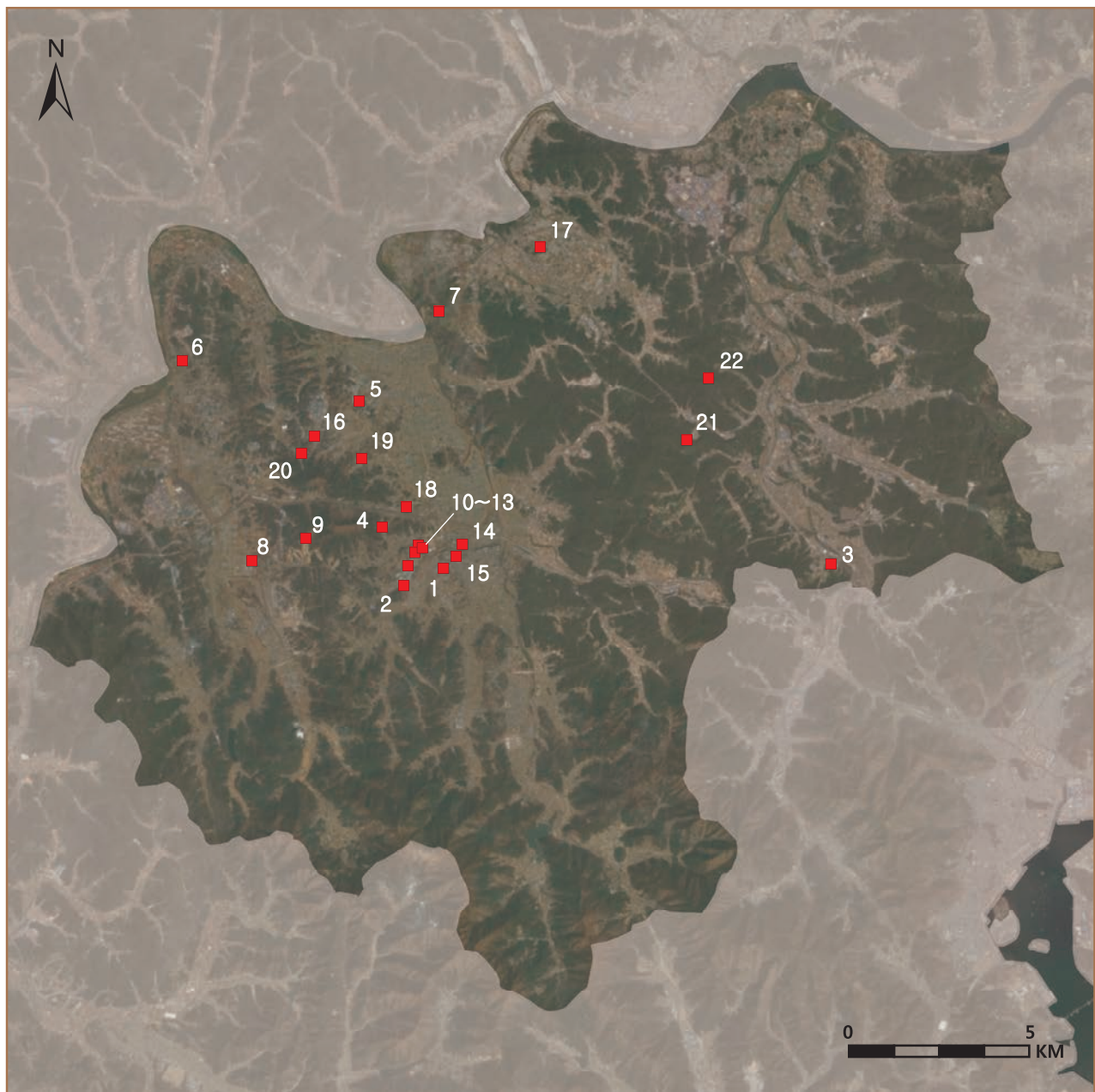
A구간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호 도로

2호 도로

長峴
楓灘
月羅峙
大浦
長安川
咸安
巴水
冬至山
大川
防禦山
玄武
西
眉山
別川
伯東山
巴山
餘杭山
大峴
城岾
匡廬山
斗尺山
左漕
馬山浦
舡頭山
武陵山
松峙
安谷山
城山
青庵山
近珠
積石山
鎭海
海
栗峙
赤峴
清涼山
大酒

Ⅱ. 함안

01 함안 말이산고분군

咸安 末伊山古墳群

| 사적 제515호

함안 말이산고분군은 사적 제51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 면적은 525,221㎡로 아라가야의 최대 고분유적이다. 고분군의 주능선과 가지능선을 따라 127기의 봉토분과 1,000기 이상의 중소형 묘가 밀집하여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함안 말이산고분군은 1910년도 세키노 타다시에 의해 최초로 지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발굴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리이 류죠의 1호분(추정) 발굴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917년에는 이마니시 류에 의해 봉토분에 대한 일련번호가 부여되었으며, 4(구34)·25(구5)호분이 발굴조사되었고, 이에 대한 내용은 1920년 발간된 『대정6년도고적조사보고』를 통해 보고되었다. 1918년에는 야쓰이 세미이쓰에 의해 13(구16)호분과 12(구26)호분이 조사되었으나 정식보고되지 않았으며 도면과 유리건판 사진 몇 매만 잔존한다.

해방 이후 1981년 시작된 「가야문화권 학술조사」의 일환으로 창원대학교박물관에 의해 1986년 말이산의 주능선에서 가지능선으로 뻗은 곳에 위치한 수혈식석곽묘 2기(14-1·2호)의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1990년대에는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말이산고분군의 발굴조사가 주도되었다. 이 시기에는 주로 가지능선의 대형과 중소형 봉분 및 주변부 유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아라가야 지배층의 고분문화 전반을 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 조사된 대형봉토분은 5·8·15·22·35(암각화고분)호분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개발에 따른 구제발굴과 봉토 축조수법 등의 규명을 위한 학술조사 등이 병행되었는데, 특히 2006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6호분 발굴조사는 효율적인 조사방법의 적용을 통해 아라가야 대형 봉토분의 축조공정 및 그 원형을 복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후, 2013년 함안군에서는 유적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함안 말이산고분군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격규명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유적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주능선과 가지능선 상의 대형 봉토분에 대한 학술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조선총독부, 1920, 『대정6년도고적조사보고』.

함안박물관, 2013, 『말이산』 함안박물관 개관10주년 기념 특별전 도록.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함안 도항리 가야고분군	창원대학교박물관	1986.11.~1986.12.	함안 도항리 가야고분군 발굴조사예보(1987)
2	함안 암각화고분	창원문화재연구소	1991.4.~1991.7.	함안 암각화고분(1996)
3	함안 마갑총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2.6.~1992.7.	함안 마갑총(2002)
	함안도항리101-5번지 마갑총 주변유적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1.4.~2001.5.	함안 마갑총(2002)
4	함안 도항리고분군 -1차 발굴조사 유적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2.10.~1992.12.	함안 도항리고분군 I (1997) 함안 도항리고분군 II (1999)
5	함안 도항리고분군 -2차 발굴조사 유적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3.4.~1993.8.	함안 도항리고분군 II (1999) 함안 도항리고분군 III (2000)
6	함안 도항리고분군 -3차 발굴조사 유적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4.5.~1994.8.	함안 도항리고분군 V (2004)
7	함안 도항리고분군 -4차 발굴조사 유적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5.4.~1995.6.	함안 도항리고분군 III (2000) 함안 도항리고분군 IV (2001)
8	함안 도항리고분군 -5차 발굴조사 유적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6.5.~1996.8.	함안 도항리고분군 IV (2001)
9	도항리·말산리유적	경남고고학연구소	1997.12.~1998.10.	도항리 말산리 유적(2000)
10	함안 말산리 451-1번지 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2.4.	함안 말산리 451-1번지 유적(2004)
11	함안 도항리 6호분	동아세아 문화재연구원	2005.1.~2005.12.	함안 도항리 6호분(2008)
12	함안 도항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동아세아 문화재연구원	2005.8.~2005.9.	함안 도항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2007)
13	함안 도항리 6-1호분	동아세아 문화재연구원	2005.9.~2006.1.	함안 도항리고분군-함안 도항리 6-1호분(2008)
14	함안 도항리고분군 -도항리 428-1번지 유적	경상문화재 연구원	2009.1.~2009.3.	함안 도항리 고분군-도항리 428-1번지 일원(2011)
15	함안 말이산 100·101호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4.1.~2014.7.	함안 말이산 100 · 101호분(2016)
16	함안 말이산 21호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4.12.~2015.3.	함안 말이산 21호분(2017)
17	함안 말이산고분군 제25·26호분	우리문화재 연구원	2015.2.~2015.12.	함안 말이산고분군 제25 · 26호분(2018)
18	함안 도항리 527번지 말이산고분군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2016.2.~2016.4.	함안 말이산고분군 정비사업부지 내 함안 도항리 527번지 유적(2018)

01-1 함안 도항리 가야고분군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94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창원대학교박물관 / 1986.11.~1986.1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식석곽묘 / 고배, 개, 개배, 발형기대, 등자, 재갈, 환두대도

함안 도항리 14-1·2호는 가야문화권학술조사 3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봉토를 제거하지 않고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파괴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식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았으며, 영남고고학보에 개보가 수록되어 있다.

14-1호는 14호분과 15호분 사이에 위치하며 조사전 도굴갱이 3곳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봉분 외연이 일부 확인된 봉토분이다. 봉분의 규모는 직경 약 18m, 높이 4.5m로 추정된다. 봉토는 암반층 위에 황갈색점토층을 25㎝ 두께로 쌓았는데 이는 석곽 밀봉토로 파악되며, 그 위로 황갈색혼석점토층을 1m 정도로 쌓아 성토하였다. 다시 그 상부에 40㎝ 두께의 갈색부식토의 표토층이 형성되어 있다.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묘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7.2m, 너비 1.3m, 높이 1.45m이다. 개석은 모두 12매 정도를 횡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완전하게 잔존하는 것은 5매이다. 벽석은 점판암계통의 석재를 판상으로 가공하여 축조하였고, 봉토의 토압으로 인해 장벽은 대부분 무너져 버렸지

유적 위치도

만 양 단벽은 양호하게 잔존한다. 바닥에는 자갈돌과 할석을 이용하여 시상을 마련하였고 내부공간은 3공간으로 구분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순장이 행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유물은 대부분 도굴되어 토기류 정도만 잔존한다.

14-2호는 18호분쪽으로 약 55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봉토분이다. 봉분의 양상은 파악되지 않았으며,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묘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7.5m, 너비 2.1m이며 석곽은 길이 6.75m, 너비 1.25m, 높이 1.25m이다. 판석으로 벽석을 축조하였는데, 동단벽의 3단과 4단은 괴석을 사용한 특징을 보인다. 바닥에는 7㎝ 내외의 자갈돌과 할석을 사용하여 시상을 마련하였다. 내부는 유물 공간-주피장자 공간-순장자 공간의 3분할 구분하였고, 순장자 공간에서는 1개체의 인골이 확인되었다. 조사보고 당시에는 순장자인지 주피장자와 동등한 신분의 추가장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부피장자로 명명하였으나 이후 조사된 말이산고분군의 양상으로 볼 때, 순장자로 파악된다. 유물은 고배, 파배, 발형기대 등의 토기류와 환두대도, 철촉 등의 무기류, 등자, 재갈, 행엽, 이형철기 등의 마구류, 유자이기 등의 의식구 및 경식 등의 장신구류가 출토되었다. 14-1·2호의 축조연대는 5세기 정도로 편년된다.

14-1·2호는 해방이후 말이산고분군에서 조사된 최초의 정식발굴조사로 이를 통해, 말이산고분군 대형 봉토분의 매장주체부 구조와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추연식, 1987, 「함안 도항리 가야고분군 발굴조사예보」, 『영남고고학보』3.

14-1호분 석곽

14-2호분

14-2호분 유물 출토모습

01-2 함안 암각화고분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763-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창원문화재연구소 / 1991.4.~1991.7.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식석곽묘 / 고배, 개, 개배, 장경호, 사이부호, 등자, 운주, 재갈, 행엽, 환두대도, 찰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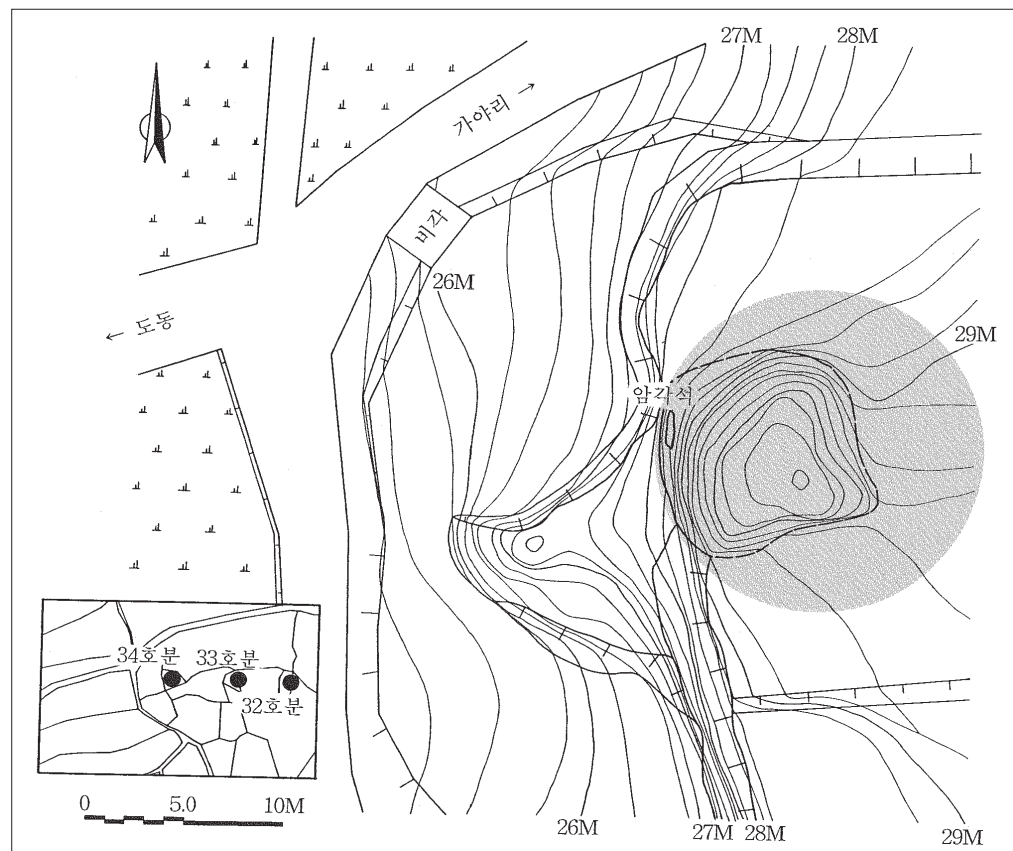
함안 암각화고분(말이산 35호분)은 말이산고분군 구릉의 남쪽 끝부분에서 서쪽으로 뻗은 지능선상의 제일 끝자락에 위치하며 해발 28.9~31.2m 선상에 입지한 원형분으로 매장주체부는 남-북향의 수혈식석곽묘이다. 암각화고분군 발굴조사범위 내에서 청동기시대 원형주거지 1기, 지석묘 8기가 조사되었다. 암각화고분이라는 명칭은 암각화가 새겨진 상석을 갖춘 지석묘(다호 지석묘) 상부에 말이산 35호분의 봉분이 덮고 있었으며 암각화가 그려진 면이 봉분의 서쪽 사면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 암각화석의 실체와 가야 봉토고분 간의 관계규명 및 암각화보존대책 수립을 위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암각화고분이라는 명칭이 부여되게 되었다.

암각화고분의 봉분 규모는 최대직경 12.5m, 최고높이 2.5m 정도인 원형상이지만 분구의 동쪽과 남쪽이 경작에 의해 유실되었으며 동, 남, 북쪽에는 대형 도굴 구덩이가 뚫려져 있었다. 봉토는 모두 4개 층으로 구분된다. 회황색점토층으로 이루어진 Ⅳ층은 담

유적 위치도

회갈색, 명갈색, 갈색의 점토층을 판축상으로 성토하였고, 봉토의 동쪽과 북쪽에만 집중적으로 성토한 Ⅲ층은 회색점토와 황색암반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Ⅳ층과 동일하게 판축상으로 축조하였다. 봉토의 외부 전역을 덮은 Ⅱ층은 회색점토층으로 수평상으로 성토하였다.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묘로 지하식의 구조이며 묘광은 퇴적층인 무문토기시대 문화층과 그 아래의 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개석은 4매 잔존하고 총 10~13매 정도로 추정된다. 개석 상부에는 점성이 아주 강한 회색점질토와 작은 할석으로 밀폐하였다. 석곽은 장단비가 5:1이 넘는 세장방형으로 봉토의 동남쪽으로 치우쳐 축조된 상태이다. 석곽은 함몰과 도굴 등으로 원상이 훼손되었으며 남쪽 단벽 정도만 원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바닥면은 소형 자갈돌로 1벌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으며 유물은 남쪽 단벽 부근에서 대부분 출토되었다. 남쪽 단벽 아래에서는 순장 인골 2구가 확인되었는데, 매장주체부 장축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매장되었다. 유물은 도굴이 심하여 많은 양은 출토되지 않았으며, 순장자 부근에서 토기류와 마구류, 무구류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류가 86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철기류는 30여 점으로 소량이다. 암각화고분의 연대는 출토된 토기류를 통해 기원후 6세기 전반경으로 편년된다.

참고문헌

창원문화재연구소, 1996, 『함안암각화고분 –함안도항리 암각화고분·지석묘발굴조사보고–』.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수혈식석곽

암각화 전경

암각화고분 유물 출토모습

01-3 함안 마갑총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103-4·101-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1992.6.~1992.7.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고배, 발형기대, 마갑, 철제주, 환두대도

마갑총은 말이산고분군의 북쪽 구릉상에 위치하며 아파트공사현장에서 우연히 발견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마갑총의 조사(1992년) 당시 인근에 원삼국시대 목관묘 1기가 조사되었으며, 2001년 마갑총에서 불과 20m 떨어진 주택신축부지 공사장에서 2기의 수혈식 석곽묘가 조사되어 마갑총과 함께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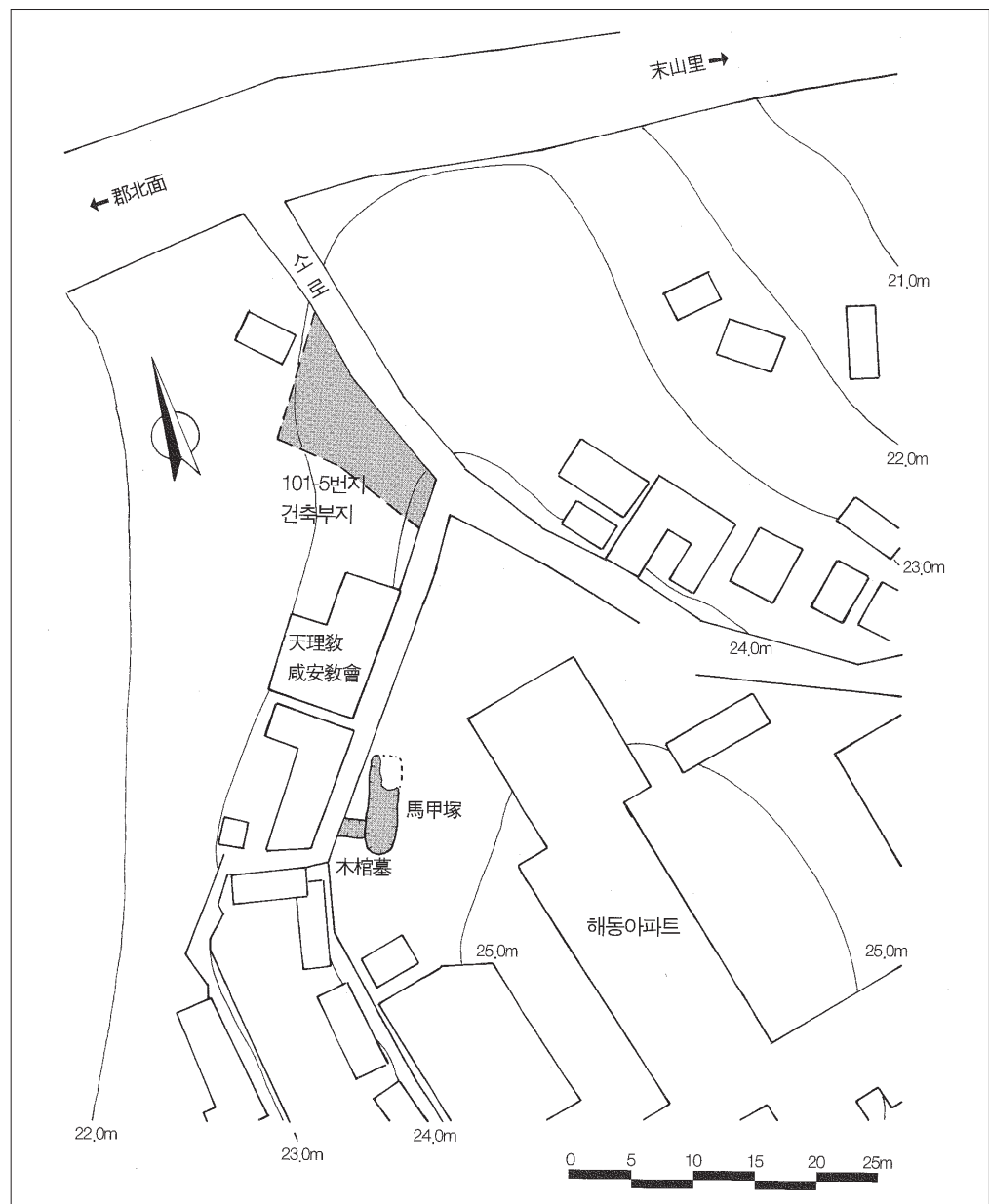
마갑총은 해발 25m 정도의 낮은 구릉지의 정상부에서 북서편으로 약간 치우쳐서 입지하는 대형 목곽묘이다. 목곽의 북쪽 절반정도는 아파트단지 내 배수관 매설공사시에 굴삭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 목곽의 범위는 묘광의 규모(추정 9m)에 비해 매우 세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바닥에는 적갈색점토로 정지한 후에 자갈돌을 1~2겹 겹쳐서 골고루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 특히, 중앙의 주피장자 공간에는 자갈돌을 3~5겹 높게 깔아서 관대를 설치하였다. 관대의 우측에는 병부가 북쪽으로 향한 소환두대도가 놓여져 있고, 관대의 좌우측 시상석 위에는 마갑이 정연하게 놓여져 있는 상태이다. 마

유적 위치도

갑은 대형의 찰갑 편이 북쪽에 놓이고, 세장방형의 찰갑 편이 남쪽을 향하도록 놓여 있으며 토기류는 남쪽과 서쪽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철기류인 철모와 철겸, 철모 등은 피장자의 좌측과 발치부분에 불규칙한 간격을 두고 놓여져 있다. 출토유물을 통한 마갑총의 연대는 기원후 5세기 중반경으로 편년된다.

마갑총의 조사를 통해 말이산고분군의 중심묘제가 수혈식석곽묘 이전에 대형 목곽묘가 존재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일본과 중국에서도 출토 예가 드문 5세기대의 마갑이 양호한 상태로 발견됨으로서 고대 기병용 마장문화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확보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2, 『함안 마갑총』.

유구 배치도

마갑총 전경

마갑총 유물 출토모습

마갑총 출토유물

1호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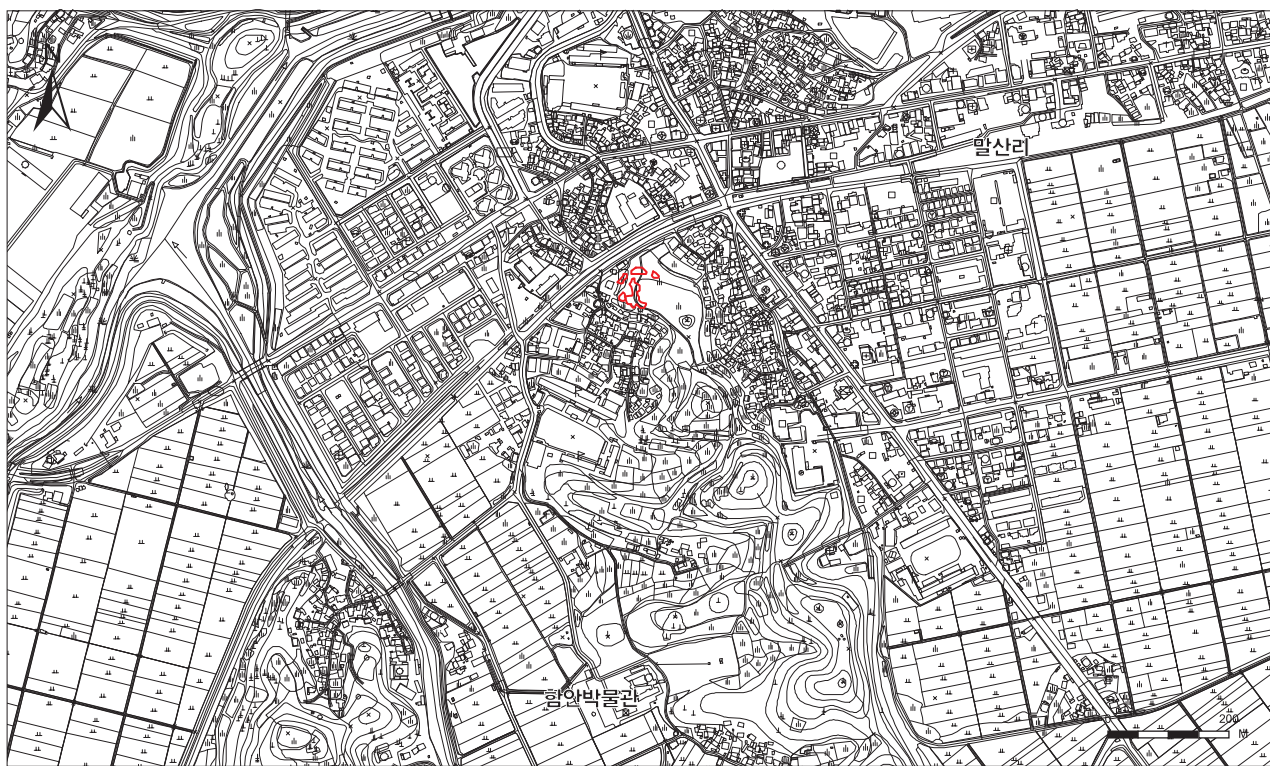
01-4 함안 도항리고분군 _ 1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19-3·421·42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1992.10.~1992.12.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 고배, 파배, 광구소호, 양이부호, 노형토기, 발형기대, 통형기대, 철모, 환두대도, 종장판주, 유자이기, 철정, 살포, 재갈

가야문화권 중요유적에 대한 학술조사 및 보존정비사업계획의 5개년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1차년도 조사로, 말이산 1호분의 북쪽 일대에 대하여 학술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 원삼국시대 목관묘 11기, 삼국시대 목곽묘 19기, 수혈식석곽묘 1기, 횡혈식석실묘 3기, 옹관묘 2기, 소형 석곽묘 2기 등 총 39기가 조사되었다. 1차년도 조사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는 목관묘와 목곽묘에 대해 대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관묘는 평면 장타원형이고 구릉의 경사면상에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는 방향으로 축조되었다. 목관묘의 규모는 대부분이 2.5~2.9m, 묘광의 깊이는 60~70㎝ 정도이다. 목관의 구조는 평면 'ㅍ'자형이다. 유물은 피장자의 신변에는 주로 철검이 매납되었고, 목관과 묘광 사이 충진토에는 조합식우각형파수부장경호, 주머니호, 양이부호 등의 토기류와 철부, 철겸, 철촉 등의 철기류를 부장하였다. 내부 토층양상으로 보아 묘광 상부로는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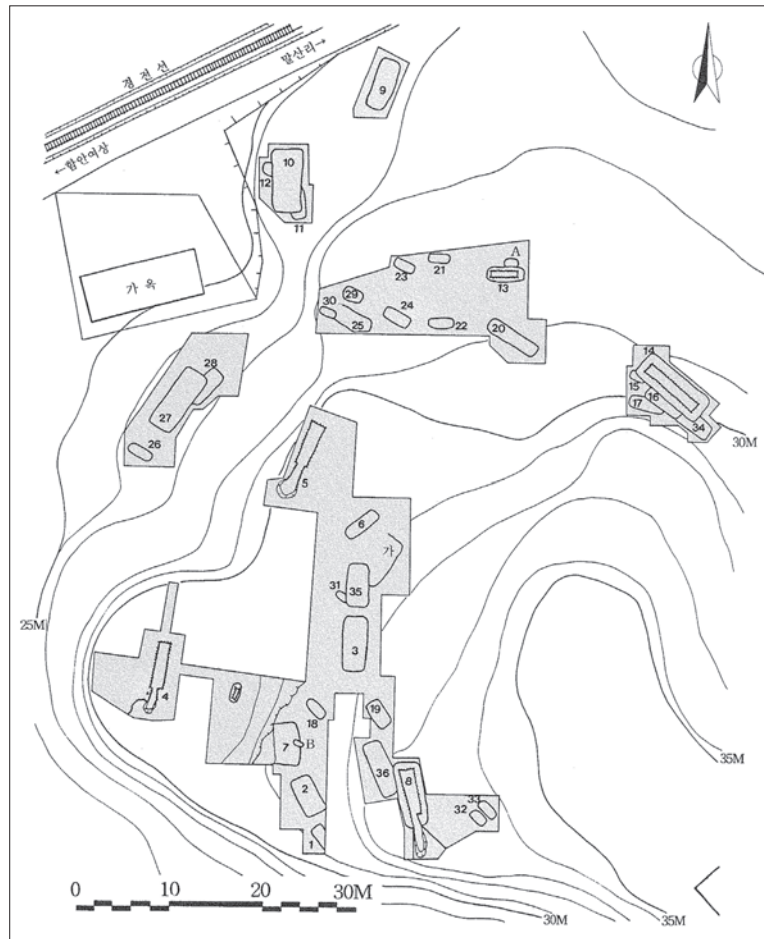
일정 높이의 봉분이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목관묘의 조성시기는 기원후 1세기 전반대~2세기 전반 무렵으로 편년된다.

목곽묘는 구릉 사면부에 규모와는 관계없이 혼재되어 축조된 양상이다. 대형 목곽묘의 평면비는 2.4:1로 부산-김해지역 목곽묘에 비해 세장한 것이 특징이다. 길이 5m 이상의 대형 목곽묘의 바닥에는 시상이 마련되었으며, 토층양상으로 보아 일정높이의 봉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별도의 부장곽은 구비하지 않았으며, 머리와 발치에 토기유물을 부장하고 피장자의 신변에는 철기를 부장하거나, 한쪽 단벽에만 유물을 부장한 형태를 보인다. 출토유물은 통형상의 대각을 가진 고배와 나팔상의 대각을 가진 고배, 노형기대, 통형기대, 발형기대의 토기류와 유자이기, 철모, 철정, 철모, 대도, 재갈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를 통해 본 목곽묘의 조성시기는 기원후 3세기경에서 5세기 전반까지 편년된다.

말이산 1호분 북쪽 일대에 대한 학술조사를 통해 봉토가 없는 중소형 고분이 말이산 구릉 내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목관묘에서 횡혈식석실묘까지 원삼국~삼국시대 묘제의 변천과정을 확인하였다는데 조사의의를 둘 수 있다.

참고문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7, 『함안 도항리고분군Ⅰ』.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9, 『함안 도항리고분군Ⅱ』.

유구 배치도

유적 원경

35호분

15~17호분

13호분

01-5

함안 도항리고분군 _ 2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23·478·48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1993.4.~1993.8.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 고배, 호, 파수부완,
광구소호, 노형기대,
등자, 안교, 행엽, 운주,
철모, 대도, 종장판주,
유자이기

가야문화권 중요유적에 대한 학술조사 및 보존정비사업계획의 5개년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2차년도 조사이다. 말이산고분군 북쪽 능선에 해당하며, 함안여자중학교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지 일대(Ⅰ지구)와 여기서 북동쪽에 위치한 구릉의 정상부 일대(Ⅱ지구), 말이산 1호분의 서편 공지(Ⅲ지구)의 3개 지구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Ⅰ지구에서 목곽묘 1기, 수혈식석곽묘 2기, Ⅱ지구에서 목곽묘 3기, 수혈식석곽묘 1기, Ⅲ지구에서 목곽묘 5기, 횡혈식석실묘 1기, 청동기시대 석관묘 1기와 1992년도 발굴조사구역에 대한 추가조사에서 대형 목곽묘 1기(36호)를 추가로 조사하는 등 총 15기가 조사되었다.

목곽묘는 묘광은 장단비가 1.75~3:1로 장방형과 세장방형을 띠고 길이 5m 이상의 대형 목곽묘는 바닥에 자갈을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 유물은 두부와 발치쪽에 토기류를 매납하고 피장자의 신변에는 철기를 부장하였다. 36호분 묘광 상부(봉토 내)에서 토

유적 위치도

기와 철기가 매납되어 주목된다. 조성연대는 기원후 4세기 후반~5세기 전반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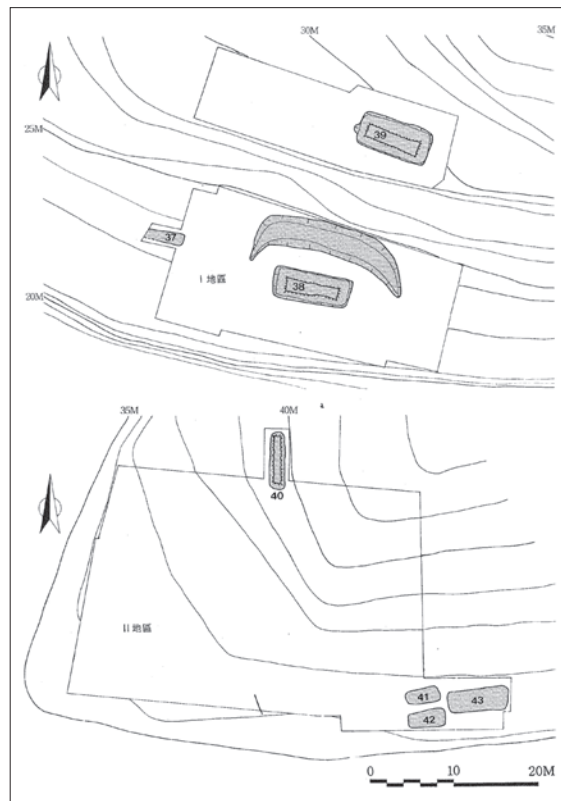
수혈식석곽묘는 3기만 조사되어 조사된 면적에 대비해 적은 수를 차지한다. 말이산 고분군의 북쪽 구릉일대가 목관묘와 목곽묘 중심 분포지역이고, 말이산 4호분에서 남쪽으로 수혈식석곽묘 분포지역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다시 북쪽일대에 횡혈식석실묘가 조영되는 특징이 간취된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영공간의 변화가 보이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차년도 조사에서 확인된 수혈식석곽묘는 중대형급으로 장단비가 4:1에 가까운 매우 세장한 형태이며, 벽석도 적갈색계 셰일계 점판암을 사용하고 바닥에는 시상석을 깔았으며, 주피장자의 공간을 가운데 두고 양 단벽 아래인 두부와 발치를 부장공간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38호묘는 주구도 구비하고 매장주체부 단벽아래에서 2인 정도의 순장이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축조연대는 기원후 5세기 후반~5세기 말 정도이다.

횡혈식석실묘는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이며 입구부가 남단벽에 설치된 양수식구조이다. 연도는 1m 내외로 짧고, 묘도는 비스듬한 경사를 이루며 평면 나팔상으로 뻗어 있다. 측벽은 최하단석에서 수직으로 쌓다가 상부에서 석실의 안쪽으로 내경하게 축조하는 형태로 수혈식석곽묘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조성연대는 기원후 6세기 초~6세기 전반대로 추정된다.

2차년도 조사를 통해 말이산고분군 가지능선 상에는 봉토가 없는 중소형 고분이 존재하며, 북쪽 능선 사면부에 목곽묘와 횡혈식석실묘가 다수 조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9, 『함안 도항리고분군Ⅱ』.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0, 『함안 도항리고분군Ⅲ』.

Ⅰ·Ⅱ지구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43호분

38호분

38호분 유물 출토모습

01-6 함안 도항리고분군 _ 3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도항리 527·59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1994.5.~1994.8.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수혈식석곽묘 / 유개고배, 광구소호, 대부호, 장경호, 사이부호, 발형기대, 청동령, 성시구, 유자이기, 종장판주, 괘갑, 행엽, 마주, 마갑, 등자, 재갈

가야문화권 중요유적에 대한 학술조사 및 보존정비사업계획의 5개년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3차년도 조사로, 말이산고분군 5호분과 8호분에 해당한다. 5호분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도에 조사된 4호분(구34호분)에서 서쪽 가지능선상의 지근거리에 위치한다. 이때 조사자인 이마니시 류에 의해 발견된 개석 상면의 '壽下王'이라는 선각이 새겨진 고분으로 알려져 있었다. 8호분은 서쪽 가지능선상의 최말단부에 위치한 봉토분이다.

5호분 봉분의 추정 직경은 15m 정도이며, 잔존높이는 1.5m이다. 봉분은 풍화암반 편과 적갈색점질토를 혼합하여 축조하였고 수평적 성토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석은 모두 8매가 잔존하고 셰일계 점판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쪽 끝에 놓여진 개석상면에 낙서와 선각이 있는데, '奇下三' 또는 '下奇三'으로 재판독되어 후세의 낙서일 것으로 판단된다.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묘로 묘광의 규모는 길이 10.8m, 너비 4.1m, 깊이 1.8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7.1m, 너비 1.58m, 높이 1.6m이다. 석곽의 평면형태

유적 위치도

는 세장방형이며, 경사지 아래에 해당되는 서쪽은 동쪽에 비해 묘광의 깊이가 얕아 벽석 상단부는 지상으로 올라온 반지하식의 구조이다. 벽석에는 들보시설(보공과 도리공)이 확인되었는데, 서장벽에 2개소, 양단벽에 1개소씩 그 흔적이 잔존한다. 바닥에는 자갈을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고, 내부는 「유물 부장 공간-주피장자 공간-순장자 공간」의 3분할 구분하였다. 남단벽쪽의 순장자공간에는 2인 정도의 순장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고배, 광구소호, 발형기대 등 토기류와 등자, 재갈, 철모 등의 철기류가 부장되었다. 축조연대는 기원후 5세기 후반대로 편년된다.

8호분 봉분의 규모는 직경 32m, 잔존높이 3.5m이다. 봉토는 묘광을 파내면서 나온 풍화암반토와 인근 저습지에서 채취한 회갈색 또는 다갈색의 점질토를 혼합하여 봉토를 축조하였다. 특히 중심부와 남동쪽으로 황갈색점질토와 암갈색점질토를 두께 50~70㎝로 수평상 성토하였다.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묘로 규모는 묘광이 길이 13m, 너비 3m, 깊이 1.9m이고 석곽은 길이 11m, 너비 1.85m이다. 개석은 봉토의 정상부에서 직하 3.7m 아래에서 노출되었고, 모두 13매가 횡가된 상태였다. 개석은 2/3가 셰일계 점판암이며, 나머지는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묘이며 장단비가 7:1에 가까운 매우 세장한 형태이다. 벽석의 붕괴로 들보시설(보공과 도리공)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바닥에는 자갈돌을 고르게 깔아서 시상을 마련하였고, 내부는 「유물부장 공간-주피장자 공간-순장자 공간」의 3분할 구분하였다. 순장공간에는 인골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잔존하고 있으며, 주피장자와 직교하게 서침한 상태로 5~6구가 순장된 것

5호분 전경

으로 파악된다. 유물은 고배, 개, 광구소호, 기대 등의 토기류와 대도, 철모, 행엽, 마주, 마갑, 괘갑 등의 철기류가 다량 부장되었다. 축조연대는 기원후 5세기 후반대로 편년된다.

5호분과 8호분의 조사는 해방 이후 실시된 말이산고분군 대형분의 최초 조사로, 대형 봉토분의 조성시기와 내부 매장주체부의 구조와 순장의 형태 등 세부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함안 도항리고분군Ⅴ』.

5호분

8호분

5호분 유물 출토모습

8호분 유물 출토모습

01-7

함안 도항리고분군 _ 4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83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1995.4.~1995.6.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봉토분, 수혈식석곽묘 / 고배, 개, 발형기대, 대호, 사이부호, 환두대도, 철모, 성시구, 몽고발형주, 행엽, 등자, 재갈, 심환령

가야문화권 중요유적에 대한 학술조사 및 보존정비사업계획의 5개년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4차년도 조사로 말이산 15호분과 주변의 평탄한 대지에 해당한다. 조사결과 대형 봉토분 1기(15호분)와 수혈식석곽묘 4기, 성격불명의 수혈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15호분은 직경 22m, 잔존높이 3m 정도의 평면 원형의 봉토분으로 적갈색점질토와 황갈색점질토로 수평성토하여 쌓았다. 묘광의 굴착으로 모여진 풍화암반덩이를 갈색점질토와 혼입하여 봉분의 중심부에 채워 넣은 구조이며 최상부층은 황갈색점질토로 한 벌 덮어 토사의 유실을 막았다.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묘로 묘광은 길이 11.2m, 너비 3.2m, 깊이 2m이며 석곽은 길이 9.1m, 너비 1.85m, 높이 2m이다. 석곽의 상부에는 13매의 개석이 덮여 있었으며, 대부분 셰일계 점판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5매 중 1매는 석질이 다른 종류로 횡가하였다. 석곽은 장단비가 4:1이 넘는 세장방형이며 판석상 할석을 이용하여 측벽을 쌓아 올린 구조이다. 바닥에는 자갈을 한 벌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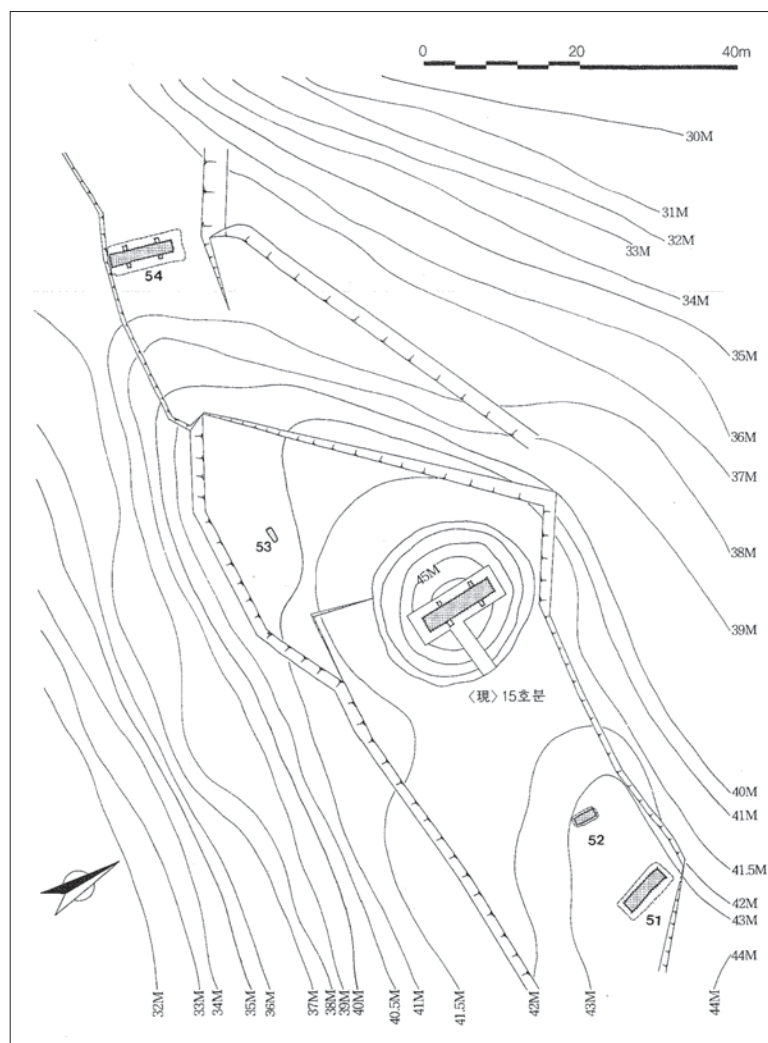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들보시설(보공과 도리공)은 양 장벽에 2개소씩, 양 단벽에 1개소씩 잔존한다. 석곽 내부는「유물 부장 공간-주피장자 공간-순장자 공간」의 3분할 구조이다. 남단벽쪽으로 주피장자와 직교한 방향으로 3~4인의 순장인골 흔적이 확인된다. 유물은 고배, 개, 발형기대, 대호의 토기류와 성시구, 행엽, 유자이기, 철촉, 철부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15호분의 축조연대는 기원후 5세기 3/4분기 정도로 편년된다.

조사된 유구 중 봉분이 잔존하지 않는 유구는 〈문〉51~54호분이다. 그 중에서 〈문〉54호분은 15호분에서 남서쪽 약 20m 이격되어 입지하는 대형 수혈식석곽묘로 묘광의 규모는 길이 10.8m, 너비 3.8m, 깊이 1.5m이며, 석곽은 길이 7.9m, 너비 1.4m, 높이 1.5m이다. 15호분보다 규모는 적지만 내부구조와 순장양상 등은 동일하다. 좀 특이한 점은 석곽 중앙부에서 2점의 대도가 병부가 다른 방향으로 놓여져 있어 2인의 주피장자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문〉54호분의 축조연대는 출토된 유물로 볼 때, 기원후 5세기 4/4분기로 편년된다.

참고문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0, 『함안 도항리고분군Ⅲ』.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1, 『함안 도항리고분군Ⅳ』.

유구 배치도

54호분

54호분 세부

54호분 유물 출토모습

15호분

15호분 세부

15호분 유물 출토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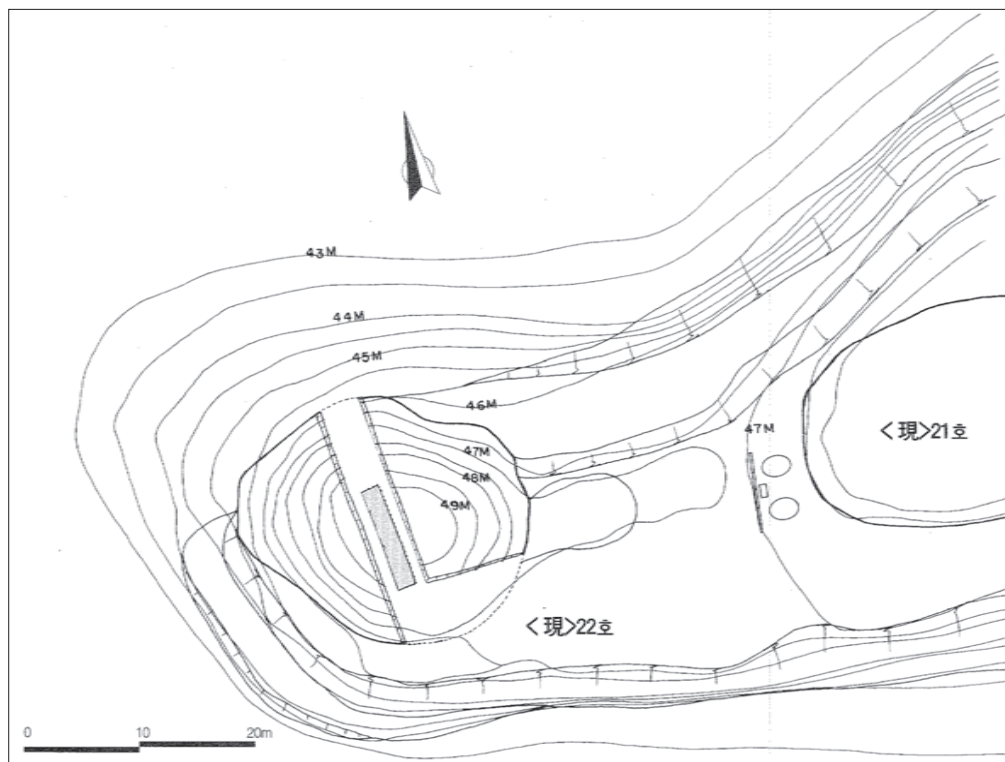
01-8 함안 도항리고분군 _ 5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789-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1996.5.~1996.8.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수혈식석곽묘 / 고배, 개, 파수부완, 광구소호, 발형기대, 철모, 재갈, 행엽, 등자, 유자이기, 철정

가야문화권 중요유적에 대한 학술조사 및 보존정비사업계획의 5개년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5차년도 조사로 말이산 22호분이 해당한다. 22호분은 말이산고분군의 지능선상에 조영된 봉토분 중 하나로 규모는 직경 26m, 잔존높이 3m이다. 봉토는 구릉의 정선부를 정지하고 축조하였으며, 최하층에 적갈색과 황갈색계의 점질토를 수평상으로 깔아 다진 후에 봉분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암갈색점질토와 적갈색점질토를 섞어서 상부까지 쌓아올렸다. 봉토의 상부 중앙부에는 흑갈색점질토와 할석, 풍화암반토 덩이를 혼합하여 채워 넣었으며, 최상부는 적갈색점질토를 얇게 덮어 마무리 하였다.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묘로 규모는 묘광의 경우 길이 14m, 너비 4.5m, 깊이 1.8m이고, 석곽은 길이 9m, 너비 1.8m, 높이 2.2m이다. 개석은 9매만 잔존하고 대부분 세일계 점판암이다. 석곽의 장단비는 4:1 이상으로 세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띠며, 벽석은 판상의 할석을 사용하여 수직상으로 쌓아 올렸다. 남단벽의 상단부에 들보시설(보공과 도리공) 1곳이 확인되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고 나머지 벽면은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바닥에는 잔자갈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 내부는 「유물 부장 공간-주피장자 공간-순장자 공간」의 3분할 구조이며, 순장자 공간에는 주피장자와 직교되게 2구의 인골흔적이 확인되었다. 순장자 공간의 면적으로 보아 3인의 순장이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고배, 개, 파수부완, 광구소호, 발형기대 등의 토기류와 철모, 재갈, 행엽, 등자, 유자이기, 철정 등의 다수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22호분의 축조연대는 유물을 통해 볼 때, 기원후 6세기 1/4분기로 편년된다.

참고문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1, 『함안 도항리고분군Ⅳ』.

22호분 전경

22호분

22호분 유물 출토모습

22호분 유물 출토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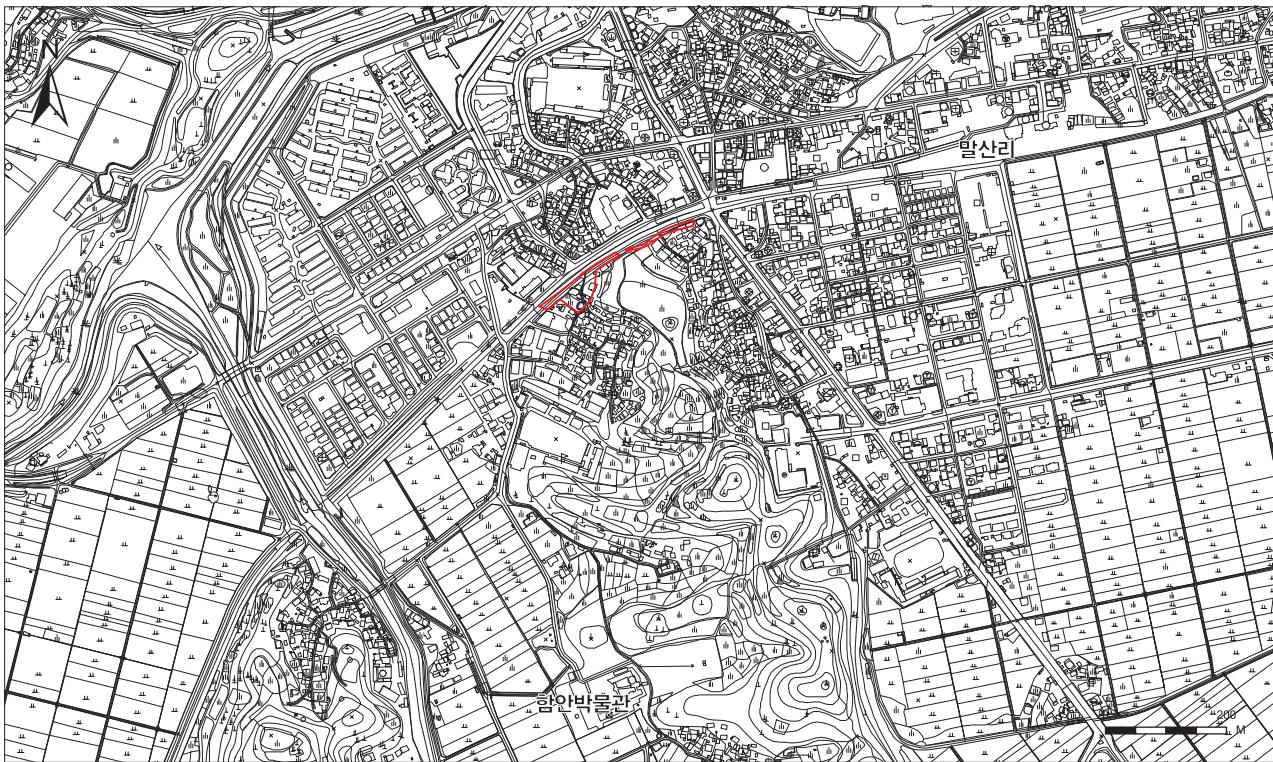
01-9 도항리·말산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30-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고고학연구소 /
시굴 1997.12.
발굴
1차 1997.12.~1998.2.
2차 1998.4.~1998.6.
3차 1998.9~1998.11.
4차 1998.10.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 고배, 단경호, 기대, 유자이기, 행엽, 좌목 선금구, 교구, 재갈, 혁금구

함안 도항리·말산리유적은 말이산고분군의 북쪽 능선 끝자락에 해당되는 곳으로, 경전선과 말이산고분군 사이에 있었던 1차선 통행로의 확장공사로 인해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원삼국(삼한)시대 목관묘 37기, 삼국시대 목곽묘 39기·수혈식석곽묘 6기·옹관묘 3기, 기타 17 등 총 102기가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유구들은 구릉의 서사면인 도항리에 조성되어 있으며, 말산리쪽에는 대형 석곽묘인 파괴분 주변을 제외하면 소수의 유구만 입지한다.

목관묘는 북쪽 사면 하단부와 평지에 밀집조성되어 있는데, 동시기 변진한 목관묘 유적들에 비해 매납된 유물의 조합상이 단순하고, 유물의 출토량도 적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를 통해 말이산고분군의 무덤 변천 과정이 목관→목곽의 계기적인 변천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목관묘의 조영시기는 기원전후한 시기부터 기원후 2세기 정도로 편년된다.

유적 위치도

목곽묘는 서쪽편과 구릉의 능선 하단부에 밀집조영되었는데, 목관묘보다는 고지에 축조되어 있다. 선축된 목관이나 목곽을 파괴하고 설치되는 등 중복이 심하다. 길이가 5m를 넘는 13호분을 제외하면 모두 중소형이다. 13호분은 묘광 바닥에 피장자 구역에만 자갈을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고, 목곽은 판재를 사용한 'ㅍ'자 구조이다. 내부구조는 3분할 구조로 양 단벽 아래에 유물을 부장하고 중앙에 주피장자를 안치하였다. 유물은 토기류와 무기류, 마구류 등을 부장하였는데, 삼각판혁철단갑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목곽묘는 기원후 4세기~5세기대에 걸쳐 조영되었다.

수혈식석곽묘는 서편과 구릉 능선 하단부에 목곽묘들과 혼재하여 입지하며, 목곽을 파괴하고 축조된 것이 많다. 규모가 비교적 큰 3호묘는 바닥에서 목궤와 목관의 목질흔이 조사되었으며 목관이 안치되는 공간에만 시상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양상에서 전시기 목곽묘의 전통이 그대로 계승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른 파괴분은 석곽의 규모면에서나 주구가 부설되어 있는 점 등에서 본격적인 아라가야 고총의 축조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유구로 주목된다. 석곽묘의 출토유물은 고배, 단경호, 기대 등의 토기류와 철부, 철모, 철촉 등의 철기류들이며, 3호에서는 행엽, 좌목선금구, 교구 등의 마구류가 출토되었고 파괴분에서는 재갈과 혁금구와 같은 마구류와 유자이기도 출토되었다. 석곽묘의 축조시기는 기원후 5세기를 중심으로 한다.

도항리·말산리유적의 조사를 통해 말이산 북쪽 말단부에 원삼국시대 목관묘와 삼국시대 목곽묘가 집중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파괴분의 조사를 통해 수혈식석곽묘를 매장주체부로 하는 고총의 등장시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경남고고학연구소, 2000, 『도항리·말산리 유적』.

김현, 2002, 「함안 도항리고분군 발굴조사와 의의」, 『고대 함안의 사회와 문화』,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2년도 학술대회.

유구 배치도

3호 석곽묘

13호 목곽묘

목곽묘 출토유물

석곽묘 출토유물

01-10 함안 말산리 451-1번지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451-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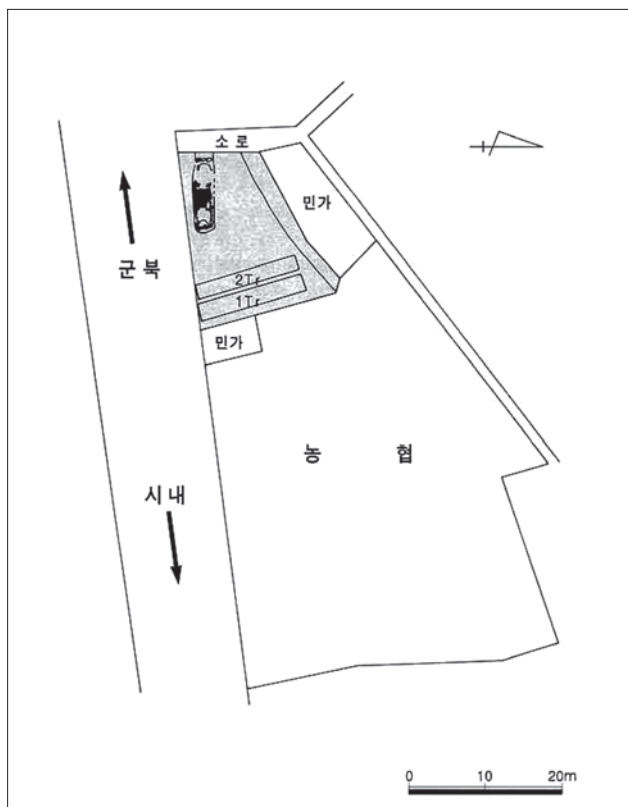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식석곽묘 / 유개고배, 대호, 발형기대, 유자이기, 행엽, 마령

함안 말산리 451-1번지 유적은 대형의 수혈식석곽묘로 건물 신축공사 시 일부 파괴된 상태로 발견되어 긴급발굴조사를 통해 기록보존된 유적이다. 유적은 말이산고분군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마갑총에서 북쪽으로 약 80m 이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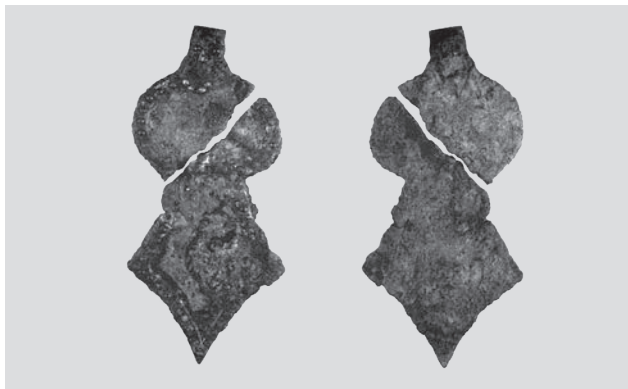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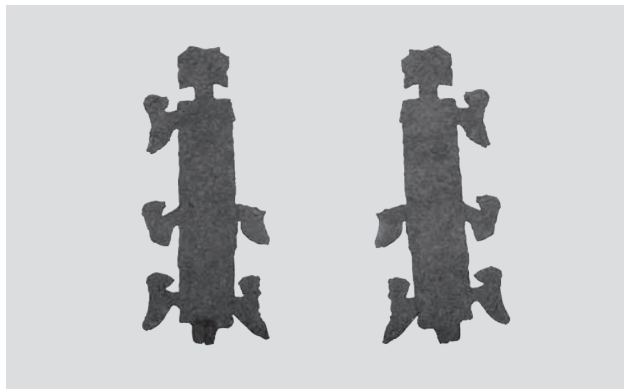
수혈식석곽묘는 장축방향이 동-서향이고, 묘광의 규모는 10.7m, 너비 2.85m 정도이고, 석곽의 규모는 길이 8.65m, 너비 1.65m에 이르는 대형이다. 석곽은 후대의 교란과 도굴로 극심하게 파괴된 상태였으며, 대체로 횡평적기법으로 장단벽을 축조하였고, 바닥에는 피장자의 공간에만 역석으로 시상대를 마련한 구조이다. 유물은 고배, 유개고배, 대호, 발형기대 등의 토기류와 유자이기, 행엽, 마령, 철모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을 통해 본 축조시기는 기원후 5세기 4/4분기로 편년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4, 『함안 말산리 451-1번지 유적』.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석곽 노출상태 서쪽

석곽 노출상태 동쪽

행엽

유자이기

01-11

함안 도항리 6호분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548-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05.1.~2005.12.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 고배, 유개고배, 조형개, 대부호, 사이부호, 발형기대, 통형기대, 마갑, 마주, 재갈, 등자, 유자이기, 환두대도, 종장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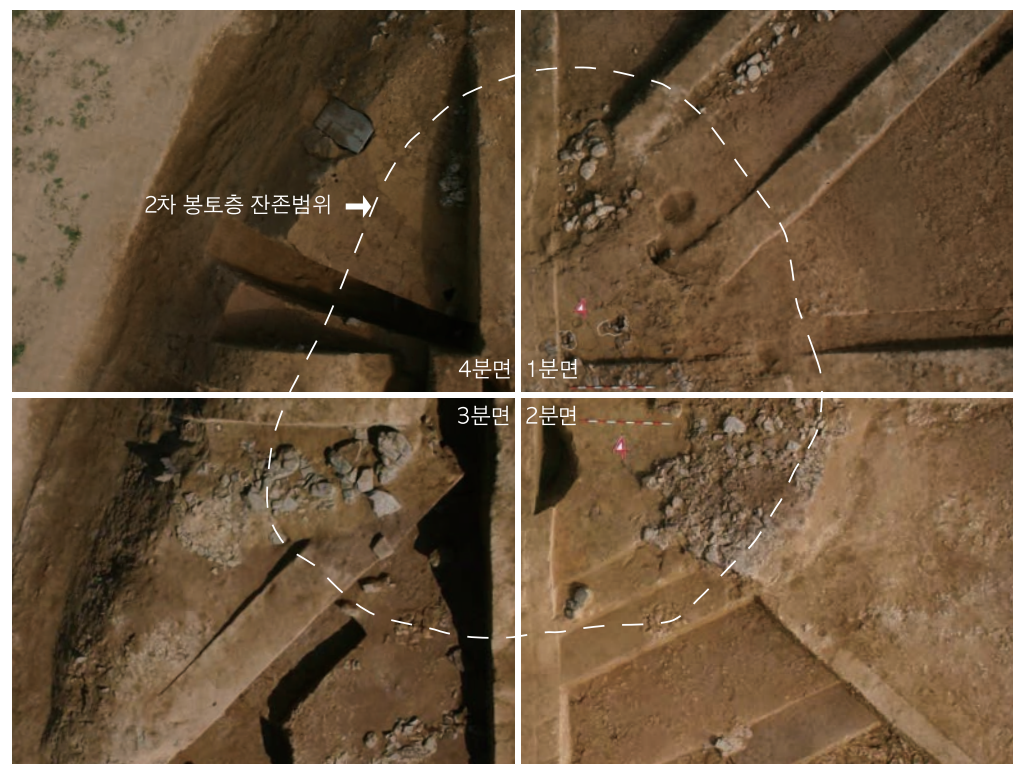
함안 도항리6호분(이하 6호분)은 말이산고분군 주능선 정상에서 서쪽 지능선의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전 장마와 태풍 등의 피해로 매장주체부가 노출되는 등 상당히 훼손된 상태였으며, 이에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와 봉토 축조기법과 매장주체부의 구조 등에 대한 학술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지역에서 6호분 봉분 1기 이외에 동쪽으로 고상건물지와 주구, 수혈식석곽묘 3기(6-1·2·3호)가 조사되었다. 6-1·2·3호는 별도의 보고서로 간행되었다.

봉분의 규모는 조사전 직경 4~19m, 높이 1.5m에 불과하였지만, 조사 결과 직경 33m 정도의 규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봉분의 축조과정은 크게 「정지공정-매장주체부구축 및 밀봉공정-봉토공정」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6호분에서는 성토공정이 2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성토 1단계는 석곽 축조 후에 주변부 성토와 봉분규모의 확장, 개석상부 밀봉단계를 말한다. 성토 2단계는 본격적인 봉분의 외형적 규모 확대를 위한 공정으

유적 위치도

로 여러 개의 구획에 의해 공정이 이루어졌다. 구획성토의 흔적은 구획표지석곽 성토재의 종류와 재질의 차이에 의해 구분된다. 성토 2단계는 수직적으로 볼 때, 1차 봉토와 2차 봉토로 구분되며 이는 석재의 규격 차이, 토재의 차이, 구획부의 차이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1차 봉토는 19개의 구획을 통해 성토공정이 이루어졌으며, 2차 봉토는 구획의 경계가 1차 봉토와 약간 어긋나 있으며 잔존범위에서는 13개의 구획이 확인되었다. 2차 봉토에서 봉분의 동쪽과 서쪽에 사용된 성토재가 대별되는 것이 특징인데, 동쪽은 주로 자색 셰일계 암반할석이 다량 포함된 성토재를 이용하였고, 서쪽은 주로 녹색 사암계 풍화암반토와 점질토가 포함된 성토재를 이용하였다.

주구는 봉분 동쪽과 북쪽 일부에서만 조사되었는데, 규모는 너비가 7~11m이다. 주구 내부에서 발형기대 및 대호 편, 고배 편 등의 토기 편이 다량 출토되어 제의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주구 외에 다수의 주혈군이 노출되었으며 이는 고상건물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고상건물은 총 6동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고상건물의 용도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주변에서 출토된 다량의 토기와 위치로 보아 6호분과 관련된 제의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시사한다.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묘로 묘광의 규모는 길이 14m, 너비 상부 4.7m, 하부 2.8m로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9.8m, 너비 1.7m, 높이 1.7m이다. 벽석은 자색 셰일계 점판암을 사용하였고 석재를 서로 엇갈리도록 면석과 뒤채움석을 여러 겹 겹쳐쌓아 상부의 토압에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양 단벽 상단에는 들

6호분 2차 봉토

보시설(보공)이 확인되며 양 장벽은 무너져 들보시설(도리공)을 확인하기 어렵다. 석곽 내부 공간은 「유물 부장 공간-주피장자 공간-순장자 공간」의 3분할 구분하였다. 순장자는 모두 6인이 확인되었는데, 주피장자와 직교하며 주곽(주실) 내에 2인의 순장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로 유개고배, 배, 파수부배, 광구소호, 대부호, 단경호, 장경호, 대호, 발형기대, 통형기대가 출토되었으며, 철기는 마갑과 마주, 재갈, 등자, 유자이기, 환두대도, 종장판주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마갑과 마주가 출토되어 6호분 피장자의 정치적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유물을 통해 본 축조연대는 기원후 5세기 3/4~4/4분기 정도로 편년된다.

말이산 6호분의 조사로 말이산고분군 대형 봉분의 축조공정이 세밀하게 밝혀졌으며, 이러한 조사방법은 이후 말이산고분군 봉분 조사방법의 발전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8, 『함안 도항리6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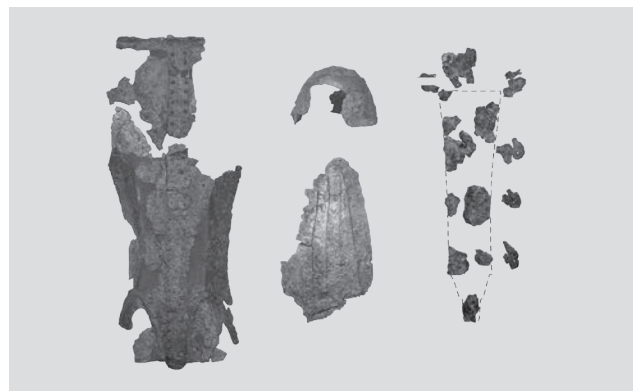
6호분 1차 봉토

6호분 봉토 동서둑 북벽 토층

매장주체부

매장주체부 남단벽

매장주체부 유물 출토모습

토기류

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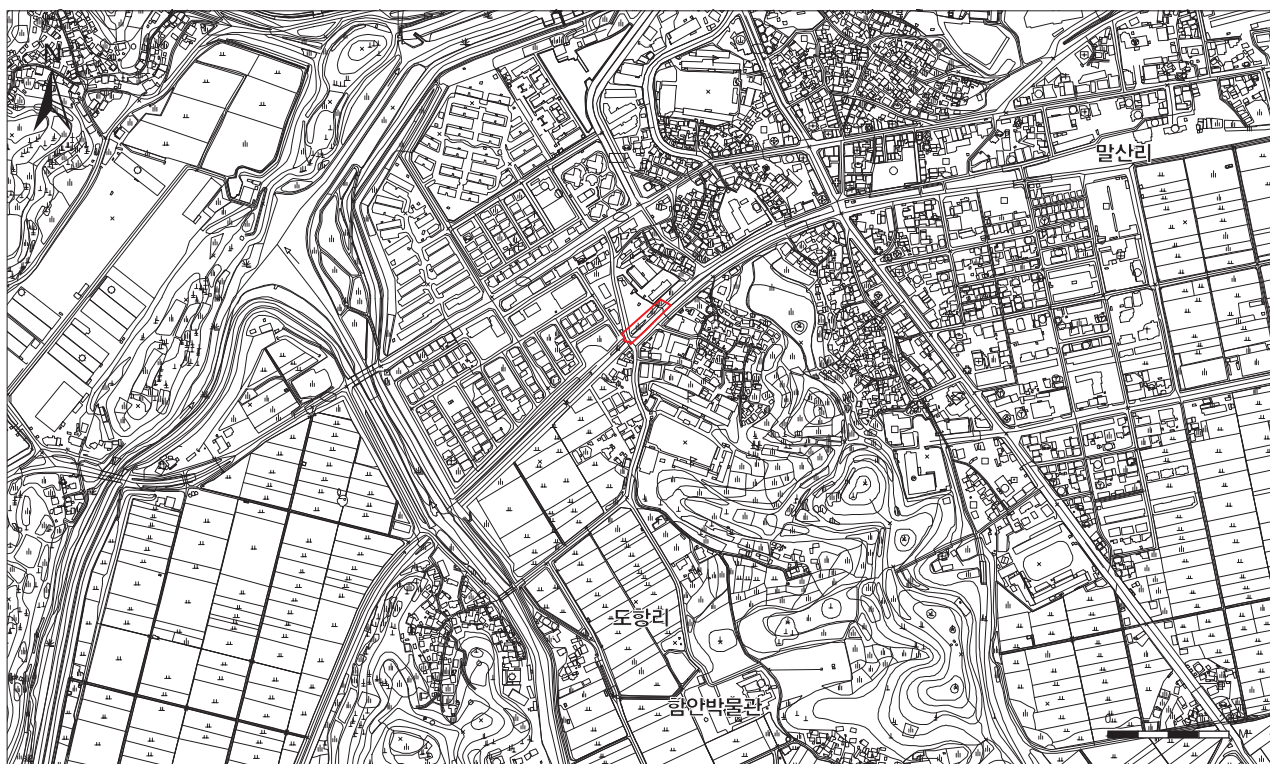
01-12 함안 도항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30-1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05.8.~20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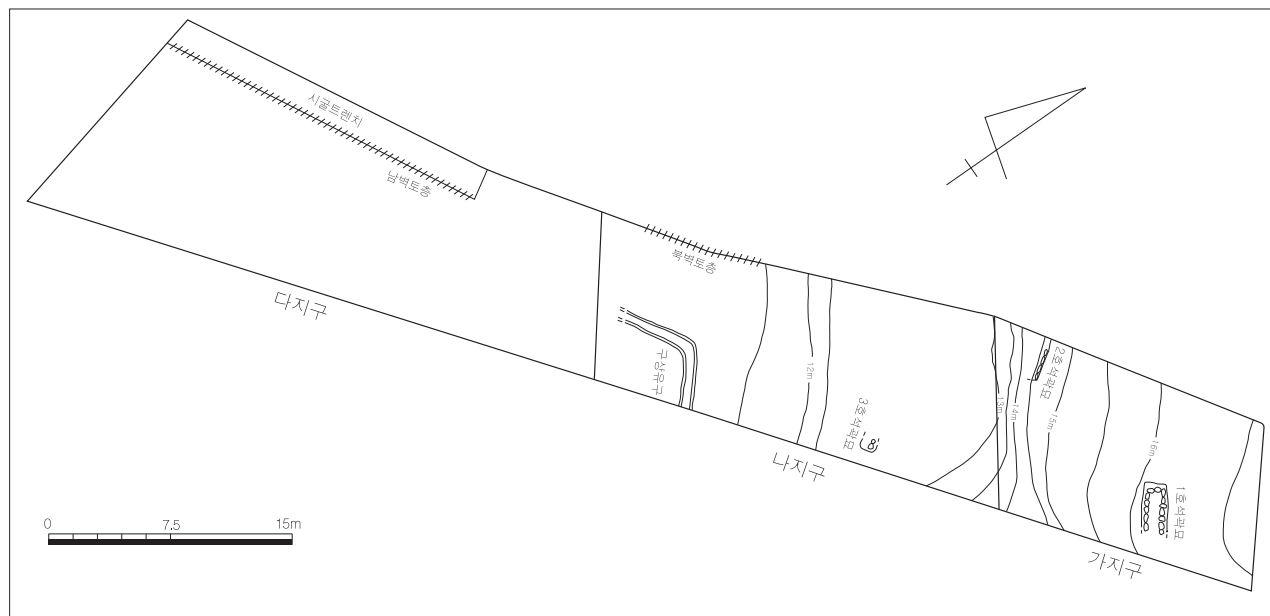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식석곽묘 / 유개고배, 유개대부호, 유개파배, 발형기대, 통형기대, 유자이기

함안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은 말이산고분군의 북쪽 능선에 위치한 마갑총에서 서쪽으로 200m 떨어진 낮은 구릉, 가지능선의 사면에 입지한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구상유구 1기,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 3기가 조사되었다. 수혈식석곽묘는 1호는 비교적 형태가 잘 남아 있지만 나머지 2, 3호 석곽묘는 완전히 파괴되어 원형을 파악하기 어렵다.

1호 석곽묘는 말이산고분군에서 조사된 수혈식석곽묘 중에서는 비교적 중형에 속하며, 바닥전면에 시상석을 배치하였으며, 북단벽은 유물 부장공간으로 유개고배, 무개고배, 유개대부호, 유개파수부배, 발형기대 등의 토기류를 집중 부장하였고, 중앙부의 주피장자공간에서는 화염형투창고배와 통형기대가 출토되었다. 꺾쇠가 출토되어 목관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순장과 들보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조사된 수혈식석곽묘는 도항리 〈문〉54호, 4, 5, 8호분과 동시기인 기원후 5세기 후반 정도로 편년된다.

유적 위치도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7, 『함안 도항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경전선 철로의 개설로 능선이 단절되어 확인하기 어려웠던 말이산고분군의 북쪽 끝부분의 양상을 함안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의 조사를 통해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유구 배치도

1호 석곽묘

1호 석곽묘 유물 출토모습

1호 석곽묘 출토유물

01-13

함안 도항리 6-1호분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548-1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 / 2005.9.~2006.1.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수혈식석곽묘 / 개, 고배, 장경호, 발형기대, 유자이기, 환두대도, 재갈, 행엽

함안 도항리(말이산) 6-1호분은 5호분에서 6호분으로 이어지는 얕은 구릉부에 해당한다. 6호분의 조사와 함께 1991년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정밀지표조사에서 확인된 6-1호분을 포함한 전체적인 복원 정비사업을 위해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조사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석개토광묘 2기와 삼한시대 옹관묘 1기, 목관묘 2기,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 3기가 조사되었다.

조사된 유구 중, 목관묘는 모두 등고선과 나란한 동-서향이며 'U'자상의 함몰 상태로 볼 때 보강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주머니호, 파수부호, 철겸, 철부, 철검 등이 출토되었으며 시기는 기원후 1세기 후반~2세기 초로 편년된다.

옹관묘는 6호분 주구 옆에서 조사되었으며 횡치삼합구식옹관으로 두향은 서향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수혈식석곽묘는 6호분 중심에서 35m 정도 이격되어 위치하며, 6-1호분은 주축방향

유적 위치도

이 인접한 6호분과 다른 동-서향이며, 6-2, 3호는 6호분과 동일한 남-북향이다. 6-1호분과 6-2, 3호는 각각 13m, 15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6-2호와 6-3호는 9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봉분의 원상을 유추하면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며 서로 친연관계 또는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6-1호분에는 석곽에서 5m 거리에서 '八'자형 주구가 확인되었고, 석곽 내부에서 봉토재로 볼 수 있는 퇴적토가 함몰되어 있어 봉분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되며 규모는 주구와의 거리로 볼 때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6-2, 3호는 내부 퇴적토로 보아 봉분은 마련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6-1호분은 석곽의 규모가 길이 7.1m, 6-2호는 6.2m, 6-3호는 5.3m로 초대형분인 6호분의 주변에 위치하는 배장묘로 판단된다.

6-1호분과 6-2, 3호의 유물은 도굴과 경작으로 교란되어 많은 양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토기류는 개와 고배, 기대, 철기류는 철촉, 대도, 철부, 철겸, 유자이기, 재갈, 행엽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류의 형식으로 볼 때 8호분과 유사한 기원후 5세기 후엽으로 편년 가능하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8, 『함안 도항리 고분군-함안 도항리 6-1호분』.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6-1호분 출토유물

01-14 함안 도항리고분군 _ 도항리 428-1번지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도항리 428-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문화재연구원 / 2009.1.~2009.3.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 고배, 개배, 단경호, 통형기대, 환두대도

도항리 428-1번지 일원 유적은 (주)삼양개발에서 다가구주택(삼양인트로빌)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에 해당하며 말이산고분군 구릉의 북서쪽의 작은 구릉에 위치한다. 바로 남쪽으로 인접하여 2005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도항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문화유적과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조사한 도항리 말산리유적이 위치한다. 그리고 북동쪽으로 약 120m 거리에는 마갑총이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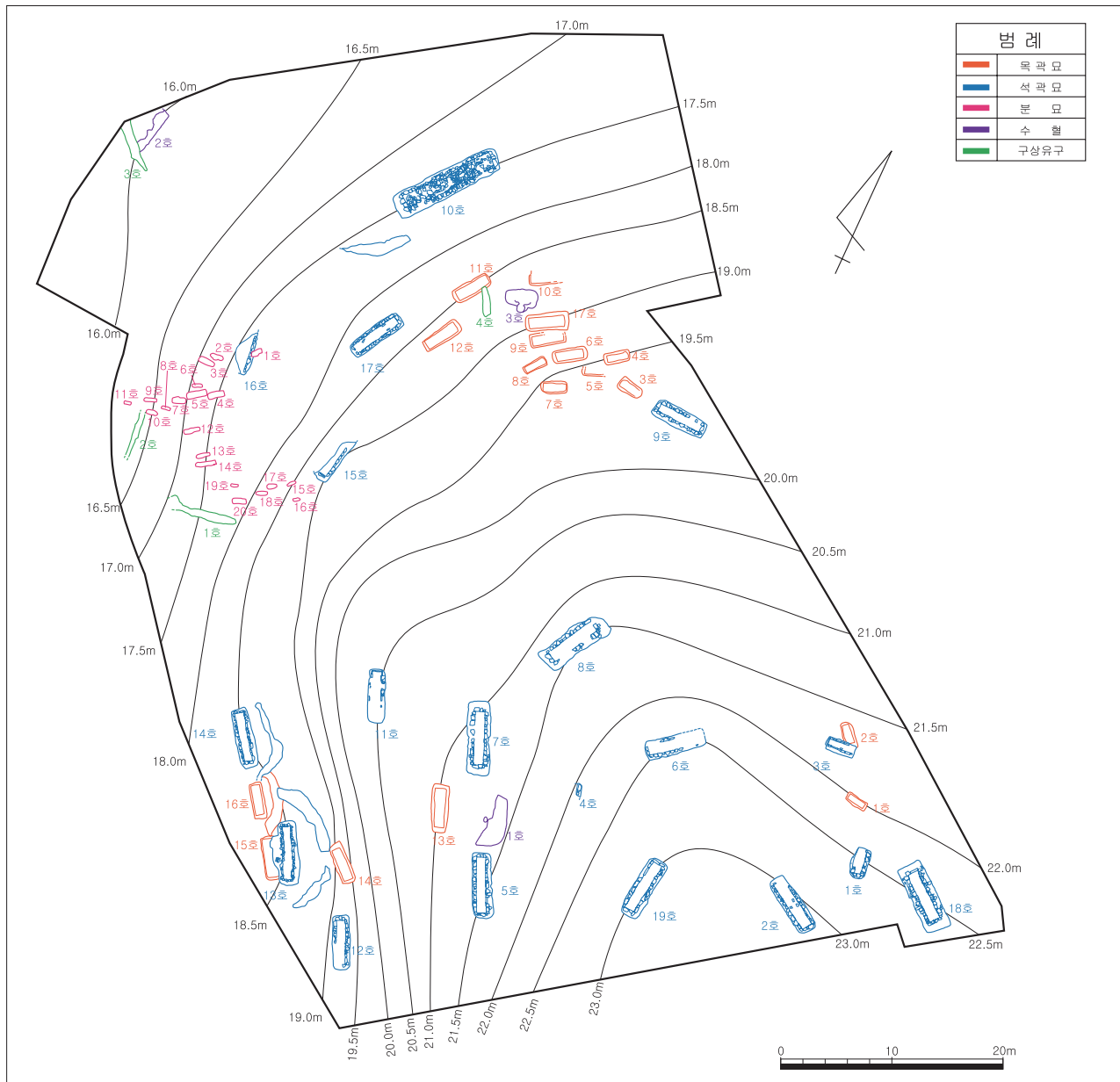
발굴조사에서 삼국시대 목곽묘 17기, 수혈식석곽묘 19기, 조선시대 분묘 20기, 시대미상의 수혈 3기와 구상유구 4기 등 모두 63기가 조사되었다. 목곽묘는 주로 북쪽과 서쪽 완사면에 열을 이루며 조성되었으며 일부는 수혈식석곽묘에 의해 파괴되어 묘제의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수혈식석곽묘는 석곽 조성방법에 따라 세분되며, 목개시설과 내부 목곽과 목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출토유물 중 토기는 417점, 철기 350점, 장신구 86점, 기타 8점 등 총 861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적의 연대는 목곽묘

유적 위치도

출토 토기와 수혈식석곽묘 출토 토기의 검토 결과, 기원후 4세기 후반부터 목곽묘가 조영되다가 기원후 5세기 중후반에 수혈식석곽묘로 교체된 후 기원후 6세기 전반까지 수혈식석곽묘가 조영된 것으로 편년된다.

도항리 428-1번지 일원 유적의 조사를 통해, 말이산 주능선과 제1가지능선 사이에 하나의 가지능선이 더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가지능선에 봉토가 없는 삼국시대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 다수가 밀도 높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말이산고분군의 원형복원을 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경상문화재연구원, 2011, 『함안 도항리 고분군-도항리 428-1번지 일원-』.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3호 목곽묘

10호 석곽묘

13호 석곽묘

13호 석곽묘 유물 출토모습

01-15 함안 말이산 100·101호분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987-4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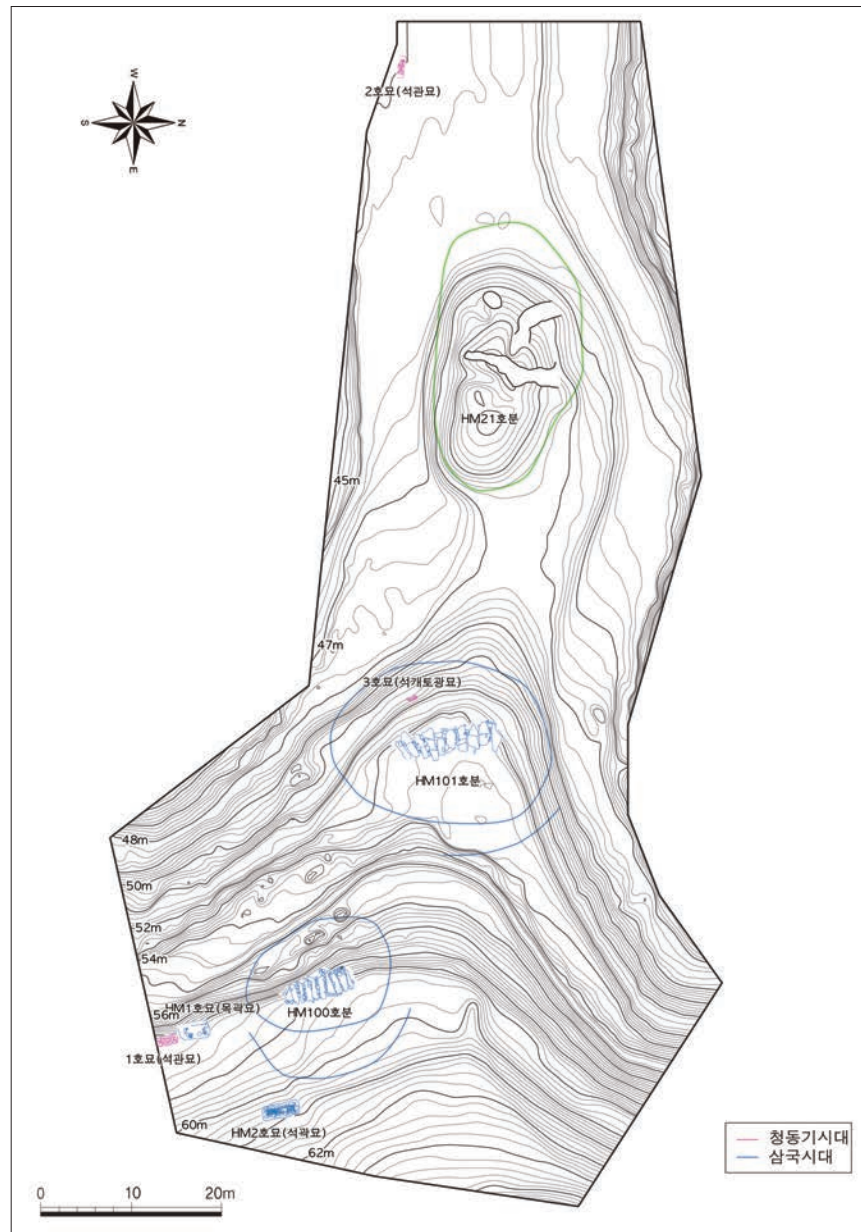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14.1.~2014.7.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수혈식석곽묘 / 유개고배, 개, 고배, 대부호, 발형기대, 통형기대, 살포, 철촉, 유자이기, 성시구, 안교, 재갈, 운주

함안 말이산고분군 100·101호분은 2014년 함안 말이산고분군 정밀 지표조사 학술용역을 통해 새롭게 그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봉분이 남아있는 고분은 127기로 밝혀졌다. 100·101호분은 밭 경작으로 대부분 삭평된 상태였으며 지표에서 도굴갱이 발견되어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봉토분 2기 외에 청동기시대 석관묘 2기·석개토광묘 1기, 삼국시대 목곽묘 1기·석곽묘 1기가 추가로 조사되었다. 100·101호분은 남북방향의 주능선에 위치한 20호분과 여기서 서쪽을 뻗은 가지능선에 조영된 21호분 사이에 위치한다.

100호분은 말이산고분군의 북쪽에서 7번째의 가지능선의 시작점에 위치하며 해발 59m 지점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101-21-22-115-117호분이 연속적으로 열상 배치되어 있다. 100호분 봉분의 잔존규모는 동-서 11.3m, 남-북 16.3m, 잔존높이 1.5m 정도이다. 동쪽에 시설된 주구의 너비는 4.4m이다. 주구에서는 의례에 사용된 토기 편이 다수

유적 위치도

출토되었다. 봉분의 축조는 크게 「정지단계-석곽축조 및 1차 성토-개석설치 및 밀봉-상부 성토-봉분 외형 완성단계」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되지만, 후대의 삭평으로 인해 상부 성토층과 봉분 외형 완성단계의 전모를 확인할 수 없다. 100호분이 조성된 지점은 경사가 급해지기 시작하는 곳으로 봉분의 절반 정도가 급경사면에 위치하고, 지대가 낮은 서쪽분면의 벽석은 상당부분 지상화 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지대가 낮은 서쪽 봉토에는 암갈색·황갈색·적갈색의 점토를 작은 암반할석과 섞어 견고하게 다지면서 반복 성토하여 견고성을 더하는 공법을 사용하였다. 성토과정에서 구획표시석, 토낭 등은 명확히 학인되지 않았지만, 크게 양분된 구획성토 양상이 확인된다. 매장주체부의 길

유구 배치도

이방향(남-북)을 경계로 동쪽분면은 굵은 풍화암반편과 황갈색점질토를 혼합하여 성토하고, 지대가 낮은 서쪽분면은 작은 암반 편과 암갈색점질토를 혼합하여 쌓아 올렸다. 서쪽분면 봉토는 대체로 점성이 강하고 견고한 상승토층인 반면 동쪽분면은 수평상으로 성토되고 있다. 개석은 10매를 사용하였으며 도굴로 9매가 잔존한다. 모두 셰일계 점판암재로 말이산고분군 남쪽의 쌍계천 상류의 계곡에서 채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묘이며 묘광의 규모는 길이 945㎝, 너비 350㎝이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720㎝, 너비 135㎝로 서장벽은 묘광이 벽석보다 낮은 반지하식 구조이다. 벽석은 점판암계 할석을 사용하였고 상당부분 무너져 원상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남단벽 최상단 중앙과 서장벽에 들보시설(보공과 도리공)이 확인된다. 들보시설은 양 단벽에 각 1개씩, 양 장벽에 각 2개씩 총 6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매장주체부 내부는 「유물부장 공간-주피장자 공간-순장자 공간」으로 3분할 구분하였다. 주피장자 공간과 순장자 공간에는 시상을 마련하였으며 꺾쇠와 관정의 출토로 볼 때 주피장자는 목관에 안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부장공간에는 주로 토기류를 집중부장하였고, 주피장자 공간에는 무기류와 마구류가 집중 부장되었다. 순장자 공간에는 출토된 인골로 볼 때, 족부가 서쪽으로 향하게 비스듬하게 2인을 안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순장자공간에는 이식과 도자, 재갈, 화염형투창고배가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로 보아 100호분은 기원후 5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101호분은 정상부에 위치한 20호분과 가지능선에 위치한 21호분 사이의 해발 52m

유적 전경

의 경사면에 위치한다. 101호분의 동쪽으로 100-20호분, 서쪽으로 21-22-115-117호분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봉분의 잔존규모는 남북 23.4m, 동서 18.8m, 잔존높이 2.3m 정도이다. 동쪽으로 해발 53m상에 주구가 일부 잔존한다. 주구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100호분과 마찬가지로 101호분도 급경사면에 입지하고 있어, 경사가 낮은 남·북·서쪽 봉토에는 암반할석과 황갈색, 암회색의 점토를 번갈아 다지면서 반복 성토하여 봉토를 견고히 하였다. 101호분의 봉분축조는 「정지단계-봉분 기저부 성토-석곽축조-개석설치 및 밀봉-봉분성토-봉분외형 완성 단계」로 구분된다. 개석 상부의 봉분은 2차례의 공정으로 구분되는데, 각 공정은 대구획과 소구획을 기준으로 구획성토되었다. 1·4분면 동반부 성토과정에서 매장주체부 전체를 감싸는 타원형의 주제周堤를 설치하였고, 지대가 낮은 서쪽 분면에는 암반할석과 황갈색 및 적갈색사질토를 이용하여 1차 성토하고 개석 상부에는 제방상 성토 후에 상부성토를 진행하였다. 2·3분면 서반부에서는 성토과정의 작업로가 확인되었다. 개석은 모두 10매가 사용되었고 셰일계 점판암재이다.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묘로 묘광의 규모는 길이 10.3m, 너비 3.8m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8.8m, 너비 1.64m이다. 벽석은 점판암계 할석을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무너진 상태였다. 남단벽 최상단 중앙과 서장벽에 들보시설(보공과 도리공)이 잔존하며, 양 단벽에 각 1개씩, 양장벽에 각 2개씩 모두 6개의 들보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매장주체부의 내부는 「유물 부장 공간-주피장자 공간-순장자 공간」의 3분할 구분하였다. 유물 부장 공간에는 토기류를 집중 부장하였고, 주피장자 공간에는 무기류, 마구류, 장신구류가 집중 부장하였다. 순장자 공간에는 인골 2구가 확인되었으며 이식과 도자, 철겸, 고배 등이 출토되었다. 순장자 2인은 주피장자와 평행하게 안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된 유물로 볼 때, 101호분도 기원후 5세기 후엽으로 편년되며, 100호분과는 100→101호분의 순서로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6, 『함안 말이산 100·101호분』.

101호분

출토유물

01-16 함안 말이산 21호분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987-4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14.12.~2015.3.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수혈식석곽묘 / 개배, 호, 기대, 철부, 찰갑, 안교, 재갈

함안 말이산 21호분은 북쪽에서 7번째 가지능선에 위치하며 해발 47.4m 지점에 축조되어 있다. 가지능선의 가장 중앙부에 위치하며 인접하여 서쪽으로 22호분, 115호분, 117호분이 위치하며, 동쪽으로 100호분, 101호분, 20호분이 연속하여 배치되어 있다. 21호분의 봉분 규모는 길이 26m, 너비 15m로 인접한 봉토분에 비해 규모가 가장 크다. 21호분은 「①묘역조성 및 정지공정 ②묘광 굴착 및 봉분 외연 조성 ③매장주체부 구축 ④피장자 안치 ⑤개석 축조 및 밀봉 ⑥봉분성토(3~4차) ⑦봉분 외형 완성」의 모두 7단계의 공정으로 구분된다.

21호분 축조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장주체부인 석곽의 길이가 10m에 달하기 때문에 동-서 방향의 타원형 묘역을 조성하였고, 북고남저, 동고서저의 지형을 고려하여 남쪽과 서쪽을 성토하여 평탄화한 후에 매장주체부를 구축하였다. 특히 지형이 낮은 서쪽부분은 석곽을 축조하면서 동시에 성토하였다. 묘역의 1차 성토는 묘광 굴착 과

유적 위치도

정에서 확보된 셰일계 점판암과 저지대에서 운반해 온 점질토를 이용하였고, 지형이 높은 동쪽과 북쪽 분면은 가장자리에 주제를 쌓았다. 매장주체부는 동-서로 긴 세장방형 구조이며, 「유물 부장 공간-주피장자 공간-순장자 공간」으로 명확히 3분할 구분되며 주피장자공간과 순장자공간에는 할석시상하였다. 주피장자는 목관에 안치하였으며 두향은 출토된 경식과 팔찌의 위치로 보아 서향으로 판단된다. 매장주체부에서는 순장자 2인이 확인되었다. 순장자는 석곽의 장축 방향 동-서로 나란히 매장하였으며 두향은 주피장자를 향한 서향이다. 성별은 확인되지 않지만, 순장자 중 1명의 연령은 약년 후반(17~19세)로 추정된다. 벽석은 암반할석을 이용하였고,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상하좌우에 점토로 보강하였다. 벽석 최상단에는 개석 설치를 위해 암갈색점질토를 깔았다. 개석은 총 11매를 설치하였으며 대부분 반절되어 함몰되었고, 벽석도 붕괴되어 들보시설은 확인할 수 없었다. 개석 설치 후, 3~4차례 성토가 이루어졌는데, 성토공정은 90~110㎝ 정도로 일정하며 구획성토가 이루어졌다. 공정 단위별 소구획은 길이 2~3m, 너비 2~3m 정도의 방형 또는 장방형 형태이다. 동-서 중심토층에서 확인되는 소구획은 8단위로 구분되고, 남-북 중심토층에서 확인되는 소구획은 4단위이다. 높은 지형인 동-북-서 분면은 주제에서 내사향하는 토층이 확인되고, 지형이 낮은 남쪽은 수평 성토 양상이 확인된다. 구획성토는 봉분의 외연에서 매장주체부 상층으로 진행되었으며, 남쪽 분면의 외곽을 감싸는 봉분을 먼저 쌓고 북쪽 분면 외곽을 다음으로 쌓고, 마지막으로 매장주체부 상부를 성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획단위에서 지그재그상의 토층면이 관찰되지 않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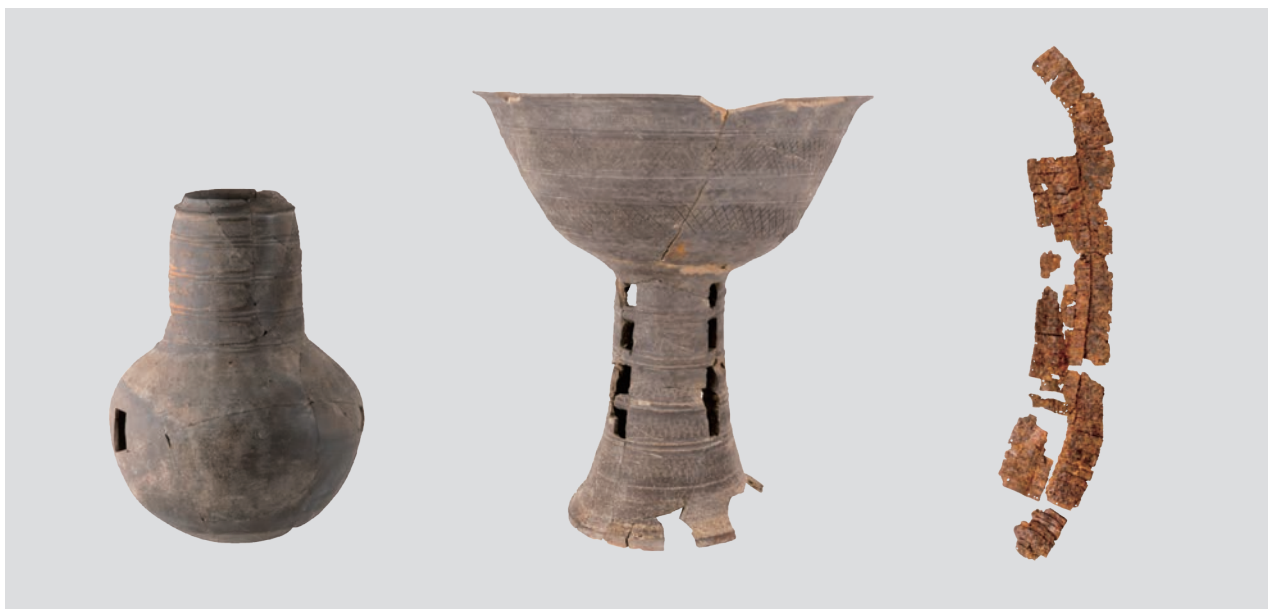
21호분

으로 보아 각각의 단위를 구분하여 성토하였으며, 구획단위에서 물성과 토색이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성토재는 저지대에서 운반해온 회색, 적갈색, 황갈색점질토를 주로 사용하였다. 유물은 대부분 교란되었으나 토기는 유물부장공간에서 개배, 화염형투창고배, 삼각형투창고배, 파수부배, 발형기대, 장경호, 대호가 출토되었으며, 금속기류는 찰갑, 안교, 재갈, 철부, 철정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마구류와 토기류의 형식으로 보아 기원후 5세기 후엽으로 편년 가능하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7, 『함안 말이산 21호분』.

21호분 석곽묘 전경

21호분 북 6분면 토층

출토유물

01-17 함안 말이산고분군 제25·26호분

소재지
경상남도 함암군 가야읍 도항리 773-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15.2.~2015.12.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수혈식석곽묘 / 등잔형토기, 고배, 개, 대부완, 사이부호, 대호, 발형기대, 세환이식, 유자이기, 성시구, 대도, 철모, 재갈, 행엽, 등자, 살포

함안 말이산 25·26호분의 학술발굴조사는 말이산고분군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자 수립된 「2013년 함안 말이산고분군 종합정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25호분은 말이산고분군의 주능선이 남쪽으로 이어지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이마니시 류에 의해 발굴이 시행되었으며, 개석의 함몰로 매장주체부 내부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봉분의 규모(조사전)는 직경 27.8m, 높이 2.3~6.4m이며 원형이다. 25호분의 봉분 성토방식은 기본적으로 크기 약 25㎝ 내외의 점토블록을 최소단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렸으며 봉분 전체의 성토단위와 기저부의 위치에 따라 단계별로 수평성토나 제방상을 이뤄가며 성토하였다. 그 외에 경사면 아래쪽에 토제를 설치하여 기능적으로 보완한 점, 매장주체부(석곽) 상부에 밀봉하지 않은 점, 봉분 전체의 피복토가 확인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묘로

유적 위치도

묘광은 등고선과 평행하게 세장하게 굴착하였다. 경사가 낮은 남장벽 쪽은 벽석의 절반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반지상식의 구조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약 11.7m, 너비 3.8m, 깊이 0.6~1.7m이다. 개석은 총 12매이며 화강암제 개석은 사용되지 않았다. 석곽은 길이 10.65m, 너비 1.85m, 높이 1.9m의 세장방형이다. 벽석은 이암계 셰일의 판석을 사용하였고, 들보시설(보공과 도리공)이 동단벽에 뚜렷하게 잔존하며, 양 단벽에 1개씩, 양 장벽에 대칭적으로 2개씩 총 6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에는 길이 10cm 이내의 납작한 천석을 전면에 골고루 깔아서 시상을 마련하였다. 매장주체부 내부공간은 3분할하였으며 서단벽쪽은 유물부장공간, 중앙부는 주피장자공간, 동단벽쪽은 순장자공간으로 구분된다. 순장자는 총 4인으로 주피장자와 평행하게 2인이 배치되고, 그 아래로 직교되게 다시 2인의 순장자를 안치하였다. 이러한 순장자 배치양상은 말이산고분군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순장자 배치방향이 「직교→평행」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판단된다. 유물은 토기류로 등잔형토기, 개, 고배, 파수부고배, 배, 유개파배, 대부완, 장경호, 사이부호, 발형기대가 출토되었으며, 철기류는 성시구가 양호한 상태로 일괄로 출토되었고, 유자이기, 철정, 철부, 살포 및 검릉형행엽, 재갈 등의 마구류가 출토되었다. 유물을 통해 본 25호분의 연대는 기원후 6세기 1/4분기의 빠른 단계로 편년된다.

26호분은 말이산고분군의 주능선상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린 가지능선 가운데 북쪽에서 6번째의 가지능선에 위치한다. 26호분은 25호분 봉분을 완전조사한 것과 달리 부분적인 트렌치조사를 통해 봉분의 성토방식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 봉분 성토방식은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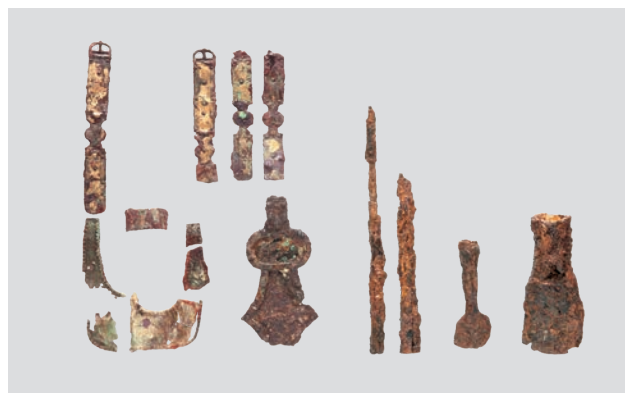
25호분과 성토재의 구성비율에서만 조금 차이가 날 뿐 대체로 25호분과 동일한 양상이다. 봉분의 규모(조사전)는 직경 30.3m, 높이 2.3~5.2m의 평면 원형이다. 봉분은 북동쪽이 경사가 높고 남서쪽이 낮으며 기저부를 기준으로 약 3m 이상의 높이차가 있는 경사면에 설치되어 있다. 성토재는 25호분과 비교해서 습지기원 성토재가 많은 편이다.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묘로 묘광의 규모는 길이 약 13.2m, 너비 3.7m, 깊이 70~120㎝이다. 개석은 총 12매이고, 화강암 1매와 퇴적암(혼펠스) 11매로 이루어져 있다. 석곽의 밀봉토는 확인되지 않고, 개석하부에 벽석과 개석간의 접착을 위해 흑갈색점질토를 벽석최상단에 바른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양 장벽의 최상단 벽석을 따라 폭 15㎝ 정도의 각재를 길게 설치한 흔적이 조사되었는데, 개석의 이동과 미세한 조정을 위한 장치로 추정된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10.1m, 너비 1.6m, 높이 1.6m이다. 벽석은 기반암인 이암계 셰일의 판석을 이용하였다. 동단벽과 북장벽에는 들보시설(보공과 도리공)이 뚜렷이 잔존하는데, 양 단벽에 1개씩과 양 장벽에 대칭적으로 2개씩. 총 6개가 시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에는 길이 10㎝ 이내의 납작한 천석을 전면에 골고루 깔아서 시상을 마련하였다. 내부공간은 3분할 구분하였으며 25호분과 동일하다. 순장자는 순장인골을 기준으로 최소 3~4인 확인되며 주피장자와는 직교되게 안치되었다. 유물은 토기류로는 유개고배, 개, 고배, 파수부고배, 배, 파수부배, 장경호, 대호, 발형기대가 부장되었고, 철기류는 다량의 철촉군과 성시구, 철부, 철겸 등의 공구류, 대도, 철모, 철검, 경갑 등 무기·무구류, 유자이기 등의 의기류, 안교, 재갈, 운주, 행엽, 등자 등의 마구류가 출토되었다. 유물을 통해 본 26호분의 연대는 기원후 6세기 1/4분기로 25호분과 거의 동일하며, 26→25호분의 선후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1914년 일제강점기 도리이 류죠의 1호분 발굴조사로부터 시작한 말이산고분군의 봉토분 조사는 일제강점기에는 주능선, 해방이후는 가지능선에 집중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고분군의 남쪽부분인 25호분 부근의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25호분과 26호분의 조사를 통해 말이산고분군의 변천과정 및 지배층의 입지에 따른 위계관계를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를 확보하였다는데 조사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조선총독부, 1920,『대정6년 도고적조사보고』.

우리문화재연구원, 2018,『함안 말이산고분군 제25·26호분』.

25호분 출토 토기류

25호분 출토 금속류

0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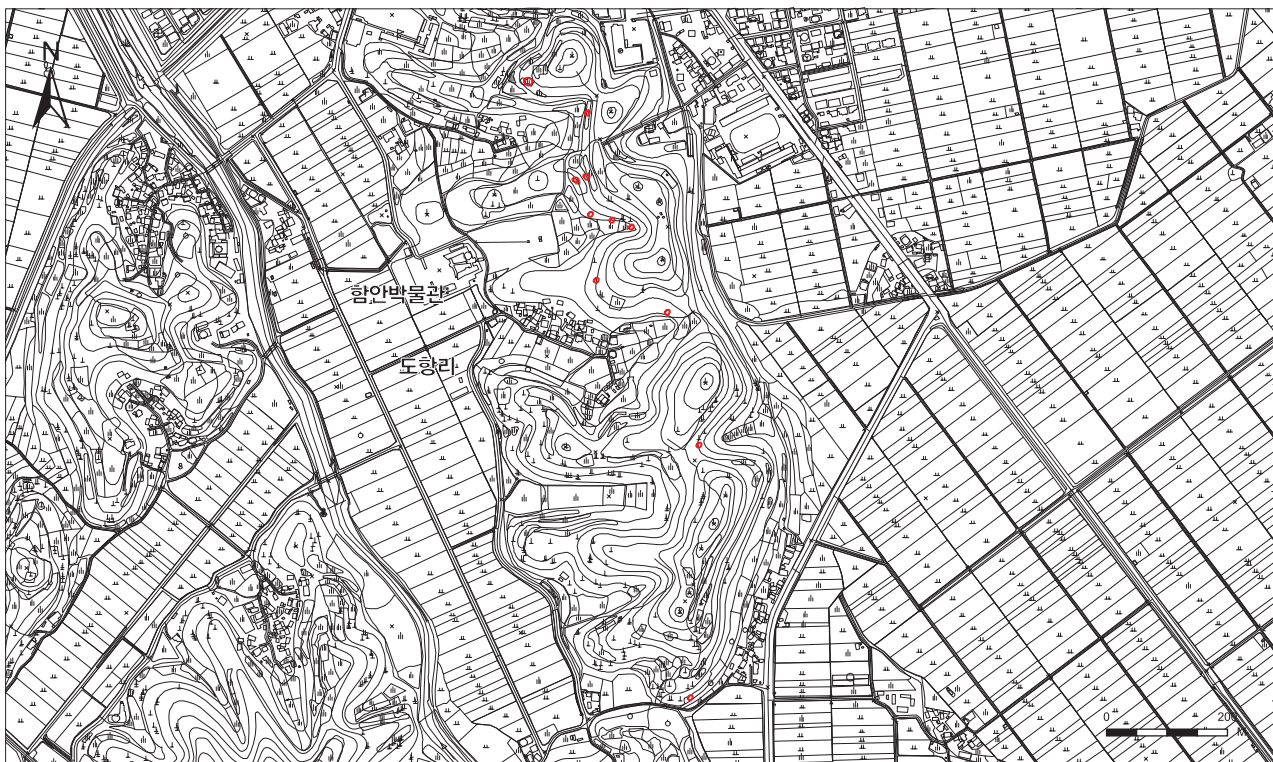
함안 도항리 527번지 말이산고분군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52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16.2.~2016.4.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식석곽묘 / 고배, 개배, 기대, 이형토기, 세환이식, 유자이기, 철정, 상감대도, 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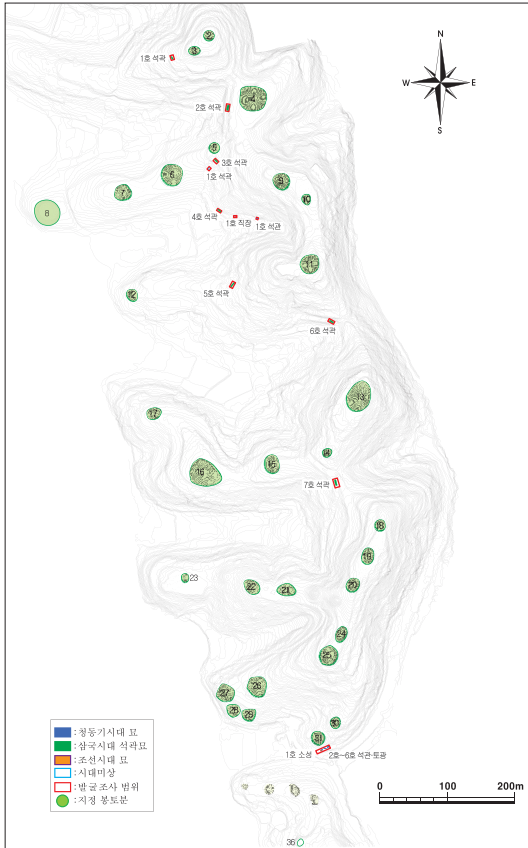
함안 도항리 527번지 유적은 말이산고분군 내 무분별하게 자생하고 있는 수목에 대한 정비사업과정에서 무단으로 작업로가 개설되어 수목정비 사업부지 내에 분포하는 유구에 대한 발굴조사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분묘 6기,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 7기, 조선시대 분묘 1기와 소성유구 1기, 시대미상의 수혈과 주혈 등 총 22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는 수혈식석곽묘 7기로, 2호와 7호를 제외하면 상부가 모두 유실되어 최하단석 정도만 잔존하여 상태는 불량하다. 조사된 석곽묘의 특징 중, 2호 석곽묘의 북단벽 모서리 부근에 돌기모양의 추정 선반시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문〉54호분의 북단벽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구조이다. 유물은 대체로 도굴과 파괴로 심하게 교란되었는데, 토기류와 철기류가 중심이다. 5호 석곽묘에서 도신의 양면에 새, 연꽃 등의 문양을 은으로 상감한 대도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의 축조연대는 출

유적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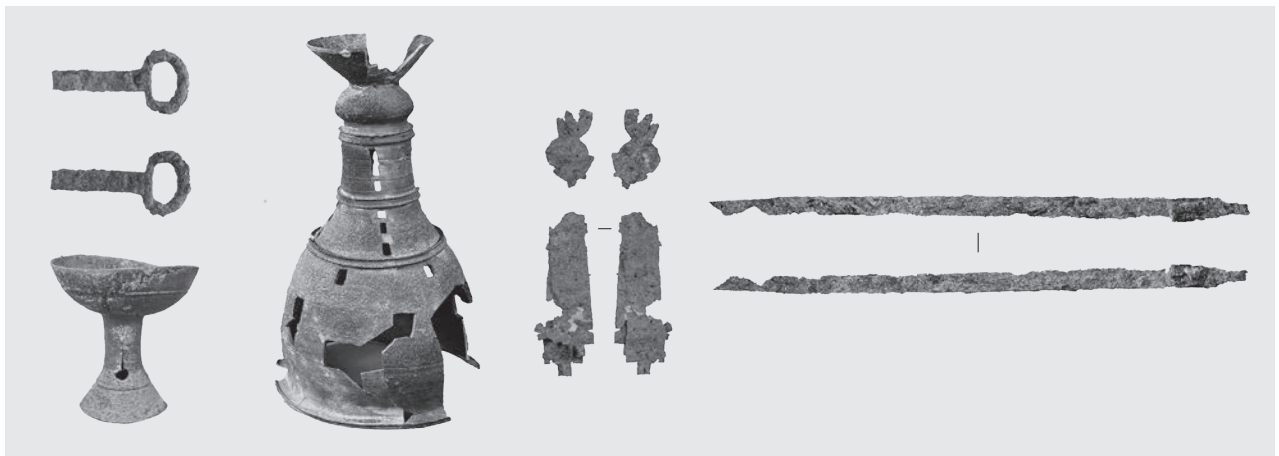
토된 유물로 볼 때, 기원후 5세기 3/4~6세기1/4분기에 해당한다.

함안 도항리 527번지 유적의 조사를 통해 청동기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말이산고분군 일대 구릉의 유구분포 양상과 고분군 조영양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18, 『함안 말이산고분군 정비사업부지 내 함안 도항리 527번지 유적』.

유구 배치도

2호 석곽묘

5호 석곽묘

출토유물

02

함안 남문외고분군 11호분

| 경상남도기념물 제226호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858-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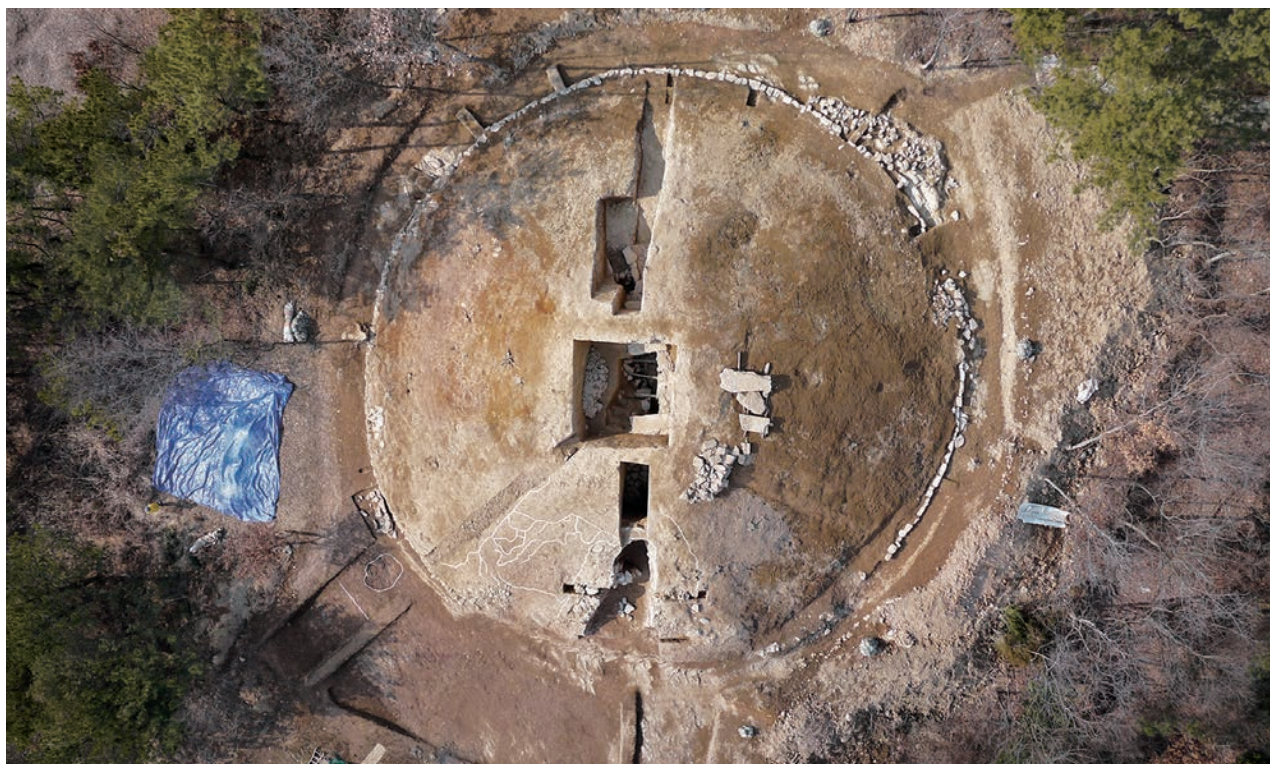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14.10.~2015.1.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횡혈식석실묘 / 유개고배, 파수부배, 사족배, 기대, 찰갑, 마구류

함안 남문외고분군은 여항산에서 북서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북쪽 끝부분에 형성되어 있으며, 고분군이 형성된 구릉은 해발 30m 내외의 저산성 구릉지로 신음천을 따라 좁고 길게 뻗어 있다. 말이산고분군과는 동서로 약 0.7~1㎞의 거리를 두고 입지한다. 남문외고분군이 형성된 구릉은 전체 1.7㎞에 달하며 고분군의 북서쪽에 위치한 삼봉산 정상에는 봉산산성이 위치한다. 북쪽으로 인접하여 전 안라왕궁지가 입지하며 북서쪽으로는 덕전고분군과 필동고분군이 자리한다. 남문외고분군에 대한 고고학 조사는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으며 가장 이른 조사로는 1915년 도쿄제국대학의 명을 받은 쿠로이타 카츠미의 조사이며, 이미 파괴되어 있는 적석총(석곽묘) 1기를 발굴하였지만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1917년에는 이마니시 류가 18기의 봉토분을 확인하고 분포도와 현상을 『대정6년도고적조사보고』(1920)에 보고한 바 있다. 이후 1981년 마산대학박물관의 「가야문화권 학술조사」와 1995년 국립창원대학교박물관의 「아라가야문화권유

유적 위치도

적 정밀지표조사」, 1998년 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의 지표조사 등을 통해 고분군의 범위와 봉토분의 존재가 알려져 오다, 2013년 남문외고분군의 성격을 규명하고 복원정비를 통해 국가사적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 의해 「함안 남문외고분군·전 안라왕궁지 정밀지표조사」가 이루어져 43기의 봉토분과 석곽묘 밀집 분포지역을 확인하게 되었다. 2013년 정밀지표조사에서 남문외고분군의 성격을 가장 잘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1호분을 선정하여 학술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남문외고분군 11호분의 조사는 복원·정비를 위한 발굴조사로 트렌치조사를 통해 봉토의 축조상태를 파악하고 도굴갱을 정비하여 매장주체부의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정된 조사가 이루어졌다. 봉분은 직경 29.5m, 높이 5m이며, 점질토를 이용하여 구획성토하였으며 8분면 정도로 구분된다. 구획성토는 이질성토재나 석렬을 사용하였다. 봉분 가장자리에는 호석을 축조하였고 남쪽편에는 장방형 제단도 조사되었다. 매장주체부는 세장방형 횡혈식석실묘로 동단벽 중앙부에 입구부를 마련한 양수식 구조이며 연도가 짧고 묘도가 긴 것이 특징이다. 현실의 규모는 길이 7m, 너비 2m, 높이 2.1m이다. 현실 전벽은 거의 수직이며 좌우벽은 12°, 후벽은 10°의 내경도를 유지하며 축조하였다. 벽석은 점판암을 사용하였고 작은 자갈돌을 끼워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연도는 길이 2m, 너비 1m, 높이 1.4m이다. 연도 바닥은 현실과 평탄하게 연결되며 자갈돌을 깔았다. 현문부는 할석을 쌓아올려 폐쇄하였고 폐쇄석 뒤쪽은 점질토를 채워 보강하였다. 묘도는 연도에서 봉분 외연까지 나팔상으로 벌어지며,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은 'U'자 형태이다. 묘도의 길이는 8.2m,

11호분

상단부 너비는 6.5m, 하단부 너비는 1.3m 정도이다. 묘도 가장자리에서 봉분 축조과정에서 묘도부를 보호하였던 시설물의 목주가 조사되었다. 현실 내의 중앙부에는 피장자를 안치하고 후벽쪽에 토기류를 부장한 것으로 파악되며, 출토유물은 토기류와 금속기류가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아라가야계, 소가야계, 대가야계, 신라계 유물이 혼재하며, 백제토기 영향으로 추정되는 사족배도 출토되었다. 특히 대가야계 통형기대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금속기류로는 안장 부속구, 행엽, 교구 등의 마구류와 대도, 도자, 성시구, 찰갑 등의 무기·무구류, 피장자가 착장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이식과 팔찌가 출토되었다. 남문외고분군 11호분의 축조시기는 토기의 형식으로 볼 때, 기원후 6세기 1/4분기로 편년된다.

해방 후 남문외고분군의 정식조사로는 최초의 조사로 봉분의 성토방법과 매장주체부의 내부구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말이산고분군과의 비교자료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 센터, 2017, 『함안 남문외 고분군 11호분』.

함안박물관, 2013, 『함안박물관 개관10주년 기념 특별전 도록 –말이산』.

묘도

연도

봉토 중앙부 트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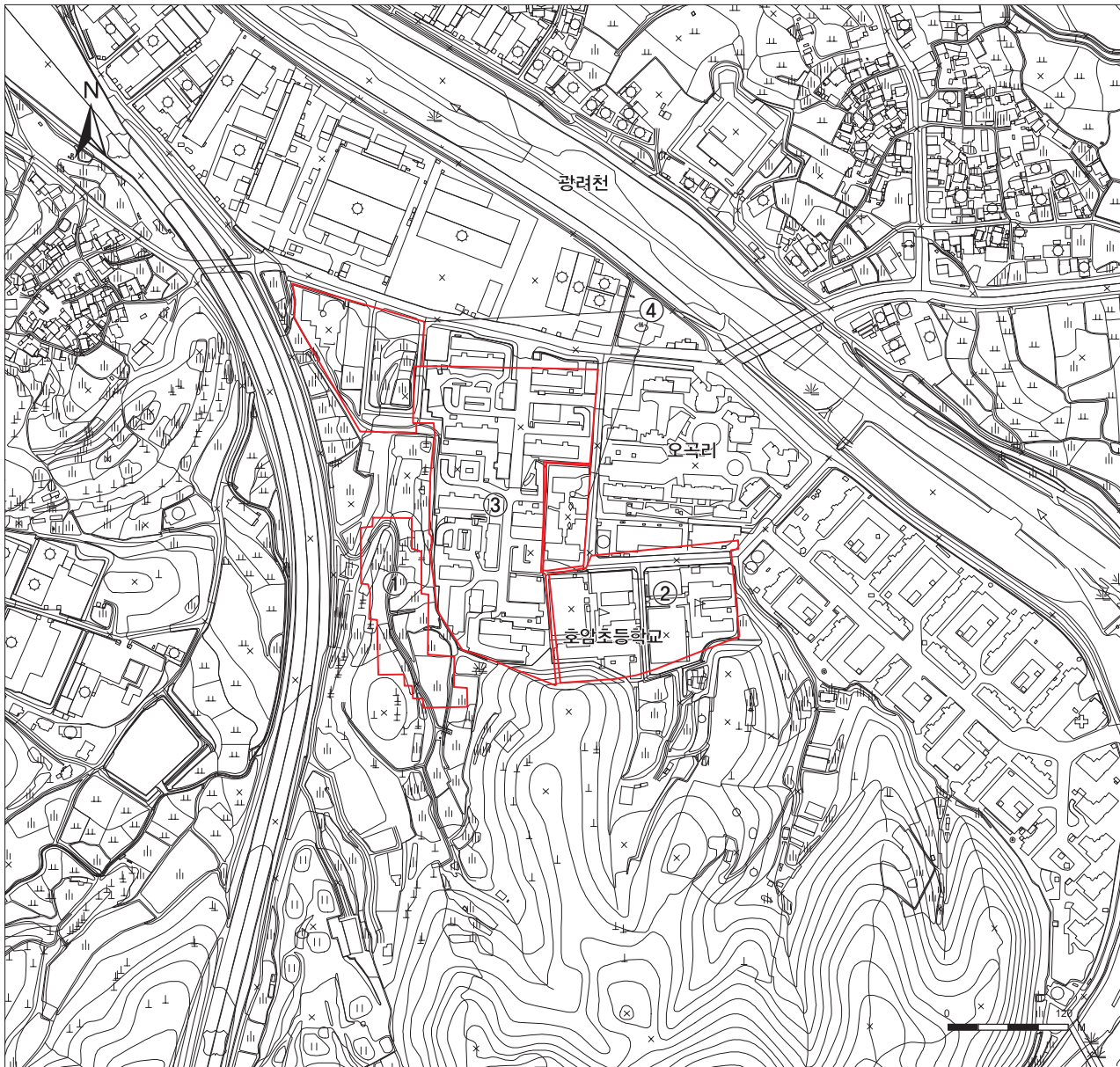
통형기대

03 함안 오곡리유적
咸安 梧谷里遺蹟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에 소재한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1993년 구마고속도로 확장노선이 확정됨으로 인해 도로변에 위치한 구릉 중심부가 1994년도에 창원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조사되면서 고분군의 존재가 밝혀졌다. 이후, 이 구릉부의 북쪽과 동쪽을 중심으로 주변부에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초·중학교가 건설됨에 따라, 1994년 조사된 구릉의 동쪽으로 마주보는 구릉쪽을 경남문화재연구원, 양 구릉의 사면부와 사이의 곡부를 중심으로 우리문화재연구원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함안 오곡리유적은 삼국시대 고분군이 중심인 유적이며 삼국시대 무덤 이외에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집석유구·건물지·분묘, 삼국시대 건물지 및 수혈, 통일신라~조선시대의 가마·건물지·분묘 등 장기간에 걸쳐 다종다양한 유구가 조성되었다.

3개 조사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4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분묘는 목곽묘 14기, 수혈식석곽묘 146기, 석실묘 1기이며 수혈건물지와 수혈도 70여기 조사되어 동시기 매장유구와 생활유구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 조사(함안 오곡리 28번지 유적)에서는 구릉 정선부에 중소형급 봉토분 2기가 조사되어 주변 단위집단의 계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도 확보하게 되었다. 오곡리고분군은 기원후 5세기 전반~6세기 전반대까지 조영된 고분군으로 다양한 지역양식의 토기가 혼재하고 있음이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중소형급 봉토분의 존재와 다양한 지역양식의 토기의 부장 등, 아라가야의 말이산고분군과 같은 중심집단 주변의 개별 단위집단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고분군으로 평가된다.

유적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함안 오곡리유적	창원대학교박물관	1994.5.~1994.7.	함안 오곡리유적(1995)
2	함안 오곡리유적 -함안 도시계획시설지구 내 유적	경남문화재연구원	2005.4.~2005.10.	함안 도시계획시설지구내 함안 오곡리유적Ⅰ-고분군-(2007)
3	함안 오곡리 87번지 유적 -함안 엘엔피아파트 신축부지 내 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2005.10.~2006.6.	함안 엘엔피아파트 신축부지 내 함안 오곡리 87번지 유적(2008)
4	함안 오곡리 28번지 유적 -함안 오곡리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 내 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2007.10.~2008.4.	함안 오곡리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내 함안 오곡리 28번지 유적(2010)

03-1 함안 오곡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산25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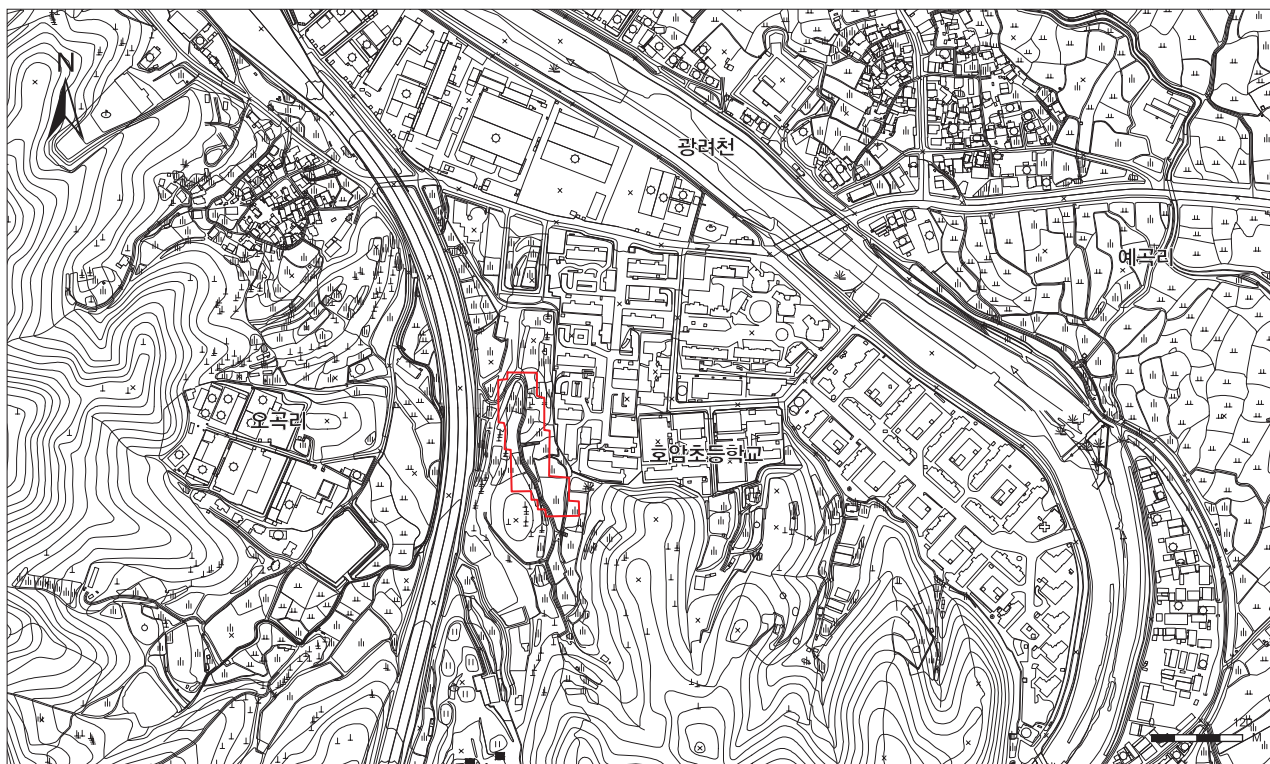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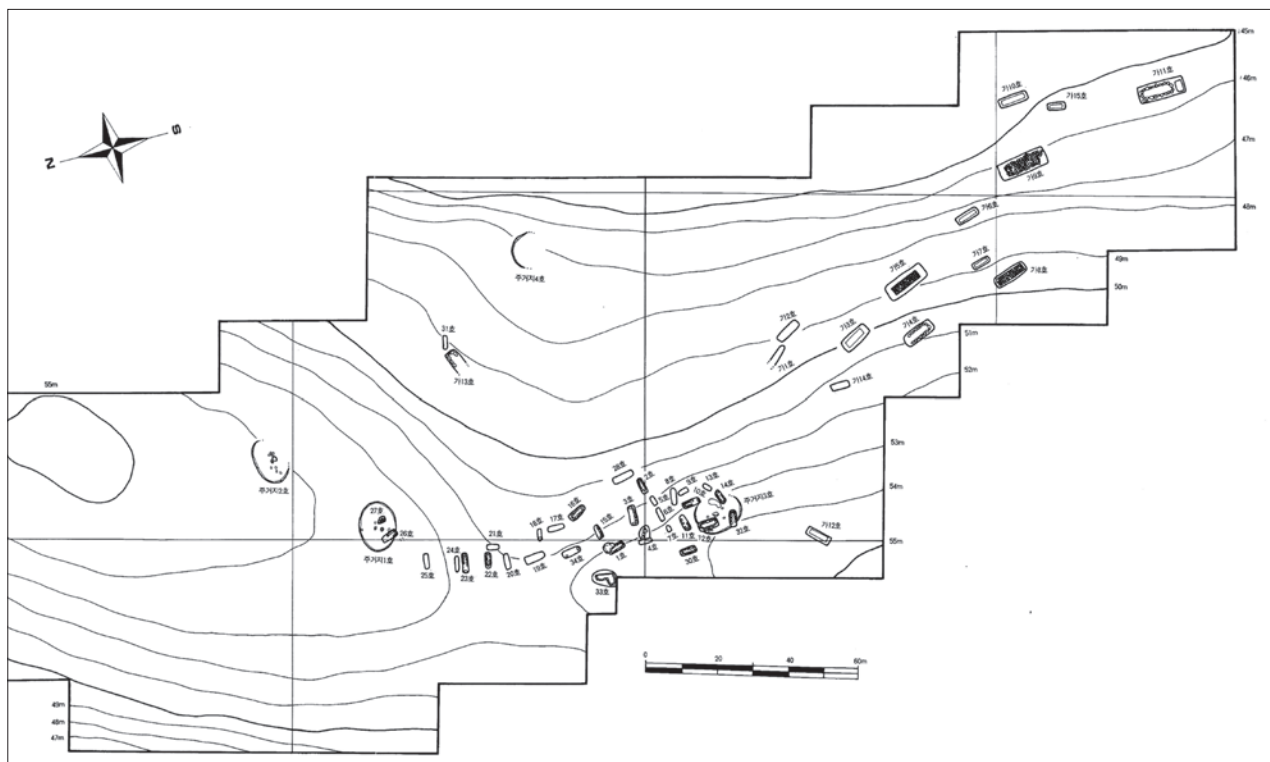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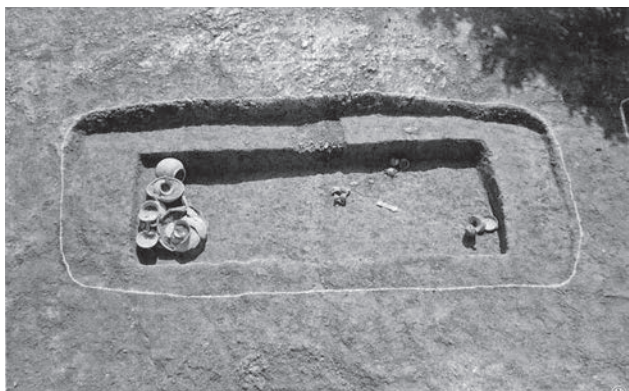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창원대학교박물관 / 1994.5.~19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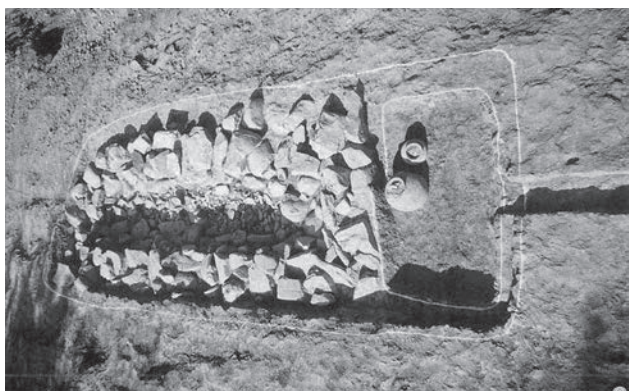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 고배, 파배, 파수부대부호, 소형기대, 발형기대, 통형기대, 철촉, 철모, 유자이기, 철정

함안 오곡리유적은 구마고속도로 확장에 의해 1994년 조사되었다. 오곡리유적은 광려천 주변에 입지한 구릉일대의 넓은 범위에 해당하며, 야촌쪽의 광려천으로 뻗어내린 두갈래의 구릉에 유구가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 지석묘를 포함한 매장유구 34기, 삼국시대 목곽묘 13기, 수혈식석곽묘 1기, 석실묘 1기 등 53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는 나구간의 해발 44~52m 선상의 구릉 경사면에 주로 분포한다. 목곽묘는 3m 이하에서 4.6m 이상의 규모로 말이산고분군에 비하면 소형에 속하고, 바닥에는 잔자갈로 시상을 마련하였으며 유물은 주로 양 단벽 아래에 부장한 구조이다. 유물은 고배, 호, 기대, 철촉, 도자, 철모, 유자이기, 구슬,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으며 유적의 조영연대는 기원후 5세기대를 중심으로 한다.

함안 오곡리유적은 함안군 칠원권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유적으로 사료에 전하는 포상팔국 중 「칠포국」의 고지로 알려져 온 칠원지역에 대한 최초의 학술 발굴조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창원대학교박물관, 1995, 『함안 오곡리유적』.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가야 3호 유구

3호 유구 유물 출토모습

가야 11호분

11호분 출토 토기류

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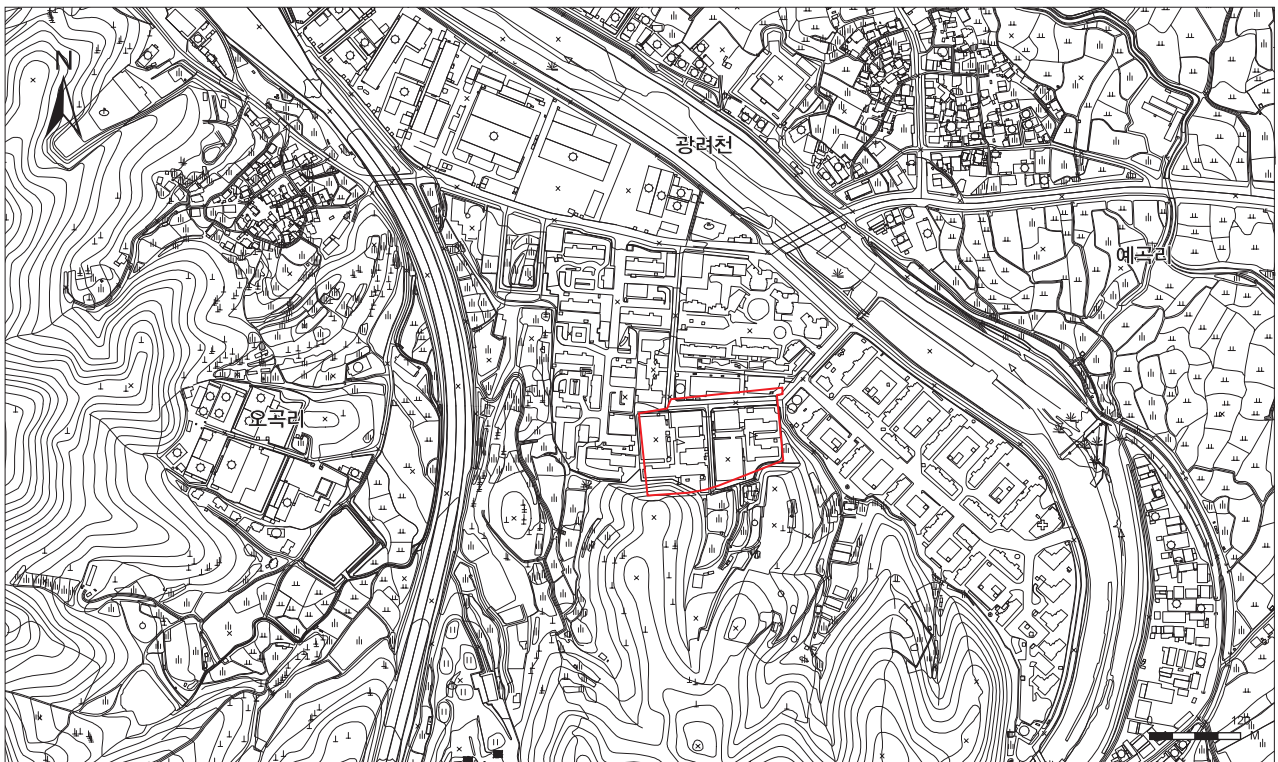
함안 오곡리유적 _ 함안 도시계획시설지구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96-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05.4.~2005.10.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식석곽묘 / 고배, 대부장경호, 발형기대, 통형기대, 대호, 환두대도, 철겸, 유자이기, 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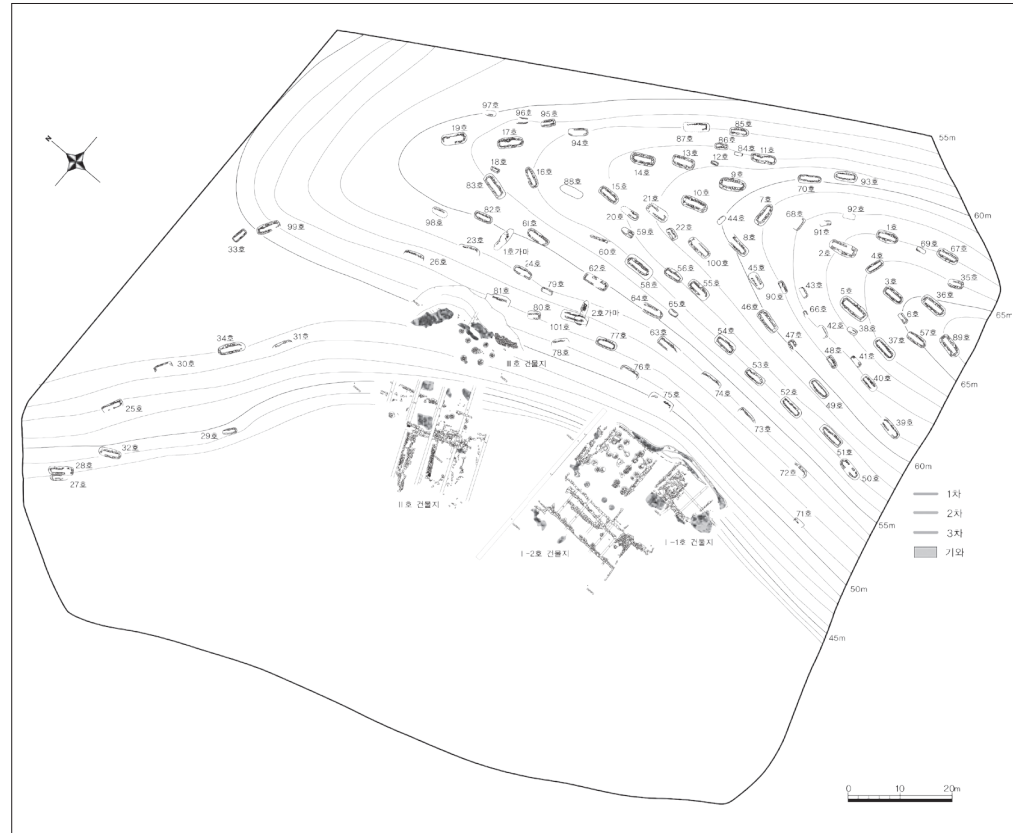
함안 도시계획 시설지구 내 유적은 1994년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함안오곡리 유적과 인접한 능선으로,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와 경계를 이루는 야산에 입지한다. 이 야산의 북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의 말단부와 그 사이 곡부를 포함한 지역이다. 조사지역은 A·B구간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A구간에서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 100기, 소형 석개 토광묘 1기와 나말여초의 가마 2기 등 103기가 조사되었고, B구간에서는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2기와 여말선초 건물지 1기, 조선시대 건물지 1기 등 총 4기의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는 구릉 사면부에 집중 조영되었으며, 주축방향은 대부분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기반암인 혈암풍화암반토를 굴착하고 묘광을 조성하였고, 석곽의 규모는 대략 4~5m의 중형급에 속한다. 평면형태는 세장하며, 벽면의 축조기법이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유물은 유개고배와 무개고배, 대부장경호, 파배, 발형기대, 통형기대, 대호가

유적 위치도

주종이고, 철기류는 환두대도, 철검, 철촉, 유자이기, 철정 등이다. 출토된 유물로 볼 때 고분군의 조성시기는 기원후 5세기 전반~6세기 전반까지로 편년된다.

함안 오곡리유적(경문연)의 조사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오곡리고분군의 구체적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함안 말이산고분군을 정점으로 아라가야의 중심집단과 주변집단과의 관계성을 검토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07, 『함안 도시계획시설지구내 함안 오곡리유적Ⅰ-고분군-』.

유적 위치도

5호 석곽묘

5호 석곽묘 유물 출토모습

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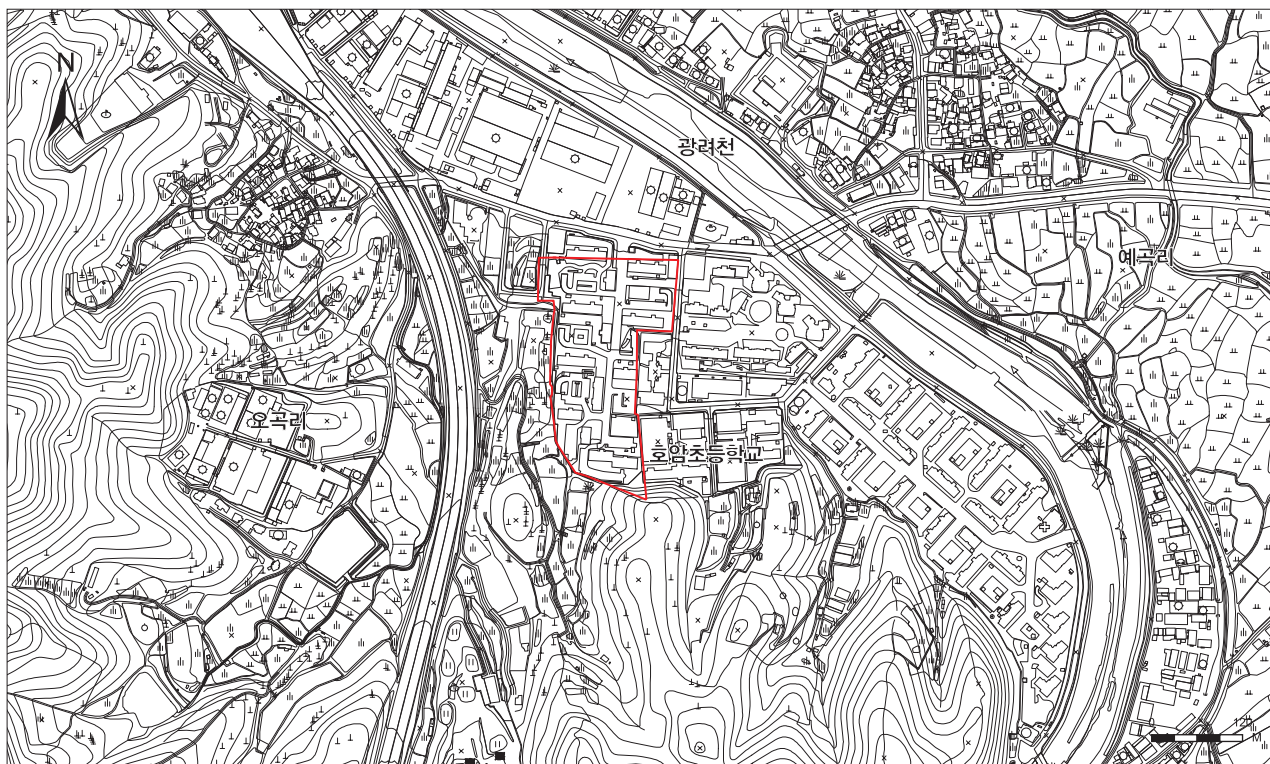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8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05.10.~2006.6.

주요 유구 / 유물
건물지, 수혈식석곽묘
/ 고배, 옹, 호, 발형기
대, 컵형토기

함안 오곡리 87번지 유적 _ 함안 엘엔피아파트 신축부지 내 유적

함안 오곡리 87번지 유적은 광려천의 곡류부 서쪽의 침식성 구릉 사면부와 곡부(작은 여우골)에 해당한다. 1994년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함안 오곡리유적이 위치한 구릉의 동쪽사면부와 2005년 경남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한 함안 오곡리유적이 위치한 구릉의 서쪽 곡부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건물지 1기, 목관묘 2기, 구상유구 2기가 조사되었고, 삼국시대 건물지 37기, 수혈 24기, 목곽묘 1기, 석곽묘 7기, 토기 매납유구 1기, 구상유구 6기와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4기, 요지 6기, 수혈 20기, 부석유구 1기, 구상유구 5기, 논 및 수로 4기, 조선묘 9기, 수로 23기가 조사되었다.

함안 오곡리 87번지 유적은 삼국시대 매장유구인 분묘는 8기에 불과하며 동시기의 생활유구인 건물지가 중심인 유적이다. 건물지는 주로 서쪽의 구릉사면부에 집중 분포하며, 수혈식석곽묘는 능선 북쪽 말단부에 조영되었다. 같은 능선상에 건물지군과 분묘군이 약간의 경계를 둔 채 공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의 집회 등을 위한 대

유적 위치도

형의 건물지(건물지 13호)가 조사되어 주목된다. 건물지는 주거용이 대부분이며 일부 임시작업장으로 추정되는 건물지도 존재한다. 조사된 삼국시대 분묘는 1994년 창원대학교박물관의 오곡리고분군 구릉의 북쪽 말단부 일부에 해당되며 2007년도 조사된 함안 오곡리 28번지 유적에서 이와 연결되는 봉토분 2기를 비롯한 많은 수의 수혈식석곽묘가 조사되었다. 건물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고배, 시루, 옹, 호, 발형기대, 컵형토기 등으로 조성연대는 기원후 4세기 후반~5세기 전반 정도로 편년된다. 함안 오곡리 87번지 유적의 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매장유구와 생활유구의 공간구성 등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08, 『함안 엘엔피아파트 신축부지 내 함안 오곡리 87번지 유적』.

유적 전경

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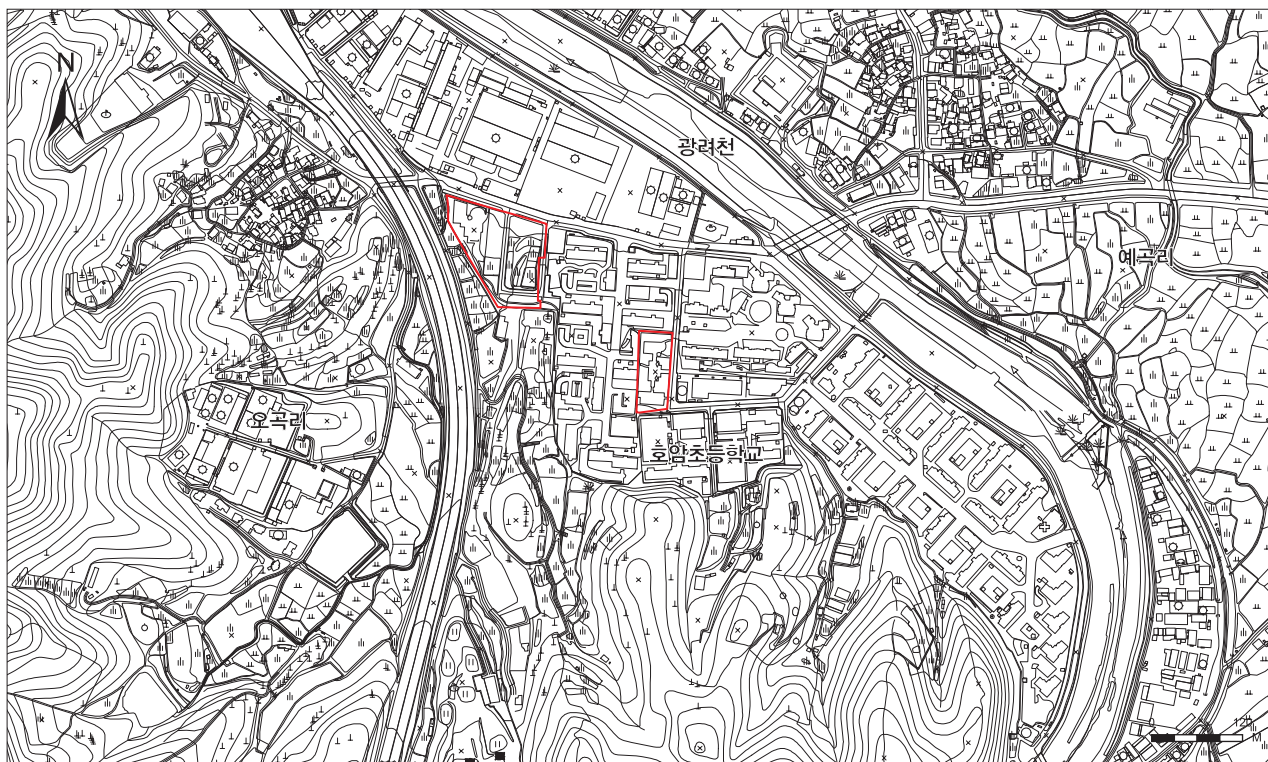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산28-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07.10.~2008.4.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수혈식석곽묘 / 고배, 장경호, 컵형토기, 발형기대, 재갈, 등자, 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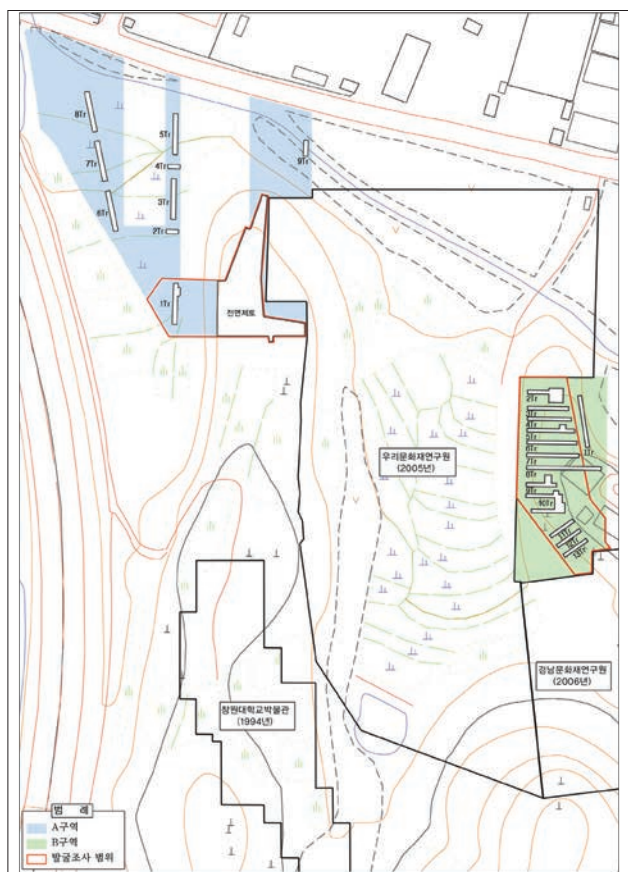
함안 오곡리 28번지 유적 _ 함안 오곡리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 내 유적

함안 오곡리 28번지 유적은 두 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는데, A구역은 1994년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구릉의 북쪽 말단부를 포함하여 광려천의 서안에 형성되어 있는 곡저평지를 포함하며, B구역은 A구역의 동쪽에 마주하고 있으며 2005년도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구릉의 남서사면부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A구역에서 청동기시대 집석유구 1기와 삼국시대 봉토분 2기, 수혈식석곽묘 24기, 수혈건물지 7기, 수혈 1기 및 조선시대 묘 16기가 조사되었다. B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석관묘 1기와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 11기 및 조선시대 묘 6기와 수혈건물지 1기 등 총 70기가 조사되었다.

북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의 정선부라는 우월한 입지에 중소형급의 봉토분이 2기 조사되어, 주변 단위집단의 계층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혈식석곽묘를 중심으로 하는 매장유구와 동시기 수혈 건물지가 조사되어, 함안 오곡리 87번지 유적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취락과 관련하여 자료의 보완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혈식석곽묘는 다

유적 위치도

양한 축조방법을 사용하여 조영되었는데, 동일축조방법을 사용한 석곽이 일정한 구역을 이루고 독립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분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고배, 장경호, 컵형토기, 발형기대가 주를 이루며 철기는 A구역 M1호분에서 재갈, 등자, 안교 등이 출토되었으며 다른 분묘에서는 철촉, 철겸, 철부, 도자 등 소량의 철기만 출토되었다.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류는 아라가야, 대가야, 소가야, 신라양식의 다양한 양식이 나타나고 있어 함안 오곡리고분군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조성시기는 기원후 5세기 3/4~6세기 2/4분기 정도로 편년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10, 『함안 오곡리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 내 함안 오곡리28번지 유적』.

A구역 유구 배치도

A구역 M1호분

토기류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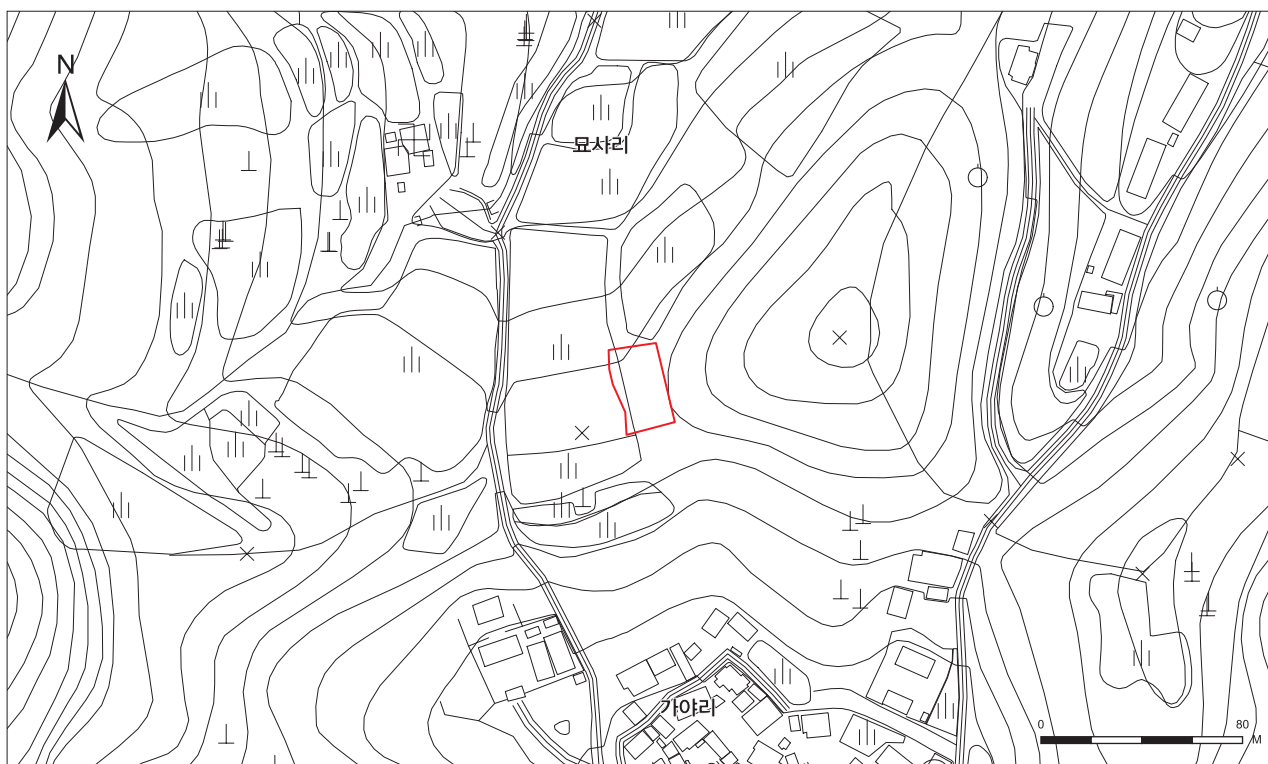
04 함안 묘사리 산134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산13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17.7.~2017.8.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수혈식석곽묘 / 유개고배, 개, 대부장경호, 이식, 철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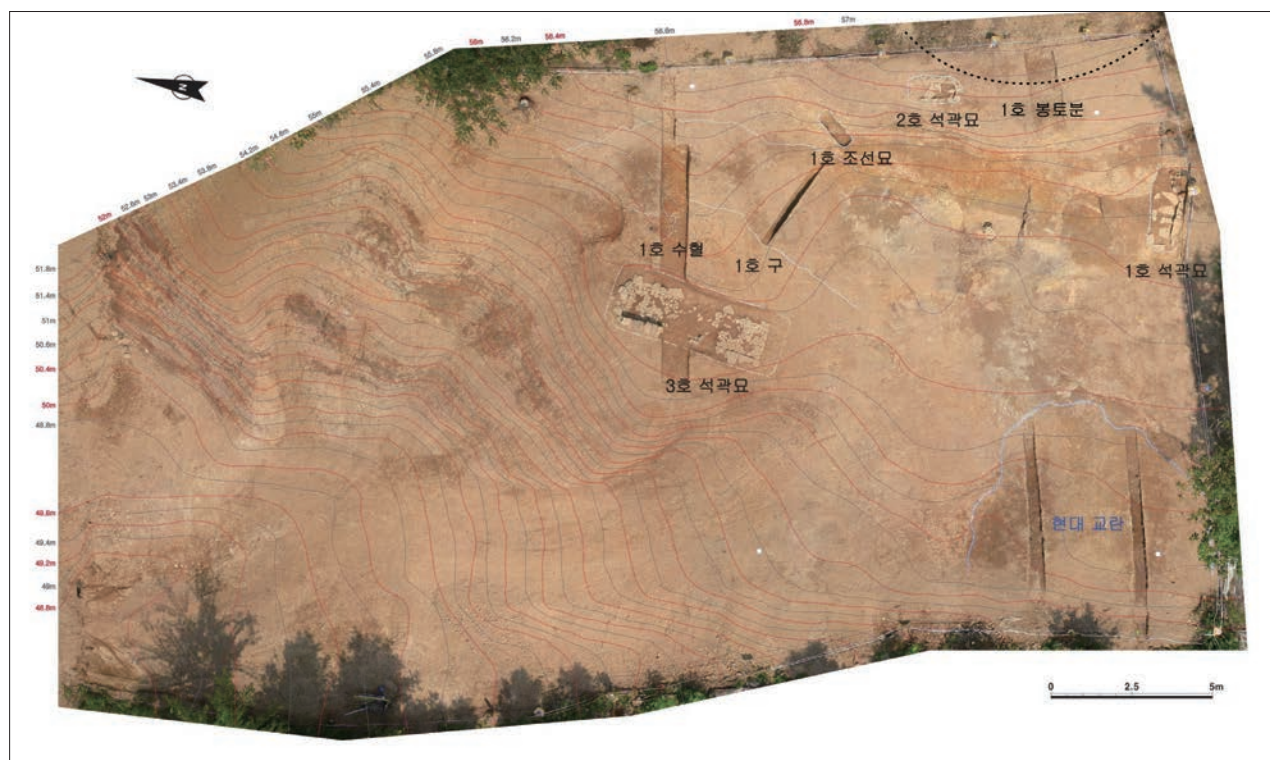
함안 묘사리 산134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은 봉산산성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의 능선부에 해당하며 구릉의 남동쪽 사면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함안 가야리 선왕고분군' 내 포함되어 있으며 단독주택 신축으로 발굴조사되었다. 선왕고분군은 직경 10~12m 급의 봉토분 수기가 분포하는 중대형급 고분군에 속한다. 조사범위 동남쪽과 남쪽 경계 밖으로 직경 약 10m, 높이 약 1m 정도의 봉토분 2기가 인접한다. 조사범위에서 확인된 유구는 삼국시대 봉토분 1기, 수혈식석곽묘 3기, 구 1기와 조선시대 분묘 1기 등 총 6기가 확인되었다.

봉토분 1기는 조사범위의 남동쪽 경계부근에서 확인되었으며 기저부 일부만 조사되었다. 호석은 조성되지 않았다. 수혈식석곽묘는 3기가 조사되었는데 규모가 길이 5m 정도의 중형묘에서 2m의 소형묘까지 다양하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1호 석곽묘는 등고선과 직교하며 나머지 2기의 석곽묘는 등고선과 평행한다. 1·2호 석곽묘는 배치상

유적 위치도

태로 보아 각각 2·1호 봉토분의 배장묘로 추정되며, 규모가 가장 큰 3호 석곽묘는 중형급 봉토분의 매장주체부로 추정된다. 3호 석곽묘와 1호 구는 세트관계로 추정된다. 도굴 및 후대의 삭평 등으로 잔존상태가 좋지 못하며 출토된 유물은 유개고배, 개, 장경호 등의 토기류가 중심이며, 1호 석곽묘에서 금제이식과 철촉이 출토되었다. 연대는 출토유물로 볼 때, 대략 기원후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로 편년된다.

함안 묘사리 산134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의 조사를 통해 지표조사에서만 존재가 파악된 선왕고분군의 성격과 축조집단의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17, 「함안 묘사리(산134)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유구 배치도

2호 석곽묘

3호 석곽묘

05

함안 윤외리분묘군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499-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1992.11.~1992.12.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고배, 개, 컵
형토기, 단경호, 양이
부단경호, 노형토기,
주조철부, 철촉

함안 윤외리분묘군은 부산-순천간을 잇는 남해고속도로 함안분기점에서 북서쪽으로 직선상으로 연결되는 1011지방도를 따라 약 4㎞ 이격되어 석무마을의 왼편의 법수초등학교 뒤편 야산과 연결되는 주변 구릉지대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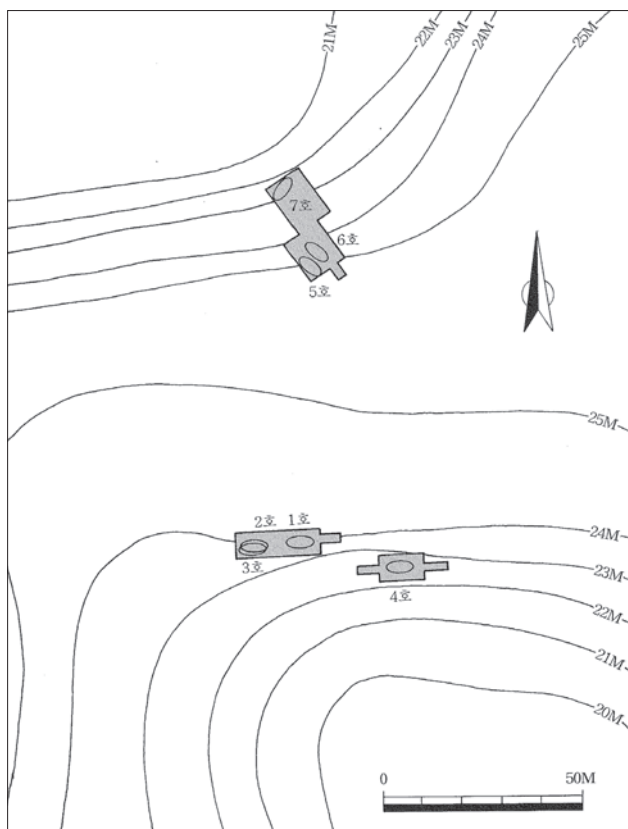
총 7기의 목곽묘가 조사되었으며 장축방향이 등고선과 나란하게 축조되었다. 묘광은 풍화암반층을 굴착하고 축조되었으며 봉분은 모두 유실되고 삭평되어 잔존하지 않는다. 바닥면에는 풍화암반토를 잘게 부수어 고르게 깔아서 정지면을 마련하였으며, 시상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30~547㎝, 너비 117~190㎝ 정도이며 목곽의 규모는 길이 195~390㎝, 너비 59~127㎝ 정도로 중소형에 해당한다. 목곽묘는 서로 중복되지 않고 조성되어 있다. 유물은 총 103점이 출토되었으며 대부분 토기이고 철기는 불과 10점 이내로 매우 빈약한 것이 특징이다. 유물의 부장상태는 대체로 단벽쪽에 치우쳐서 토기들이 일정하게 부장되어 있으며 철기는 유구 내에 불규칙하게 부장되어

유적 위치도

있다. 토기류는 주로 고배, 단경호, 컵형토기, 노형토기가 주종을 이룬다. 유적의 연대는 토기를 통해 볼 때, 기원후 4세기 후반대로 편년된다.

유구의 규모와 출토유물의 양과 질에서 대형 목곽묘가 조성된 말이산고분군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윤외리분묘군을 조성한 피장자들은 이 지역에 정착하여 평범한 삶을 영위해 온 일반인들로 판단되며 삼국시대의 윤외리는 아라가야 정치세력의 중심권 밖에 존재했던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6, 『함안윤외리분묘군발굴조사보고』, 『함안암각화고분』.

유구 배치도

1호분

출토유물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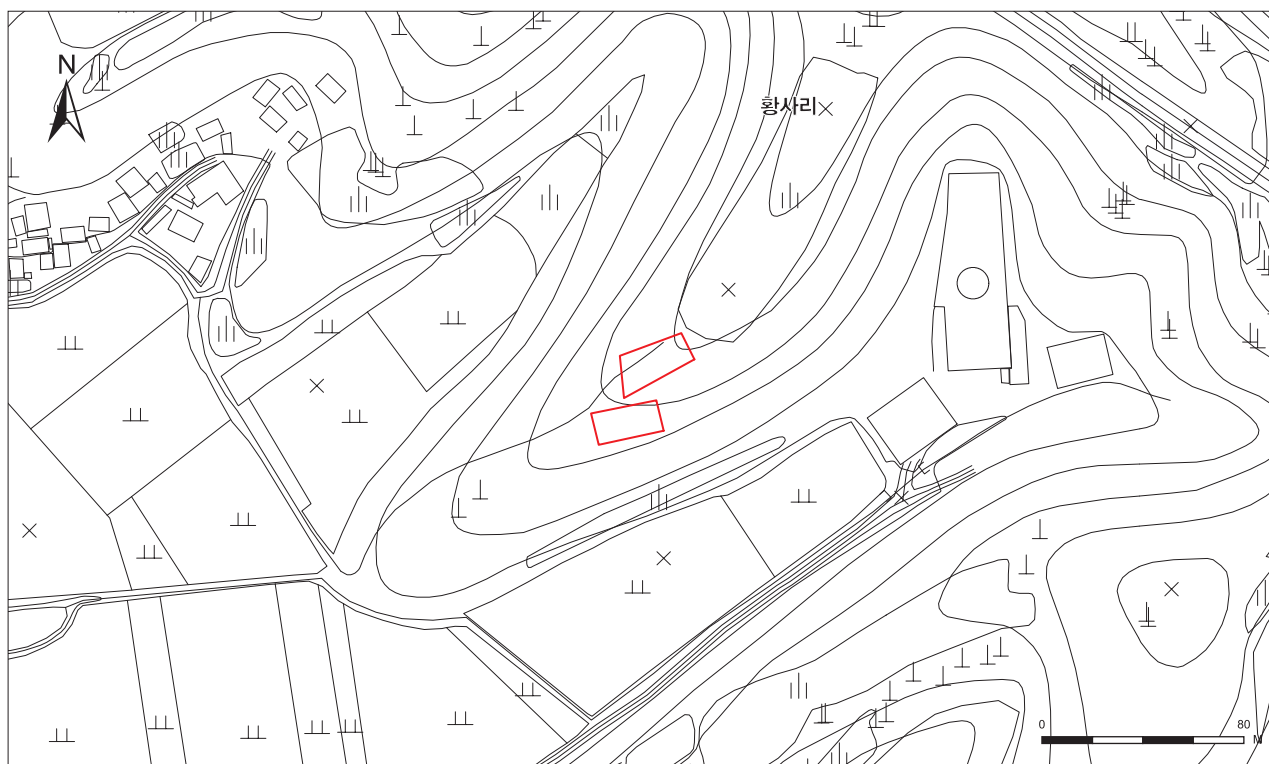
함안 황사리분묘군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산3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대학교박물관 / 1991.2.~1991.3.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고배, 노형토기, 단경호, 대부직구호, 파수부호, 철모, 철촉

황사리분묘군은 매곡부락 일대의 낮은 야산에 위치한다. 유적이 위치한 야산은 해발 54m 동북쪽 정상에서 서남쪽으로 길게 뻗은 나지막한 구릉으로 맞은편으로 남강과 한벌들을 바라보는 입지에 해당한다. 유구는 주로 해발 22m에서 33m 사이의 산복부에 밀집분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발굴범위 외곽의 양 사면과 정선부 일대에도 유적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는 표토 아래의 판암계 암반층을 굴착하고 설치되었으며, 사면에 축조되어 유실이 심한 편이었다. 조사된 유구는 목곽(관)묘 47기, 옹관묘 3기이다.

목곽묘는 야산의 정선부와 사면에 등고선과 나란하게 축조하였으며 규모는 소형이 대다수이다. 도굴의 피해를 많이 입었으며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목곽의 구조를 밝히기 어려웠으며 목관의 사용도 추정하기 어려웠다. 잔존상태가 좋지 않은 유구에 비해 많은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토기는 모두 141점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크게 와질토기, 도질토

유적 위치도

기, 연질토기로 구분되며 대부분이 고식도질토기이다. 고식도질토기단계의 대표적인 통형고배, 노형기대, 컵형토기, 파수부잔, 단경호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철기는 철촉, 철겸, 도자, 철부, 철모가 출토되었으며 종류도 많지 않고 수량도 적은 편이다. 토기의 분석을 통한 유적의 연대는 기원후 4세기 전반~5세기 초로 편년된다.

황사리분묘군은 이 지역에 살았던 일반인들의 공동묘지 정도로 파악되며, 고식도질토기가 다량 출토되어 기원후 4세기대 토기문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아라가야 사회의 중하위 계층의 장제를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경상대학교박물관, 1994, 『함안 황사리분묘군』.

유적 전경

35호분

47호분

출토유물

07

함안 하기리유적 _ 함안 평기~악양간 도로확장 구간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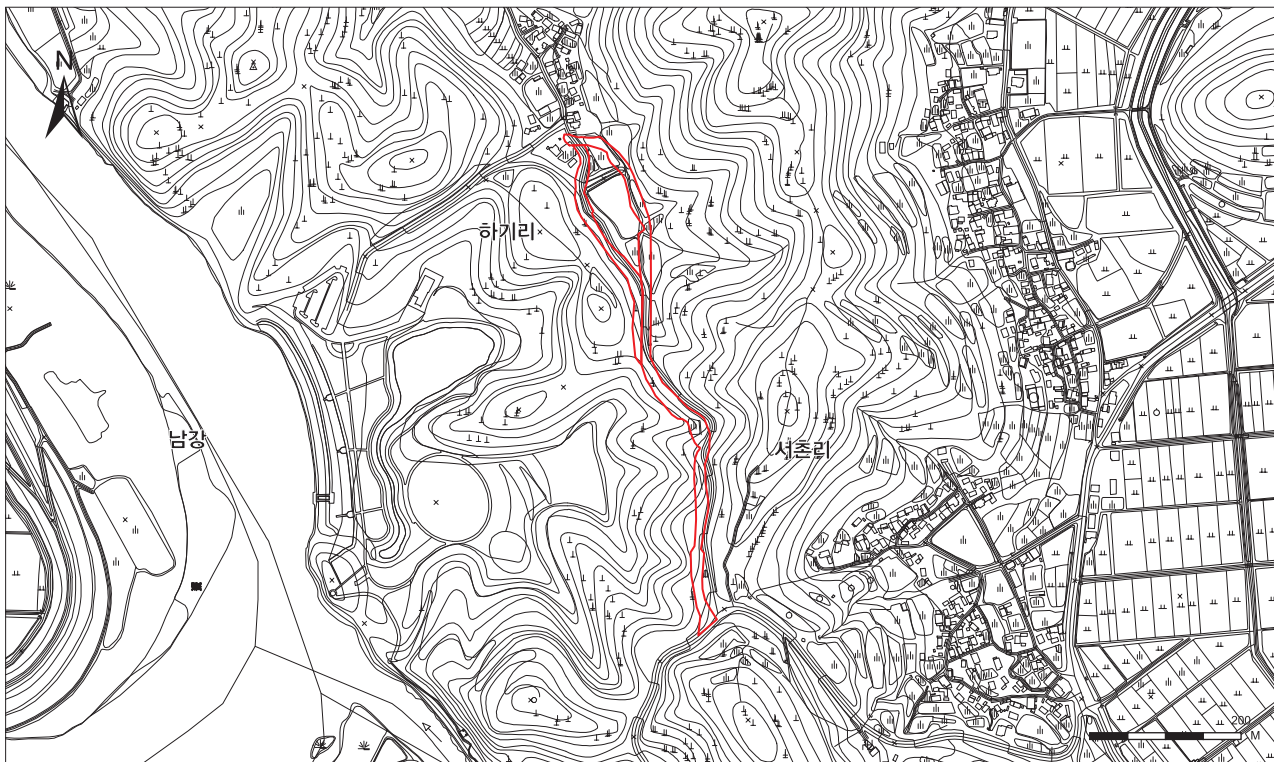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서촌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09.1.~2009.2.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수혈주거지 / 개배, 유개고배, 고배, 파배, 단경호, 환두대도, 철촉, 철모, 이식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서촌리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무덤·생활유적으로 함안군에서 실시하는 함안 평기-악양간 도로확장 구간에 해당된다. 2006년 창원대학교 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 4~6월까지 동서문물연구원에서 시굴조사를 진행 후 동일기관에서 2009년 1~2월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목곽묘 4기, 석곽묘 5기, 수혈주거지 2동, 수혈 1기, 구 1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하기리 일대는 함안군의 북쪽 경계를 이루는 남강이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곳으로, 곳곳에는 소택지 및 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유적은 함안천이 남강에 합류하는 곳의 동편에 형성되어 있는 100m 내외의 낮은 구릉성 산지에 해당된다. 조사지역은 선형구간으로서 가~다 3개 구역으로 이격되어 있는데, 삼국시대 무덤은 가구역, 수혈주거지는 다구역에서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목곽묘는 단곽식의 장방형 구조로 등고선과 직교하는 남-북향으로 축조되

유적 위치도

었으며 중복관계에서 석곽묘보다 선축되었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묘광의 규모는 길이 206~240㎝, 너비 89~115㎝, 목곽의 규모는 길이 161~177㎝, 너비 63~98㎝이다. 유물은 대부분 목곽 중앙부에서 노출되었으며 파배, 단경호, 철촉, 도자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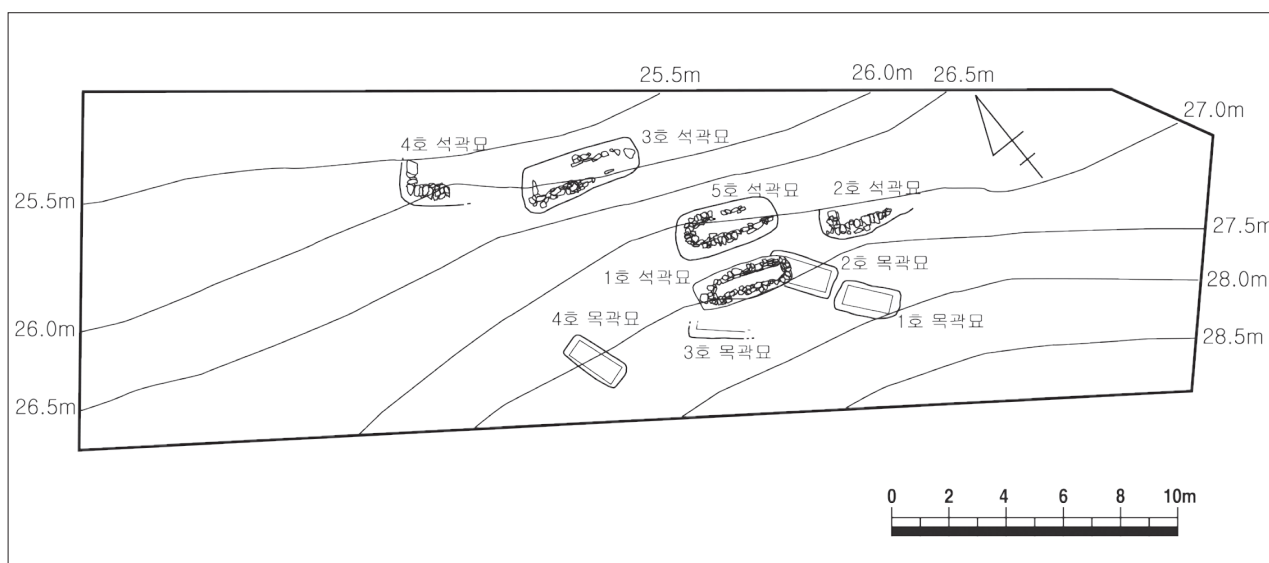
석곽묘는 등고선과 평행하는 동-서향으로 축조되었다. 일부 개석이 잔존하나 후대 경작으로 인해 유구의 잔존상태는 불량하다. 벽석의 축조수법은 다양하며 바닥에는 시상을 마련한 것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조사되었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46~376㎝, 너비 120~144㎝, 석곽의 규모는 길이 276~284㎝, 너비 59~61㎝, 높이 33~47㎝이다. 유물은 주로 개배, 유개고배, 고배, 파배, 단경호, 장경호 등의 토기류를 양단부장, 환두대도, 철모 등 철기류를 중앙부에 부장한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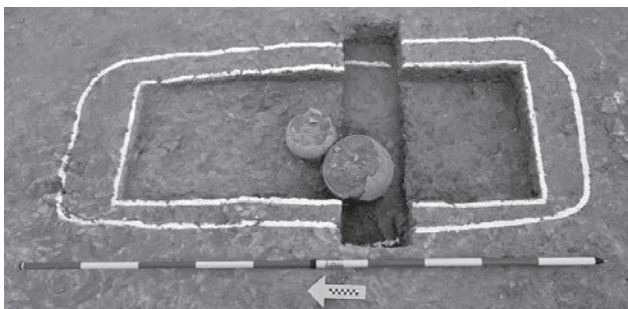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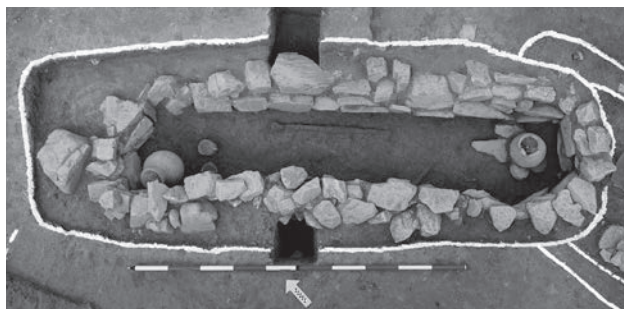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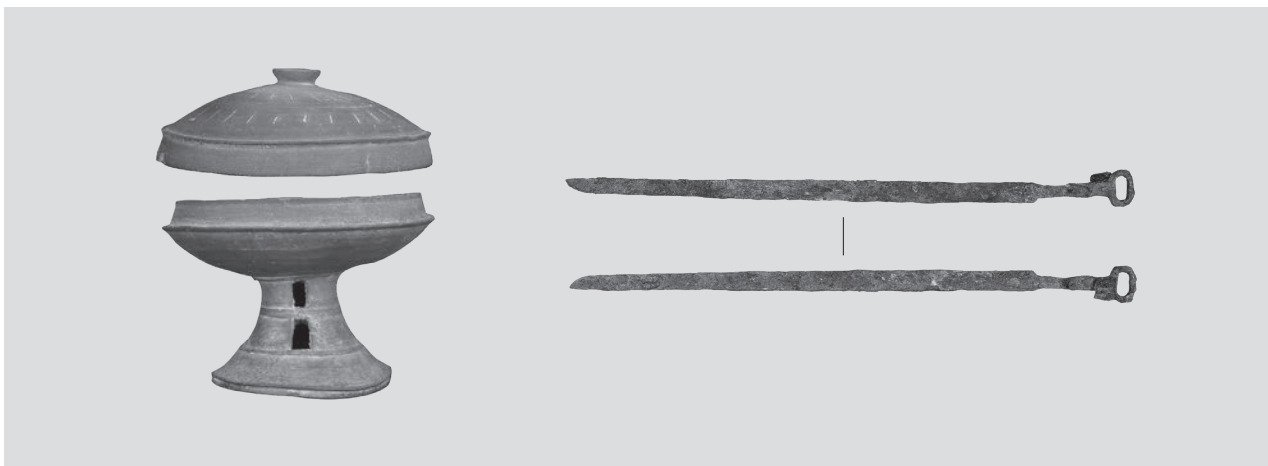
수혈주거지는 후대 경작과 삭평으로 일부만 잔존하나 평면형태는 타원형, 최대 잔존규모는 길이 566㎝, 너비 308㎝, 깊이 73㎝ 정도로 파악된다. 내부시설은 수혈, 주혈이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고배, 완, 단경호가 출토되었다.

기존 유물 편년에 의하면 목곽묘와 수혈주거지는 4세기 중반경, 석곽묘는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기리유적의 조사는 고분군이 분포하는 구릉의 일부에 대한 것으로 묘제의 변천 및 고분군의 성격 등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1, 『함안 하기리유적-함안 평기-악양 간 도로확장 구간내 유적-』.

가구간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4호 목곽묘

1호 석곽묘

출토유물

08

함안 장지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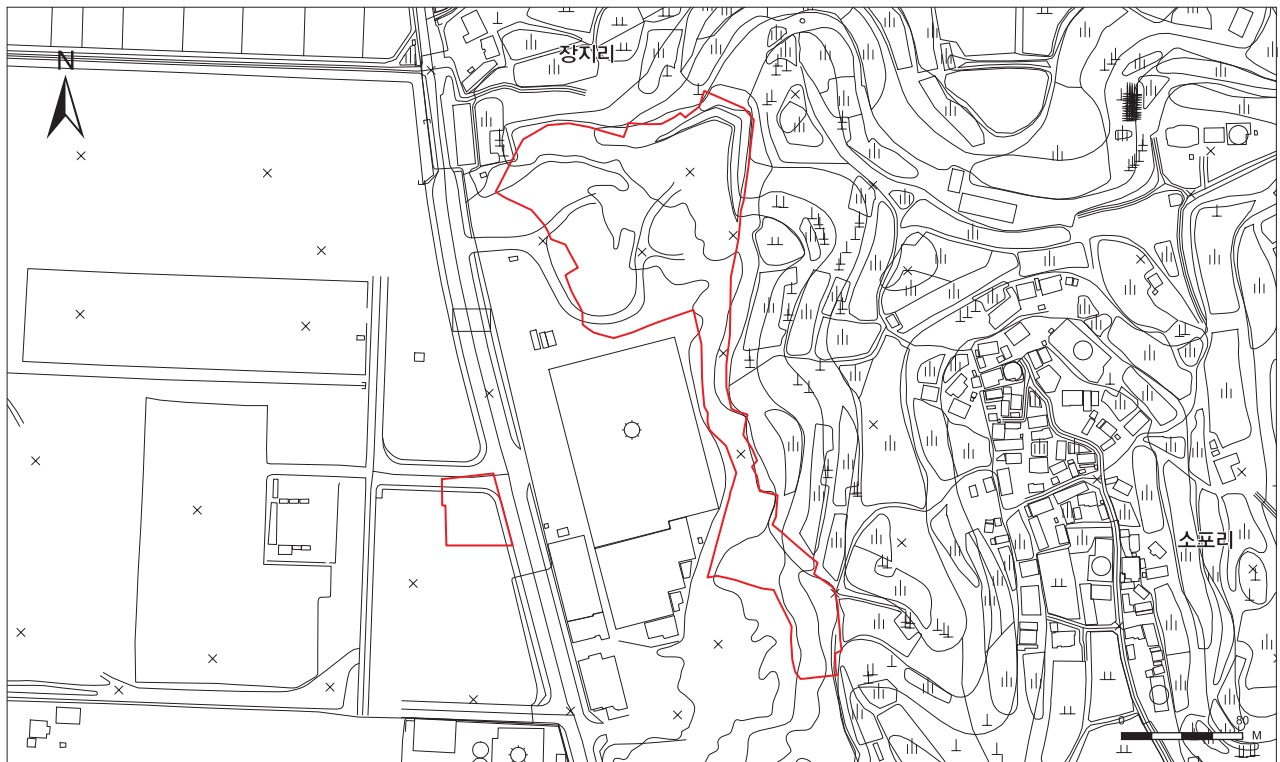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165-2·
1015-2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해동문화재연구원 /
2014.2.~2014.8.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수혈 / 광구소호, 파수
부배, 발형기대, 유자
이기, 송풍관

함안 장지리유적은 삼봉산이 북동-남서향으로 진행하다가 북서-남동향으로 뻗어 내린 가지 능선의 구릉과 사면 말단부에 입지하며, '함안 장지리·소포리고분군'의 분포범위에 해당한다. 장지리·소포리고분군으로 기존에 알려져 있던 장지리 남산고분군, 소포리 갓먼당고분군, 소포리 머정골고분군을 포함한 것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출토유물과 고분군내 조성된 묘제 또한 유사하여 상호 연관된 하나의 유적으로 파악된다.

이 유적은 2012년 경남문화재연구소의 지표조사를 통해 유적의 유존여부가 밝혀진 바 있으며, 함안 군북 장지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해동문화재연구원에서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석관묘 2기, 삼국시대 목곽묘 10기, 석곽묘 17기, 조선시대 분묘 7기 등 무덤유적과 삼국시대 수혈 6기, 구 1기 및 조선시대 수혈, 구, 우물 등 생활유적이 확인되었다. 무덤유적과 생활유적이 별도의 공간에 조성되어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유적 위치도

목곽묘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201~501㎝, 목곽의 규모는 178~408㎝, 장단비 2.4~2.59:1이다. 유물은 고배, 광구소호, 장경호, 파수대부완, 유자이기 등이 출토되었으며 주로 토기류가 부장되었다.

수혈식석곽묘는 조사지역 북서부 사면부에 주로 위치하며 중복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묘광의 규모는 길이 270~510㎝, 너비 130~246㎝, 석곽의 규모는 길이 207~420㎝, 너비 58~91㎝이다. 석곽의 규모는 말이산고분군과 비교하면 중소형에 해당한다. 벽석은 할석과 판석을 혼용하였다. 석곽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유개고배, 광구소호, 파수부배, 기대, 철부, 철착, 철도자, 유자이기 등이 출토되었다. 석곽묘 내의 공간분할은 부장공간과 주피장자공간으로 구분되며 순장공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토된 유물로 볼 때, 유적의 조성시기는 기원후 5세기 중반~6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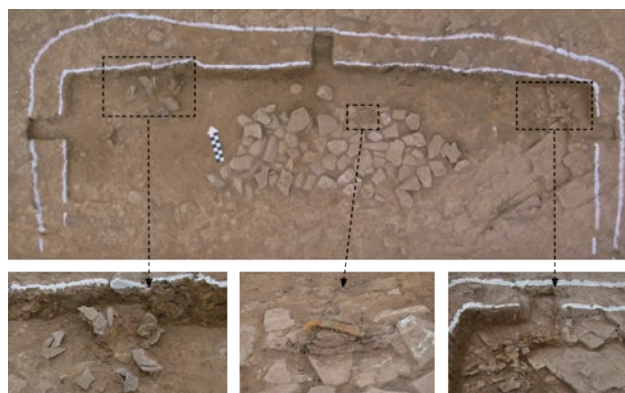
생활유적은 평면형태가 부정형과 장방형의 수혈이 확인되었다. 규모는 길이 126~916㎝, 너비 50~846㎝, 깊이 12~74㎝로 다양하다. 내부에서는 제련공정에서 사용되는 대구경 송풍관 편이 출토되었고, 다량의 슬래그와 목탄, 바닥에서 피열흔이 확인되어 제철과 관련된 공방이나 작업장의 용도로 추정된다. 다만 수혈의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노지 흔적이나 단야구, 내박자 등의 공구 흔적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다.

참고문헌

해동문화재연구원, 2016, 『함안 장지리유적Ⅰ-함안 군북 장지일반산업단지 주차장부지 내 유적-』.

해동문화재연구원, 2016, 『함안 장지리유적Ⅱ-함안 군북 장지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유적 원경

1호 목곽묘

7호 목곽묘

3호 석곽묘

17호 석곽묘

출토유물

09 함안 소포리유적
咸安 小浦里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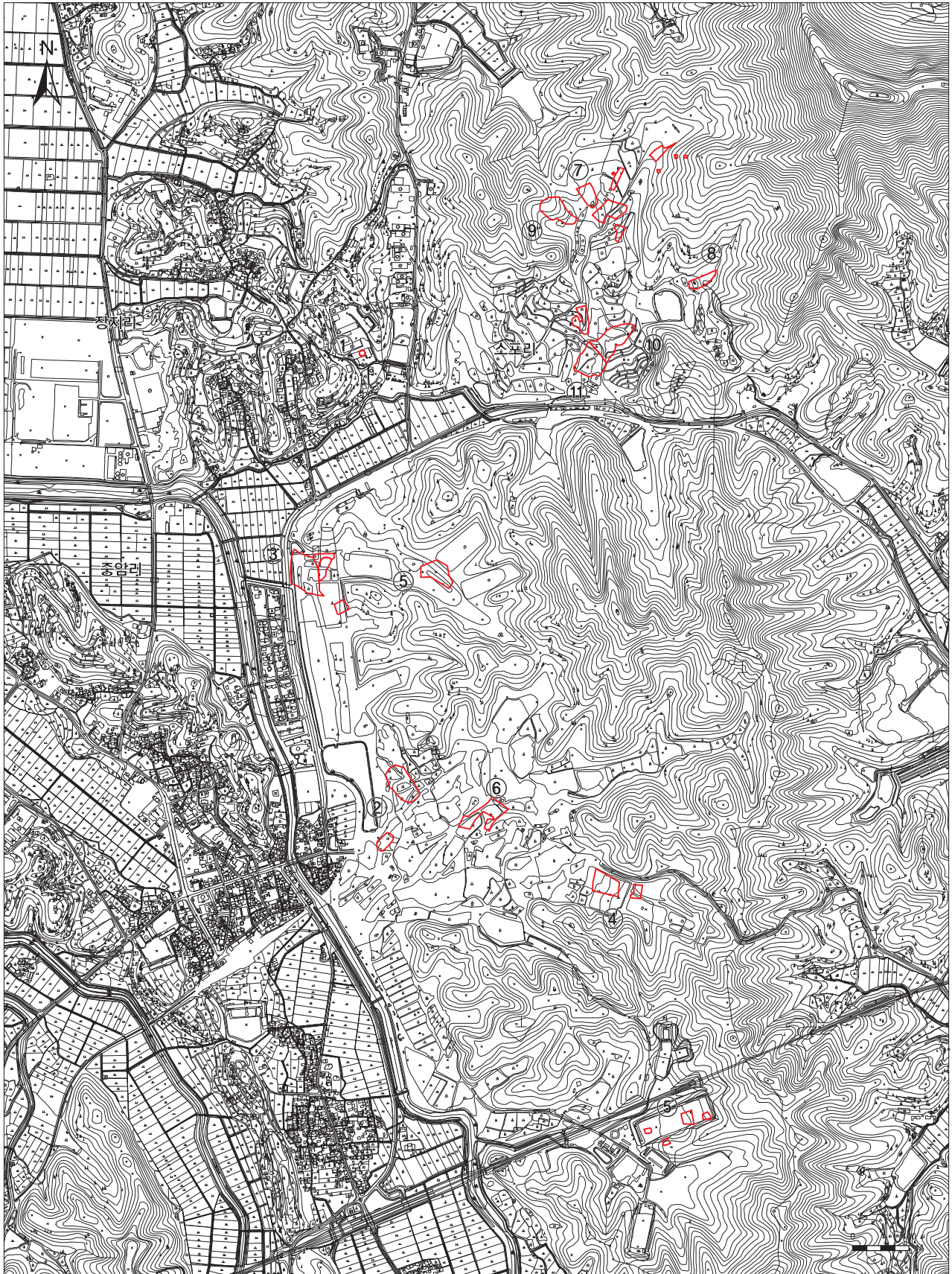
㈜태정식품 공장신축 및 증축부지 내 유적에 대한 조사는 2003년 경남문화재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이후, 2004·2005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2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삼국~통일신라시대 주혈, 수혈, 구, 우물, 석렬, 폐기장, 건물지 등이 보고되었다.

함안 군북 oo부대 이전사업 부지 내 유적은 2005년 5월~2006년 1월까지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해 그 존재가 알려졌다. 시굴·표본조사는 2012년에 경남문화재연구원을 중심으로 6개 기관이 총 6개 구역에 대해 각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 7월 해동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 9월 경남문화재연구원의 종료시까지 총 9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발굴조사 및 추가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함안 군북 oo부대 이전사업 부지 내 유적의 삼국시대 생활유구는 수혈주거지, 지상건물지, 고상건물지, 수혈, 구, 주혈군, 우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형계 주거지는 4세기 후반~5세기 전반, 방형계 주거지는 6~7세기로 추정되고, 고상건물지는 주거용, 창고 등의 저장시설로 추정된다. 4세기 중반부터 10세기 초반까지로 공간에 따라 조성시기에 차이가 있다. 수혈은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 장방형, 말각장방형, 부정형 등으로 다양하며, 토취장(2구역), 폐기장(5-3구역), 저장시설(5-3구역 다지구) 등으로 추정된다. 우물 3기는 늦어도 5세기 전반에 축조되어 8세기 후반까지 존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유구(6구역 2구간 가지구)는 굴착식 도로로, 삼국시대에 춘곡에서 함안으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활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소포리유적의 생활유적에서 취락입지와 공간구성이 조사되어 삼국시대 취락의 제반적인 성격 및 변천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고고학적 기초자료가 마련되었다.

함안 군북 oo부대 이전부지 내 유적에서는 목관묘,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옹관묘 등의 다양한 묘제가 확인되었다. 목관묘는 내부구조는 통나무식과 판재식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출토된 유물 통해 본 목관묘의 조성시기는 기원전 1세기대로 편년된다. 목곽묘는 단곽식의 장방형 구조로 구릉 말단의 남서사면부에 등고선과 나란하게 조성되었으며, 아라가야 중소형급 목곽묘에 해당한다. 수혈식석곽묘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중소형급으로 봉분은 잔존하지 않고, 일부 주구는 확인된다. 1구역에서는 다곽식고분이 일부 확인되고 연접하여 묘역을 확장하는 특징을 보이는 등 주변의 소가야권과 관련성도 일부 엿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5-3구역에서는 배장묘가 축조된 석곽묘가 북서쪽 구릉의 고위 사면부를 중심으로 조성되었는데 배장묘는 소형이며 혈연적 관계를 가진 미성년자를 매장한 석곽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토된 토기를 통해 볼 때 1구역의 조성연대는 5세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함안 소포리유적 –함안 태정식품 공장 증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1차 2004.4.~2004.5. 1차 2005.1.~2005.4.	함안 소포리 유적 –함안 태정식품 공장 증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2006) 함안 소포리 유적II –함안 태정식품 공장 증축부지 내 유적 2차 발굴조사(2007)
2	함안 소포리유적 –함안 군북면 oo부대 이전부지 (2구역) 내 유적	두류문화연구원	2012.10.~2013.3.	함안 소포리 유적 –함안 군북면 oo부대 이전부지 (2구역) 내 유적(2015)
3	함안 소포리 생활유적 –함안 군북면 oo부대 이전부지 (4구역 나지구) 내 유적	해동문화재 연구원	1차 2012.11.~2013.2. 2차 2013.3~2013.4.	함안소포리생활유적 I –함안 군북면 oo부대 이전부지 (4구역–나지구) 내 유적(2015)
4	함안 소포리유적 –함안 군북면 oo부대 이전부지 (6–2구간 가지구) 내 유적	삼강문화재 연구원	2012.11.~2013.1.	함안 소포리 유적(2015)
5	함안 군북 oo부대 이전사업 부지 내 5–1·2구역 유적	경남문화재 연구원	1차 2012.12.~2013.3. 2차 2013.12.	함안 군북 oo부대 이전사업부지 내 함안 군북 5–1·2구역 유적(2015)
6	함안 소포리유적 –함안 군북면 oo부대 이전부지 (6–3구간 다지구) 내 유적	동서문물연구원	2013.03.~2013.05.	함안 소포리유적II–함안 군북면 oo부대 이전부지 (6구역 3구간 다지구) 내 유적(2015)
7	함안 소포리 오당골유적 –함안 군북면 oo부대 이전부지 (1구역 가지구) 내 유적	우리문화재 연구원	2013.4.~2013.8.	함안 소포리 오당골유적 –함안 군북면 oo부대 이전부지 (1구역 가지구) 내(2015)
8	함안 소포리유적 –함안 군북면 oo부대 이전부지 (5–3구간 가지구) 내 유적	동서문물연구원	2013.12.~2014.2.	함안 소포리유적III–함안 군북면 oo부대 이전부지 (5–3구간 가지구) 내 유적–(2016)
9	함안 군북 소포리유적 –함안 군북 oo부대 이전사업 부지(5–1·3구역) 내 유적	경남문화재 연구원	2013.12~2014.9.	함안 군북 소포리유적 –함안 군북 oo부대 이전사업부지 내 5–1·3구역(2016)
10	함안 소포리 생활유적 –함안 군북면 oo부대 이전부지 (5–3구역 다지구) 내 유적	해동문화재 연구원	2013.12.~2014.3.	함안소포리생활유적II(2016)
11	함안 소포리 가야 취락 –함안 군북면 oo부대 이전부지 (5–3구간 라지구) 내 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3.12.~2014.2.	함안 소포리 가야 취락 –함안 군북 oo부대 이전부지 (5–3구간 라지구) 내(2016)

기 중엽~6세기 전엽까지, 5-3구역의 조성연대는 5세기대로 편년된다. 옹관묘는 1구역 가지구에서 1기가 조사되었다.

소포리유적의 무덤유적 조사 결과 기존 연구 성과보다 소급된 기원전 1세기대의 목관묘 자료가 확보되었으며 군북면 일대의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를 통해 아라가야 중심세력의 고분과 비교할 수 있는 주변지역 세력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09-1

함안 소포리유적 _ 함안 태정식품 공장 증축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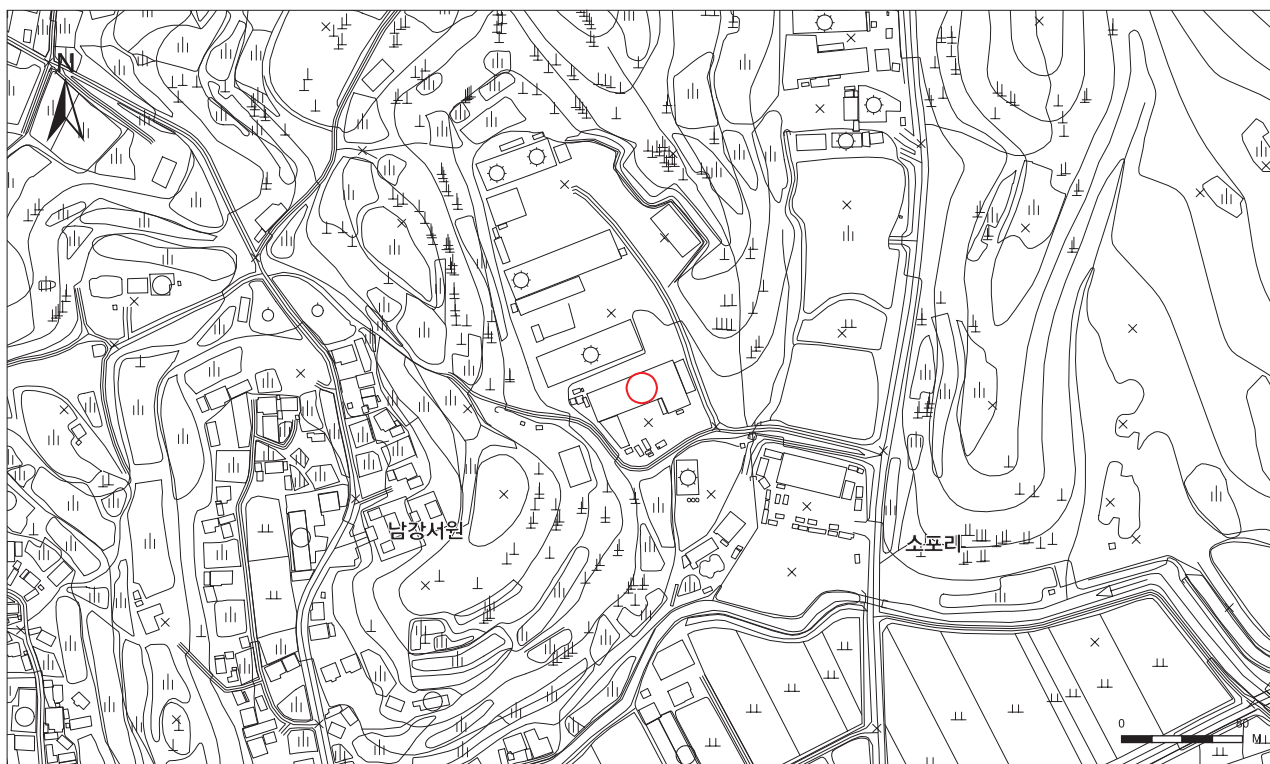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100-7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1차 2004.4.~2004.5.
2차 2005.1.~2005.4.

주요 유구 / 유물
주혈군, 수혈, 우물 / 완, 평저호, 가형토기

경상남도 함암군 군북면 소포리 1100-7번지에 소재한 삼국~통일신라시대 생활유적으로 조사지역은 삼봉산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 능선 사이의 계곡부에 해당하는데 남쪽으로는 오당골로 불리는 곡저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조사지역은 오당골에서 장지리로 넘어가는 고갯길 서쪽에 있는 대배골로 불리는 계곡으로 주변으로는 해발 50~60m의 구릉이 형성되어 있으며 구릉사이에는 작은 계곡이 형성되어 있다. 조사전 구릉부는 임야와 밭, 계곡부는 논으로 토지가 이용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통일신라시대 주혈 330개, 수혈 13기, 구 17기, 우물 2기, 석렬 2기, 폐기장 1기, 건물지 1동 등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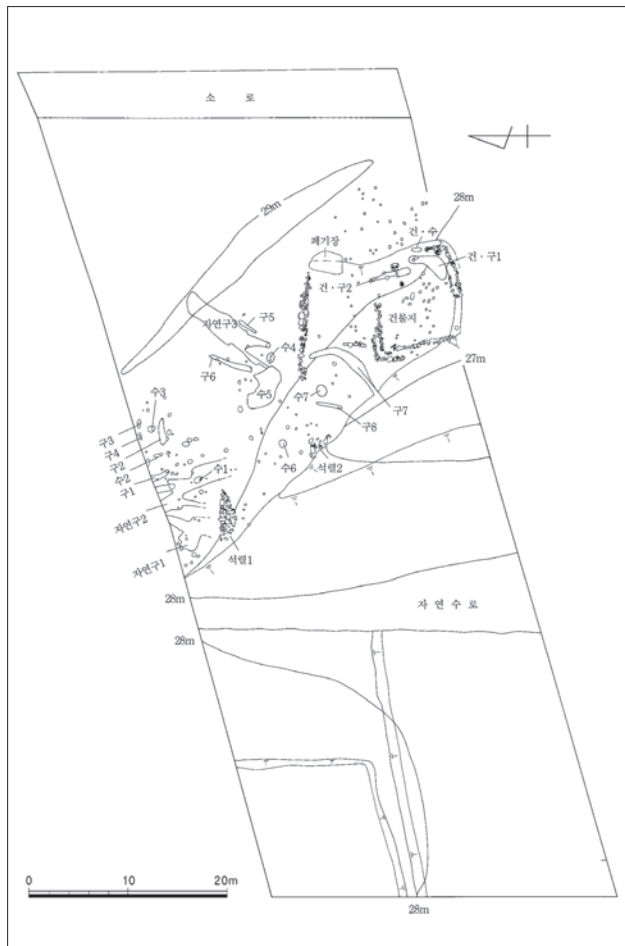
가장 많은 수가 조사된 주혈은 직경 15~199㎝, 깊이 5~73㎝ 정도로 이단으로 굴광한 것, 초석이 설치된 것, 측면 또는 전면 보강한 것 등이 조사되었다. 대부분 배치의 정형성이 나타나지 않아 거주를 위한 건물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

유적 위치도

혈의 평면형태는 원형, (장)타원형, 제형, 부정형 등으로 다양하며 규모는 길이 82~150㎝, 너비 38~270㎝이다. 구의 평면형태는 부정형과 세장한 형태가 조사되었으며 규모는 길이 82~1,175㎝, 너비 24~210㎝이다. 수혈과 구의 내부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으며 그 기능을 알 수 없다. 우물은 평면형태 원형으로 석재로 축조한 것과 목재를 '#'자형으로 결구한 것이 각각 조사되었다. 규모는 길이 180~200㎝, 깊이 140~190㎝이며 바닥은 굴착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석렬은 조사지역의 계곡부에 위치하는 점에서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우물틀로 추정된다. 폐기장은 길이 350㎝, 너비 245㎝ 정도로 저장용으로 사용하다 폐기된 것으로 추측되며 건물지는 출입구를 서향으로 보게 일자형으로 배치한 2칸 구조로 추정되며 담장, 죽담, 주초석, 배수로 등의 석축시설이 잔존한다. 유물은 개, 완, 대부완, 평저호, 발형기대, 병, 가형토기 등이 출토되었으나 완형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정확한 편년은 유보되었다.

본 유적은 함안지역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생활유적으로서 가형토기가 출토된 점 등에서 그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6,『함안 소포리 유적–함안 태정식품 공장 증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7,『함안 소포리 유적II–함안 태정식품 공장 증축부지내 유적 2차 발굴조사–』.

1차 유구 배치도

71호 주혈

71호 수혈 출토유물

09-2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두류문화재연구원 /
2012.10.~2013.3.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 개, 고배, 대부완

함안 소포리유적 _ 함안 군북면 ○○부대 이전부지(2구역) 내 유적

조사지역은 소포리의 동쪽 여항산에서 북서쪽으로 뻗어져 나온 구릉 말단부와 석교천의 범람으로 형성된 충적지 일부에 해당하며 조사 당시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유적은 삼국시대 생활유적 및 조선시대 생활·산업생산유적에 해당된다. 조사지역은 3개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삼국시대 유구는 구릉지와 인접한 충적지인 2구역에 집중 분포한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 60기, 조선시대 건물지 1동, 축대 5기, 추정담장 1기, 우물 2기, 집석유구 1기, 삼가마 3기, 수혈 12기, 구 1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수혈은 크게 3군집을 이루며 조성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 원형, 타원형이 확인되고 규모는 길이 32~742㎝ 정도로 다양하다. 수혈의 정확한 용도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토취장으로 추정된다. 수혈이 설치된 기반층이 황갈색점질토로 이루어져 있어 토기나 기와의 원재료로 쓰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소량의 개, 고배, 대부완, 파수 편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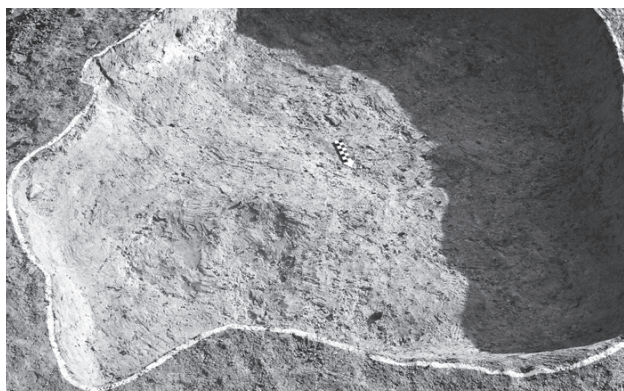
참고문헌

두류문화재연구원, 2015,『함안 소포리 유적-함안 군북면 00군부대 이전부지(2구역) 내 유적-』.

유적 위치도

3호 유구

3호 유구 유물 출토모습

11호분

11호분 유물 출토모습

출토유물

09-3 함안 소포리 생활유적 _ 함안 군북면 ○○부대 이전부지 (4구역 나지구)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115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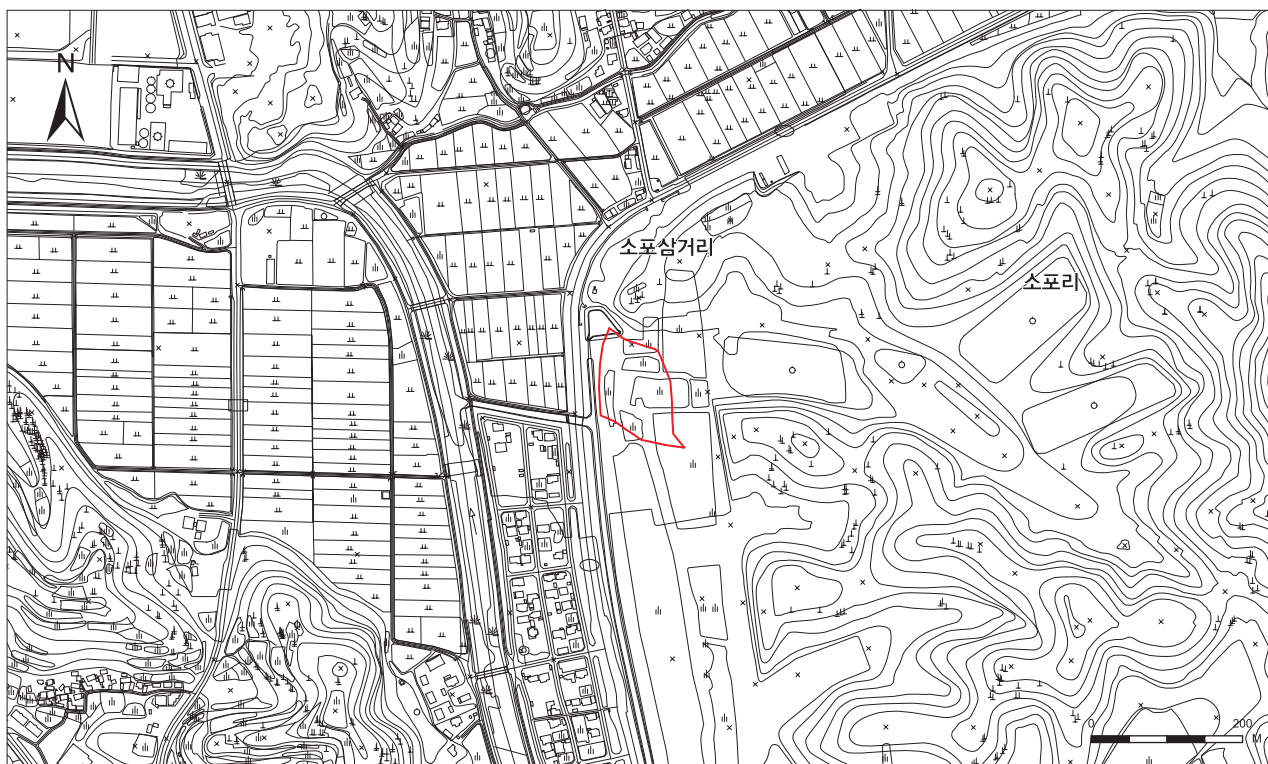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해동문화재연구원 /
1차 2012.11.~2013.2.
2차 2013.3.~2013.4.

주요 유구 / 유물
고상건물지, 수혈,
주혈 / 단각고배, 발,
대부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115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생활유적이다. 조사지역인 소포리 일대는 가야읍과 군북면의 자연적인 경계에 위치하며, 백이산과 여항산에서 뻗어내린 능선과 능선에서 형성된 곡간평야에 해당된다. 조사지역은 최근까지 경작지로 이용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의 2개 문화층에서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상부 문화층에서는 수혈 20기, 주혈군, 하부 문화층에서는 수혈 16기, 고상건물지 1동, 주혈군이 조사되었다.

수혈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 장방형 등 다양하나 평면형태에 따라 유구의 기능이나 시기적인 변화양상은 없다. 규모는 1.0m 이하의 소형이며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혈의 용도와 성격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단기간에 사용한 후 매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상건물지의 평면형태는 방형, 구조는 정면 2×2칸, 규모는 길이 440㎝, 너비 430㎝,

유적 위치도

면적 19.3㎡이다. 1동만 조사되었으나 주변에 주혈군이 분포하고 있어 더 많은 고상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5-1-가·다구역(경남문화재연구원)과 같이 군집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주혈군은 불규칙한 군집양상을 띠고 있어 단위유구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고상건물지와 주혈에서 확인된 목주를 통해 지속적인 유수의 흔적이 확인된다.

유물을 통해 볼 때, 유적의 조성시기는 6세기 중후반~7세기 초반으로 판단된다.

본 유적은 여항산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과 이어지는 곡간 충적지에 형성된 유적으로 그 중요성이 있고, 6~7세기경 생활유적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해동문화재연구원, 2015, 『함안 소포리생활유적 I -함안 군북면 00군부대 이전(4구역-나지구)부지 및 추가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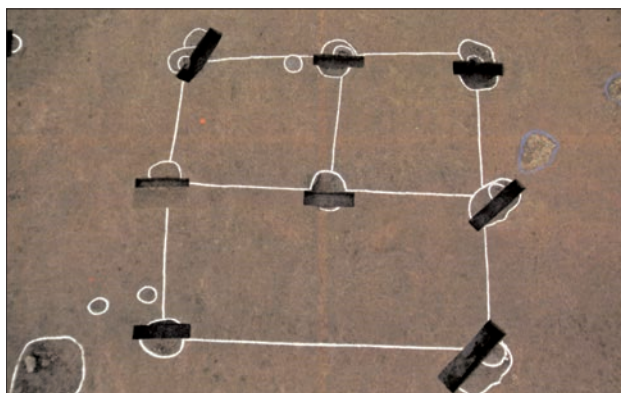
유적 전경

1호 고상건물지

출토유물

09-4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21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삼강문화재연구원 /
2012.11.~2013.1.

주요 유구 / 유물
도로 / 호 편, 대호

함안 소포리유적 _ 함안 군북면 ○○부대 이전부지 (6-2구간 가지구)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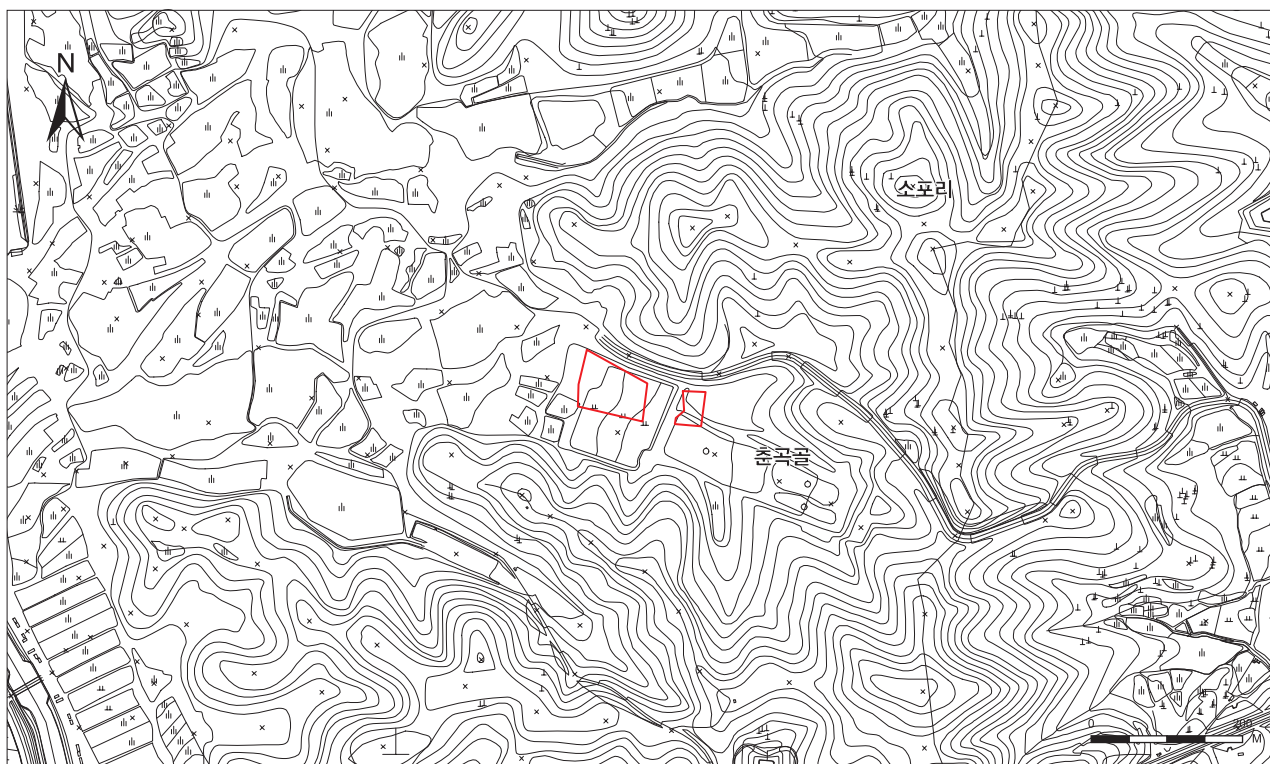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함암군 군북면 소포리 일대으로 청동기·삼국시대 생활유적 및 조선시대 산업생산유적에 해당된다. 조사지역은 곡간지와 저산성 구릉의 능선 남서사면부를 일부 포함하는 지형으로 최근까지 경작지로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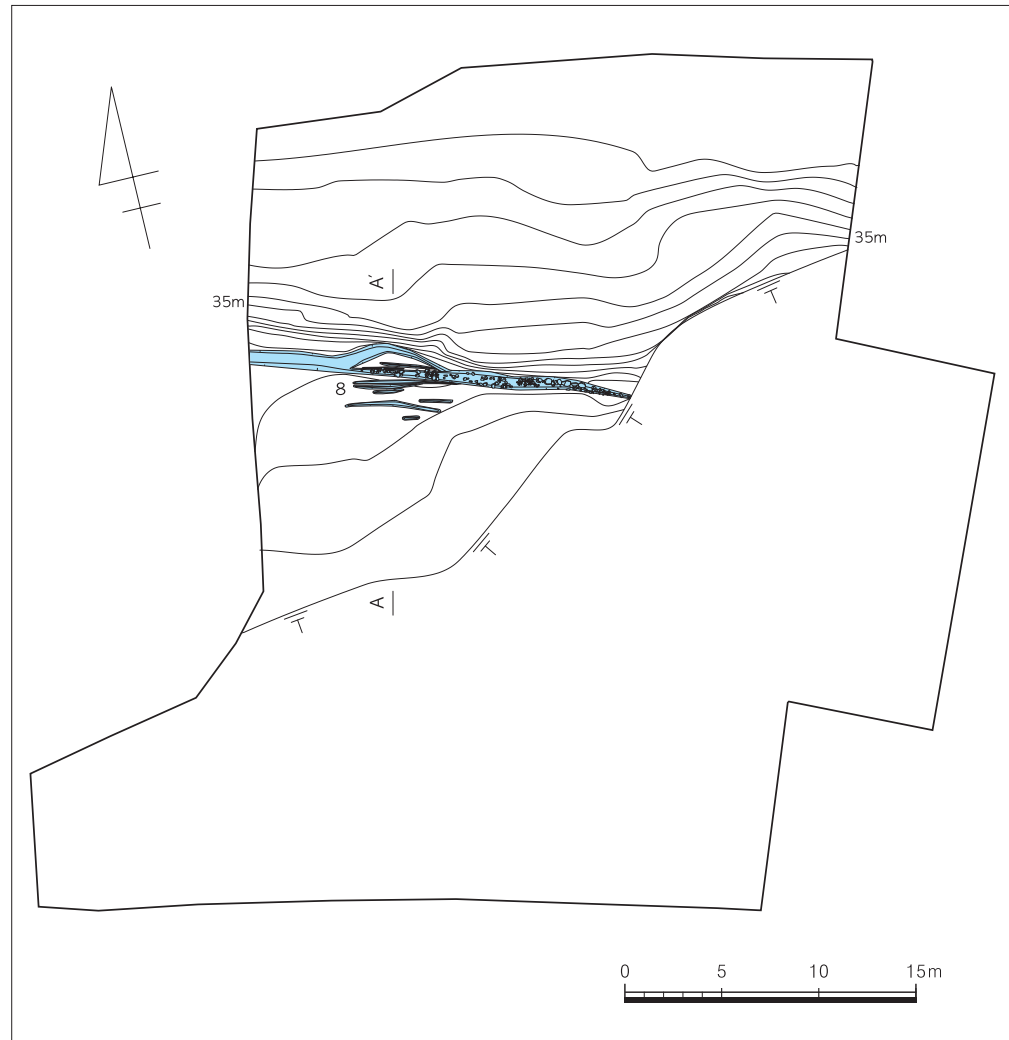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 수혈 3기, 구 1기, 삼국시대 도로 1기, 조선시대 수전 11면, 밭 1면, 수로 1기, 수구 2기, 구 7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도로는 구릉 말단부에서 평지로 이어지는 부분에 위치한다. 도로는 동서방향으로 진행되며 잔존규모는 길이 20m, 너비 1.5~4m이다. 원지면을 'L'자형으로 굴착해 평탄면을 만들고 측구를 설치한 형태이며 내부토는 암회갈색토와 잔자갈이 다량 혼입되었다. 내부에서 차륜흔적이 확인되었는데, 규모는 길이 150~200㎝, 너비 10㎝이다. 유물은 도질의 호 구연부 편, 호 동체부 편, 대호 편 등이 출토되었다.

도로는 춘곡골로 불리는 좁고 긴 곡간지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구축된 굴착식

유적 위치도

도로이다. 조사구역 동쪽의 춘곡에서 소포리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에 해당되며 이를 통해 볼 때 본 유적은 춘곡역에서 함안으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삼강문화재연구원, 2015, 『함안 소포리 유적–함안 군북면 00군부대 이전부지(6구역 2구간 가지구) 내 유적 시·발굴조사–』.

A구역 유구 배치도

A구역 8호 도로

A구역 8호 도로 차륜흔

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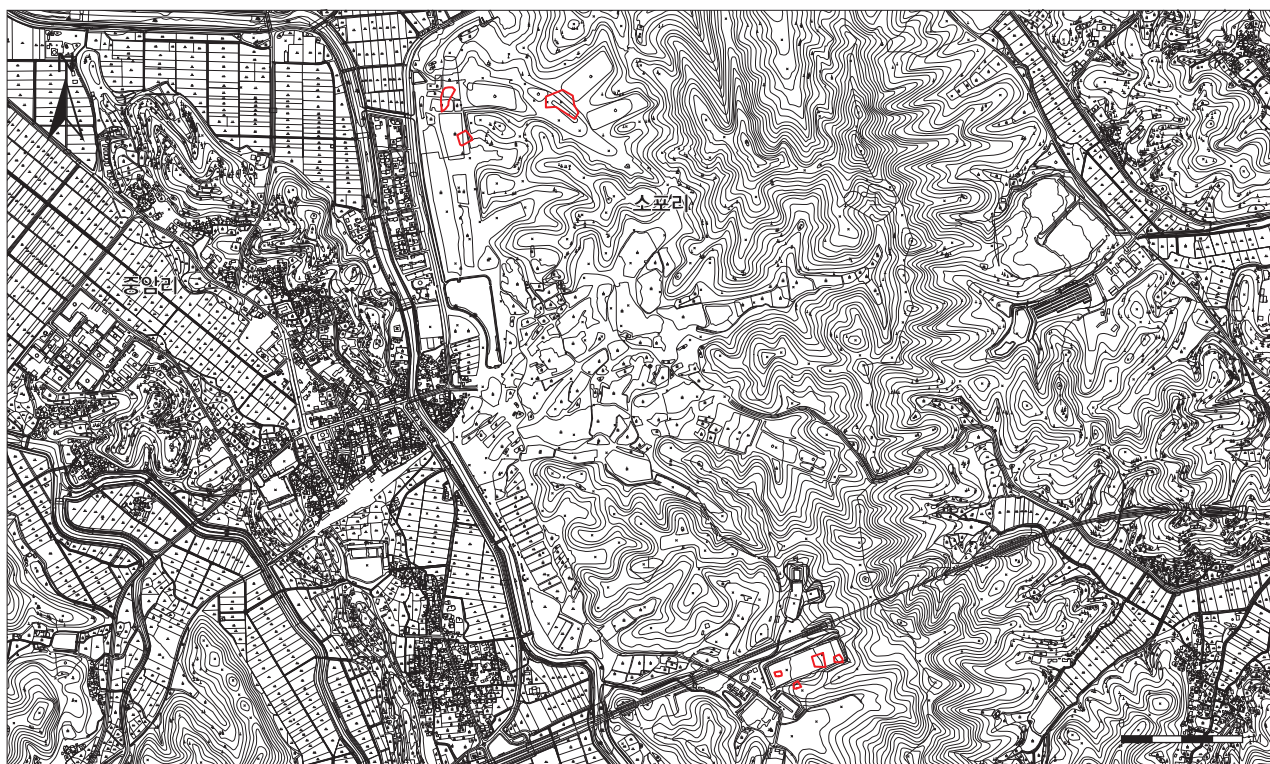
함안 군북 ○○부대 이전사업 부지 내 5-1·2구역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 동촌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1차 2012.12.~2013.3. 2차 2013.12.

주요 유구 / 유물
고상건물지, 수혈주거지, 수혈 / 통형고배, 대각 편, 연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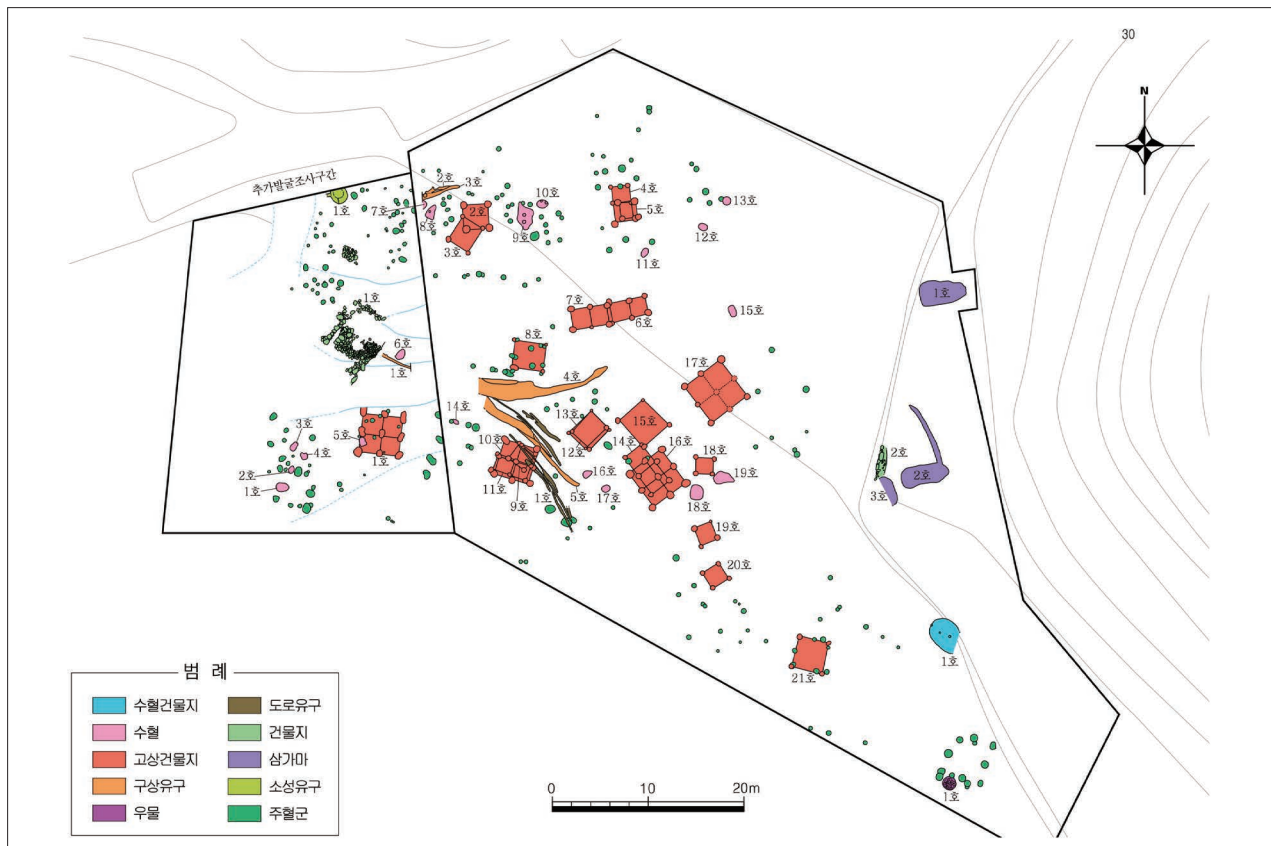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동촌리 일대에 소재한 삼국~조선시대 생활유적이다. 조사지역은 함안군 군북면과 가야읍의 경계를 이루는 봉산(삼봉산, 271m)에서 장고개를 지나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서쪽사면 구릉 말단부와 곡간부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소포리 국실골 봉남들로 불리는 곳으로 봉남들은 군북천 중류부의 범람원으로 비교적 좁은 지역내에서도 퇴적물의 구성, 퇴적층의 형태와 연속성 등에 있어 수직·수평적인 변화가 매우 심하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유적이 형성된 구릉 말단부는 유로 변화에 따라 다수의 구하도가 형성되고 저지대는 자연적으로 넓은 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지역은 2개 구역이 7개 구간으로 세분되는데 유구는 5-1-1구간의 가·다지구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고상건물지 43동, 수혈주거지 4동, 수혈 36기, 구 16기, 삼국~통일신라시대의 우물 3기, 도로 2기, 주혈 581개, 고려~조선시대의 건물지 1동, 분

유적 위치도

묘 37기, 가마 4기, 추정 폐기장 1기, 시대미상 석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

고상건물지는 다수의 주혈와 함께 조사되었는데 정형성을 가지는 43동을 통해 유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 구조는 2×2칸, 2×1칸, 1×1칸으로 구분되며 면적은 최소 2㎡~최대 22㎡이다. 2×2칸과 2×1칸은 1×1칸에 비해 면적이 넓고 중복 조성 없이 단독으로 배치되어 주거용으로 추정되며, 1×1칸은 2×2칸 주변에 배치되거나 중복 조성된 경우가 많아 창고 등의 저장시설로 추정된다. 고상건물지와 주혈에서는 통형고배, 무개고배, 개, 개배, 대부완, 연질옹 등이 출토되었으며 이를 통해 5-1-1구간 가지구는 4세기 중반~7세기 전반으로 5-1-1구간 다지구는 6세기 후반~10세기 초반으로 편년되어 공간에 따라 조성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는 타원형과 장방형으로 구분되며 규모는 최대길이 800㎝, 최대잔존너비 284㎝이다. 내부시설로는 타원형건물지에서 주혈과 벽주, 장방형건물지에서 벽주, 벽구, 배연시설이 조사되었다. 건물지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타원형건물지는 4세기 후반~5세기 전반, 장방형건물지는 6~7세기로 편년된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부정형이 가장 많고 타원형, 원형, 말각장방형 등이 소수 조사되었다. 규모는 길이 60~360㎝, 너비 53~180㎝이며 내부시설로 주혈이 확인된다. 출토유물은 단각고배와 연질소호 등으로 5세기 전반~7세기 후반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5-1-1구간 가지구 유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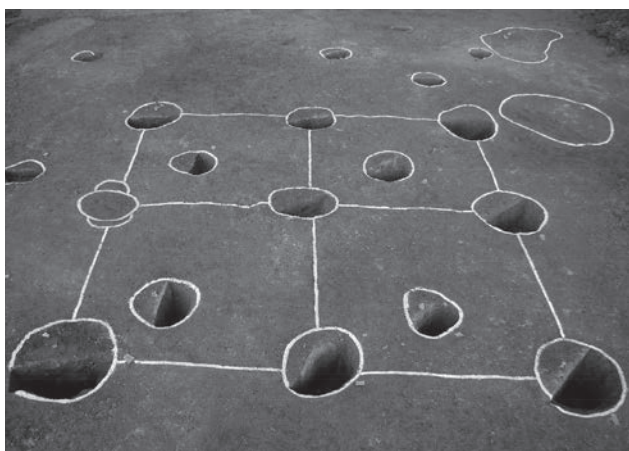
우물은 평면형태 원형으로 바닥은 별다를 시설 없이 자갈층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굴광단면형태는 상광하협형과 통형, 벽석 단면형태는 상광하협형, 상협하광형, 통형으로 구분되며 벽석 축조방식은 3기가 모두 상이하다. 우물 내부에서 광구소호, 장경호, 편병 등이 출토되어 우물은 늦어도 5세기 전반에 축조되어 8세기 후반까지 존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유적은 함안지역에서 기 조사된 분묘, 토기가마와 다르게 생활유구가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심지인 가야읍이 아닌 외곽지역에서 삼국시대 유구가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15, 『함안 군북 00부대 이전사업 부지 내 함안 군북 5-1·2구역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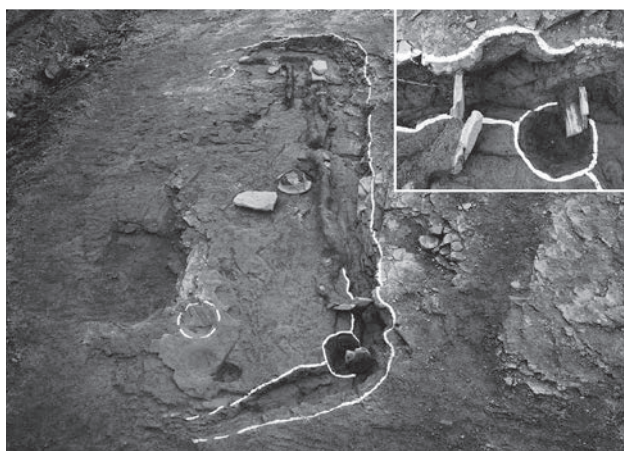
5-1구역 원경

5-2구역 전경

5-1-1구간 가지구 16호 고상건물지

5-2-2구간 수혈건물지

09-6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산117·11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13.3.~2013.5.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 주머니호, 파수부호, 옹, 철모, 철겸, 따비

함안 소포리유적 _ 함안 군북면 ○○부대 이전부지(6-3구간 다지구) 내 유적

함안 소포리유적Ⅱ는 함안 군북면 00부대이전부지 6구역 3구간 다지구에서 발굴조사된 유적이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와 원삼국시대 목관묘 12기 외에 조선시대 분묘 220기, 수혈주거지 1기, 집수시설 1기 및 시대미상 석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 원삼국시대 목관묘는 조사구역의 북쪽 곡간부 및 동쪽 경계부에서 11기가 확인되었고, 추가 트렌치 조사에서 1기가 확인되어 총 12기가 조사되었다. 해발 30~40m 사이에 해당하는 구릉의 남사면 말단부에 분포하며 내부 구조는 통나무식과 판재식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출토된 유물은 주머니호, 파수부호, 점토대옹, 단경호, 완, 장경호 등의 토기류와 철모, 철겸, 철검, 철부, 철촉, 따비 등의 철기류이다. 토기류는 대부분 관상부나 충진토상부, 충진토내에 부장하였으며, 철검은 관내, 그외의 철모, 철부, 철겸, 철촉, 따비 등의 철기류는 충진토 바닥이나 상부 또는 관상부에 부장하는 동시기 일반적인 목관묘의 유물 부장양상과 대동소이하다. 출토된 토기와 철기를 통해 본 목관묘의 조성시기

유적 위치도

는 기원전 1세기대로 편년된다.

함안지역에서 이제까지 말이산고분군 일대에서 기원후 1세기 후반에서 기원후 2세기 초에 해당하는 목관묘의 내용만 알 수 있었으나, 함안 소포리유적Ⅱ의 목관묘 조사를 통해 이보다 소급된 기원전 1세기대의 자료가 확보되어 함안지역의 원삼국시대 문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5, 『함안 소포리유적Ⅱ-함안 군북면 00부대 이전부지(6구역 3구간 다지구) 내 유적-』.

유적 전경

북쪽 곡간부 전경

3호 목관묘

1호 목관묘

8호 목관묘

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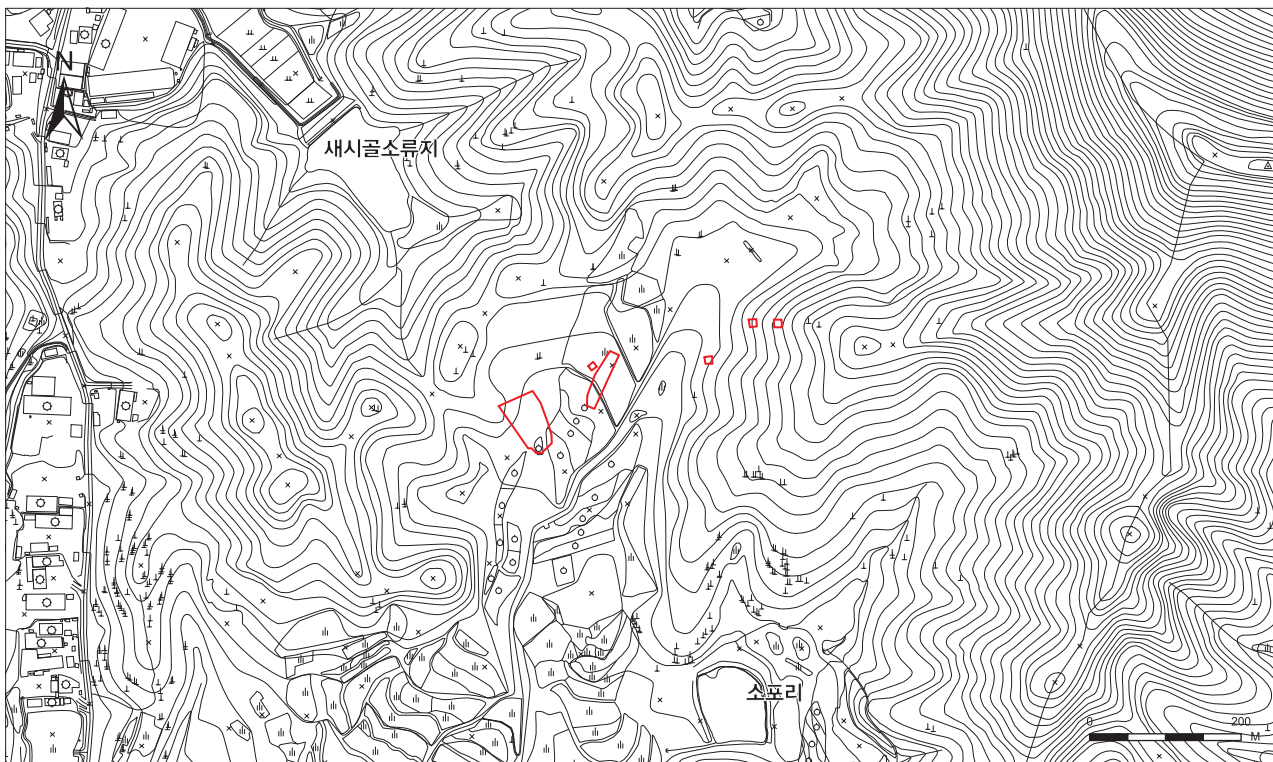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군북면
소포리 999-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13.4.~2013.8.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식석곽묘 / 고배, 파배, 단경호, 환두대도, 철촉, 철부, 철겸, 이식

함안 소포리 오당골유적 _ 함안 군북면 ○○부대 이전부지 (1구역 가지구) 내 유적

함안 소포리 오당골유적은 함안 군북면 00부대 이전부지 내 1구역 가지구에 위치한 유적이다. 기존 지표조사 등에서 확인된 '함안 소포리 오당골고분군' 범위 내에 속하는 유적으로 가야-군북간 국도 79번 지방도와 접한 오당골 마을 북쪽으로 삼봉산에서 남서쪽으로 뻗어내린 구릉상에 해당된다. 소포리 오당골고분군은 지표조사를 통해 직경 10m급 봉토분의 존재가 알려져 왔으며 오당골은 중심으로 남동쪽 구릉 일대에는 오당골고분군Ⅰ, 북서쪽 구릉 일대에는 오당골고분군Ⅱ가 위치한다. 조사대상지역은 오당골고분군Ⅱ 지역에 해당되며 편의상 3개 지구로 구분하여 발굴조사한 결과, 가1지구에서는 삼국시대 석곽묘 57기와 옹관묘 1기, 가2지구에서는 조선시대 목관묘 30기, 가3지구에서는 조선시대 석곽묘 1가와 목관묘 2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는 대부분 구릉의 등고선과 평행하게 열상배치를 보이며 규모면에서 길이 3.5m를 넘지 않는 중·소형급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함안지역에서 조사되

유적 위치도

지 않았던 다곽식고분이 일부 확인되고 연접하여 묘역을 확장하는 특징을 보이는 등 주변의 소가야권과 관련성도 일부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출토된 토기는 고배, 파배, 단경호가 주를 이루며 다양한 토기양식이 혼재되는 양상이다. 철기는 도자, 철겸, 철부 등 농공구에 한정되며 금공품은 세환이식 정도만 일부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고분군의 축조연대는 토기의 형식으로 볼 때, 기원후 5세기 중엽~6세기 전엽까지로 편년된다.

함안 소포리 오당골유적은 아라가야 동쪽 영역에 해당하는 군북권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조사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동북부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삼국시대 고분군의 존재를 통해 아라가야 권역의 범위를 고고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15, 『함안 군북면 00부대 이전부지(1구역 가지구) 내 함안 소포리 오당골유적』.

유적 원경

가1지구 전경

가지구 7호 석곽묘

가지구 9호 석곽묘

토기류

무구 · 장신구류

09-8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01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13.12.~20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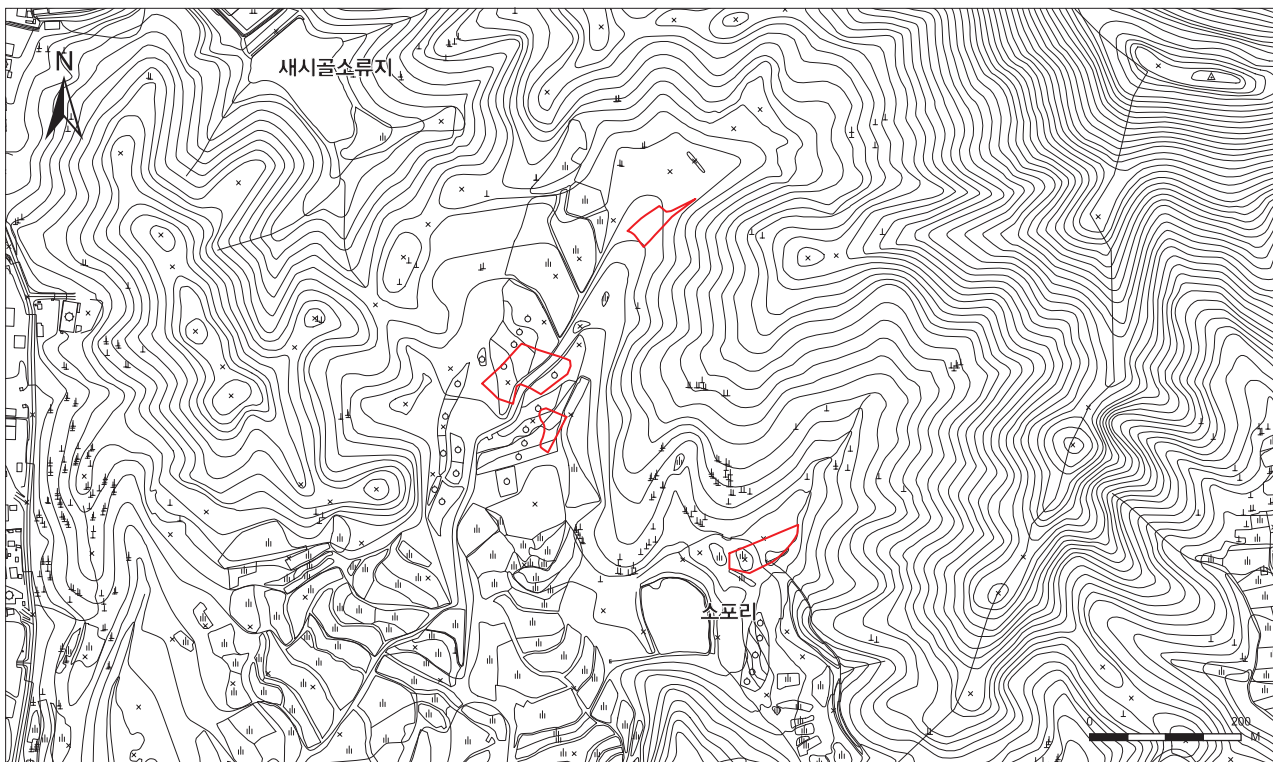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고상건물지, 수혈, 구 / 개, 고배, 단경호

함안 소포리유적 _ 함안 군북면 ○○부대 이전부지(5-3구간 가지구) 내 유적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014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국·조선시대 생활유적이다. 조사지역은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의 중간부분에 위치하며 가지능선의 양쪽에 새남이골과 개대골로 불리는 곡간부가 형성되어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3동, 고상건물지 6동, 수혈 69기, 구 15기, 주혈군,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1동, 수혈 1기, 적석유구 2기, 삼가마 2기가 조사되었다.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모두 장방형이며 중복조성되었다. 규모는 잔존길이 160~300㎝, 너비 344~460㎝이며 유실로 인해 면적은 알 수 없다. 내부시설은 주혈이 조사되었으며 선축된 3호는 화재주거지로 추정된다. 수혈주거지 내부에서는 고배, 단경호, 옹, 완 등이 출토되었으며 유물을 통해 볼 때 6세기 중엽~7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상건물지의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제형이 확인되며 구조는 2×2칸, 2×1칸, 1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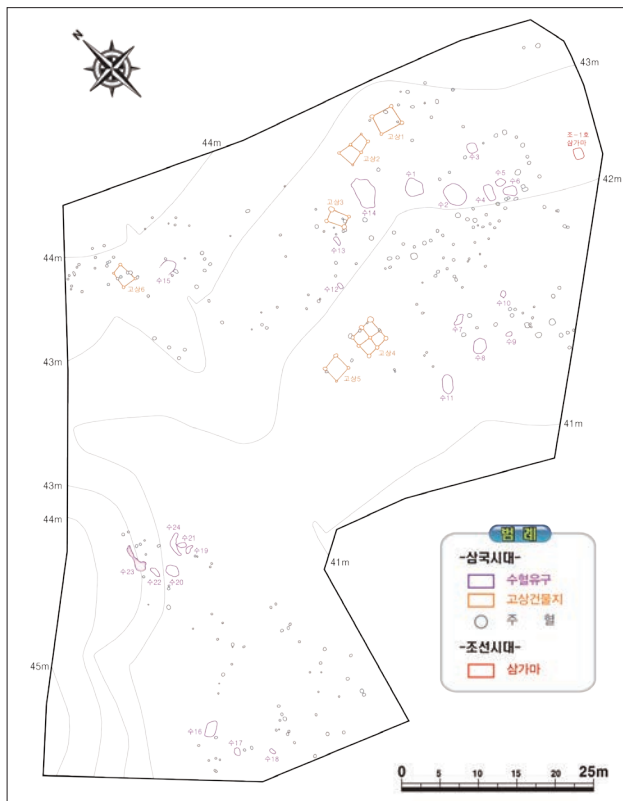
×1칸으로 구분되는데 1×1칸이 다수를 차지한다. 규모는 동-서 길이 1.6~3.5m, 남-북 길이 1.6~2.97m, 면적은 3.8~10.8㎡이다. 용도는 주거지와 창고 등의 시설로 판단된다.

수혈은 조사된 유구의 70%에 해당되는 다수가 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 장방형, 부정형으로 구분되는데 방형계>원형계>부정형계의 비율이 확인된다. 규모는 길이와 너비에 따라 소형·중형·대형으로 구분되며 소형>중형>대형의 비율이 확인된다. 평면형태와 규모에 있어 소형의 경우는 원형계, 중형이상의 경우는 부정형계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수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수혈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내부시설로는 주혈, 배수로, 소성시설이 확인되었다. 수혈의 용도는 폐기장의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일부는 생산관련 시설과 관련된 부속시설인 임시주거시설로 추정된다. 내부에서는 개, 배, 고배, 완, 파수부완, 옹, 파수부옹 등 다양한 기종과 대가야양식, 소가야양식, 신라양식 등 다양한 양식의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들 유물은 통해 볼 때 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는 수혈과 혼재되어 분포하는데 비교적 등고선과 나란하게 조성되었으며 평면평태는 정연하지 않다.

본 유적은 소포리 일대에 조성된 복합취락 내에서 생활공간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분묘유적을 비롯한 주변 취락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삼국시대의 정치체 및 문화를 복원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6, 『함안 소포리유적Ⅲ-함안 군북면00부대 이전부지(5-3구간 가지구) 내 유적-』.

가-2구간 유구 배치도

가-2구간 4호 고상건물지

가-3구간 1호 수혈주거지

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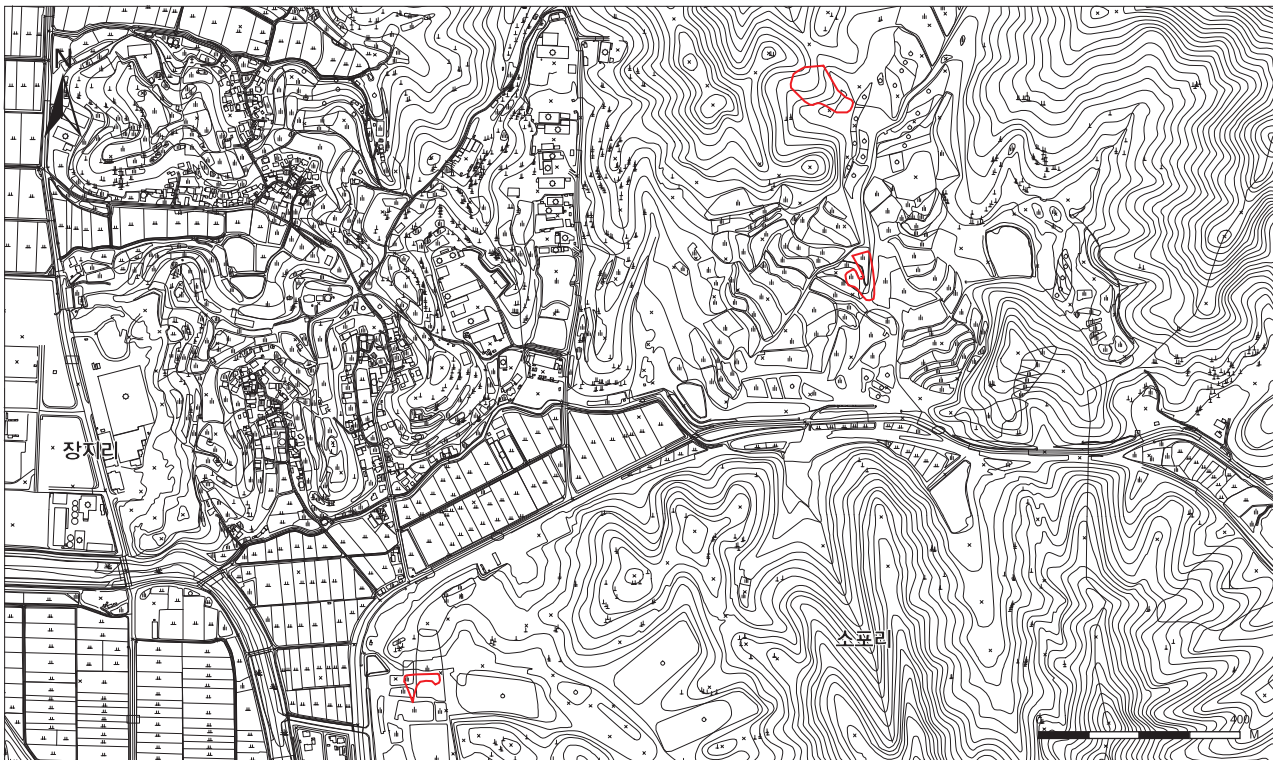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484·1494-2·산24·산2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13.12~2014.9.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 고배, 개배, 파배, 단경호, 광구소호, 발형기대, 대도, 도자, 철촉

함안 군북 소포리유적 _ 함안 군북 ○○부대 이전부지(5-1·3구역)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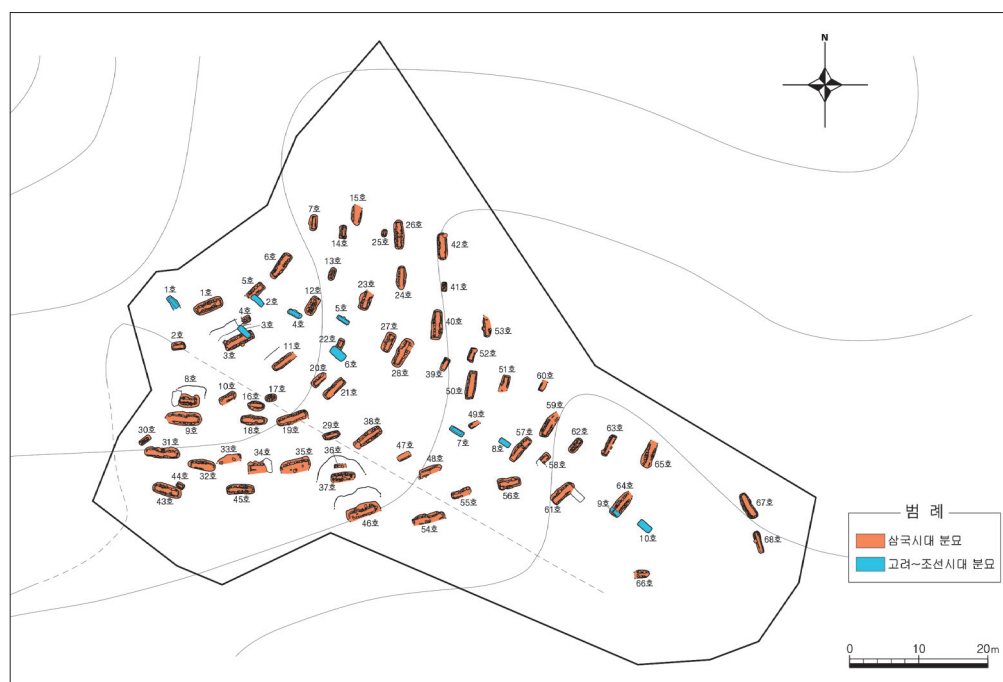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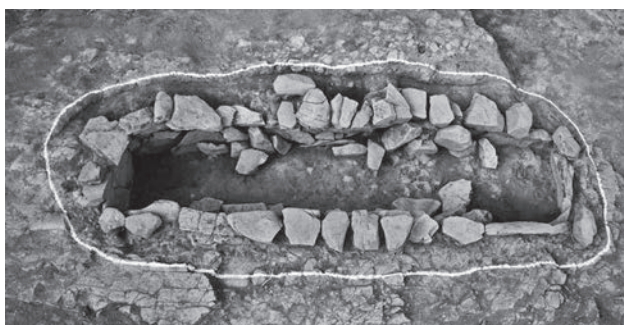
함안 군북 소포리유적은 함안 군북면 00부대이전부지 5구역에서 발굴조사된 유적이다. 보고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3구역 나지구에서는 조사 결과 삼국시대 분묘 78기, 조선시대 분묘 21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5-1구역 1구간에서는 삼국시대 생활유적이 확인되었는데 대부분이 주혈 200기이며 이와 함께 석렬 3기, 우물 1기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분묘는 5-3구역 나-1지구에서 수혈식석곽묘 68기, 나-2지구에서 목곽묘 1기, 수혈식석곽묘 1기, 석실묘 8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목곽묘는 1기만 조사되었는데, 단곽식의 장방형 구조로 구릉 말단의 남서 사면부에 등고선과 나란한 북동-남서향으로 축조되었다. 규모와 출토유물의 질과 양으로 보아 아라가야 중소형급 목곽묘에 해당한다. 삼국시대 분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혈석식곽묘는 구릉 사면부의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축조되었고, 봉분은 잔존하지 않고, 일부 주구는 확인된다. 석곽의 장단비는 대략 4:1 이상의 세장한 형태이며 규모는 길이 3m를 기준으로 중형과 소형으로

유적 위치도

구분되면 전반적으로 중소형급의 석곽묘이다. 바닥에는 시상을 마련한 것과 마련하지 않은 것 등 다양하며, 내부구조도 양단부장, 한단부장 등 다양성을 보인다. 특징적으로 배장묘가 축조된 석곽묘가 북서쪽 구릉의 고위 사면부를 중심으로 조성되었는데 배장묘는 소형이며 혈연적 관계를 가진 미성년자를 매장한 석곽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물은 주로 토기류가 주를 이루며, 고배, 개배, 파배, 단경호, 장경호, 대부호, 기대 등이 부장되었다. 부장된 철기는 대도, 도자, 철촉, 철부, 철겸, 유자이기 등이다. 삼국시대 고분군의 조성연대는 기원후 5세기대이다.

함안 군북면 소포리 5-3구역의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를 통해 아라가야 중심세력의 고분과 비교할 수 있는 주변지역 세력의 자료를 확보하였다는데 조사의의를 둘 수 있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16, 『함안 군북 00부대 이전사업부지 내 5-1·3구역 함안 군북 소포리유적』.

5-3구역 나-1지구 유구 배치도

5-3구역 나-1지구 1호 분묘

5-3구역 나-1지구 2호 분묘

09-10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33-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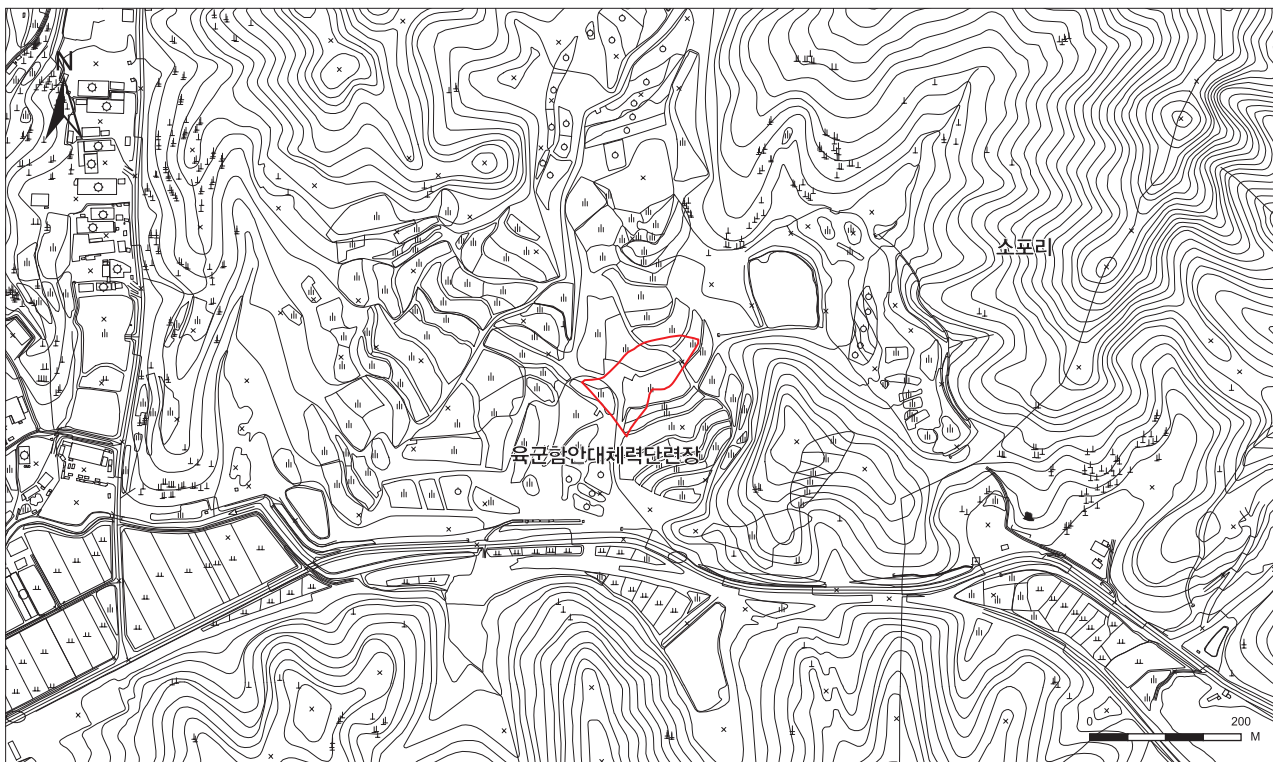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해동문화재연구원 / 2013.12.~2014.3.

주요 유구 / 유물
지상건물지, 고상건물지, 수혈, 구 / 고배, 개, 단경호

함안 소포리 생활유적 _ 함안 군북면 ○○부대 이전부지 (5-3구역 다지구) 내 유적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33-1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생활유적이다. 조사지역인 소포리 일대는 가야읍과 군북면의 자연적인 경계에 위치하며, 백이산과 여항산에서 뻗어내린 능선과 능선에서 형성된 곡간평야에 해당된다. 조사지역은 최근까지 경작지로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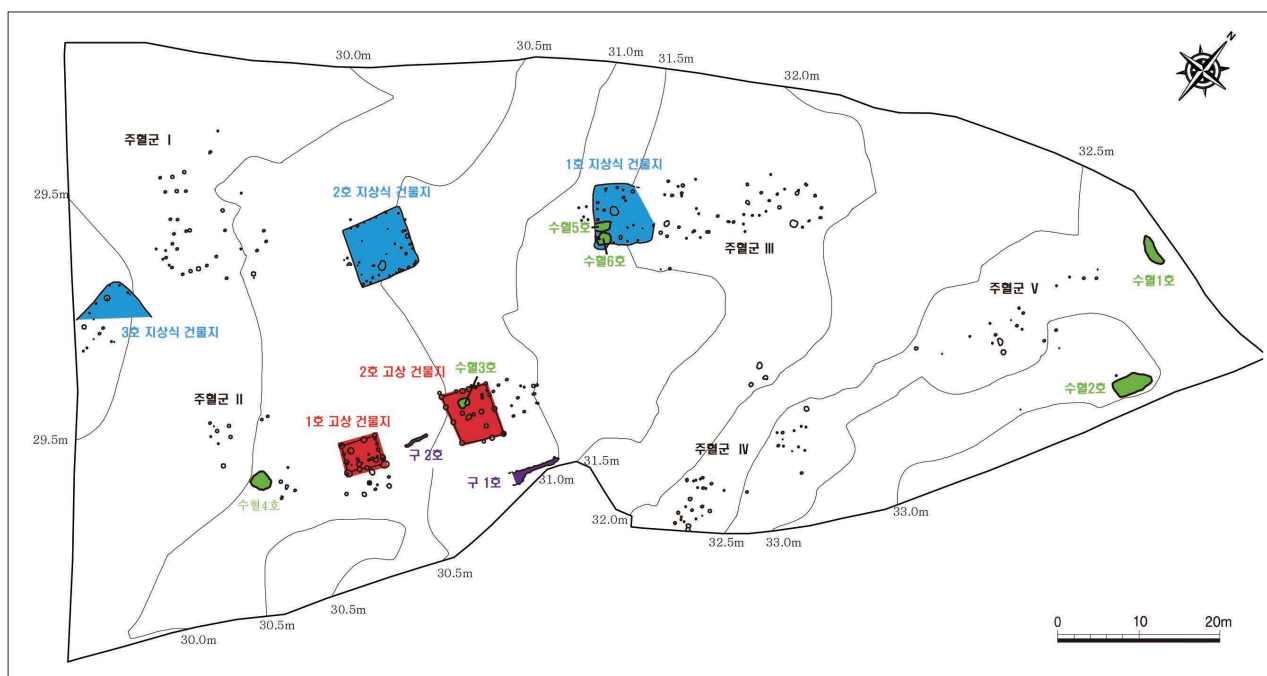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지상건물지 23동, 고상건물지 2동, 수혈 6기, 구 2기, 주혈군 5개소가 조사되었다.

지상건물지는 일정 간격으로 중복 없이 열상배치되었다. 평명형태 방형, 규모는 길이 746~792㎝, 너비 740~788㎝, 면적 55~62.4㎡이다. 기반층을 얕게 굴착한 후 벽면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 벽체를 세워 얹은 구조로 추정된다. 내부시설은 노지, 아궁이, 출입구, 내부수혈 등이 확인되어 주거용임을 알 수 있다. 수혈주거지가 지상화되는 과정의 형태로 판단되며 출토유물을 볼 때 조영시기는 6세기 전반이후로 편년된다.

유적 위치도

고상건물지는 지상건물지보다 저지대에 조성되었으며 주변에 주혈군이 밀집해 있다. 고상건물지의 평면형태는 방형, 구조는 정면 2칸, 측면 2칸, 규모는 길이 468~696㎝, 너비 360~618㎝, 면적 16.85~43.04㎡이다. 고상건물지와 주혈군은 창고와 같은 시설물로 판단된다. 수혈은 대부분 고상건물지 주변에 분포하고 규모는 중소형으로 주거보다는 저장시설, 폐기 등의 용도로 판단된다.

본 유적과 인접한 5-3구역 라지구(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도 동일한 성격의 삼국시대 유구가 조사되어 두 유적은 하나의 취락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유적의 취락입지와 공간구성을 통해 삼국시대 취락의 제반적인 성격 및 변천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고고학적이 기초자료가 마련되었다는데 조사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해동문화재연구원, 2016, 『함안 소포리생활유적Ⅱ-함안 군북면 00군부대 이전부지(5-3구역 다지구)내 유적-』.

유구 배치도

1호 지상건물지

2호 고상건물지

09-11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37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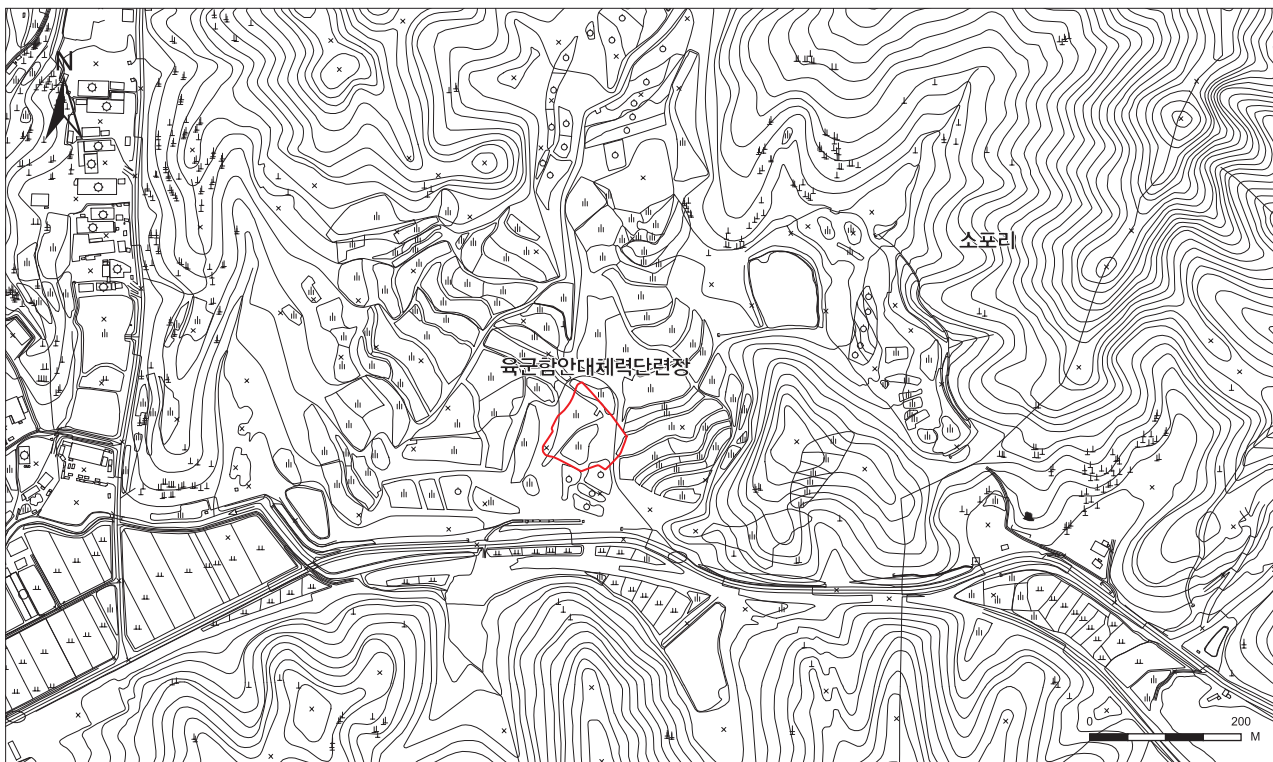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13.12.~2014.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고상건물지, 수혈 / 연질옹, 파수부완, 고배, 단경호, 도자

함안 소포리 가야 취락 _ 함안 군북면 ○○부대 이전부지 (5-3구간 라지구) 내 유적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37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생활유적이다. 조사지역은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의 중간부분에 위치하며 가지능선의 양쪽에 새남이골과 개대골로 불리는 곡간부가 형성되어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7동, 고상건물지 2동, 수혈 2기, 주혈군 2기가 조사되었다. 유적의 전반적인 공간배치는 북쪽편에 수혈주거지와 수혈이 길게 배치되고 남쪽편으로 고상건물지와 주혈군이 분포하는 양상이다.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계와 방형계로 구분되는데 방형계는 열상으로 배치되었다. 규모는 원형계가 길이 398~584㎝, 너비 293~532㎝, 면적 11.7~31.1㎡, 방형계가 길이 656~887㎝, 너비 610~738㎝, 면적 40.9~65.5㎡로서 방형계의 규모가 더 큰 편이다. 내부시설은 원형계에서는 소토범위와 수혈, 주혈이 확인되고 방형계에서는 부뚜막, 노지, 수혈, 벽주혈 등이 확인되어 차이가 있다. 부뚜막 내부에서는 석재 또는 토기

유적 위치도

를 이용한 지각이 조사되었으며, 주혈에서는 목심흔적이 조사되었다. 방형계는 잔존깊이가 10~22㎝ 정도로 얕고 벽체를 견고하게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간격의 벽주혈이 조사되는 점에서 수혈주거지가 지상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수혈주거지 내부에서는 소토와 목탄이 조사되어 화재에 의해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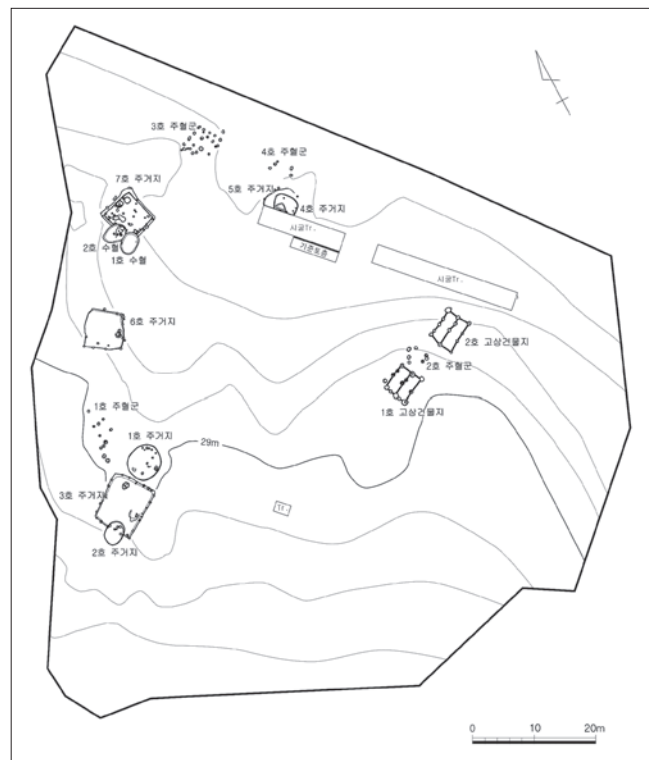
고상건물지는 단 2동만 조사되었지만, 주변에서 조사된 주혈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수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평면형태는 방형과 장방형, 구조는 2×2칸, 면적은 최소 18.8~20.8㎡이며 보조주혈은 확인되나 초석 등의 시설은 조사되지 않았다. 3호 주혈군의 경우 지상건물지일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길이 360~394㎝, 너비 268~288㎝이며 내부시설은 조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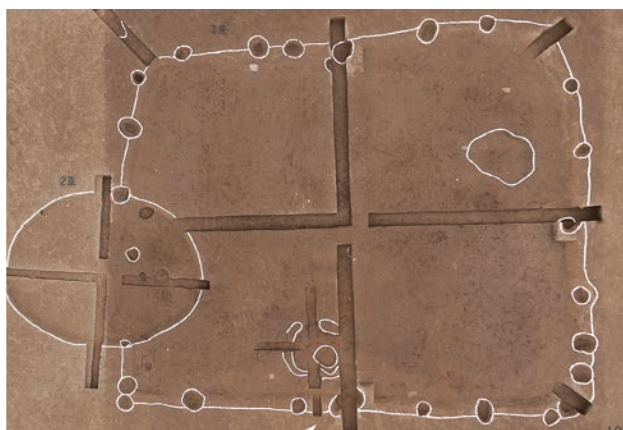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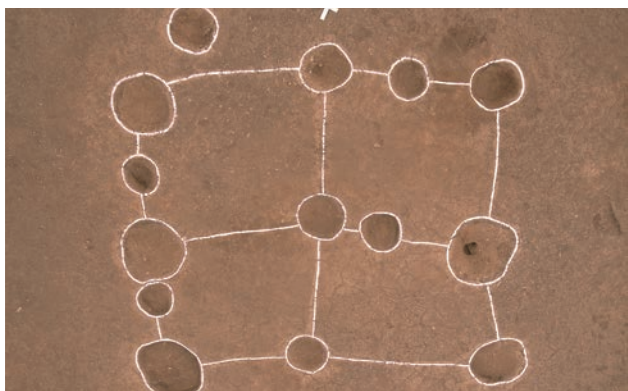
출토유물은 일상토기가 다수를 이루며, 수혈주거지와 수혈 등에서 출토된 삼각형투창 고배는 함안지역과 서남부지역 고배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5세기 전엽의 전형적인 가야양식을 띤다. 지표에서 수습된 발형기대 편의 경우도 5세기 중엽에 속하므로 본 유적은 5세기 전~중엽으로 편년된다.

본 유적은 소포리 일대에 조성된 복합취락 내에서 생활공간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분묘유적을 비롯한 주변 취락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조성집단의 실체 및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데 있어 좋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6, 『함안 군북 00부대 이전부지(5구역 3구간 라지구) 내 함안 소포리 가야 취락』.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호 수혈주거지

3호 수혈주거지

1호 고상건물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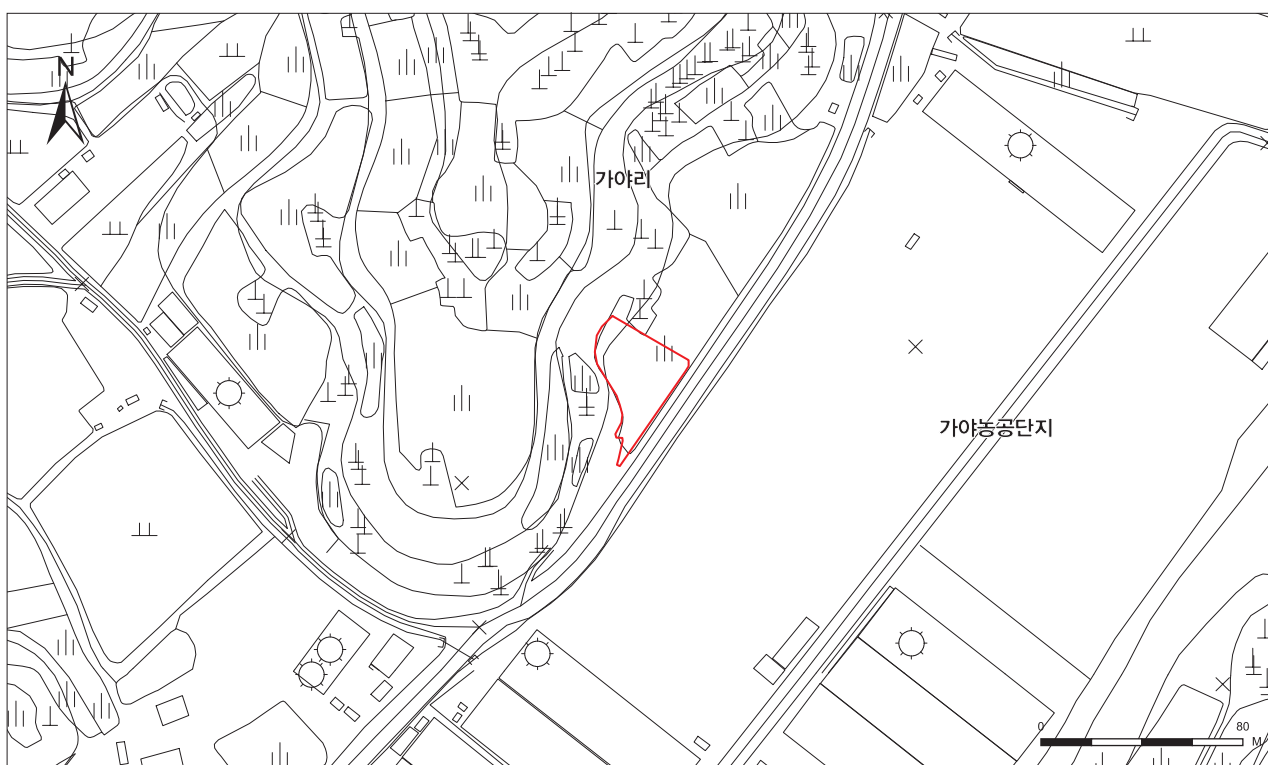
10 함안 가야리 133-8번지 일대 공장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133-8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17.3.~2017.4.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주혈 / 연질옹, 단경호, 방추차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133-8에 소재한 삼국·조선시대 생활유적이다. 건축주가 추진중인 공장신축부지에 해당되며 2016년 11월에 강산문화연구원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사업주가 문화재청에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를 신청하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담당하였으며 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2동, 주혈군 2개소, 조선시대 구 8기, 석축 1기, 암거시설 1기, 시기미상의 석관묘 2기, 가마 1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함안 가야리 유적군의 남쪽 구릉 끝자락에 해당한다. 유적의 동북쪽 배후에는 해발 32m 정도의 평탄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동쪽은 도로와 접한다. 조사지역을 비롯하여 주변의 완만한 지대는 밭이 조성되어 있고 배후의 구릉 정부도 평탄하게 되어 있어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함안지역의 삼국시대 유적에 대한 정보로는 해발 10m 이하는 습지환경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본 유적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유구는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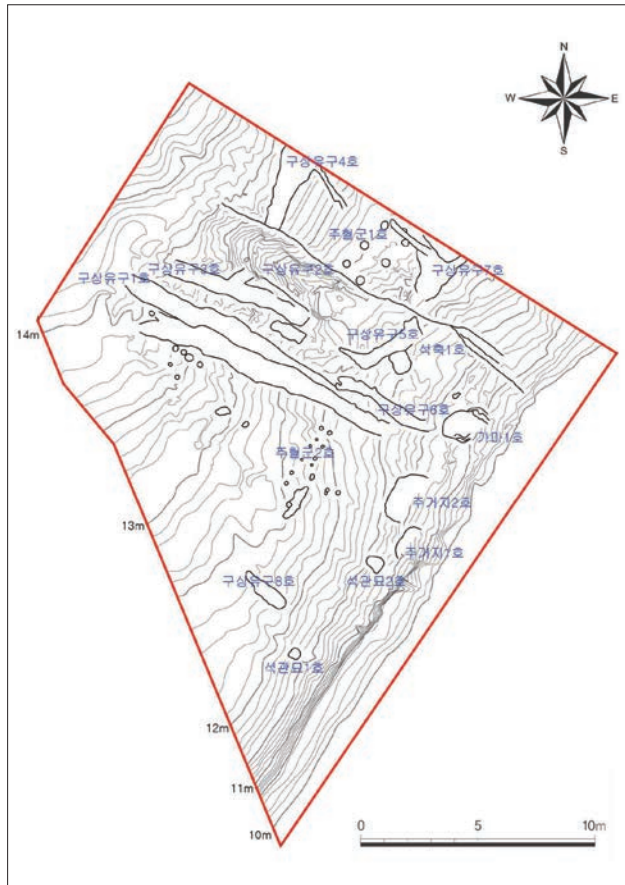
해발 9m 정도에 조성되어 있어 국지적으로 환경적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수혈주거지는 조사구역 내 남동쪽 끝부분에 해당하는 구릉 기저부에 입지하며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성되었다. 후대 삭토로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나 방형계로 추정된다. 내부시설은 화덕이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연질옹, 단경호,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주혈군은 조사구역 내 좌-우측에 각각 1군이 잔존하고 있다. 주혈은 2×3열, 2×6열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주혈 간의 간격이 약간 어긋나 있다. 주혈의 단면형태는 1단과 2단으로 굴착하여 만든 것이 모두 확인된다.

본 유적의 조사 결과, 해발 8~9m에서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등 생활유구가 조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상부 퇴적토에 다양한 종류의 도질토기 편이 확인되어 조사지역 북동편에 위치한 구릉(전 아라왕궁지) 선상대지에는 상당한 규모의 취락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를 통해 함안지역의 삼국시대 입지환경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이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 시 유효한 비교자료가 될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7, 「함안 가야리 133-8번지 일원 공장신축부지 내 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유구 배치도

1호 수혈주거지

2호 수혈주거지

11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190-9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14.3.

주요 유구 / 유물
주혈 / 연질토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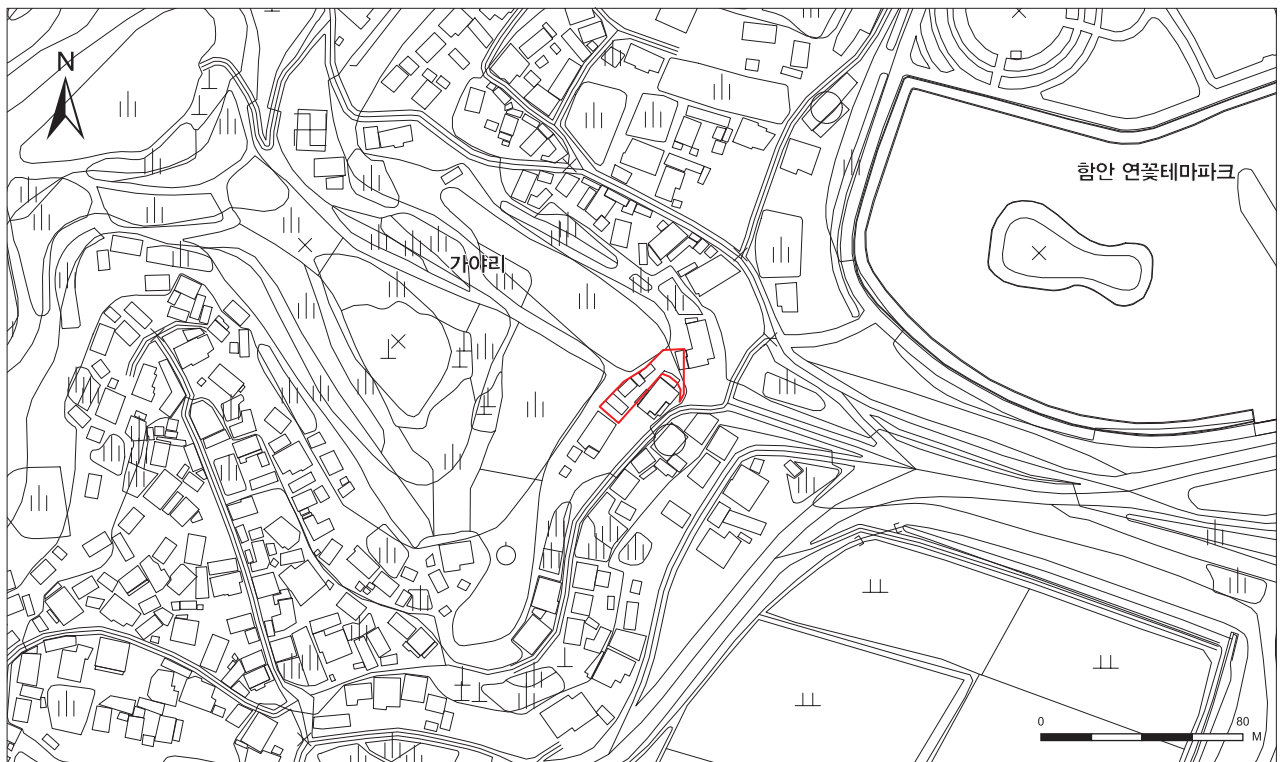
함안 가야읍 가야리 190-9번지 근린주택조성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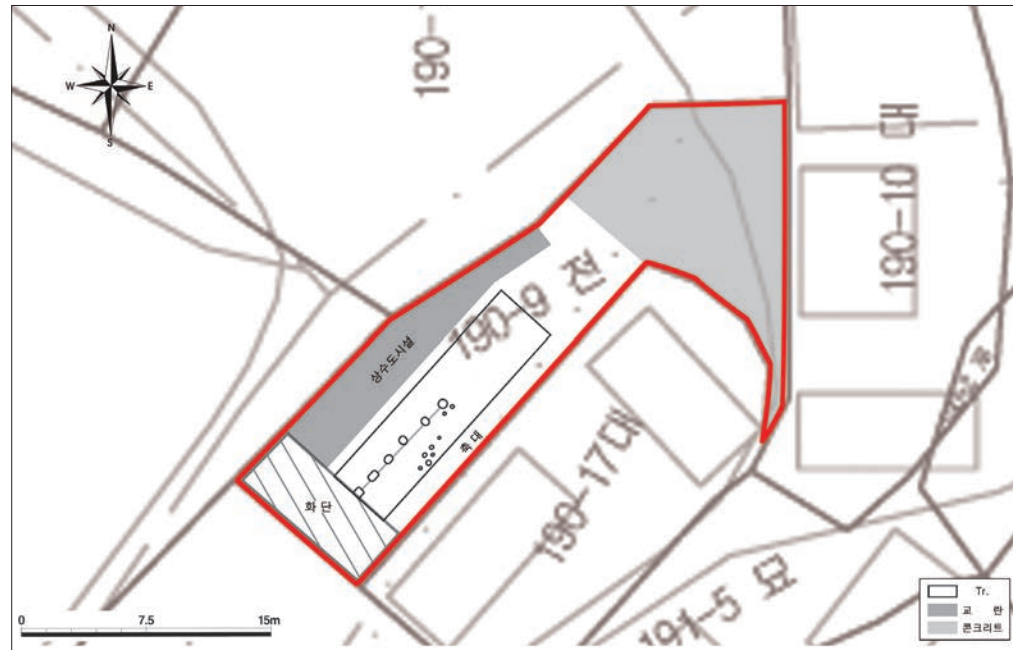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190-9번지에 소재한 삼국시대 생활유적에 해당되며 근린주택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이다. 조사지역을 포함한 이 일대는 「추정 왕궁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거리에 '남문외고분군(경상남도기념물 제226호)', 함안 가야리 제방유적이 분포하고 있어 유구 확인을 위해 2014년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지역은 북서쪽의 삼봉산(해발 301.6m)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려, 남서-북동향의 저구릉(해발 58m)의 북동쪽에 있는 가야마을 동쪽에 위치하며, 침식성 저구릉의 동쪽 사면에 해당된다. 조사지역의 남쪽동으로는 '남문외고분군'이 위치하는 남서-북동쪽으로 뻗어 내린 저구릉(해발 79.89m)을 사이에 두고 비교적 좁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남문외고분군의 남동쪽으로는 남서에서 북동으로 흐르는 신음천이 위치하고 있다.

시굴조사 결과 1개의 트렌치에서 열상으로 분포하는 주혈 6기와 정형성은 없으나

유적 위치도

그와 유사한 방향으로 확인되는 주혈 8기 등 총 14기의 주혈이 확인되었을 뿐 그 외 특별한 유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된 주혈의 양상으로 보아 건물지 또는 건물지와 관련된 유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조사지역의 협소함과 근래의 대지조성으로 인해 대부분 절토 및 교란되어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다. 주혈군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조사지역 내에서 연질토기 편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조사지역 주변으로 삼국시대의 생활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14, 「함안 가야읍 가야리 190-9번지 근린주택조성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2

함안 가야리 제방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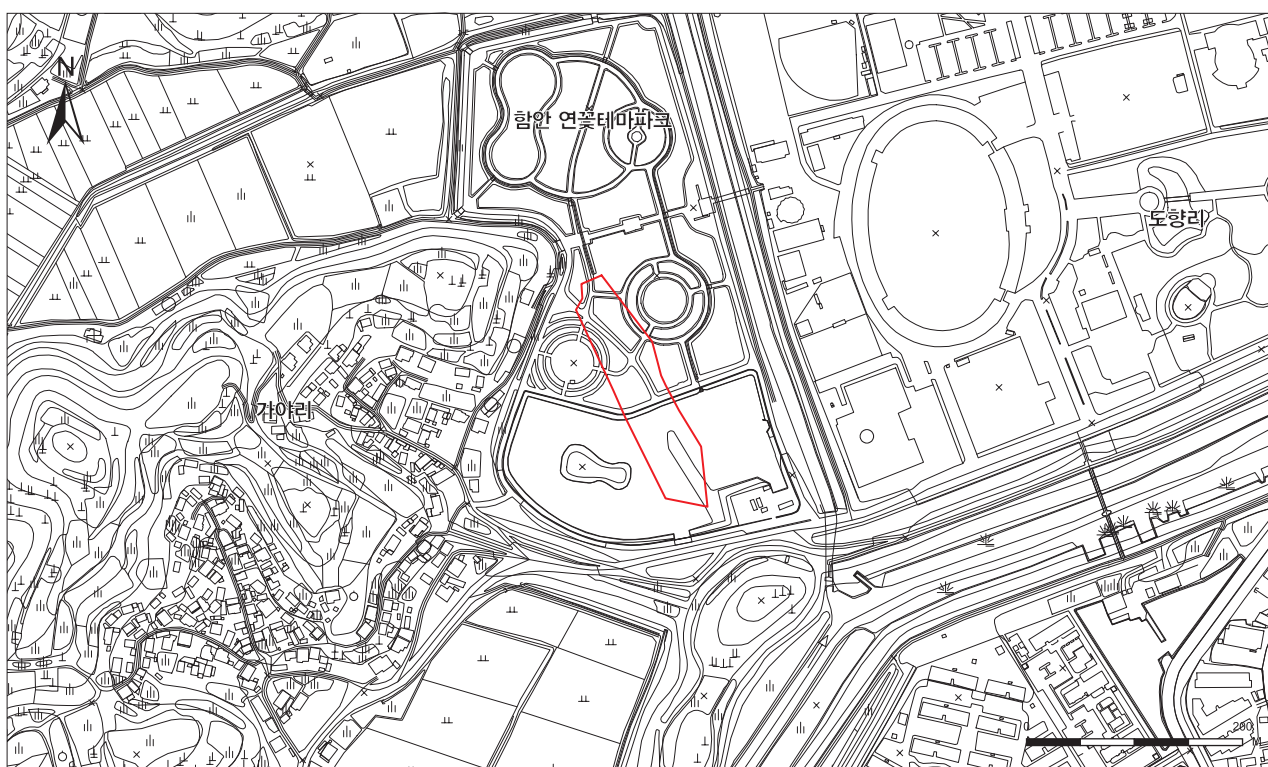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233-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08.3.~2008.4.

주요 유구 / 유물
제방 / 호 편, 파수부완 편, 철겸 편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233-1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생활유적이다. 조사지역인 가야리는 『咸州誌』에 기록에 따라 아라가야의 왕궁지로 추정되어 왔으며 그 위치는 가야리 앞 유수지로 비정되어 왔다. 함안군은 이 유수지에 연꽃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문화재연구원에 발굴(시굴)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조사 결과, 삼국시대 제방이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인 가야동 남쪽에는 서쪽으로 길게 뻗어 나와 동쪽으로 길게 늘어진 구릉이 있는데, 여기에 남문외고분군이 위치하며 고분군의 끝자락과 가야동 뒷산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의 말단 부분에 유적이 위치한다. 이 일대는 남쪽의 산지에서 북쪽~서북쪽으로 뻗어 내린 침식성 저구릉을 개석한 계티천이 형성한 곡저평야의 입구에 해당된다.

제방은 양구릉 사이의 곡구를 막아서 조성하였다. 조사지역의 한계로 축조 목적은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제내지의 면적은 최소 244,567㎡이 된다. 평면형태는 돌출한 아

유적 위치도

치형으로 축조하였으며 전체 길이는 약 285m로 추정된다. 제방 기저부의 폭은 평균 16.19m이며, 잔고는 1.64~2.6m이지만 실제 높이는 2.86~5.63m로 추정된다. 둑마루 폭은 약 5m로 추정되며 단면형태는 사다리꼴이다. 이를 종합하면 초축 당시의 평균 단면적은 48.40㎡, 그 체적은 대략 13.794㎥로 판단된다. 제방의 축조는 부엽공법 등을 포함하여 총 10개 공정으로 구분된다. 성토에 사용된 흙은 기반토를 굴착하거나 주변에 퇴적된 습지퇴적물 등을 근거리 운반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토사의 이동은 토낭 형태로 운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평면조사에서 다짐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달고질 할 때 가마니나 거적 같은 것으로 놓고 다진 것으로 판단된다. 제방의 성격은 하천 제방이 아니라 산·구릉과 산·구릉을 연결해 홍수범람으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는 소위 산부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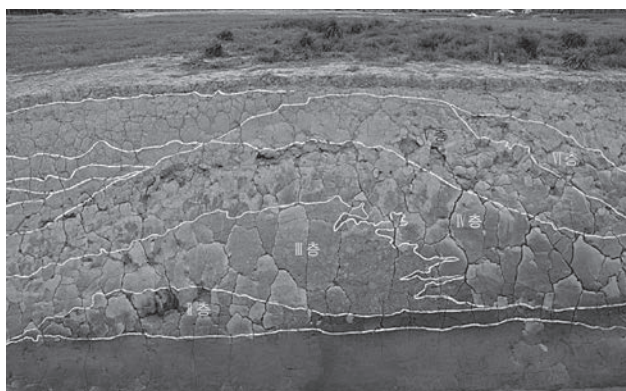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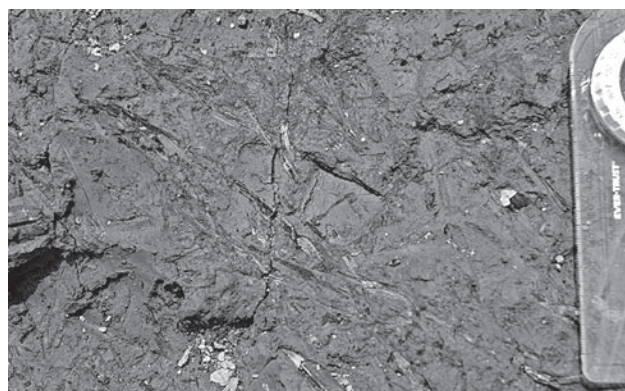
제방의 축조시점은 유물과 AMS연대 등으로 보아 삼국시대로 판명되었다.

기존 제방 조사에서는 단면을 완전히 굴착하여 구체적인 축조 방법을 파악한 예가 많지 않았으나 가야리 제방유적에서는 제방 기반토까지 절토하여 축조 방법을 파악한데 조사의 의의가 있으며, 특히 하천 제방의 경우 국내에서 조사된 예가 매우 적은 점을 고려하면 삼국시대 하천치수관련 자료로서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10, 『함안 가야리 제방유적』.

유구 배치도

3트렌치 평면확장부

2트렌치 토층

3트렌치 부엽 C층

출토유물

13

함안 가야리유적 _ 함안 가야리 256-1번지 단독주택 신축 공사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256-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해동문화재연구원 / 20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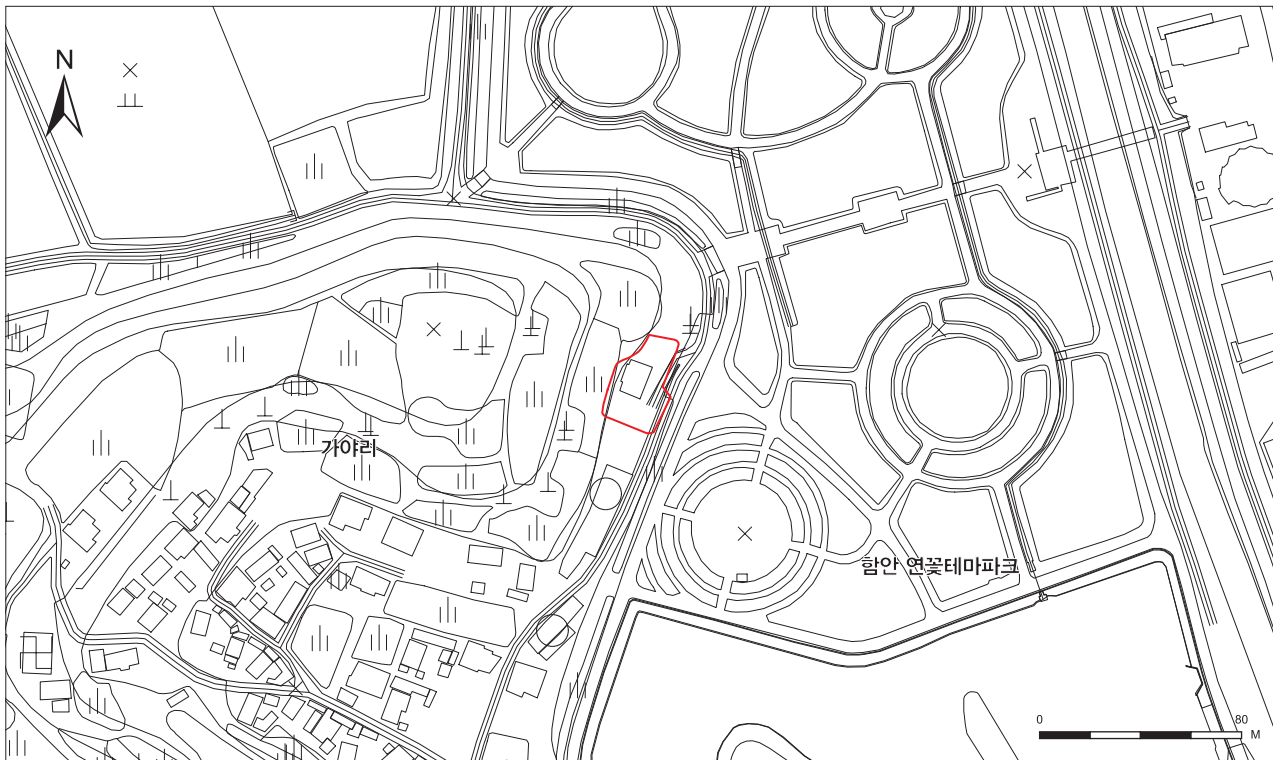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 두형토기, 고배, 개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256-1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생활유적으로 단독주택 신축부지에 해당한다. 2013년 해동문화재연구원에서 입회조사 및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국시대 수혈 5기가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인 가야리 일대는 읍의 중앙에 위치하며, 가야마을 뒤편에 있는 남-북으로 뻗은 소구릉(해발 58m)의 북동쪽 구릉 말단부에 위치한다. 조사지역은 최근까지 경작지로 이용되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 부정형, 장방형 등이며, 규모는 45~418㎝로 다양하다. 가야리유적은 일부만 조사되었지만 유적주변에 위치한 남문외고분군, 사내리 덕전고분군, 사내리 필동고분군 등의 삼국시대 매장유구와 공간이 분리된 생활유적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야리유적이 포함되는 가야리유적군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행해진다면 주변의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보다 명확한 이 시기 생활 및 매장 유적으로 구성된 복합유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참고문헌

해동문화재연구원, 2015, 『함안 가야리유적- 함안 가야리 256-1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부지내 유적-』.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3호 수혈

유적 근경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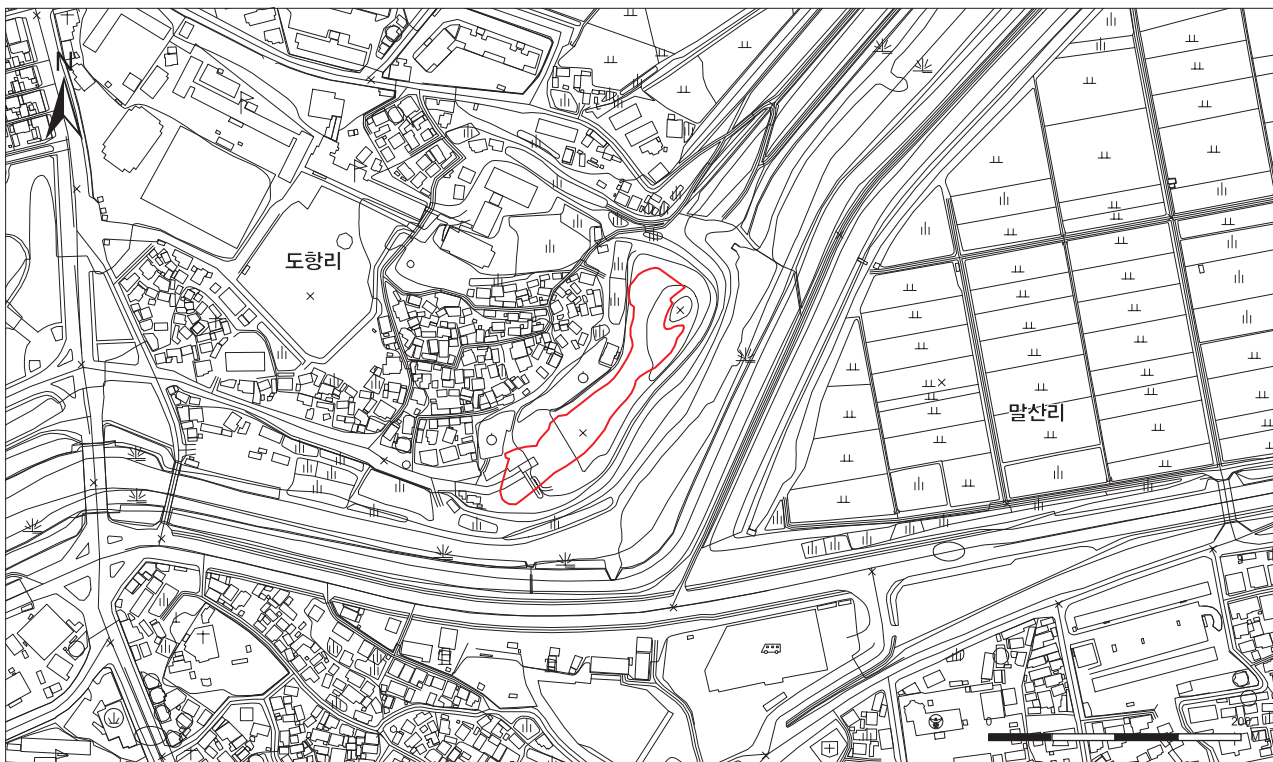
14 함안 충의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04.7.~2004.12.

주요 유구 / 유물
대형건물지, 고상건물지, 수혈주거지, 원형수혈 / 고배, 파배, 광구소호, 단경호, 발형기대

경상남도 창녕군 가야읍 도항리 47번지 일대에 소재한 청동기·삼국·통일신라·조선시대 생활유적으로 함안 충의공원 조성부지내 문화유적이다. 2002년 1월에 경상대학교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 7월부터 동년 12월까지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1동, 수혈 2기, 구 1기, 석관묘 1기, 삼국시대 대형 건물지 1동, 고상건물지 8동, 수혈주거지 1동, 원형수혈 9기, 수혈 16기, 구 1기, 통일신라시대 기와무지 1기,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1동, 고상건물지 1동, 구 1기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가야읍은 지리적으로 함안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산인면, 서쪽으로 군북면, 남쪽으로 함안면, 북쪽으로 법수면, 대산면과 각각 접하고 있다. 남고북저의 지형 가운데에 위치한 저지대에 해당하며 동쪽은 오남산(139m), 북서쪽은 천제봉(225m)·계티고개·장고개, 북동쪽으로는 배나무실고개가 가야읍을 둘러싸고

유적 위치도

있다. 조사지역은 함안평야의 독립구릉에 해당하며 해발고도 20~40m의 낮은 구릉상에 위치하며 북동-남서를 장축으로 하여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구릉의 옆으로 일제강점기에 인공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함안천이 흐르고 있다.

수혈주거지는 북서쪽 구릉부에 입지하며 원형수혈과 인접하게 축조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 잔존규모는 직경 346×260㎝이다. 바닥은 점토다짐하였으며 내부시설은 주혈, 추정 출입구 등이 조사되었다. 함몰된 벽체시설이 노출되었으며 화재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건물지는 조사지역 중앙의 평탄부에 입지하는데 평면형태는 타원형, 규모는 길이 39.96m, 너비 15.91m, 상면적 607.39㎡에 이르는 초대형 구조물이다. 중심주혈 6개와 외부주혈 34개가 잔존한다. 중심주혈은 560~668㎝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직경은 50~110㎝이고 외부주혈은 직경 86~142㎝의 주혈을 150㎝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기둥은 직경 33~50㎝ 크기의 소나무류를 이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잔존상태를 참고할 때, 6~7칸의 긴 몸체에 좌우측면이 반원상이거나 남쪽이 열려있는 지면식구조로 추정되며 용도는 대규모 집회장으로 판단된다.

고상건물지는 수혈과 인접하게 배치되었으며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원형, 구조는 1×1칸, 2×1칸, 2×2칸, 3×1칸으로 구분된다. 규모는 길이 270~768㎝, 너비 200~480㎝로 다양하다.

수혈은 평면형태상 원형과 부정형으로 양분되며 원형수혈은 북서쪽 구릉부, 부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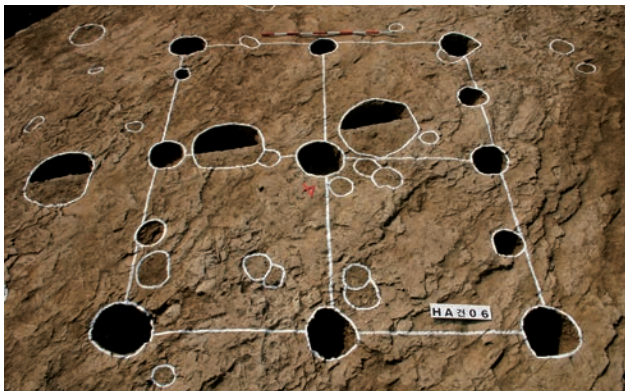
유적 전경

수혈은 남쪽 구릉 말단부에 집중분포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원형수혈은 등고선과 나란하게 군집하며 규모는 길이 547~795㎝, 너비 500~686㎝, 깊이 140~240㎝, 단면형태는 'Y', 'U'자상이다. 내부에서는 의도적으로 집석행위가 조사되었으며 저장공의 용도로 판단된다. 상부구조는 목재+초본류를 이용한 수평덮개나 원추형덮개 형태로 사다리를 이용하여 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형수혈은 주로 구처럼 길게 진행하다 장·단축으로 돌출부를 가지는 형태로 양분되며 내부에서 집석시설이 확인된 것도 있으나 용도는 불명이다.

출토유물은 '아라가야 토기', '함안 토기'로 불리는 특징을 나타내며, 고배, 노형기대, 발형기대, 통형기대, 조두형손잡이, 전형토기 등 의식적인 용도로 추정되는 기종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유물의 편년은 통해 볼 때 유적의 조성시기는 4~5세기대로 판단된다.

종합해볼 때, 대형 건물지에서는 많은 인원이 집합하여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이때 필요한 여러 물품 및 음식물 등을 보관 또는 공급하기 위하여 주변에 대형 원형수혈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당시 안라국 또는 아라가야라는 정치체의 역량을 간접적으로 말해 줄 수 있는 좋은 고고학적인 자료로 이해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6, 『함안 충의공원 조성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6호 고상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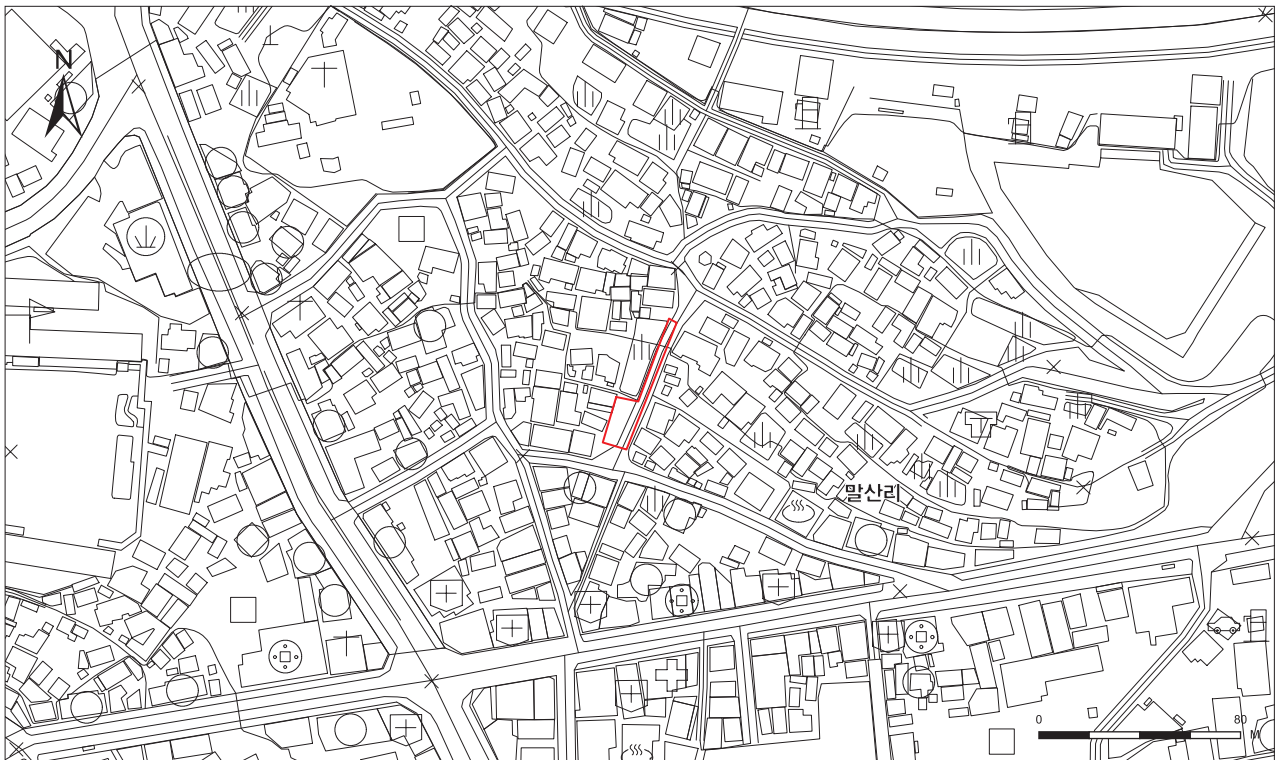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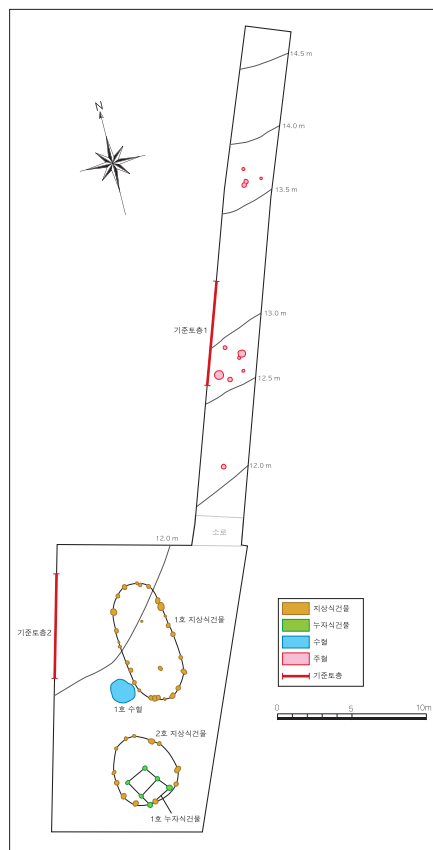
3호 수혈

출토유물

15 함안 말산리 생활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516-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13.1.
주요 유구 / 유물
지상건물지, 고상건물지, 수혈 / 옹, 대각 편

경상남도 창녕군 가야읍 말산리 516-9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생활유적으로 함안군이 추진하는 '가야도시계획도로(동동소로 3-1, 3-29호선) 개설사업 부지'로서 2012년 8월부터 동년 9월까지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한 후 2013년 1월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국시대 지상건물지 2동, 고상건물지 1동, 수혈 1기, 주혈군이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말이산고분군이 위치하는 침식성 저구릉에서 완만하게 이어지는 북동쪽 구릉 말단부로 북동-남서로 세장한 형태를 띤다. 기 조사된 충의공원유적과는 신음천을 경계로 하여 남-북으로 단절되긴 하였으나 남서쪽으로 불과 300m 이격된 곳에 위치하여 동일 유적권으로 파악된다. 조사 당시, 이미 함안읍의 중심시가지가 형성되어 조사지역에는 주택, 상·하수 관로 및 전신주가 설치되어 원지형이 훼손된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유구는 지표면 아래의 약 1.5m 이하에서 노출되어 이 일대에 삼국시대 생활유구가 비교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적 양호한 상태로 유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상건물지는 장타원형과 원형이 각 1동씩 조사되었는데, 장타원형 건물지의 규모는 길이 800㎝, 너비 393㎝, 원형 건물지는 직경이 448~498㎝이다. 장타원형 건물지는 함안 충의공원유적, 함안 오곡리 87번지 유적, 진주 평거동유적 등 대규모 삼국시대 생활유적에서 발굴조사 된 사례가 있으며 취락 내의 공용 구조물로 추정된다. 고상건물지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장방형 건물로서 규모는 장축 243㎝, 단축 208㎝, 면적 5.05㎡이다. 그 외 내부시설이 없는 타원형수혈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건물지에서 구연부 편, 대각부 편 등이 출토되어 유적의 조성시기는 4세기대로 추정된다.

발굴조사를 통해, 말이산고분군 축조 집단의 직접적인 생활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조사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5, 『함안 말산리 생활유적』.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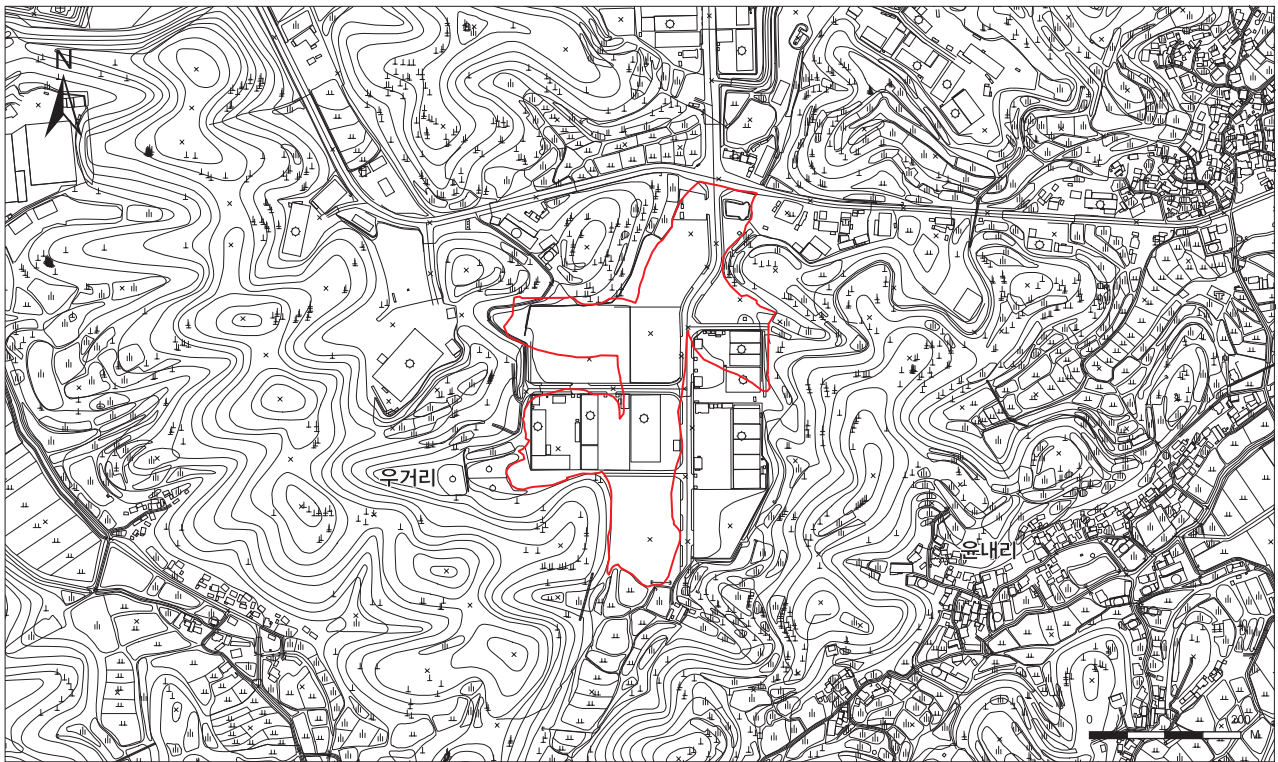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1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09.8.~2009.9.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 연질완, 파수 편

함안 우거리 17번지 유적 _ 함안 우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17번지 일대에 소재한 구석기유적 및 삼국시대 생활유적으로 (주)법수개발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부지에 해당된다.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2008·2009년에 지표조사, 2009년에 표본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석기시대 유물확인층과 삼국시대 수혈건물지 1동이 수습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함안군의 최북단으로 남강의 남쪽에 위치하는데, 북쪽의 법수산(해발 155m)에서 남으로 내린 지맥과, 천제봉(해발 224.9m)에서 북으로 내린 지맥이 소규모 저구릉을 이루며 형성한 동·중·서 세 개의 곡부 중 중심부 곡부 및 이에 연한 구릉 사면부에 자리하고 있다. 중심부 곡부는 세장방형의 곡간평지인 '구부렁골'로 북쪽이 열려 함안천으로 이어진다. 해발고도는 남쪽이 최고 18m, 북쪽이 최저 9.5m로서 약 10m정도의 차이가 나며 이러한 지형면을 이용하여 계단식 논으로 경작되었다. 수계로는 북쪽으로 약 3㎞ 거리에 광려산에서 발원하여 여항·함안면과 가야읍을 남에서 북으로 세로 지

유적 위치도

유적 전경

른 뒤 법수·대산면을 가르며 남강으로 합류하는 함안천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다. 유적은 함안천으로부터 주물리와 윤외리 사이의 뉘벌, 구부령골 등으로 불리는 곡간충적지의 상류부로 곡간충적지를 중심으로 침식성저구릉이 분포하고 있어 중심 곡간충적지에 합류하는 작은 규모의 침식곡이 발달하고 있다. 삼국시대 문화층은 곡간부 경작층 하부의 실트~조립질사층과 구릉부의 기반암층에 해당되나 수혈주거지 1동을 제외하고 기타 관련 유구가 조사되지 않았다.

수혈주거지는 구릉의 서사면 말단부에 입지하며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 규모는 길이 326㎝, 너비 290㎝, 깊이 50㎝이다. 내부시설은 조사되지 않았으며 내부에 목탄이 전체적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다. 유물은 연질·와질완, 연질·경질파수 편이 출토되었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10, 『함안 우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함안 우거리 17번지 유적-표본시굴조사 보고서-』.

17 함안 대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구간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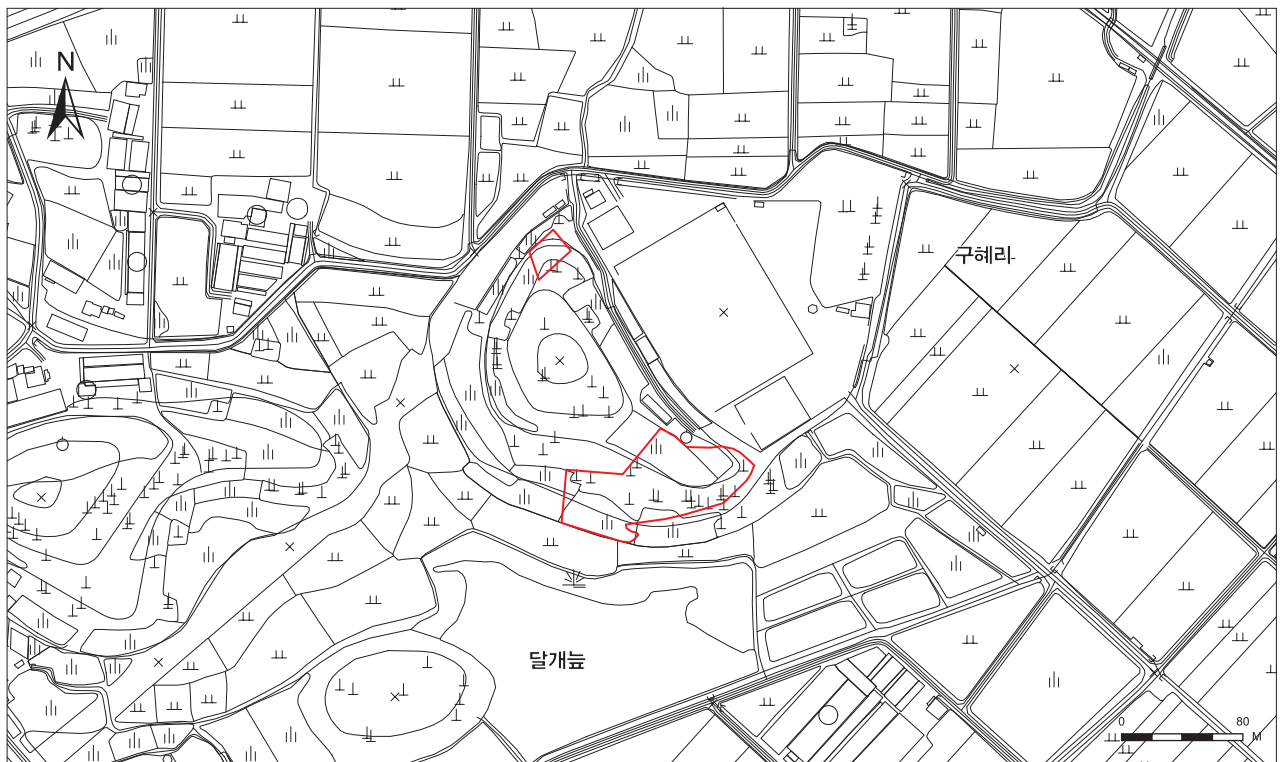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18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삼강문화재연구원 /
2016.4.~2016.5.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고상건물지 / 연질토기 편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181번지 일대에 위치한 삼국시대 생활유적 및 조선시대 무덤유적에 해당된다. 함안지방공사에서 추진 중인 대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구간에 포함되어 2013년 해동문화재연구원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 및 표본조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삼강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였으며 2016년 동일기관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7동, 고상건물지 1동, 소성유구 1기, 수혈 3기, 조선시대 무덤 53기, 건물지 1동, 근대 무덤 71기, 수혈 3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인 대산면은 함안군의 북쪽에 위치하며, 남강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의령군과 마주하며,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낮은 구릉지가 발달되어 있다. 또한 구혜리 일대은 동쪽의 갈마산(해발 106.2m), 남동쪽의 고종산(해발 130m), 서쪽으로는 당산(해발 51m) 및 여러 야산으로 둘러싸여 분지형태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조사지역은 2개 구간으로 이격되어 분포하는데, 삼국시대 유구는 모두 2구역 남사면에 입지하며 대부분 등고선과 평행한 동-서향으로 조성되었다.

유적 위치도

수혈주거지는 경사 아래쪽인 남벽이 후대 삭평으로 인해 파괴되었으나 평면형태는 방형 2동, 장방형 5동으로 구분되며 규모는 길이 337~464㎝, 잔존너비 106~330㎝, 깊이 14~43㎝이다. 내부시설로는 아궁이와 고래시설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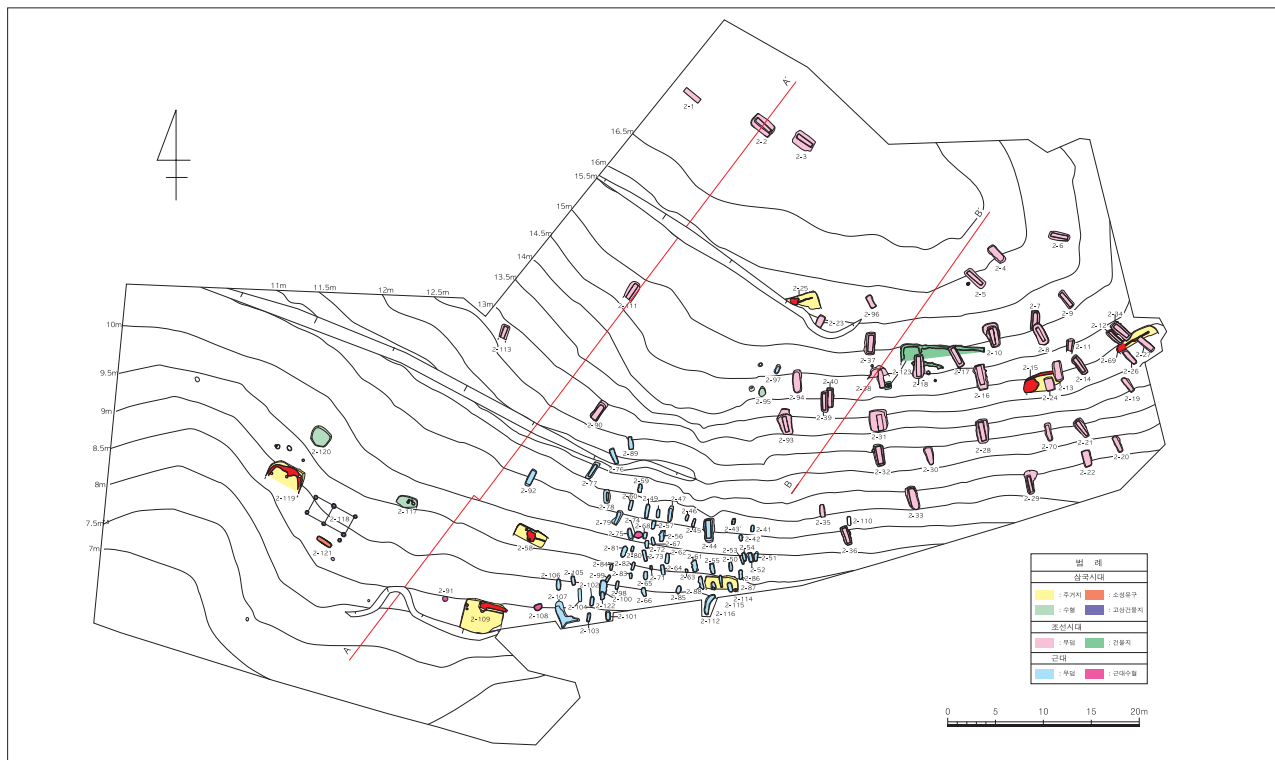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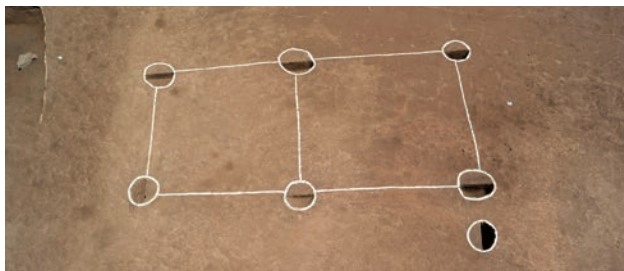
고상건물지는 방형 주거지와 인접하게 위치하는데 구조는 정면 2칸×측면 1칸,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규모는 길이 480㎝, 너비 260㎝이고 면적은 12.48㎡이다.

소성유구는 고상건물지와 인접하게 위치하는데 평면형태는 장타원형, 규모는 길이 168㎝, 너비 49㎝, 깊이 20㎝이고, 네 벽면에서 두께 0.5~1㎝의 피열흔이 조사되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과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115~216㎝, 너비 124~190㎝, 깊이 10~35㎝이다.

본 유적의 조사 결과,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일대에 삼국시대 소규모 집락이 유존했던 고고학적 자료가 축적되었다.

참고문헌

삼강문화재연구원, 2016, 「함안 대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구간 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구역 유구 배치도

118호 고상건물지

119호 수혈주거지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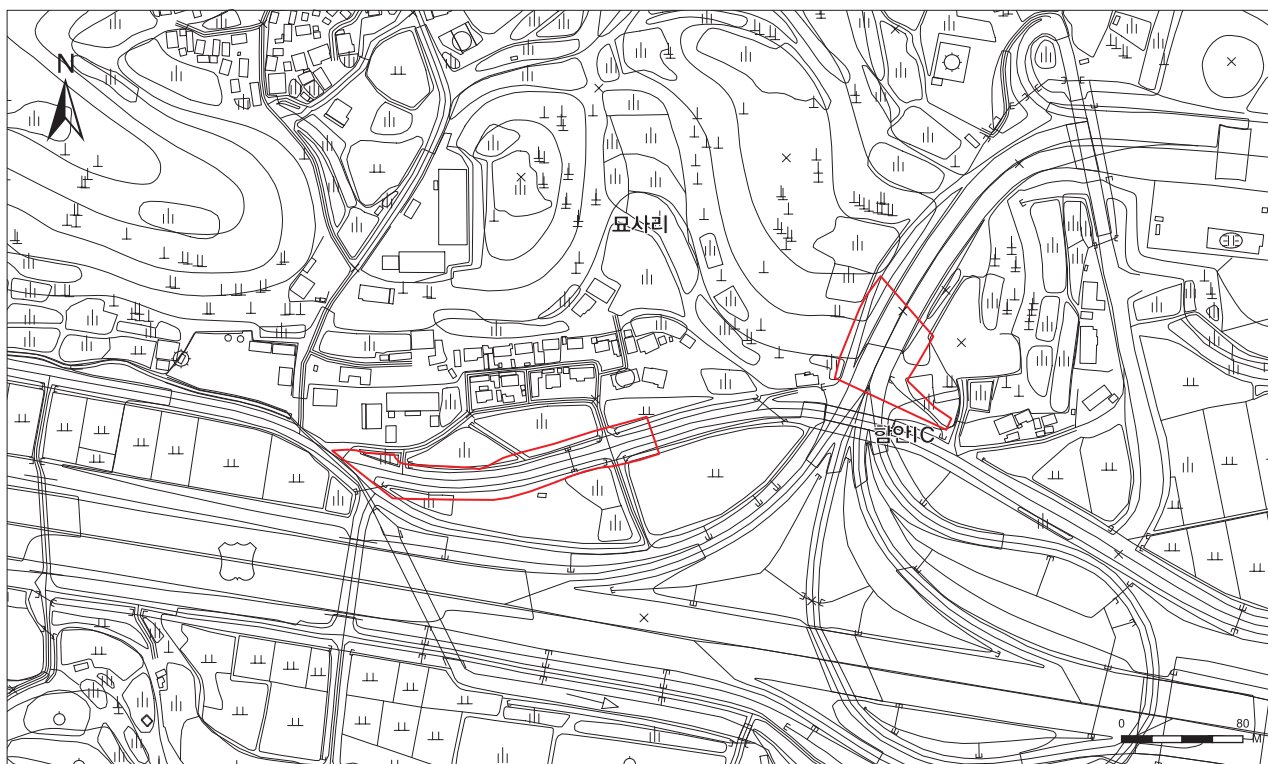
함안 묘사리유적 _ 진주~마산간 고속도로 확장구간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221-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삼강문화재연구원 / 2009.5.~2009.11.

주요 유구 / 유물
수전, 수혈 / 호, 단경호, 장경호, 파수 편, 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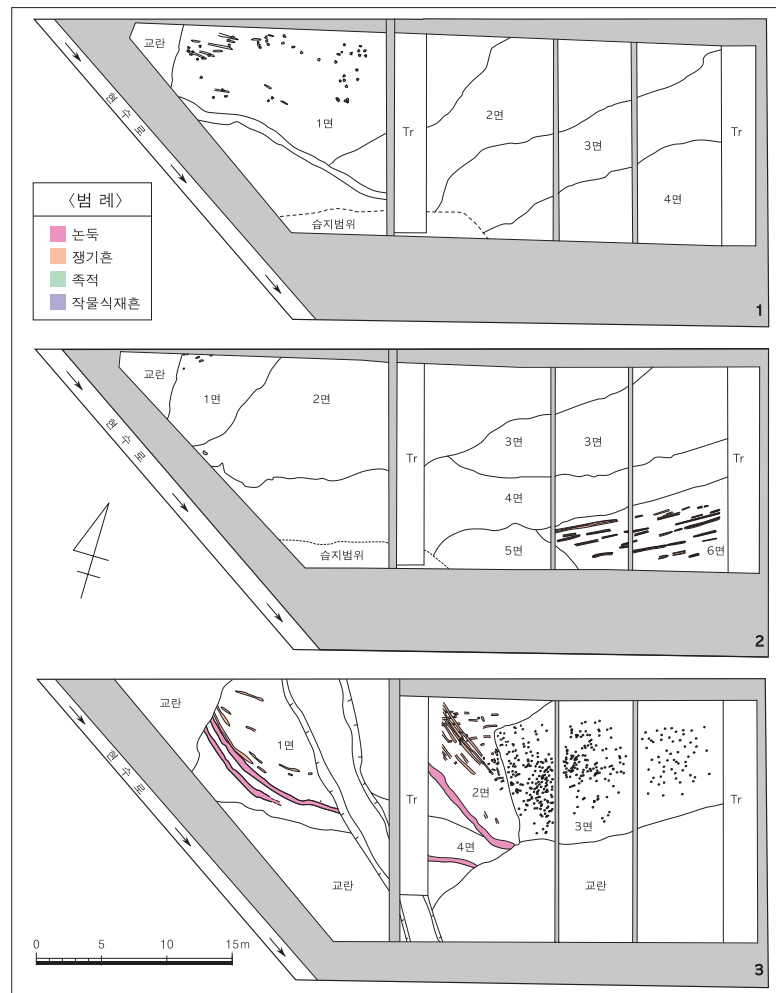
경상남도 창녕군 가야읍 묘사리 221-1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국·고려·조선시대 복합유적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한 진주~마산간 고속도로 확장구간에 해당하며 삼강문화재연구원에서 2008년 8월부터 동년 10월까지 시굴조사, 2009년 4월에 표본시굴조사, 2009년 5월부터 동년 11월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전 3개 층, 수혈 27기, 구 1기, 고려시대 분묘 2기, 조선시대 수전 1개 층, 구 3기, 분묘 35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봉산이고개에서 함안읍내로 이어지는 좁은 곡간지의 초입에 해당되며 평지와 구릉으로 나뉜다. 북동쪽 구릉에는 묘사리 새터고분군이 위치하고 조사지역 주변으로는 산성과 다수의 삼국시대 고분군 및 가마유적이 위치해 있다. 유적들은 산봉산 남쪽 산자락과 천제산의 북쪽 산자락에 주로 입지하는 양상인데, 천제봉의 북쪽 산자락에는 묘사리·윤외리·우거리 토기생산유적 등 삼국시대 요업과 관련된 유구들이 집중 확인되었다.

유적 위치도

수전은 지대가 가장 낮은 A·B구역에서 확인되었는데 A구역에는 수전 3개 층이, B구역에는 수전 3개 층 이상이 존재한다. 수전의 특징은 첫째, 계단식 수전과 소구획 수전이 동시에 조사되어 지형조건에 따라 수전 형태를 달리하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둘째, 수전면에서 쟁기흔, 작물식재흔, 사람·소 발자국 등 다양한 경작관련 흔적이 확인되었다. 특히 작물식재흔은 배열성이나 규칙성이 없어 직파 재배의 흔적으로 판단된다. 셋째, B구역에서는 수전층 사이에서 보이는 시대적·시기적 단절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어 단기적 휴경을 통한 수전 노후화 현상을 극복하고자 했다. 넷째, 문헌과 출토유물로 보아 수전의 중심 연대는 6세기로 판단된다.

수혈군은 B구역 북서쪽의 조사경계와 인접한 구간에 밀집 분포한다. 여러 개의 수혈이 중복되어 있으며, 넓게 수혈을 파고 회색점토나 황색점토 핵을 중심으로 굴착해 들어가는 특징을 보이는데 특정 점토를 채취하기 위한 점토채취장으로 판단된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 부정형이고, 최소 규모는 직경 40㎝, 최대 규모는 길이 930㎝, 너비 700㎝이며 깊이는 10~100㎝ 정도이다.

참고문헌

삼강문화재연구원, 2011, 『함안 묘사리 유적-진주~마산간 고속도로 확장구간 내 시·발굴조사-』.

B구역 수전 배치도

유적 원경

B구역 수혈군

B구역 수전 쟁기흔

B구역 수전 족적

B구역 3층 수전 작물 식제흔

19

함안 묘사리 윗장명토기가마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윗장명
141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1999.12.~2000.1.

주요 유구 / 유물
토기가마 / 고배, 단경호, 양이부호, 내박자

경상남도 창녕군 가야읍 묘사리 윗장명 1416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산업생산유적이다. 1995년 발행된 창원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보고서에서 처음 알려진 이후, 함안군에서 아라가야문화권의 보존·정비·복원작업을 위한 목적으로 1999년 12월부터 2000년 1월까지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토기가마 2기, 회구부 1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천제산(해발 224.9m)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는 낮은 구릉의 남사면에 위치한다. 유적은 함안군 가야읍에서 1011지방도를 따라 남해고속도로를 넘어 북쪽 낙동강이 위치한 법수방면으로 가다보면 가야읍, 법수면의 경계가 나온다. 여기서 농로를 따라 서향하면 윗장명마을이 나오는데 토기가마터는 현재의 마을 입구부에서부터 마을 뒤에 연접한 구릉 하단부에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다.

토기가마는 구릉의 경사면을 이용하며 구축한 반지하식등요이다. 가마는 등고선과

유적 위치도

직교되게 굴착하지 않았으며 소성실과 회구부만 잔존한다. 잔존규모는 길이 3.65~20m, 너비 1.3~1.55m, 높이 0.85m 정도이다. 평면형태는 세장한 선저형, 단면형태는 타원형으로 판단된다. 가마의 구조는 무단식이며 경사각도는 15~19° 내외이다. 소성실은 자연암반을 그대로 상면으로 이용하였으며 보수의 흔적은 조사되지 않았으나 2개의 상면층과 유구의 중복 등을 보아 많은 횟수의 조업이 실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구부는 별도의 정지작업 없이 자연 경사면을 이용하였다. 출토유물은 고배, 단경호, 양이부호, 파수배, 발, 노형기대, 시루, 내박자 등이며 편년을 통해 볼 때 가마의 조업시기는 4~5세기대로 추정된다.

가마에서는 주로 단경호가 생산·공급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기대, 고배, 대형옹과 같은 토기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토기는 현재의 함안군과 이를 중심으로 한 외곽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며, 법수면 윤외리고분군, 황사리고분군, 의령 예둔리고분군 등에서 출토된 토기는 본 유적에서 공급된 토기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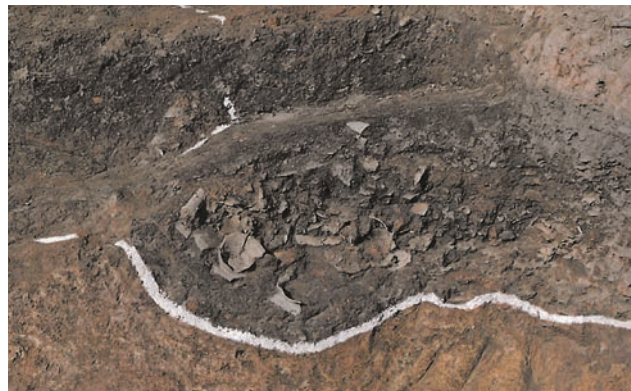
조사 결과 후대의 훼손으로 유구 파괴가 심하여 완전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아라가야의 문화적 공백기인 4세기대의 대규모 산업생산유적으로서 함안일대에서 발견되는 토기의 정형화과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인접한 동시기 무덤유적과의 수급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됨과 동시에 당시의 요업기술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02, 『함안 묘사리 윗장명 토기가마 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근경

2호 가마

2호 가마 단애면 모습

토기류 1

토기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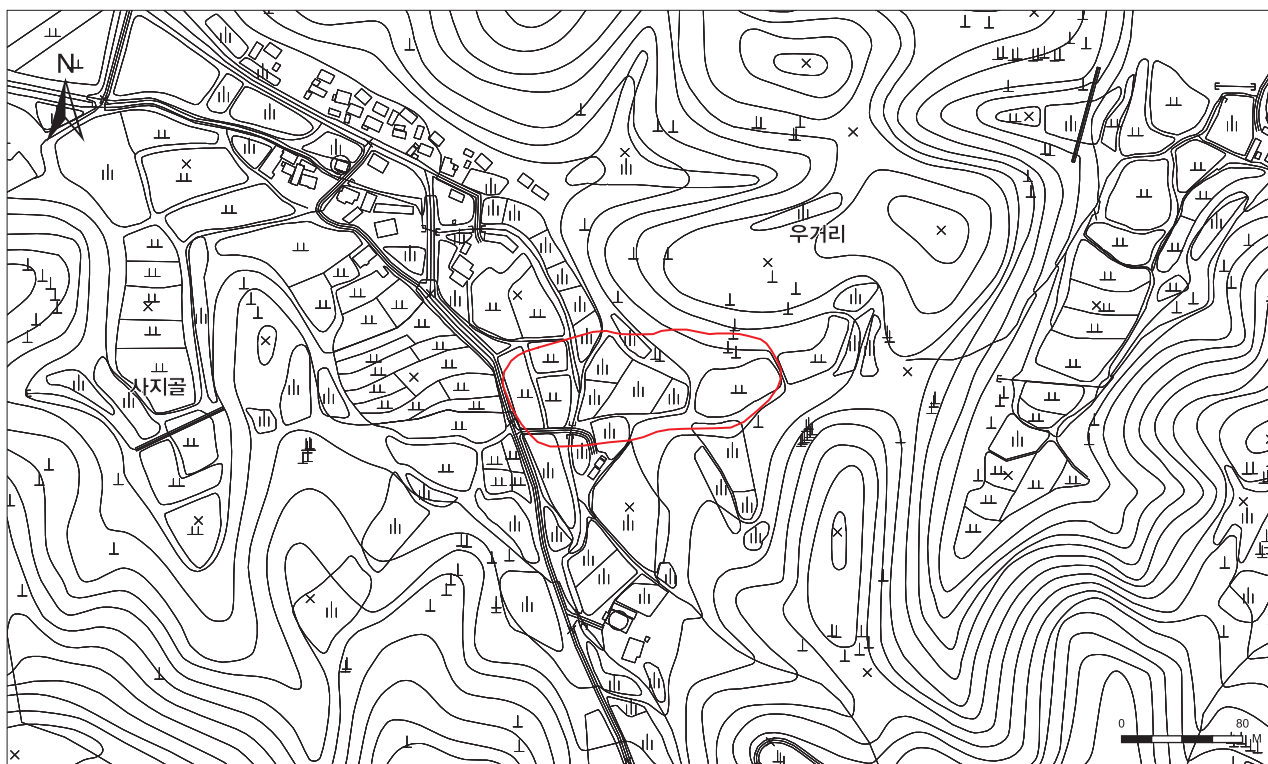
20 함안 우거리 토기생산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215·21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김해박물관 /
1차 2003.2.~2003.7.
2차 2004.3.~2004.11.

주요 유구 / 유물
토기가마, 폐기장 / 내박자, 고배, 파배, 노형토기, 단경호, 방추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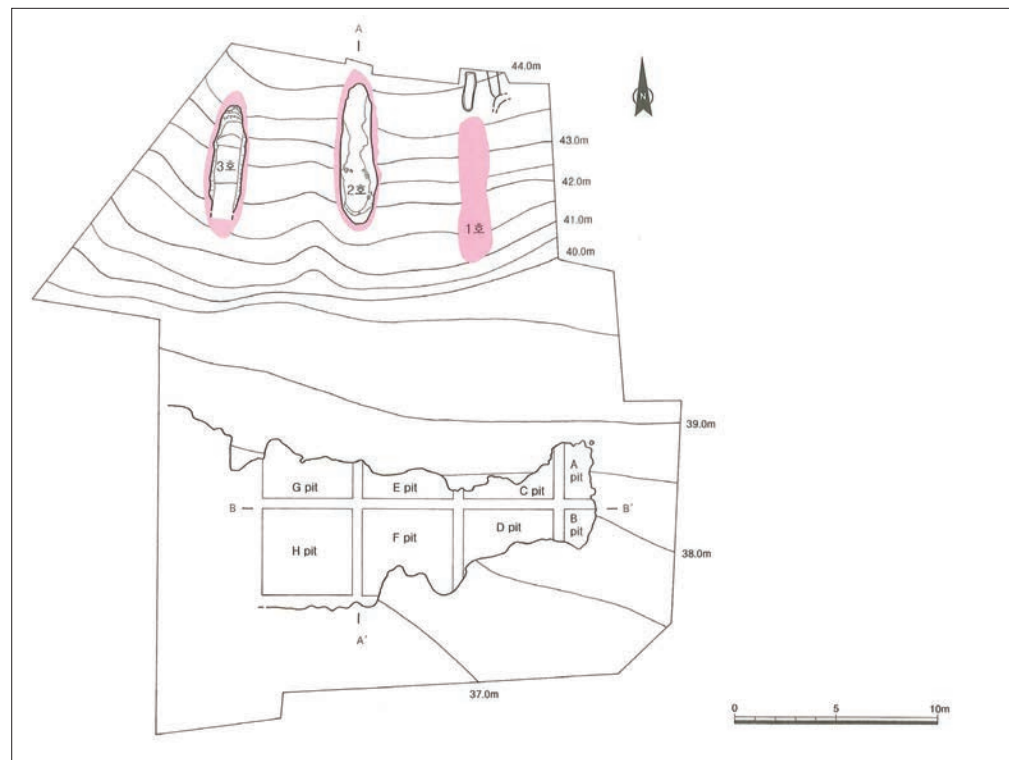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215·217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산업생산유적으로 2000년 발행된 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의 문화유적분포지도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우거리 토기생산유적은 국립김해박물관의 가야토기생산유적 학술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2002년의 시굴조사와 2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실시된 결과 삼국시대 토기가마 3기, 폐기장 1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천제봉에서 북쪽으로 넓게 퍼진 낮은 구릉에 해당한다. 유적은 법수면 소재지에서 남쪽으로 0.8㎞ 가량 떨어진 우거마을 남동쪽 작은 계곡(구부렁골) 남사면에 형성되었으며, 서쪽으로는 멀리 천제봉에서 발원하여 질랄늪을 지나 남강에 합류하는 작은 하천이 있다. 우거리 토기생산유적을 포함해서 천제봉에서 북쪽으로 넓게 퍼진 구릉 일대에는 12개소의 토기가마유적이 확인된다. 이중 묘사리 토기가마유적과 법수면 일대 토기가마유적은 본 유적과 근거리에 위치하며 대부분 4세기 어느 시기에 조업하던 유적

유적 위치도

이다. 토기가마유적은 근거리에 밀집되게 분포하는데, 낮은 구릉 사이에 형성된 곡간에는 다수의 늪이 발달하여 토기가마유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즉, 늪 주변에는 양질의 진흙층이 분포하며, 남강으로 연결되는 수로교통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기가마의 구조는 지상식 1기, 반지하식 2기로 구분된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며 바닥은 곡선형으로 처리하였다. 아궁이와 연소실의 연결 형태는 수평연소실로 추정되며, 잔존상태가 양호한 2호 가마의 소성실 경사각도는 15~23°로 확인된다. 소성실과 연도부는 급한 계단상으로 처리하였으나 연도부에서 특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토기가마의 규모는 잔존길이 5.5~7.3m, 최대너비 1.6~1.8m, 잔존높이 0.4~0.95m 정도이며, 최대 3회 보수한 흔적이 관찰된다. 1호 가마는 연질토기, 2호 가마는 도질토기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2호 가마에서는 연질과 도질이 모두 출토되어 양자가 한꺼번에 소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통해 한 가마 내에 토기의 소성공간을 분리하여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폐기장은 10개의 층으로 구분되지만 토층의 역전현상이 확인되어 층서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토층과 출토유물의 접합 양상을 참고할 때, 각 층은 짧은 시간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폐기물의 양을 볼 때 단기간에 많은 조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중형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대호, 소호, 시루, 파수부호, 발, 고배, 노형토기, 개, 파배, 완, 방추차, 내박자 등이 출토되었다. 편년을 통해 볼 때 가마의 조업시

유구 배치도

기는 4세기 3/4분기~4세기 4/4분기로 추정된다.

우거리 토기가마의 조사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4세기에 조성된 토기가마의 규모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으며 5세기 이후 가마와의 비교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동시기의 창녕 여초리나 경산 옥산동토기가마는 1기가 단독으로 조업하는 생산체계로 알려진데 비해 본 유적은 3기의 가마가 동시에 조업한 것으로 판단되어 함안지역 토기가마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또한, 후기와질토기에서 고식도질토기로 전환은 외부요소에 의한 혁신적인 발전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토기의 성형, 정면기법 등에서 후기와질토기와 유사한 기형을 가진 토기들이 확인됨으로써 전술한 변동요인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였다. 더불어 기존의 토기연구는 분묘 출토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부장용 토기 외에 다양한 기종의 토기가 출토되어 당시 토기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 한편으로 단경호의 횡치소성, 중첩소성 등 제작기법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 당시의 토기제작 기업을 밝히는 결정적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토기편년 연구는 토기의 폐기 또는 부장단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본 유적을 통해 토기생산 시점의 편년자료가 확보되어 양자간 비교연구가 진행된다면 토기의 유통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국립김해박물관, 2007, 『함안 우거리토기생산유적』.

2호 가마

폐기장 출토유물

21

함안 칠원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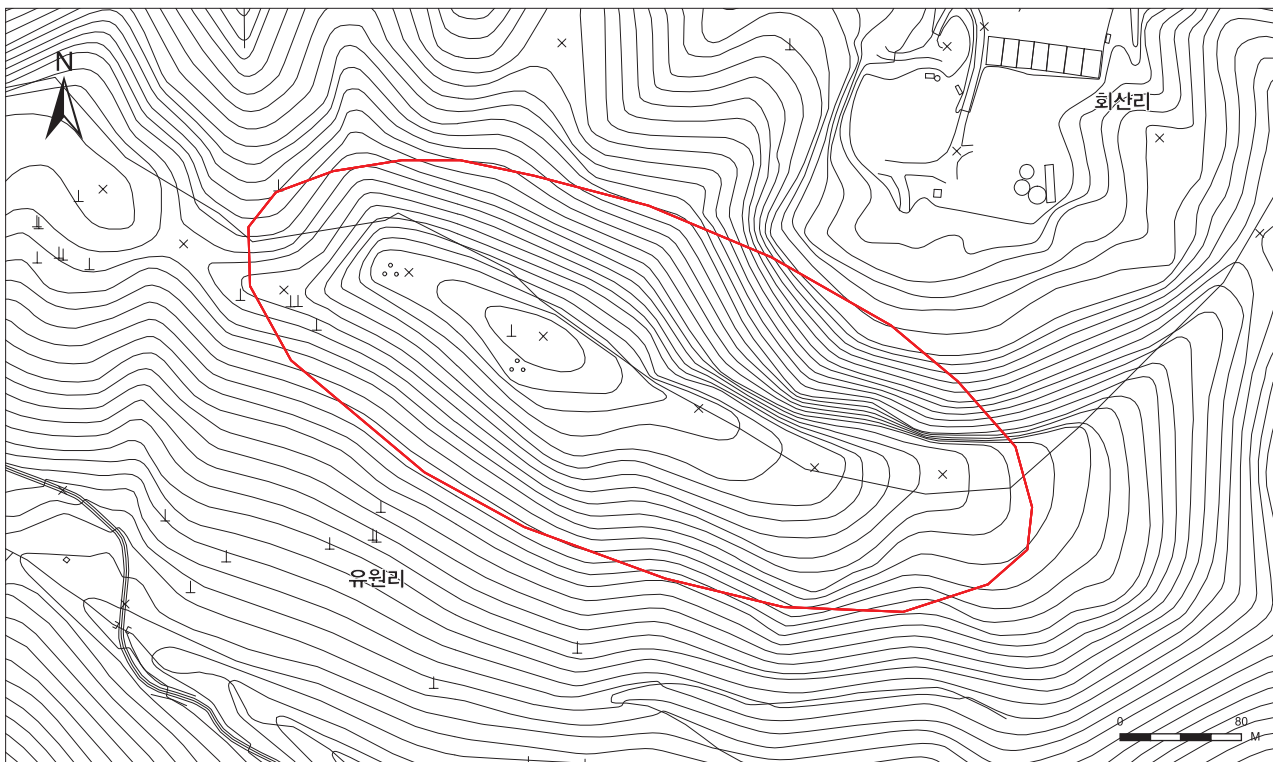
| 경상남도문화재자료 제202호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산58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시굴 1998.2.~19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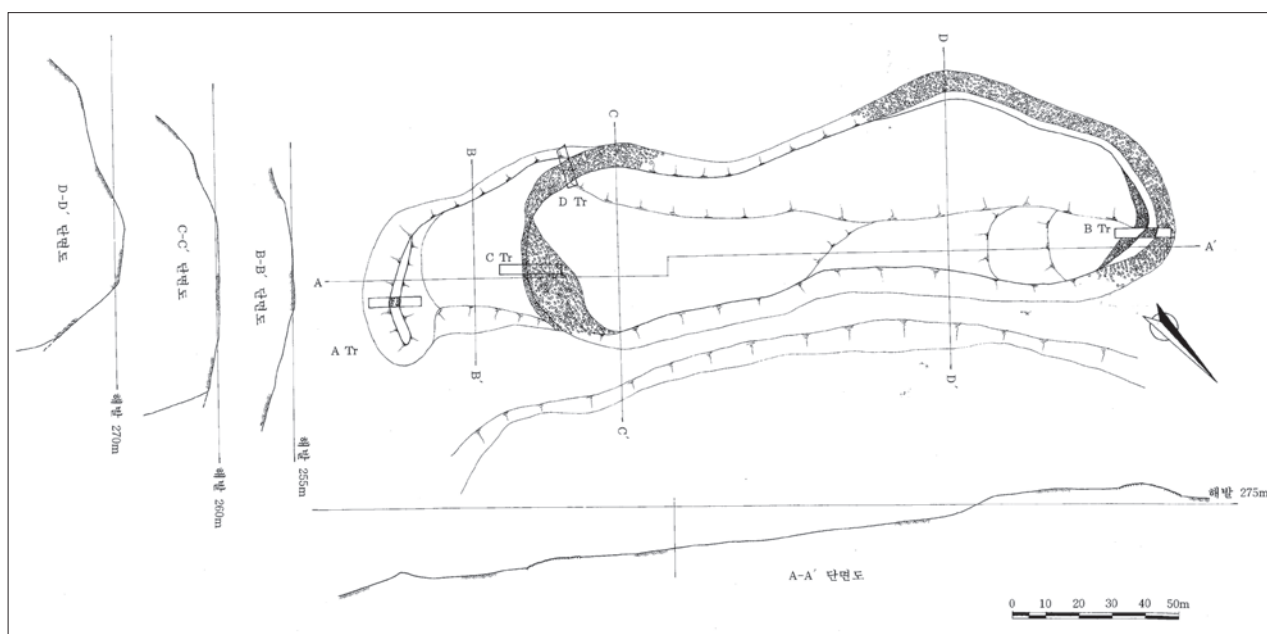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성벽(내성벽 및 외성벽) / 옹형토기, 호형토기, 개배, 장경호

함안 칠원산성은 조선시대 이전의 고문헌자료에 남아있는 기록은 없다. 다만, 1916년 일본인들이 이 지역에 대한 국유림 경계도 측량을 진행하면서 유원리산성으로 명명하고 측량도면을 남겼다. 이후 1920년도의 『大正6年古蹟調査報告』에는 "유원리산성은 칠원면 유원리와 칠서면 신산리에 걸쳐있으며 석축성으로 성내면적은 1丁2反7畝(약 11,970㎡)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산성은 현재 남해고속도로로 양분된 함안군의 북부지역 자양산(해발 401m)에서 북북동쪽으로 뻗어내린 해발 278.9m의 작은 봉우리에 축조되어 있다. 낙동강에서 광려천을 거쳐 도둑고개를 넘어 남강으로 건너갈 수 있는 지름길의 남쪽에 위치하며 칠원방면에서 대산면으로 넘어가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주요한 지점이다.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구리벌이라는 지명이 대산면의 구혜리로 인정된다면 칠원방면에서 대산면으로 넘어가는 주요 길목으로 판단된다. 인근의 안국산성과는 상호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

유적 위치도

진 것으로 추정된다.

칠원산성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특징은 주혈과 구를 들 수 있다. 성벽 중심부는 암반이 그대로 잔존하고 내·외벽의 겉면과 윗부분에만 즙석하여 성벽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칠원산성의 경우, 기저부의 암반에 주혈을 만들고 여기에 1m 정도의 등간격으로 목주를 세운 후 그 사이의 공간에 할석을 붙여 성벽을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내벽 기저부 암반의 바로 상면에는 일부 점질토를 깔아 기단석을 놓을 수 있도록 배려한 점과 외벽 하단부에 일부 할석을 덧대어 보축한 점은 성벽 축조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작업공정으로 보인다. 성벽 외면을 할석으로 덮기 위한 작업공정으로 우선적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할석을 채워 외면을 석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구는 암반층의 양단을 '凹'자상으로 깎아낸 형태인데, 돌무지의 외선에서 남쪽으로 1.8m 떨어진 지점에서 3m의 너비로 마사암반토를 사다리꼴 형태로 굴착한 형태이다. 그 깊이는 0.5~0.7m 정도이다. 이는 칠원산성의 성벽 기저부를 조성하기 위해 굴착한 인위적 흔적으로 그 용도는 성벽 기저부 조성 또는 성벽 기저부 배수용으로 추정된다.

칠원산성 시굴조사에서 수습된 유물은 대부분 옹형토기 및 호형토기 등의 생활우물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외에 개 편과 장경호 편 등을 통해 유적의 초축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개배의 개는 유두형꼭지를 가지는 수평적인 개신에 드림이 수직으로 처리된 말기 고령양식 토기의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유물들은 함안 백천리유적 6호분, 의령 운곡리고분군 1호분, 함안 도항리 47호 횡혈식석실 출토품과 매우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고령의 대가야양식이 5세기 후반대에 주변으로 확산된다고 하지만 함안지역에는 그 영향이 다소 늦게 나타나 6세기 전엽 경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아라가야가 멸

칠원산성 산 평·단면도

망하는 시점을 6세기 중엽으로 본다면 그 보다는 다소 앞선 시기에 칠원산성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칠원산성에서는 시기가 늦은 유물과 기와류, 자기류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근의 안곡산성과 무릉산성이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시굴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칠원산성은 가야의 어느 시기에 산성축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인력을 동원하여 산 정상부를 따라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칠원산성은 작은 규모의 산정식산성(테뫼식산성)으로 6세기 전엽까지 아라가야지역 내에 축조되어 활용된 성곽으로 한번 폐기된 후 다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함안 칠원산성에서 확인된 주혈 및 구와 같은 구조는 대전 월평동유적과 천안 백석동토성 등에서 확인된 바 있는데, 그 시점을 6세기 중후반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과 칠원산성에서 채집된 고령양식 개 등의 유물이 6세기 전엽으로 편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칠원산성 운용의 하한시기를 아라가야가 멸망되는 6세기 중엽 경으로 볼 수 있다.

상기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6세기 전엽의 출토유물을 비롯하여 성벽의 너비가 5m 정도인 점, 목주 흔적, 보축 흔적 등을 통해 볼 때 칠원산성은 아라가야가 축조한 산성으로 추정되지만, 보다 정확한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고학적 학술조사가 요망된다.

참고문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2, 「함안 칠원산성 시굴조사 보고서」.

A부분 토루 토축

B부분 내벽

체성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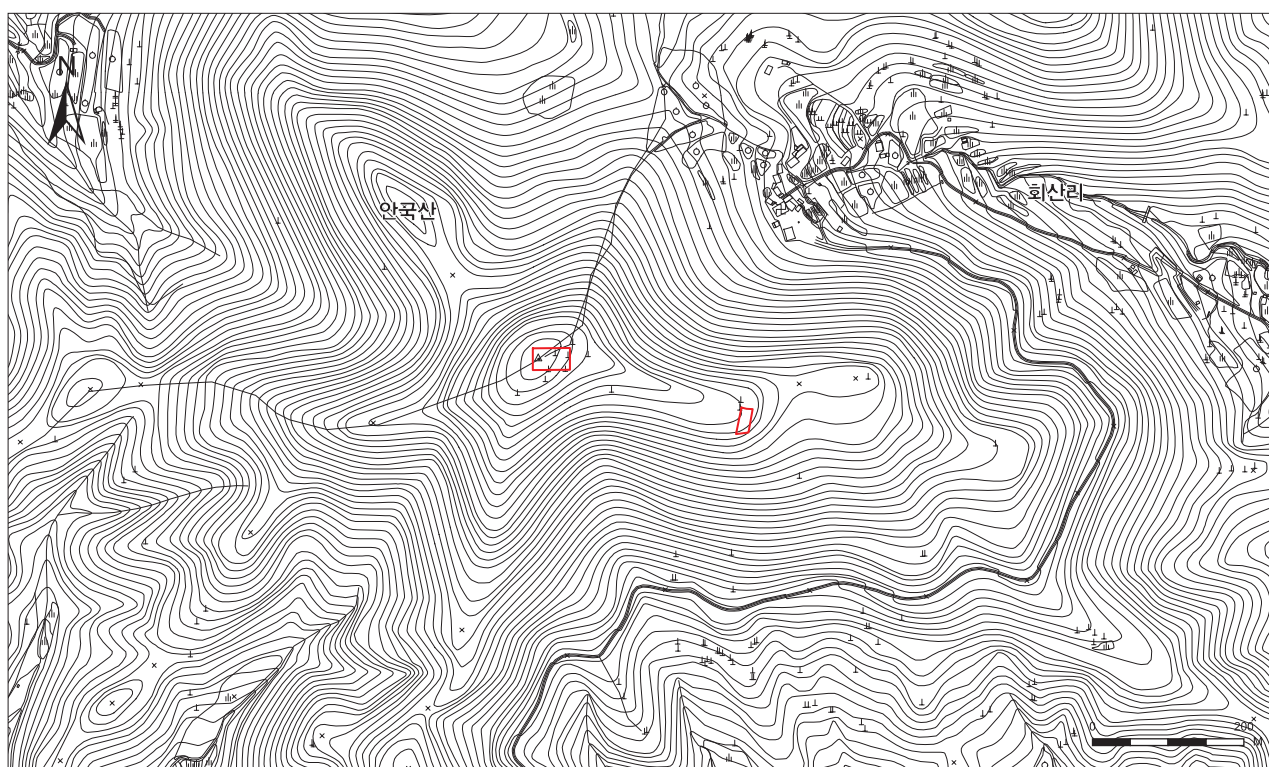
22 함안 회산리 산251-2번지 안곡산봉수대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 산251-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1차 시굴 2017.11. 2차 시굴 2017.12.

주요 유구 / 유물
토석혼축 성벽 / 고배, 기대

함안 안곡산성은 안국산(해발 344.3m) 정상부에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된 복곽식 성곽으로 동-서향으로 긴 테뫼식 산성이다. 성내 서쪽 정상부에는 조선시대 안곡산봉수대의 연대(추정)가 위치한다.

안곡산성에 대한 시굴조사는 총 2차에 거쳐 진행되었는데, 조사지역은 안국산 주능선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추정 성벽이다. 이 성벽은 등고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서→동으로 이어지는 자연경사면을 감안할 때, 볼록한 단면양상을 보이고 있어 과거 지표조사 과정에서부터 안곡산성 내성의 동벽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추정 성벽과 직교되는 방향으로 3개소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토석혼축의 성벽이 노출되었다. 성벽은 경사면상에 덧대어 축조하였는데, 먼저 지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기반층인 적황갈색 풍화암반층을 정리한 후, 30~100cm 정도의 다양한 규격과 형태의 할석과 명갈색점토를 혼합하여 성벽을 축조하였다. 세부적인 축조수법을 살펴보면, 외벽부는 약 37~42° 이상

유적 위치도

의 기울기로 부정형 할석을 점토와 함께 불규칙하게 쌓아올렸는데, 면고름이 정연하지 않으나 부분적으로 일정한 면석 형태도 관찰된다. 반면, 내벽부는 일정한 형태의 면고름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내·외벽 적심에서 부정형 할석과 점토가 섞인 상태로 노출되는 등 전체적인 성벽 구조는 토석혼축의 편축수법으로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축조수법은 가야산성으로 추정되고 있는 함안 칠원산성과 합천 전 초팔성의 축조수법과 유사한 양상으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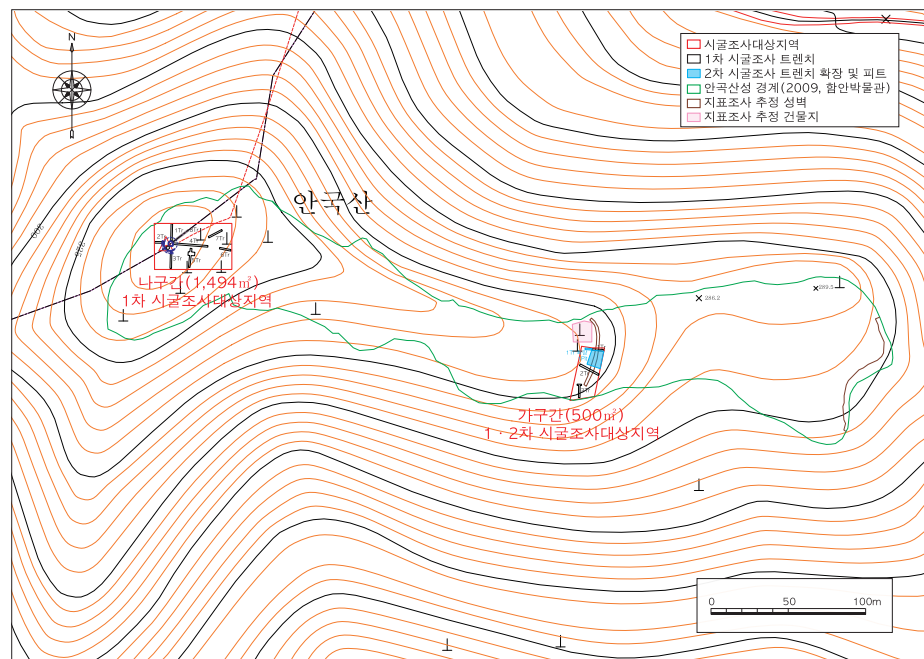
유물은 1차 시굴조사 당시 2·3트렌치의 내벽부에서 가야 토기로 추정되는 토기 편이 출토되었으며, 2트렌치의 표토층에서 조선시대 수키와 편 등이 수습되었다. 가야 토기 중, 기대 편은 대각 아래쪽에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장방형투창을 배치한 형태이다. 그리고 고배는 대각부만 수습되었는데, 나팔상으로 벌어지면서 1조의 돌대와 단 상부에는 장방형의 투창이 배치된 양상으로 보아 함안 도항리 6호분 출토품과 유사하다.

이상을 정리하면, 안곡산성은 지표조사에서 내·외성의 복곽식 구조로 밝혀졌으며, 1·2차 시굴조사에서는 내성의 동벽이 축조기법적 측면에서 토석혼축의 편축식 특징을 가지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가야 토기 편 일색으로 5세기 후반을 전후한 시점에 축조된 가야산성임을 알 수 있다.

이곳 안곡산성이 위치하는 칠서지역은 남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남쪽 가까이에 위치하며 아라가야의 북동쪽 경계에 해당한다. 즉, 남강과 낙동강 건너편의 정치세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군사적 중요지점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마산 내서의 광려산에서 발원하여 낙동강에 합류하는 광려천을 바로 조망할 수 있는 중요 교통로상에 입지하는 산성으로 이해된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7, 「함안 회산리(산251-2) 안곡산봉수대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8, 「함안 회산리(산251-2) 안곡산봉수대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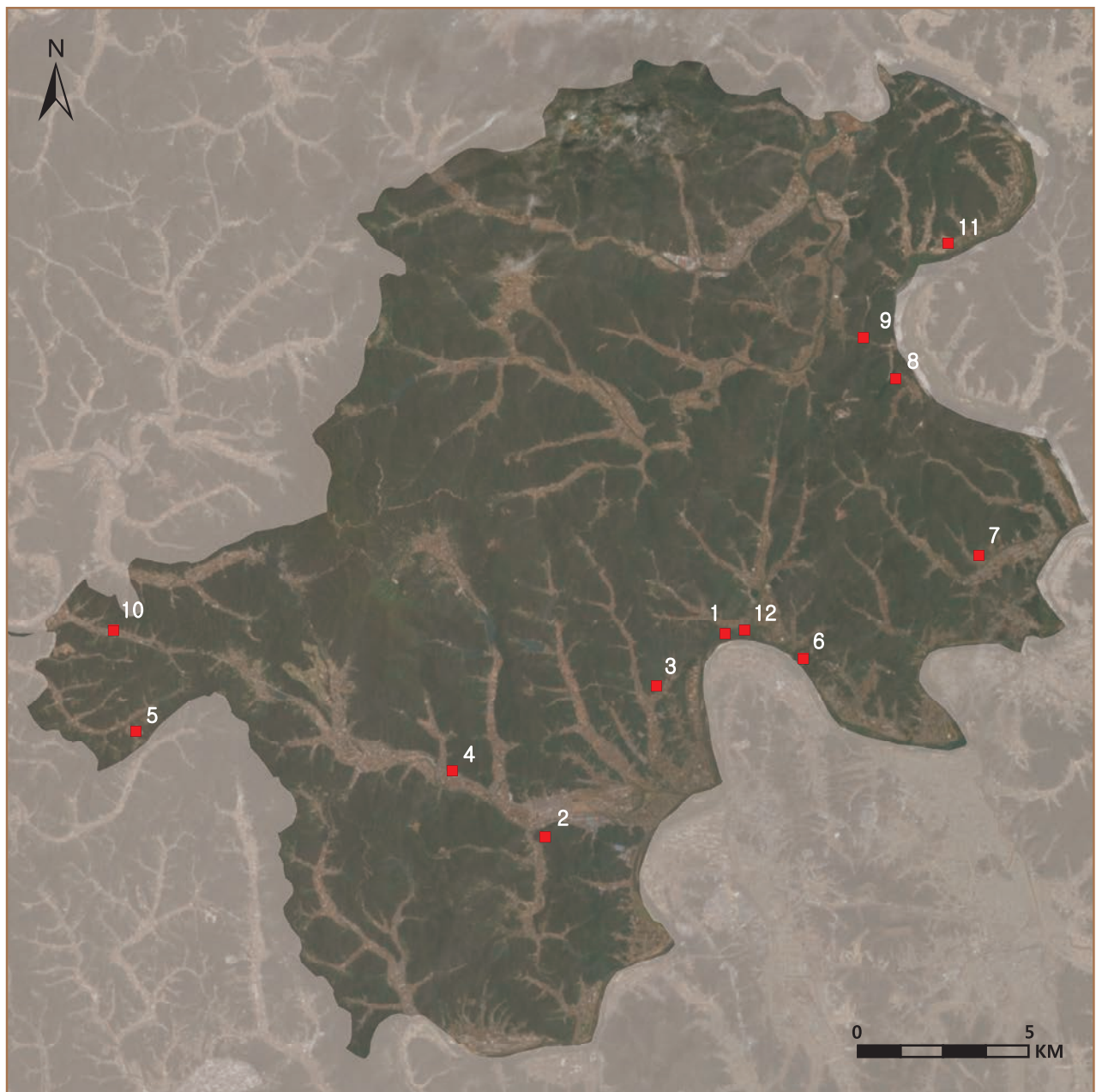
외벽 노출모습

내벽

1피트 외벽 축조모습

출토유물

新繁
弘道峴
世干川
有隣
飛鳳山
南宮山
栗淵
大峴
碧花山
道討峴
可莫山
通草山
道與津
石泉山
長峴
楓灘
月羅峙
德山
大浦
長安川
春
防禦山
玄武
西
東峴
伯夷山
月牙山
松岩山
靈鳳山
班城
餘杭山
眉山
別川
巴山
冬至山
大川
栗溪
秀川

Ⅲ. 의령

01 의령 죽전리고분군

| 경상남도기념물 제100호

소재지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산7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문화재연구원 / 2009.1.~2009.2.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10.7.~2010.10.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묘 / 고배, 단경호, 이식

의령에서 창녕방향으로 사행하여 흐르는 남강 북쪽에 위치한 호미산(해발 99m) 정상부에 삼국시대에 초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호미산성이 위치하며, 이곳에서 야트막하게 서편으로 뻗어내린 야산 서남단 자락에 죽전리고분군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남쪽으로는 남강이 흐르고 북쪽으로는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어 이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고분군 내에 100여 기에 달하는 중·소형 고분이 분포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이루어진 도굴과 개간으로 인하여 유구의 상부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이다.

유적의 보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경상문화재연구원에서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혈식석곽묘 6기와 횡구식석실묘 1기가 조사되었다. 횡구식석실묘는 매장주체부가 일부 훼손되었으나 평면형태, 벽석 축조상태, 폐쇄석과 묘도의 존재를 통해 횡구식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유물은 개, 고배, 장경호, 단경호, 철촉, 철부 등이 출토되었다. 유물은 대부분 대가야양식 토기가 주종을 이루고 일부 신라후기양식 토기가 확인

유적 위치도

유적 전경

되고 있다.

2010년에는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 2기와 횡혈식석실분 2기가 확인되었다. 횡혈식석실분은 잔존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지만, 평면형태로 보았을 때, 의령 중동리 4호분과 유사하며, 입구부를 석곽처럼 단 시설로 축조하는 방식은 옥전 M11호분, 내산리 60호분과 유사하다. 유물은 유개고배, 장경호, 도자, 이식 등이 출토되었는데 대가야양식 토기, 소가야양식 토기와 신라후기양식 토기가 함께 출토되었다.

죽전리고분군은 6세기 중후반경에 주로 조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는 가야세력의 멸망과 신라세력의 확장이라는 시대적 격변기였다. 2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죽전리고분군에서는 수혈식석곽묘와 횡구식석실묘가 6세기대에 지속적으로 조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죽전리고분군의 범위를 밝힐 수 있었으며, 확인된 다수의 유구와 출토유물은 기존 재지세력(가야)의 멸망과 신진세력(신라)의 영역확장에 수반된 죽전리 집단의 성격 및 의령의 고분문화를 규명하는데 매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경상문화재연구원, 2011, 『의령 죽전리고분군』.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2, 『의령 죽전리고분군』.

1호 횡구식 석실묘

8호분

토기류

02

의령 중동리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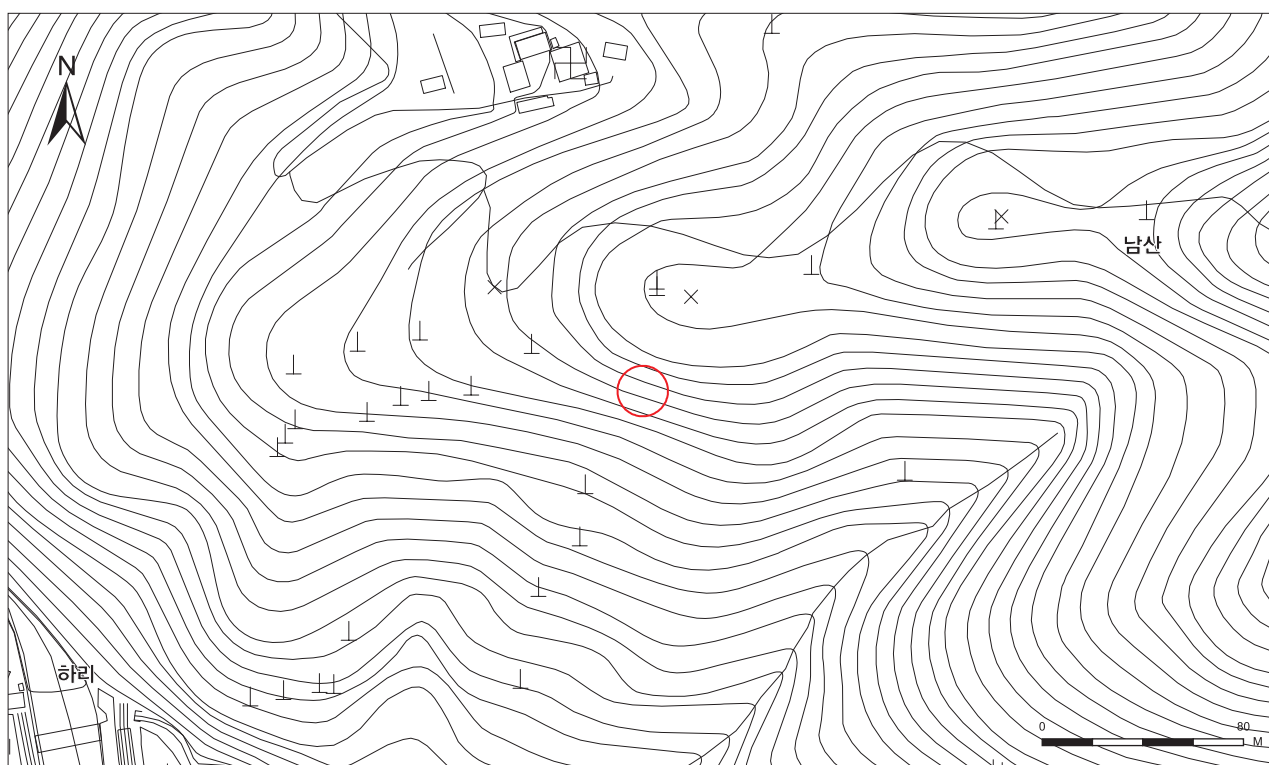
| 경상남도기념물 제189호

소재지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산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대학교박물관 / 1993.12.~1994.1.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묘 / 개배, 고배, 관고리, 교구

유적은 의령읍을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며 흐리는 남산천 남쪽에 입지하는 남산(해발 321m)의 서쪽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직경 15~20m 정도 크기의 대형 봉토분 4기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고분은 산의 경사면에 축조되어 실제 크기보다 거대해 보이며, 동쪽 일부를 제외하면 사방이 보일 정도로 조망하기 좋은 곳에 입지하고 있다.

1호분은 봉분의 직경이 21m이고 높이가 3.6m에 이르는 타원형의 봉토분으로 중앙부에서 길이 8m, 너비 1.6m, 깊이 1.4m 규모의 세장방형 수혈식석곽묘가 확인되었다. 석곽의 상부는 12매의 대형 할석을 횡으로 걸쳐서 개석으로 덮었는데, 그 중 1매에는 10개의 성혈이 표현된 것도 있어서 고분의 축조 당시 주변지역에 분포한 청동기시대 지석묘의 상석을 재가공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호분의 배장묘인 1-1호분은 석곽 안에 석관이 만들어져 있는 특이한 구조로 이러한 형태는 고령 지산동고분군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4호분은 능선의 상단부에 위치한 고분으로 직경 13m에 이르는 원분이다.

유적 위치도

1호분 개석 노출모습

매장주체부는 반지하식의 세장방형 횡혈식석실묘로 길이 4.65m, 너비 1.5m, 높이 2.4m이고 양수식의 연도부는 길이 1.6m, 너비 0.7m, 높이 1.65m이다. 평면형이 양수식인 세장방형 횡혈식석실에 짧은 연도가 부착된 구조의 석실은 진주 수정봉 2·3호분, 함안 도항리 4·5호분, 고성 연당리 18·20호분, 진주 무촌 5호분에서 확인되었는데, 이 지역 전통적인 묘제인 세장방형의 수혈식석곽묘에 백제지역의 매장시설 개념인 연도와 묘도의 구조가 도입되어 나타난 것으로 다소 특이한 횡혈식석실묘임을 보여주고 있다.

발굴조사된 2기의 무덤은 도굴로 인해 출토유물이 거의 없으나 1-1호분에서 모두 6점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이 중 대부소호는 대각이 결실되어 출토되었는데 이는 부장당시 인위적으로 깨뜨린 채 매납한 것으로 추정된다. 4호분에서는 관정 및 관고리와 함께 교구와 혁금구 같은 마구류만 발견되었는데, 관정과 관고리는 가야고분보다는 일반적으로 백제고분에서 더 많이 확인되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4호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고분의 구조와 출토유물, 백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동리고분군은 6세기대에 축조된 이 지역의 수장급집단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고문헌

경상대학교박물관, 1994, 『의령 중동리고분군』.

1호분 개석 제거모습

4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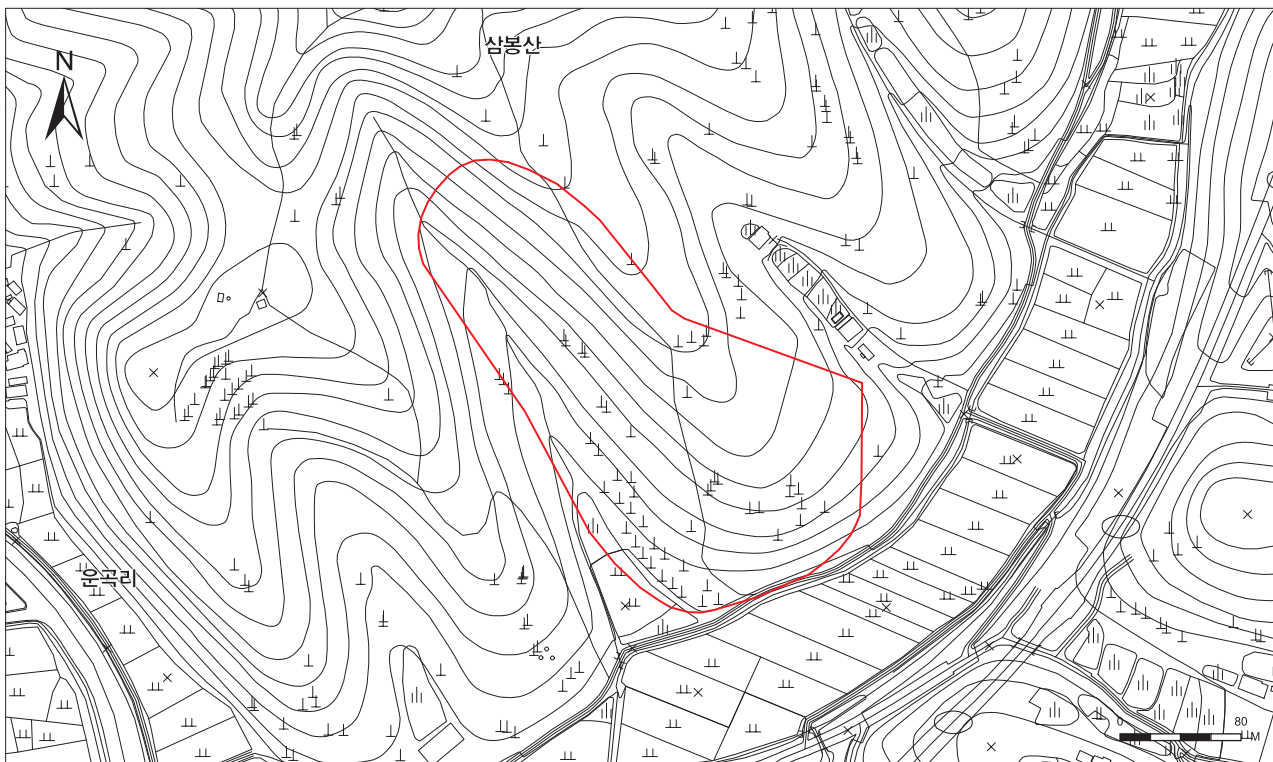
1-1호분

03 의령 운곡리고분군

| 경상남도기념물 제222호

소재지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운곡리 산7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대학교박물관 / 1998.1.~1998.2.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5.8.~2005.11.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묘 / 고배, 단경호, 대부장경호, 대도

유적은 삼봉산(해발 199m)에서 남쪽으로 뻗은 구릉의 끝자락에 위치한다. 고분군 동편에는 얕은 야산을 끼고 남강이 북에서 남쪽으로 사행하며 흐르고, 북으로는 연리고분군과 죽전리 새터고분군, 남쪽으로 신촌리고분군, 동쪽으로 죽전리고분군과 호미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의령에서 부림면 신판을 거쳐서 창녕, 합천 초계로 이어지는 육상교통로가 지나는 곳이다.

개인주택 건립 추진에 따른 긴급구제발굴을 1998년 경상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혈식석곽묘 1기, 목곽묘 1기와 횡혈식석실분 2기가 조사되었으며, 발굴조사와 병행한 정밀 지표조사를 통해 중소형 봉토분 26기를 확인하였다. 조사된 유구 중 1호분은 이 지역 가야고분 중 비교적 늦은 시기에 속하는 유구이다. 석실의 평면형태가 절단주형으로 이러한 평면형태가 많이 조사된 일본에서는 胴張Plan石室이라고 불리는 양식이다. 또한 뒷벽쪽에 만들어진 선반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삼국시대

유적 위치도

의 횡혈식석실에서는 그 유례가 없는 특이한 형태로 역시 일본의 서부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어 일본과의 관계 속에 고분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횡혈식석실분 2기 모두 30㎝가 넘는 높은 시상을 마련한 점과 신라후기양식의 토기들이 집중적으로 출토됨에 따라 신라와의 친연관계도 추정할 수 있다. 출토유물은 대도를 제외하고는 신분을 상징하는 유물은 출토되지 않으며, 일부 대가야양식 토기와 소가야양식 토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신라후기양식에 속하는 토기들이 출토되었다.

운곡리고분군의 보존관리와 성격규명을 위해 2000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횡혈식석실분 5기와 배장곽으로 이용된 석곽묘 5기가 조사되었다. 1차 발굴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횡혈식석실분이 주로 조사되어 운곡리고분군은 횡혈식석실분이 지속적으로 축조된 유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가야지역의 고분군은 합천 저포리유적, 함천 삼가고분군, 사천 월성리고분군 등이 있다. 운곡리고분군은 구릉사면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1호분이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되었으며, 서쪽으로 진행하며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1차 조사 시 확인된 1·2호분은 가야 멸망 직전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2차 조사에서 확인된 석실은 6세기 후엽과 7세기 전엽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의령지역에서 조사된 횡혈식석실묘는 소가야의 횡혈식석실의 특징을 보이는 중동리 4호분과 왜계 석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운곡리 1호분, 경산리 1호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야세력의 중앙에 위치하고 가야의 주요 교통로로 작용한 남강과 낙동강에 에워쌓여 있어 토기문화의 변화와 공존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4세기대의 고식도질토기, 5세기에서 6세기 전엽까지는 소가야와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공존 단계, 6세기 전엽에서 중엽의 소가야와 대가야양식 토기 공존 단계, 6세기 후엽 이후의 신라후기양식 토기 단계로 이어진다.

유구 배치도

참고문헌

경상대학교박물관, 2000, 『의령 운곡리고분군』.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7, 『의령 운곡리유적』.

운곡리고분군은 남강을 매개로 하여 대가야를 비롯해 서부 경남 일대의 대소 정치 집단과 왜와의 대외교류를 담당하던 이 지역의 유력 지배 집단에 의하여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유적 전경

21호 횡혈식석실묘

22·28·29호 횡혈식석실묘

토기류

04

소재지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운암리 산58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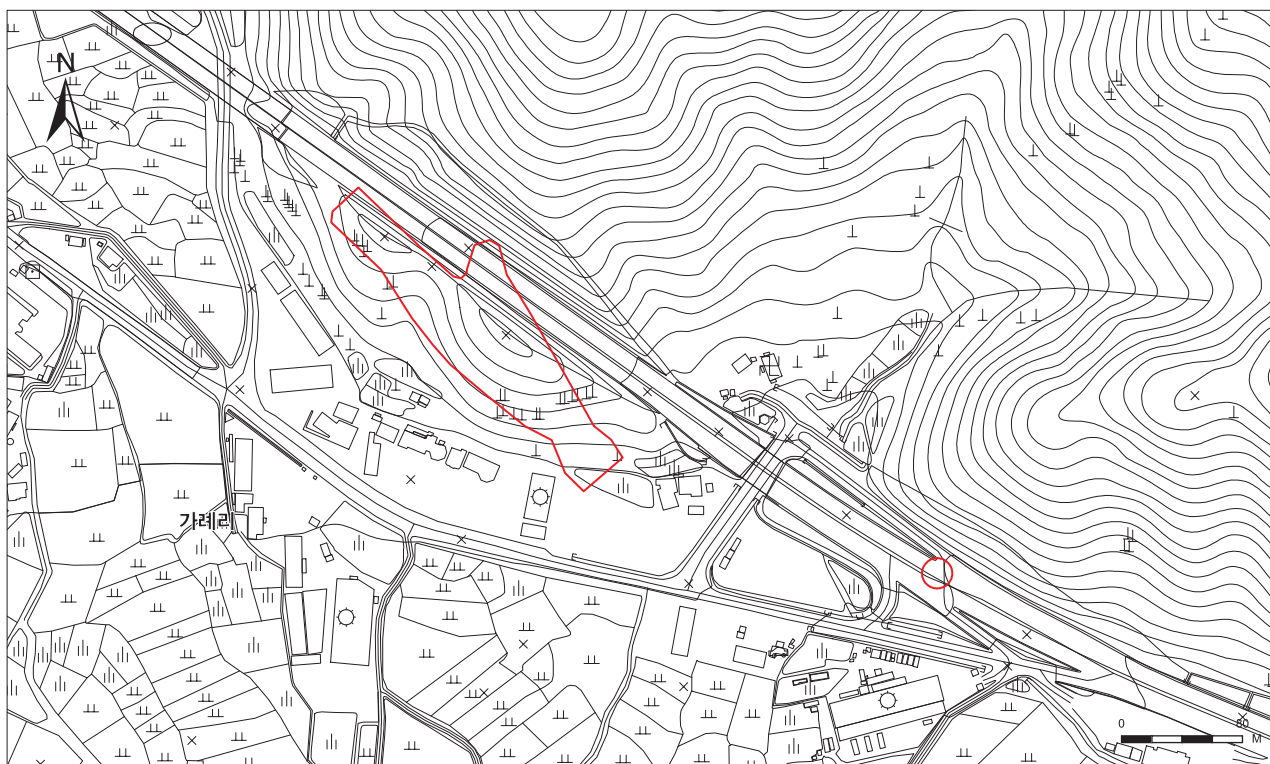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07.3.~2007.10.

주요 유구 / 유물
석실묘 / 없음

의령 운암리유적 _ 의령 칠곡~가례간 국도 건설공사구간 내 유적

유적은 남강 지류인 의령천의 좌안 충적지와 접하는 구릉 사면부에 위치하며, 이 구릉의 말단부는 의령천을 사이에 두고 의령 가례면에서 합천 삼가면 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 상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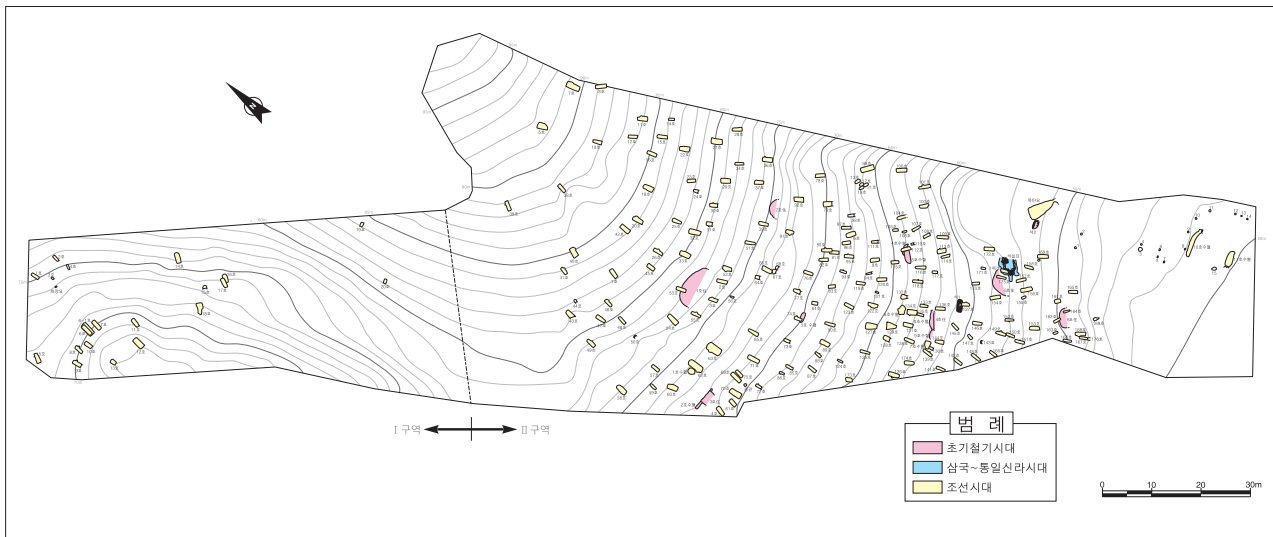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초기철기시대의 주거지, 석관묘, 옹관묘, 수혈유구와 삼국시대의 석실묘, 통일신라시대의 화장묘, 조선시대의 분묘와 목탄요, 수혈유구, 주혈 등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의 유구는 석실묘 1기가 조사되었는데, 후대의 삭평으로 인하여 봉분과 석실의 상부는 대부분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잔존규모는 길이 240㎝, 너비 175㎝이며, 연도는 현실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양수식이다. 묘도는 연도 바닥보다 20㎝ 위에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수혈식으로 굴착하였다. 시상대는 현실 입구에서 130㎝ 떨어져 북서장벽에 붙여서 마련하였으며, 현실의 후벽과 함께 상당부분 유실되었다.

유적 위치도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석실묘는 평면형태나 시상의 형태로 보아 6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데, 진주 무촌리 2구 2·3호 석실과 유사하며, 시상의 형태에서는 운곡리고분군의 횡혈식석실분과 유사하다. 6세기 후반 이 일대의 삼국시대 후기 고분문화를 연구하는데 주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09, 『의령 칠곡~가례간 국도 건설공사 구간 내 의령 운암리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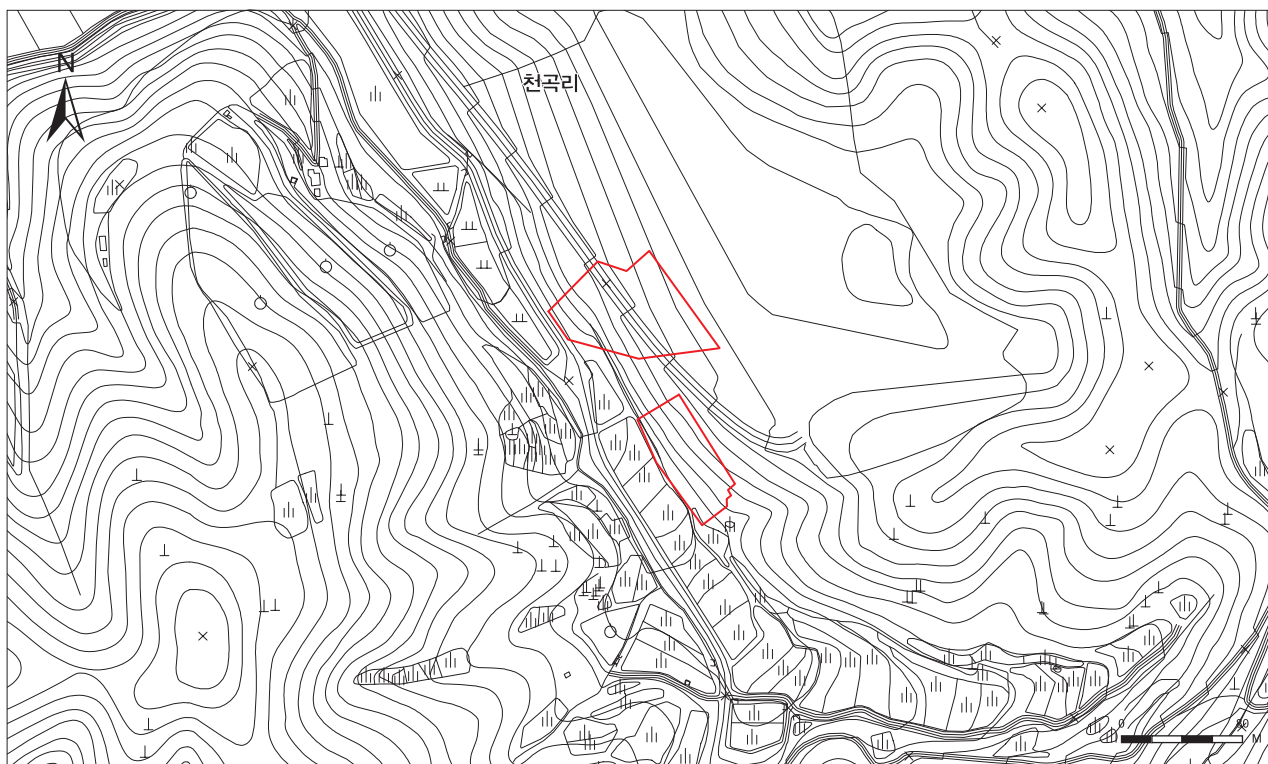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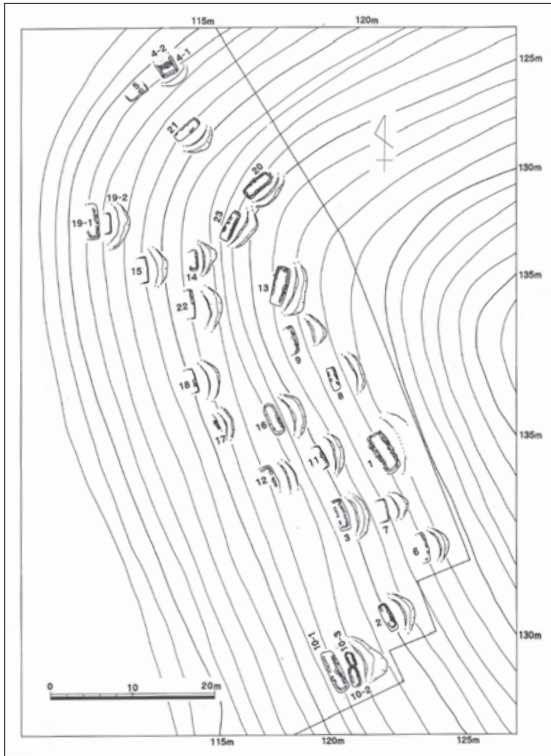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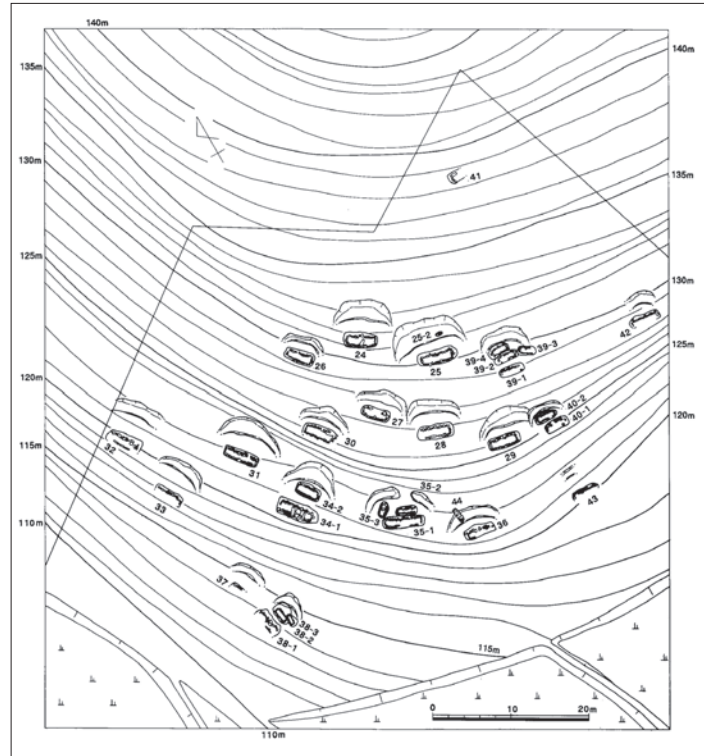
05 의령 천곡리고분군

소재지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천곡리 산141 일대

조사 기관 / 조사 기간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
1차 1995.12.~1996.3.
2차 1996.5.~1996.7.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옹관묘 / 고배, 단경호, 기대, 대도

유적은 망룡산(해발 442m)에서 서남으로 뻗은 산지의 중앙 능선부 해발 100~160m 정도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수혈식석곽묘 39기와 옹관묘 1기 등이 조사되었다. 석곽묘는 등고선을 따라 경사면에 일정한 묘역을 가지면서 분포하고 있으며, 경사면 상단에는 눈썹모양의 주구를 설치하였다. 대부분 하나의 석곽에 하나의 주구가 설치되었으나 2~3기의 석곽이 하나의 주구안에 축조된 다곽묘의 구조를 가진 것도 일부 조사되었다. 석곽묘는 기본적으로 경사면을 'ㄴ'자상으로 굴착하여 묘광을 만든 다음 그 내부에 홈을 파고 납작한 판석상의 할석을 세워쌓기한 후 그 위에 할석을 눕혀쌓기하여 축조하였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바닥은 대부분 고운 흙을 깔아 정지하였으나 일부는 납작한 할석을 전면에 깔아 시상을 조성하였다. 주구는 석곽으로부터 약 1~2m 정도 떨어져 설치되었는데, 급격한 경사면에 축조된 석곽묘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시설 또는 묘역을 나타

유적 위치도

I 지구 유구 배치도

II 지구 유구 배치도

내는 시설로 생각되고 있다. 주구의 내부에서는 대호 등 깨어진 토기류가 종종 발견되는데, 이는 주구의 안쪽에 설치된 석곽의 매장의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의 부장상태는 대체로 토기는 머리맡과 발치에 철기는 가운데에 부장하고 있다. 출토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 장신구류가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토기류이다. 토기류는 고배, 개배, 파수부배, 단경호, 장경호, 기대 등으로 소가야양식 토기가 70%, 아라가야양식 토기가 25% 정도를 차지하며, 대가야와 신라 토기는 극히 일부만이 출토되었다. 한편 21호분에서는 자라형의 특이한 토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토기에 비해서 소수의 철기가 수습되었는데, 무구류와 공구류가 보일 뿐 마구류 등의 위세품은 보이지 않아 피장자의 신분이 그리 높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출토유물의 분석을 통해 볼 때 5세기 말에서 6세기 후엽까지 조영된 고분군으로 추정된다.

천곡리고분군의 발굴을 통하여 의령지역은 가야세력의 접경지로 문화권의 성격과 변동양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조사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1997, 『의령 천곡리고분군 I·II』.

유적 전경

2지구 전경

35호분

38-3호

21호분 유물 출토모습

06

의령 예둔리분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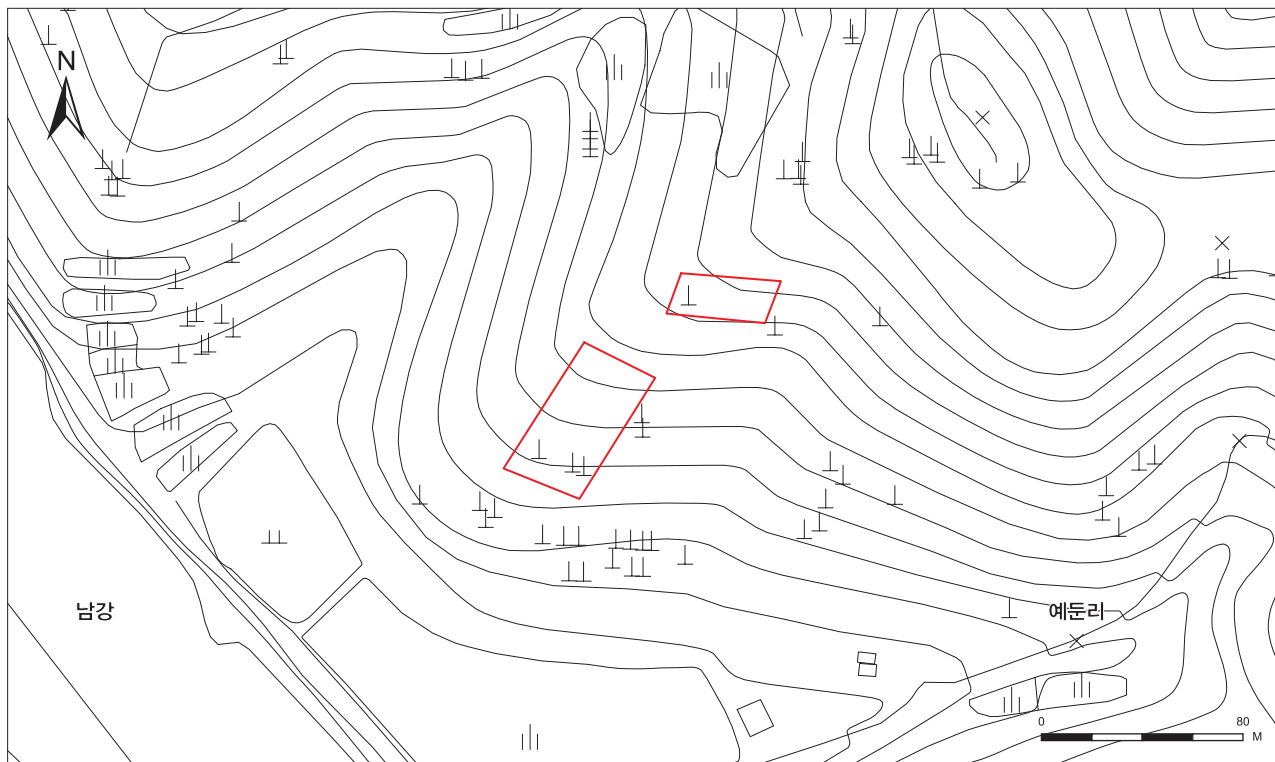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예둔리 산15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대학교박물관 / 1992.11.~1993.1.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 노형토기, 대부직구호, 유자이기

유적은 낙동강 지류인 남강 하류에 위치하며 강변에 형성된 얕은 능선의 해발 30~40m 정도의 남사면에 분포하고 있다. 유적의 서쪽과 남쪽으로는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며 고분군의 야산의 남사면에 넓게 조성되어 있다.

발굴조사 결과 가야시대 목곽묘 38기, 석곽묘 17기, 옹관묘 2기 등이 조사되었다. 목곽묘는 경사가 심한 곳에 등고선 방향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축조되었는데, 중복설치된 것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다. 수혈식석곽묘는 유구의 폭에 비해 길이가 길어서 극단적으로 세장한 평면형태이며, 네 벽이 서로 맞물리는 부분을 모줄임으로 처리하여 양장벽의 가운데를 약간 넓힌 평면상 배모양의 형태를 띠도록 축조한 것이 특징이다.

유물의 부장상태는 일률적이지 않지만 대체로 토기는 머리맡과 발치, 철기는 가운데 부장하고 있으며, 목곽묘 피장자의 두향은 서쪽, 석곽묘 피장자의 두향은 동쪽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이 시기에 행해진 중대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유물은 4세기대의 고식

유적 위치도

유적 전경

도질토기류와 노형기대 등을 비롯하여 철제 농공구 및 무구류 등이 출토되었다. 목곽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고식도질토기 단계의 아라가야양식 도질토기이며, 석곽묘에서는 아라가야양식 화염문투창고배와 창녕양식 고배, 소가야양식 삼각투창고배 등이 두루 출토되고 있다. 목곽묘는 대체로 소형이라 많은 유물을 부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1호분에서는 토기와 함께 많은 철기들이 부장되었는데, 특히 가죽끈으로 연결된 10매의 철정과 2자루의 철검, 유자이기 등이 부장되어 피장자의 위상을 보여주며, 46호 석곽묘에서는 망치와 집게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유구의 형태 및 출토유물로 보아 목곽묘는 4세기 전엽에서 5세기 초까지, 석곽묘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 사이에 축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둔리고분군의 피장자들은 남강을 이용하여 인근의 함안지역과, 창녕, 진주, 고성지역까지 손쉽게 교류하였고, 그에 따라서 상대편 문화가 이곳에 전파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경상대학교박물관, 1994, 『의령 예둔리분묘군』.

42호분

57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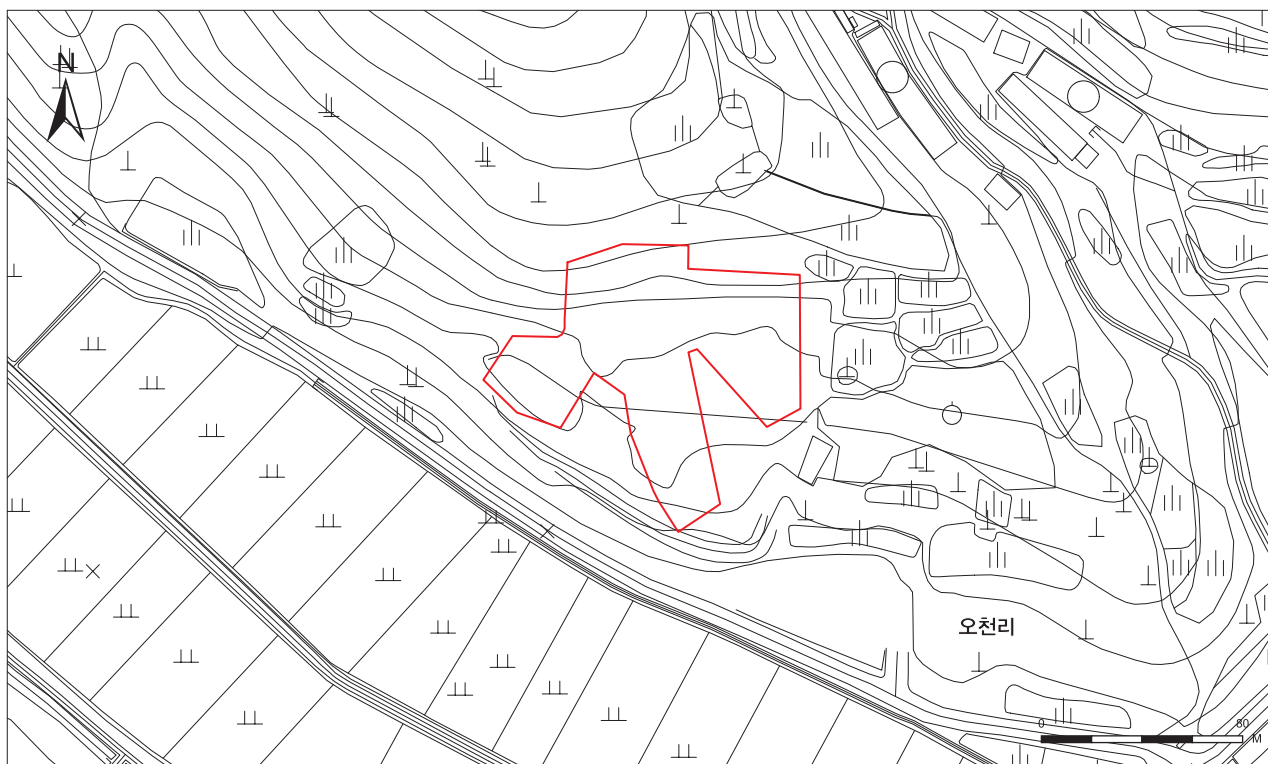
출토유물

07 의령 오천리고분군 _ 오천산업 공장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오천리 산4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1차 2012.3.~2012.5.
2차 2012.9.~2012.11.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기대, 대도

유적은 제물산(해발 193m)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 중 오천골과 접하는 구릉의 해발 20~90m의 능선부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으로 봉곡천이 흐리고 있으며, 서쪽의 오천골과 남쪽의 봉곡천변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소형 봉토분 46기(석곽묘 78기, 옹관묘 3기, 목곽묘 1기)와 조선시대 분묘 6기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소형 봉토분은 동일한 봉토 내에 다수의 석곽이 조성된 다곽식봉토분과 1기만이 축조되어 있는 단곽식봉토분으로 대별된다. 다곽식은 25기(석곽묘 57기, 옹관묘 3기, 목곽묘 1기), 단곽식은 21기이며, 조사지역 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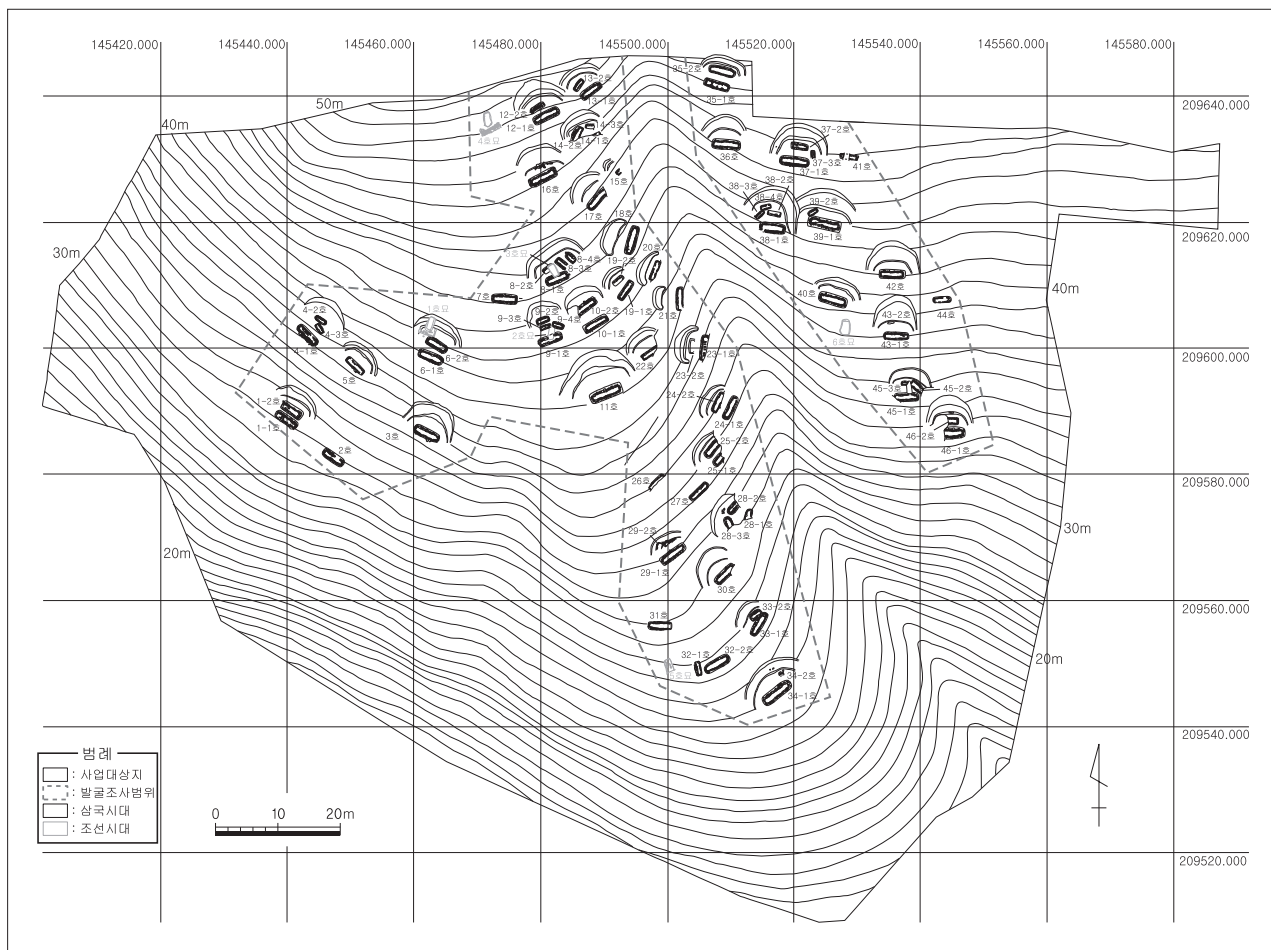
석곽의 축조방법은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네벽을 세워쌓기 또는 눕혀쌓기+세워쌓기하는 방법은 조사지역 전역에서 확인되는 축조방법이다. 네벽을 눕혀쌓기하거나 장벽은 눕혀쌓기, 단벽은 눕혀쌓기+세워쌓기하는 방법은 조사지역 서쪽 구릉의 능선

유적 위치도

부와 동쪽 구릉에서만 확인되고 서쪽 구릉의 서사면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유물은 토기류의 출토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대가야계, 소가야계, 아라가야계, 신라계, 재지계 등 다양한 계통의 토기가 혼재되어 있다. 전체적인 기형, 문향의 시문기법, 소성상태나 태토 등에서 제 지역에서 출토되는 토기들과 상이하고, 제 지역의 토기들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기종을 재지계로 보고 분류한 결과, 재지계가 133점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출토되었다. 이어서 대가야계 토기 122점, 아라가야계 토기 82점, 신라계 토기 49점, 소가야계 토기 33점 순으로 출토되었다. 시기적으로는 6세기 1/4분기에는 신라계 출토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6세기 2/4분기에는 재지계 토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라계 토기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6세기 3/4분기에는 대가야계 토기의 비중이 높아지며, 소가야계 토기의 출토량도 많아진다.

오천리고분군은 남강과 낙동강의 합수점 부근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하나의 유구에서 다양한 계통의 토기가 출토되는 점이 특징이다. 6세기대 대가야계, 소가야계, 아라가야계, 신라계, 의령지역 재지계 토기의 상대편년에 유효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4, 『오천산업 공장신축부지 내 의령 오천리고분군』.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8호분

38·39호분

토기류

08 의령 유곡리고분군 2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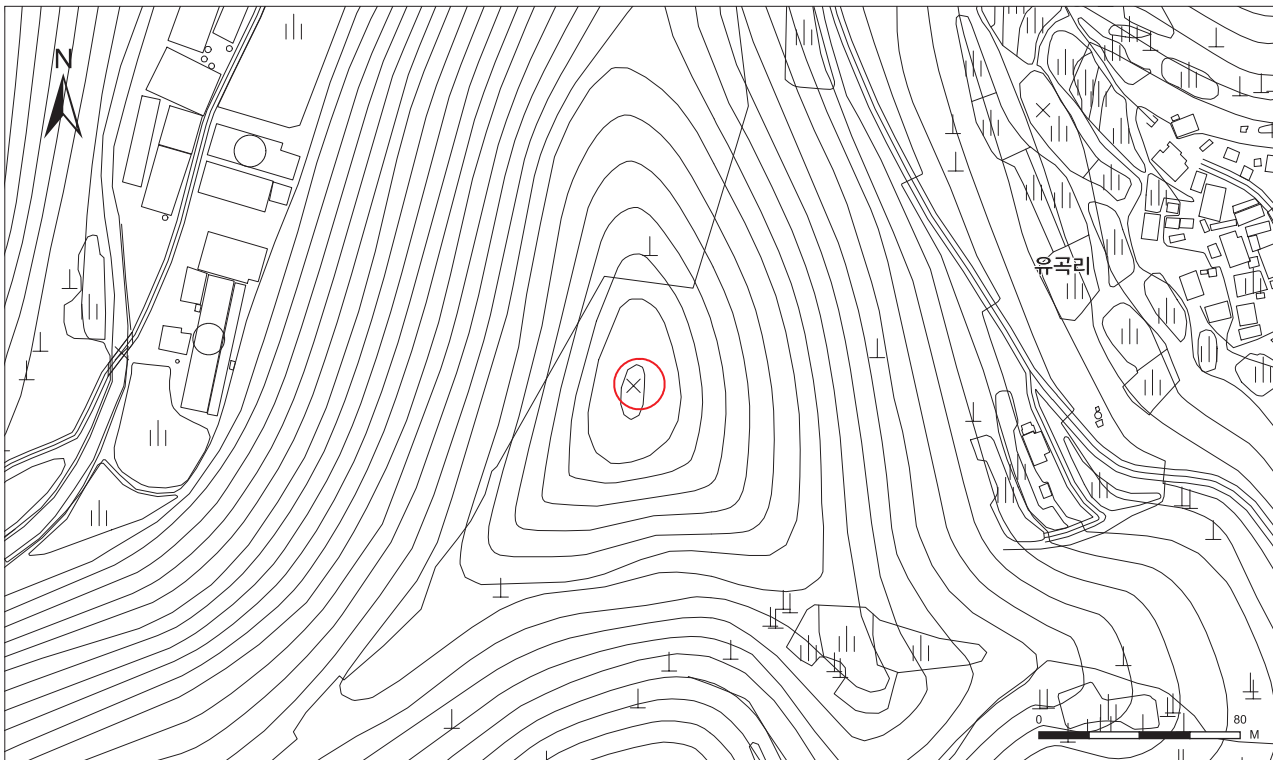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유곡리 산14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17.10.~2017.12.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기대, 마구류, 방형식금구

유적은 낙동강변에 위치한 가야고분군으로 고총고분 수십 기와 수백여 기의 석곽묘가 조영되어 있는 대규모 고분군이다. 문화재지정 및 보존·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의 확보를 목적으로 2017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2호분 1기에 대한 학술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유곡리 2호분은 조사 전 삭평에 의한 봉분의 유실과 도굴로 인한 파괴가 심한 상태로, 개석 2매만이 흐트러진 채 잔존하고 있었다. 봉분 조사는 4분법을 기준으로 트렌치 조사결과 확인된 봉분의 규모는 동-서 직경 15m에 달하며, 성토재는 풍화암반 편과 인근의 저습지에서 채취한 암갈색 및 회갈색의 점질토를 이용하였다. 봉분의 성토과정은 ① 기저면 정지 → ② 봉분의 수평화 → ③ 지상화된 벽체의 보강(점질토+할석) → ④ 개석의 밀봉 → ⑤ 봉분의 완성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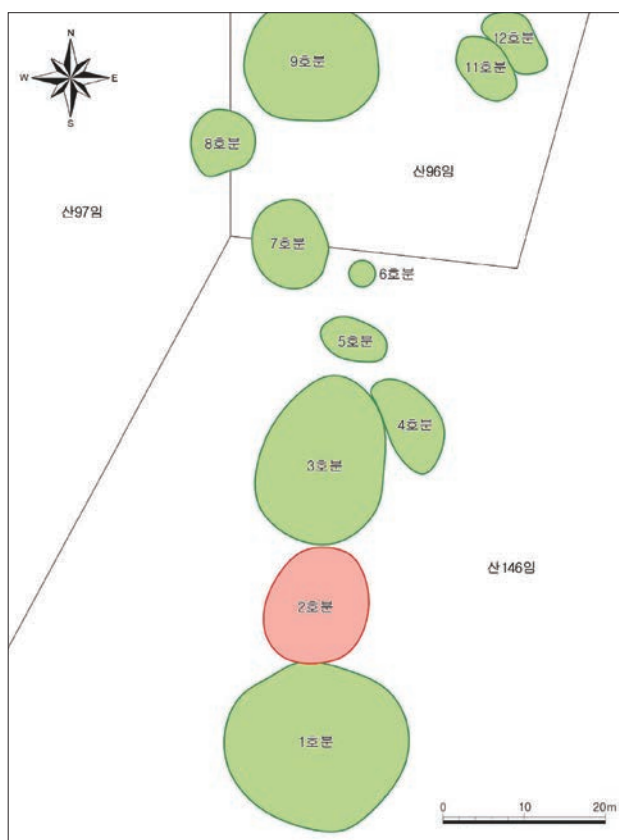
매장주체부는 남-북 방향의 반지상식구조를 가진 석곽묘로 규모는 길이 8.2m, 너비

유적 위치도

1.3m 정도로, 6.4:1의 세장한 형태를 띠고 있다. 벽체는 최하단석부터 눕혀쌓기하여 구축하였는데, 벽석의 뒷부분을 점질토와 할석을 이용하여 보강하였다. 잔존하는 벽석은 10~13단으로 하단에는 비교적 장방형으로 치석된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상단으로 갈수록 0.2~0.3m 이하의 석재를 사용하는 등 조잡한 느낌이다. 바닥은 굴착한 암반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물은 도굴과 무너진 석재에 의해 대부분 파손되었거나, 본래의 부장위치에서 벗어난 채 출토되었다. 수습된 유물은 토기류 40점, 장신구류 4점, 금속류 16점으로 총 60점이다. 토기는 개, 고배, 단경호, 기대류이고, 금속류 및 장신구류는 방형식금구, 청금구, 마구류, 꺾쇠, 환옥 등이 출토되었는데, 출토된 유물로 보아 유곡리 2호분은 5세기 중~후반 정도로 편년된다. 이 시기 대각도치형의 손잡이를 가진 개, 단경호의 경부에 돌대가 돌아가는 형태는 창녕지역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어 주목되는데, 이러한 유물상은 유곡리고분군이 의령과 창녕의 지역적 경계인 낙동강 연안에 조성되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요성에 비해 한번도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유곡리고분군에 대한 최초의 발굴조사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고분의 규모나 고분군의 입지로 볼 때 유곡리고분군은 삼국시대 의령지역의 지배자 집단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방형식금구와 마구류 등의 부장은 유곡리 2호분 피장자의 위계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7, 『의령 유곡리고분군 2호분 학술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유구 배치도

유적 원경

조사 후 모습

매장주체부

토기류

09

의령 경산리고분군

소재지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산29-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대학교박물관 /
2000.3.~2000.6.
극동문화재연구원 /
2016.9.~2016.10.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묘 / 고배,
기대, 장식마구, 대도

유적은 낙동강변의 박진 나루로 가는 고개를 넘기 전 저수지 부근 북쪽 계곡 좌우에 입지하고 있다. 남동쪽으로 약 1㎞ 떨어진 곳에는 이 지역의 중심 고분군인 의령 유곡리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2000년 박진-율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경상대학교박물관의 발굴조사에서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 47기, 횡구식석실묘 3기, 횡혈식석실묘 1기, 고려·조선시대 분묘 10기 등 모두 61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1호분은 구릉 말단부의 계곡입구에 입지하는 대형의 지상식 횡혈식석실분이다. 석실의 평면은 장방형을 이루며 석실 중앙에 연도가 붙은 형태로 백제계 석실의 영향 아래 축조되어 남강 일대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유구이다. 내부에서 후벽과 평행하게 설치된 석옥형석관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일본 큐슈의 서부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유형으로 그 연대는 6세기 전엽에 발생되어 확산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또한 연도의 입구를 2

유적 위치도

매의 긴 판석으로 세로로 세워서 밀폐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도 일본 큐슈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구조이다.

횡구식석실은 유실이 심하여 석실의 구조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50호분에서 2개의 시상대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장을 위해 축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혈식석곽묘는 대부분 경사 상단에 눈썹형주구를 설치하고 석곽 2기를 나란히 배치한 구조로 석곽의 최하단석을 판석상의 할석을 이용하여 가로눕혀쌓기하고 그 상단에 작은 할석을 세로눕혀쌓기한 소형의 석곽묘이다. 이러한 구조는 천곡리고분군 등에서도 확인되며, 6세기대 늦은 시기 가야고분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족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수혈식석곽묘에 도자나 철촉 등 극히 적은 수의 금속유물만이 부장되어 있는데 반해 2호분에서는 대도와 동제완, 철촉 등과 함께 장식마구 등 많은 금속유물 등이 부장되어 주목받고 있는데, 마구의 형태상 가야고분보다는 일본의 후기 고분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2호분의 피장자는 석옥형석관이 들어 있는 1호분의 피장자와 함께 왜와 관련이 깊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출토유물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토기는 고령식과 함안식, 고성·사천식 토기 등의 가야양식과 신라후기양식의 토기가 섞여 있어, 이 고분군은 6세기대를 전후한 시기에 경산리 일대의 유력 가야집단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6년에는 사면절개지에 위치하고 있어 봉토와 매장시설이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는 M2호분에 대한 기초 시굴조사가 극동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경산리 1호분과 유사한 횡혈식석실묘로 확인되었으며, 봉토 가장자리에 호석을 돌렸고 석실의 입구는 등고선방향과 평행한 서쪽편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문헌

경상대학교박물관, 2004, 『의령 경산리고분군』.

극동문화재연구원, 2018, 『의령 경산리 M2호분』.

유적 전경

1·2호분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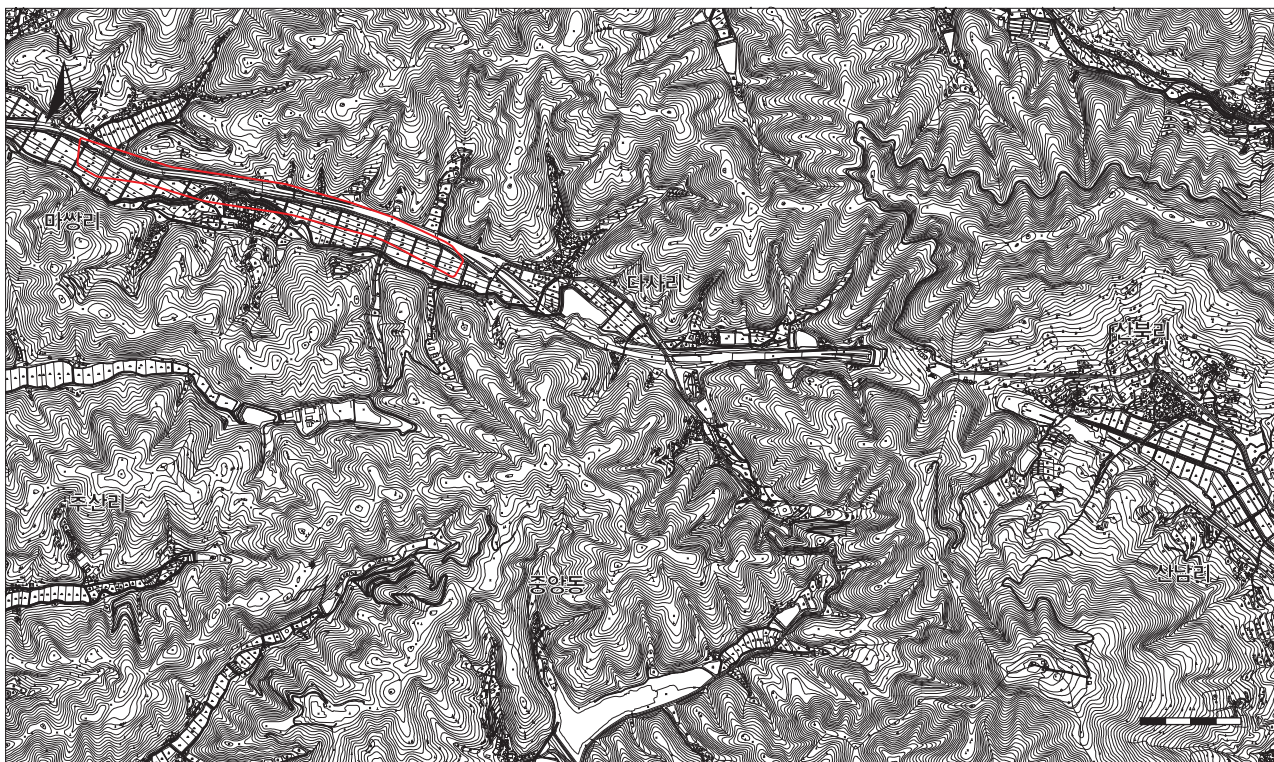
이식·행엽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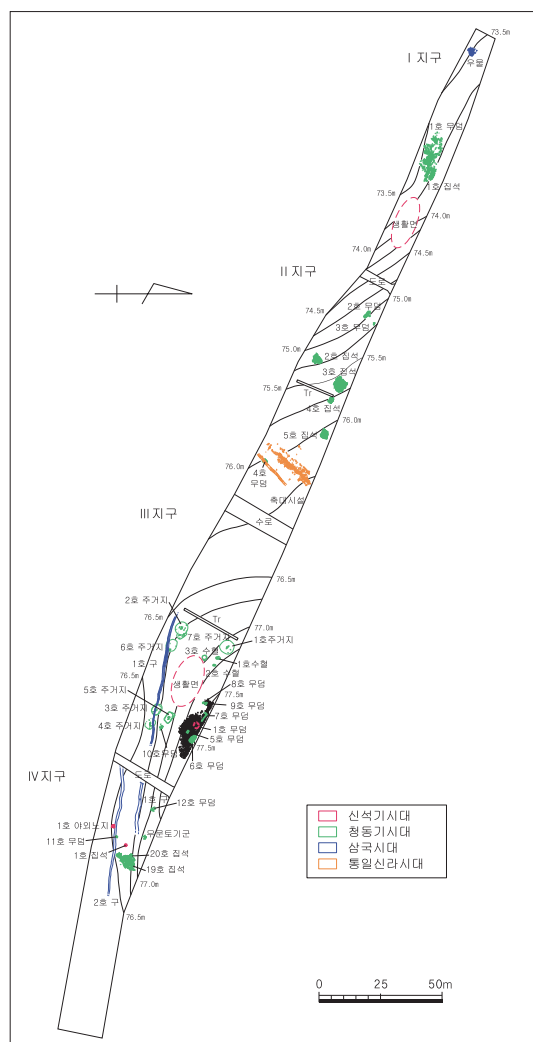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369-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9.9.~2010.4.
주요 유구 / 유물
구, 우물 / 광구소호, 단경호

의령 마쌍리·산남리유적 _ 의령~대의간 국도건설공사 구간 내 유적

의령 마쌍리·산남리유적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와 칠곡면 산남리 일원에 위치한다. 이 중 유구와 유물이 조사된 마쌍리유적은 동-서 방향으로 이어지는 국도와 마을 앞을 흐르는 마쌍천 사이의 좁은 곡간평야에 입지한다.

발굴조사 결과 신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 분묘, 수혈, 구, 우물 등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조사되었으며,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는 Ⅰ지구에서 우물 1기, Ⅲ·Ⅳ지구에서 구 2기가 조사되었다. 유적의 층위는 전반적으로 근·현대 경작층 바로 아래에서 청동기시대 문화층인 적갈색점질토층이 확인되나, Ⅱ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 문화층 30㎝ 정도 상부에서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이 일부 확인되었다. Ⅲ·Ⅳ지구에서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문화층 바로 위에서 삼국시대 구 2기와 경질토기 편이 확인되었다. 토층은 지구별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현대 경작층의 퇴적량은 지구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Ⅱ지구 동쪽가 Ⅲ지구는 현재 경작면에서 문화층까지 경작층이 1m 이

유적 위치도

내로 퇴적되어 있었지만, 그 외 대부분의 지역은 현 지표면에서 2m 아래 지점에서 문화층이 확인되며 깊은 곳은 2.5m에 해당한다. 그리고 Ⅱ지구 동쪽과 Ⅲ지구는 경작층 아래에서 바로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확인되는데 반해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작층과 청동기시대 문화층 사이에 암회갈색점질토층이 부분적으로 퇴적되어 있으며 특히 Ⅴ지구에서는 회갈색점질토가 1m 정도 퇴적되어 있다.

우물은 Ⅰ지구 서쪽 경계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중간 높이부터 약간 넓어진다. 서쪽편으로 우물 벽석과 연접하여 편평한 할석을 수 매 깔았는데, 공동 작업장과 같은 부대시설로 추정된다. 우물의 축조는 먼저 토광을 경사지게 굴착하고, 천석과 할석을 이용해서 비교적 정연하게 쌓았다. 토광이 넓어지는 중간부터는 보강석을 채워 평면에서 보면 우물의 외곽선이 2열로 보인다. 바닥에는 크기가 작은 편평한 할석을 8매 깔았는데, 할석 하부에는 다시 복숭아 가지를 한 겹 깔았으며 이를 걷어내자 호 3점과 광구소호 1점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1호 구는 Ⅲ지구 남쪽과 Ⅳ지구 북쪽에 걸

유구 배치도

쳐 동-서 방향으로 조성되었다. 청동기시대 3·4·6호 주거지 상부에 후축되었으며 남쪽으로 2호 구가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다. 잔존규모는 길이 900㎝, 너비 72~130㎝, 깊이 20~45㎝이다. 2호 구는 Ⅳ지구 남쪽에 위치하며 1호 구와 나란하게 진행한다. 청동기시대 11호묘의 남벽 일부와 야외노지 북쪽 가장자리 일부를 파괴하였다. 잔존규모는 길이 520㎝, 너비 50~100㎝, 깊이 44~60㎝이다. 내부에서 연질호가 1점 출토되었다.

이상과 같이 유적에서는 우물 1기와 구 2기 등 매우 적은 삼국시대 유구가 조사되었지만, 잔존양상을 감안하면 유적 일원에 삼국시대 취락과 관련된 유적의 분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2, 『의령~대의 간 국도건설공사 구간 내 의령 마쌍리·산남리 유적』.

유적 전경

우물

구상유구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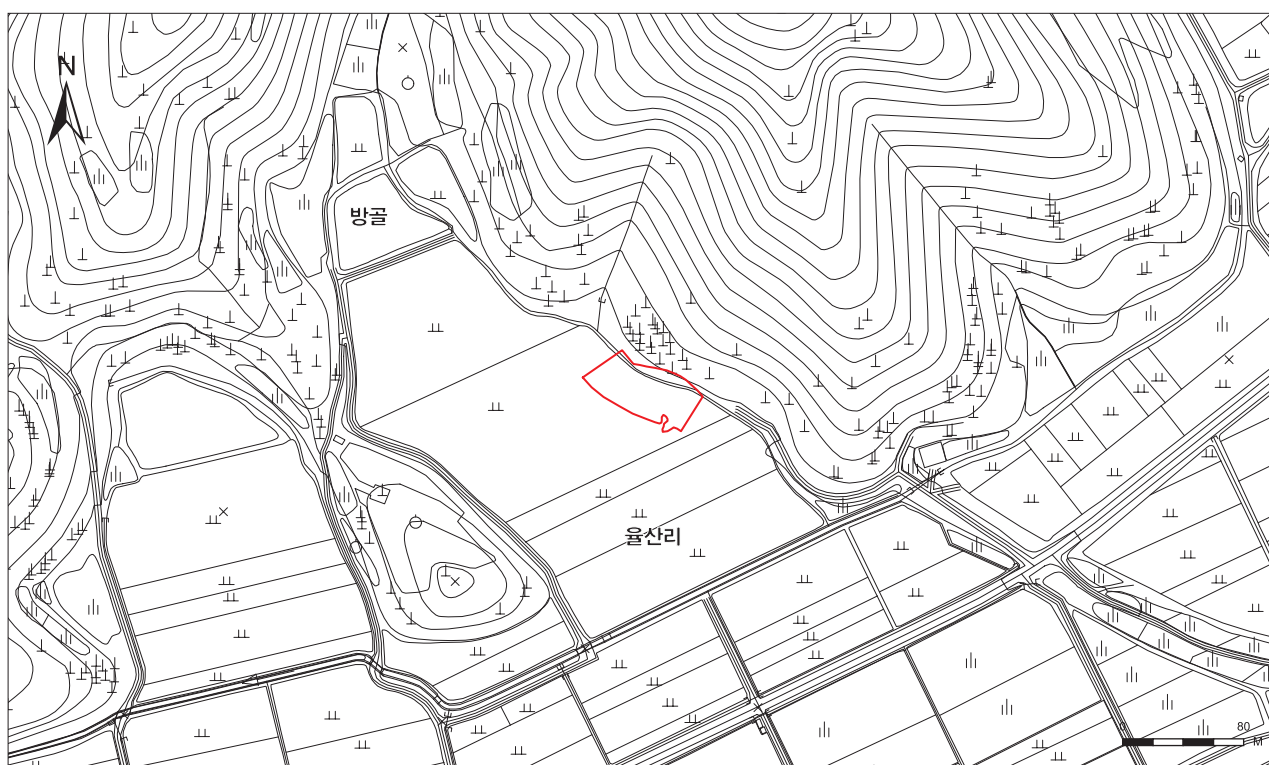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 율산리 7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해동문화재연구원 / 2011.2.~2011.4.

주요 유구 / 유물
토기가마, 폐기장 / 장경호 편, 고배 편, 단경호 편, 기대편, 내박자

의령 율산리토기가마 _ 의령 율산지구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지구 내 유적

유적은 지형적으로 북동쪽에 위치한 구릉성 산지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완만한 구릉사면의 말단부에 입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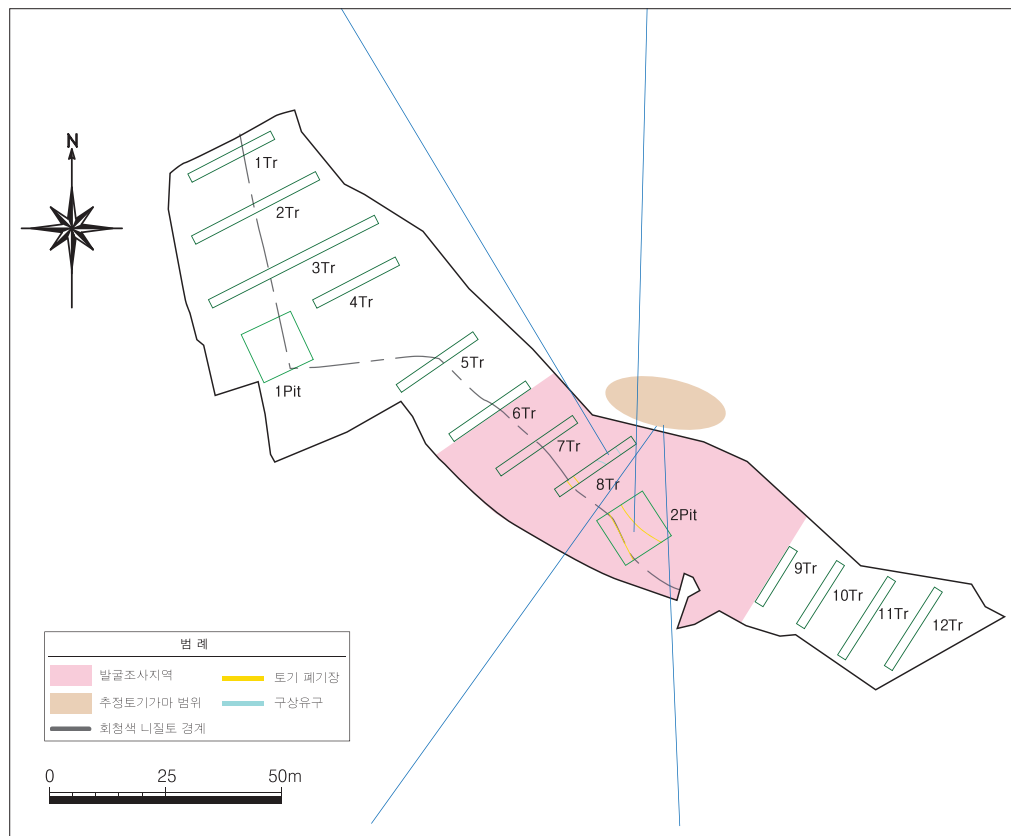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토기가마 1기와 폐기장 3개소가 조사되었다. 먼저, 토기가마는 유적 북동쪽 해발 11m 선상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 주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한다. 남서쪽으로 1호 폐기장과 중복되었는데, 토기가마 폐기 이후 1호 폐기장이 설치되었다. 표토를 제거한 후 바로 피열흔이 노출되었으며 후대 삭평과 지속된 경작, 교란으로 인해 화구 및 연소부, 가마벽, 천정 등은 유실되고 거의 바닥면만 잔존한다. 잔존규모는 길이 712㎝, 너비 130~180㎝, 깊이 5㎝ 정도이다. 토기가마는 소성부 일부와 연도부의 바닥면이 잔존하는데, 소성부와 연도부에서 회청색의 소결면이 일부 확인되는 것을 볼 때, 가마를 축조하기 위해 굴착하여 정지작업을 한 후 바닥면에 점토를 2~3㎝ 정도 바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소성부의 경우 바닥면은 편평하게 이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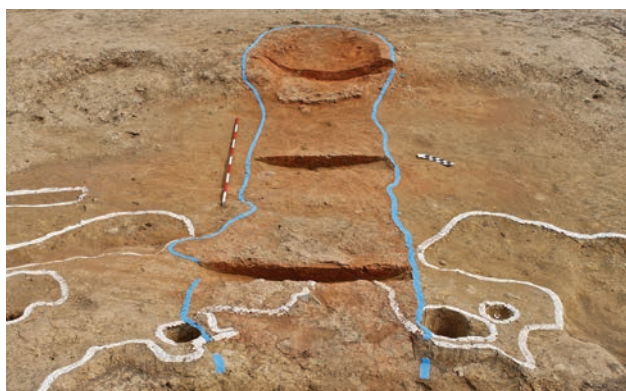
어지다가 연도부로 가면서 비스듬하게 턱을 이루며 배연부로 이어지는데, 바닥면의 각도는 5° 내외로 편평한 편에 속한다. 이러한 구조의 가마는 창녕 여초리에서 조사된 바 있다. 유물은 장경호 편과 호 편이 소량 출토되었다.

폐기장은 3곳에서 조사되었다. 1호 폐기장의 경우 1호 가마와의 중복관계에서 1호 가마가 폐기된 후 조성되었기 때문에 1호 폐기장과 관련된 가마는 유적 북동쪽에 위치하는 조사범위 외곽의 가마로 추정되며 2호와 3호 폐기장의 경우는 알 수 없다. 폐기장은 평면형태가 부정형이며 잔존규모는 길이 6.9~24.5m, 너비 6.4~14.6m 정도이다. 수혈을 굴착하지 않고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가마의 부산물과 토기 편 등을 폐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후대의 경작지 조성 등으로 인해 삭평과 절토, 교란이 심하게 이루어졌다. 내부에서는 노형토기 편, 단경호, 장경호, 호, 고배, 대각, 양이부호, 기대, 컵형토기, 내박자 등 다양한 기종이 출토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호류가 많은 편이다. 유적의 조성시기는 폐기장 등에서 출토된 노형토기와 단경호 편을 감안할 때, 4세기 중후반에서 5세기로 추정되는데, 중심 시기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 해당된다.

의령 율산리토기가마는 의령지역에서 최초로 발굴조사된 생산유적이며, 조사지역 주변으로 토기가마가 유존하고 있고, 율산리고분군 등 삼국시대 유적이 분포하고 있어 향후 조사지역 일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재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해동문화재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의령지사, 2013, 『의령 율산지구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지구 내 宜寧 栗山里 토기가마』.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토기가마

1호 폐기장

출토유물

12 의령 호미산성

| 경상남도기념물 제1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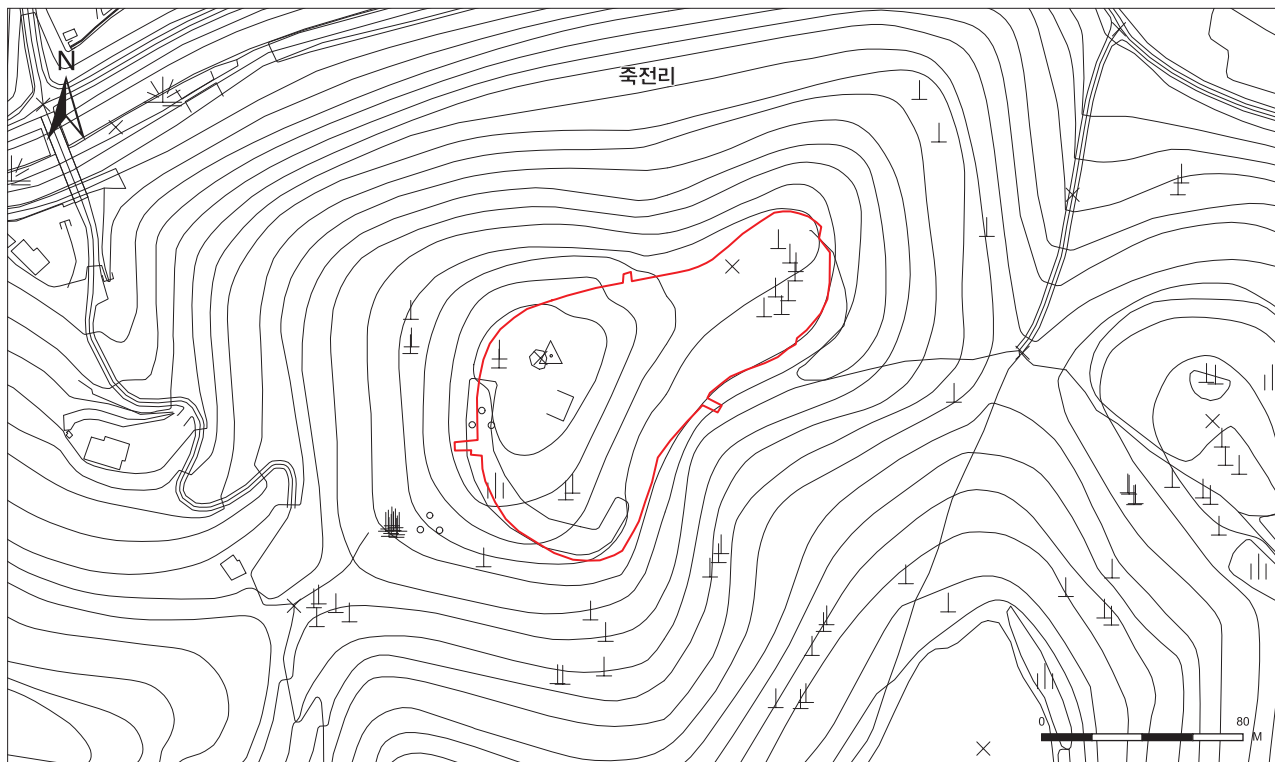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산51-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문화재연구원 /
시굴 2009.1.~20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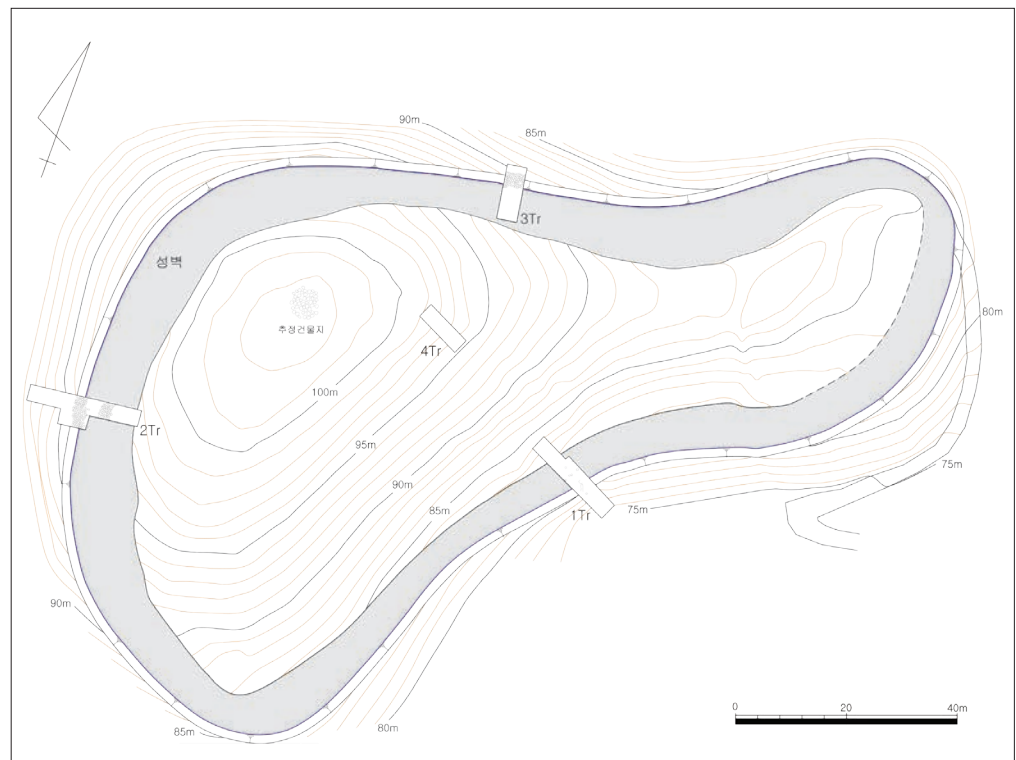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토석혼축 성벽 / 단각
고배, 파수부완, 파수
부배

의령 호미산성은 의령지역 남강변 북안에 위치하는 호미산 정상부(해발 102.5m)를 두른 테뫼식 산성이다. 산성의 둘레는 438m이며, 내부 면적은 9,982㎡이다.

체성의 축조기법을 파악하기 위해 남·서·북체성에 대한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였다. 호미산성은 석축부 후면에 토축부가 존재하는 토석혼축 산성으로 밝혀졌으며 성벽축조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호미산성은 서체성과 북체성의 기저부를 통해 볼 때, 층계식으로 기반암을 정리하였다. 이후 외벽면 아래를 평탄화하는 과정에서 기저부에 정지층을 조성하였는데, 체성 내부 토축과는 다른 재질의 흙을 사용하였다. 이는 성벽의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을 고려한 정지방법이다. 토축부는 남체성(1트렌치)의 3·4차 축성공정, 서체성(2트렌치)의 2차 축성공정 단계에서 판축에 가까울 정도로 점토와 모래를 교대로 다진 유사판축기법이 나타나고 있다. 층선이 약간 사선적이고 층준이 10㎝ 정도 두께로 반복되어 층간 구

유적 위치도

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점토와 모래를 교대로 다지긴 하였으나 암반편의 혼입이 많은 편이다. 이외에도 남체성(1트렌치) 5차 축성공정에서는 점질토와 사질토를 혼합한 흙으로 여러 층 다짐하여 쌓아올린 성토다짐 흔적도 확인되며 6차 공정에서는 기초부 정리에서 나온 산토를 다짐없이 그대로 쌓은 성토기법도 확인된다. 아울러 서체성(2트렌치) 3차 공정 및 북체성(3트렌치) 2차 공정에서는 점토와 산자갈을 물과 함께 섞은 후 쌓아올린 퇴축기법도 확인된다. 한편, 남체성과 서체성 조사에서는 토축하면서 목주를 이용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남체성의 경우, 3열의 목주흔이 관찰되는데, 1열(상위) 2개, 2열(중위) 6개, 3열(하위) 2개가 노출되었으며 서체성은 토층에서 나무가 부식되어 나타나는 구멍이 확인되어 목주를 세운 흔적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목주들이 토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토축시 고정된 목주를 세우고 다져 올렸다는 것이다. 석축부의 면석은 점판암계 석재를 약간 치석하여 쌓아올렸다. 인근한 의령 죽전리고분군의 석곽 벽석과 유사한 축성상태를 보인다. 즉, 면석 가공수법이 석곽의 벽석과 크게 다르지 않고 표면이 거칠다는 점이다. 그리고 큰 돌 사이에 쐐기돌을 끼우거나 그 아래에 잔돌을 놓아 수평줄을 맞추는 방법 등에서도 고분의 석곽 축조방법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석벽의 면석과 뒷채움석의 크기는 거의 동일하며 면석과 이어지는 돌출된 부분을 뒷채움석이 서로 깍지 끼우듯 맞물리게하여 고정하였다.(서체성)

체성의 축성시기는 2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파수부완·파수부배 등 아라가야

트렌치 배치도

양식 토기를 표식으로 하는 6세기 중엽~후엽경의 토기류를 통해 볼 때, 초축시기는 삼국시대에 초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납석제 개와 와질소성의 이중구연토기가 사용된 8~9세기 중심의 통일신라시대에 체성 일부가 수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 유물 중 삼국시대 유물의 출토량이 많고, 안정적인 층위에서 출토되었으므로 호미산성은 삼국시대에 초축된 후, 통일신라시대에 재점유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호미산성의 동쪽 능선을 따라 조영된 죽전리고분군에 대한 2차례 발굴조사 결과, 수혈식석곽묘·횡구식석실묘·횡혈식석실묘 등에서 대가야양식 토기 및 아라가야양식 토기와 신라후기양식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는 대체로 6세기 중엽~후엽으로 편년되는 것으로 호미산성과 동시기에 조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호미산성은 신라가 의령지역으로 진출하기 전에 이미 축성되어 운영되고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참고문헌

경상문화재연구원, 2011, 『의령 호미산성』.

유적 원경

서성벽 외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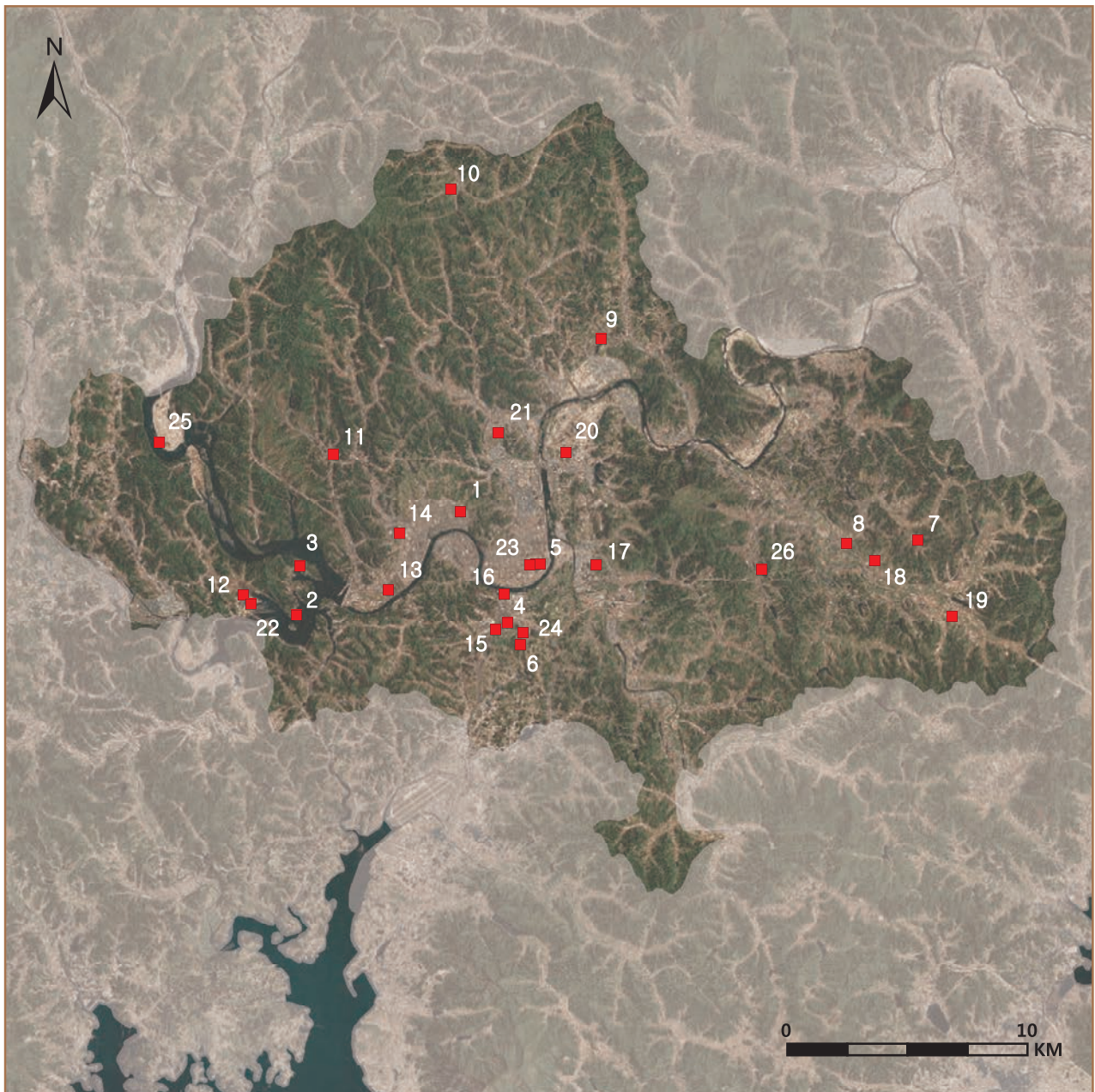
서성벽 뒷채움부

남성벽

북성벽

月明山
安磵
集賢山
白雲山
白馬城
赤壁
新安
尼丘山
丹城
廣濟山
梁川
岩惠山
秃川
雪梅峴
晉州
晉江
月牙山
召村
松台山
望晉
金城
官栗
八音山
金鰲峙
所谷山
玉女峯
千金山
排菁寺
諸方山
泗川
豆音山
竜岩山
蓮華山
東溪
城隍山
玉山
尼山
鞍岾
通陽浦
三千浦
文和
昆陽
銅谷山

Ⅳ. 진주

01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562-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07.10.~2007.11.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대부완, 개배,
파배

진주 옥봉고분군 _ 진주 옥봉 금산공원 옆 도시계획 도로부지 내 유적

| 경상남도기념물 제1호

진주시 중앙의 옥봉동에 위치하는 무덤유적이다. 진주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남강의 북안에 위치한 독립구릉은 남봉(해발 64.7m)과 북봉(해발 92.3m)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봉우리의 정상부에 위치한 고분군이 수정봉·옥봉고분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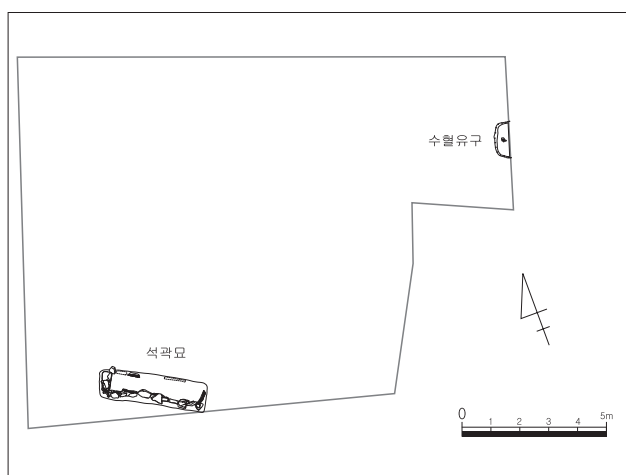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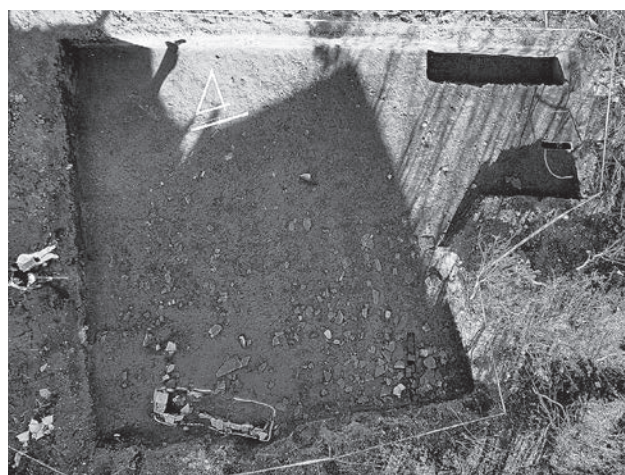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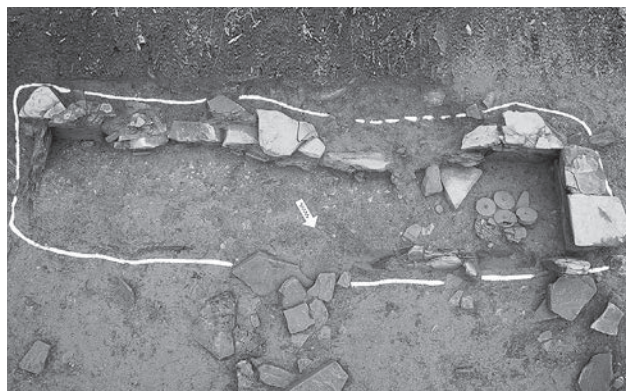
수정봉·옥봉고분군은 1910년 일본인에 의해 수정봉 2·3호분과 옥봉 7호분이 발굴조사되어 『朝鮮古蹟圖譜』에 기록이 남아 있으며, 1990년에는 일본 동경종합자료관 건축사부분에 소장되어 있는 수정봉 2·3호분과 옥봉 7호분 출토유물이 공개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소개된 유구와 유물로 보아 수정봉 2·3호분과 옥봉 7호분은 6세기 전반대에 진주지역의 유력 집단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진주 옥봉 금산공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 동서문물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 1기가 확인되었고,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 9점이다.

유적 위치도

석곽묘는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영되었고 장축방향은 동-서향이며 규모는 376㎝×105㎝×38㎝로 세장방형이다. 최하단석 축조에 있어 3벽은 점판암계 판석을 사용하여 수적하였고, 서단벽은 할석으로 평적하였다. 장벽의 최하단석은 기초 홈을 파서 수적한 후 그 위로 2단 이상을 평적하여 조성하였다. 출토유물은 동단벽쪽에서 소가야계의 대부완, 파배가 각각 1점씩 출토되었으며, 서단벽쪽에서 대가야계의 개배 6세트와 방추차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소가야계와 대가야계 유물 양상으로 석곽묘의 조성 시기는 6세기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09, 『진주 옥봉고분군-진주 옥봉 금산 공원 옆 도시계획도로부지 내 유적』.

1Pit 유구 배치도

1Pit 전경

1호 석곽묘

1호 석곽묘 유물 출토모습

1호 석곽묘 출토유물

02

진주 귀곡동 귀동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귀곡동 산66-1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1997.1.~1997.2.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횡혈식석실묘
/ 개, 고배, 단경호, 재갈

진주시 서부의 귀곡동 귀동마을 동남쪽의 무덤유적이다. 유적은 황학산(해발 229.2m)에서 진양호 수면에 이르기까지 동남방향으로 완만하게 내려오는 구릉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1997년 남강댐 건설사업으로 인해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삼국시대 석곽묘 2기, 횡혈식석실묘 1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개, 고배, 단경호 등의 토기 32점과 교구, 재갈 등 철기 4점으로 총 36점이다.

석곽묘의 주축방향은 북동-남서향 규모는 길이 242㎝, 너비 99㎝이다. 유구의 벽석은 판석을 사용하였으나, 일부분만이 남아있고, 시상부는 강돌을 사용하였다.

횡혈식석실분의 주축방향은 동-서향으로 약간 긴 장방형이고, 규모는 길이 460㎝, 너비 217㎝이다. 연도는 서쪽 중앙에 위치하며 길이는 130㎝이고 연도와 묘실이 만나는 부분에 문주석이 설치되어 있다. 묘실의 북동쪽 측벽은 2~3단 만이 남아 있으며 상부구조는 알 수 없었다. 바닥은 길이 30㎝ 내외의 부정형의 판석을 사용하였고, 판석 사이에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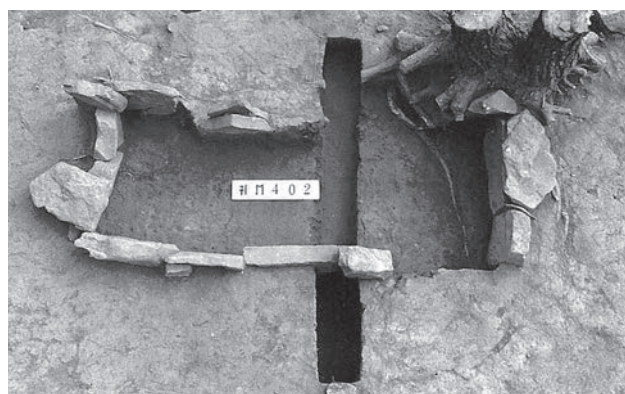
참고문헌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1999, 『진주 귀곡동 귀동유적-남강댐 수몰지구내』.

는 작은 자갈돌로 채워져 있었다.

유물은 고령계 꼭지를 갖추고 있는 개와 재갈의 형태로 보아 6세기 중반에 형성된 유적으로 판단된다.

유적 전경

401호

402호

03 진주 귀곡동 대촌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귀곡동 229-1·245·24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 1997.6. ~ 1997.8.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고배, 장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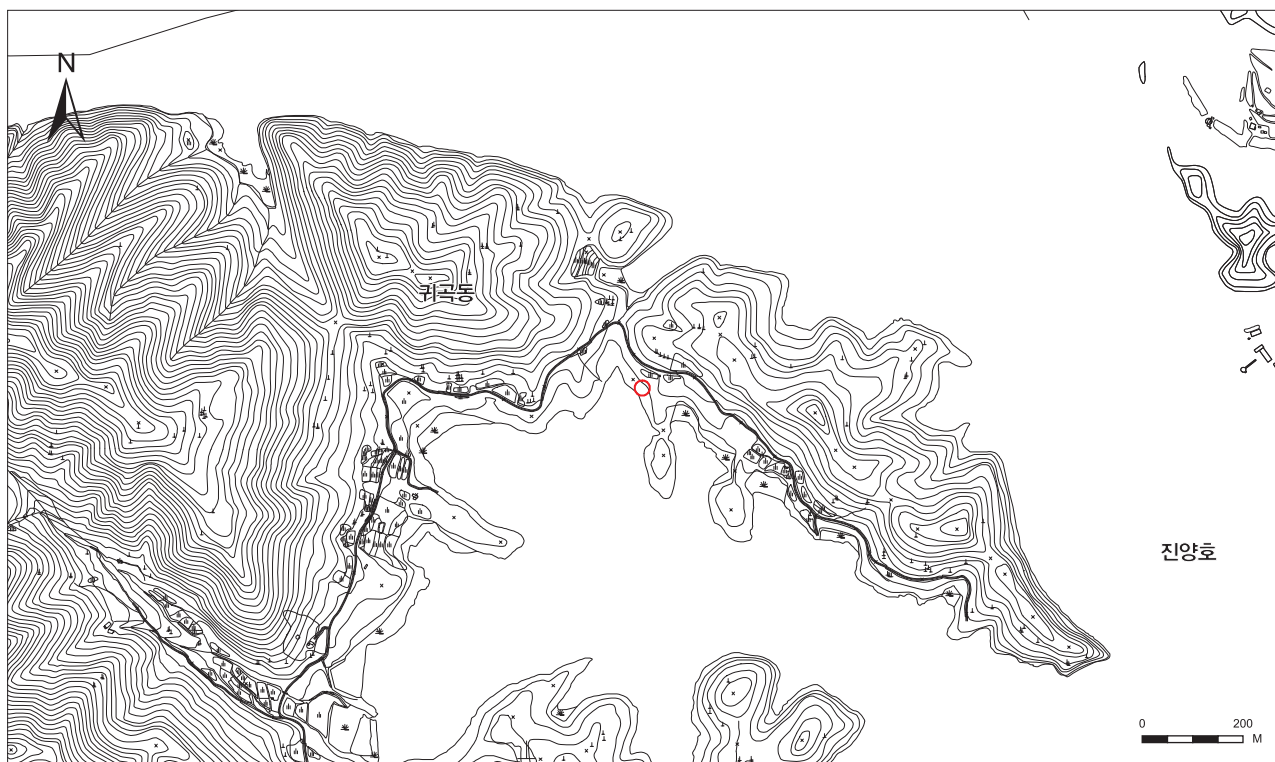
진주시 서부의 귀곡동 대촌마을 북쪽의 무덤유적이다. 유적이 분포하는 대촌부락은 원래 현위치보다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남강댐의 건설로 일부 민가들이 현재의 구릉지대로 이주하면서 소규모 부락을 형성하였다.

1997년 남강댐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삼국시대 목곽묘 1기가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장경호 2점과 고배 2점으로 총 4점이다.

목곽묘의 주축방향은 N37.5°이고 묘광은 길이 220㎝, 너비 76㎝, 깊이 24㎝로 적갈색의 암반생토층을 파고 만들었는데, 파낸 흙과 약간의 점토를 섞어 목곽 외부에 충전하였다. 목곽의 규모는 길이 170㎝, 너비 46㎝, 깊이 24㎝이다. 유물은 서북쪽 단벽에 장경호 2점과 고배 1점, 반대쪽 동남쪽 단벽에서 고배 한점이 출토되었다.

장경호 경부에 파상문을 시문하였고, 고배 대각의 삼각형투창 등이 확인되어 5세기 전반대에 형성된 유적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1998, 『진주 귀곡동 대촌유적-남강댐 수몰지구내』.

유적 위치도

유적 원경

목곽묘

목곽묘 유물 출토모습

04 진주 가좌동고분군

晋州 加佐洞古墳郡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에 소재한 삼국시대 고분군이다. 무듬산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수기의 고총고분이 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고분군 유적으로 알려진 곳으로, 일제 강점기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와 1977년도에 편찬된 『文化遺蹟總覽』, 『伽耶文化圈遺蹟情密調査報告書』등에도 가좌동고분으로 파악되어 있는 곳이다. 1988년 현대 무덤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석곽묘가 발견되어 경상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 4기가 조사된 이후로 2016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 의해 삼국시대 주거지 27기, 석곽묘 65기, 석실묘 9기가 조사된 바 있으며, 같은 해, 경상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삼국시대 목곽묘 10기, 석곽묘 8기, 석관묘 1기, 주거지 8기가 조사되었다. 현재까지 가좌동고분군에서는 삼국시대 주거지 35기와 고분군 99기가 조사되었다.

가좌동유적은 무듬산의 북서쪽 구릉 사면부를 중심으로 삼국시대 주거지와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는데, 주거지와 고분군은 조성영역이 구분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북서쪽에 주거지가 집중 조영되어 있고, 무듬산의 남쪽과 남동쪽 사면 전면에 이어지면서 고분군이 축조되는데, 구릉의 중앙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진 부분에는 능선 하단부를 따라 선 조성된 주거지에 고분이 후대에 중복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또한, 고분군은 사면의 정상부에서 목곽묘 조성되기 시작하여 석곽묘, 석실묘로 묘제가 변화하며 하단부까지 조영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묘제의 변천에 따라 주거지와 목곽묘에서 4세기 유물이 확인되고, 석곽묘에서는 5~6세기의 유물이 확인되고, 석실묘에서는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유물이 확인되었다.

가좌동고분군은 진주지역의 재지문화의 변화와 아라가야, 대가야, 신라문화 등 주변문화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분묘유적으로 진주지역에 대한 삼국시대 역사를 밝혀주는 의미있는 유적이다.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진주 가좌동고분군 1~4호분	경상대학교박물관	1988.6~1988.9.	진주 가좌동고분군(1~4호분)(1989)
2	진주 가좌동 산39-6번지 유적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지구 (1단계-2구역) 내 유적	경상문화재연구원	시굴 2014.5.~2015.3. 1차 2015.5.~2015.9. 2차 2016.12.~2017.2.	진주 가좌동 산39-6번지 유적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지구(1단계-2구역) 내 유적(2017)
3	진주 가좌동고분군과 취락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지구 (1단계-1구역) 내 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6.3.~2016.10.	진주 가좌동고분군과 취락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지구(1단계-1구역) 내 유적(2018)

유적 위치도

04-1

진주 가좌동고분군 1~4호분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산4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대학교박물관 /
1988.6.~1988.9.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단경호,
철촉, 철모

조사지역은 무듬산(해발 65.1m)의 북서쪽 사면으로 해발 52m 정도의 산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1988년 근대의 무덤을 축조 할 때 1호분의 개석 일부가 드러나 경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 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하나의 봉분에 4개의 수혈식석곽묘가 조성된 다곽분이 확인되었고, 유개고배, 단경호, 통형기대 등의 토기유물과 철촉, 철모, 이식 등의 철기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계단식 경작과 자연유실 등으로 바닥만이 잔존하고 있지만 세장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축조재료와 시상대의 구조 및 유물의 부장양상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6세기대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경상대학교박물관, 1989, 『진주 가좌동고분군(1~4호분)』.

유적 위치도

유적 전경

1호분 및 주변석곽

1호분 개석 노출모습

출토유물

04-2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산39-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문화재연구원 /
시굴 2014.5.~2015.3.
발굴
1차 2015.5.~2015.9.
2차 2016.12.~20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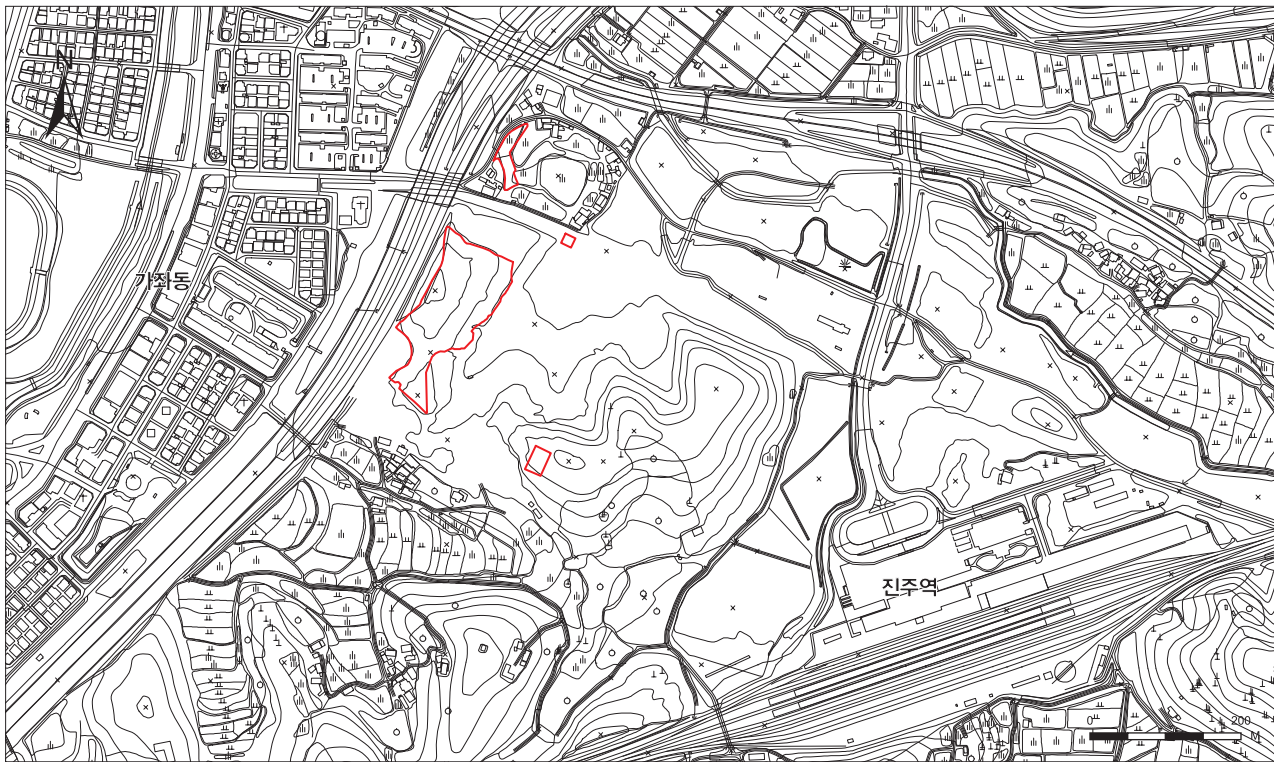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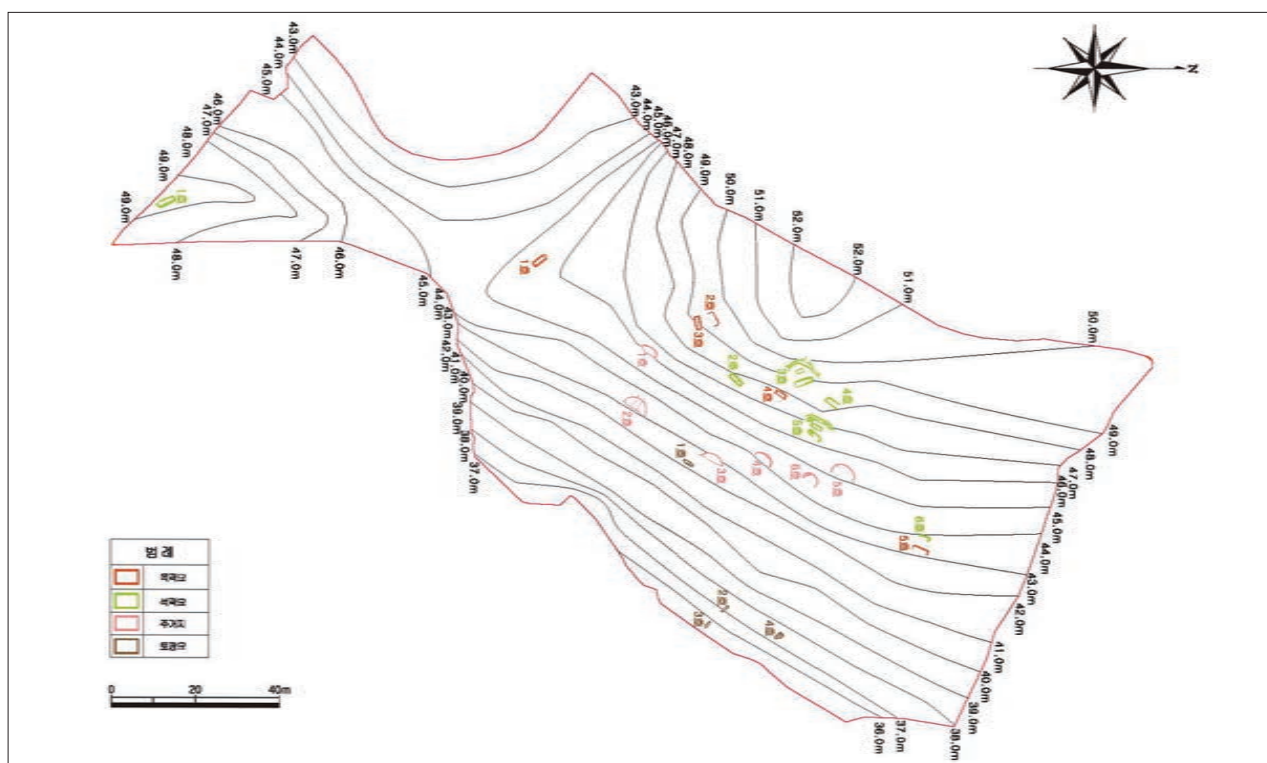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목곽묘,
석곽묘 / 고배, 단경호,
장경호, 통형기대

진주 가좌동 산39-6번지 유적 _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 지구(1단계-2구역) 내 유적

조사지역은 무듬산(해발 65.1m)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산사면 일대로 해발 40~50m 정도에 위치하며 소곡부를 포함한다. 가좌동고분군의 북서쪽에 주거지 및 고분군이 조성되었는데 1988년 경상대학교박물관 조사구간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2016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조사구간의 남쪽으로 인접한 구간이다.

발굴조사 결과 목곽묘 10기, 석곽묘 8기, 석관묘 1기, 주거지 7기가 조사되었고, 무개식무투창고배, 양이부호, 단경호, 수평구연호 등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타원형의 평면형태를 가진 수혈주거지로 후대의 경작으로 인해 파손이 많이 되었고, 출토유물도 소략하다. 목곽묘의 규모는 200~400㎝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평면형태는 대부분 장방형이고 시상대는 바닥면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석곽묘는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으로 대부분에서 시상석이 확인된다. 유구는 경작과 자연유실 등으로 잔존상태가 불량하지만, 축조방법과 시상대의 구조, 주구의 유무 및 유물 부장양상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4세기 중반~6세기 전반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경상문화재연구원, 2017, 『진주 가좌동 산39-6번지 유적-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지구(1단계-2구역)내 유적』.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4호 목곽묘

5호 석곽묘

토기류

토기류·장신구류

04-3

진주 가좌동고분군과 취락 _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지구 (1단계-1구역) 내 유적

소재지
경남 진주시 가좌동 30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16.3.~2016.10.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주거지 / 유개고배, 단경호, 장경호, 통형기대, 금제이식

가좌동고분군의 북서쪽에 삼국시대 주거지 및 고분군이 조성되었는데 1988년 경상대학교박물관 조사구간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2015년 경상문화재연구원 조사구간의 북쪽으로 인접한 구간이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유구 5기, 삼국시대 103기, 고려시대 2기, 조선시대 96기가 조사되었고, 출토유물은 총 908점으로 토도류 625점, 금속류 266점, 옥석류 17점이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400~900㎝ 내외이다. 내부에는 주혈과 벽주혈, 벽구, 고래와 부뚜막, 배수구, 단시설, 수혈 등의 시설이 확인되었다.

석곽묘의 규모는 면적 3.2~5㎡에 해당하며, 하나의 봉분에 1~2기의 세장방형 석곽묘가 축조되어 있고, 구릉 상부에 주구가 위치한다.

유적 위치도

석실분의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이고, 우편수식 연도가 있으며, 대부분 할석과 천석을 이용한 시상이 있다.

소가야에서 신라로 이행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 4세기 후엽~7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축조되고 있어 4세기 후엽~7세기 가야와 신라의 역사 변동과정을 밝혀줄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8, 『진주 가좌동고분군과 취락-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지구 (1단계-1구역) 내 유적』.

유적 전경

1구간 5호분

출토유물

05

진주 국도2호선~혁신도시간 도로확장구간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산81-2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문화재연구원 /
2015.6.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유개고배,
기대 저부, 철부, 철촉
방추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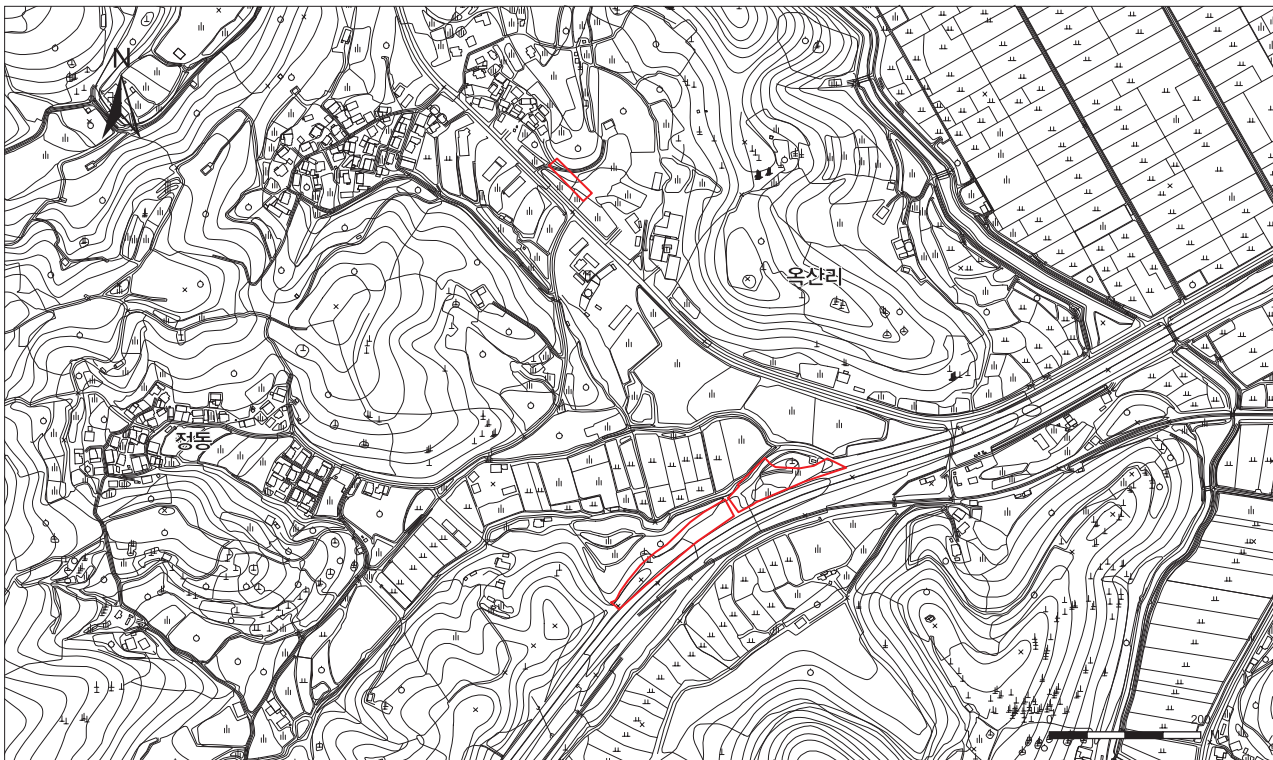
진주시 남부의 옥산리 원촌마을 동남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다. 유적은 북으로는 남강 동으로는 영천강이 인접해 있고, 해발 100m 내외의 야산이 둘러싸고 있는 곡간평야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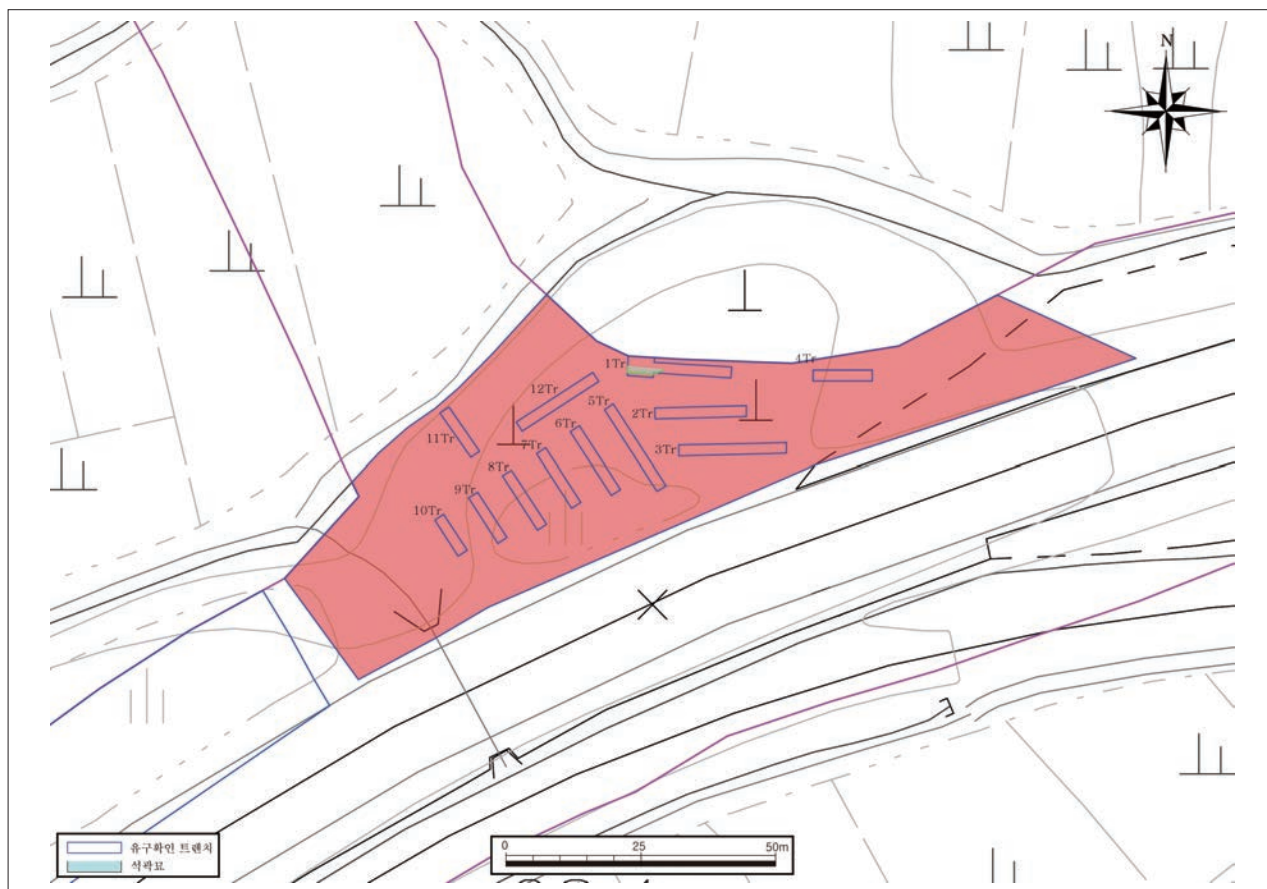
2015년 진주시 호탄동~문산읍 옥산리 일대에 국도2호선~경남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경상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결과 삼국시대 석곽묘 1기를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유개고배 1쌍, 기대저부 1점, 철촉 2점, 철겸 1점, 철부 1점, 방추차 1점으로 총 8점이다.

석곽묘는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석곽의 남장벽 일부가 잔존하며 단벽은 모두 유실되어 파괴가 심한채 확인되었다. 석곽은 암반을 굴착하여 구축하였는데 바닥은 부분적으로 요철이 있어 점성이 있는 흙으로 보완하였다. 석곽의 규모는 묘광 길이 350~370㎝, 석곽 너비(추정) 72~75㎝이다. 유물은 서쪽 단벽에 토기 3점, 철겸 1점, 남

유적위치도

쪽 장벽에서 철촉과 철부가 출토되었다.

반구형인 개와 단각 고배의 세트 관계로 보아 5세기 후반에 형성된 유적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경상문화재연구원, 2015, 「진주 국도2호선~혁신도시간 도로확장구간 내 시굴조사 결과 약보고서」.

유구 배치도

1호 석곽묘

1호 석곽묘 출토유물

06 진주 화개리고분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245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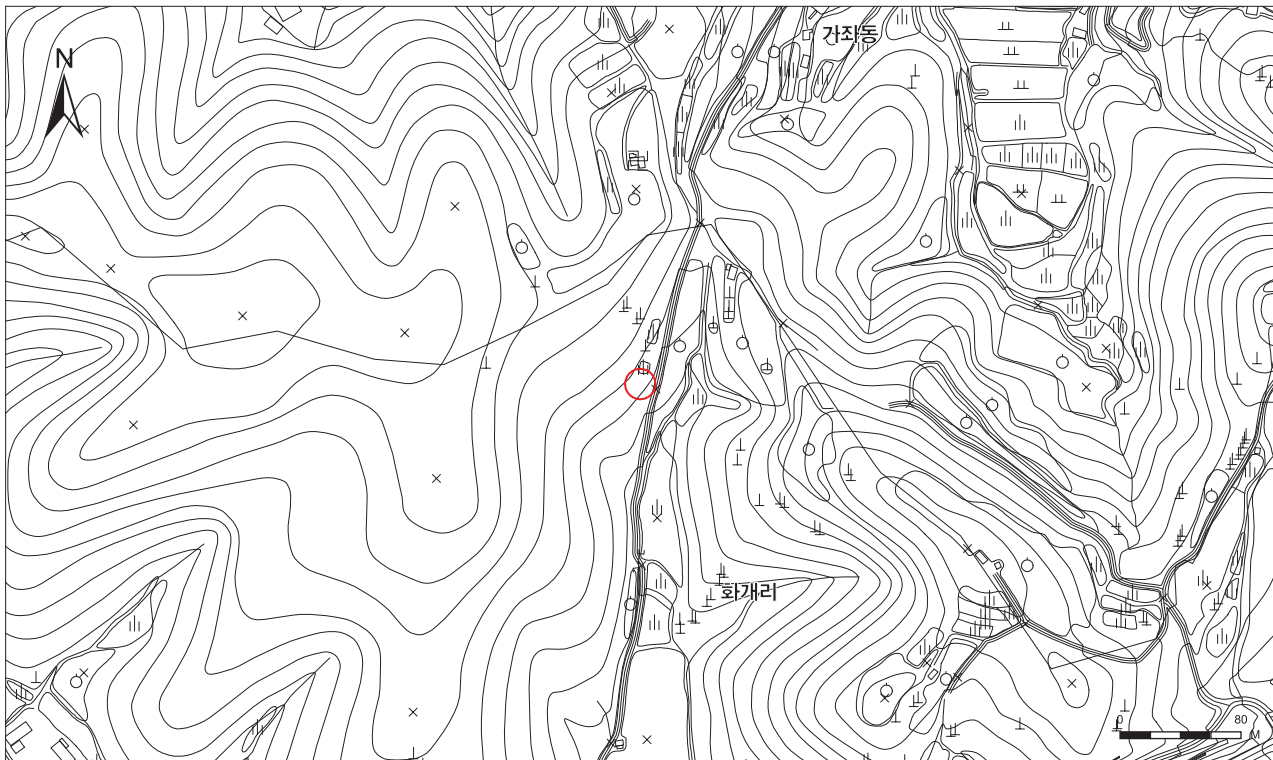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문화재연구원 /
2010.12.~2011.1.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수평구연호,
일단장방형투창고배,
장경호

진주시 남부의 화개리 모심마을 북서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다. 유적은 북으로는 망룡산, 동으로는 벽화산, 서로는 광제산이 둘러싸고 있고, 남쪽으로는 남강이 관류하고 있는 지형으로, 이들 산지에서 뻗어 내린 능선이 이어지는 200m 이하의 낮은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남쪽으로는 비옥한 충적지가 펼쳐져 있다.

화개리고분군은 능선과 사면부를 중심으로 수기의 고분군이 분포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발굴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2010년 소규묘 경작지를 조성하다 발견되어 경상문화재연구원에서 긴급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 1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토기 8점과 철기 3점 등 모두 11점이다.

수혈식석곽묘는 경사면을 'L' 자상으로 굴착한 후 석곽을 구축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40㎝, 너비 110㎝, 깊이 30㎝이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말각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유적 위치도

등고선과 평행한 북동–남서향이다. 측벽은 훼손으로 인해 1단 내지 2단까지 남아 있다. 석곽의 축조는 최하단석의 조립상태로 보아 서장벽→양 단벽→동장벽의 순으로 구축한 후 2단을 높이가 각기 다른 최하단석에 맞추어 가면서 평적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에는 점판암계 석재를 전면에 깔아 시상대를 마련하였다. 유물은 양 단벽에서 소가야양식의 수평구연호, 장경호, 일단장방형투창고배 등이 확인되어 6세기 전반대에 형성된 유적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경상문화재연구원, 2012, 『진주 화개리고분』.

수혈식석곽묘

출토유물

07 진주 가곡고분군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가곡리 산38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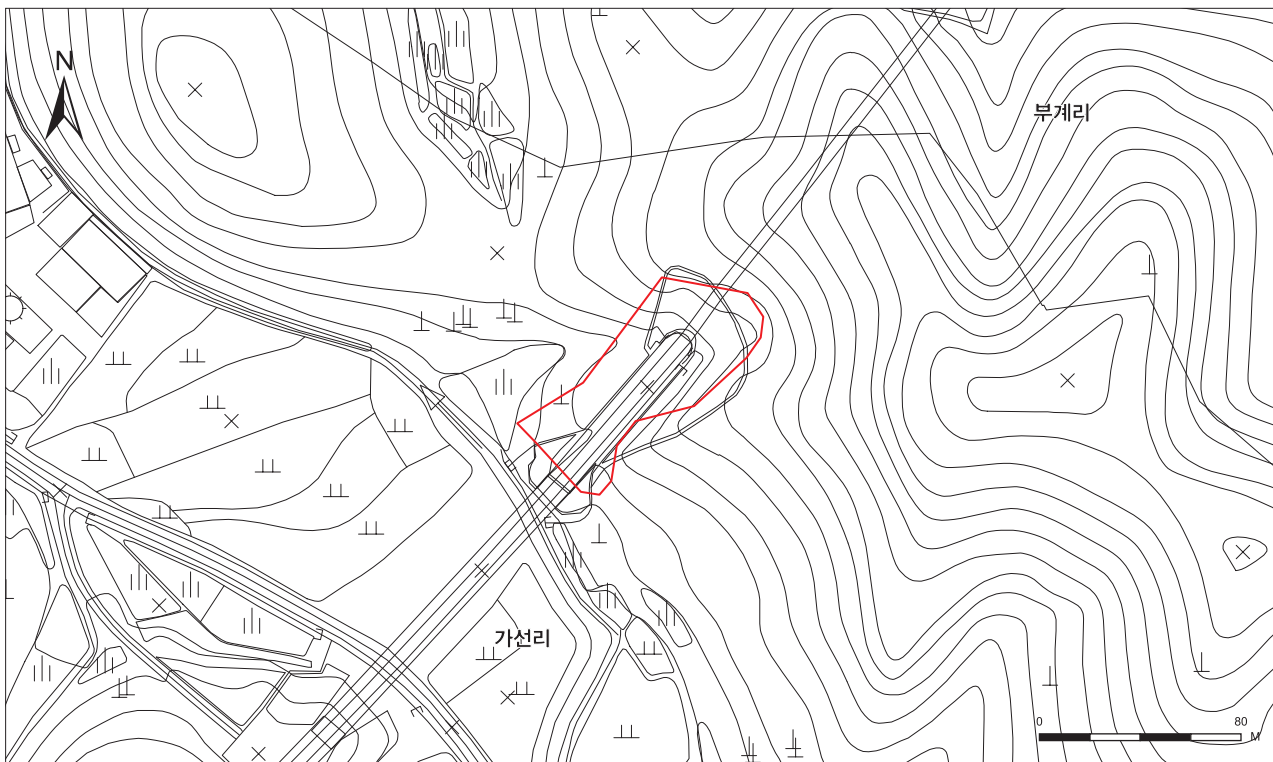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09.5.~2009.7.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은제이식, 유개고배, 수평구연호, 개배

진주시 동부의 가곡리 가곡마을 동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마기산(해발 154m)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 사면 말단부와 곡간부에 분포한다. 유적의 북쪽으로는 괘방산에서 발원한 대천이 흐르면서 비교적 넓은 곡간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2009년 경전선(함안~진주) 복선전철 개설로 인하여 동서문물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삼국시대 석곽묘 8기와 조선시대 묘 2기가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 25점, 방추차 2점, 철기류 3점 등 30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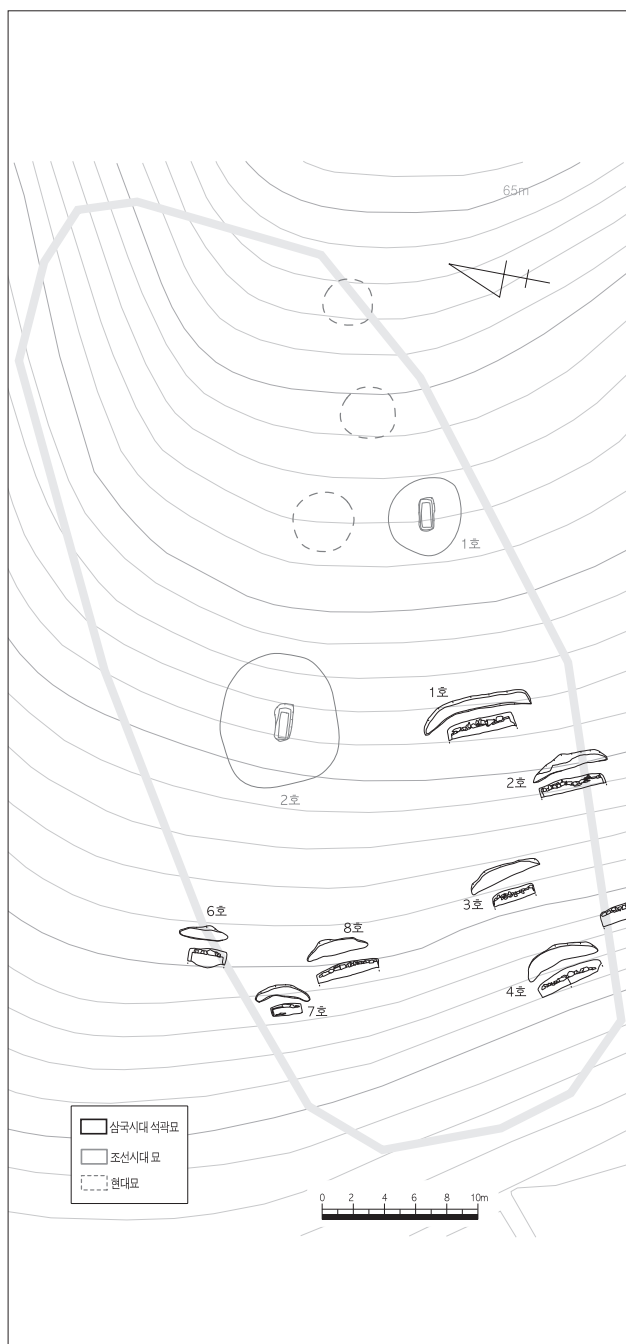
석곽묘는 대체로 해발 40~43m 사이에 분포하며 주축방향은 동-서향으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어 있다. 1기의 봉분에 1기의 석곽을 조성하고 주구를 갖춘 단곽식으로 분묘간 중복은 확인되지 않는다.

석곽묘의 규모는 40㎝ 이하로 중소형급에 해당하고, 구조는 최하단석을 수적한 후 2단부터 평적하는 구조로 축조되었다. 출토유물은 소가야양식의 일단장방형투창고배, 수

유적 위치도

평구연호, 개 등이 있으며 대체적으로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전반대에 형성된 유적으로 판단된다.

기존에 확인된 가곡고분군의 연장선상에 있는 유적으로 가곡고분군의 전체 범위는 소곡부를 포함한 남서쪽 구릉 일대에 밀집되어 유구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확인되며, 5~6세기대 소가야 정치체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1, 『진주 가곡고분군-경전선(함안-진주)복선전철화 사업구간내 유적-』.

유구 배치도

6호 석곽묘

출토유물

08 진주 무촌유적
晉州 武村遺蹟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에 소재한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진주 무촌유적은『文化遺蹟總攬』중권에 '진양 무촌리고분'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다. 1993년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수혈식석곽묘 9기, 횡구식석실묘 3기, 횡혈식석실묘 2기, 통일신라시대 화장묘 7기, 무문토기시대 주거지 3기가 조사된 바 있으며, 2001년 진성-이반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에 중첩되어 경남고고학연구소에 의해 삼국시대 목곽묘 51기, 석곽묘 46기, 고려·조선묘 308기, 삼국시대 주거지와 지상식건물지 11동, 통일신라~고려시대 건물지 58동, 도로유구 10개소, 우물 11개, 조선시대 수혈 27기 등이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무촌유적에서는 삼국시대 목곽묘 51기, 석곽묘 54기, 석실묘 5기 고려·조선묘 308기가 조사되었다.

무촌유적은 5개의 구릉에 분포하는데 1구丘에는 주로 삼국시대 수혈주거지와 지상식건물지가 확인되었다. 2구丘에서는 정상부에 수혈건물지와 함께 지상식건물지가 조영되고, 구릉의 하부에는 주로 목곽묘가 등고선과 평행되게 조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목곽묘를 파괴하고 횡구식석곽묘가 일부 조영되어 있다. 3구丘의 구릉 하부에는 석곽묘가 주류를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영되어 있다. 5구丘에서는 삼국시대 수혈과 함께 지상식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무촌유적에서는 생활유적과 무덤유적이 경계를 나누어 조성되었으며, 목곽묘를 조영한 집단과 석곽묘를 조영한 집단이 서로 구분된 것으로 파악된다.

무촌유적은 목곽묘, 석곽묘, 횡구식석곽묘 등 가야의 다양한 묘제가 확인되었고 묘제의 변화와 함께 4세기에서 7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물이 지속적으로 출토되어 진주지역에 대한 소가야 문화와 역사의 변화를 밝혀주는 의미 있는 유적으로 판단된다.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진양 무촌리 가야묘	국립진주박물관	1993.3.~1993.5.	진양 무촌리 가야묘(1994)
2	진주~이반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유적	경남고고학연구소	2001.3.~2002.4.	진주 무촌 –진주~이반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유적(2005)

08-1 진양 무촌리 가야묘

소재지
경상남도 진양군 사봉면 무촌리 1088-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진주박물관 / 1993.3.~1993.5.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식석곽묘 / 수평구연호, 통형기대, 개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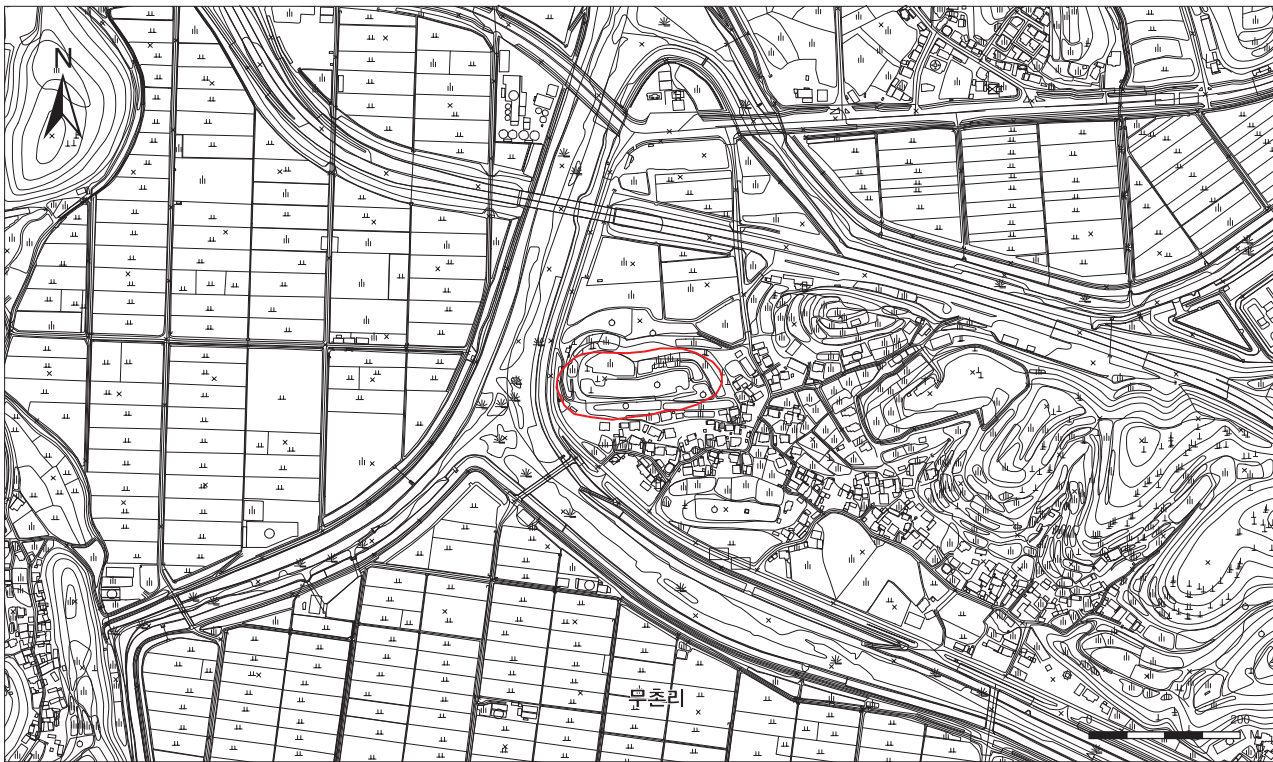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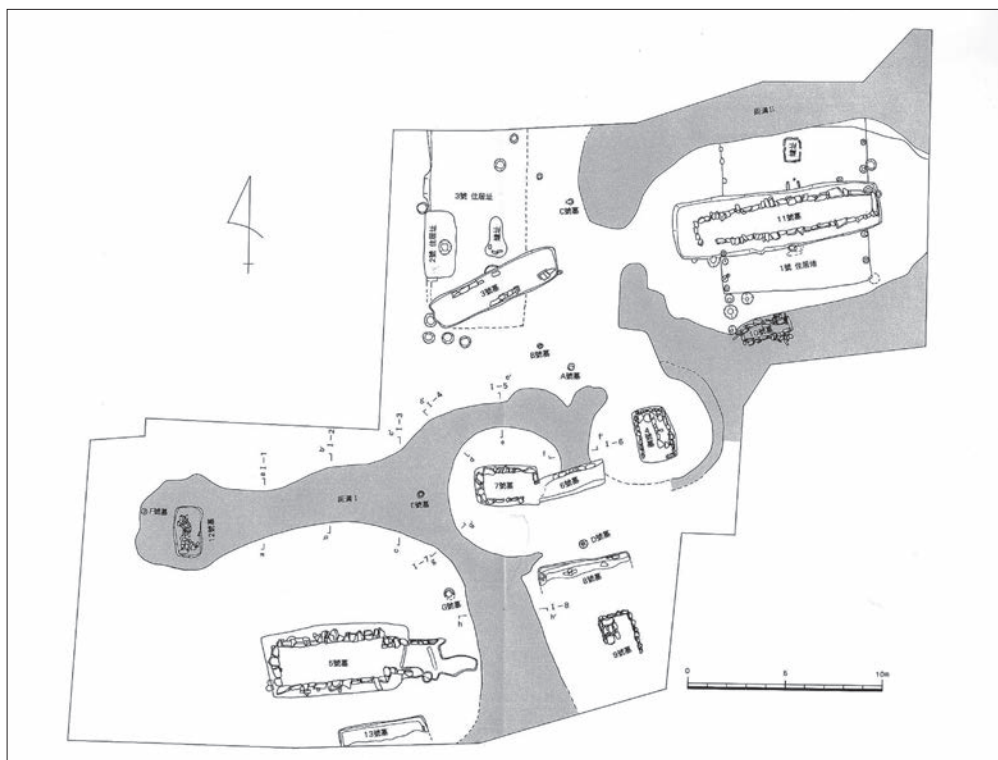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진양군 사봉면과 진성면의 경계이면서 남강 본류에서 갈라져 나와 남동쪽으로 흐르는 지류를 끼고 있는 구릉성 산지의 정상부에 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발굴조사 결과 수혈식석곽묘 9기, 횡구식석실묘 3기, 횡혈식석실묘 2기, 화장묘 7기 등 다양한 형식의 유구가 조사되었고 수평구연호와 통형기대, 철부, 등자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수혈식석곽묘의 규모는 610×100㎝으로 주축방향은 동-서향이며 얇은 판석을 1벌 깔아 시상을 조성하였다. 횡형식석실분의 규모는 540×100㎝ 주축방향은 동서향이고 유구의 북쪽으로 주구를 설치하였다. 횡구식석실분의 규모는 250×140㎝으로 주축방향은 남북향이다.

소가야양식의 수평구연호와 통형기대등의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5세기 후반에서 7세기 중엽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국립진주박물관, 1994, 『진양 무촌리 가야묘』.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3호묘

10호묘

출토유물

08-2 진주~이반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진양군 사봉면 무촌리 산29-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고고학연구소 / 2001.3.~20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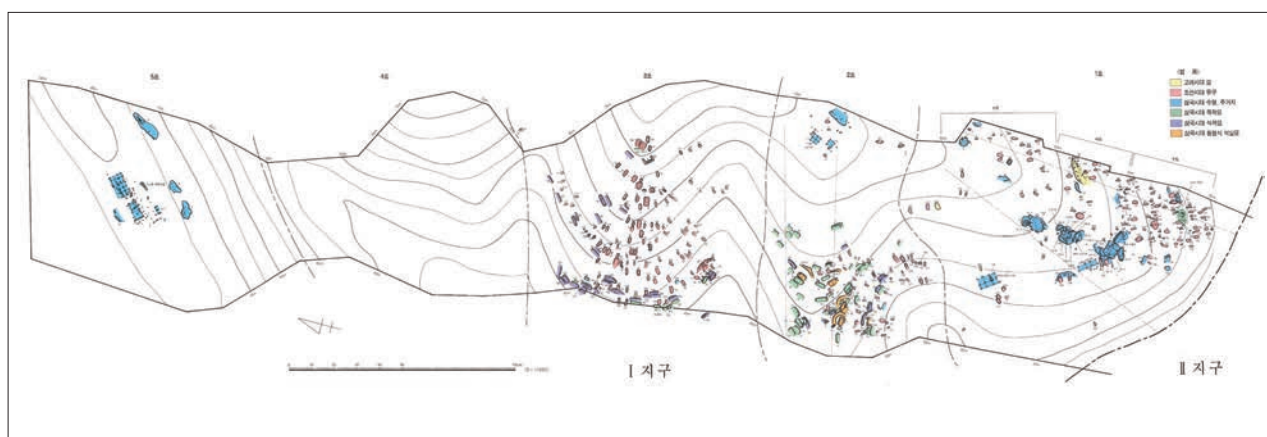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횡구식석곽묘 / 삼각형투창고배, 대부직구호, 단경호, 파배, 장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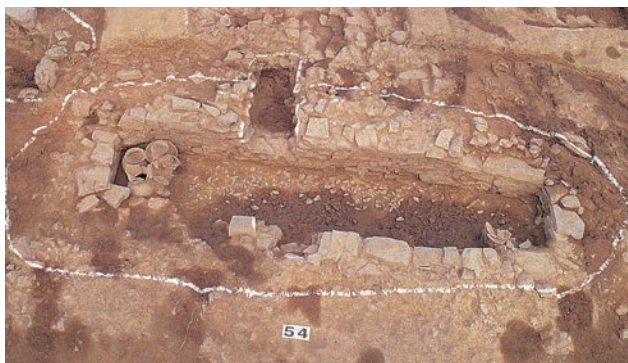
참고문헌

경남고고학연구소, 2005, 『진주 무촌-진주~이반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유적』.

조사지역은 반성천을 따라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신촌리를 지나 동쪽 구릉지대 쪽으로 근접하여 곡류하는 반성천 동안에 형성된 좁은 구릉성 평지와 5개의 낮은 구릉들이다. 조사는 편의상 평지와 구릉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94년 진주박물관 조사구간과 동쪽으로 인접한 구간이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목곽묘 51기, 석곽묘 46기, 삼국시대 주거지와 지상식건물지 11기가 조사되었고 출토유물은 유개고배, 수평구연호, 개배, 은제이식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목곽묘, 석곽묘, 횡구식석곽묘 등 다양한 묘제가 확인되었고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때 4세기에서 6세기 중엽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Ⅰ·Ⅱ지구 전경

2구 54호 석곽묘

2구 63·80호 석곽묘

2구 85호 목곽묘

3구 147호 석곽묘

출토유물

09

진주 단목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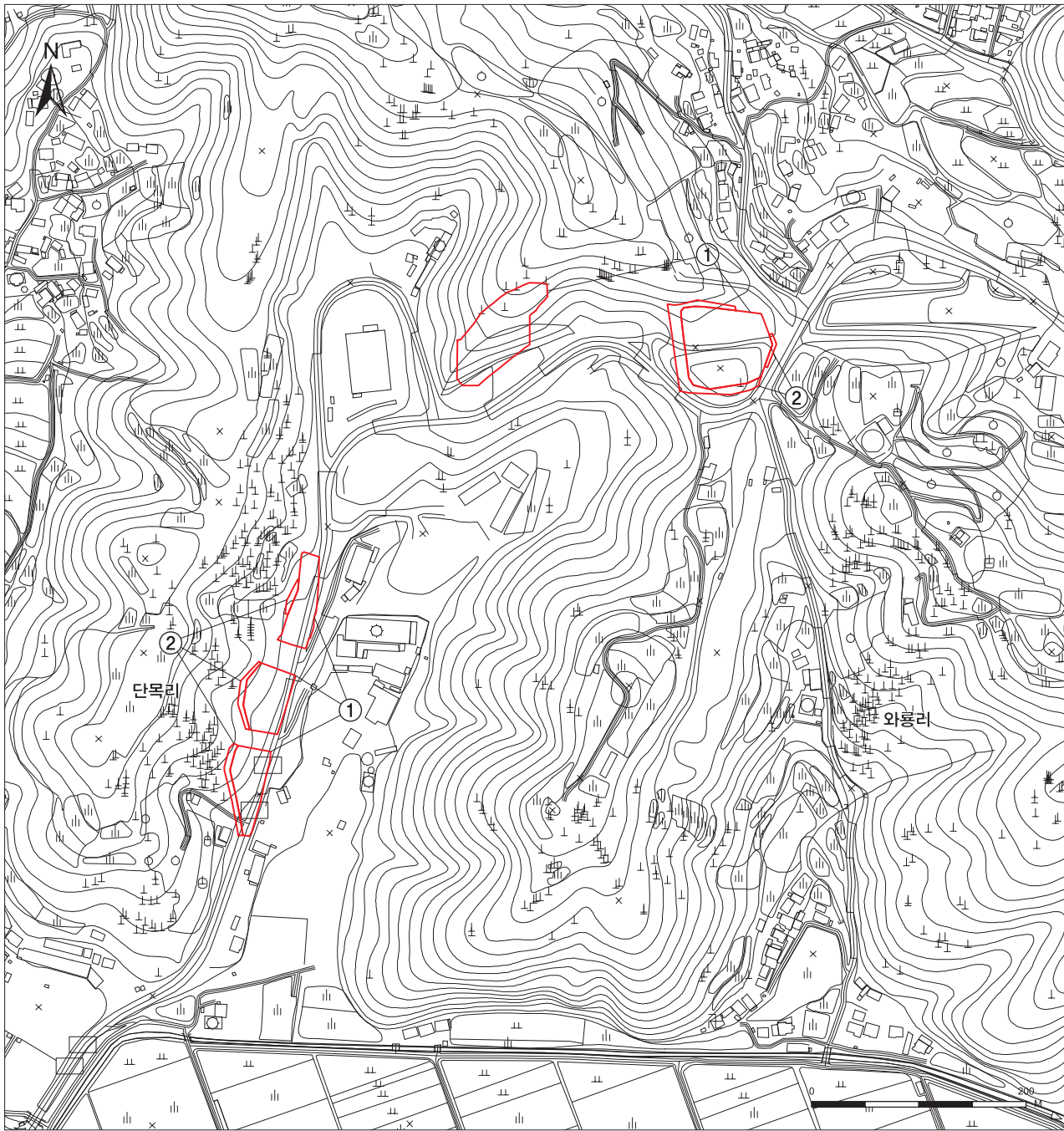
晉州 丹牧里遺蹟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에 소재한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2011년 진주 초전~대곡간 4차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사전 조사 중에 발견되어 2014년 해동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삼국시대 목곽묘 235기, 조선시대 분묘 169기가 조사된 바 있으며, 같은 해 경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목곽묘 19기가 조사되었다. 현재까지 단목리유적에서는 삼국시대 목곽묘 254기가 조사되었다.

단목리유적의 주묘제는 목곽묘로 주축방향은 모두 등고선과 평행한 남-북향으로 조영되었고, 규모는 면적에 따라 1~3㎡의 소형, 3~7㎡의 중형, 7㎡이상의 대형으로 구분되며, 장단비에 따라 3.0:1이하의 장방형과 이상의 세장방형의 형태가 확인된다.

평면형태의 경우 장방형의 목곽묘가 다수를 이루나, 세장방형의 목곽묘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목곽묘의 장단축비는 1.75:1~2.75:1의 비율로 함안지역의 목곽묘의 비율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단경호이며, 파수부배가 다수의 목곽묘에서 1점이 부장되어 있었다. 철기류는 철촉, 철겸, 철도자, 철부, 철모 등이 있으며, 철정과 재갈이 소량 출토되었다. 토기류 중에서 삼각형투창통형고배, 화염형투창기대등은 아라가야권역에서 확인되는 유물들로 아라가야와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단목리유적은 지형상으로 진주지역 중심부보다 함안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출토유물도 함안지역의 출토유물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점 등은 아라가야 문화의 확산과정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진주지역의 가야시대 역사를 밝혀주는 의미 있는 유적이다.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진주 단목리유적 -진주 초전~대곡간 4차로 확장구간 내 유적	해동문화재연구원	2012.11.~2014.2.	진주 초전-대곡간 4차로 확장구간 내 진주 단목리유적(2016)
2	진주 단목리유적 -진주 초전~대곡간 4차로 확장구간(추가) 내 유적	경남문화재연구원	2014.5.~2014.7.	진주 초전-대곡간 4차로 확장구간 내 (추가) 진주 단목리유적(2016)

09-1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277-2·
277-2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해동문화재연구원 /
2012.11.~2014.2.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 고배, 단경호

진주 단목리유적 _ 진주 초전~대곡간 4차로 확장구간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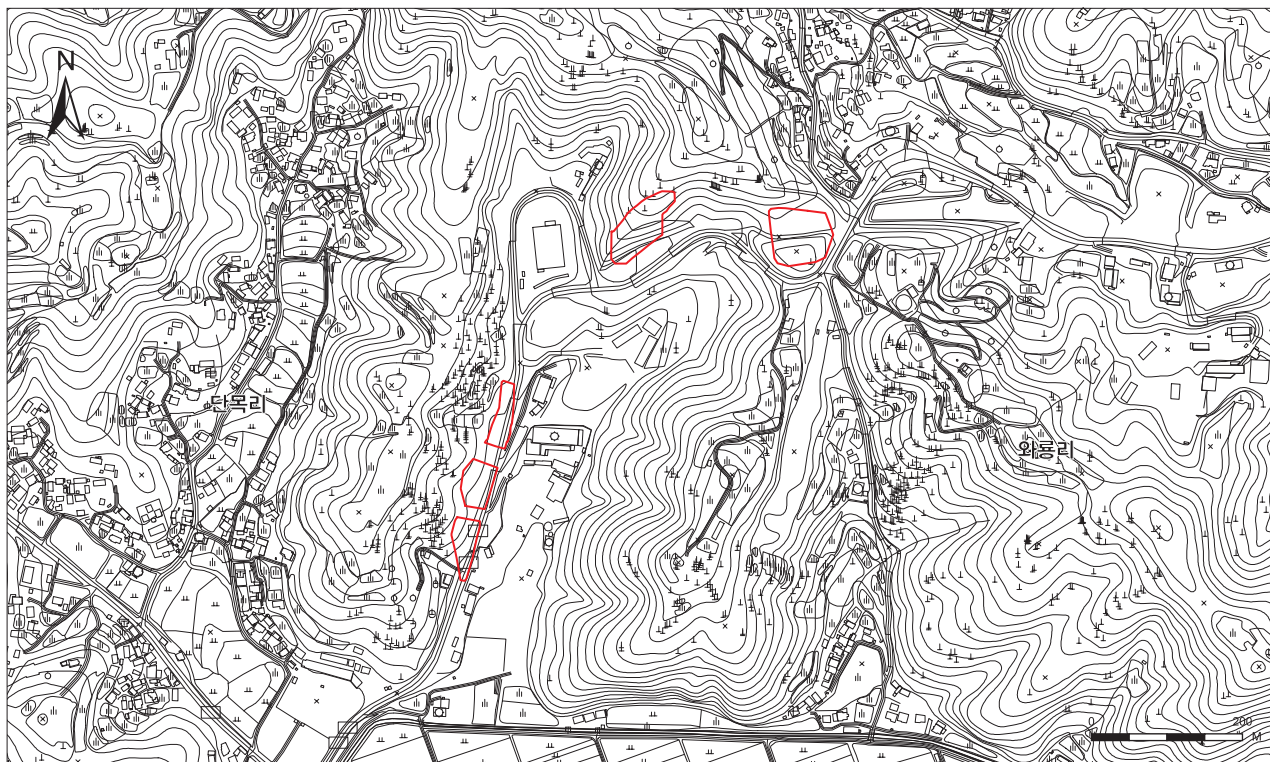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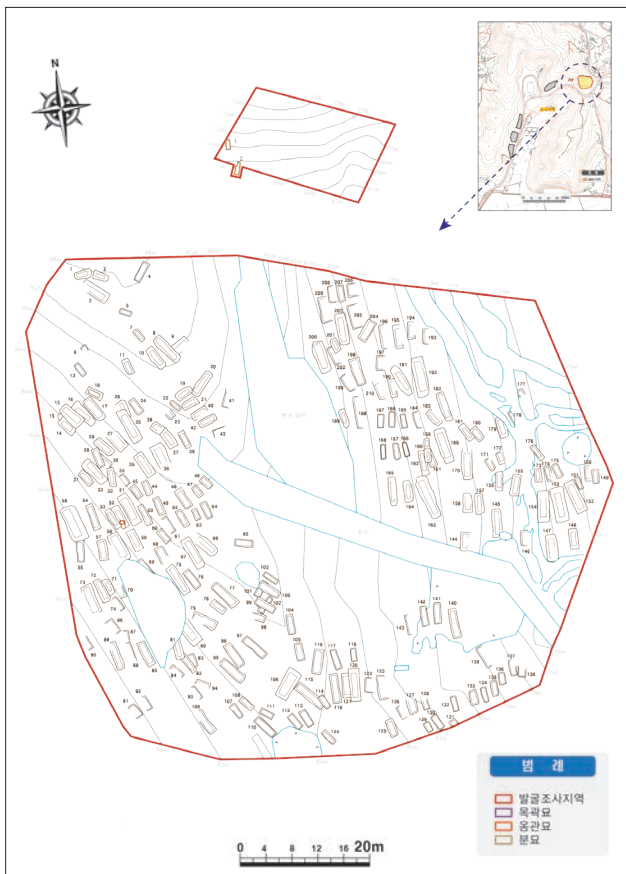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북으로는 망룡산, 동으로는 벽화산, 서로는 광제산이 둘러싸고 있고, 남쪽으로는 남강이 관류하고 있는 지형으로, 이들 산지에서 뻗어 내린 능선이 이어지는 해발 200m 이하의 낮은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동남쪽과 남쪽으로는 비옥한 충적지가 펼쳐져 있다.

단목리유적은 유곡소류지에서 대곡천으로 유입되는 작은 지류의 서남쪽 해발 50~100m 내외의 구릉 상단부에 분포한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목곽묘는 총 235기가 확인되었으며, 단경호, 고배, 파수부배, 대부호, 양이부호, 발형기대, 발, 옹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후대 유실 및 삭평으로 상부 훼손이 심한 편이다. 목곽묘는 주축방향이 모두 등고선과 평행하게 남-북향으로 조영되었고, 규모 및 장단비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해동문화재연구원, 2016, 『진주 초전-대곡간 4차로 확장구간 내 진주 단목리유적』.

유적 위치도

II 지구 유구 배치도

토기류

금속류

II-1구역 10호 목곽묘

II-1구역 20호 목곽묘

09-2

진주 단목리유적 _ 진주 초전~대곡간 4차로 확장구간(추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산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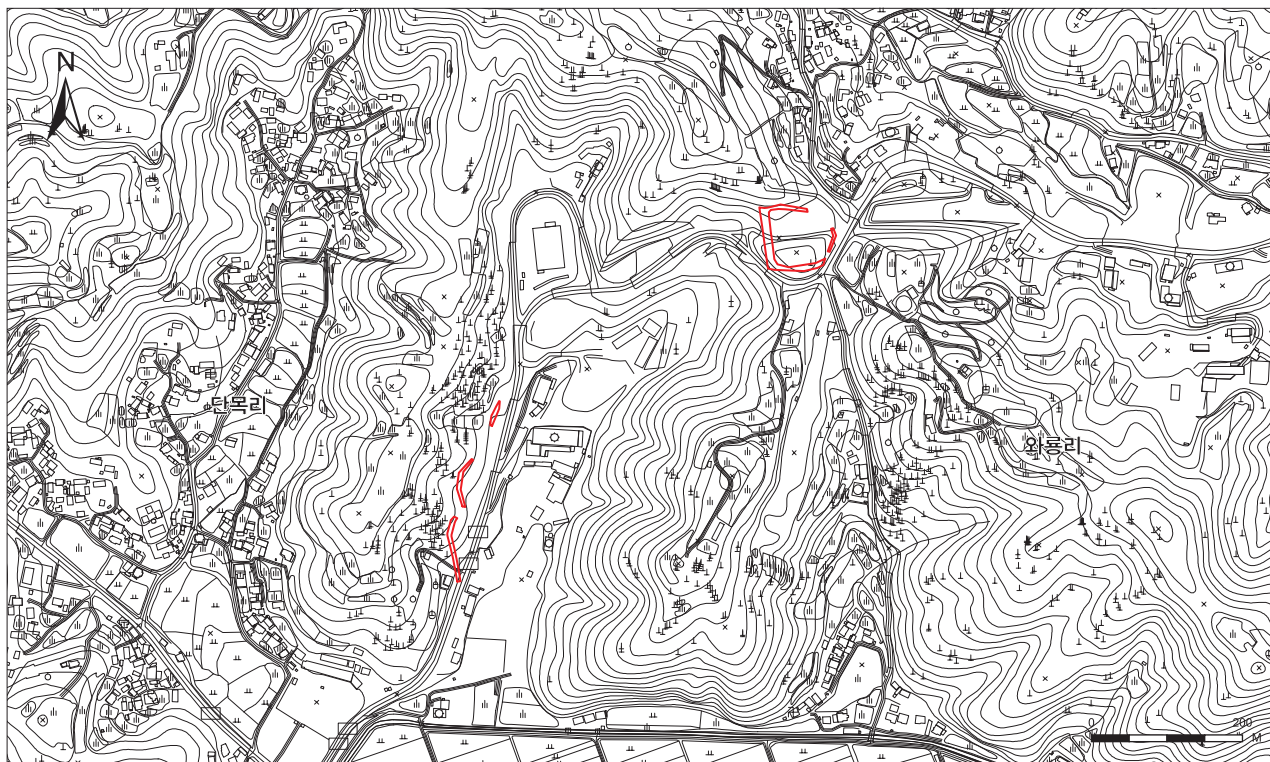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14.5.~20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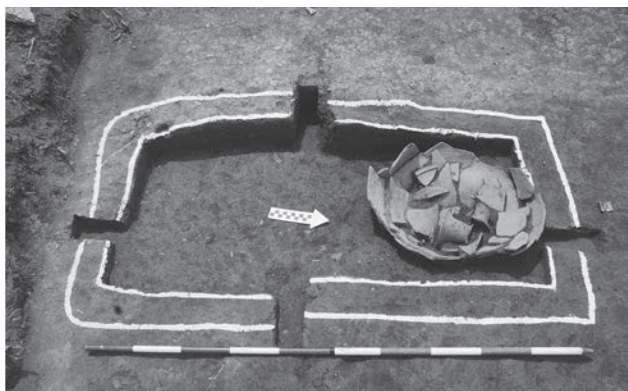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고배, 단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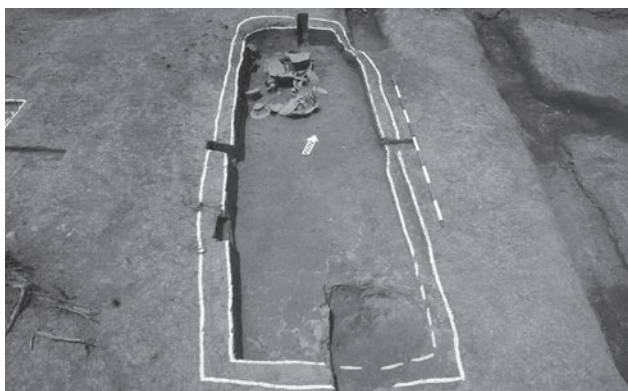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북으로는 망룡산, 동으로는 벽화산, 서로는 광제산이 둘러싸고 있고, 남쪽으로는 남강이 관류하고 있는 지형으로, 이들 산지에서 뻗어 내린 능선이 이어지는 해발 200m 이하의 낮은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동남쪽과 남쪽으로는 비옥한 충적지가 펼쳐져 있다. 2014년 해동문화재연구원의 조사구간의 확장구간이다.

조사 결과 목곽묘 19기가 조사되었고 고배, 파배, 단경호, 노형기대, 대부호, 철촉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구는 후대 유실 및 삭평으로 상부 훼손이 심한 편이다. 목곽묘는 주축방향이 모두 등고선과 평행하게 남-북향으로 조영되었고, 규모 및 장단비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4세기 후반~5세기 전반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16, 『진주 단목리유적-진주 초전~대곡간 확장구간 내(추가) 유적』.

유적 위치도

유적 전경

2구역 삼국시대 1호 분묘

2구역 1호 삼국시대 분묘 출토유물

2구역 삼국시대 6호 분묘

2구역 삼국시대 6호 분묘 출토유물

10 진주 안간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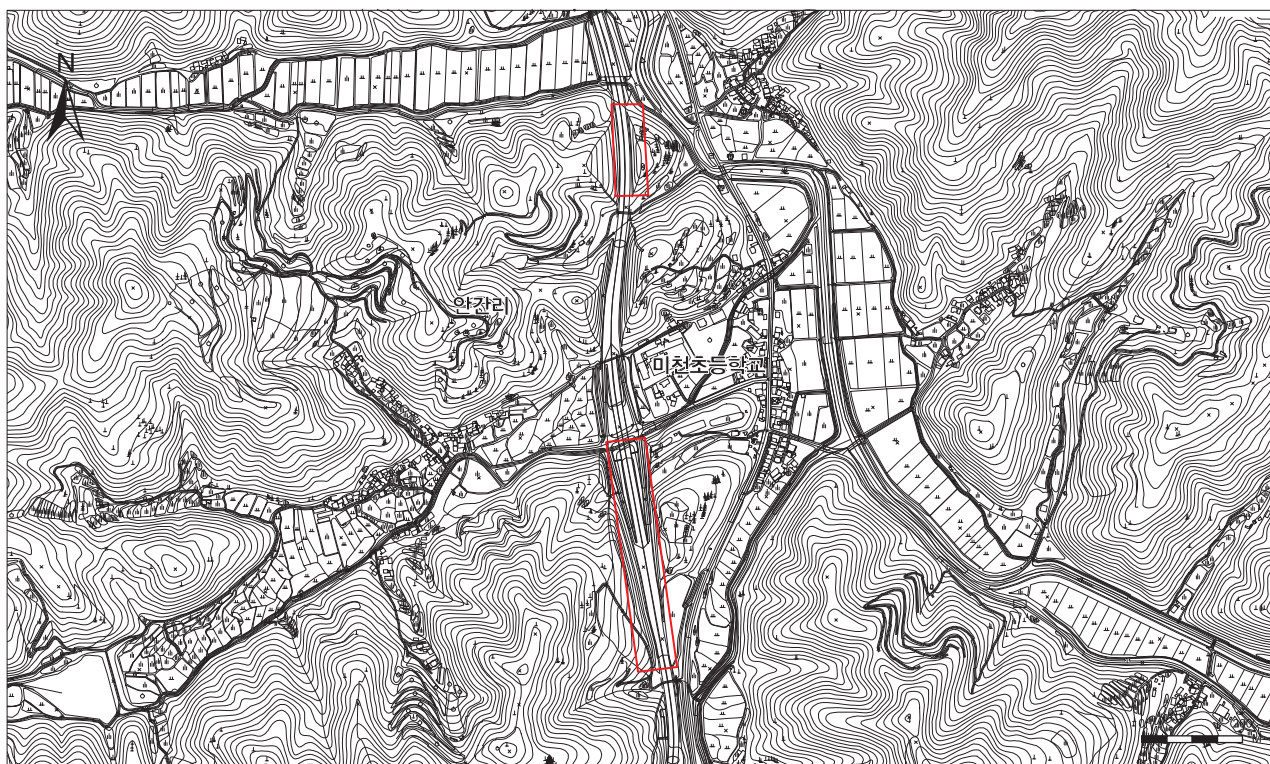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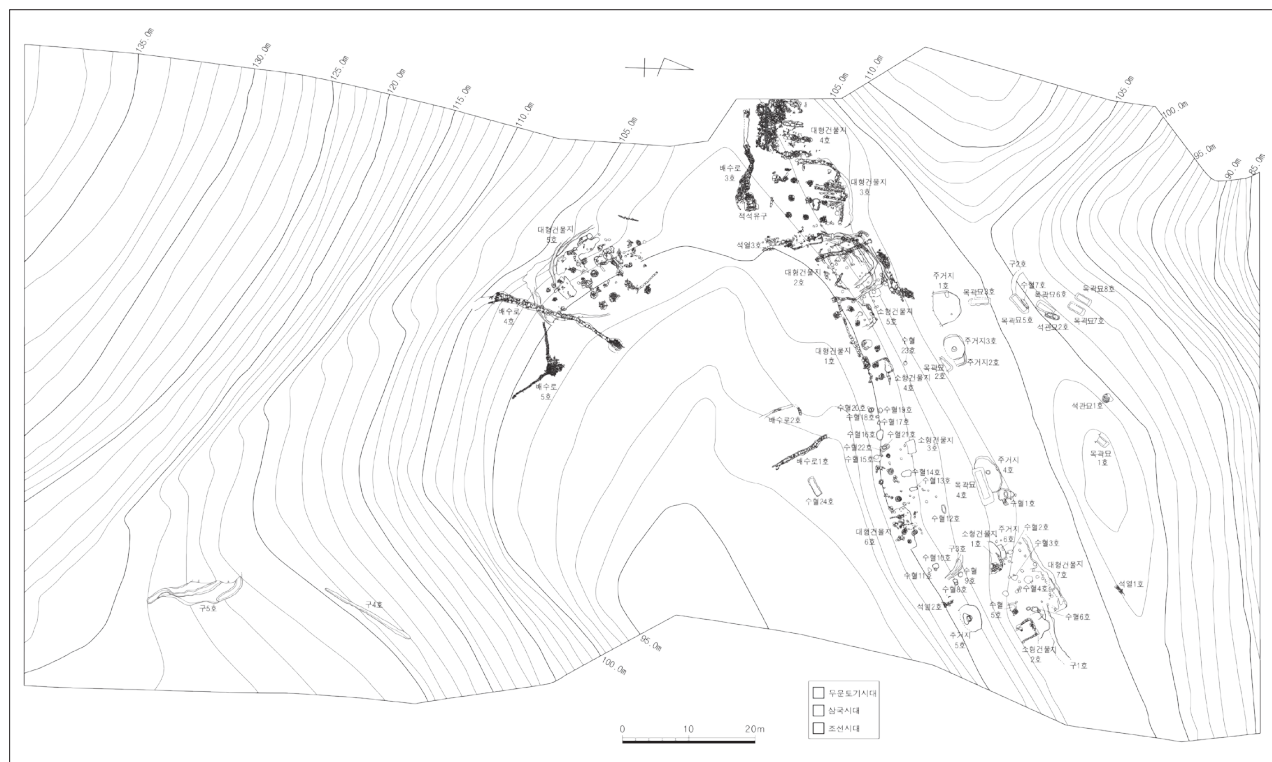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안간리 713-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4.9.~2006.1.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주거지 / 통형고배, 파배, 연질옹

진주시 북부의 미천리 안간마을 북쪽에 있는 생활유적 및 무덤유적이다. 양천강 유역 분지의 남쪽에 포함되며, 집현산(해발 578m)의 갈래 봉우리(해발 333m)가 동쪽의 안간마을을 향해 뻗어내린 지맥의 말단부이다. 유적의 서쪽과 남쪽으로 해발 200~300m의 구릉성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으로 곡저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2004년 집현~생비량간 국도 확장 공사로 인하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3지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Ⅰ·Ⅱ지구에서는 목곽묘가 조성되어 있었고, Ⅲ지구에서는 취락이 집중되어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는 주거지 29기, 수혈 20기, 구상유구 7기, 목곽묘 11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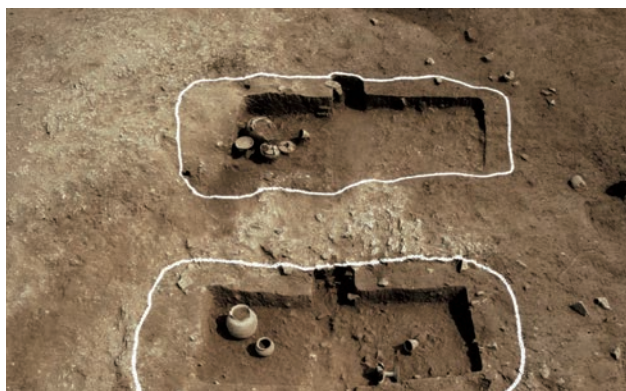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주거지간의 중복관계는 없으며, 주혈배치에 정형성이 보이지 않고, 벽구가 고도가 높은 서쪽부분에 조성되어 있으며, 내부에 1기의 수혈이 조성되어 있고, 노지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13·14·21·27호의 벽면 가에 저장

유적 위치도

Ⅱ지구 유구 배치도

혈이 확인되었다. 15호, 21호는 바닥면의 안정된 위치에서 다량의 유물이 확인되고 있어 화재주거지로 판단된다.

목곽묘는 대부분 묘광의 길이가 2.0~3.5m로 중소형에 속하지만 Ⅱ지구 4호묘는 5.7m로 대형이다. 묘광은 장단비가 2.8:1을 넘지 않는 장방형에 속하지만 충전토에서 추정되는 목곽은 장단축비에 따라 세분하고 있다. 출토된 유물은 완형무투창고배, 대부호, 소형기대 등 함안양식의 토기가 주로 확인되어 4세기 전반~5세기 전반에 걸쳐 조성된 유적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8, 『진주 안간리유적–집현–생비량간 국도확장공사 구간내 유적』.

Ⅱ지구 전경

Ⅱ지구 4호 목곽묘

Ⅲ지구 21호 주거지

출토유물

11

우수리 소가야묘군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359-29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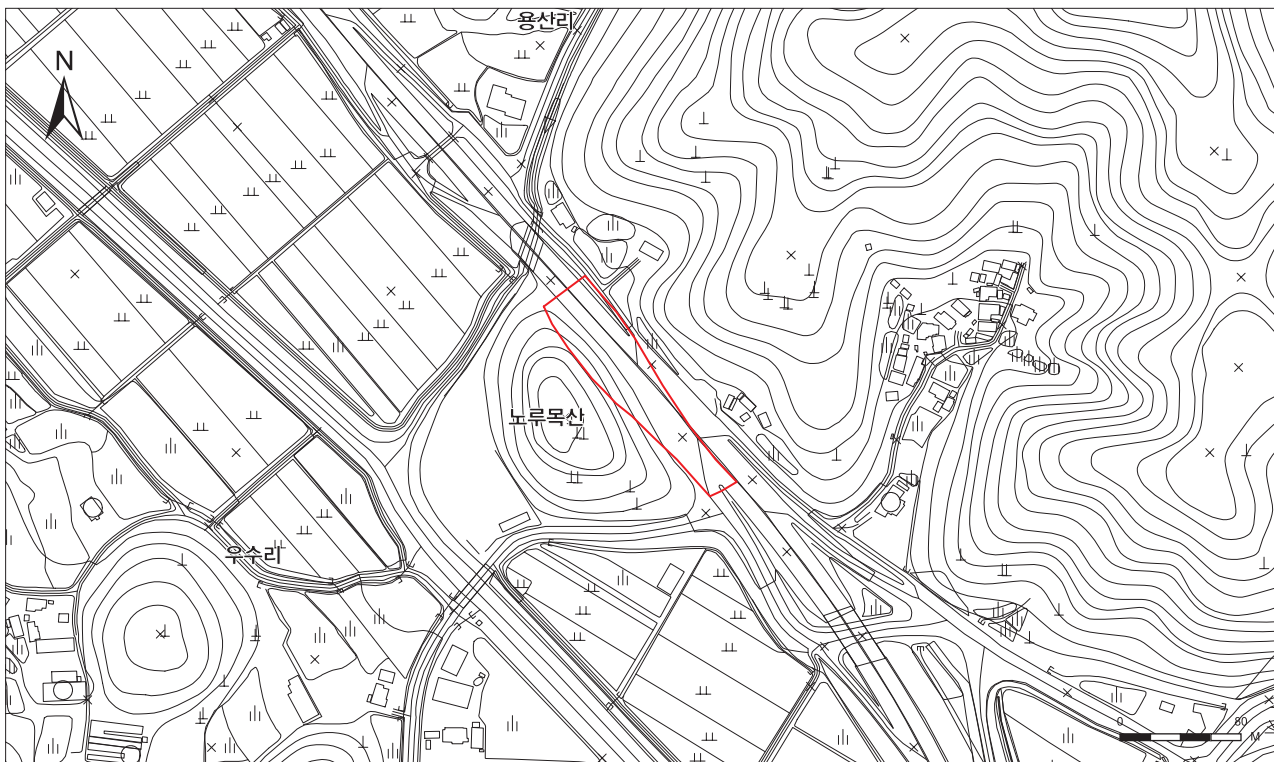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고고학연구소 /
1997.9.~1997.11.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
은제이식, 유개고배,
수평구연호, 개배

진주시 서부의 우수리 조비마을 남서쪽에 있는 무덤유적으로, 노루목산(해발 61.5m)의 동사면과 북사면에 분포한다. 유적은 동쪽으로는 높은 산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서쪽으로는 우수천에 이르면서 비교적 넓은 충적지를 형성하고 있다.

1997년 진주~단성간 국토확포장공사로 인하여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삼국시대 목곽묘 8기, 석곽묘 6기가 확인되었다. 목곽묘와 석곽묘의 장축방향은 동-서향으로 등고선과 나란하게 축조되었으며, 해발 50m를 기준으로 정상부에는 목곽묘가, 하단부에는 석곽묘가 상하로 구분되어 조성되었다.

목곽묘는 평면 말각장방형의 묘광내부에 장방형의 목곽을 설치하고 보강토를 채워 축조하였으며, 묘광의 규모는 4㎡ 이하로 중소형급에 해당하고 바닥 전면에 시상을 깐 유구는 4·6호의 2기이며, 나머지는 생토면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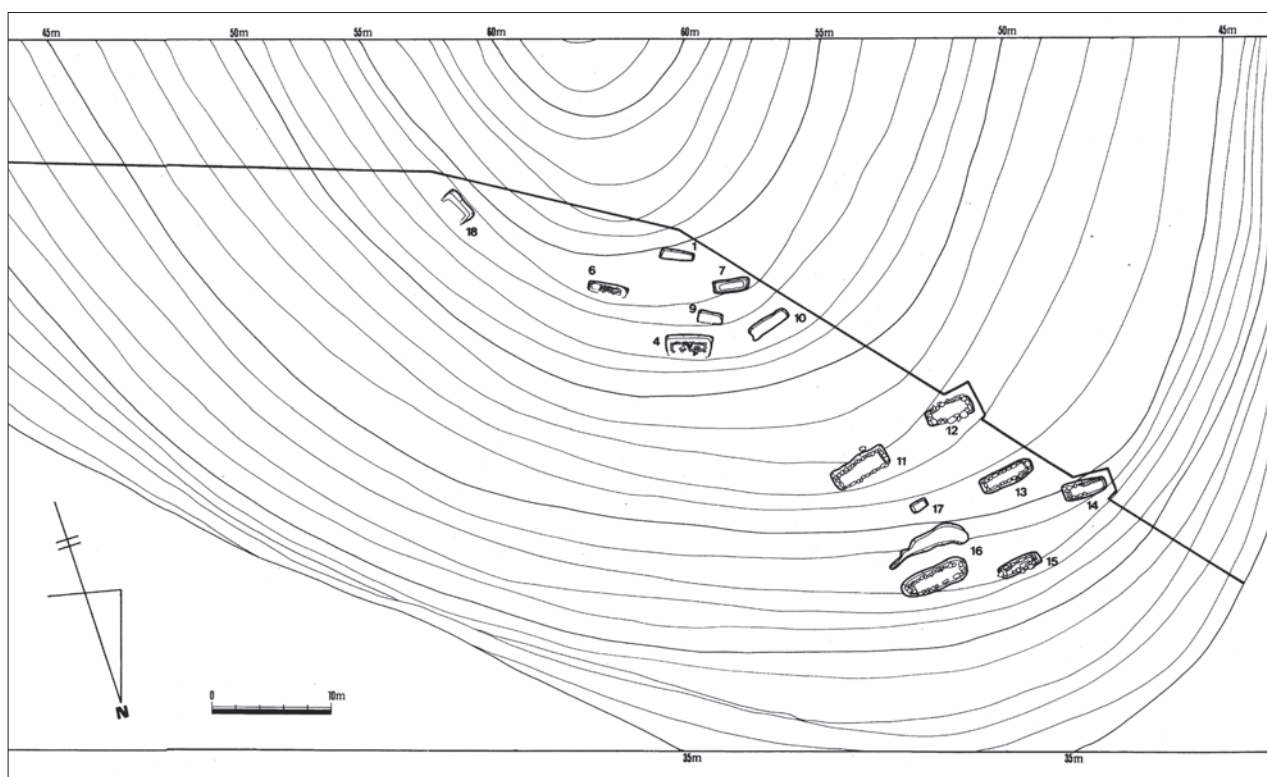
석곽묘는 평면 말각장방형의 묘광내부에 세장방형의 석곽을 축조하였으며, 묘광의

유적 위치도

규모는 4.3~9.8㎡ 정도로 대형급에 해당하고 대부분 최하단석을 수적한 후 2단부터 평적하는 구조로 축조하였다. 시상은 별도의 시설 없이 상면을 활용하였고, 16호에서만 주구가 확인된다.

출토유물은 소가야양식의 삼각투창고배, 일단장방형투창고배, 수평구연호, 발형기대, 철부, 철촉 등이 확인되어 4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대에 걸쳐 형성된 유적으로 판단된다.

우수리고분군은 목곽묘에서 석곽묘로의 묘제의 변천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두 묘제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확연히 달라 긴시간에 걸쳐 조성된 고분군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경남고고학연구소, 1999, 『우수리 소가야묘군-진주~단성간 국토확포장 공사 구간 내 유적-』.

유구 배치도

16호 석곽묘

출토유물

12

진주 내촌리고분군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내촌리 641-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양대학교 박물관 / 1997.12.~19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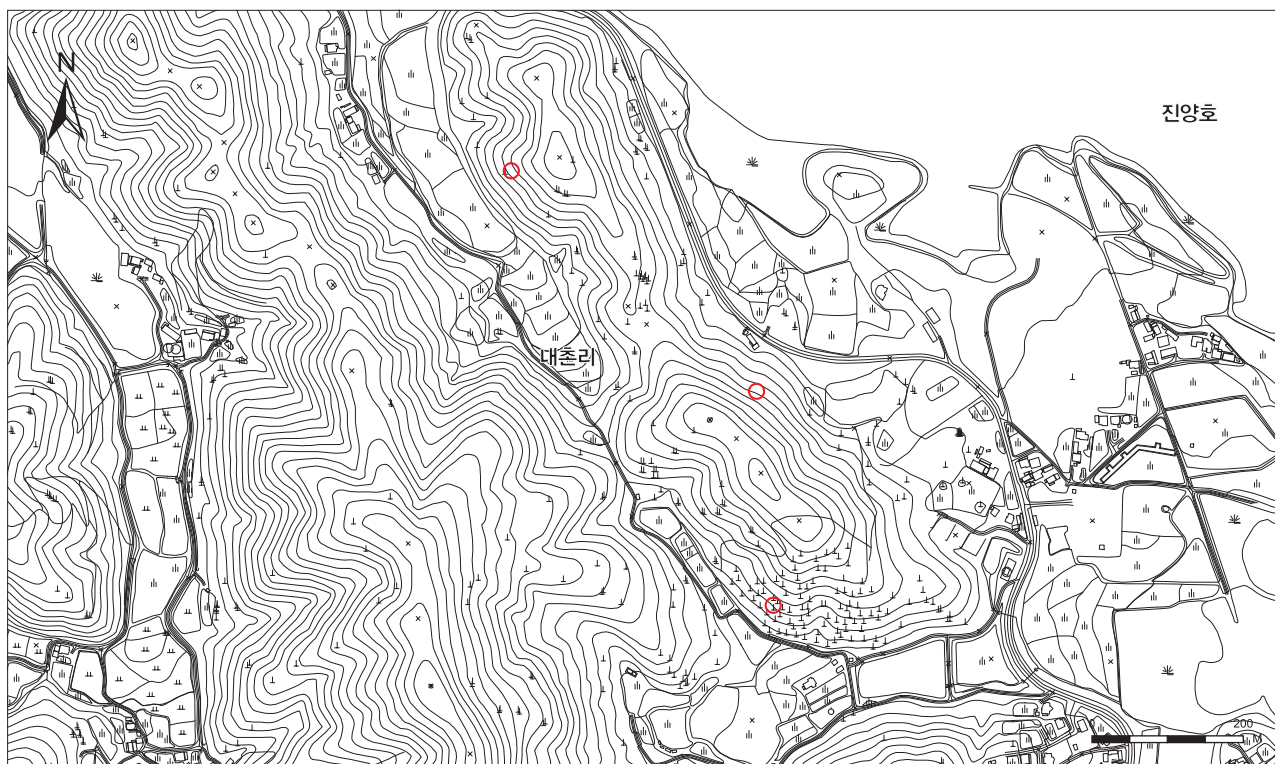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식석관 / 고배, 단경호, 철촉

진주시 서부의 내촌리 안말마을 서북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진양호의 서편 평탄대지에 분포한다. 유적의 북쪽은 진양호와 접하고 있으며 안말~마당재를 잇는 농로와 연접한 서북쪽 평지상의 낮은 구릉에 형성되어 있다.

1997년 남강댐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한양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3지구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유구는 Ⅱ·Ⅲ지구에서 확인되었다. 확인된 유구는 삼국시대 수혈식석관 15기이다.

수혈식석관은 규모가 3.0㎡ 내외이고, 평면 형태가 'ㅍ'자형을 띠고 있으며 청동기시대 석관묘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판단된다.

Ⅱ지구의 유구 배치 현황은 Ⅱ-5호와 부곽인 Ⅱ-7호 석관을 중심으로 다른 석관들이 둘러져 있는 배장의 형태이고, Ⅲ지구는 능선의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

Ⅲ-4호 석관은 횡구식으로 추가장이 확인되었다.

유적 위치도

참고문헌

한양대학교 박물관, 1999, 『진주 내촌리 고분군 유적-남강댐 수몰지구 내-』.

유물은 단경호와 광구소호, 고배류 등의 토기유물과 철촉, 철겸 등의 철기류가 있다. 묘제의 형식과 출토유물의 특징으로 봤을 때 5세기 전반대에 형성된 유적으로 판단된다.

유적 원경

2-5호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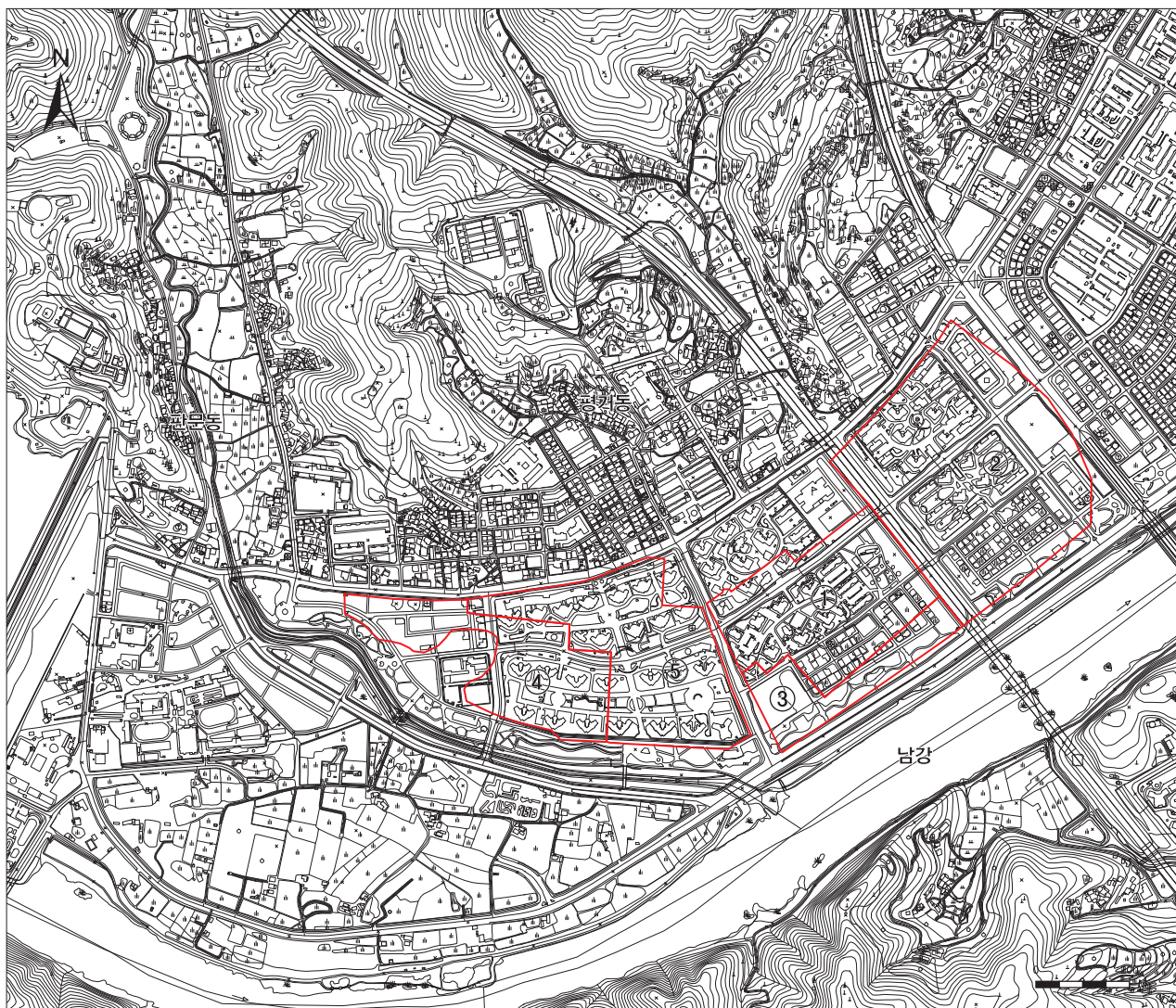
13

진주 평거동유적
晋州 平居洞遺蹟

조사지역이 위치한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은 진주시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류하던 남강이 북동쪽으로 곡류하기 시작하는 곳으로, 북쪽은 완경사의 구릉지대이고, 남으로는 남강에 인접한 하안 충적대지로, 서쪽에 남강댐이 인접하여 있다.

평거동 일원은 남강변의 비옥한 충적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거주·생산지역으로, 진주 도심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2000년대 이후 급속히 도시개발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평거 4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각각 '평거 3택지 개발사업', '평거 4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각각의 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구제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평거 3택지 개발사업부지는 크게 3-Ⅰ·Ⅱ지구로 구분되고, Ⅱ지구는 다시 2개 구역(Ⅱ-1·2구역)으로 세분되는데, 각각의 구역에 대한 발굴조사는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3-Ⅰ), 경남문화재연구원(3-Ⅱ-1),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3-Ⅱ-2) 등 3개 기관이 나누어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 결과 구석기문화층을 비롯해 신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마을, 농경지, 무덤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취락유적이 조사되었다.

평거 4지구 역시 Ⅰ·Ⅱ구역으로 크게 나뉘어,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Ⅰ구역)과 동서문물연구원(Ⅱ구역)에서 각 구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4-Ⅲ구역이 추가됨에 따라 Ⅰ구역을 조사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해당 구역까지 조사를 담당하였다. 발굴조사 기간은 Ⅰ·Ⅱ구역의 경우 2009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Ⅲ구역은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발굴조사 결과 3지구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경작유구를 비롯하여 주거지·무덤 등 신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다.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진주 평거동유적 -진주 평거 3택지 개발사업지구(2지구) 내 유적	경남문화재연구원	1차 2005.2.~2006.8. 2차 2006.12.~2009.1.	진주 평거동 유적Ⅰ~Ⅲ 진주 평거 3택지 개발사업지구(2지구)(2010~2012)
2	진주 평거동유적 -진주 평거 3택지 개발사업지구(3-1지구) 내 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1차 2005.2.~2006.8. 2차 2006.11.~2009.2.	진주 평거 3택지 개발사업지구 내 진주 평거동 3-1지구 유적Ⅰ~Ⅵ(2011)
3	진주 평거동 한전유적 -3지구 Ⅱ-2 지역 내 유적	동아세아 문화재연구원	2007.1.~2008.3.	진주 평거동 한전 유적(3지구 Ⅱ-2지역 한전)(2010)
4	진주 평거 4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Ⅱ구역) 내 유적	동서문물연구원	2009.4.~2010.6.	진주 평거 4지구 Ⅱ지역 유적 -진주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Ⅱ구역) 유적(2012)
5	진주 평거 4-1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4.~2010.6.	진주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진주 평거 4-1지구 유적(2012)

13-1

진주 평거동유적 _ 진주 평거 3택지 개발사업지구(2지구)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53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1차 2005.2.~2006.8.
2차 2006.12.~2009.1.

주요 유구 / 유물
야외노지, 주거지, 밭 /
석기, 토기, 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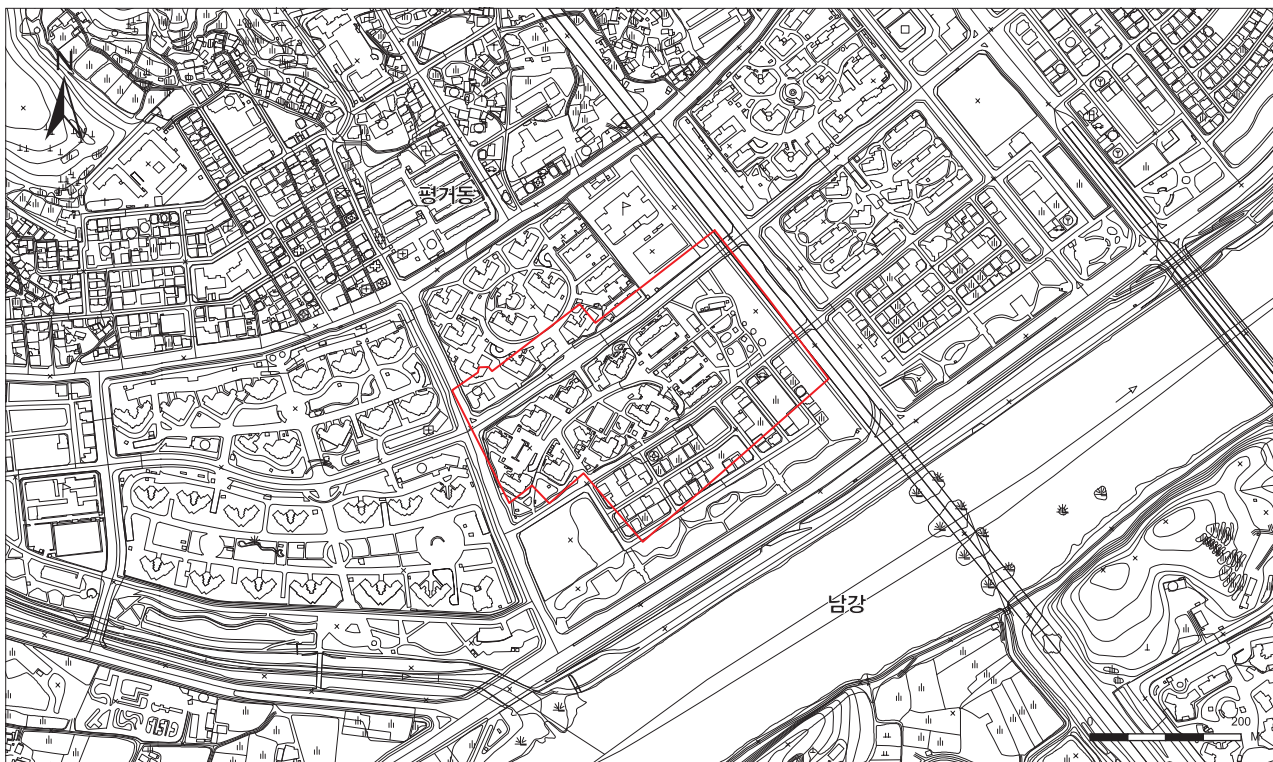
본 유적은 남강이 북동류하는 지점의 하안 충적대지에 입지하고 있다. 조사지역 남단에서 북쪽으로 200~350m 사이는 자연제방대로, 그 북쪽은 배후저지이고, 남쪽은 광범위한 사주가 형성되어 있다. 발굴조사에서는 신석기시대 유물포함층,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및 매장유구, 삼국시대 취락유적, 청동기시대~조선시대 밭 등이 확인되었는데, 중앙의 자연제방에는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취락 관련 유구들이 밀집 분포하며, 남쪽에는 경작유적이 주로 분포하는 양상이다.

이 중에서 삼국시대 취락은 수혈건물지 137기, 지상식건물지 45기, 수혈유구 19기, 구상유구 8기, 주혈군 2개소 등 총 211기와 제연제방을 따라 길게 조성된 밭이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취락은 동-서 약 200m, 남-북 150m의 타원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구는 자연제방과 직교하는 남-북향을 장축방향으로 조성되었으며, 다수의 수혈주거지가 상호 중복된 상태이다.

유적 위치도

유적 전경

취락의 구조는 마을의 공동시설로 추정되는 대형의 타원형 지상식건물지와 그 동쪽의 공지(광장)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공동시설과 광장의 동쪽으로는 수혈주거지가 밀집 분포하고 있어, 주거지역으로 추정되고, 대형 수혈건물지 주변에는 일부 지상식건물지도 배치되어 있다. 북쪽·남쪽·서쪽에는 고상창고로 추정되는 지상식건물지가 자연제방과 직교하는 남-북 방향으로 열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남·북쪽 고상창고군 사이에는 남-북으로 진행하는 구상유구가 8기 확인되었는데, 각 구상유구 사이 길게 이어진 공간이 취락 내 교통로로 추정되며, 이는 자연제방 남사면의 경작지로 이어지고 있다.

삼국시대 취락의 조성시기는 출토된 유물 중 고배, 단경호, 장동옹 등 주요 기물의 형식으로 볼 때, 3세기 후반~4세기 중반 경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10, 『진주 평거 3택지 개발사업지구(2지구) 진주 평거동 유적Ⅰ』.

경남문화재연구원, 2011, 『진주 평거 3택지 개발사업지구(2지구) 진주 평거동 유적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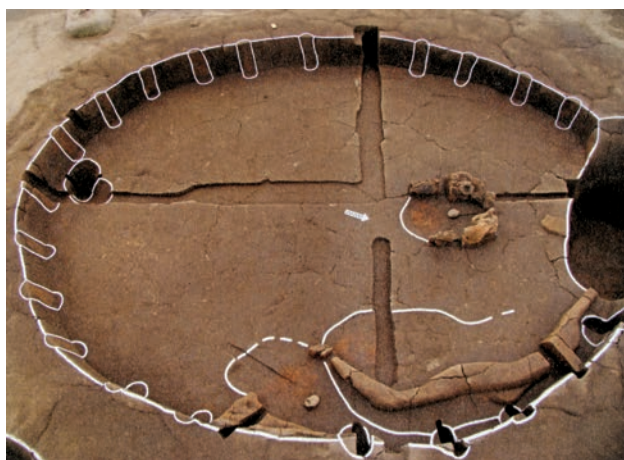
경남문화재연구원, 2012, 『진주 평거 3택지 개발사업지구(2지구) 진주 평거동 유적Ⅲ』.

수혈건물지 중복모습

수혈주거지 중복모습

20-1호 수혈건물지

32호 수혈건물지

13-2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25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1차 2005.2.~2006.8
2차 2006.11.~2009.2.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논, 밭, 도로 /
석기, 토기, 철기

진주 평거동유적 _ 진주 평거 3택지 개발사업지구(3-1지구) 내 유적

진주 평거 3-1지구 유적은 남강에 의해 퇴적된 충적대지와 배후 구릉의 말단부 끝자락에 입지하고 있는데, 발굴조사 결과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다. 유적 조사는 A지구(구릉쪽)와 B지구(강쪽)의 2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A지구는 생활공간+생산공간(논), B지구는 생산공간(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삼국시대 유구는 자연제방과 배후습지 전역에서 확인되지만, 일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유구는 수혈주거지, 고상건물지, 구, 수혈, 소성유구, 도로유구, 논, 밭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평면형태에 따라 크게 (타)원형계와 방형계로 구분되며, 대부분 화재 주거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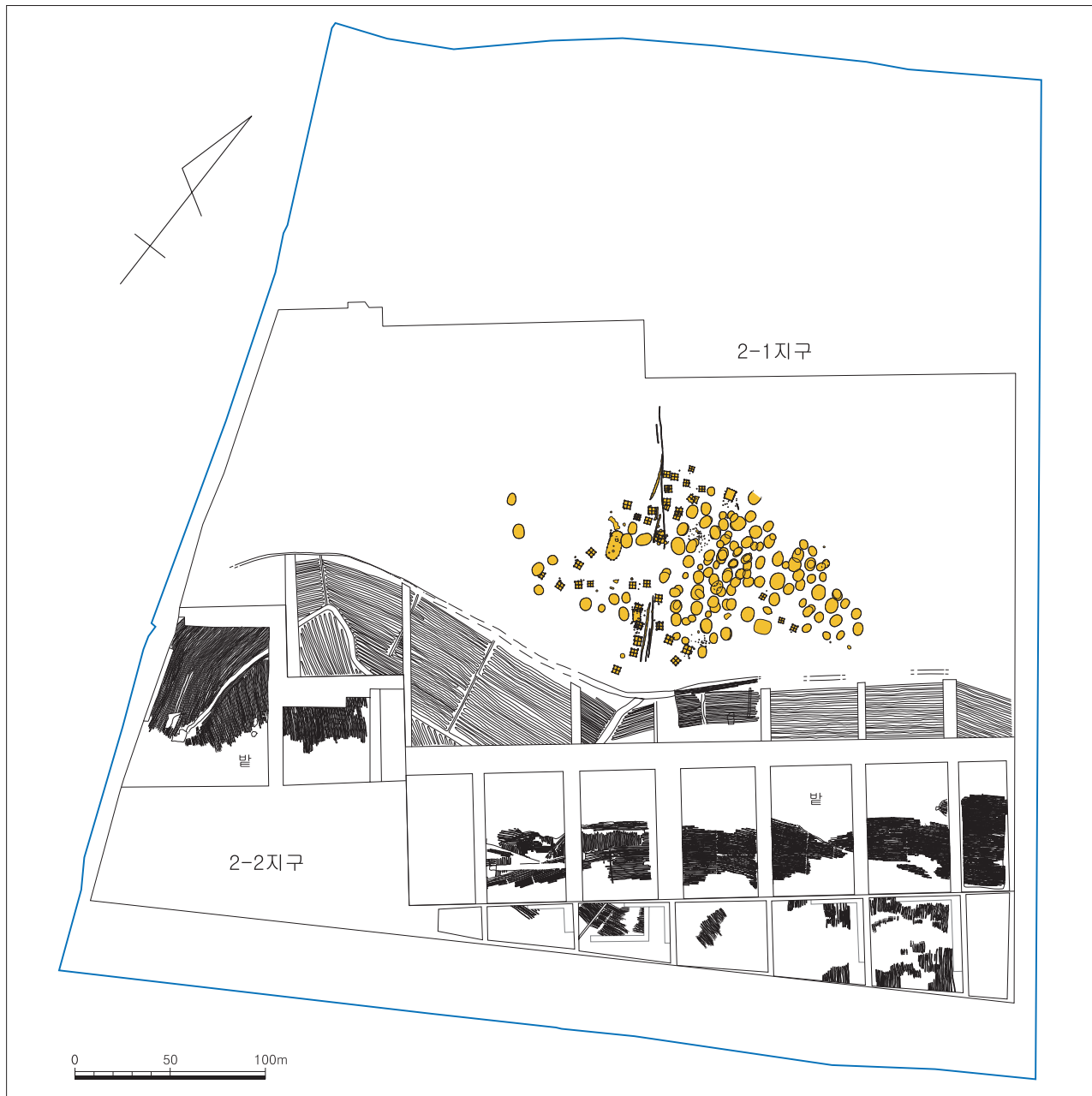
주거지의 분포는 (타)원형계 주거지는 자연제방의 동쪽 상면에 밀집 분포하며, 방형계 주거지는 자연제방의 동쪽 사면과 거기서 남쪽 사면으로 이어지는 구간, 그리고 자연제방의 서쪽 사면 등 3군으로 나뉘어 분포하고 있다. 내부시설은 부뚜막, 고래, 출입구

유적 위치도

시설, 단시설, 수혈 및 주혈 등이 있다. 유물은 (타)원형계 주거지는 옹, 장동호, 양이부호, 시루, 파수부토기, 고배, 국자, 잔, 지석, 철기 등이 출토되었고, 방형계 주거지는 옹, 광구소호, 시루, 고배 등이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논은 청동기시대 논과 같은 지역에 입지한다. 논은 크게 1층과 2층으로 나뉘며, 1층은 다시 3개층으로 구분된다. 모두 계단식논이며, 기능면에서는 논둑, 수구, 쟁기흔, 작물 재배흔, 사람 발자국, 소 발자국 등 다양한 흔적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1-① 층에서는 논과 밭을 전환하여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논경작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 『진주 평거 3택지 개발사업지구 내 진주 평거동 3-1지구 유적 Ⅰ~Ⅵ』.

유구 배치도

삼국시대 Ⅰ-①층 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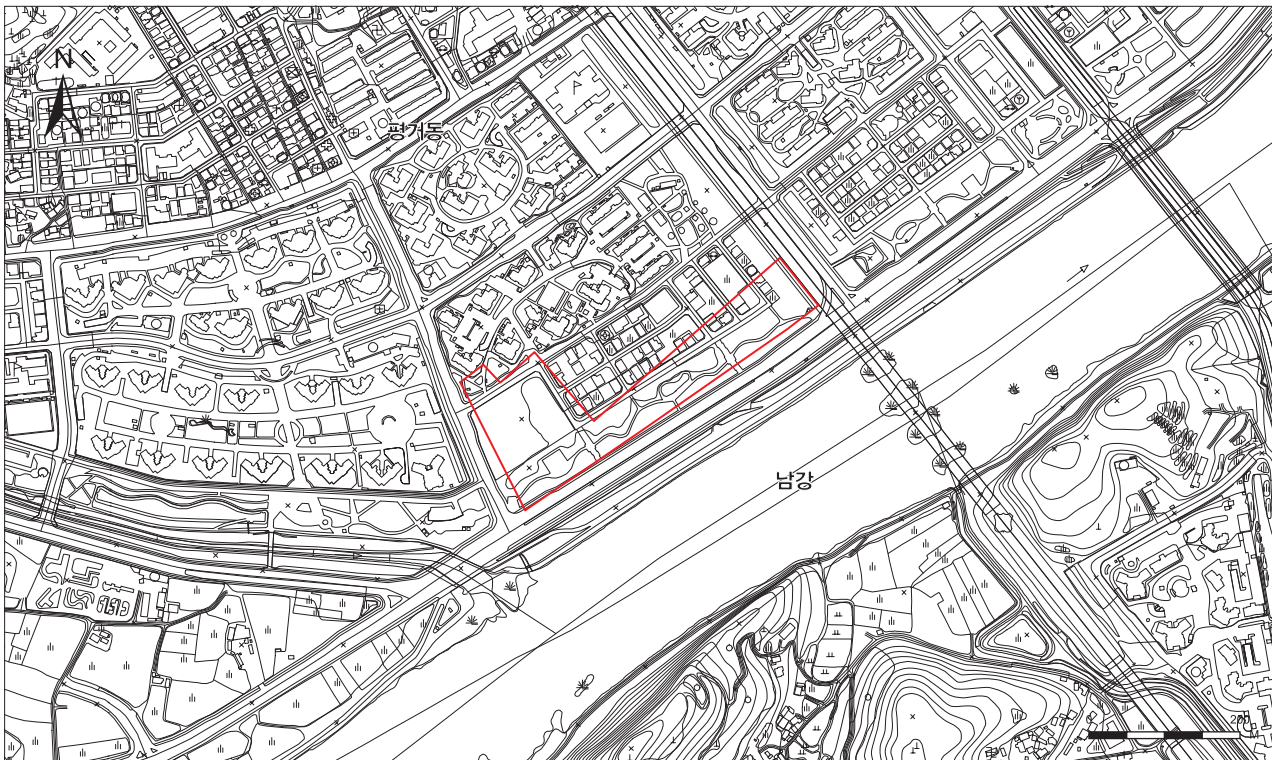
삼국시대 밭

13-3 진주 평거동 한전유적 _ 3지구 Ⅱ-2지역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628-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07.1.~2008.3.
주요 유구 / 유물
밭 / 토기 편, 자기 편

조사대상지역은 진주시 평거동 628-2 일대로,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추진중인 진주 평거 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다. 사업 시행지역에 대해서 2001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동기시대 취락 및 분묘, 삼국시대 취락과 관련 유구 등이 확인된바 있는데, 이후 2004년 경남발전연구원과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연합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지석묘, 삼국시대 취락, 청동기시대~조선시대 경작과 관련된 논·밭 등의 유구가 대규모로 확인되었다.

이에 진주 평거 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일부 구간(Ⅱ-2구역)의 발굴조사를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분담하게 되었다.

조사대상지역은 A·B지구로 나뉘는데, 피트별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고려·조선시대에 걸친 12개소의 밭 층과 구 1기·불명 소형 수혈군1개소·조선시대 가마 1기·자연구 1기가 조사되었고, B지구에서는 삼국시대 밭 1개층과 통일

유적 위치도

신라시대 밭 3개층, 조선시대 밭 1개층이 조사되었다.

A지구의 삼국시대 밭은 청동기시대 밭이 폐기된 이후 측방퇴적으로 조립질의 사질토가 퇴적되고, 간헐적인 범람으로 퇴적된 유기질이 풍부한 암갈색사질점토를 모재층으로 조성되었다. 잦은 범람으로 인해 굴곡이 심한 지형에 사질점토가 퇴적되면서 점차 미고지와 미저지가 평탄화된 단계로 밭 11층~8층의 경작유구가 삼국시대 밭에 해당한다.

B지구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밭은 1개층이다. 밭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동-서로 조성되거나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남동-북서향으로 조성되었으며, 동-서향으로 조성된 밭은 B지구 서쪽, 남동-북서향으로 조성된 밭은 B지구 동쪽에 분포하고 있다. 조사된 밭은 대부분 이랑의 길이가 길고, 평면형태가 직선형을 이루나, 부분적으로 이랑의 너비보다 두둑의 너비가 넓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두둑면에서는 탄화된 보리가 소량 검출되었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0, 『진주 평거동 한전 유적(3지구 Ⅱ-2지역 한전)』.

유적 전경

삼국시대 밭

13-4 진주 평거 4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II구역)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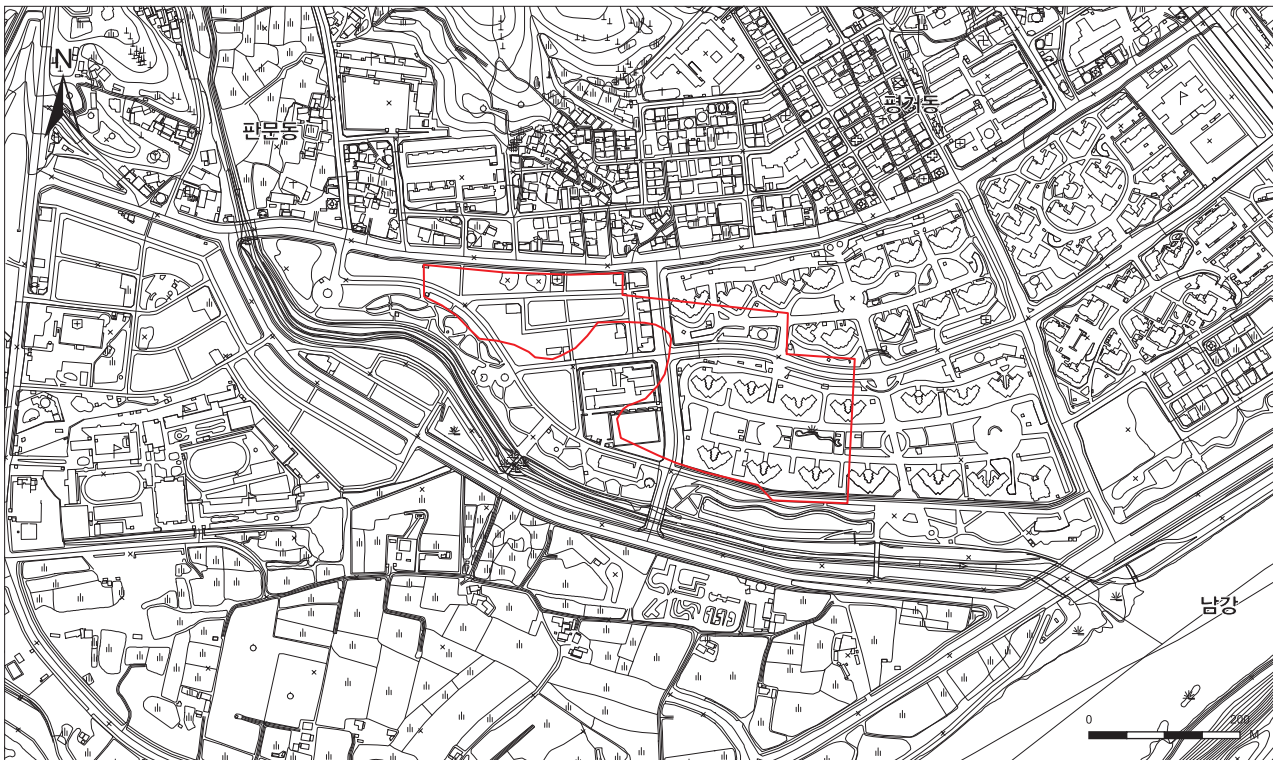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646-4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09.4.~2010.6.

주요 유구 / 유물
밭, 도로 / 토기 편,
자기, 기와 편

진주 평거 4지구 Ⅱ구역 유적은 곡류하는 남강 안쪽의 충적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발굴조사에서 신석기시대의 야외노지 2기와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19기·수혈유구 101기·구상유구 22기·함정유구 24기, 그리고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의 경작유구(밭) 등이 확인되었다.

이 중 삼국시대의 유구는 밭과 도로이다. 밭은 가구역 동쪽에서 1개면이 확인되었는데, 밭이 조성된 위치는 자연제방 후사면의 평탄면으로, 밭 북쪽은 교란으로 인해 잔존상태가 불량하다. 밭의 남쪽은 도로유구와 중복되어 노출되었는데, 도로가 밭의 일부를 파괴하였다. 이랑의 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며, 밭 상부는 하천 범람에 의해 모래가 두껍게 퇴적되어 있었다. 유물은 어망추만 1점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도로는 가구역 동남쪽에서 동-서 방향으로 노출되었는데, 인접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조사지역(평거4지구 Ⅰ구역) 내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이다. 도로면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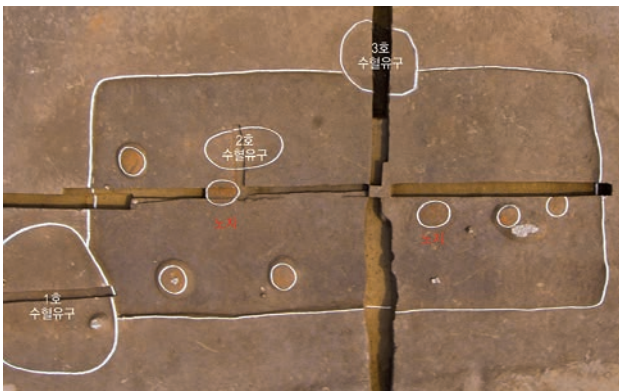
에서는 수레바퀴 흔적이 동-서 방향으로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동쪽에서 넓어지다가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 폭이 좁혀지는 형태이다.

수레바퀴 자국의 단면은 'U'자형으로, 폭은 10~20㎝, 깊이는 5~20㎝이다. 골 내부에는 산화철과 산화망간이 집적된 명황갈색사질실트가 퇴적되어 있으며, 바닥은 점성이 강한 실트가 회색으로 환원되어 있었다. 바퀴 간격은 무질서하게 나타나고 있어 명확히 알 수 없으며, 도로의 잔존 길이는 58m, 너비는 9m 내외이다.

한편, 자연제방 후사면의 평탄면인 가구역과 전사면인 나구역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밭도 조사되었으며, 지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는 대부분 후대 경작으로 경작층 자체가 파괴되어 정확한 분포 양상은 알 수 없었다. 유물은 고배, 개, 완, 기와 등이 소량 수습되었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2, 『진주 평거4지구 II구역 유적-진주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II지구)유적-』.

유적 전경

1호 주거지

7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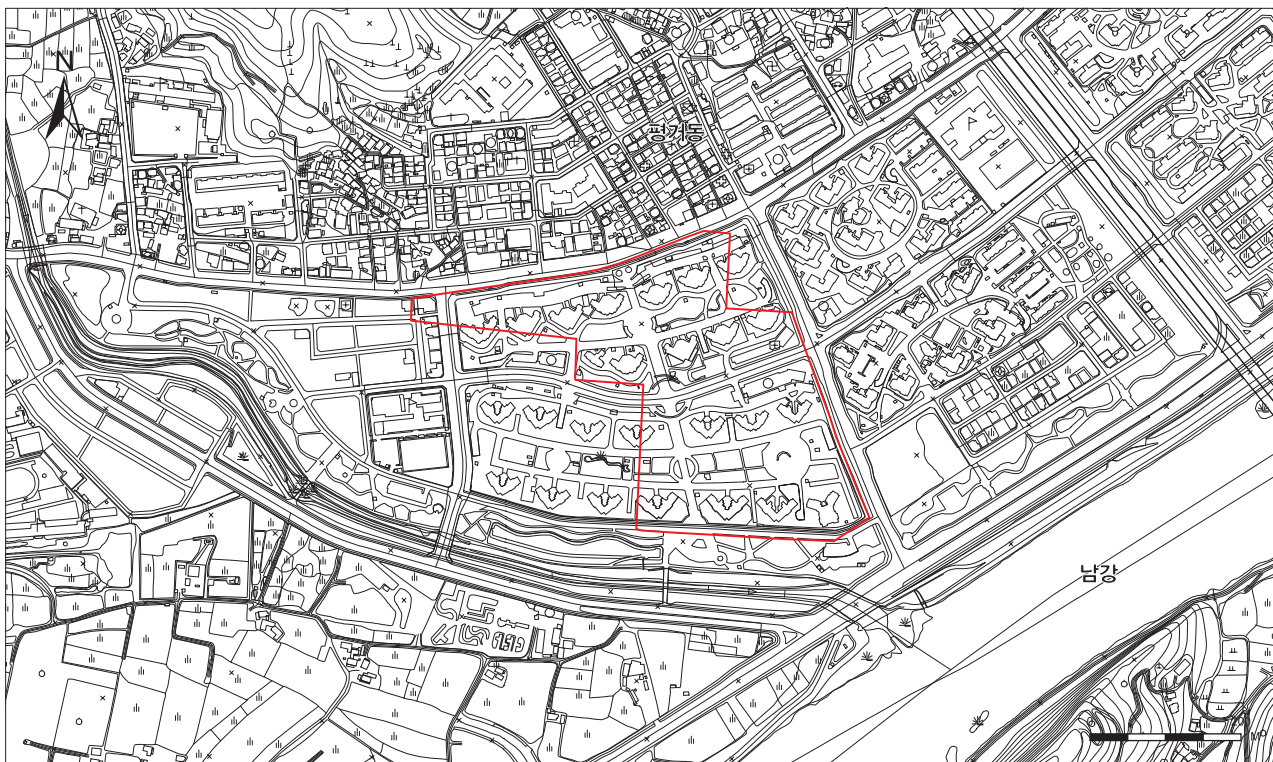
13-5 진주 평거 4-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646-4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9.4.~2010.6.

주요 유구 / 유물
취락, 논, 밭, 도로 /
토기, 자기, 기와 편

진주 평거 4-1지구유적은 경작유구(논과 밭)가 중심된 대규모 복합유적으로, 신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다. 또한, 하천퇴적지형인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배후저지)에 주로 입지하고 있어 지형변화에 따른 유구의 입지관계가 잘 나타난다. 전체적인 유구의 배치양상을 보면 자연제방의 상면을 중심으로 생활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며, 자연제방의 사면과 배후습지에 생산공간(논과 밭)이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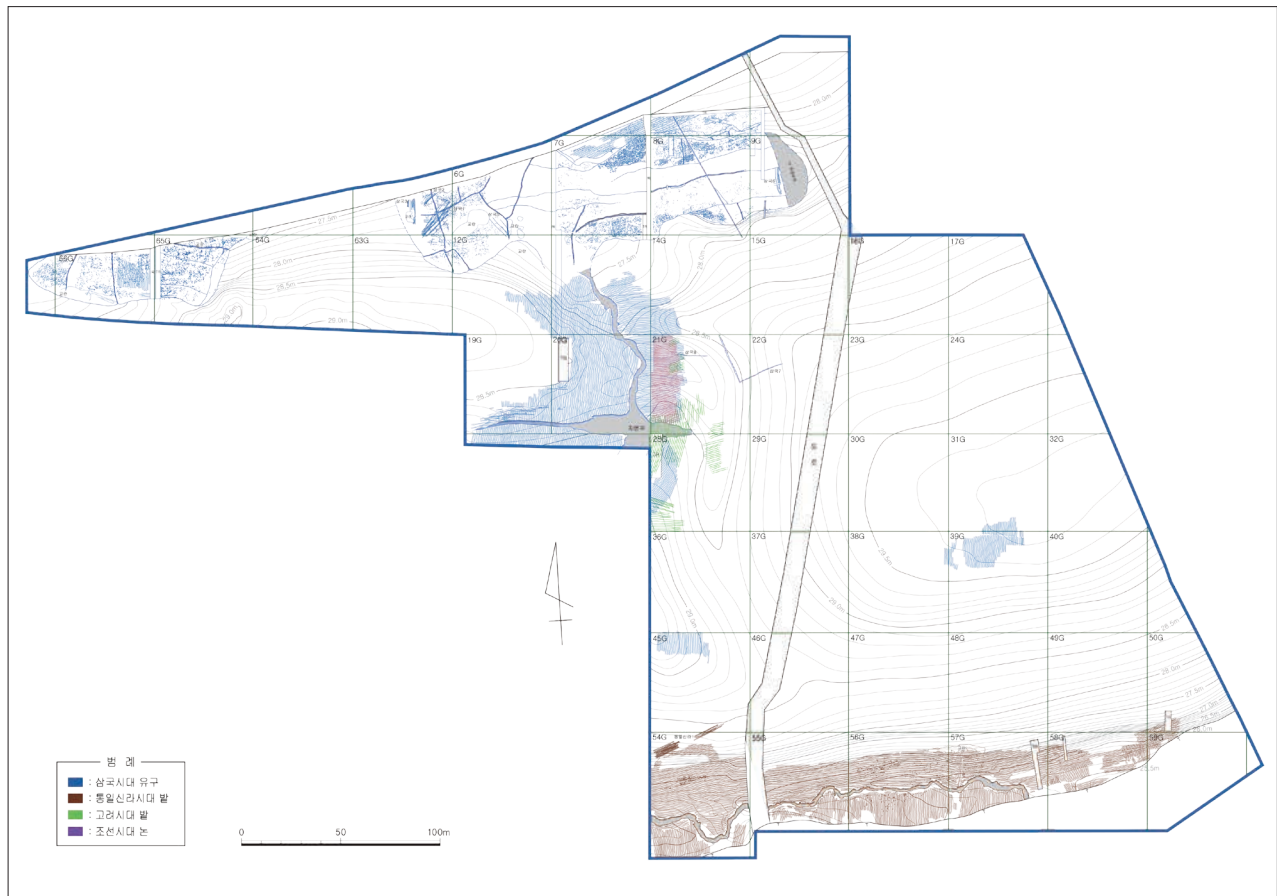
유적 내에서 본격적인 경작활동은 청동기시대 중기부터 시작된다. 지형은 안정화 되었지만 아직 초기의 세부지형 모습이 남아있어 지형 굴곡이 심한 편이다. 논은 배후습지에 입지하며 2개층이 확인된다. 논은 모두 구획논으로 1층 논은 배후습지 전범위에 조성되었다. 밭유구는 자연제방 상면을 제외한 남-북 미고지 사이와 상면의 서쪽 끝부분에서 시작되는 완사면에 넓게 분포한다. 이랑 방향은 주로 북서-남동이나 지형에 따라 다양하게 조성된다. 청동기시대의 경작유구는 토질 및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적 위치도

계획성을 가지고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지형적·환경적 변화요인들이 산재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밭 출토곡물은 보리, 밀, 팥, 콩속 등이다.

삼국시대는 논 2개층, 밭 1개층, 구 2기, 도로유구 6개소, 통일신라시대는 밭 4개층, 도로유구 1개소, 고려시대는 밭 1개층이다. 특히 삼국시대는 유적 일원의 지형적 평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로, 자연제방이 확대되고 배후습지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 삼국시대로 들어서면서 논은 모두 계단식 논으로 형태가 변화하며, 밭은 배후습지나 구하도 같은 용수확보가 용이한 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된다. 밭 출토곡물은 벼, 보리, 밀, 조, 기장, 콩속 등이다.

통일신라시대는 논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밭은 자연제방의 전사면에서 3개층이 확인된다. 각 경작층이 홍수범람에 의해 폐기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환경적 변화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충적지 전체를 경작지로 활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밭 출토곡물은 벼, 조 등이다. Ⅲ단계는 대규모의 퇴적활동으로 현재와 같은 평탄한 지형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고려시대부터는 대규모의 경작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대의 지속적인 경작활동과 환경적 변화로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다. 고려시대 밭 출토곡물은 벼, 보리, 밀, 조, 기장, 팥 등이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2, 『진주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진주 평거 4-1지구 유적』.

4-1지구 유구 배치도

14 진주 이현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69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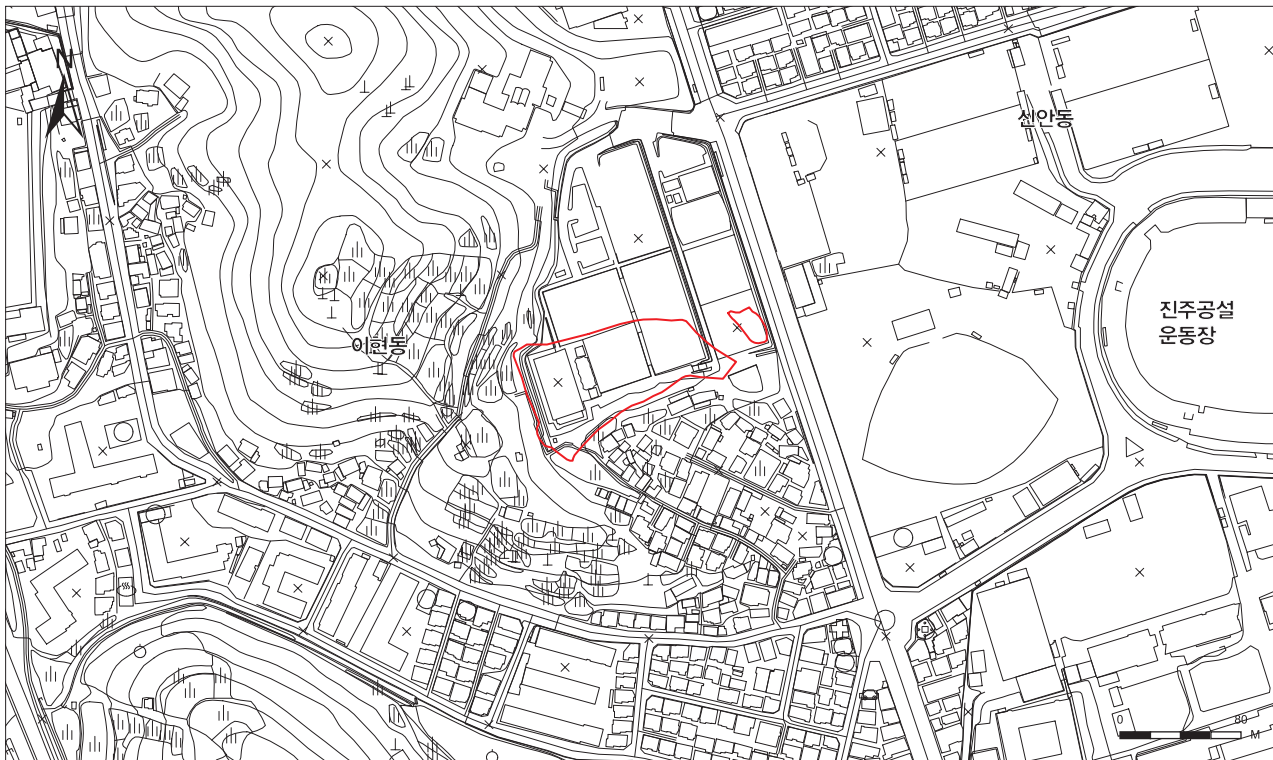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삼강문화재연구원
/ 2009.9.~2010.1.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고상건물지, 목곽묘, 옹관묘 / 고배, 단경호, 컵형토기, 광구소호

조사지역은 집현산(해발 572.2m) 및 광제봉(해발 347m)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연봉 중 진주평야와 접한 소구릉에 위치한다. 동쪽에는 진주시 명석면 신기리에서 발원하여 곡저평지를 따라 흐르다가 진주평야의 서쪽을 관통하여 남강으로 유입되는 나불천이 있다.

조사지역의 서쪽에는 연봉의 잔구에 해당하는 해발 80m 내외의 저지성 구릉이 있다. 구릉에는 두 개의 정상부가 남-북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3개의 지릉선이 나불천 방향으로 각각 뻗어나와 있는데, 이 중 중앙의 지능선과 이들 사이에 형성된 곡간지의 안쪽이 조사지역에 해당한다.

진주 이현동유적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1기·고상건물지 7기·목곽묘 6기·옹관묘 1기,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3기·수혈 6기·삼가마 1기·토광묘 379기·옹관묘 1기 등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의 취락 및 매장유구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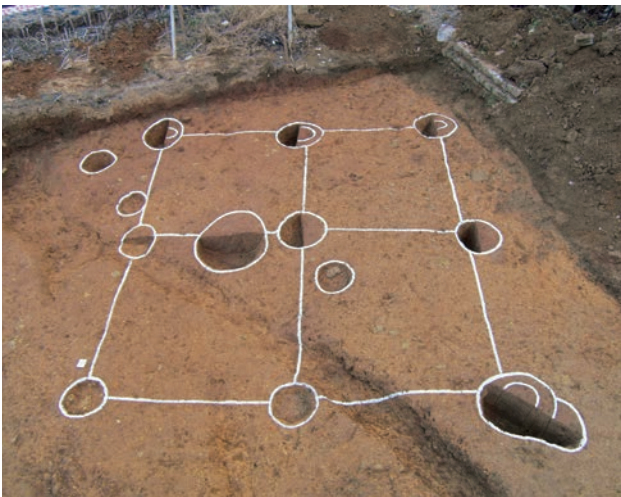
삼국시대 수혈주거지는 구릉의 남사면(C구역 남단 중앙부)에서 1기 확인되었다. 잔

유적 위치도

존 규모는 길이 2.3m, 깊이 20㎝로, 진주 평거동 유적·사천 봉계리 유적·산청 하촌리 유적 등 앞서 조사된 서부경남지역 삼국시대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장벽에 연접한 고래 시설을 갖춘 형태이나 중복과 삭평으로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경사면 아래쪽에 있는 남벽은 유실되었으며, 남쪽 부분은 바닥 부분만 남아 있다. 잔존부의 형태로 보아 평면 형태는 타원형일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의 북벽과 동벽을 따라서 고래의 바닥홈으로 판단되는 단면 'V'자 형태의 구가 돌려져 있다. 동벽쪽 구에는 소형 기둥구멍이 있으며, 북벽 서쪽의 구에는 상부에서 고래 벽체로 추정되는 흑색점토가 괴상으로 노출되었다. 바닥 서쪽에서는 아궁이로 추정되는 소결흔이 관찰되며, 상부에서는 파손된 연질옹 한 개체가 점토 및 피열된 할석과 뒤섞여 노출되었다.

고상건물지는 구릉 서쪽의 곡간지에서 약 7기가 확인되었다. 건물은 곡간지의 중앙부를 따라 분포하는 양상으로, 구조는 1×1칸, 2×1칸, 2×2칸 등이 혼재되어 있다. 규모는 길이 1.9~4.1m, 너비 1.7~3.9m 내외로, 면적은 1×1칸 3.2~6㎡, 2×1칸 7.4~8.7㎡, 2×2칸 13.3~16㎡이다. 건물지의 형태는 기존에 발굴된 삼국시대 취락의 고상건물지와 동일하나 유적의 일부만 발굴된 상태이므로, 취락의 구조는 명확히 알 수 없다.

한편, 구릉 주능선과 남쪽 사면 일부 구역 내에서 삼국시대 목곽묘 5기 및 옹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 목곽묘는 세장한 형태로, 바닥면 양쪽 끝에는 토기와 철기가 부장되어 있었다. 유구 바닥면은 시상석 설치 여부에 따라 2종류로 나뉜다. 115·107호 목곽묘는 바닥에 시상석을 깔지 않았고, 62·86·130호 목곽묘에는 시상석이 깔려 있었다. 시상은 경사진 암반면에 점토를 깔아 수평을 맞춘 다음 자갈을 한 겹 깔아 조성하였다. 무덤에서 출토된 고배, 파배, 단경호 등 유물의 구성과 각 형식으로 볼 때, 삼국시대 목곽묘는 5세기 전엽 전후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삼국시대 취락과 분묘 외에도 이현동유적에서는 조선시대 주거지와 수혈, 토광묘 등이 조사되었는데, 먼저 주거지는 구릉 주능선에 2기, 남사면에서 1기가 확인되

336호 고상건물지

78호 수혈 건물지

62호 목곽묘

62호 목곽묘 출토유물

었다. 주거지는 일정하게 떨어진 곳에 단독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벽체시설 없이 간단한 아궁이나 수혈식노지만 있는 구조이다. 주거지 내부시설로 보아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용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접한 곳에 대규모의 조선시대 토광묘군이 조성되어 있어, 이 무덤들의 묘막지 등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토광묘는 구릉 남사면에서 379기가 확인되었다. 무덤의 구조는 목관묘 직장묘, 옹관묘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관묘에 비해 직장묘가 많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무덤이 축대시설 없이 단독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남사면 중위에 조성된 248·309·311호는 이혈합장묘로 암반을 얕게 굴착한 묘역에 3기가 인접해 있었고, 248·311호는 한쪽 장벽에 횡으로 구멍을 내어 서로 연결되는 특이한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참고문헌

삼강문화재연구원, 2012, 『晉州 二峴洞 遺蹟 –진주 이현 공원(체육시설지역) 조성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

15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375-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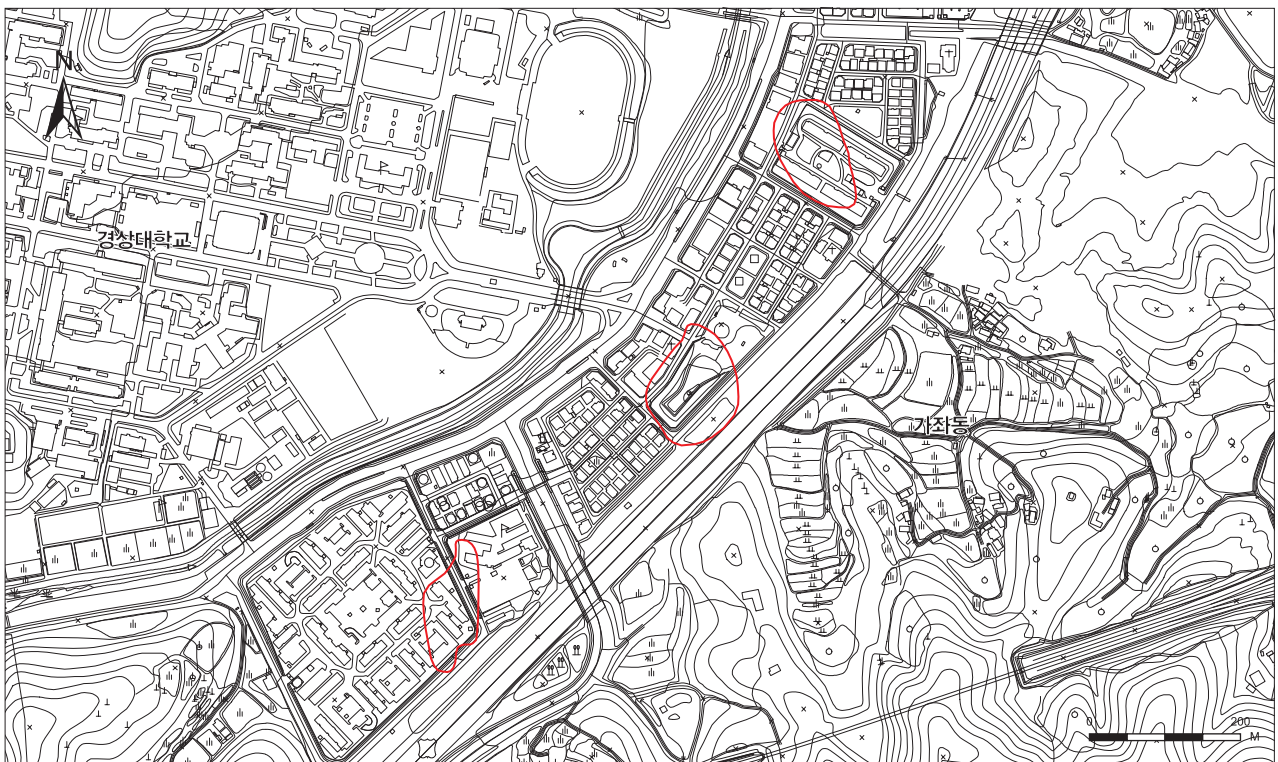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시굴
경남고고학연구소 /
2002.1.~2002.2.
발굴
경남문화재연구원 /
2002.4.~2003.4.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 타날문단
경호, 고배, 시루

진주 가좌동유적 _ 진주 가좌2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유적

진주 가좌2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진주 가좌동 유적(이하 진주 가좌동 유적)은 진주시청과 상평공단이 위치한 진주시 도심부를 끼고 곡류하는 남강의 남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진주시에서 사천시로 가는 국도와 남해고속도로 사이에 해당하는 곳으로, 유적은 무선산(해발 277.5m) 북단을 따라 분기한 해발 40m 내외의 저산성 산지 일원에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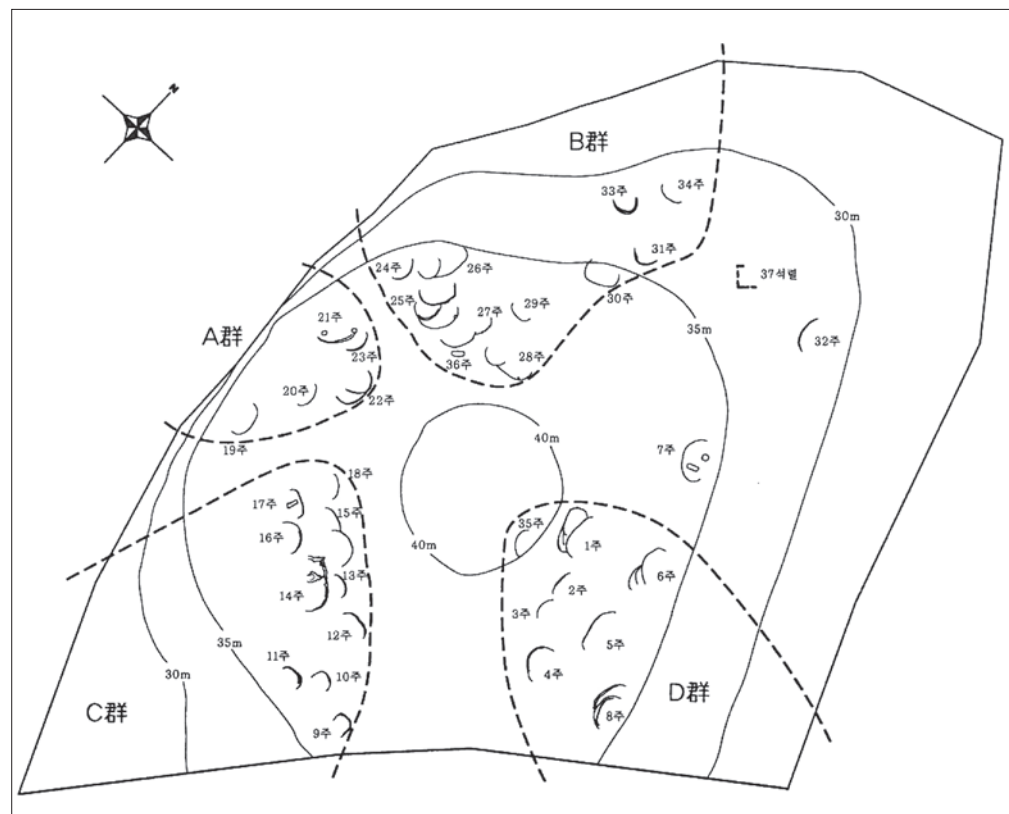
진주 가좌동 유적은 2002년 1월 경남고고학연구소의 시굴조사를 통해 삼국~조선시대의 주거지, 수혈유구, 수전지가 잔존한 복합유적으로 추정되었고, 이후 동년 4월부터 2003년 4월까지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2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47기 외 조선시대 수전, 시대 미상 수혈유구·석렬유구·석곽묘 등을 확인하였다.

이 중 삼국시대 수혈주거지는 1차 발굴조사지역 내 나구역에 밀집되어 있다. 각 주

유적 위치도

거지 상부는 구릉 경사면과 함께 삭평되어 기저부 일부만 남아 있었는데, 보고자는 주거지의 잔존 상태를 기초로, 평면 형태는 타원형이 다수이고, 원형이 소수 혼재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25-2·3호, 26-1·2호, 28-1·2호 등 주거지의 중복 상태로 볼 때, 평면 형태와 조성 시기 간 뚜렷한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벽을 따라 일주하는 벽구시설과 벽주혈이 조사되었는데, 벽구는 주거지 47기 중 30기, 벽주혈은 6기에서 확인되었고, 벽구와 벽주혈이 함께 노출된 경우는 5기이다. 벽구의 단면 형태는 'U'자형이며, 폭은 넓은 것과 좁은 것이 있는데, 기능적으로는 벽체를 세우기 위한 기초구나 배수구, 혹은 두 기능을 겸하는 시설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나지구에서 조사된 주거지는 소구릉의 정상부(해발 약 42m)가 아닌, 해발 30~40m 사이의 사면부에 조성되어 있는데, 이 주거지들은 약 4개(A~D) 군집을 이루며, 구릉의 정상부를 감싸듯이 배치되어 있다. 흔히 구릉의 정상을 기준으로 일조량이 풍부한 남쪽에 주거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본 유적의 주거지들은 구릉 전체에 군집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중심축도 각 군별로 달리 조성되어 있다.

이처럼 전체 주거지가 몇 개의 군집을 이루며, 구릉 정상부를 감싸듯 배치된 양상에 대해 보고자는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광장이나 집회 장소 등의 성격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지구 유구 배치도

그리고 일부 군집 사이 길게 이어지는 공백지에 대해 마을의 진출입로, 또는 거주민의 통행로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유물은 대부분 토기류이고, 철기도 소량 출토되었다. 토기는 장경호, 단경호, 발, 고배 등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1호와 5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평저단경호는 영남지방 보다 호남지방에서 그 출토예가 빈번한 것으로, 최근 섬진강, 경호강, 남강 일대의 취락에서 유사한 기형이 종종 관찰되고 있다.

또 7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회청색경질단경호는 구연부가 외반하고, 동체부는 상부가 강조된 형태로, 김해 예안리고분군과 출토품과 유사하며, 5·6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통형고배는 함안 도항리유적, 마산 근곡리유적 등에서 출토된 이른바 아라가야계 고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27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철촉은 김해 예안리유적과 동래 복천동유적에서 출토된 착두형철촉과 유사한 형식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토기와 철기 등 출토유물의 형식으로 볼 때, 유적의 존속 시기는 4세기 전후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진주 가좌동유적은 삼국시대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점이적 위치인 진주지역에 조성된 취락 유적으로, 유물의 구성 및 제반 속성에서 고대 백제와 가야지역의 특성이 혼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05,『진주 가좌2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진주가좌동유적』.

유적 전경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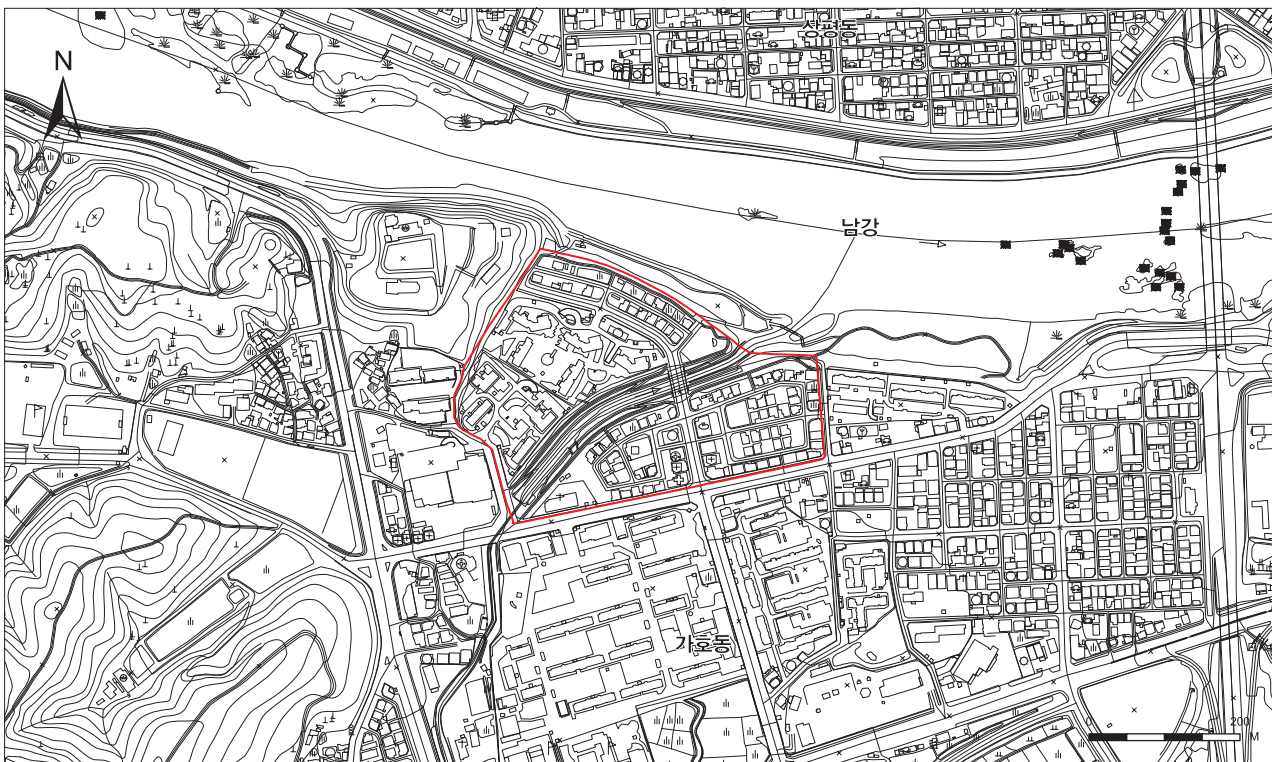
진주 가호동유적 _ 진주 가호지구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동 70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08.2.~2009.7.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수혈유구
/ 장동옹, 시루, 고배

조사지역 일원은 진주시 중앙을 관류하는 남강의 중류역으로, 동으로 사행하는 남강 우안의 범람원에 해당한다. 조사지역 내에는 남강의 지류인 가좌천이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져 남강에 합류하고 있다. 조사지역의 남단부는 무선산(해발 277m)에서 북쪽으로 분기한 소구릉의 사면 말단부와 접해 있는데, 이 소구릉 일대는 도로, 택지 등이 조성되면서 원지형은 훼손되었다.

진주 가호동 유적은 2007년 실시한 시굴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 문화층 및 각 시대의 유구가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듬해인 2008년부터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발굴조사는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청동기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 각 문화층에 대하여 전면 제토한 결과, 청동기시대 유구는 조사지역 중앙부에서만 확인되었고, 삼국시대 유구는 조사지역의 동쪽, 조선시대 밭은 조사지역 서쪽에서만 확인되었다. 이에 조선시대 밭이 확인된 서쪽은 가구역, 청동기시대 유구

유적 위치도

가 확인된 중앙부는 나구역, 삼국시대 유구가 확인된 동쪽은 다구역으로 세분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다구역에서는 삼국시대 수혈주거지와 수혈유구, 구상유구, 밭 등이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문화층은 상·하로 중첩된 상태였는데, 상층에서는 경작지(밭)가 다구역 전면에 걸쳐 노출되었다. 그러나 상층의 밭은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분포범위만 파악하였고, 경작과 관련된 다양한 고고학적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층에서는 수혈주거지 8기, 수혈유구 4기, 구상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수혈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과 (타)원형이 혼재되어 있으며, 규모는 340~410㎝ 내외이다. 수혈주거지 중 유일한 타원형 주거지인 4호 주거지도 길이 438㎝, 너비 334㎝로 유사한 규모로 조성되었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부뚜막, 수혈,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부뚜막은 3·7호를 제외하고 모든 주거지에서 조사되었는데, 7호 역시 탐색갱 설치 구간 내에 부뚜막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뚜막은 대부분 주거지의 남쪽에서 노출되었는데, 고래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벽체와 직교하거나 사각으로 접하여 짧은 연도를 거쳐 배연되는 구조이다. 부뚜막 내부에서는 지각으로 사용한 천석과 함께 목탄, 소토가 채워진 상태로 노출되었다.

주거지 내부에서 조사된 수혈은 7·8호에서 확인되었는데, 두 수혈의 위치, 형태, 크기 등은 상이하다. 7호 주거지 내부 수혈은 남동쪽 벽면에 인접하여 조성되어 있었고,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수혈의 규모는 길이 116㎝, 너비 92㎝, 깊이 12㎝이며, 내부에는

삼국시대 밭 전경

소토와 목탄이 다량 혼입되어 있었다. 수혈 안에서 토기 편과 함께 탄화된 도토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저장시설의 용도로 추정된다.

8호 주거지 내부 수혈은 북서쪽 벽에서 1개가 확인되었는데,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80㎝, 너비 102㎝, 깊이 37㎝이다. 내부에서는 주거지 폐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화재로 인한 소토와 목탄, 탄화재가 다량 노출되었으며, 바닥에서는 탄화곡물이 소량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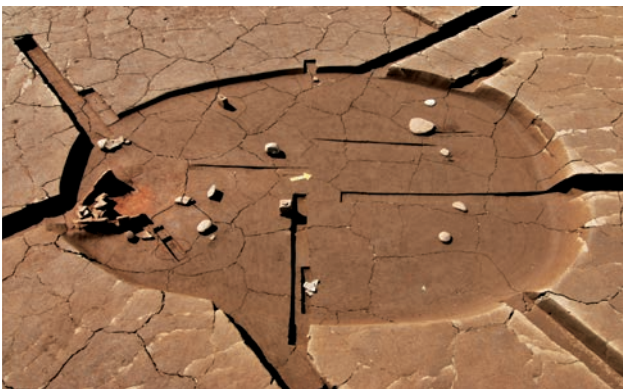
주혈은 8호 주거지 내부에서 확인되었다. 규모는 직경 6㎝, 깊이 8㎝ 내외의 소주혈로, 총 25개가 확인되었는데, 각 주혈의 크기가 작고, 배치의 정형성이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보조 주혈 또는 내부 시설물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혈유구는 각 주거지 주변부에서 총 4기 조사되었다. 수혈유구의 평면형태는 대체로 원형 또는 타원형에 가까운데, 1·2호 내부에서는 대호 저부, 또는 소형 토기 편이 출토되었고, 4호에서는 일부 노출되었다. 각 수혈의 잔존 규모와 형태, 내부 출토유물 등으로 보아 주거지에 부속된 저장시설, 또는 노지 등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및 수혈유구 내부에서는 고배, 장동옹, 소옹, 파배, 대호, 시루, 동이, 단경호, 방추차 등 각종 토기류와 토제품이 출토되었으며, 각 유물의 형식으로 보아 유적의 존속 시기는 5세기 전후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진주 가호동 유적은 인접한 진주 가좌동 유적과 함께 삼국시대 진주지역에 조성된 기층 농경취락의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소규모의 (장)방형 주거지가 (타)원형 주거지와 함께 조성되고, 주거지 인근에 수혈유구가 조성되는 등 취락구조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이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1, 『진주 가호동유적(상·하)–진주 가호지구택지개발사업부지내 유적–』.

4호 주거지

8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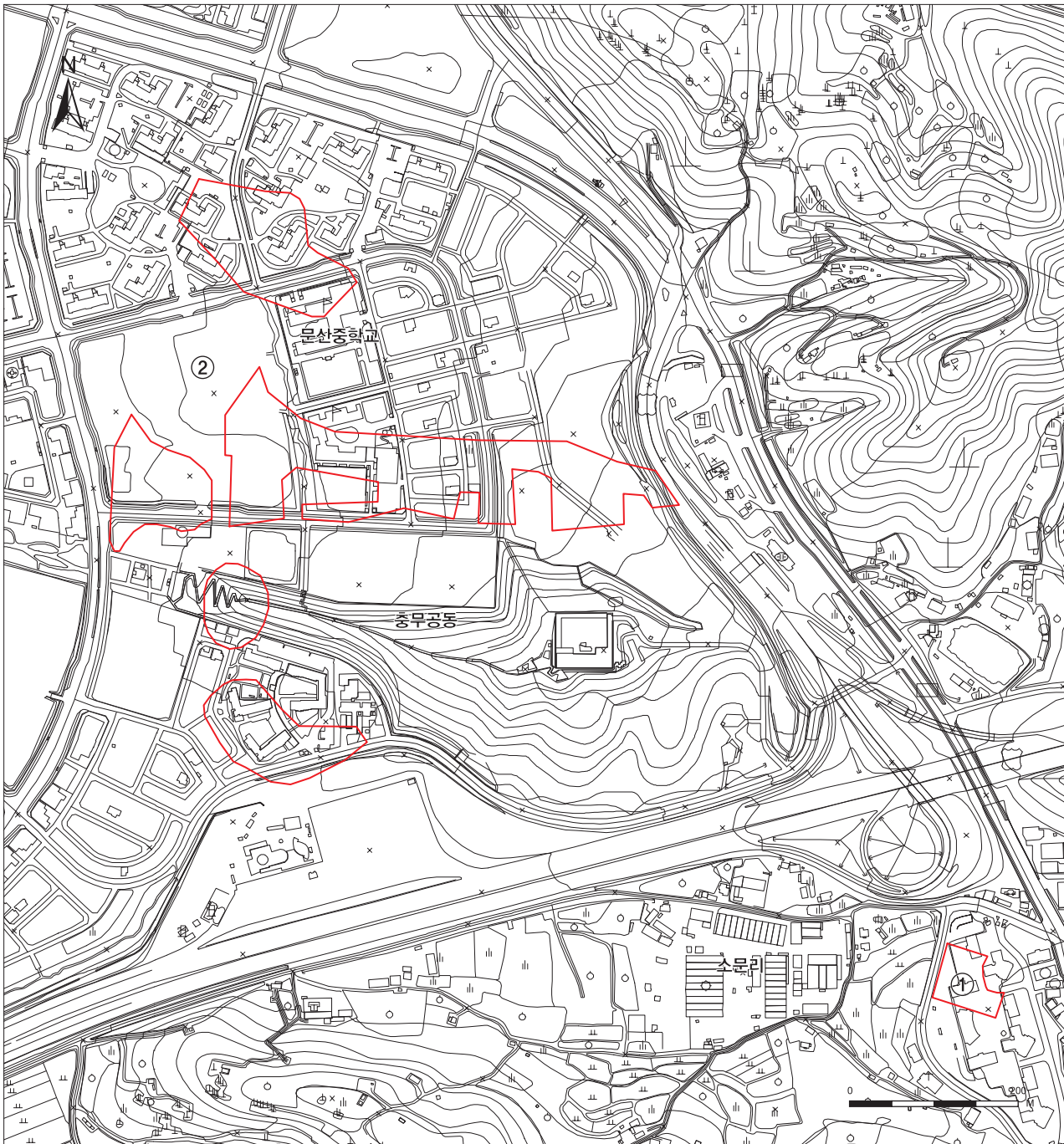
17

진주 소문리유적
晋州 蘇文里遺蹟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대에 소재한 진주 소문리유적은 문산읍의 중심시가지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 주변 지형은 남해고속도로의 문산휴게소와 문산톨게이트 부근 해발 100m 이하의 저산성 구릉지 및 곡간 평탄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발굴에 앞서 실시된 지표조사를 통해 유적은 약 3개 지점(소문리유적 ①~③)으로 세분되어, 각 지점 내에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 사이의 생활·분묘 유적 등이 잔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2007년 동서문물연구원에서 문산 나들목 남쪽에 인접한 진주 센텀씨티아파트 사업부지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무덤(석관묘)과 삼국시대 수혈주거지·수혈유구·구상유구 등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많은 수의 수혈유구가 좁은 구역 내에 밀집된 상태로 조사되었다.

이후 진주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소문리 유적 ②·③'을 포함한 문산톨게이트 북쪽 구역 일대를 2010년 해동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 하였다. 그 결과 앞서 실시된 발굴조사와 마찬가지로 청동기시대 이후 삼국~통일신라시대 및 조선시대의 다양한 유구가 발견되었다.

아직은 진주 소문리유적의 전모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소문리유적의 발굴성과는 경호강·남강 수계 및 서부경남 일원에 조성된 선사·고대 유적의 실상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진주 소문리유적 –진주 소문리 779번지 공동주택 건립부지내 유적	동서문물연구원	2007.9.~2007.10.	진주 소문리유적 –진주 소문리 779번지 공동주택건립부지내 유적(2009)
2	진주 소문리유적 –진주혁신도시 건설부지(10지구) 내 유적	해동문화재 연구원	2010.8.~2011.5.	진주혁신도시 건설부지내 유적(10지구) 진주 소문리유적II(2013)

17-1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77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07.9.~200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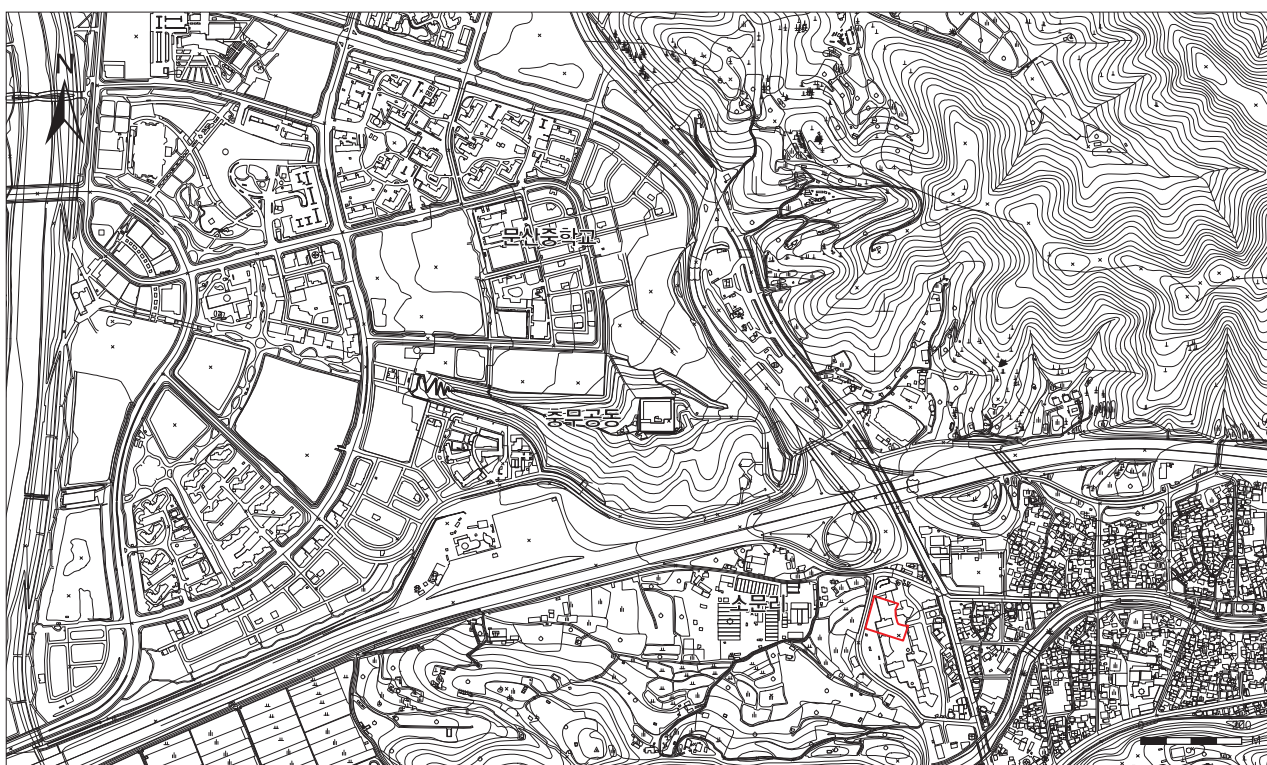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수혈유구, 구상유구 / 적색마연호, 무문토기, 반월형석도, 고배, 단경호

진주 소문리유적 _ 진주 소문리 779번지 공동주택 건립부지 내 유적

유적이 위치한 문산읍은 진주시 남부의 소중심지로, 동쪽으로는 진성면, 남쪽으로는 금곡면·정촌면, 북쪽은 금산면, 서쪽은 상평동·가호동과 접하고 있다. 조사지역은 남해고속국도 문산 나들목의 남쪽에 인접해 있다. 지형적으로는 장군대산과 천황산 구릉 사이의 곡부에 형성된 곡저평야에 해당하며, 조사지역 남쪽에 연해서는 문산천이 곡저를 관류하여 영천강에 합류하고 있다.

발굴조사는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1·2·5피트 주변을 확장하여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석관묘 1기,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2기·수혈유구 168기, 구상유구 3기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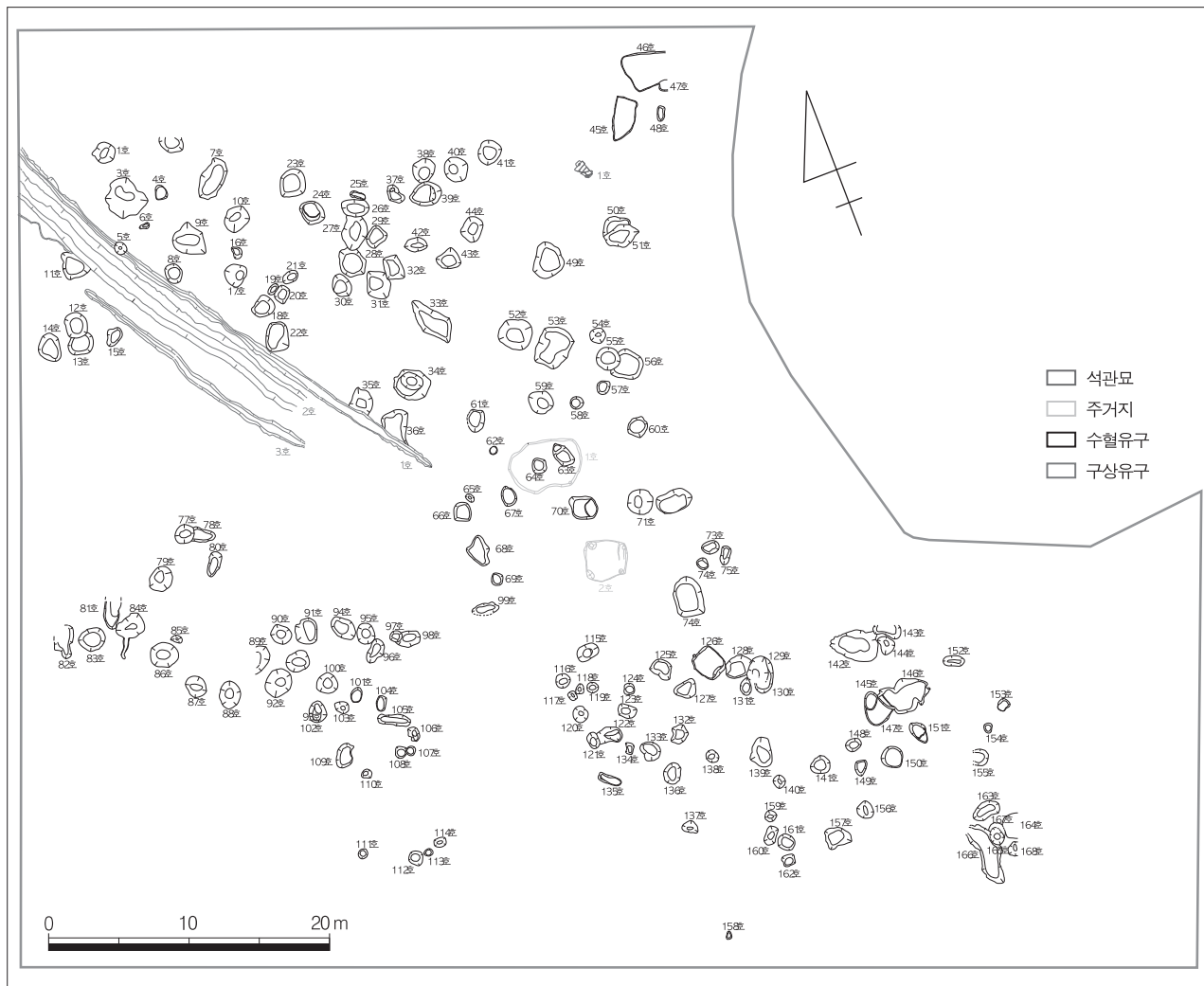
청동기시대 석관묘는 조사지역 북동쪽에서 노출된 유일한 청동기시대 유구로, 장·단벽 모두 1매의 판석을 세워 조립한 상형석관이다. 석관의 중심축은 남-북으로 맞추었는데, 내부에는 1매의 판석을 덧세워 부장칸을 별도로 마련하고 적색마연호를 부장하였다.

삼국시대 수혈주거지는 수혈유구보다 규모가 크고, 바닥에서 주혈이 확인된 유구로,

유적 위치도

총 2기가 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과 방형에 가까우며, 주혈은 각 건물지의 모서리와 벽면을 따라 배치하였다. 내부시설은 명확히 알 수 없었고, 2호 주거지 내부에서는 단경호 구연부와 고배 대각이 출토되었다.

수혈유구는 총 168기가 확인되었는데, 평면 형태는 원형, 타원형, 방형, 부정형 등이고, 단면 형태는 'U'자나 'V'자형을 비롯해 'Y'자 형으로 이단 굴착된 것까지 다양하다. 유물은 전체 수혈 중 30여 기에서만 출토되었는데, 4~6세기경으로 편년되는 장동옹, 소옹, 단경호, 고배, 대부장경호 등이다. 조사범위의 제약으로 유적의 전모는 알 수 없으나, 수혈군의 노출상태로 볼 때, 취락 내 주거역·묘역과 다른 공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성격은 저장·작업·제사 등이 혼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09, 『진주 소문리유적-진주 소문리 779번지 공동주택건립부지내 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수혈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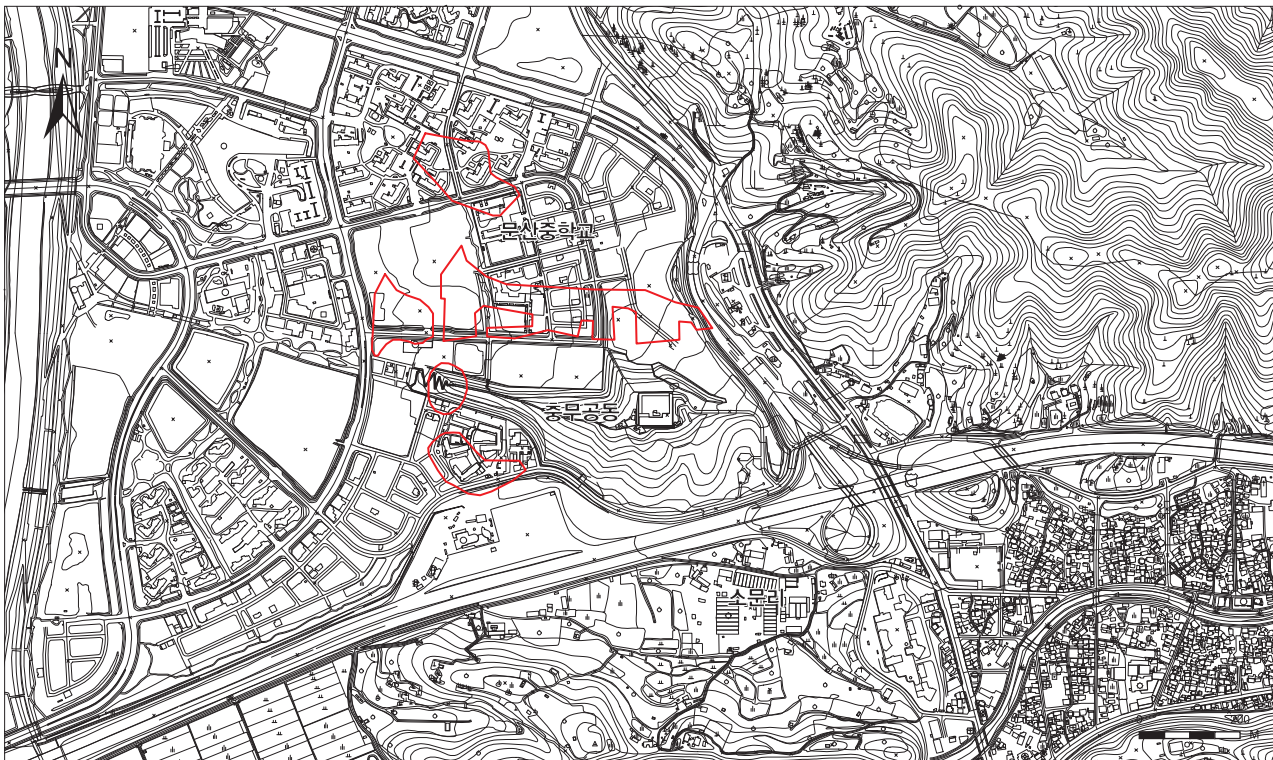
17-2 진주 소문리유적 _ 진주혁신도시 건설부지(10지구)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산112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해동문화재연구원 / 2010.8.~2011.5.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수혈유구, 구상유구, 기와가마 / 연질토기, 고배, 완, 단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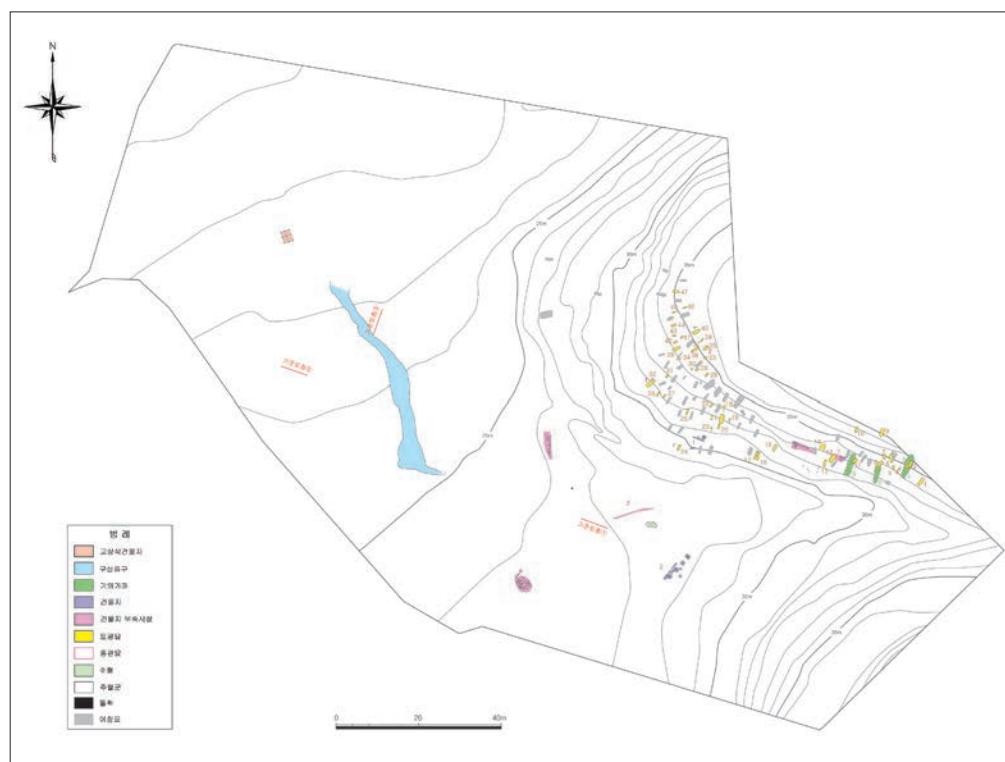
조사대상지역은 문산 나들목 서쪽의 해발 100m 정도의 저구릉지 3개소로서, 그 사이에는 2개소의 침식곡이 형성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근세지도에 의하면 조사지역 일대는 근세 이전부터 전답 및 과수원 등으로 개간되면서 현상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보이며, 구릉의 경우 현대까지도 과수원 및 공동묘지로 사용되면서 계단식 절토에 의해 풍화암반이 대부분 노출된 상태였다.

발굴구역은 총 6개 구역(A~E구역, B-1·2)으로 나뉘며, 각 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무덤과 주거지, 그리고 여러 부속시설이 다수 확인되었다. A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고상식건물지·구상유구 삼국~통일신라시대 기와가마, 조선시대 건물지·토광묘, B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석개토광묘, 삼국~통일신라시대의 수혈주거지·수혈·구상유구, 조선시대 토광묘, C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고상식건물지·구상유구, D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석개토광묘·주구묘·주거지·수혈, 통일신라시대 석실분, 조선시대 회곽묘·토

유적 위치도

광묘, E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고상식건물지·야외노지·구상유구, 삼국시대 구상유구 및 조선시대 배수시설이 분포하고 있다.

이상의 발굴조사에서 전반적인 유구의 밀집도는 낮으나 여러 시기의 유구 다양하게 확인되었으며, 특히 경호강 및 남강 수계를 따라 형성된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무덤의 구성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남 일원에서는 삼국시대 후반 이후의 백제계 기와가 산성 등에서 제한적으로 출토되어 왔으나, 이번 발굴조사 결과 영남지역 생산유구(가마)에서 직접 7세기 중엽 이후의 백제계 기와(승석문기와)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참고문헌

해동문화재연구원, 2013, 『진주혁신도시 건설부지내 유적(10지구) 진주 소문리유적』.

A구역 유구 배치도

A구역 기와가마군

B구역 주거지 중복

18 진주 창촌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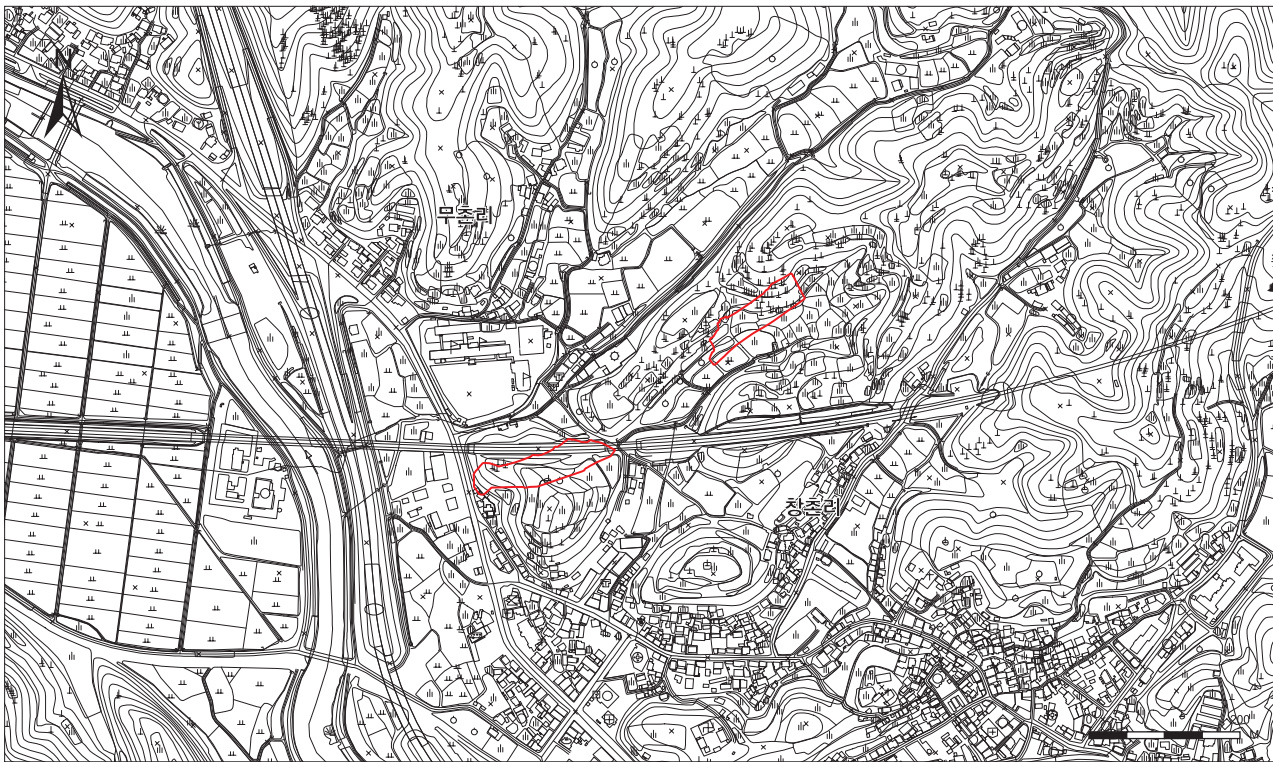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463-1·530-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삼강문화재연구원 / 2007.7.~2007.11.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목관묘, 목곽묘, 석곽묘 / 무문토기, 반원형석도, 조합식우각형파수부장경호, 양이부호, 고배, 장경호, 컵형토기

조사지역인 일반성면 창촌리 일대는 진주에서 마산으로 연결된 2번 국도의 동쪽에 위치하는데, 서쪽에는 반성천이 흐르고, 동쪽에는 낮은 소구릉들과 곡간지를 포함한 반성면이 자리잡고 있다. 반성천은 남강의 지류로서, 북상하여 남강 본류와 합류하고 있으며, 서쪽에는 충적지가 발달하여 비교적 넓은 들이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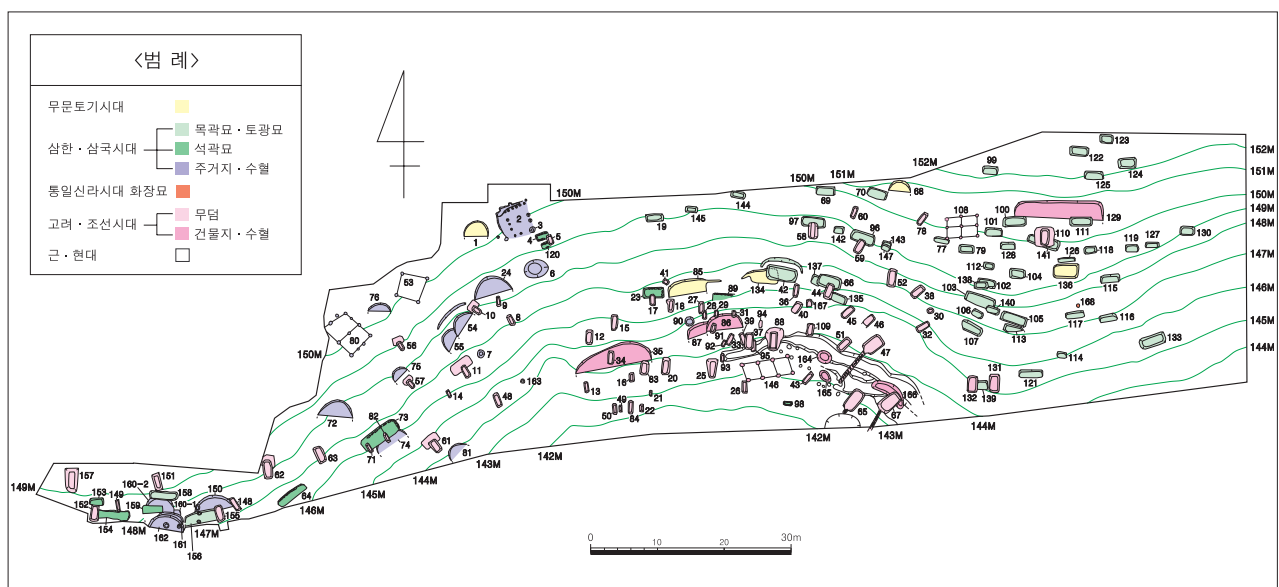
조사지역 주변에서는 청동기시대 논과 수로, 삼국·조선시대 구가 조사된 진성 창촌유적 및 통일신라시대의 주거지·가축매납수혈(제사유구)·구·도로 등이 조사된 진주 창촌리유적, 7세기대의 고상건물지와 우물, 수혈이 확인된 진주 가산리유적, 청동기시대~조선시대의 분묘·주거지·부속시설 등이 조사된 진주 무촌 유적 등 여러 시기의 주거·의례·분묘유적들이 인접해 분포하고 있다.

본 발굴지역은 A·B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A구역은 반성중학교 동쪽에 위치하는 낮은 구릉(해발 56m)의 남사면이고, B구역은 반성중학교의 남쪽에 마주 보고 있는 낮

유적 위치도

은 구릉(해발 56.6m)의 북사면부이다. A·B구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건물지 7기, 삼한~삼국시대 무덤·건물지 97기, 고려~조선시대 무덤·건물지·수혈·주혈 95기 등 총 204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삼한·삼국시대의 무덤은 목관묘·목곽묘·토광묘·옹관묘·석곽묘로, 대체로 조사구역 동쪽에 밀집된 상태였는데, 목곽묘와 토광묘는 A구역에서만, 목관묘와 옹관묘는 B구역에서만 확인되었고, 석곽묘는 두 구역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목관묘는 출토유물로 보아 기원전 1세기 중반경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무문토기보다 와질토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다.

삼한시대 목곽묘에서는 무경역자식철촉·양이부평저단경호·편구형의 와질단경호, 저구형 저부를 가진 양이부호·수정제곡옥이 출토되었는데, 조성 시기는 삼한 말에서 삼국 초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목곽묘에서는 고식도질토기와 소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되었다. 석곽묘에서는 소가야양식 토기와 신라후기양식 토기가 출토되었다.

원삼국·삼국시대 건물지는 무덤군과 상반되는 조사구역 서쪽에 밀집되어 있는데, 수혈주거지와 고상식건물지·지면식건물지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수혈주거지는 경사면 아랫부분이 유실된 상태이나 대체로 (장)타원형으로 추정되며, 총 13기가 확인되었다. 수혈주거지 내부에서는 바닥에서 고래·수혈·주혈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고래는 벽면 아래 바닥면을 따라 길게 패인 홈으로, 전체 13기 중 6기에 남아 있었다. 고래 상부의 벽체와 아궁이는 모두 유실되었으나 일부 유구에서는 황갈색사질점토 등을 이용해 벽면을 보

A지구 유구 배치도

강한 흔적이 관찰되고 있어, 유사한 재료를 사용해 아궁이와 고래를 조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면식건물지는 경사면을 'L'자 형태로 굴착하여 평탄면을 조성하고, 내부에 방형으로 주혈을 배치하였다. 건물지의 북서쪽 모서리에서 북벽 중앙부 사이에서는 구가 노출되었는데, 구 내부에는 목탄과 소토가 혼입된 흑갈색점토가 채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적갈색점토가 덮여 있었다. 노출상태로 보아 주거지 내부의 아궁이와 고래 기저부 흔적으로 판단된다.

이상 원삼국·삼국시대의 무덤과 건물지 내부에서 출토된 각 유물의 형식을 고려할 때, 진주 창촌리 유적 내 건물지는 기원전 1~3세기 사이, 즉 삼한시대 중후기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무덤의 경우에도 건물지와 동시기에 조성된 후 적어도 6세기대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5, 『진성 창촌유적-진주 진성~이반성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내 유적 보고서-』.

경남고고학연구소, 2008, 『진주 창촌리 유적』.

삼강문화재연구원, 2010,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구간(9공구) 내 진주 창촌리 유적』.

100호 목곽묘

122호 목곽묘

25호 목관묘 출토유물

122호 목곽묘 출토유물

19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개암리 531-1
이반성면 가산리 543-5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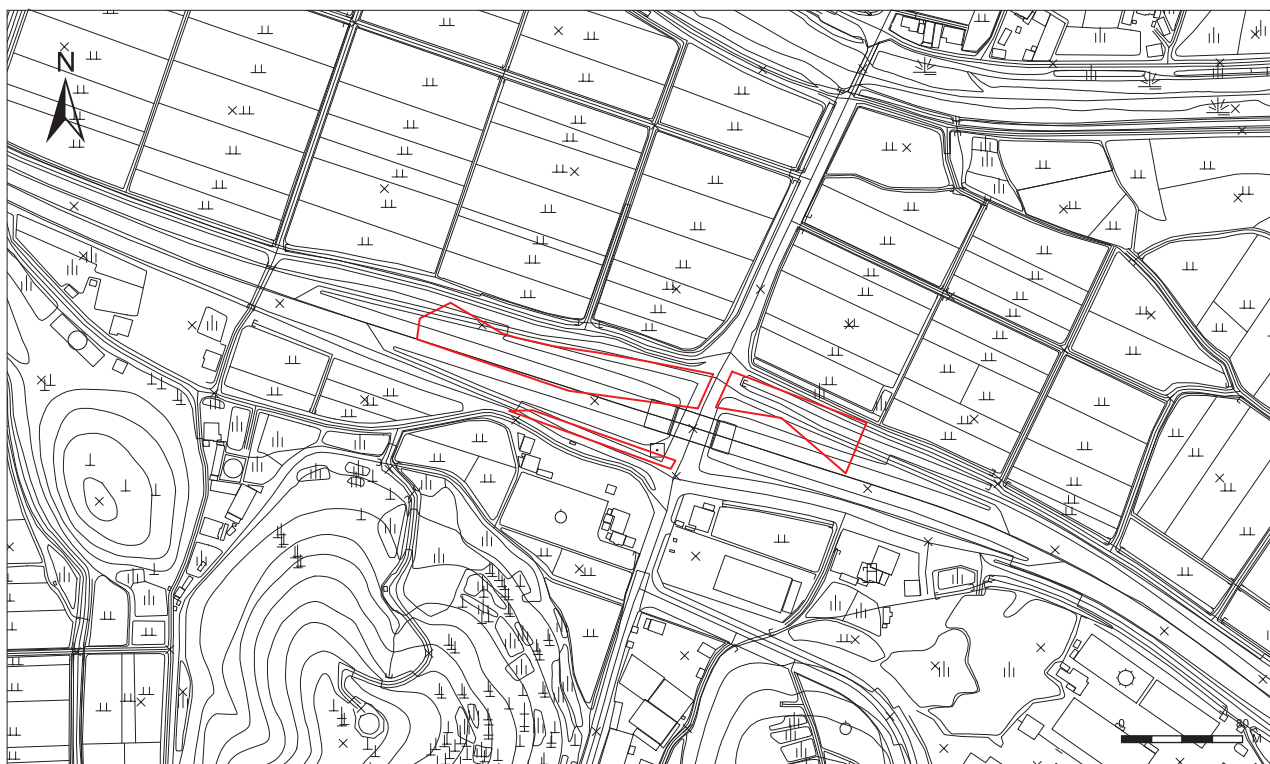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02.8.~2003.4.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유구, 고상건물지, 우물 / 고배, 대부장경호, 연질소옹

진주 가산리유적 _ 진주 진성~이반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 내 유적

유적이 위치한 곳의 지형은 북쪽의 마패산과 남쪽의 작당산의 사이를 흐르는 하천과 하천을 따라 발달한 곡간평야, 그리고 소구릉으로 이루어져 있다. 곡간평야는 발산재에서 시작되어 동-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경지 정리가 되어 모두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곡간평야 사이로는 발산재와 주변 구릉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모여 소하천을 이루어 남강으로 흘러들어 간다.

발굴지역은 반성 수목원 앞 반성교를 중심으로 기존 도로를 포함하거나 부분적으로 겹치는 지역인 가산리를 '1지구', 새로 포장되는 개암리를 '2지구'로 나뉘는데, 조사 결과 1지구에서는 수혈유구, 우물, 수혈주거지, 고상건물지 등 삼국시대 생활유구가 확인되었으며, 2지구에서는 주변 구릉과 하천 범람의 영향으로 자연제방, 저습지, 자연퇴적층 등 다양한 지형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발굴조사는 1지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수혈유구는 3기가 조사되었는데, 2기는 길이 3m, 너비 2.5m, 깊이 0.5m

유적 위치도

내외(1·3호)이고, 소형인 2호는 규모, 위치로 보아 1호의 부속유구로 추정된다. 수혈유구 내부에서 노지와 바닥시설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박씨로 추정되는 식물유체가 깔려 있어 곡물을 저장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유사한 용도로 추정되는 고상건물지가 약 5기 조사되었는데, 이 중 형태가 명확한 2기(1·5호)는 2칸×1칸, 2칸×2칸에 보조 주혈이 더해진 구조로 판단된다. 주혈 중 11개 정도에서는 기둥의 목질이 관찰되었는데, 목주의 밑동은 수평되게 다듬었고, 5호의 경우 주혈 내부에 15㎝ 내외의 보강석을 채워 넣기도 하였다.

우물은 주거지에서 30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저장공으로 추정되는 수혈이 확인되었다. 우물은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형태로, 지름 1.1m, 깊이 3m 내외이고, 0.3m 크기의 점판암을 이용하여 원형으로 축조하였는데, 우물 바닥은 점판암층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에서는 대부장경호, 연질소호, 연질대호, 목기, 식물유체, 멧돼지류와 사슴의 동물유체 등을 출토되어, 음용의 목적 외 제의와의 관련성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가산리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파손된 상태의 토기류로, 기종은 호형토기, 파수부토기, 시루, 단각고배, 단경호, 대부장경호 등이다. 유물의 구성과 형식으로 볼 때, 7세기 전반대의 유적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05, 『진주 진성-이반성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 내 진주 가산리 유적』.

유적 전경

1B지구 1호 수혈주거지

1B지구 1호 고상건물지

1B지구 우물

20

진주 중천리유적
晋州 中川里遺蹟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일대에 소재한 진주 중천리유적은 청동기시대·삼국시대·조선시대 등 여러 시기에 걸쳐 형성된 복합유적으로서, 발굴조사 결과, 분묘·주거지·제사유구 등 다양한 성격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는 2007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에서 삼국시대 경질토기 편과 조선시대 자기 편이 수습된 바 있다. 그리고 2006~2007년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금산면 중천리 317-7 일대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5~6세기경에 조성된 수혈건물지와 고상건물지, 수혈유구, 제사유구 등을 조사하였으며, 특히 제사유구는 소와 말뼈를 묻은 수혈유구로, 고대 취락 내 의례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주목받고 있다.

2008~2009년에는 한국문물연구원에서 금산면 중천리·장사리 1566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5~6세기경에 조성된 수혈유구, 구상유구, 주혈, 토기매납유구 등 앞서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유적과 관련성이 높은 생활유적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앞서 진주 일원에서 발굴된 3~4세기경의 취락유적과 함께 서부경남지역의 삼국시대 취락의 구조와 변화상, 생활모습을 보다 상세히 규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유적이다.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진주 중천리유적 –진주 중천리 공동주택 건립부지 내 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2006.09.~2007.4.	진주 중천리 공동주택 건립부지 내 진주 중천리 유적(2009)
2	진주 중천리유적 –진주 중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 내 유적	한국문물연구원	2008.11.~2009.2.	진주 중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 내 진주 중천리유적(2011)

20-1

진주 중천리유적 _ 진주 중천리 공동주택 건립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317-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06.9.~2007.4.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고상식건물지, 수혈유구, 제사유구 / 연질옹, 발, 대호, 단경호, 고배

유적은 진주 중천리 공동주택(진흥더블파크아파트) 부지 내에서 확인되었다. 이곳은 진주 시가지 동쪽을 따라 흐르는 남강 동안의 충적지와 월아산(해발 430m)에서 북서쪽으로 이어진 대소의 침식성 저구릉이 접하는 경계부로, 소구릉의 사면과 그 사이에 형성된 곡간 평탄면을 포함하고 있다.

유적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수혈유구, 석관묘,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수혈건물지, 고상건물지, 수혈유구, 제사유구, 석관묘, 우물, 도로, 구, 주혈군 등이 확인되었고, 고려~조선시대의 건물지와 다양한 부속 유구도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삼국시대 수혈건물지는 주로 5~6세기 경에 조성된 것으로, 구릉 남사면 말단부에서 등고선을 따라 4~5m 간격으로 노출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방형, 말각장방형, 원형, 장타원형 등으로 다양하고,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벽구, 벽주혈, 주혈, 수혈, 부뚜막(추정) 및 쪽구들이, 외부에서는 배수구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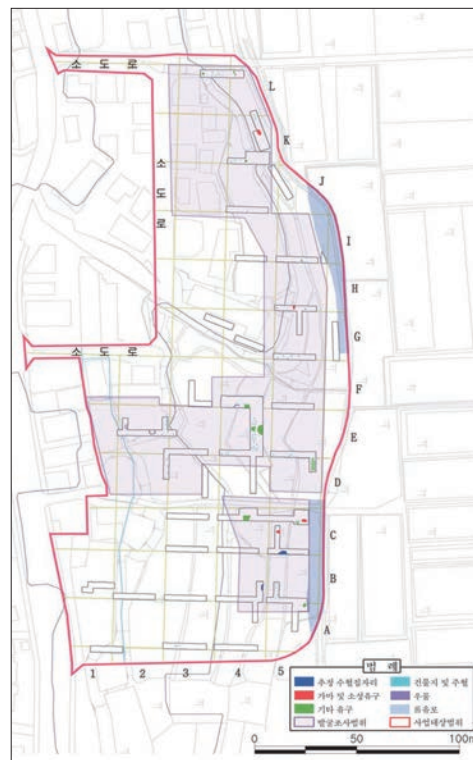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수혈건물지 주변과 Ⅱ구역에서는 고상건물지와 수혈유구가 조사되었는데, 고상건물지는 정면 2칸, 측면 1칸 구조가 일반적이며, 주로 Ⅱ구역에서 확인되었다. 수혈유구는 수혈건물지와 인접하거나, Ⅱ구역의 구릉 말단부에서 곡부로 이어지는 저지의 구하도 양안에 북쪽에 치우쳐서 조성되어 있었다.

한편, 본 유적에서는 소와 말뼈가 매납된 타원형 수혈유구, 즉 제사유구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제사유구는 구릉 말단부에서 곡부로 이어지는 저지의 구하도 양안에 인접하여, 유로 방향을 따라 열상으로 노출되었다. 동물유체의 매납은 주로 척추 및 갈비뼈가 붙은 몸통부를 바닥에 놓고, 두개골은 몸통과 어긋난 상태로 몸통 위에 얹었다. 그리고 다리는 몸통과 나란하게 북쪽에 두었다. 출토 당시의 제반 특징으로 볼 때, 동물은 조리 후 매납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위로 절단한 후, 근육과 가죽이 붙은 상태로 묻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Ⅰ·Ⅱ구역에 걸쳐 진행하는 도로도 일부 확인되었다. 도로 양 측면에는 측구를 갖추고 있었고, 노면에서는 '凹'상으로 패인 차륜흔도 관찰되었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09, 『진주 중천리 공동주택 건립부지 내 진주 중천리 유적』.

유구 배치도

2구역 전경

20-2

진주 중천리유적 _ 진주 중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장사리
156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국문물연구원 /
2008.11.~2009.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유구, 구상유구,
주혈, 토기매납유구 /
소옹, 완, 장경호, 컵형
토기

유적이 위치한 곳은 금산면의 북서쪽으로, 신당골 및 장사리 들녘을 포함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월아산(해발 430m)이 북서쪽으로 뻗어 내리다 평지와 만나는 구릉성 산지의 북서단과 그 아래의 경작지를 포함하고 있는 구간이다. 발굴조사지역은 A지구(800㎡)와 B지구(2,000㎡)로 나뉘어 있는데, A지구에서는 삼국시대 유구와 조선시대 삼가마·수혈주거지, B지구에서는 조선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수전이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는 A지구의 중앙에 밀집분포하고 있으며, 확인된 유구는 주혈 94기, 토기매납유구 1기, 수혈유구 3기, 구상유구 4기 등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수량이 확인된 것은 주혈로, 크기는 지름 12~83㎝, 깊이 7~45㎝, 단면형태는 'U'자형이나 'V'자형이 다수이나 일부 2단으로 굴착된 것도 있다. 노출된 상태로 보아 고상건물지일 가능성이 있으나, 건물로서 정형성은 명확히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주혈군 동단부에서는 토기매납유구가 1기 조사되었는데, 유구의 형태는 주혈

유적 위치도

과 동일하며, 크기는 지름 34㎝, 깊이 18㎝이다. 내부에서는 저부만 결실된 연질옹 1점과 연질완 1점이 출토되었다. 유물의 노출상태로 볼 때, 의도적으로 매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혈군 주변에서는 주구 형태의 구상유구가 노출되었으나 주혈과의 관계는 분명치 않다.

수혈유구의 평면 형태는 (타)원형으로, 지름 124~360㎝, 잔존 깊이 10㎝ 내외이다. 내부에서 유물은 거의 출토되지 않았으나, 노출된 규모와 형태로 보아 진주 개양유적, 산청 하촌리 유적 등 서부경남지역의 5~6세기대의 취락 내에서 관찰되는 수혈과 유사한 성격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삼국시대 유구 내부 및 지변 지표에서는 연질옹, 완, 장경호, 컵형토기 등 5~6세기대의 유물이 소량 출토되어 유적의 존속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문물연구원, 2011, 『진주 중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 내 진주 중천리유적』.

A지구 주혈군 전경

A지구 토기 매납유구

A지구 토기 매납유구 세부

21

진주 월평유적 _ 진주~집현간 4차선도로건설구간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651-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00.12.~2001.8.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고상식건물지, 수혈유구, 제사유구 / 무문토기, 석검, 연질옹, 발, 대호, 단경호, 고배

진주 월평 유적이 위치한 집현면은 진주시에서 합천군으로 가는 국도 33번의 좌측에 위치하고, 유적은 국도 33번과 집현면에서 대곡면으로 가는 지방도 1004번이 연결되는 집현교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남강의 지류인 지내천이 북서쪽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흐르게 되는 북쪽의 장흥교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청동기시대 유적인 죽산유적과 삼국시대의 신당리고분군의 북쪽 사면부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의 북쪽과 서쪽은 비교적 얕은 구릉이 에워싸고 있고, 동쪽은 남강이 접하고 있으며, 남쪽이 트여 있는데, 해발고도가 20m 내외의 넓고 얕은 평지를 이루고 있다.

유적 주변에는 남동쪽에 청동기시대의 죽산유적, 삼국시대 신당리고분군이 있고, 서쪽에는 장재동고분군, 북서쪽에는 봉강리고분군과 사촌리고분군 등의 삼국시대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본 유적에서는 183기의 삼국시대 수혈과 수전이 일부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은 남강

유적 위치도

과 남강의 지류인 지내천의 인근에 위치한 저평한 대지로, 하천의 잦은 범람으로 인해 지형변화가 심한 지역이고, 주변에 범람원과 배후습지(장재못, 서원못) 등이 형성된 곳이다. 수혈은 C구간에서 확인된 구하도의 서쪽에 1~5m 정도의 간격으로 연접하여 길이 60m, 너비 10~15m에 걸쳐 서로 중복되면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내부에서 장동옹과 발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수혈의 깊이는 0.2~1m에 이르고, 평면 형태는 원형이나 부정형은 많지 않고, 대부분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단면 형태도 위에서 아래로 좁아지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수혈의 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별다른 시설은 없으며, 내부에 다시 소형 수혈을 굴착한 예도 있다. 면적은 600㎡ 이하인 것이 90%에 이르고, 중복된 수혈은 약 35%이다.

수혈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장동옹이 다수이고, 이 외에도 발, 파수부발, 호 등이 출토되었으나 거의 장동옹과 공반되고 있다. 토기 이외의 유물로는 박씨로 추정되는 유기물과 토기나 기와 제작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목제방망이 등이 있다.

이에 보고자는 대부분의 수혈이 구하도를 따라 형성된 니질층을 굴착하여 조성되었다는 점과 내부에서 토기나 기와 제작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목제방망이가 출토되었다는 점을 기초로, 경주 및 대구지역에서 조사된 요업시설 주변 수혈과 비교하였으며, 따라서 수혈의 성격은 토기나 기와의 제작을 위하여 태토를 채취한 유구로 추정하고 있다.

단, 전체 수혈 가운데 약 1/3에 달하는 68기에서 다량의 토기가 출토되었다는 점, 특히 장동옹의 경우 52기의 수혈에서 모두 78점이 출토되어, 태토를 채취한 후 빈 공간을 이용하여 취사를 하거나 곡물을 장동옹 등에 담아 저장한 시설일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C구간 C1·2피트 전경

C구간 C-1피트 8·8-1·9호 수혈

출토유물

한편, 수전은 수혈의 남쪽에서 2개소가 확인되었다. 이 중 수전Ⅰ은 경남고고학연구소의 시굴조사에서 검출된 유구로서, 조사갱을 넓혀 평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북으로 이어진 0.9~1.9m 너비의 대형 수로가 확인되었고, 수로 동·서쪽에서는 수로와 직교하거나, 또는 나란히 조성된 너비 30㎝ 정도의 논둑이 조사되었다. 수전Ⅱ는 조선시대 와요지의 북쪽, 구릉 하단의 평탄한 지대에서 확인되었는데, 동쪽에서는 북동-남서쪽으로 이어진 소형 수로와 함께 노출되었다.

이상 진주 월평유적은 단경호, 장동옹, 발, 시루 등 출토유물의 형식으로 보아 4~5세기를 중심으로 존속한 유적으로 편년된다. 조사 범위의 한계로 유적 내에서 주거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삼국시대 수전, 구상유구 및 하도(수로), 수혈 등의 구성으로 볼 때, 본 유적은 농경을 기반으로 생활을 영위하던 고대 농경취락의 일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고문헌

진주시·경상대학교박물관, 2003, 『문화유적분포지도 -진주시-』.

경남문화재연구원, 2004, 『진주-집현간 4차선 도로건설구간 내 진주월평유적』.

22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내촌리 314-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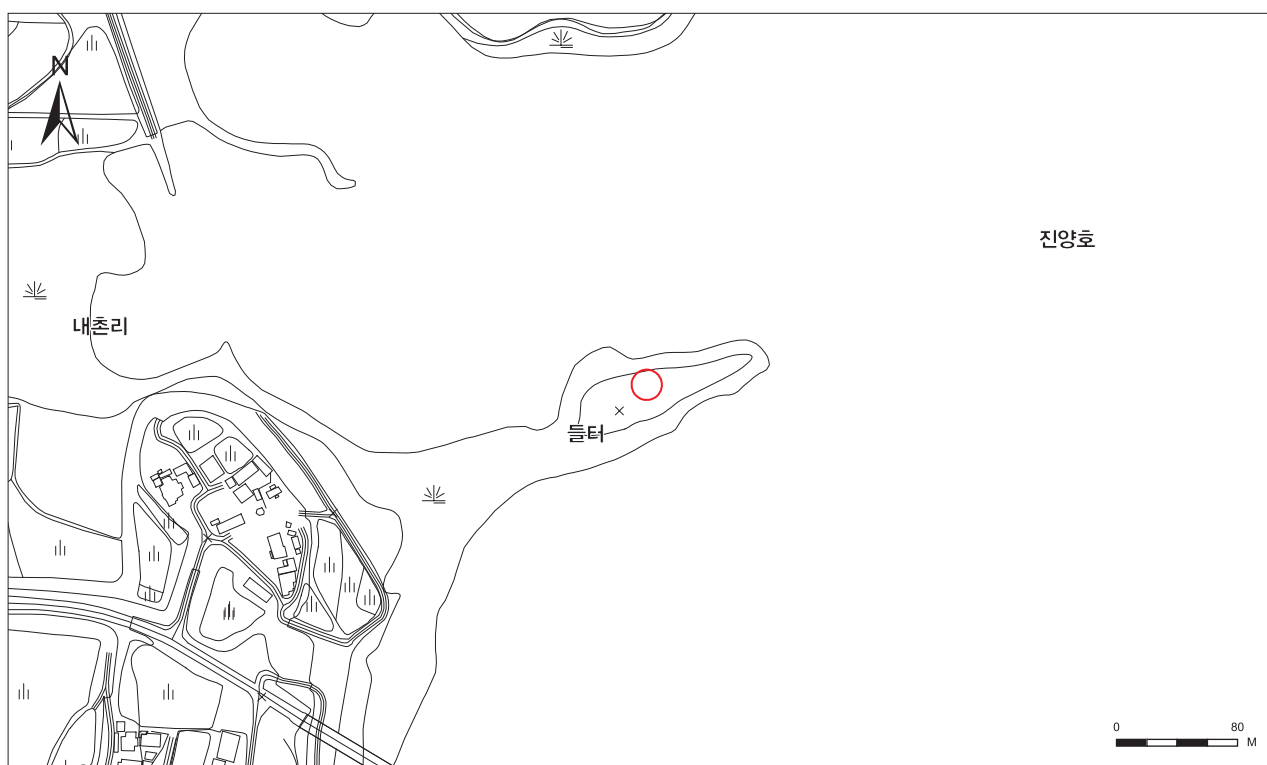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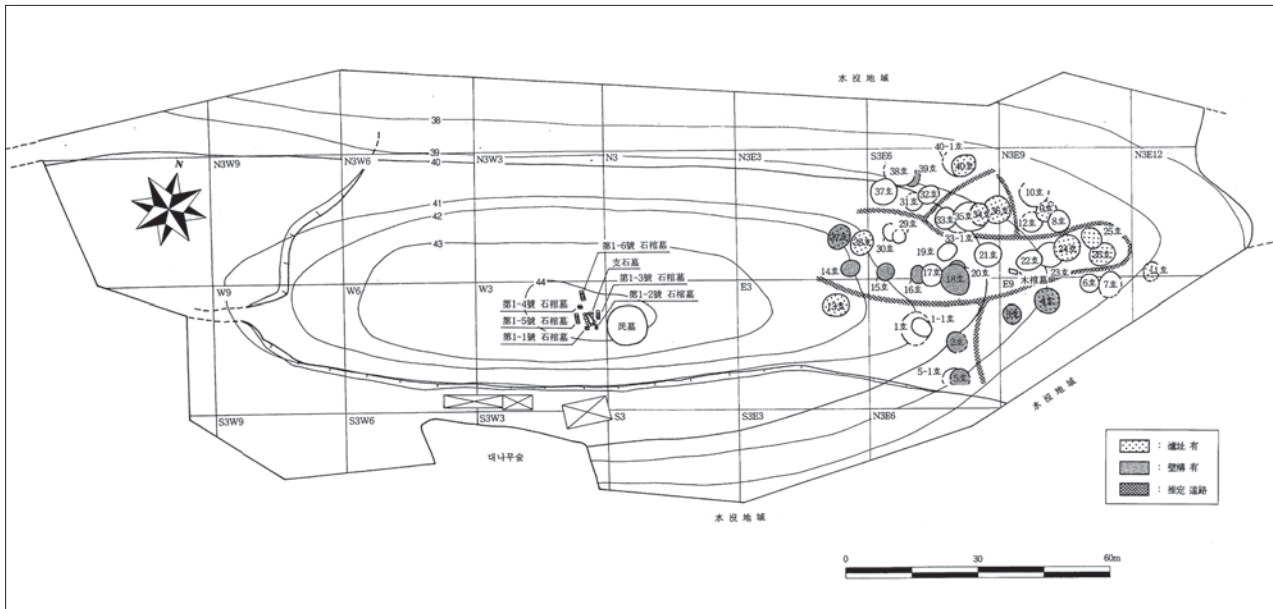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대학교박물관 / 1996.11.~1997.3.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 완, 시루, 소형토기

진주 내촌리유적

진주 내촌리 유적은 진양호 상류에 해당하는 덕천강 유역으로, 지형은 기반암인 풍화암반층 위에 제4기 홍적세의 적갈색 퇴적층이 피복된 해발 43m 정도의 낮은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유적은 그 정상부와 북동쪽 사면부 해발 38m 지점 사이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데, 청동기시대 지석묘는 정상부에, 삼국시대 주거지는 북동쪽 구릉 사면에 분포하고 있다.

이 구릉에서 논으로 경작되고 있는 좁은 골짜기를 사이에 둔 북서쪽의 인접 구릉에서는 구석기시대와 원삼국·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물포함층과 고분이 각각 발견되어 한양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조사되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연접한 충적지 내 본촌리·상촌리·대평리·소남리·묵곡리 등에서는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에 걸쳐 형성된 많은 유적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본 유적에서는 삼국시대 수혈주거지가 40여 기 확인되었다. 평면형태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는 원형으로, 해발 38~42m 사이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그 중 지름 6m 이상의 대형은 해발 40~41m 지점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포하고 있으며, 소형은 대형 주위와 그 아래 낮은 지점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수혈주거지 내부에서는 벽구와 노지가 일부 유구에서 확인되었는데, 벽구는 구릉의 동-서 장축선상에서 볼 때, 남쪽에 위치한 주거지에 집중하는 경향이고, 노지도 남쪽 주거지에서 다수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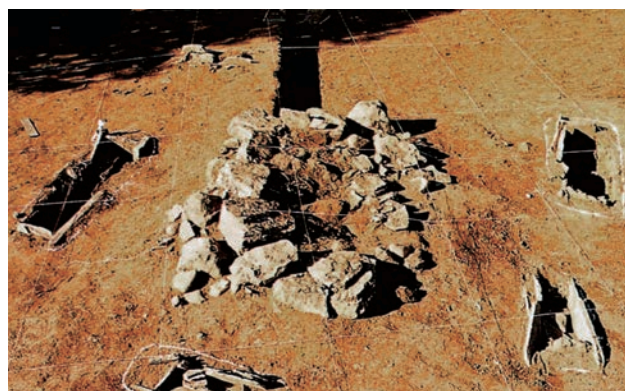
한편, 각 주거지군 사이에서는 길게 이어진 공간이 확인되었는데, 평면형태로 볼 때, 취락 내부에 도로망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의 배치도 이 도로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도로가 구릉의 능선을 따라 고지에서 저지로 개설되면서 취락도 도로를 따라 계단상으로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내촌리유적의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내부에서는 시루, 호, 옹, 대부완 등 각종 연질토기와 경질토기, 방추차, 어망추, 숫돌, 철기, 석기 편 등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철기는 대형 주거지 내부에서만 소량 출토되었다.

참고문헌

동아대학교박물관, 2001, 『진주 내촌리유적』.

유적 전경

18호 주거지

33호~36호 주거지

출토유물

23 진주 상평동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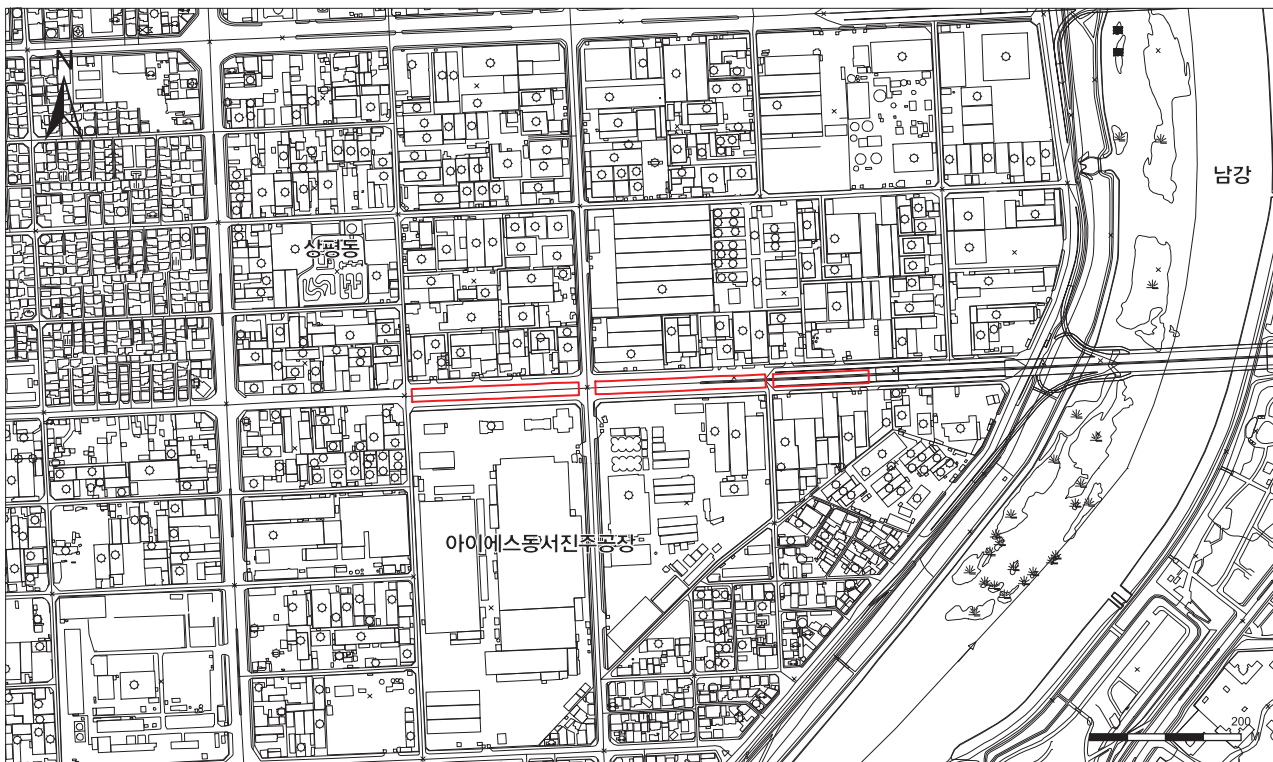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55-2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10.3.~2010.5.
주요 유구 / 유물
삼국시대 경작지 / 고배 배신부, 구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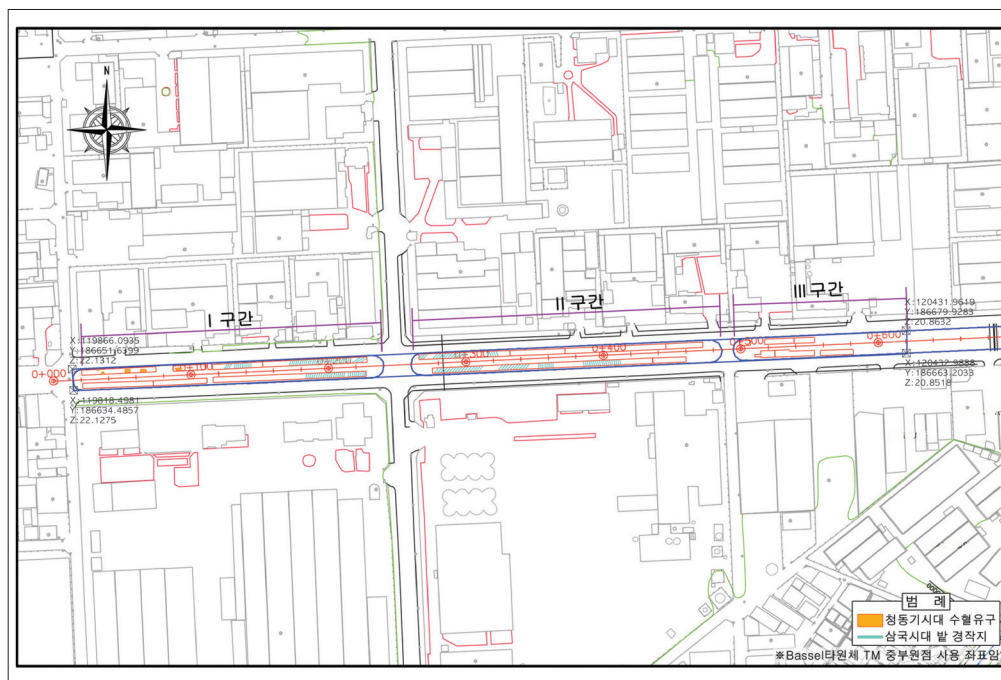
진주시 중부의 상평동에 있는 생산유적이다. 남강 중류역 좌안의 충적지에 분포한다. 유적을 둘러싸고 남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휘돌아 나가며,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2010년 진주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개설로 인하여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5기, 삼국시대 밭 유구 9개면이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밭경작지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확인되며 총 9개의 단위 경작면이 확인되었다. 밭경작지의 주방향은 북-남, 북동-남서향으로 남강 수계와 평행한 방향으로 축조되었다. 규모는 두둑의 경우는 35~60㎝, 고랑의 경우는 25~50㎝로 고랑의 폭이 조금 더 좁게 확인된다. 내부에는 족흔, 주적흔, 경작흔 등이 확인하며, 경작지 저면은 경작흔들과 작물의 식재흔이 확인된다. 출토유물은 경질고배배신부, 경질호구연부, 및 경질 동체부 편 등이 확인되는데 4~6세기대로 편년된다.

유적 위치도

청동기시대 취락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주변 지역과 비교하여 삼국시대 경작지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생산유적이다. 청동기시대 생활유적과 삼국시대 경작지가 함께 확인되어 과거 남강의 자연제방의 입지에 따른 유적의 형성 배경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12, 『진주 상평동 유적-진주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가설공사 구간내-』.

유구 배치도

1구간 밭경작지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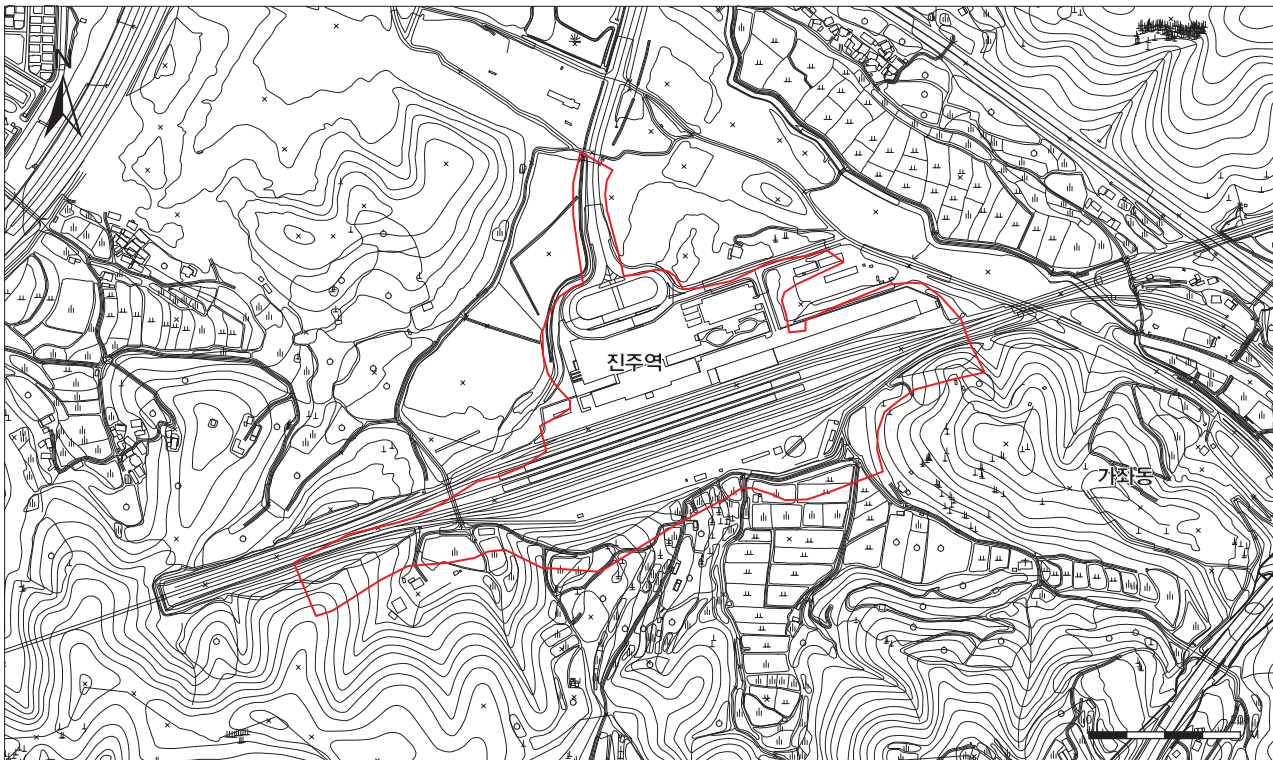
진주 개양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58-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삼강문화재연구원 / 2008.3.~2009.12.

주요 유구 / 유물
수전, 수혈주거지, 고상건물지, 함정 / 장동옹, 소옹, 고배

진주 개양 유적이 위치한 가좌동 지역은 진주시의 동쪽에 해당하는 곳으로, 주변에는 무선산(해발 277.5m)에서 북쪽으로 뻗어 나온 대소의 구릉과 곡간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일대는 지금까지 과수원으로 이용되어 왔다. 인접 지역에는 영천강과 남강을 따라 다수의 무문토기시대 및 삼국시대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조사지역 서쪽의 진주 가좌동고분군과 가좌동유적, 북쪽의 가호동유적, 소호동유적, 동쪽의 원촌유적 등은 거리, 성격, 조성 시기 등으로 볼 때,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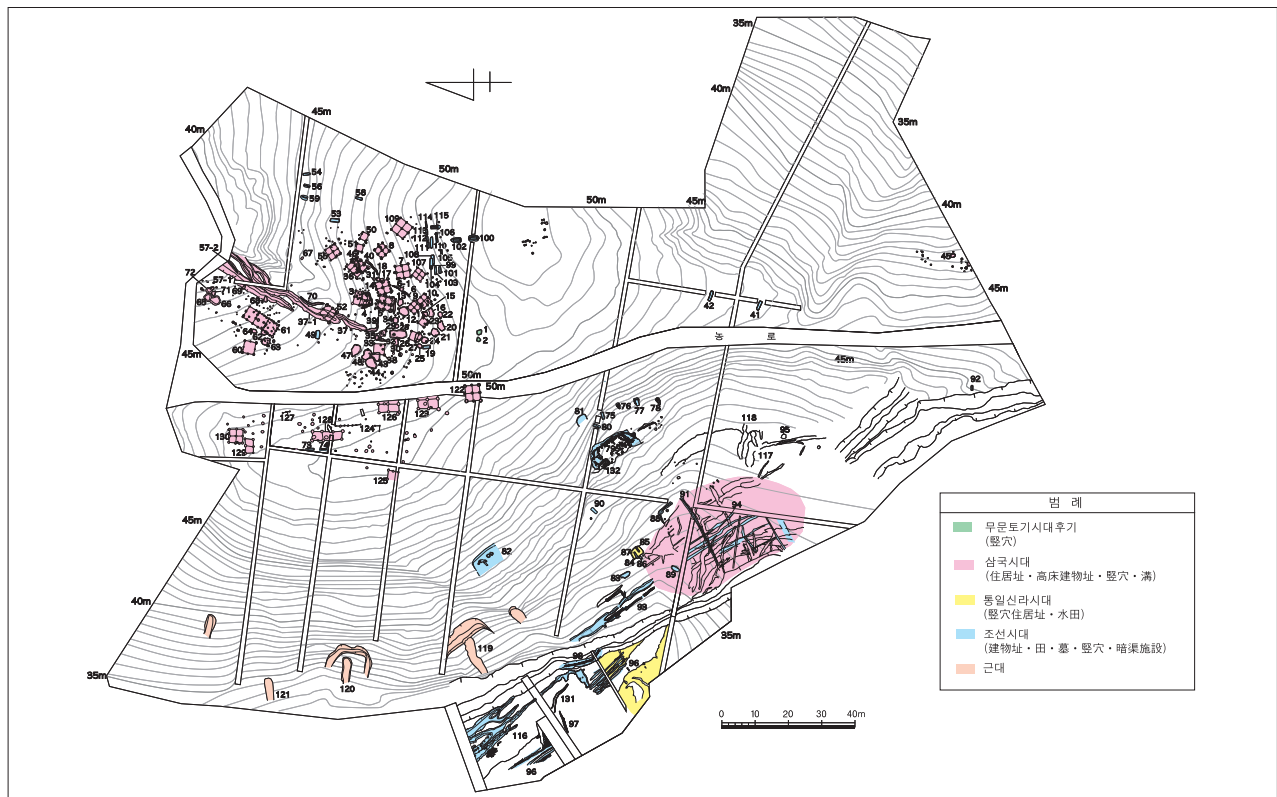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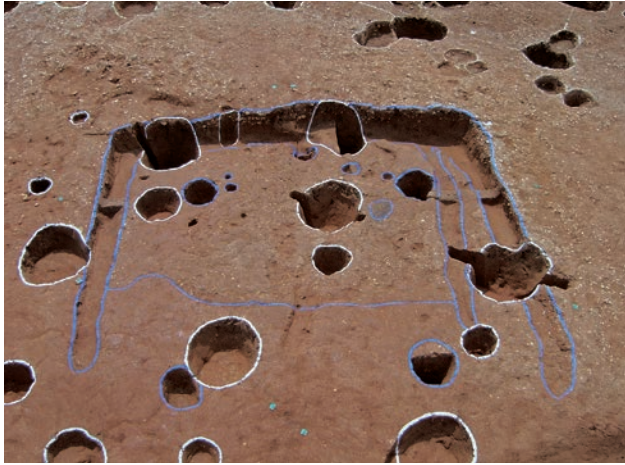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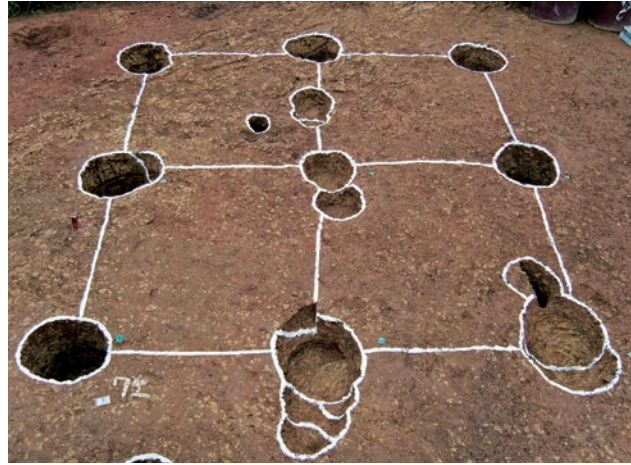
진주 개양유적에 대한 시굴·발굴조사는 2006~2009년 사이 3차례 실시되었는데, 이 중 발굴조사를 실시한 1~5구역 중 2·3·5구역에서 삼국시대 수혈건물지, 고상건물지, 수혈, 수전 등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건물지는 구릉 정상부 평탄면에 대부분 조성되어 있고, 수전은 구릉 사면부에 위치하다가 통일신라시대가 되면서 구릉 말단부로 옮겨간

유적 위치도

다. 그리고 2구역 구릉 정상부와 북쪽 사면 일대에서는 타원형 수혈이 조사되었는데, 각 수혈 안에서는 구연부가 간략화된 원형점토대토기 편, 두형토기, 우각형파수 등 기원전 3~2세기경의 유물이 소량 출토되기도 하였다.

유적 내 삼국시대 수혈주거지는 그 동안 서부경남지역에서 주로 조사된 바 있는 고래(구들) 시설을 갖춘 (장)타원형의 수혈주거지가 아니라, 호남지역, 특히 영산강이나 보성강 유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4주식 말각방형 주거지 2기(2구역 4호·46호)가 조사되어 주목되며, 이 외에는 대부분 고상건물지이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고래(구들)와 주혈이 확인되었다. 2동 모두 주거지의 벽 가장자리를 따라 구를 설치하였으며, 구를 따라 상부에 구들의 벽체, 또는 천정 부재로 보이는 적갈색점토가 관찰되었다. 고래 내부에서는 목탄, 소토가 채워진 상태로 노출되었다. 수혈주거지의 규모는 4~4.4m, 주혈 지름 0.3~0.4m, 주칸 거리 0.9~1m 내외이다.

고상건물지는 2구역 정상부 및 주변에서 24기, 3구역 구릉 사면 말단부에서 5기가 조사되었다. 이 중 2구역 건물지의 구조는 1×1칸, 2×1칸, 2×2칸, 3×2칸 등 다양하나, 이 중에서 정면 2칸, 측면 2칸 구조의 건물이 가장 많은 편이다. 건물지의 면적은 4개 군(Ⅰ군 : 4~6㎡, Ⅱ군 : 6~16㎡, Ⅲ군 : 17~25㎡, Ⅳ군 : 26㎡ 이상)으로 나뉜다. 특히 구릉 정상부의 고상건물지군은 거의 비슷한 면적을 갖는 3개 군으로 수렴되며, 이 중 20㎡ 내외가 가장 많다.

3구역에서 조사된 5기의 고상건물지는 2구역 건물지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조성된

2구역 유구 배치도

4호 수혈주거지

7호 고상건물지

것으로, 평균 면적은 25㎡ 내외이고, 구조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장방형 건물지가 다수이다. 주혈 지름은 커지고, 각 주혈 간격은 좁아진다.

한편, 2구역 구릉 사면부에서는 삼국시대 수전이 조사되었다. 수전의 형태는 계단식 수전으로, 논둑과 수구, 작물 식재흔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구릉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수전의 단위 면적이 넓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즉 경사면을 이용한 계단식 수전을 조성하면서 경사가 급한 곳은 논둑 간 차이를 좁게 하고, 경사가 완만한 곳은 논둑 간 차이를 넓게 한 것이 특징인데, 단차를 보이는 곳 중 소구가 확인되는 부분이 취배수구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수전 주변의 구릉 말단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수전이 확인되었고, 곡저면에서는 조선시대 수전도 조사되었다.

이상의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및 수혈유구, 수전 등 각 유구에서는 고배, 개배, 장동옹, 장경호, 동이 등 각종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각 유물의 형식으로 보아 유적의 존속시기는 5~6세기 전후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진주 개양유적은 진주 일원에서 확인된 3~5세기대의 (장)타원형 수혈주거지 중심 취락을 시간적으로 계승하는 5~6세기대의 고상건물지 중심 취락으로서, 삼국시대 마을의 구조와 생활모습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삼강문화재연구원, 2011, 『진주 개양 유적-경전선 제10공구 건설구간 내 유적 시·발굴조사-』.

25

진주 옥방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대평리 675-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대학교박물관 / 1999.3.~19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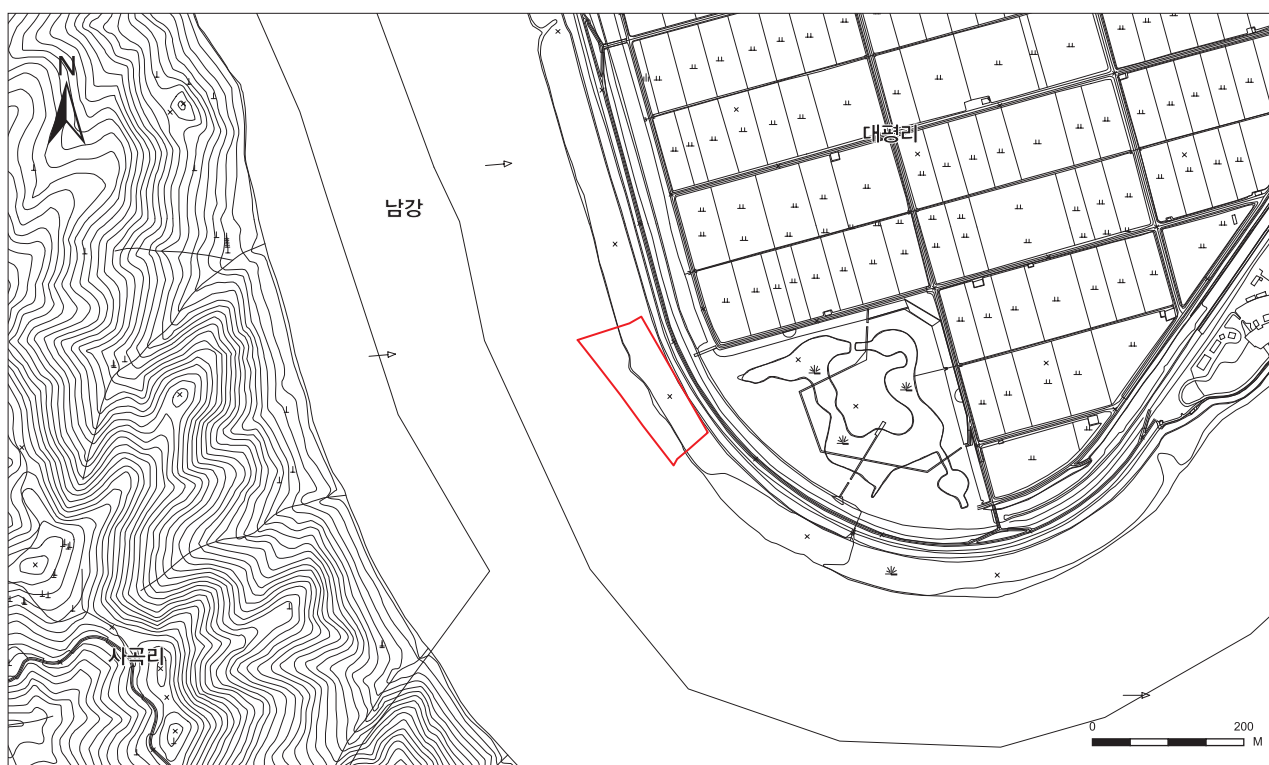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경작지 / 회청색경질토기 편, 연질토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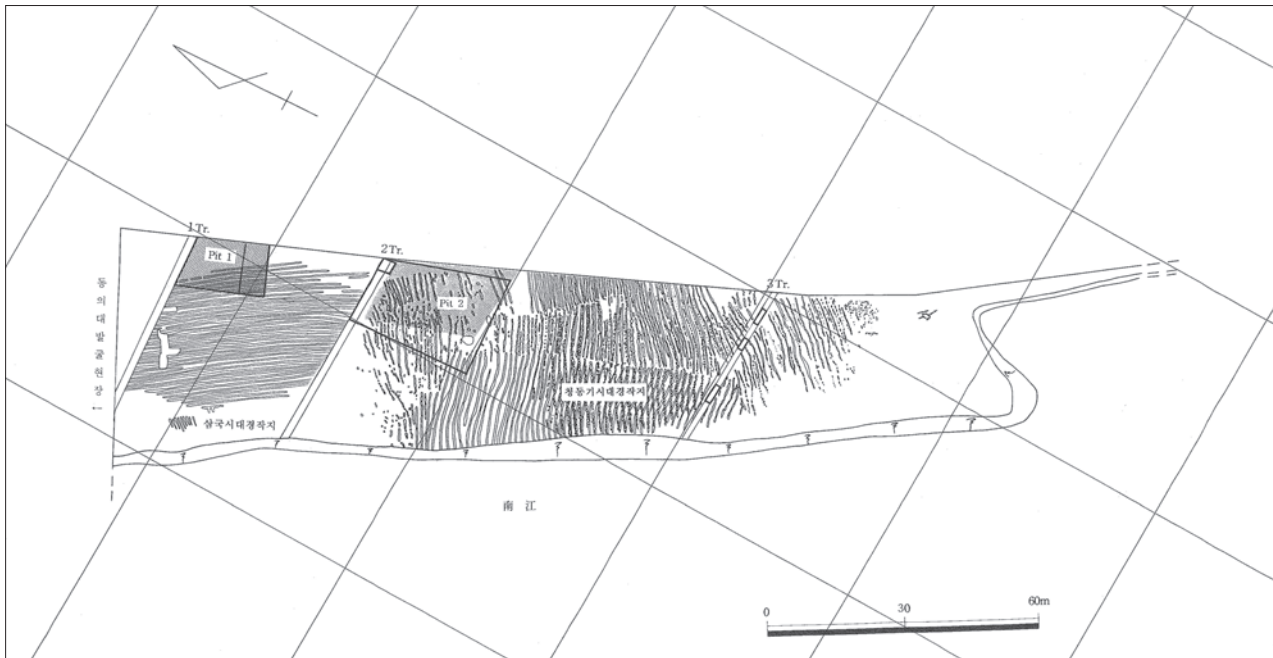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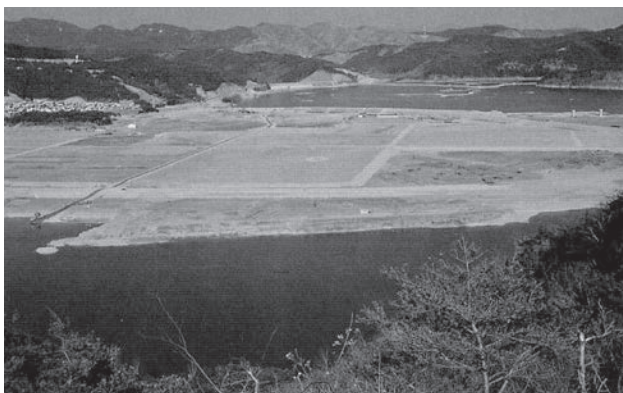
진주시 서부의 대평리 옥방마을의 남서쪽에 있는 생산유적이며, 남강 중상류역 동안에 형성된 충적대지에 분포한다. 유적은 북쪽에서 서쪽으로 남강이 흐르면서 비교적 넓은 충적지를 형성하고 있다.

1999년 남강댐 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동아대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근대로부터 청동기시대에 이르는 경작지를 확인하였다.

삼국시대의 경작유구는 전체유적의 북서쪽에 국한하여 확인되었다. 경작유구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강의 흐름과 나란하게 조성되어 있었고, 경작지의 고랑과 이랑이 강물의 흐름과 나란한 긴 직선상을 이루고 간격도 일정하였다. 이랑과 이랑 사이의 폭은 80~90㎝이고, 둑의 폭은 50~60㎝이다. 조와 수수로 추정되는 탄화곡물들이 출토되었고, 출토된 유물은 적갈색연질토기 편과 회청색경질토기 편등이 있으며, 대체로 6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편년되고 있다.

유적 위치도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취락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주변 지역과 비교하여 5~6세기경 남강 유역의 경작문화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생산유적으로 청동기시대~삼국시대 경작지가 함께 확인되어 남강의 자연제방을 따라 오랜 기간에 걸쳐 유적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문헌

동아대학교박물관, 2002, 『진주 옥방유적-남강댐 수몰지 구내-』.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삼국시대 경작지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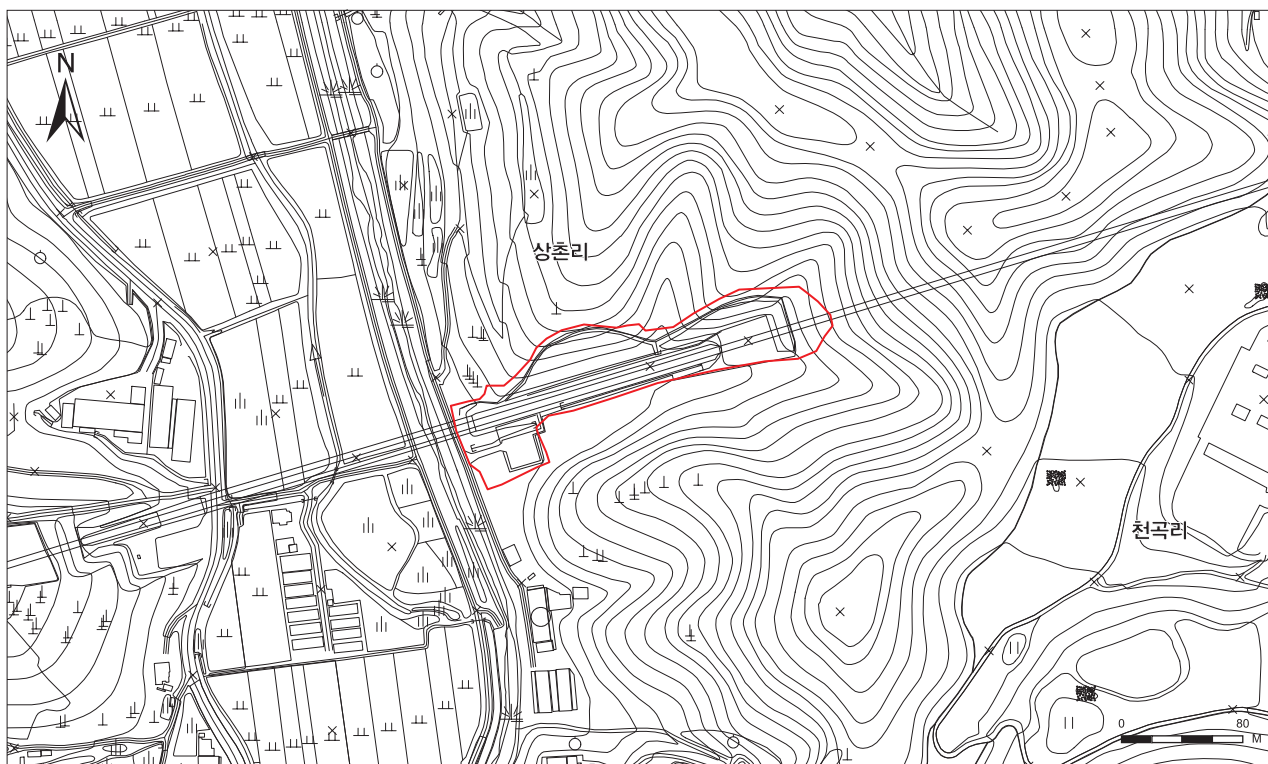
진주 상촌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137-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삼강문화재연구원 / 2007.12.~2008.8.

주요 유구 / 유물
토기 가마, 탄요 / 고배, 개, 장경호, 단경호, 대부호, 파배, 개배, 기대, 소형기대, 광구소호, 연질옹, 양이부완, 연질발

유적은 월아산(해발 202m)과 보잠산(해발 186m)에서 뻗어나온 지맥을 따라 형성된 낮은 구릉의 남사면에 위치한다. 발굴조사는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3개의 구릉과 평지 구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확인된 유구는 삼국시대 토기 가마 8기, 탄요 3기, 수혈 2기와 조선시대 토광묘 47기, 건물지 2기, 수혈 6기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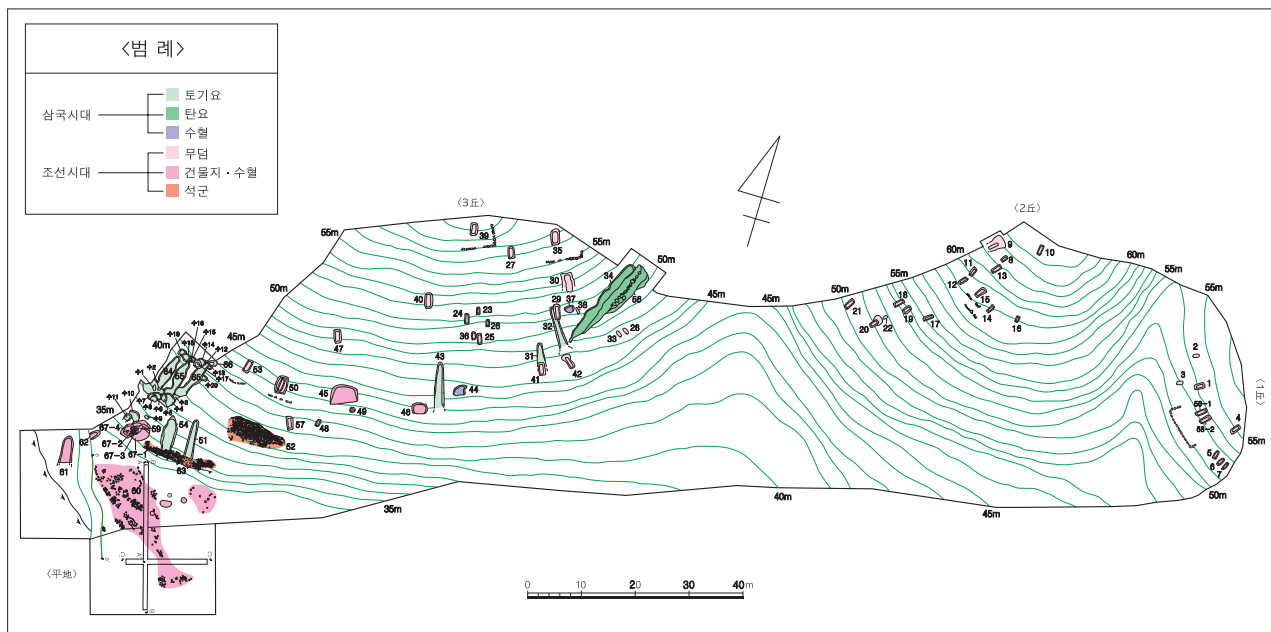
토기가마는 8기로, 3구릉의 동사면에 2기, 남사면에 1기, 서사면에서 5기가 분포한다. 가마의 구조는 32, 43, 54, 55, 64호는 지하식, 51호는 반지하식등요로 굴착되었다. 지하식 토기가마의 잔존규모는 길이 6.9~8.0m, 너비 1.7~2.2m 내외, 잔존깊이 0.7~1.0m 정도이고, 내부 바닥시설은 무단식이며, 연소부와 아궁이의 연결 형태는 외고내저형으로 추측된다. 벽체는 점토와 짚을 섞어 구축하였고, 조업회수는 3~4차례 정도로 추정된다. 반지하식토기가마의 잔존 규모는 길이 7.7m, 너비 0.9~1.5m 내외, 잔존깊이 0.5m 정도이고 유물은 다량의 대호 편이 출토되었다.

유적 위치도

주목되는 점은 51호 토기가마는 다른 가마들과 구조가 다르고 다량의 대호 편이 출토되어 대호 전용 토기가마로 추정되고 31호, 65호 토기가마는 바닥과 벽면에서 소결, 피열흔이 확인되지 않아 미사용 토기가마로 추정된다.

토기가마에서 출토된 유물은 400여 점인데 주요기종은 고배, 개, 장경호, 단경호, 대부호, 파배, 개배, 기대, 소형기대, 광구소호, 연질옹, 양이부완, 연질발 등 소가야 고분과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전 기종을 생산했음을 알 수 있다.

상촌리토기가마는 출토유물로 보아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경에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고분과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전 기종을 생산하던 가마로 향후 소가야 토기의 생산과 유통관계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삼강문화재연구원, 2010, 『진주 상촌리유적-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 구간(9공구) 내 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전경

32호 토기요

55호 토기요

경남중부·서부지역 가야 유적 목록

창원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24-2	창원 ○○부대 개발사업부지(1구역) 내 유적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16~17)	117
24-3	창원 ○○부대 개발사업부지(2구역) 내 유적	생활	해동문화재연구원(2016)	123
25	창원 중동유적 -창원 중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내 유적	무덤, 산업·생산	동서문물연구원(2009~10)	126
26	창원 반계동유적	무덤	창원대학교박물관(1996~97)	129
27	창원 차용동 산11-2번지 유적 -주한미군기지 마산AD 내 유적	생활	영남문화재연구원(2013)	132
28	창원 봉림동 생활유적 -창원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구간 내 유적	생활	해동문화재연구원(2010)	134
29	창원 봉림동유적 -창원 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부지 내 유적	생활, 산업·생산	한국문물연구원(2008~10)	136
30	창원 용동 46번지 유적	생활	경상문화재연구원(2015~16)	139
31	창원 사림동유적 -경전선 제3공구 구간 내 유적	교통·통신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6~07)	142
32	창원 용호동유적	생활	두류문화재연구원 (2015)	145
33	창원 신방리 405-1·421번지 유적	생활	한국문화재재단 (2010~13)	148
34	창원 신방리유적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12~13)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4~15)	151
35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생활, 산업·생산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5~07)	155
36	창원 용잠리유적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09~10)	159
37	창원 봉산리유적	생활	국립김해박물관(2007~09)	162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38	창원 동전리 452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생활	삼도문화재연구원(2017)	164
39	창원 외동유적 -창원 외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생활	경남문화재연구원(2003)	166
40	창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지 내 유적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12)	169
41	창원 가음정동유적	생활	창원대학교박물관(1994)	171
42	창원 가음정동패총	생활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0~91)	174
43	창원 가음정공원 다목적구장 조성부지 내 유적	생활	해동문화재연구원(2016~17) 경남문화재연구원(2017)	177
44	창원 가음정 복합유적	생활, 산업·생산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5~09)	181
45	창원 창곡유적	생활, 산업·생산	경남문화재연구원(1999)	184
46	마산 우산동유적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07~08)	187
47	마산 진동유적(사적 제472호)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4~06)	189
48	진해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유적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4~17)	191
49	진해 석동유적 -진해 석동 주택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생활	경남문화재연구원(2000)	194
50	진해 남양동유적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08)	196
51	신항만부지 안골 일대 유적	생활	창원대학교 박물관 (1999)	198
52	진해 용원유적	생활	동아대학교박물관(1994)	200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53	창원 창곡·완암동 유적 -창원 국도 2-25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구간 내 유적	생활	해동문화재연구원(2010~12)	203
54	창원 성산패총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사적 제240호)	정치·국방	우리문화재연구원(2016)	206
55	창원 마천유적 -웅동~장유 국도 건설공사구간 내 유적	교통·통신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0~11)	209

함안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1	함안 말이산고분군(사적 제515호)			214
1-1	함안 도항리 가야고분군	무덤	창원대학교박물관(1986)	217
1-2	함안 암각화고분	무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1991)	219
1-3	함안 마갑총	무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1992)	222
1-4	함안 도항리고분군 -1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1992)	225
1-5	함안 도항리고분군 -2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1993)	228
1-6	함안 도항리고분군 -3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1994)	231
1-7	함안 도항리고분군 -4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1995)	234
1-8	함안 도항리고분군 -5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1996)	237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1-9	도항리·말산리유적	무덤	경남고고학연구소(1997~98)	240
1-10	함안 말산리 451-1번지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2)	243
1-11	함안 도항리 6호분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5)	245
1-12	함안 도항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5)	249
1-13	함안 도항리 6-1호분	무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5~06)	251
1-14	함안 도항리고분군 -도항리 428-1번지 유적	무덤	경상문화재연구원(2009)	253
1-15	함안 말이산 100·101호분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4)	256
1-16	함안 말이산 21호분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4~15)	260
1-17	함안 말이산고분군 제25·26호분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15)	263
1-18	함안 도항리 527번지 말이산고분군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16)	266
2	함안 남문외고분군 11호분(경상남도기념물 제226호)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4~15)	268
3	함안 오곡리유적			271
3-1	함안 오곡리유적	무덤	창원대학교박물관(1994)	273
3-2	함안 오곡리유적 -함안 도시계획시설지구 내 유적	무덤	경남문화재연구원(2005)	275
3-3	함안 오곡리 87번지 유적 -함안 엘엔피아파트 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05~06)	277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22	함안 회산리 산251-2번지 안곡산봉수대	정치·국방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7)	353

의령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1	의령 죽전리고분군(경상남도기념물 제100호)	무덤	경상문화재연구원(2009)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0)	358
2	의령 중동리고분군(경상남도기념물 제189호)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93~94)	361
3	의령 운곡리고분군(경상남도기념물 제222호)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98)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5)	364
4	의령 운암리유적 -의령 칠곡~가례간 국도 건설공사구간 내 유적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07)	367
5	의령 천곡리고분군	무덤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1995~96)	369
6	의령 예둔리분묘군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92~93)	372
7	의령 오천리고분군 -오천산업 공장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2)	375
8	의령 유곡리고분군 2호분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7)	378
9	의령 경산리고분군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2000) 극동문화재연구원(2016)	381
10	의령 마쌍리·산남리유적 -의령~대의간 국도건설공사 구간 내 유적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9~10)	384
11	의령 율산리토기가마 -의령 율산지구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지구 내 유적	산업·생산	해동문화재연구원(2011)	387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12	의령 호미산성(경상남도기념물 제101호)	정치·국방	경상문화재연구원(2009)	390

진주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1	진주 옥봉고분군 -진주 옥봉 금산공원 옆 도시계획 도로부지 내 유적(경상남도기념물 제1호)	무덤	동서문물연구원(2007)	396
2	진주 귀곡동 귀동유적	무덤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1997)	398
3	진주 귀곡동 대촌유적	무덤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1997)	400
4	진주 가좌동고분군			402
4-1	진주 가좌동고분군 1~4호분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88)	404
4-2	진주 가좌동 산39-6번지 유적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지구(1단계-2구역) 내 유적	무덤, 생활	경상문화재연구원(2014~17)	406
4-3	진주 가좌동고분군과 취락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지구(1단계-1구역) 내 유적	무덤,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6)	408
5	진주 국도2호선~혁신도시간 도로확장구간 내 유적	무덤	경상문화재연구원(2015)	410
6	진주 화개리고분	무덤	경상문화재연구원(2010~11)	412
7	진주 가곡고분군	무덤	동서문물연구원(2009)	414
8	진주 무촌유적			416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15	진주 가좌동유적 -진주 가좌2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유적	생활	경남고고학연구소(2002) 경남문화재연구원(2002~03)	453
16	진주 가호동유적 -진주 가호지구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08~09)	456
17	진주 소문리유적			459
17-1	진주 소문리유적 -진주 소문리 779번지 공동주택 건립부지 내 유적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07)	461
17-2	진주 소문리유적 -진주혁신도시 건설부지(10지구) 내 유적	생활	해동문화재연구원(2010~11)	464
18	진주 창촌리유적	생활, 무덤	삼강문화재연구원(2007)	466
19	진주 가산리유적 -진주 진성~이반성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 내 유적	생활	경남문화재연구원(2002~03)	469
20	진주 중천리유적			472
20-1	진주 중천리유적 -진주 중천리 공동주택 건립부지 내 유적	생활	우리문화재연구원(2006~07)	474
20-2	진주 중천리유적 -진주 중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 내 유적	생활	한국문물연구원(2008~09)	476
21	진주 월평유적 -진주~집현간 4차선도로건설구간 내 유적	생활, 제의	경남문화재연구원(2000~01)	478
22	진주 내촌리유적	생활	동아대학교박물관(1996~97)	481
23	진주 상평동유적	산업·생산	우리문화재연구원(2010)	484
24	진주 개양유적	산업·생산, 생활	삼강문화재연구원(2008~09)	486
25	진주 옥방유적	산업·생산	동아대학교 박물관(1999)	489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26	진주 상촌리유적	산업·생산	삼강문화재연구원(2007~08)	491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Ⅱ
Archaeological Research on Gaya Ⅱ

총괄 김삼기

기획 강동석, 정인태, 민경선, 김지연, 권지현

집필 권귀향, 권종호, 김주호, 심종훈, 이세영, 이해수, 최경규

편집·교정 강동석, 정인태, 김태희, 김형철, 문정희, 박지연,
윤다혜, 이명훈, 이현아, 정지왕, 정진희

발행일 2018년 11월 30일

발행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56
055-211-9000
http://nrich.go.kr/gaya

북디자인 예맥

발간등록번호 11-1550160-000040-01
ISBN 978-89-299-1412-7 94910
978-89-299-1408-0 (전7권)

이 책은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Collections of Data on Gaya

Archaeological Research on Gaya II

Ga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9 788929 914127
94910
ISBN 978-89-299-1412-7
ISBN 978-89-299-1408-0 (전7권)